2016年

京畿鄕土史學

第21輯

다산 정약용 선생 사당(문도사)

京畿道文化院聯合會

京畿鄉土史學

第21輯

京畿道文化院聯合會

발간사

경기도문화원연합회
회장 염 상 덕

경기도 31개 시,군문화원의 향토사학자들이 주축이 되어 매년 발간되는 경기향토사학이 올해로 21집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경기도의 고대사부터 근현대까지 아우르는 다양한 역사의 소재를 찾아 발품을 팔아가면서 연구하시는 분들의 노고가 그대로 묻어나는 소중한 저서입니다.

연구하신 자료들은 여기서 머무르지 않고 지속가능한 사업의 형태로 전개될 수 있도록 기획되어야 하고 그것들이 모여서 경기도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계기가 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정체성을 확립하는 지역브랜드 활성화를 통해 지역의 문화정책과 문화관광 및 지역학연구의 소자(素子)가 될 것입니다. 흙 한줌, 돌맹이 하나에 소중한 의미를 부여하여 글로, 자료로 가치를 만들어주신 경기향토문화연구위원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매년마다 경기향토사학을 발간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남경필 경기도지사님과 정기열 경기도의회 의장님께도 깊은 감사의 마음을 표합니다.

경기도문화원연합회는 역사와 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보존을 통해 애향심을 고취하고 나아가 경기도민의 화합과 단결에 기여하고자 앞으로도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며, 언제나 앞장설 것입니다. 경기향토문화연구위원들의 열정과 소신이 있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다시 한 번 〈경기향토사학 제21집〉이 발간되기 까지 열정적으로 조사, 발굴해 주신 연구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2016. 12

경기도문화원연합회

회장 염상덕

목차

한성백제의 도성변천에 대한 연구	이강범	7
매초성. 과연 어디인가?	이준용	53
한말 정미의병의 서울진공작전과 삼산리전투	이복재	69
남양주에 잠든 사대부들의 사당을 찾아서	엄중오	101
밀양변씨 공장공파 세장지 향토지명 연구	양경직	147
안성의 선비정신과 전통교육기관의 재조명	홍완표	195
시흥시의 한국양명학 연구	이병권	221

한국의 봉수 현황	윤종준	267
청주 양문의 포천 입향과 인물	최창근	277
18세기 실학사상의 영향과 문체반정의 피해자 이옥	정찬모	293
명산도정 묘역 4형제 합정묘의 역사성 연구	홍정덕	337
다락원(누원점) 이야기	최영희	373
도시화에 따른 용인지역 민속의 변화와 과제	김장환	405
식경	이명수	427

한성백제의 도성변천에 대한 연구

이 강 범 (하남 향토사연구소장)

목 차

Ⅰ. 서 론
Ⅱ. 백제의 처음 도읍지는 지금의 남한산성
1. 백제의 처음 도읍지 선정과정
2. 한산의 위치
3. 부아악의 위치
4. 하남위례성(河南慰禮城)은 지금의 남한산성(南漢山城)
Ⅲ. 하북위례성설(河北慰禮城說)에 대한 비평(批評)
1. 하북위례성설의 발단과 경과
2. 하북위례성설의 허구성(虛構性)
3. 온조 14년(BC5) 한산 아래로 천도 후 왕은 줄곧 한강 남쪽에 있었다
Ⅳ. 한산 아래로 천도한 남한산성은 지금의 이성산성
Ⅴ. 당초의 남한산성(南漢山城:이성산성) 이름이 주장성(晝長城:지금의 남한산성)으로 옮겨간 이유
Ⅵ. 하남시지역의 백제 때 지명은 남한(南漢)
Ⅶ. 근초고왕의 한산이도(漢山移都)
1. 한산이도(漢山移都)의 이유
2. 천도(遷都)와 이도(移都)의 의미
3. 이도 기간 중 이성산성을 석성(石城)으로 축성한 것이다
4. 하북(河北)으로는 이도(移都)할 형편이 아니었다
Ⅷ. 한성백제(漢城百濟) 2경체제설(二京體制說)의 부정확성
Ⅸ. 개로왕(蓋鹵王)시대의 북성(北城)과 남성(南城)
Ⅹ. 금암산 석실 고분군 발굴
Ⅺ. 결론

집필자
이 강 범 하남 향토사연구소장

Ⅰ. 서 론

백제(百濟)는 삼국사기(三國史記)[1]에서 BC18년 온조(溫祚)일행이 한산(漢山)의 부아악(負兒岳)에 올라 주변지형을 살펴보고 도읍하기에 매우 적당하므로 나라 이름을 십제(十濟)라하고 그곳에 도읍을 정하니 그곳이 하남위례성(河南慰禮城)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처음 도읍지에 대한 사학자들의 견해는 지금까지도 통일되지 못하여 여러 갈래의 주장이 난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편승하여 온조14년(BC 5) 한산아래(漢山下)로 천도한 이후의 한성백제의 도읍지에 대하여도 크게 서울의 풍납토성설(風納土城說)과 하남의 춘궁동설(春宮洞說)이 양립하여 충돌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우리나라 삼국시대 역사기록에서 가장 사실과 구체성에서 최고의 정사(正史)로 평가 받고 있는 삼국사기의 기록을 토대로 그동안 연구되어온 백제 초기도읍지와 한성백제 도성에 관한 여러 갈래 이론의 진위와 합당성을 검토하고 삼국사기 기록과 실재의 지형, 유적, 유물 등의 연관성을 추적하여 종합적인 필자의 견해를 제시함으로써 진실 된 역사의 토대를 마련하고자한다. 이를 위하여 온조 일행이 새로운 나라를 열고자 언제 어떠한 경로를 거쳐서 왔으며 그들이 도읍지 선정을 위해 올랐던 한산의 부아악에서 주변지형을 관망하였는데 한산과 부아악은 지금의 어디이며 그 주변지형은 어떠하였기에 천혜의 도읍지라고 판단하여 그곳에 도읍을 정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등 당시 도읍지 후보지에 대한 현지답사와 재가(裁可)과정의 행적을 추적하여 기록에 나타난 북대한수(北帶漢水)의 지형과 하남위례성(河南慰禮城)의 이름이 가지는 의미의 핵심을 규명하여 백제가 한강 남쪽에서 건국하였음을 명확히 밝히고자한다. 아울러 종래 하북위례성설(河北慰禮城說)에 함몰된 일부 학자들의 왜곡된 역사인식의 허구성(虛構性)을 지적하여 백제 최초 도읍지는 현재의 남한산성일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도출하고자 한다.

한편 고려사 및 세종실록지리지에서 온조 14년에 한산 아래로 천도한 '옛 남한산성'은 지금의 이성산성으로 이성산성이 '남한산성(南漢山城)' '남한성(南漢城)' '한성(漢城)'이라는 호칭을 가지는 근거를 제시하여 한성백제의 도성은 풍납토성이 아니고 하남의 춘궁동 지역임을 밝히고 이후 371년 한산이도(漢山移都)의 성격과 475년 한성함락 시 북성과 남성에 대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Ⅱ. 백제의 처음 도읍지는 지금의 남한산성

1. 백제의 처음 도읍지 선정과정

1) 삼국사기 백제본기 온조왕조

1) 온조의 세계(世系)와 고구려를 떠난 이유

삼국사기 백제본기 온조왕 조(條)에는 온조의 신상에 대하여 크게 세 가지로 열거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주몽이 북부여(北夫餘)로부터 어려움을 피해 졸본부여(卒本夫餘)에 이르렀을 때 졸본부여 왕에게는 아들이 없고 세 딸만 있었는데 주몽을 보고 보통사람이 아닌 것을 알고 둘째 딸을 그의 아내로 삼아주어 두 아들을 낳았는데 큰아들이 비류(沸流)이고 둘째 아들이 온조라고 한다.

두 번째는 비류와 온조는 주몽이 졸본부여에 도착해 월군녀(月郡女)에게 장가들어 낳은 두 아들이라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의 이야기가 비교적 상세한 내용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온조의 아버지 우태(優台)는 북부여왕 해부루(解扶婁)의 서손(庶孫)이며 어머니 소서노(召西奴)는 졸본사람 연타발(延陁勃)의 딸로 처음에 우태에게로 시집가서 아들 둘을 낳았는데 맏이가 비류이고 그 다음이 온조이다. 소서노는 우태가 죽자 졸본에서 혼자 살다가 뒤에 주몽이 부여에서 용납되지 못해 전한(前漢) 건소(建昭) 2년 (BC37) 봄 2월에 남쪽으로 탈출해 졸본에 이르러 도읍을 세우고 국호를 '고구려' 라고 하고 소서노를 왕비로 삼았다. 주몽은 소서노가 나라의 기틀과 왕조를 창건하는데 자못 내조가 컸으므로 그녀를 총애함이 두터웠고 비류와 온조에 대하여도 친아들인양 하였다. 이렇게 세 가지 이야기를 함께 싣고 온조가 주몽의 아들인지 우태의 아들인지에 대하여는 어느 것이 옳은지 모르겠다고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필자는 세 번째 기록인 우태의 아들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본다. 그 이유는 기록의 전개가 매우 구체적으로 주몽이 비류와 온조를 친아들인양 하였다 함으로써 친아들이 아님을 명백히 하여 친 아들인 유리왕자가 나타나자 그를 태자로 책봉함으로서 온조와 소서노 일행이 고구려를 떠나지 않을 수 없었던 이유가 명확하게 드러나기 때문이다. 그 내용을 보면 삼국사기 고구려 본기 동명성왕 19년(BC 19)조(條)에서는 '4월에 왕자 유리(類利)가 부여로부터 그의 어머니와 함께 도망해 고구려를 찾아왔는데 왕이 기뻐하며 그를 태자로 세웠으며 9월에 왕이 승하하니 나이가 40세였다.' 하는 기록이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 하는 속담처럼 친아들 유리가 오자마자 바로 태자책봉 이라는 파격적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아 비류와 온조가 만약 친아들이었다면 부인 소서노의 역할과 내조의 공을 보아서라도 그렇게 빨리 유리를 태자로 세우지는 못하였을 것이며 또 삼국사기 백제본기 온조왕 조에서 유류(孺留)[2]가 고구려에 돌아와 태자가되고 왕위에 오르자 비류는 아우 온조에 이르기를 '처음에 대왕께서 부여에서의 환란을 피해 이곳에 왔을 때 우리 어머니가 집안의 재물을 쏟아 부어 나라의 창업을 이루었으니 어머니의 수고로움과 공로가 많았던 것

2) 유류(孺留):삼국사기 백제본기에서는 유류(孺留)로 고구려 본기에서는 유리(類利)로 표기하고 있으나 동일인물로 고구려 2대 유리왕(瑠璃王)을 이른다.

이다. 그런데 대왕께서 세상을 뜨시자 나라가 유류에게 돌아가니 우리들이 공연히 여기 있으면서 군더더기 혹처럼 암울하고 답답하게 지내느니 보다는 차라리 어머니를 모시고 남쪽으로 가서 땅을 점쳐 따로 나라의 도읍을 세우는 것이 나을 것이다. 라고 하여 마침내 아우와 함께할 무리들을 거느리고 패수(浿水)와 대수(帶水)를 건너 미추홀에 와서 살았다.'고 기록함으로서 비류와 온조는 부여 왕족의 후예로서 고구려에서 친형제도 아닌 유리왕 밑에서 구차하게 얹혀살기보다는 새로운 나라를 다시 세우기 위하여 남하한 것이 어쩌면 자연스럽고 당연한 순리의 결정이었다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2) 온조가 떠나온 오녀산성(五女山城)은 어떤 곳인가?

오녀산성은 중국 요령성 환인현 오녀산에 위치하고 있다. 이 산성은 광개토왕비에서는 홀본성(忽本城)이라고 하였고 삼국유사에서는 졸본성(卒本城)이라 하였으며 고려사에서는 오로산성(五老山城) 또는 우라산성(于羅山城)으로도 표기하고 있다. 이 산성은 고구려 시조 추모왕(鄒牟王)인 주몽(朱蒙)이 BC37년 압록강 지류인 혼강(渾江)유역에 오녀산성을 쌓고 나라를 세운 이후 서기 3년(유리왕22) 길림성(吉林省) 집안(集安)에 소재한 국내성(國內城)으로 천도하기 까지 약 40여 년간 고구려 도성으로 사용된 고구려의 처음 도성이다. 이 산성의 지형은 해발 약 800m의 산정상에 위치하여 사방을 멀리까지 조망 할 수 있다. 그리고 둘레는 약 200m 높이의 천연 암벽으로 둘러싸여 있어 외부에서 접근하기 어려운 자연지형으로 필요한 위치에는 석성을 둘렀기 때문에 도성방어에 매우 유리한 지형이다. 성 안에는 직사각형에 가까운 남북 길이 약 600m 동서길이 130-300m의 비교적 평탄한 지대가 펼쳐져 있고 심한 가뭄에도 마르지 않는 풍부한 수량의 천지(天池)라는 샘이 있어 식량만 있으면 장기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공간의 확보가 가능한 곳이다.

여기서 오녀산성의 지형이 백제 최초도성 선정에 중요한 이유는 온조 일행이 주몽과 함께 처음 오녀산성에 도읍하여 고구려 개국에 성공하였던 경험이 있는 성임으로 온조 일행이 남쪽으로 내려와 도성을 정할 때 1차적으로 선택코자했던 도성선택의 모델은 오녀산성과 닮은 지형을 선호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는 추론(推論)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것은 주몽과 함께 그곳에서 고구려를 건국하고 20여 년간 나라의 기틀을 다지는데 성공한 소중한 경험의 자산을 오녀산성에서 축적하였다는 노하우를 지니고 있는 것이다.

3) 온조는 언제 미추홀(彌鄒忽)로 왔는가?

위의 기록을 종합하면 온조는 형 비류와 함께 BC37년 고구려 건국이후 왕실에서 주몽과 함께

왕자의 대우를 받으며 살았는데 추모왕(동명성왕) 19년 (BC19) 4월에 추모왕의 친아들 유리가 찾아와 태자가 되고 9월에는 추모왕이 세상을 뜨자 온조 형제의 위치가 불안하게 되었다 이에 비류는 어머니 소서노를 모시고 남쪽으로 내려가 새 나라를 세우고자 하였는데 아마도 그 해에는 왕실을 떠나기 어려웠을 것이다. 우선 왕실을 떠나려면 비류왕의 승인을 얻어야 할 것이므로 비류왕을 설득하는데 시간이 필요하였을 것이고 함께 떠날 동조자를 확보하는 데에도 시간이 필요하며 이동에 필요한 자금과 장비를 준비하여야 하였으며 남쪽지방에 대한 정보의 축적이 필요하였다. 더군다나 당시의 도읍이었던 졸본산성(卒本山城)은 오늘날 중국 요령성(遼寧省) 본계시(本溪市) 환인현(桓仁縣)의 오녀산성(五女山城)으로 겨울철이 빨리 오는 북부지방으로 음력 9월이면 겨울이 시작되는 시기이므로 혹한기를 앞두고 원행을 단행하기는 여의치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그곳 오녀산성을 출발한 것은 아무래도 이듬해(BC 18) 해동(解冬) 후인 음력 3월초가 유력시 된다고 본다. 3월 초 출발한 온조 일행은 약 1개월 정도 걸려 패수(浿水)[3]와 대수(帶水)[4]를 건너 지금 인천지방인 미추홀(彌鄒忽)[5]에 당도하여 형 비류를 중심으로 나라를 세울 준비에 들어간 것이다.

4) 미추홀에서 도성(都城) 후보지 물색

미추홀에 도착한 온조와 비류일행은 얼마동안 주변지형을 탐색하고 특히 나라를 세울 도성의 위치를 어디로 할 것인가에 대하여 이리 저리 좋은 곳을 물색하였을 것이다. 아마도 1차 후보지로 물색하고자 한 곳은 그들이 고구려에서 처음 나라를 세운 경험이 있었던 오녀산성의 지형과 유사한 곳을 탐색하였을 것이라는 것은 능히 짐작할 수 있는데 우선 외부 침입자가 접근하기에 용이하지 않고 멀리까지 조망이 가능하여 유사시 도성방어에 유리한 높은 지형이면서 군사와 백성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평탄한 구릉지역과 풍부한 식수가 있으며 인근에 다수의 백성이 거주하는 농

---

3) 패수(浿水): 고조선 때에는 중국과의 경계를 이루던 강을 지칭하였다. 사기(史記) 조선전(朝鮮傳)에 의하면 한(漢)나라는 중국을 통일한 뒤 요동지방의 옛 요새를 수리하고 패수를 요동과 고조선과의 경계로 삼았다고 한다. 그 뒤 패수가 줄곧 중국세력과의 경계선이었다는 것은 위만조선 말기에 한나라의 사신 섭하(涉河)가 우거왕(右渠王)을 만난 뒤 귀국길에 자신을 호송하던 관리를 살해하고 도망한 장소가 패수였다는 점에서 짐작이 가능하다. 그러나 17세기 초에 한백겸(韓百謙)은 동국지리지(東國地理志)에서 청천강에 비정(比定)하였으며 그 뒤 이병도(李丙燾)가 상세히 고증하였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패수를 압록강으로 보기도 하고 또는 요서지방의 대능하(大凌河) 또는 난하(灤河)로 보는 경우도 있다.
현재 사학계는 대동강이나 청천강을 패하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예)삼국사기 백제본기 기원전6년(온조13년) 백제북쪽경계선을 패수(浿水)로 한 것은 지금의 예성강(禮成江)을 이르고 735년(신라경덕왕3년)에 당나라가 정식으로 신라영토를 공인한 '패강 이남의 땅'에서의 패강(浿江)은 지금의 대동강을 지칭한다.(한국 민족문화 대백과)

4) 대수(帶水): 좁은 강(江)이라는 뜻도 있지만 여기서는 한강 등 특정한 강을 지칭하는 용어로 추정된다.(필자 주)

5) 미추홀(彌鄒忽): 지금의 인천지역(한국 고중세사 사전)

경지가 함께 있으면 금상첨화일 것이다. 이를 위하여 사전에 여러 경로를 통하여 이와 같은 지형을 수소문하였을 것이 분명하다고 주장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지형을 찾기 위하여 주변일대에 사정이 밝은 부족장(部族長) 등을 통하여 여러 곳을 물색한 후 그 중에서 한산이라는 후보지가 가장 유력시 되어 먼저 수하 장군이나 도성후보지 물색 최고 책임자가 사전에 현지를 답사한 후 적격하다고 판단되어 최종 결정권자인 비류와 온조의 결심을 구하기 위하여 유력 신하들과 함께 후보지인 한산의 부아악에 올랐다고 추정하는 것이 합리적 사고의 범주에 속할 것이다. 이러한 추정이 가능한 것은 삼국사기 백제본기 시조 온조왕 기록에 '마침내 한산에 이르러 부아악(負兒岳)에 올라 살만한 땅을 찾아 둘러보았는데...' 라고 하여 비류 온조를 비롯한 열 명의 신하 등이 동행한 것을 보면 이리저리 아무 곳이나 돌아다니다가 한산에 온 것이 아니라 사전에 여러 지역을 물색한 끝에 최종적인 재가를 얻고자 인천에서 한산까지 그들의 수장인 비류와 온조를 대동하였던 것이 분명해 진다고 할 것이다.

5) 온조 일행은 인천에서 부아악으로 간 것이다.

비류와 온조는 먼저 미추홀(彌鄒忽)에 도착하여 도읍할 곳을 물색하다가 한산(漢山)이라는 곳이 물색되어 비류와 온조 그리고 열 신하와 함께 한산(현 남한산성)이라는 목적지를 향해 인천에서 강을 건너지 않고 한산까지 가서 한산의 최고봉인 부아악(현 남한산성 서장대)에 올라 사방을 둘러보았는데 이때 비류는 열 신하의 말을 듣지 않고 바닷가에 살고자하여(沸流欲居於海濱) 자기 백성을 나누어 미추홀로 간 것이다. 비류일행이 고구려의 산간 오녀산성(졸본성)에서 살다가 미추홀에서 잠시 살아보니 오녀산성과 비슷한 한산이 도성 방어에는 더할 나위 없이 좋으나 백성들이 살기에는 미추홀이 더 낫다고 생각한 것이다. 이는 비류 본인이 얼마동안 미추홀에서 지내온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한 것이요 생판 바닷가에는 살아보지 못하였다면 바닷가를 주장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또 바닷가 중에서도 미추홀로 갔다는 것은 비류와 온조가 전술한 우태와 소서노의 자식임이 더욱 분명함을 대변해 주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때 비류와 온조 일행이 한산에 도착할 때의 그 한산은 도성선정(都城選定)의 가부결정(可否決定)을 하기위한 목적으로 그곳에 온 것이 분명하며 그렇다면 한산(漢山)이라는 의미는 어떠한 지역이름이 아니라 특정한 지역에 우뚝 솟은 어느 산의 이름이었음이 분명해 진다고 할 것이다. 또한 백제가 건국할 당시 한산이라는 행정구역명은 존재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지역명(地域名)으로 자리 잡은 때는 신라가 이 지역을 점령한 이후의 일로 보아야 한다.

6) 최종후보지 한산(漢山)

이러한 여러 후보지 중 가장 유력하게 검토된 장소가 한산(漢山)이었던 것 같다. 즉 미추홀(인천)에서 한산까지 와서 답사한 것이다. 온조 일행은 한산에 도착하여 부아악이라는 봉우리에 올라[6] 살만한 땅을 찾아 둘러보았는데 여기서 비류는 한산 후보지 보다는 그들이 처음 도착한 바닷가에 나아가 살기를 원하였다. 이에 함께 따르던 열 명의 신하는 '이곳 하남의 땅'[7]이 천연의 요충과 토지의 이로움을 갖춘 아주 적절한 장소임을 들어 '이곳에 도읍을 세우는 것이'[8] 마땅하지 않겠느냐고 간하여 말하였는데 비류는 여기서 신하들의 말을 듣지 않고 비류를 추종하는 백성을 나누어 미추홀로 가서 살았다. 여기에서 '온조는 비류를 따라가지 않고 신하들의 건의에 따라 하남위례성(河南慰禮城)에 도읍하여 열 명의 신하를 보좌로 삼아 나라이름을 십제(十濟)라 하여 개국하니 이때가 기원전 18년이었다.' 라고 삼국사기는 기록하고 있는 것이다. 이 자리에서 비류는 신하들의 건의를 물리치고 인천으로 돌아가자고 고집을 피웠는데 온조와 신하들은 이미 이곳이 합당한 장소임을 사전에 검토하고 실제 와서 보니 천연의 요충과 토지의 이로움이 하늘이 내려준 축복의 땅으로 생각하고 비류를 따라가지 않았는데 당시 신하들도 비류와 온조를 중심으로 추종세력이 상당부분 양분되어 있었으며 신하들로 부터의 신망역시 온조가 우세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온조 세력에 열 명의 신하가 거론된 반면 비류를 추종한 신하는 하나도 거명되어있지 않으며 특히 어머니 소서노(召西奴)가 온조를 따라 하남위례성에 잔류한 것으로 보아 온조의 세력이 더 우세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비류와 온조의 나이는 20대 중 후반으로 추정[9]되며 어머니 소서노는 49세이었다.

---

6) 삼국사기 백제본기 제1 시조 온조왕 편: 수지한산 등부아악(遂至漢山 登負兒岳) .마침내(遂:마침내 수)한산에 이르러(至:이를 지, 도착 지) 부아악에 올랐다.'고하여 온조 일행이 한산이라는 산에 도착하여 부아악이라는 봉우리에 올랐음을 명시(明示)하고 있다.

7) 삼국사기 백제본기 제1 시조 온조왕 편:十臣諫曰 惟此 河南之地(십신간왈 유차 하남지지) '열 명의 신하가 간하여 말하기를 생각해보건대(惟:생각할 유) 이곳(此:이쪽 차) 하남의 땅은' 이라고 함으로서 그들이 오른 한산의 부아악(負兒岳)이라는 봉우리는 한강 이남에 있는 산임을 명확히 하여 한산과 부아악이 한강 이남에 소재하였음을 알 수 있고 결국 그 곳에 도읍을 정하였으므로 하남위례성(河南慰禮城) 즉 한강 남쪽에 있는 백제왕성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8) 삼국사기 백제본기 제1 시조 온조왕 편:作都於斯 不亦宜乎(작도어사 불역의호) '이(斯:이쪽 사)곳에 도읍하여 살게(於:살 어, 거할 어)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겠습니까?'라고 신하들이 간하여 말하였음으로 백제가 처음 도읍한 하남위례성은 한산(漢山)의 부아악(負兒岳)에서 처음 도읍하였음을 밝히고 있다.

9) 소서노를 기준으로 한 비류 온조의 나이: 소서노는 온조13년(BC6년) 2월에 61세로 별세(삼국사기 온조13년 편)하였으므로 역 추정하면 백제건국(BC18)시에 49세, 고구려 건국(BC37)시에 30세, 전 남편 우태 사망시(BC40 홀로 3년 살았다고 가정) 27세, 온조 출산(BC42 우태사망 당시 3세로 추정)은 25세, 비류출산(BC45 온조와 3살 터울 추정)22세가 된다.
그렇게 추정하였을 때 백제 건국할 당시 비류는 (BC45-18)28세, 온조는 (BC42-18)25세가 된다.

2. 한산의 위치

1) 한산(漢山)은 지금의 남한산(南漢山)

조선시대 홍경모가 편찬한 광주부지인 중정 남한지(重訂 南漢志)[10]의 성지(城池)편에는 '한산(漢山)은 지금의 일장산(日長山)[11]이라고 하여 한산이 지금의 남한산임을 명확히 하였고 온조고성(溫祚古城)을 금암산(金巖山) 북쪽 10여리에 불룩 솟은 토산(土山)으로 이름이 이성산성지(二城山城址)[12]라고 하는데 지금도 성(城) 자취가 완연하다.'라고 하여 온조고성(溫祚古城)이 한산의 한 줄기인 지금의 하남의 이성산(二聖山)임을 밝히고 있다. 한산이라 함은 현재 남한산에서 뻗어 내린 동일 맥이 닿고 있는 모든 산을 일컬으며 그 대표적 주맥은 하남 쪽으로 뻗어 내린 금암산 이성산 줄기의 좌청룡능선과 벌봉 객산 줄기의 우백호능선이 이어진 U자(字)형 산맥이 그 중심축을 형성하고 있다. 이 양 능선의 가운데가 현재 하남시 대부분으로 춘궁동과 이성산성을 중심으로 한 한성 백제의 본거지인 남한(南漢)이며 백제의 도읍지를 이어받은 신라의 신주(新州)이고 한산주(漢山州)이며 한주(漢州)의 주치(主治)였는데 이는 한산(漢山)이 존재하였기 때문에 한산주와 한주의 이름이 생긴 것이다.

고려시대에는 광주목(廣州牧) 봉국군(奉國軍) 양광주(楊廣州) 신경기(新京畿)의 치소(治所)가 되었던 곳이며 조선조에서도 광주부(廣州府)의 관아가 1626년(인조4)남한산성으로 옮겨가기 전까지 존치하였던 곳이다. 이러한 주변지역의 중심도시 유지현상은 로마제국은 멸망하였어도 로마라는 도시는 살아있듯이 나라는 망해도 도시는 이어진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으로 한성백제의 도읍이었던 지금의 하남이 장구한 세월동안 지역 중심도시의 역할을 이어온 이유이며 몽촌토성이나 풍납토성지역과 차별화되는 본보기이기도 한 것이다.

한편 삼국사기 백제본기 온조왕 13년 7월 '한산 아래로 나아가 목책을 세우고 위례성백성들을 옮기고 온조왕 14년 정월 수도를 옮겼다'고 하였고 삼국유사(三國遺事) 왕력(王歷)편에서는 '병진년 온조왕14년에(기원전5) 한산(漢山)으로 도읍을 옮겼는데 지금의 광주(廣州)이다.'[13]라고 하였

---

10) 남한지(南漢志):남한지는 1846년(헌종12) 광주부윤(廣州府尹)겸 수어사(守禦使)였던 관암(冠巖) 홍경모(洪敬謨:1774-1851)가 편찬한 광주지역의 지지(地志)로서 1779년(정조3) 서명응(徐命膺)이 수어사 재직 중 왕명을 받고 착수하여 미완에 그친 남성지(南城志)를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과 중국사서(中國史書) 등 여러 사서와 지리지를 참조하여 수정 보완하여 편찬한 사찬읍지(私撰邑誌)로 삼국시대이후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군사 문화 등 다각적인 내용을 포괄하고 있다. 1862년(철종13) 중정본(重訂本:내용을 거듭 수정하여 발간한 책)이 13권 6책으로 필사본으로 간행되어 현재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다.

11) 일장산(日長山):현재 남한산의 또 다른 이름. 주장산(晝長山) 또는 청량산(淸凉山)이라고도 불렀다.

12) 이성산성지(二聖山城趾) 하남시 춘궁동에 소재한 옛 성터로 이성산(二聖山) 정상부에 있다.

13) 병진 이도한산 금 광주(丙辰移都漢山今廣州)

고 고려사 권제 56 17장 광주목편에는 '처음 백제시조 온조왕이 한나라 성제 홍가3년에 나라를 세워 위례성에 도읍하였다가 13년 한산아래(漢山下)에 나아가 책을 세우고 위례성 민호를 옮겨 궁궐을 세우고 살다가 다음해 도읍을 옮기고 이름을 남한산성이라 하였다.'[14]하여 온조 14년에 천도한 곳은 지금의 하남시 춘궁동에 소재한 이성산성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는 이성산성이 한산 아래의 작은 봉우리로 여기에 목책을 세우고 위례성 민호를 옮긴 백제의 두 번째 도읍인데 그 성의 이름을 당초에는 남한산성이라고 한 것이다. 이에 대하여 과거학자들의 논고를 상기해보면 다산(茶山) 정약용(丁若鏞)[15]이 온조 14년 천도한 위례성을 광주고읍(廣州古邑)인 춘궁동(春宮洞)으로 비정(比定)한 이래 고산자(古山子) 김정호(金正浩)는 대동지지(大東地志)에서 춘궁동 일대에 왕성이 있다고 표시하였고 이병도(李丙燾)[16]는 하남위례성과 한산을 춘궁동에 비정하였고 성주탁(成周鐸)[17]은 한성을 춘궁동 일대에 차용걸(車勇杰)[18]은 하남위례성을 몽촌토성과 이성산성사이로 최몽룡(崔夢龍)과 권오영(權五榮)[19]은 한성을 춘궁동 한산을 이성산성으로 각각 비정하였고 윤무병(尹武炳)[20]은 하남위례성을 이성산성에 비정하였으며 구민회(具敏會)[21]는 백제의 도읍은 남한(南漢)지역으로 지금의 춘궁동지역임을 밝히고 있다. 또한 일제강점기에는 당시 일본의 대표적 사학자인 이마니시 류(今西龍)는 백제의 도읍지를 춘궁동 일대로 보고 이성산성을 백제 개로왕 때의 북성(北城)으로 현재의 남한산성을 남성(南城)으로 보았는데 이는 한산의 소재를 현재 남한산(南漢山)으로 비정한 결과라 할 것이다.

한편 한산기슭에는 절터가 무수히 많은데 1530년 발간된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 광주목(廣州牧) 불우(佛宇)조에는 약정사(藥井寺) 봉수사(奉水寺) 신복선사(神福禪寺)가 모두 한산에 있다고 명기하고 있는데 이들 세 사찰의 터가 한산의 서쪽줄기인 현재 하남시의 금암산 주변지역에 분포하고 있음이 명문기와 출토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한산의 동쪽줄기의 산기슭에도 법화사(法華寺) 천왕사(天王寺) 선법사(禪法寺) 태평이년명 마애약사불좌상(太平二年銘磨崖藥師佛座像) 교산동토성 교산동왕궁지 사막골 절터등 많은 유적이 산재하고 있어 한산은 남한산을 정점으로

14) 初 百濟始祖溫祚王 以漢成帝鴻嘉三年建國 都于慰禮城 至十三年 就漢山下 立柵移慰禮城民戶 遂建宮闕居之明年遷都號南漢山城

15) 정약용(丁若鏞): 강역고 권3 위례고(疆域考卷三慰禮考), 여유당전서(與猶堂全書)

16) 이병도(李丙燾): 1981 위례고(慰禮考), 근초고왕 척경고(近肖古王拓境考). 한국 고대사 연구(韓國古代史研究)

17) 성주탁(成周鐸): 1984 한강유역 백제초기 성지연구(漢江流域百濟初期城址研究), 백제연구(百濟研究)14, 1985 도성(都城), 한국사론(韓國史論)15, 국사편찬위원회

18) 차용걸(車勇杰): 1981 위례성(慰禮城)과 한산(漢山)에 대하여 향토(鄕土)서울 39

19) 최몽룡(崔夢龍) 권오영(權五榮): 1985 고고학적 자료를 통해 본 백제초기의 영역 고찰. 천관우 선생 환역기념 한국사학논총(千寬宇先生還歷紀念韓國史學論叢)

20) 윤무병(尹武炳): 1994 한강유역에 있어서의 백제문화연구. 백제연구15

21) 구민회(具敏會): 1956 남한비사(南漢秘史)

아래로 뻗어 내린 산 전체를 말하며 백제초기에는 한산에 딸린 작은 산들은 아직 이름이 없었던 시대이므로 이성산처럼 작은 봉우리는 한산 아래(漢山下)로 지칭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2) 한산(漢山)은 지역이름이 아니고 특정한 산(山)을 지칭한 것이다.

삼국사기에서 거론하는 한산(漢山)은 산이 소재한 주변지역 전체를 의미하는지 아니면 한산이라는 이름의 특정한 산에 국한하는지는 해석의 큰 차이가 있다.

필자는 한산의 기록이 하나의 독립된 특정한 산에 국한하는 용어로 해석한다. 그 이유는

첫째 백제가 건국할 당시에는 한산(漢山)이라는 행정구역명이 존재하지 않았다. 한산주(漢山州)가 생긴 것은 604년(신라 진평왕4)의 일로 보아야 한다. 신라는 551년(진흥왕12) 나제동맹(羅濟同盟)으로 백제와 함께 고구려로부터 한산주변의 옛 백제도성지역을 탈환하여 백제의 옛 땅이므로 백제가 차지하였으나 2년 후인 553년(진흥왕14) 동맹관계를 파기하고 백제로부터 한산이 있는 한강유역의 중부지역을 빼앗아 백제의 한성이 있었던 지금의 하남시 이성산성 주변 춘궁동(옛 廣州)에 신주(新州)를 설치하였는데 이것이 4년 후인 557년에 북한산주로(北漢山州)로 558년에는 남천주(南川州)로 604년에는 다시 북한산주로 고쳤다가 한산주(漢山州)로 최종 확정되었다. 그 뒤 757년(경덕왕16)에 지명(地名)을 당나라식으로 한문 두 글자로 개편할 때 한주(漢州)로 하였는데 그 뒤에도 한산주의 명칭은 계속 사용되었다. 이는 한산이 백제의 한성(漢城)이 소재하였던 곳으로 한산(漢山)이라는 이름의 산이 소재하고 있었기에 생겨난 이름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한산주라는 지역이름은 백제를 건국할 당시에는 없었기 때문에 건국당시의 한산은 지역이름이라고 할 수 없고 특정한 별개의 산의 이름이다.

둘째 한산을 중심으로 지역의 위치를 표시하였다. 삼국사기에서는 특정한 지역을 거론할 때 한산이라는 산을 중심으로 위치를 표시하였다. 백제가 한성에 도읍하고 있을 때인 온조왕부터 개로왕까지의 한산에 대한 기록을 살펴보면

- 온조왕 1년(BC18) '마침내 한산에 이르러(도착하여) 부아악에 올라..' (遂至漢山登負兒嶽)
- 온조왕 13년(BC6) '7월 한산 아래로 나아가 목책을 세우고 위례성 백성들을 옮겼다.' (就漢山下立柵移慰禮城民戶)
- 온조왕 27년(서기9) '4월 두 성(원산 금현)이 항복해 그 주민들을 한산 북쪽으로 옮기니 마침내 마한은 멸망하였다.' (二城降移其民於漢山之北馬韓遂滅)
- 온조왕 43년(25) '10월 남옥저(南沃沮)의 구파해(仇頗解)등 20여 가구가 복종해 오니 왕이 받아들여 한산 서쪽에 안치하였다.(南沃沮仇頗解等二十餘家至爸壤納款王納之安

置漢山之西)

- 기루왕 27년(103) '왕이 한산으로 사냥을 나가 신록(神鹿)을 잡았다.' (王獵漢山獲神鹿)
- 개루왕 4년(131) '4월 왕이 한산에서 사냥을 하였다.' (王獵漢山)
- 근초고왕 26년(371) '겨울(10-12월) 도읍을 한산으로 옮겼다.' (移都漢山)
- 침류왕 2년(385) '2월 한산에 가람을 창건하고 승려 열 명에게 도첩을 주었다.' (創佛寺於漢山度僧十人)
- 아신왕 7년(398) '8월 왕이 장차 고구려를 치려고 군사를 출동시켜 한산 북쪽의 목책에 이르렀다.' (王將伐高句麗出師至漢山北柵)
- 비유왕 29년(455) '3월 왕이 한산에서 사냥하였다.' (王獵於漢山)

여기에는 총 10회에 걸쳐 한산의 어휘가 나오는데 모두 한산은 특정한 산을 언급하고 있다.

3. 부아악의 위치

1) 부아악(負兒嶽)은 지금의 남한산(南漢山) 수어장대(守禦將臺)가 있는 봉우리

삼국사기 백제본기 시조 온조왕 조(條)에서는 '마침내 한산에 이르러 부아악에 올라 살만한 땅을 찾아 둘러보았다. 비류가 바닷가에 살고자하니..'[22]라고 하여 온조 일행이 살만한 땅을 찾아 한산의 부아악에 올랐다고 기록하고 있으나 그 살만한 땅의 핵심은 미추홀에서 도읍을 세울만한 땅을 찾아 한산에 갔던 것이라는 것은 이미 전술하였다. 그러면 부아악은 지금의 한산 어느 곳을 이르는 것이냐가 대단히 중요하다. 필자는 온조 일행이 올랐던 부아악은 다음의 이유를 들어 지금의 남한산 수어장대가 있는 봉우리로 비정(比定)한다.

2) 부아악(負兒嶽)의 어원(語源)은 백제어(百濟語)로 송악(松嶽)이라는 뜻

근래에 백제어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도수희(都守熙) 교수는 부아악의 원형을 '부ᄉᆞ압'으로 보고 아(兒)의 고대 음이 'ᄉᆞ'이기 때문에 '부ᄉᆞ'는 솔(松)을 뜻하며 '압'은 악(岳)을 뜻하여 송악(松岳)이라는 뜻이라고 하였다.[23] 이는 부아악(負兒嶽)이라는 뜻이 부아산(負兒山:아기 업은 山形)의 의미를 담은 한어지명(漢語地名)[24]이 아니라 음차표기지명(音差表記地名)[25]이며 그 음형(音形)이 '부ᄉᆞ' 즉 솔(松)로 소나무 우거진 봉우리에 올랐다는 해석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종래

22) 수지한산 등부아악 망가거지지 비류욕거 어해빈(遂至漢山登負兒嶽望可居之地沸流欲居於海濱)
23) 도수희 '한흘시대의 백제 말을 찾아서' 2011 위례문화/하남문화원
24) 한어지명(漢語地名): 땅의 의미를 한자로 표시한 지명
25) 음차표기지명(音差表記地名): 소리 나는 대로 한문자로 옮겨 쓴 지명.

(從來)의 부아악의 고착된 의미를 근본적으로 뒤집는 새로운 패러다임(paradigm)의 변화로 하북위례성을 주장하는 학자들이 산형의 모양이나 삼각산(북한산)의 예전이름이 부아악(負兒嶽)이었다는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부아악을 지금의 북한산으로만 해석하여 백제의 첫 도읍지가 북한산 부근으로 잘못 비정되는 관계로 삼국사기에서 첫 도읍지로 기록한 북대한수의 하남위례성이 하남(河南:한강 남쪽)땅도 아니고 북대한수(北帶漢水)의 땅과 정 반대의 땅인 남대한수(南帶漢水)의 강북 땅에 도읍하였다는 하북위례성설을 제기함으로써 수많은 오류와 혼돈을 수반하게 한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하였던 것이다. 지금도 남한산의 수어장대 부근에는 유난히 푸른 솔을 간직한 지대(地帶)로 남아있지만 온조 일행도 한산의 우뚝한 송림 우거진 수어장대 봉우리에 올라 사방을 조망하며 도읍으로 정할 마땅한 땅인가를 저울질하였던 것이다.

4. 지금의 남한산성 수어장대부근에서 바라본 사방의 지형이 삼국사기에 기록된 부아악에서 바라본 지형이다.

온조 일행이 부아악에 올라 살만한 땅(도읍으로 정할 곳)을 찾아 둘러본 결과 열명의 신하가 간하여 말하기를 '생각해 보건대 이 하남(河南)의 땅은 동서남북이 천연의 요충과 땅의 이로움이 있어 얻기 어려운 형세이므로 이곳에 도읍을 세우는 것이 합당하지 않겠습니까?'[26] 하여 그곳에 도읍하니 그곳이 바로 하남위례성이요 때는 기원전 18년의 일이라고 명기하고 있다. 특히 이 대목에서 유차하남지지(惟此河南之地)라 하여 '생각해 보건대'(惟:생각할 유) '이곳 (此:이쪽 차) 하남의 땅은'이라고 함으로써 한산과 부아악이 한강의 남쪽 지역에 있음을 명확히 하여 그들이 정한 첫 도읍지 하남위례성은 강남에 있기 때문에 하남위례성이라고 명명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작도어사불역의호(作都於斯不亦宜乎)라 하였으니 '이곳에 도읍을 세우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라고 함으로써 도읍을 세워(作都)이곳에 살게(於:살 어. 거할 어. 斯:이쪽 사)하자는 문구는 도읍을 다름이 아닌 부아악 이곳에 세우자는 열 신하의 간곡한 주청인 것이다.

1) 북대한수(北帶漢水)

'북쪽으로 한강이 허리 띠(帶:허리띠 대)를 두르고 있다'고 한 것은 수어장대 부근에서 북쪽을 바라보면 오른쪽 검단산과 팔당 사이로 처음 나타난 한강 줄기는 미사동을 지나 남양주 구리를 거

26) 삼국사기 백제본기 온조왕 조: 십신간왈 유차하남지지 북대한수 동거고악 남망옥택 서조대해 기천험지리 난득지세 작도어사 불역의호(十臣諫曰 惟此河南之地 北帶漢水 東據高岳 南望沃澤 西阻大海 其天險地利 難得之勢 作都於斯不亦宜乎)

쳐 방향을 남쪽으로 틀어 워커힐을 지나 광진교를 거쳐 잠실교와 성수대교에 이르기 까지 그 모양이 마치 사람의 오른쪽 허리에서 둥글게 배를 감싸면서 왼쪽 허리에 닿았으니 허리를 휘감아 돌려매는 허리띠모양을 하고 있다고 함으로써 사실과 부합하는 매우 절묘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한강이 북쪽에 있음을 나타내는 말이지만 수어장대 부근에서만 느낄 수 있는 어휘구사(語彙驅使)이며 다른 지역에서는 도저히 그러한 모양이 만들어 지지 않는 것이다. 예를 들어 현재 하남시 평지 지역에서 북 쪽을 보면 한강이 무릎 아래에서 빨래 줄처럼 일자로 흐르고 있으며 풍납토성에서 보면 북쪽의 한강은 잘 보이지 않고 오히려 발아래 서쪽방향에서 한강이 남북으로 스쳐 흐르다가 다시 서쪽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북대한수(北帶漢水)라는 표현을 쓸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북대한수는 남한산 수어장대 부근에서만 표현 가능한 유일한 문구임을 필자는 강조한다.

2) 동거고악(東據高岳)

'동쪽으로 높은 산악에 의지하고 있다'고 하였는데 남한산의 동쪽 성곽을 따라 수어장대 부근에서 동쪽을 바라보면 남양주 예봉산에서 검단산과 뒤쪽의 용문산 벌봉 또 뒤쪽으로 무갑산과 용인쪽으로 이어지면서 태화산 문형산 등 일단의 연봉들이 뭉쳐 이어져 거의 일직선으로 대단히 험준한 높은 산악지대처럼 시야에 들어온다. 이들 동쪽의 대단히 험준한 고봉들은 남한산 수어장대의 봉우리를 압도한다. 여기에 동쪽 벌봉에서 북측 성곽을 따라 수어장대로 이어지는 능선은 마치 험준한 큰 산악에 기대어 의지하고 있는 형상이 여지없이 나타난다. 이러한 현상도 수어장대 부근에서만 나타나는 기이한 현상의 하나로 이 표현 역시 더할 나위없는 사실성을 바탕으로 한 적절한 표현이며 하남이나 풍납동의 평지지역에서는 도저히 구사될 수없는 어휘라는 것을 현장에서만 실감할 수 있다. 따라서 남한산의 수어장대 지역에서 동쪽을 바라본 지형의 절대표현이 동고거악이었던 것이다.

3) 남망옥택(南望沃澤)

'남쪽으로 기름진 들이 바라다 보인다.' 하였는데 남한산의 수어장대에서 남문인 지화문(至和門)밖 방향을 조망하면 성남의 분당지역과 대왕비행장 등 서광주(西廣州)평야지대가 바라다 보인다. 이 표현 역시 절묘한 사실성을 바탕으로 한 언어적 표현이다. 남한산성에서 서광주 평야가 보이는 것은 남한산의 임야지역을 건너서 평야가 펼쳐지므로 산 넘어 그곳이 보인다는 것을 바라다 보인다(望:바라볼 망)로 아주 적절히 표현한 것이다. 이 또한 하남의 춘궁동지역 평지에서는 남쪽에 남한산으로 막혀있어 남쪽으로 평야 자체가 보이지 않으며 풍납동에서는 남쪽으로 평야가 펼쳐졌으나 어떠한 중간

장애물이 없이 평야와 연접해 있으므로 (羅:벌릴라) 남라옥택(南羅沃澤) 등으로 표현 하였을 것이다.

4) 서조대해(西阻大海)

'서쪽은 큰 바다에 막혀있다.'고 하였는데 예전부터 남한산 수어장대에서는 맑은 날 인천앞바다가 보인다고 알려져 왔으며 당시에는 공기오염의 문제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더욱 인천바다가 쉽게 조망이 가능하였을 것이다. 특히 온조 일행은 인천에서 출발하여 한산에 도착한 것이므로 서쪽이 바다에 막혀있음은 이미 알고 있던 차였다. 예전 필자가 어릴 때 수어장대 서쪽 성 가까이 평탄한 지대에 이승만 대통령 송수탑(訟壽塔)이 있었는데 그곳에서도 서해바다가 보인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이렇듯 동서남북의 지형설명에서 온조 일행이 올랐던 부아악은 지금의 남한산 정상(頂上)인 수어장대 지역임이 자명해 진다고 할 것이다.

5. 하남위례성(河南慰禮城)은 지금의 남한산성(南漢山城)

백제의 처음 도읍지를 두고 세상에서는 잘못 이해하는 부분이 있다. 삼국사기에서는 온조 일행이 한산의 부아악에 올라 주변을 살펴보고 열 신하의 주청에 따라 천험(天險)의 지리(地利)를 갖춘 그곳에 BC18년 도읍을 정한 곳을 하남위례성(河南慰禮城)이라 하였다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다.

그런데 다산 정약용이 삼국사기의 기록이 잘못 쓰여 졌다며 하남위례성은 온조14년 천도한 하남의 춘궁동지역이라고 하면서 백제의 처음 도읍지는 강북의 서울 혜화문(惠化門)[27]밖 10여 리에 있는 한양동(漢陽洞)이라는 세칭 삼각산동록설(三角山東麓說)이라는 하북위례성설(河北慰禮城說)을 주창한 것이다. 따라서 삼국사기 온조 1년의 기록은 온조 14년 한산 아래 지금의 하남 춘궁동으로 천도할 때의 일이며 삼국사기 편찬 시 사관들이 잘못 기록한 것이라고 주장한 이래 하남위례성이라는 이름이 백제의 두 번째 도읍의 이름으로 왜곡 전파됨에 따른 것이다. 그리고 근래에 와서는 백제의 두 번째 도읍을 몽촌토성이니 풍납동 토성이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어 혼동을 부채질하고 있다.

그러나 삼국사기의 기록을 토대로 추적할 때 하남위례성은 백제의 처음 도읍지인 지금의 남한산성이며 그 궁터는 백제 유물이 출토된 행궁 터가 유력하다.

---

27) 혜화문(惠化門): 한양 도성 4소문의 하나로 속칭 동소문(東小門)아라고도 했다. 15세기 초 서울의 북 대문 인 숙정문(肅靖門)이 폐쇄되면서 혜화문을 북문으로 부르기도 했다. 이 문은 1396년(태조5) 완공되었는데 당시에는 홍화문(弘化門)이라고 했다. 1511년(중종6) 창경궁의 정문인 홍화문(弘化門)과 이름이 같다하여 혜화문으로 고쳤다. -숙정문 폐쇄: 1413년(태종13) 풍수가 최양선(崔揚善)이 지맥을 손상시킨다는 상소로 문을 폐쇄하고 길에 소나무를 심어 통행을 금지하였다. 이후 숙정문은 음행오행가운데 물을 상징하는 음(陰)에 해당하는 까닭에 나라에 가뭄이 들때는 기우(祈雨)를 위해 열고 비가 많이 내리면 닫았다고 한다.

Ⅲ. 하북위례성설(河北慰禮城說)에 대한 비평(批評)

1. 하북위례성설의 발단과 경과

1) 여말부터 조선중기까지의 하북위례성설

하북위례성이라는 말은 하남위례성이 한강 남쪽에 존재함을 나타내는 말인데 반해 이와 상반되는 북쪽에 있었을 것으로 추측하여 만들어낸 말로 우리 역사서에는 없었던 말이다. 고려와 조선 전기의 학자들 중에는 백제의 처음 도읍지가 충남 직산에 있었던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우세하였다. 이는 1281년(고려 충렬왕7)경 보각국사(普覺國師) 일연(一然)스님이 발간한 삼국유사(三國遺事) 왕력 제1의 백제왕조 기록에서 '위례성에 도읍했다. 어떤 말에는 사천이라고도 하는데 지금의 직산이다. 병진년(丙辰年)[28]에 도읍을 한산으로 옮기니 지금의 광주이다.'[29] 라고 하여 처음 도읍지를 직산으로 비정한 것이다.

한편 삼국사기 지리지(地理志)에서는 위례성이 삼국의 미상지명(未詳地名)으로 기록되어있어 삼국사기 편찬 당시에는 직산설(稷山說)이 없었거나 보편화되어있지 않았다고 보아지며 직산설은 삼국사기 편찬 이후에 제기된 학설임이 분명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삼국사기 편찬[30]후 삼국유사 편찬[31]시까지 약 136년 사이에 새로이 제기된 학설로 그 시원은 삼국유사가 처음이다. 조선시대에 들어와서도 1481년(성종12)간행된 동국여지승람에 직산현의 군명이 본래 위례성이었으며 온조가 남하하여 도읍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다. 서거정(徐居正)의 직산제원루시청(稷山濟源樓時廳)[32]에서 서거정은 온조 일행이 부아악에 올라 가거지(可居地)를 살펴본 후 하남위례성에 도읍하였다는 기록과 위례성이 직산이라는 설에 대하여 부아악(삼각산)과 직산과의 거리가 2백리나 되는데 어떻게 살만한 곳인가를 바라보고 터를 잡을 수 있었으며 또 그 하(河)는 어느 하수(河水)를 가리키는가? 하면서 직산위례성설에 대하여 처음에는 의아(疑訝)함을 가지고 있다가 1476년 삼국사절요(三國史節要)를 편찬할 때 제고서(諸古書)를 역고(歷考)하니 역시 직산이 온조의 초도(初都)임에 의심이 없고 거기서 후에 남한산으로 옮기었던 것이라고 하여 직산위례성설에 긍정적 입장을 피력하였다. 그래서 그는 제원루(濟元樓)의 누명(樓名)도 백제의 근원이 이 땅에서 일어

---

28) 병진년(丙辰年):BC 5년(온조 14년)
29) 도위례성 일운사천 금직산 병진 이도한산 금광주(都慰禮城一云사川今稷山丙辰移都漢山今廣州) 사=虫 +也
30) 삼국사기 편찬: 1145(인종23)년경 / 한국민족문화대백과
31) 삼국유사 편찬: 1281(충렬왕7)년경 / 한국민족문화대백과
32) 동국여지승람(권16) 직산현 누정조(稷山縣樓亭條)

났다는 데에서 얻은 이름일 것이라 추론(推論)하였다. 또한 1711년(숙종37) 3월에 착공하여 10월에 끝낸 북한산성 축조당시 동년 2월에 왕이 제신(諸臣)과의 대화에서 북한산이 온조의 구도(舊都)로 천험의 보장지로 위례성임을 언명한 일[33]이 있는데 이는 삼국사기 백제본기 온조왕조에서 온조일행이 부아산에 올랐는데 한강남쪽의 한산이라는 근본을 망각하고 단지 부아악이 삼각산의 인수봉이라고 믿고 그렇게 이야기 한 것에 불과하다.

1745년(영조21)에 승려인 구총섭(舊總攝) 성능(聖能)이 편찬한 북한지(北漢志) 연혁조에는 '북한산은 본시 고구려의 소유였는데 온조가 이를 취하였다'고 기술하고 있는바 이는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의 연혁조(沿革條)를 그대로 옮겨 놓은 것에 불과하지만 이는 잘못된 기록으로 근초고왕 때의 일을 온조로 기술한 것이고 온조14년에 북한성을 축성하였다는 기록도 삼국사기 백제본기 온조왕 14년조의 '한강서북쪽에 성을 쌓고 한성주민들을 그곳에 옮겨 살게 하였다'하는 기록에 근거한 것으로 보이는데 한강서북쪽의 성이 북한산성임은 고증된 사실이라고 할 수 없다. 다만 당시에 북한산성을 온조의 위례성으로 보는 경향이 있었던 것은 분명해 보이지만 이 또한 삼국사기에는 북한산성이 위례성이라거나 온조시대에 축성되었다는 근거는 전무한 실정이며 편찬자의 추리에 불과한 것이다.

온조14년에 한산 아래로 천도하고 지금의 북한산성에 다시 위례성을 축성하였다는 추리도 지금의 북한산성에서 백제초기 유물이 전무함을 보아도 상식을 벗어난 논리임이 분명하다 할 것이다. 직산현에는 1429년(세종11)백제 온조왕묘(溫祚王廟)가 세워진 후 1597년(선조30)정유재란으로 불타 없어지기까지 봄가을로 치제를 해 왔고 그 후 1818년(순조18) 현감 이의선(李義先)이 중수하였는데 1881년(고종18)에 허물어 졌다는 기록이 있다.[34]

그러나 조선 중기에 들어 직산설을 부정하고 위례성이 한강 이북에 존재한다는 이설(異說)이 제기되는데 참봉 이만승(李萬承)이 빈일쇄록(賓日鎖錄)에서 압록강 이북설을 제기하고 이영(李泳)이 목옹지지(木翁地志)에서 한강이북설을 처음 주장하지만 유형원(柳馨遠) 신경준(申景濬) 등에 크게 비판 받았을 뿐 주목을 받지 못하였다.

2) 다산(茶山) 정약용(丁若鏞)의 하북위례성설

정약용은 아방강역고(我邦疆域考)의 위례고(慰禮考)에서 백제의 첫 도읍지가 직산이 아니라 한강이북 삼각산 동록의 혜화문 밖 10여리에 있는 한양동(漢陽洞)이라는 삼각산 동록설(三角山 東

33) 북한내온조구도 이실위천험(北漢乃溫祚舊都而實爲天險)
34) 오세창. 백제초도위례성고(百濟初都慰禮城考) 천안군 1994

簉說)을 제기함으로서 하북위례성설을 구체화하였다. 정약용은 삼국사기 위례관련기록에 대하여 나름의 분석비판을 가하고 있는데 즉 온조 원년의 기록인 '(A) 마침내 한산에 이르러 부아악에 올라 살만한 땅을 찾아 둘러보았다. 비류가 바닷가에 살고자하니 열 명의 신하가 간하여 말하기를'과 '(B) 생각해 보건대 이 하남의 땅은 북으로 한수를 두르고 동으로는 높은 산악에 의거하고 있으며 남으로 기름진 들이 바라다 보이고 서로는 큰 바다에 막혀 있으니 그 천연의 요충과 토지의 이로움이란 얻기 어려운 형세입니다. 이곳에 도읍을 세우는 것이 적당하지 않겠습니까? 비류는 그 말을 듣지 않고 미추홀로 가서 살았다. 온조는 하남의 위례성에 도읍해 열 명의 신하를 보좌로 삼고 나라이름을 십제라 하였다.' 라는 기록 전부를 온조 원년의 이야기로 보지 않고 온조 13-4년의 천도당시의 사실이라고 주장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위 원년의 기록은 온조 13년 조의 '봄 2월에 왕도에서 늙은 할미가 남자로 변하고 다섯 마리의 호랑이가 궁성으로 들어왔다. 왕의 어머니가 죽으니 61세였다. 여름 5월에 왕이 신하들에게 이르기를 (C) 나라 동쪽에는 낙랑이 있고 (D) 북쪽에는 말갈이 있어 우리의 변경 강토를 침범하니 평안한 날이 드물다. 하물며 이제 와서는 요망한 조짐이 거듭 나타나고 국모마저 세상을 뜨시니 형세가 이대로는 안도할 수 없으므로 필시 나라를 옮겨야겠다. (E) 내가 어제 나가서 한수의 남쪽을 돌아보았는데 토양이 기름진지라 그곳에 도읍해 길이 편안할 계책을 도모하는 것이 좋겠다. 라고 하였다. 가을 7월에 한산 아래로 나아가 목책을 세우고 위례성의 백성들을 옮겼다. 8월에 사신을 마한에 보내 도읍을 옮긴다고 알리고 마침내 강역을 획정하니 북으로는 패하에 이르고 남으로는 웅천까지였으며 서로는 큰 바다에 닿고 동으로는 주양에 이르렀다. 9월에 성과 궁궐을 세웠다.'의 기록은 모두 온조 14년 조 '봄 정월에 도읍을 옮겼다'의 기록과 표리관계를 가진 동시의 사실이라고 해석하였다. 따라서 온조 원년의 기록은 온조13년에 한수의 남쪽을 순관 하였을 때의 지리적 형세를 구체적으로 말한 것인데 사신(史臣)이 잘못 구분하여 원년 조에다가 기록하였다는 주장이다.

정약용은 A절과 B절을 지리적으로는 A절은 삼각산으로 B절은 현재 하남의 춘궁동 지역으로 지리적으로 구분하면서 시간적으로는 거의 동시의 상황으로 인식하였다. 즉 온조가 하북위례성(삼각산)에 도읍하고 있을 때 부아악에 올라 한강 남쪽 지금의 하남시 쪽을 바라보고 직접 그곳 한산하(漢山下)에 가서 제신(諸臣)들의 제세론(地勢論)을 듣고 드디어 천도하였다고 본 것이다. 따라서 정약용은 온조와 비류가 BC18년 강북 위례성에서 형제가 힘을 합해 위례성을 쌓고 살다가 13년 후 북쪽 말갈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동쪽으로는 낙랑에게 패하자 한강을 건너 남쪽으로 도읍을 옮기려 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온조 원년에 이미 한강 남쪽에 도읍을 정했다면 어찌 13년 여름에 이르러 '내가 어제 한수 남쪽지역을 가보니 땅이 기름져 마땅히 도읍할 만하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하고 반문하고 있다.

한편 온조17년 '낙랑이 침략해 위례성을 불태웠다'의 기사와 온조 41년 '한수 동북부 여러 부락 가운데 13세(삼국사기에는 15세)이상의 사람을 뽑아 위례성을 수리했다.'의 기사를 두고 남위례(南慰禮)가 도시를 이룬 뒤에도 북위례(北慰禮)를 다시 수리했으니 당시에 남북의 두 곳을 모두 도읍으로 삼은듯하다. 라고 했으며 북위례는 한양 동북쪽 10여리의 삼각산 동쪽 기슭이며 남위례는 광주읍(廣州邑)으로 온조의 옛 궁성이 있어 궁촌(宮村)이라는 이름이 남아있다고 하였다. 아울러 개로왕 때의 북성(北城)은 삼각산 동쪽의 북위례성(北慰禮城)이요 남성(南城)은 개로왕 5년(459년)에 축성한 북한산성(北漢山城)인데 한성백제 멸망당시 왕이 거처하던 성으로 이는 한수 북쪽 산에 의지하여 성을 쌓았지만 그 성이 산위에 있는 삼각산 정상(頂上)의 지금의 북한산성은 아니며 북성인 북위례성 보다 남쪽에 위치하여 남성(南城)이라 한 듯하다. 고 피력하였다.

3) 이병도(李丙燾)의 하북위례성설

이병도는 삼국사기의 백제사에 대한 전반적 부정의 사고를 가지고 있었다. 그는 위례고(慰禮考)에서 백제의 건국태조는 엄밀한 의미에서 8대 고이왕(古爾王)으로 건국연대는 260-1년(고이왕 27-8)경으로 보고 있다. 그러므로 고이왕 이전은 부락국가에 불과한 것이었으며 온조가 처음 십신(十臣)의 보필에 힘입었다하여 국호를 십제(十濟)라고 하였다가 후에 미추홀의 비류를 따르던 백성이 위례로 올 때 낙종(樂從)[35]함으로 백제(百濟)라고 개칭하였다는 말도 말할 것도 없이 부회조작(附會造作)[36]에 불과한 것이다. 라고 폄하(貶下)하였다. 그러면서 삼국유사의 직산위례성설에 대하여 서거정이 당초에 의아(疑訝)[37]를 가지고 접근하다가 삼국사절요(三國史節要)를 편찬할 때에 가서 다시 전래되어 내려온 직산위례성설(稷山慰禮城說)을 옹호한 것은 매우 애석한 일이라 아니할 수 없으며 이는 일고의 가치도 없는 것이라고 부정하면서 직산은 마한의 중심세력인 목지국(目支國)의 소재지였는데 마한이 익산으로 내려간 후 백제의 고도인 위례로 잘못 전해 내려온 결과라고 해석하였다.

한편 북한위례설(北漢慰禮說:북한산성설)에 대해서는 조선 숙종 37년(1711)북한산성축조 당시 왕이 제신들과의 대화에서 북한산이 온조의 구도 즉 위례성임을 언명한 일[38]이 있었고 영조21년(1745) 승려 구총섭(舊總攝) 성능(聖能)이 찬(撰)한 북한지(北漢志) 연혁조(沿革條)[39]에서도 온조

35) 낙종(樂從): 즐거이 순종함.

36) 부회조작(附會造作): 말을 억지로 끌어다 붙이어 이치에 맞게 일부러 꾸밈.

37) 부아악(負兒嶽)과 직산(稷山)의 거리가 2백리나 되는데 어떻게 가거(可居)할 것인가를 바라보고 상택(相宅) 할 수 있었을까? 또 하(河)는 어느 하수(河水)를 가리킨 것인지?

38) 1711년 2월: 今此北漢乃溫祚舊都 而實爲天險

39) 本高句麗北漢山郡 一云南平壤 百濟溫祚王取之 14年丙辰 漢哀帝建平2年築城(中略) 我肅朝37年辛卯

구지(溫祚舊地)라는 언명이 있으나 이는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의 설을 그대로 옮겨 논데 불과한 것이라고 하면서 위례북한설의 근거는 필시 온조 전설 중 온조 일파가 부아악에 올라 가거(可居)할 곳을 상택(相宅) 하였다는 대목에 연유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정약용의 북한동록설(北漢東麓說: 三角山東麓說, 漢陽東北說)에 대하여 대부분 동조하면서 특히 위례의 위치를 단연 한수이북(漢水以北)이라고 주창(主唱)한 것은 탁견(卓見)이라고 적극 옹호함으로써 하북위례성설을 더욱 공고히 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면서 혜화문 밖 10리의 삼각산동록이라면 정릉계곡이나 삼양동계곡을 말한 것인데 본인이 일제시대부터 수 삼차에 걸쳐 이 일대를 샅샅이 답사해보았으나 토성지(土城址)의 흔적이라고는 조금도 찾아볼 수 없었고 와편등도 발견되지 않았다. 후일 위례성이 천도(遷都)로 인하여 민호(民戶)의 이천(移遷)이 있었다 하여도 초기의 오랜 중심이었던 만큼 강북의 한 주요읍성으로서의 존재는 의연 계속되었을 것이다. 다산(茶山)도 한산 아래의 지금의 하남시 춘궁동 지역으로 천도한 후 이경(二京)체제로 운영되었다고 보았는데 그렇다면 고구려나 신라의 소유가 되었을 때에도 북위례는 한성과 같이 중요읍성으로서의 구실과 시설을 가졌을 것이 분명한데 삼각산 동록에는 유적조차도 찾아볼 수 없으니 이것이 다산설의 큰 약점임을 지적하면서도 다산의 위례북한설은 움직일 수없는 정설이라고 하면서 새로운 학설을 주장하는데 이른바 세검동 계곡설(洗劍洞溪谷說)을 새로이 주장하였다. 이병도의 세검동계곡설은 삼각산동록에 유적은 물론 그 후계 시대의 유적도 나타나지 아니함으로 그쪽 방면은 아무래도 단념할 수밖에 없고 북한산 부근의 다른 쪽에서 유서 깊은 고적지를 찾아보는 것이 문제해결의 관건이 될 것이라며 백제시대의 유적은 아니더라도 그 후계시대인 신라유적이 밀집된 곳은 창의문 밖 세검동계곡 일대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 계곡에는 비봉(碑峰)에 진흥왕 순수비가 있고 북한산성 남대문 밖에는 문수사(文殊寺)석굴(石窟). 비봉아래 승가사(僧伽寺), 신영동에 장의사(藏義寺) 등이 있어 고구려와 신라시대의 북한산군의 중심지로 비정되고 그 이전 백제시대의 북한성이었음을 유추할 수 있다는 것이다.

2. 하북위례성설의 허구성(虛構性)

1) 당초부터 없었던 가상의 도성

하북위례성이라는 말은 온조가 기원전 18년에 신하들과 함께 한산의 부아악에 올라 하남위례성에 도읍하여 건국한 이후 온조14년 1월 한산 아래로 천도하기 까지 약 13년 동안 지금의 한강

卽溫祚舊址築山城 以爲保障之地

북쪽에 있었다고 하는 도성을 말한다.

그러나 하북위례성설은 조선중기 이후부터 거론되기 시작하였으나 조선후기 다산 정약용이 아방강역고(我邦疆域考)의 위례고(慰禮考)에서 현재의 북한산성 주변을 대상으로 본격적으로 제기된 학설이며 다산의 학설을 이어받은 이병도는 다산의 북한산 주변 하북위례성설를 적극 옹호함으로써 지금에 와서는 하북위례성설이 정설인양 자리하고 있는 실정이나 다산 이전의 역사서에서는 하북위례성이라는 용어자체가 존재하지도 않았던 도성이다.

2) 다산 정약용의 삼각산 동록설의 허약한 근거

첫째 다산은 북사(北史)와 수서(隋書)에 백제가 처음에 옛 대방(帶方)[40]땅에 나라를 세웠다고 했는데 그것은 하북(河北)의 위례(慰禮)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하였다. 다산과 이병도가 백제는 한강 이북에서 건국하였다는 근거로 삼는 북사(北史)와 수서는 과연 어떤 책인지 알아본다.

북사(北史)는 중국 당(唐)나라 이연수(李延壽:생몰년 미상)가 편찬한 사서(史書)로 중국 각왕조의 정사로 인정받는 24사(史) 가운데 하나이다. 이연수는 아버지 이대사(李大師: 570-628)가 못다 이룬 사서편찬의 유지를 받들어 남북조시대(南北朝時代 420-589)의 북사(北史)와 남사(南史)를 편찬하였는데 북사(北史)는 북위(北魏) 서위(西魏) 동위(東魏) 북주(北周) 북제(北齊) 수(隋) 등 남북조시대 북조(北朝)의 여섯 왕조를 기록하고 남사(南史)는 같은 시대의 송(宋) 남제(南濟) 양(梁) 진(陳) 등 네 왕조의 역사를 기전체(紀傳體)[41]로 서술한 역사서이다. 북사(北史)는 북위가 건국된 386년부터 수가 멸망한 618년까지 233년 동안의 역사가 기록되었는데 위서(魏書) 북제서(北齊書) 주서(周書) 수서(隋書) 등의 사서(史書)에 기록된 역사를 정선(精選)하여 일목요연하게 살펴볼 수 있도록 편찬하였다. 이 북사의 94권 열전(列傳)에 고구려(高句麗) 백제(百濟) 신라(新羅)

---

40) 대방(帶方):최초의 대방은 BC108-BC107년에 설치된 한사군(漢四郡)의 하나인 진번군(眞番郡) 15속현(屬縣)중의 대방현으로 그 위치는 황해도 사리원 및 봉산군 문정면 지방이었다. 대방현은 BC82년 진번군의 7현과 함께 낙랑군의 속현이 되었고 BC75년경 7현이 모두 낙랑남부도위(樂浪南部都尉)의 관할에 들어가 명맥을 유지하다가 25년에 후한이 건국되면서 후한의 지배체제에 편입되었다. 그 뒤 이 지방은 요동태수 공손탁(公孫度)의 지배하에 들어갔고 204년 공손탁을 이은 공손강(公孫康)은 강성해진 한(韓) 및 예(濊)를 견제하고자 대방현을 중심으로 낙랑 남부도위 관할의 7현을 대방군(帶方郡)으로 개편하였는데 그 영역은 대체로 지금의 경기도 북부에서 황해도 황주 자비령(慈悲嶺)이남지역이다. 당시의 군은 지금의 도와 같은 규모로 대방군을 이루었던 7현은 대방(帶方 사리원.봉산) 소명(昭明 신천) 열구(列口 은율) 장잠(長岑 장연) 함자(含資 서흥) 해명(海冥 ?) 제해(提奚 ?)이다. 대방군은 238년 위(魏)에 예속되고 얼마 뒤 진(晉)에 속하였다가 313년 낙랑군이 고구려에 함락된 직후 고구려의 영토가 되었다. 진서(晉書)에는 290년경의 대방군을 통현(統縣)7. 호(戶)4,900으로 기록하고 있다. 두산백과
필자 주: 근자에는 한사군의 위치가 한반도가 아닌 중국 요서지방이라는 사학계의 주장이 맞서 만약 요서지방이 사실로 귀착될 경우 위의 내용은 사실과 다른 기록이 될 것이다.

41) 기전체(紀傳體): 역사 사실을 서술할 때 본기(本紀) 열전(列傳) 지(志) 연표(年表) 등으로 구성하는 역사 서술 체제로서 가장 중요한 본기(本紀)의 기(紀)와 열전(列傳)의 전(傳)의 이름을 따서 기전체(紀傳體)라고 한다. 사마천의 사기(史記)에서 비롯되어 중국 한국의 역대 왕조에서 정사(正史)서술의 기본형식으로 자리 잡았다.

물길(勿吉) 거란(契丹) 유구(流求) 왜(倭) 등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

남사(南史)에서는 송서(宋書) 제서(濟書) 양서(梁書) 진서(陳書) 등에 기록된 남조(南朝)국가들의 역사를 정선하여 정리한 책으로 유유(劉裕)가 진(晋)의 공제(恭帝)에게 양위를 받아 송을 건국한 420년부터 진(陳)이 수의 문제(文帝)에게 멸망된 589년까지 170년 동안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으며 남사 79권의 이맥전(夷貊傳)에는 조선(朝鮮) 마한(馬韓) 진한(辰韓) 고구려(高句麗) 백제(百濟) 신라(新羅) 등에 관한 기록이 전해지고 있다.

다산은 북사의 기록 중에 백제가 대방고지(帶方故地)라고 한 부분에 대하여 서한(西漢)[42]에서는 열수(洌水)[43]이북을 낙랑에 소속시켰다면서 한강 이북을 낙랑으로 보았는데 대방이 낙랑의 남쪽 황해도 남부지역이므로 한강이북의 삼각산지역은 대방고지에 해당하므로 백제가 한강이북에서 개국하였다고 믿은 것이다. 이에 이병도는 대방 땅은 황해도 이남으로 내려온 적이 없으므로 한강유역은 대방의 영토가 된 적이 없다고 다산의 대방고지 해석이 잘못되었음을 지적하면서도 백제가 한수이북에서 건국하였다는 것은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이라고 모호(謨糊)한 주장을 하였다. 필자는 북사(北史)나 위서(魏書) 수서(隋書) 등에서 다룬 '백제가 대방고지(帶方故地)에서 건국하였다'하는 뜻은 대방의 경계 즉 옛 대방이 있었던 지역 안에서 건국하였다는 뜻이 아니고 대방의 옛 땅인 황해도 남부지역을 어디서 이어받았느냐 그 이어받은 나라가 백제임을 표시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당시 백제는 지금의 경기지역과 강원 황해도 남부지역의 영역[44]에 걸쳐 있었으므로 백제가 대방고지에서 건국하였다고 쓴 것이다.

중국 남북조시대의 사서들은 대개 자국의 정치적 이해에 따라 다른 나라의 역사에 대하여는 우선 폄하(貶下)하거나 지나치게 간략하게 다룬 것이 특징인데 북사의 기록도 당시의 사서를 기준으로 하여 정리한 것에 불과함으로 주변 소국인 우리나라 역사에 대해 심혈을 기우려 정통한 사실만을 가려서 서술하였다고 기대하는 것은 당초부터 희박한 현실로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연수가 북사를 편찬한 당나라 이후에도 중국은 백제가 대방의 옛 땅을 이어가고 있음으로 백제와 연관한 대방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사례를 볼 수 있다. 백제가 사비로 천도한 이후인 삼국사기 위덕왕 17년(570년)조에는 '북제(北齊) 후주(後主)가 왕을 '사지절시중 거기대장군 대방군공 백제왕(使持節侍中車騎將軍 帶方郡公 百濟王)'으로 임명하였다'하였으며 위덕왕 28년(581년)조에는 수(隋) 고조(高祖)가 조서를 내려 왕을 '상개부의 동삼사 대방군공(上開府儀同三司 帶方郡公)으로 임명'

42) 서한(西漢):전한(前漢)의 다른 이름. 전한의 도읍인 장안(長安)이 후한(後漢)의 도읍인 뤄양(洛陽)의 서쪽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른 것이다.

43) 열수(洌水):고조선 때에는 대동강을 지칭하였고 조선시대에는 한강을 지칭하였다. 어학사전

44) 백제의 영역: 온조13년조 '북으로는 패하(浿河:예성강)에 이르고 남으로는 웅천(熊川:안성천)까지였으며 서로는 대해(大海:서해)에 닿고 동으로는 주양(走壤:춘천)에 이르렀다.'

하였고 무왕 25년(624년)조에도 당(唐) 고조(高祖)가 왕을 '대방군왕백제왕(帶方郡王百濟王)으로 책봉'하였으며 무왕42년(641년)조에는 죽은 무왕을 '주국대방군왕백제왕(柱國帶方郡王百濟王)'으로 지칭하였다. 또한 의자왕1년(641년)조에서도 당(唐) 태종이 왕을 '주국대방군왕백제왕(柱國帶方郡王百濟王)'으로 책명(策命)하였으며 당나라가 백제를 멸한 후에도 백제의 부흥운동에 맞서 유인궤(劉仁軌)를 '검교대방주자사(檢校帶方州刺史)'로 임명한 사례도 있는 것이다. 이렇듯 중국은 백제의 건국을 어디에서 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국 한나라의 영토범주에 낙랑과 대방이 있었음을 강조하기 위해 그 이후의 나라에 대방을 연계한 것에 불과한 것이다. 이렇게 볼 때 다산과 이병도의 대방고지(帶方故地)는 당시 대방의 경계와는 무관한 의미의 대방의 옛 땅을 어디서 이어가고 있느냐의 의미로 해석할 수 있으며 또 대방 땅의 주변인 한산(漢山)에서 개국한 것을 대방고지로 확대하여 그렇게 기록하였을 수도 있다고 보아야한다.

둘째 다산은 삼국사기를 편찬할 때 "삼국사기 온조 13년의 기록은 온조 원년의 일인데 사신(史臣)이 잘못 기록한 것이다."라는 주장은 부당하다. 삼국사기 온조 원년의 기록을 보면 온조가 누구의 자식인가에 대하여 주몽(朱蒙)과 우태(優台)의 두 가지설과 중국사서(史書)의 기록을 소개하였을 뿐 원년의 기록은 대체적으로 질서정연(秩序整然)하고 일목요연(一目瞭然)하여 흠잡을 데가 별로 없는 기록이다. 그런데 다산은 삼국사기 온조 원년의 기록을 두고 온조 13년의 일이라고 한 것은 왕명에 의하여 국가사업으로 당대의 최고학자들로 구성된 편사관(編史官)들이 온조 원년과 13년을 구분조차 못할 정도의 사람들이라고 주장하는 자체가 독선과 아집의 산물이며 설득력이 없는 자신의 논리를 정당화 하기위한 괴변(怪變)에 불과하다. 여기에는 엄청난 선입견(先入見)과 고정관념(固定觀念) 그리고 잡다한 정보(情報)가 혼돈을 자초한 결과라고 판단된다. 다산은 우선 이병도가 동의하였듯이 백제의 건국을 강북으로 보았는데 이는 북사(北史)[45]에서 백제가 처음에 옛 대방(帶方)의 땅에 나라를 세웠다고 기록되어 있는 것에 착안 대방고지(帶方故地)를 하북위례라고 유추한 선입견과 삼국사기 원년의 기록 중 부아악(負兒嶽)에 올랐다 하는 그 부아악을 서울의 삼각산(三角山)이 부아산으로 불린다는 고정관념(固定觀念)에 사로잡혀 삼각산에 올라 강남의 한산부근을 바라보고 천도할 땅을 물색하였다고 해석하고 있으나 이는 상식적으로 너무 터무니없는 주장이다. 만약 다산의 주장처럼 삼각산 동록에 처음 도읍하여 10여년이 경과한 온조13년에 와서 삼각산에 올라간 것이라면 그동안 주변지형에 대하여는 여러 해를 거치는 동안 수소문과 보고 듣는 바에 따라 정통해져 있을 때인데 필요하면 신하들을 시키면 되는 일을 구태여 요즘에도

45) 북사(北史): 중국 당나라 이연수(李延壽)가 편찬한 사서로 중국 각 왕조의 정사(正史)로 인정받는 25사(史) 가운데 하나이다. 북위(北魏) 서위(西魏) 동위(東魏) 북주(北周) 북제(北齊) 수(隋) 등 남북조시대(南北朝時代420-589) 북조(北朝)의 여섯 왕조의 역사를 기전체(紀傳體)로 서술하였다. 북위(北魏)가 건국된 386년부터 수(隋)가 멸망한 618년 까지 233년 동안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으며 본기(本紀)12권, 열전(列傳) 88권 등 모두 100권으로 되어있다.

암벽 등산가나 올라갈 수 있는 삼각산의 부아악이라고 일컬어지는 인수봉 부근에 올라가서 그곳에 올라 50여리 밖의 한산을 바라보고 도읍을 옮길 자리를 택지(宅地)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또한 대방고지로 일컬어지는 대방 땅은 황해도 이남이 될 수 없다고 이병도가 반박하였고 부아악도 백제시대의 말로 송악(松嶽)이라는 뜻이 있었음을 간과(看過)하고 삼각산으로만 인식한데서 결정적 오류를 자초한 것이다.

셋째 비류와 함께 부아악에 올랐다면 백제는 당연히 비류가 건국한 나라이어야 되고 온조 13년이 아니고 비류13년이 되어야 하는데 다산은 비류가 온조와 함께 하북위례성에서 10여년을 함께 살다가 온조 13년에 비류와 함께 삼각산에 올라갔다고 추정하였는데 당초 고구려를 떠나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자고 제안한 사람이 비류였고 비류가 형인 관계로 삼각산 부근에서 개국하였다면 의당 비류가 왕이 되었어야 하는데 온조가 왕이 되어 13년 동안 동생 밑에서 함께 지낼 이유가 가당치 않으며 만약 온조가 어떠한 이유로 왕이 되어 13년을 통치하다가 천도의 필요를 느껴 천도했다면 아무리 형이라도 그때는 신하의 입장인데 갈려면 처음부터 가야지 13년을 함께 동생 밑에서 지내다가 자기 의사에 맞지 않는다고 돌연 미추홀로 백성을 나누어 갔다는 것은 군신관계 상태에서는 도대체 말이 되지 않는 억지주장이라 아니할 수 없는 것이다.

넷째 온조 13년에 삼각산에 올라 50리 나 떨어진 하남의 지형을 어떻게 자세히 살필 수가 있으며 한수이남에서 유독 그 먼 곳의 지금의 하남시 춘궁동 땅을 지목하였다는 것도 견강부회(牽强附會)가 지나침을 지적하지 아니 할 수 없다.

온조 13년 천도할 곳을 하남시 춘궁동으로 정한이유를 다산은 춘궁동지역이 삼국사기의 지형설명과 부합된다고 하였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 다산은 동쪽으로 높은 산에 의지했다고 하는 것은 검단산(黔丹山)을 말한 것이요, 서쪽으로 큰 바다에 닿았다고 한 것은 행주(幸州)어귀를 말한 것이며 또 남쪽으로 기름진 들을 바라본다는 것은 둔골제(屯骨堤)[46]를 말함이며 북쪽으로 한수가 띠를 둘렀다함은 두미강(斗尾江)[47]을 가리킨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나 어떻게 삼각산에 올라 그 먼데 지점의 사방의 지형을 보고 천도할 땅을 점칠 수가 있겠는가? 여기에 연관하여 근래에는 다산이 주장한 온조14년에 춘궁동지역으로 천도한 한성이 하남의 춘궁동지역이 아니고 서울의 몽촌토성이나 풍납동토성이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의 논지(論旨)에서 남망옥택(南望沃澤)이라는 문구는 춘궁동에서는 맞지 않고 서울의 몽촌이나 풍납동에 부합하기 때문에 그곳이 한성이라고 주장하는 근거가 되었으니 다산의 첫 단추가 잘못 끼워져 또 다른 오류를 양산한 하나의 현상이라 아니할 수 없다.

---

46) 둔골제(屯骨堤):성남시 탄천을 따라 펼쳐진 서광주(西廣州) 평야를 일컬으며 삼국사기 백제 8대 고이왕(古爾王)9년 2월조에 '나라사람들에게 명해 남쪽 택지에 벼농사 지을 논을 개간하게 하였다'하는 기록이 있다.

47) 두미강(斗尾江): 하남시 도미천(都彌遷 배알미동에서 창우동까지 약 10여리에 걸쳐 검단산허리를 끼고 이어진 울퉁불퉁한 돌길)아래를 흐르는 한강의 다른 이름.

그러나 몽촌이나 풍납동 지역은 동거고악(東據高岳)으로도 맞지 않고 북대한수(北帶漢水)에도 배치되는 지역이다.

다섯째 다산은 천도하는 이유를 한강 북쪽에 도성(都城)이 있었기 때문에 낙랑과 말갈의 외침을 받은 것이니 남쪽으로 천도하여 외침의 원천을 차단하려 했다고 하였는데 그러면 왜 천도 후에도 외침은 계속되었는가? 다산은 온조왕 13년 신하들에게 낙랑과 말갈의 침입이 잦아 천도를 결심하게 되었다고 하면서 하북위례성에서 한강 남쪽으로 천도하면 외침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여기고 한강 남쪽으로 천도하였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백제를 건국할 당시 이미 외침에 대비하여 한강을 북쪽으로 두고 도성을 강남에 정하고 도성이름도 하남위례성이라고 하여 처음부터 한강남쪽에서 건국하였다고 삼국사기에서 명확히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백제의 처음건국은 한강 북쪽이었을 것이라는 고정관념에 빠져 삼국사기의 기록이 잘못되었다고 변명하기에 이른 것이다. 온조의 천도결심은 외침도 외침이려니와 온조13년 2월부터 도성에 늙은 노파가 남자로 변하고 호랑이가 궁성에 난입하는가 하면 어머니 까지 세상을 뜨자 천도를 통해 나라의 요망한 액운을 주술적으로 모면해 보려는 의도가 다분했던 것이다.

고대 왕실에서는 흉사가 닥쳤을 때 도읍이나 거처를 옮겨 위기를 벗어나려는 풍습이 있었다. 중국 진(秦)나라의 진시황(秦始皇)도 그가 죽기 1년 전(BC 211) 몹시 불길한 징조를 당하여 불안에 떨고 살았는데 불길한 징조란 '하늘의 별자리가 황도를 침범'하였고 동도(東都)인 낙양에서 '시황제가 이 땅에서 죽는다.' 하는 글자가 새겨진 운석(隕石)이 발견되는가하면 어느 사신(使臣)이 신선(神仙)에게 붙잡혔는데 그 신선으로부터 '금년에 조룡(祖龍)[48]이 죽는다.'는 말을 들었다는 등 불길한 일들이 보고되고 있었다. 이에 점술가에게 물어보니 도성을 떠나 있으라는 말을 듣게 되고 다음해(BC210) 5차 순유(巡遊)의 길을 떠났다가 결국 사구(砂丘)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전하는데 온조도 일관(日官)등의 말을 듣고 도읍을 옮겨 액운을 벗어나려 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도성이 강북에 있어서 외침이 잦았다든가 한수지남(漢水之南)으로 순관(巡觀)할 때나 천도(遷都) 할 때 '한강을 건너 강남으로 옮겼다'는 말은 삼국사기에 한 구절도 없고 단지 한산아래(漢山下)로 천도하였다고 하였으니 이는 당초부터 존재하지도 않았던 하북위례성을 순전히 다산이 추정하여 만든 가상의 도성에 불과한 것이다. 그러면 다산이 주장한대로 도성이 강북에 있었기 때문에 도성방위에 위협을 느껴 온조13년에 천도를 결정하였는지 낙랑과 말갈의 외침의 기록을 살펴본다.

48) 조룡(祖龍):진시황(秦始皇)의 별칭(別稱)

- 온조 13년(BC6) 이전의 외침기록

온조왕 3년(BC16 말갈 북쪽 국경), 8년(BC11 말갈 위례성 포위), 10년(BC9 말갈 북쪽변경), 11년(BC8 낙랑이 말갈을 시켜 변경의 병산책 습격).

- 온조 13년(BC6) 이후의 외침기록

온조왕17년(서기2 낙랑 위례성 불태움), 18년(서기1 말갈 칠중하), 22년(4 말갈 부현동쪽), 40년(22 말갈 술천성, 부현성), 다루왕3년(30 말갈 마수산), 4년(31 말갈 고목성), 7년(34 말갈 마수성), 28년(55 말갈 북쪽변경), 기루왕 32년(108 말갈 우곡), 49년(125 말갈 신라 공격 때 신라지원), 초고왕45년(210 말갈 사도성), 49년(214 말갈 술천), 수구왕 3년(216 말갈 적현성), 7년(220 말갈 북쪽변경), 13년(226 백제 낙랑변경습격),16년(229 말갈 우곡지역), 책계왕1년(286 고구려 대방공격 때 대방지원), 13(298 한나라 맥 변경침입), 분서왕6년(304 낙랑 서쪽 현 습격 빼앗음 왕 낙랑 자객에 살해), 진사왕3년(387 말갈 관미령), 7년(391 말갈 적현성), 동성왕4년(482 말갈 한산성), 무령왕3년(503 말갈 마수책 고목성), 6년(506 말갈 고목성), 7년(507 고구려와 말갈 횡악).

위에서 보는바와 같이 다산이 주장한 한강이남 한산하(漢山下) 천도 후에도 낙랑과 말갈의 침입은 계속되었으니 도성이 한수 이북에 있어 외침을 받았었다는 다산의 설명은 당치 않음이 확인되며 온조는 당시 분명히 현재도성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한 것이 분명해진다. 도성위험의 언급은 없었고 단지 '변경강토(邊境疆土)에 외적이 침범하니 평안한 날이 드물다'고 언급하였다. 이는 도성이 위험하다기 보다는 변경지역의 외침을 하나의 우환으로 보고 여러 우환이 겹치기 때문에 이를 천도의 방법으로 모면코자 한 것이다. 특히 온조 13년 이전에 위례성이 공격받은 것은 온조왕 8년 말갈로부터 단 한차례에 불과하였고 이때 성문을 굳게 닫고 나가지 않으니 적들은 군량이 다해 돌아간 일이 있는데 이 일로부터 5년이 지난 온조 13년에 가서 도성방어에 위협을 느껴 도성을 옮기려 했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논리가 분명하다. 다산의 말대로라면 온조 14년 1월 강남인 지금의 하남시 춘궁동으로 천도한 이후에는 안전해야할 도성이 온조왕 17년에 가서는 낙랑이 쳐들어와 위례성을 불태웠으니 이것은 어찌된 일이며 도성을 웅진으로 옮긴 동성왕 무령왕 시대에도 말갈의 침입은 계속되고 있지 아니한가? 분명한 것은 지금도 마찬가지 이지만 서울을 강남으로 옮긴다고 북한의 도발이 불식되지 않는 것처럼 백제의 외침은 당시 국력과 전투력 그리고 외교력의 문제이지 도성의 위치가 결정적 요인이 될 수는 없었던 것이다. 그리고 당시 한강이 해자(垓子)의 역할을 한 것은 분명하지만 한강을 도하할 수 있는 낮은 여울목의 지역은 여러 지점이 있었을 것이며 겨울에는 강물이 얼기 때문에 몇 달 동안은 육지와 큰 차이가 없을 때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온조는 당초부터 여러 사정을 감안하여 강남에 자리 잡았었으며 부아악에 오를 때도 인천

에서 강남을 통하여 한강을 건너지 않고 한산인 현재의 남한산성에 왔던 것이다. 이는 미추홀(彌鄒忽:인천)에 도착할 때 이미 패수(浿水:예성강)와 대수(帶水:한강)를 건너 미추홀에 도착하였다고 삼국사기 온조왕 원년조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아도 알 수 있다.

여섯째 온조13년 5월 온조왕이 신하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어제 한수의 남쪽을 돌아보았는데 토양이 기름진지라 그곳에 도읍해 길이 편안할 계책을 도모하는 것이 좋겠다." 한 부분을 두고 다산은 한수 북쪽에서 한강을 건너 한수남쪽을 갔다고 단정하였으나 한강을 건넜다는 기록은 단 한 줄도 존재하지 않는다. 한수지남(漢水之南)이라는 문구를 보고 다산은 온조가 한강북쪽에서 한강을 건너 남쪽을 순방한 것이 확실하다고 단정하였다. 그리고 이병도는 이 부분을 두고 탁견(卓見)이라고 하면서 동조(同調)하였는데 과연 탁견이었는지 아니면 고정관념에서 우러난 편견(偏見)이었는지 생각해 본다. 한강 남쪽의 어느 지점에 갔다면 이는 동서남북 사방에서 모두 갈 수 있는 용어이다. 가령 수원에 사는 사람이 어제 강남의 압구정동에 다녀왔다고 하면 그 사람은 한수 이북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어떻게 강남의 땅에 다녀왔다고 하는 그 말이 한수 이북에서 한강을 건너 강남을 갔다고 단정할 수 있다는 말인가? 1/4[49]의 가능성을 두고 3/4을 모두 무시한 것이니 이는 편견임이 분명하다. 필자는 온조가 이러한 언급을 한 후에 한산 아래로 천도한 것으로 보아 한수지남은 한강 남쪽 땅을 지칭한 것으로 지금의 남한산성인 하남위례성에서 곧 하남시 춘궁동지역에 내려갔다가 온 것을 두고 '한수지남'으로 서술한 것으로 본다.

한편 '내가 어제 한수 남쪽을 돌아보았다'는 것은 가까운 거리를 하루에 다녀왔다는 의미로 만약 북한산 근처의 도성에서 50리 밖의 하남시 춘궁동지역을 다녀오려면 하루에는 쉽지 않은 거리이다. 강을 건너는 왕의 행차라는 것을 감안하면 적어도 1박 2일은 가져야 가능한 거리일 것이다. 그러나 기록상으로는 가까운 거리를 쉽게 다녀온 것이 분명하며 가서 보았을 때 "토양이 기름진지라" 천도하겠다고 하였다. 다산의 논리대로라면 의당 먼저 외침을 막을 만한 이유를 설명했어야 되는데 그냥 토질이 비옥하니 그렇게 하겠다는 말 뿐인 것이다. 이는 남한산성에서 가까운 한수남쪽지역(漢水之南) 즉 남한산성아래 하남의 춘궁동지역에 내려갔다 온 것이 유력해 진다. 당시 한수이북에서 이남으로 왔다 갔으면 여러 일행이 강을 건너는 일이므로 시간과 준비에 큰 비중을 가진 도강(渡江)절차를 감안할 때 반드시 한강을 건넜다는 기록이 있어야 되는데 강을 건넜다는 기록 또한 전혀 없는 것을 보아도 도성이 하남위례성이라는 말처럼 처음부터 한수 이남에 있었음이 분명하다.

일곱째 온조 41년 2월에 "한수 동북방의 여러 부락에서 나이 13세(실제기록은 15세)이상 된 이들을 징발해 위례성을 수리하였다."는 기록을 보고 다산은 한수 동북방 사람을 징발했으니 이는

49) 한강의 동서남북 지역의 하나

필시 한수 북쪽에 위례성이 있었다고 유추 해석하고 있으나 한수 북쪽에 위례성이 있었다는 기록은 삼국사기에 한 글자도 없으며 한수 동북방 사람을 징발했다고 하여 위례성이 꼭 한수이북에 있었다고는 단정할 수 없다. 다산은 온조왕 41년에 강북사람을 동원하여 위례성을 수리하였다는 것은 온조14년 1월 강남의 하남시 춘궁동으로 천도하였으니 강남사람을 동원해야지 한수 동북방사람을 동원하여 수리하였다는 것은 한산 아래로 천도하기 전의 도성이 강북에 있었기 때문에 하북위례성을 수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당시 강남사람을 동원하지 않고 강북사람을 동원할 다른 이유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예를 들면 조선시대 정조는 아버지 사도세자 묘를 수원 화산(花山)으로 천장(遷葬)하고 화성(華城)을 축성한 다음 수원을 추향(楸鄕)[50]이라 하여 수원사람들을 우대하였는데 세금을 감면하여 준다든지 과거시험을 별도로 치러 등과(登科)시켜 주는 등 수원과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우대하여 주는 특별한 경우도 있을 수도 있는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백제시대에도 당시 도성이 있었던 한수이남사람들이 왕의 지시에 더 순종하였다든지 다른 공사나 군사동원을 한지가 얼마 되지 않아 동원할 사람이 없었다든지 지역별로 순차적으로 동원할 순서가 강북사람의 순서에 해당되었다는 등 다른 사정이 있을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도성보수(都城補修) 공사가 몇 달 또는 몇 년을 소요하는 공사라면 지금의 군대 소집처럼 집단수용하여 공사를 진행해야 할 것인바 이러한 경우라면 지역에 큰 차별을 둘 필요를 느끼지 않아도 되며 특히 거리상으로 보면 현재 하남시 춘궁동의 한성(漢城)과 북한산 주변에 있었다고 주장하는 하북위례성 둘 중에서 강 동북사람들은 중간에서 강하나만 건넌다면 오히려 춘궁동의 한성이 한수 동북방(양주 포천 양평 가평 등)지역과 훨씬 더 가까운 지리적 위치인 것이다.이렇듯 한수 동북방 사람을 동원한 사실 하나만 가지고 하북위례성의 존재를 유추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

여덟째 다산은 한성백제 멸망 당시 개로왕이 한수 이북의 북성(北城) 즉 하북위례성에 있었으며 남성(南城)도 한수 이북에 있었다는 속칭 북한성(北漢城)이라고 하였으나 당시 왕은 강남(江南)의 한성(漢城)[51]에 있었다.

아홉째 다산은 삼국사기의 본기(本紀)의 기록보다 잡지(雜志)의 기록에 주목하였다. 다산이 당시 왕이 강북도성에 있었다고 보는 이유의 하나로 다음의 기록에 주목하였던 결과로 보여 진다.

먼저 삼국사기 권제37 잡지(雜志) 제6 지리 4 고구려 백제 조에 기록된 백제 기록에서 '고전기(古典記)를 살펴보면 동명왕의 셋째아들 온조가 전한(前漢) 홍가(鴻嘉) 3년(기원전 18) 계묘(癸

50) 추향(楸鄕): 조상의 선산(先山)이 있는 향리(鄕里)

51) 개로왕21년(475)9월 고구려왕 거련이 군사 3만 명을 거느리고 와서 왕도 한성(漢城)을 에워쌌다.(삼국사기 개로왕 21년조)

卯)에 졸본부여(卒本夫餘)로부터 위례성에 이르러 도읍을 세우고 왕을 일컬어 389년을 지내고 13세 근초고왕 때에 와서 고구려의 남평양(南平壤)을 빼앗아 한성(漢城)에 도읍해 105년을 지냈으며 22세 문주왕 때에 와서 도읍을 웅천(熊川)으로 옮겨 63년을 지내고 26세 성왕 때에 와서 도읍을 소부리(所夫里)로 옮기고 국호를 남부여(南夫餘)라고 하였다. 이후 31세 의자왕 때까지 122년을 지나 당(唐) 현경(顯慶) 5년(660년) 의자왕 20년에 신라의 김유신과 당나라 소정방이 이를 쳐서 평정하였다' 하는 기록이다. 이 기록은 잡지(雜志)라는 제목부터가 삼국사기의 정사를 기록하였다기보다는 잡다한 기록들 가운데 고전기(古典記)를 옮겨 놓아 이런 이야기도 있다는 기록으로 이해하여야 한다. 물론 삼국사기 본기(本紀)의 내용과 일치한다면 아무 문제가 없지만 본기와 내용이 다른 부분은 본기의 내용에 따라 해석함이 당연한 것이다.

위 기록의 연대는 삼국사기 본기의 기록을 그대로 옮겨 놓았는바 BC18년(온조1년) 백제건국(百濟建國), 371년(근초고왕26) 한산이도(漢山移都), 475년(개로왕21) 한성백제멸망(漢城百濟滅亡), 475년(문주왕1) 웅진천도(熊津遷都), 538년(성왕16) 사비천도(泗沘遷都), 660년(의자왕20) 백제멸망(百濟滅亡)을 기준으로 경과연수를 계산하여 기입한 것에 불과한 기록이다. 따라서 389년(BC18+371)은 온조1년부터 근초고왕 26년까지이며 105년(475-370)은 근초고왕26년부터 개로왕21년까지이고 63년(538-475)은 문주왕1년부터 성왕16년까지이다. 그리고 122년(660-538)은 성왕16년부터 의자왕20년까지의 기간을 환산한 것이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곳은 근초고왕26년에 고구려 남평양을 빼앗아 개로왕 21년까지의 기간을 '한성(漢城)에 도읍해 105년을 지냈다'는 기록이다.

본기(本紀)에는 '그해(371년) 겨울 태자와 함께 정예병 3만 명을 거느리고 고구려에 침입해 평양성(平壤城)을 공격하였다. 고구려왕 사유(斯由)[52]가 힘껏 싸워 막다가 날아온 화살에 맞아 죽자 왕이 군사를 이끌어 물러났다. 도읍을 한산으로 옮겼다.'라고 기록하여 한산(漢山)으로 도읍을 옮긴 부분을 여기서는 느닷없이 한성(漢城)으로 옮겨 한성백제가 망할 때까지 지냈다고 기록한 것이다. 이에 편승하여 삼국유사(三國遺事)에서는 '13세 근초고왕 때인 함안(咸安)원년(371년)에 고구려 남평양을 취하여 도읍을 북한성(北漢城:지금의 양주)으로 옮기고 105년을 지냈다.'로 기록하였고 고려사(高麗史)에서는 '근초고왕 25년(370년)에 도읍을 남평양으로 옮겼다.'고 적고 있으며 세종실록지리지(世宗實錄地理志)에서는 '지금의 서울 한양도성은 본래 고구려의 남평양성(南平壤城)이니 일명 북한산군(北漢山郡)이다. 백제 근초고왕이 동진(東晋) 간문제(簡文帝)함안(咸安)2년(372년) 임신(壬申)에 남한산(南漢山)으로부터 와서 도읍을 정하여 105년을 지내고'로 비슷한 내용을 기록한 것이다.

살피건대 위 내용들은 고전기(古典記)에서 언급한 내용을 그대로 원용한 것이다. 이렇게 근초

52) 사유(斯由): 고구려 고국원왕(故國原王)의 이름

고왕 26년(371)에 남평양성을 빼앗아 도읍을 한양으로 옮긴 후 개로왕 21년(475) 한성백제가 망할 때 까지 105년 동안 북한산군의 당시 양주 땅(지금의 서울)이 한양에 있었다고 하니 이를 근거로 다산(茶山)도 한성백제가 멸망할 당시의 북성(北城)과 남성(南城)도 한강 이북에 있었다고 생각한듯하다.

그러나 삼국사기 본기(本紀)에서는 전술한 바와 같이 근초고왕 26년(371)에 한성(漢城)으로 천도(遷都)한 것이 아니고 한산(漢山)으로 이도(移都)하였다고 명시(明示)하고 있다. 백제는 한산에서 개국하여 한산 정상부 하남위례성에서 지내다가 온조13년(BC6) 잦은 외침과 왕실의 액운이 겹쳐 액운을 단절하고자 천도하기로 결심하고 온조 14년(BC5) 1월 한산아래 지금의 하남시 춘궁동지역으로 천도 하였는데 처음에는 이 성을 남한산성(南漢山城)[53]이라 불렀다.

3) 한성(漢城)은 당초부터 이성산성을 포함한 춘궁동 지역이다.

온조 14년 천도한 도성이름인 당초 남한산성(南漢山城)은 그 후 남한성(南漢城). 한산성(漢山城). 한성(漢城) 등으로 불렸다. 삼국사기에서는 한성(漢城)이라는 용어가 한산 아래로 천도한 후 바로 보이기 시작한다.

- 온조 14년(BC5) 7월 '한산 서북쪽에 성을 쌓고 한성(漢城)의 주민들을 그곳에 나누어 살게 하였다.' 로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서의 한성은 두말할 것 없이 한산아래인 지금의 이성산성을 포함한 춘궁동지역이다.
- 온조 25년(서기7) 2월 '한성(漢城)의 민가에서 말이 소를 낳았는데 머리 하나에 몸이 둘이었다.'
- 아신왕 1년(392) '처음 한성(漢城)의 별궁(別宮)에서 태어날 때 신비로운 광채가 비추더니 장성하자 뜻과 기개가 호방했으며 매사냥과 말 타기를 좋아했다.'
- 개로왕 21년(475) 9월 '고구려왕 거련(巨璉)[54]이 군사 3만 명을 거느리고 와서 왕도(王都) 한성(漢城)을 에워쌌다.'

이러한 기록으로 보아 온조가 천도(遷都)한 한산 하(漢山下 춘궁동)가 한성(漢城)이라는 것을

53) 고려사 권제 56 17장 지리1 광주목조: '처음 백제시조 온조왕이 한나라 성제 홍가3년에 나라를 세워 위례성에 도읍하였다가 13년 한산아래에 나아가 책을 세우고 위례성 민호를 옮겨 드디어 왕궁을 세우고 살다가 이듬해 도읍을 옮기고 이름을 남한산성이라 하였다.(初百濟始祖溫祚王以漢成帝鴻嘉三年建國都于慰禮城至十三年就漢山下立柵移慰禮城民戶遂建宮闕居之明年遷都號南漢山城)

54) 거련(巨璉): 고구려 장수왕(長壽王)의 호(號)

알 수 있으며 하북위례성설을 지지한 이병도 마저도 위례고(慰禮考)에서 한산은 현재의 남한산(南漢山)이며 한성(漢城)은 광주고읍(廣州古邑)인 춘궁동의 위례성임은 재론을 요하지 않는다고 언명하였거니와 남한산성, 남한성, 한산성, 한성 등은 모두 같은 성을 두고 줄여서 그렇게 부른 것이요 그 원뜻은 한산(漢山)에서 파생된 단어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근초고왕이 한산(漢山)으로 이도한 것을 한성(漢城)으로 천도한 것으로 기록한 것인데 이는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기왕의 춘궁동 도읍이 한성(漢城)이었는데 같은 곳인 한성(漢城)으로 천도하였다는 말로 한산(漢山)을 한성(漢城)으로 잘못 기록한 것임을 알 수 있는 것이다. 고전기에서 비롯된 한성(漢城)천도가 이후의 기록들에서는 여기에 살을 붙여 양주의 북한성이 되고(삼국유사) 다시 남평양이 되었다가(고려사) 한양으로 각색(세종실록지리지)되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원래의 한성(漢城)은 한산 아래의 춘궁동이 한성(漢城)인 것이다. 그런데 다산은 그의 아방강역고의 위례고(慰禮考)에서 하북위례성을 서울 한양성 동북쪽 한양동에 있다 하였고 백제도성이 온조 14년을 기점으로 하북위례성(북위례)과 하남위례성(남위례) 두 곳이 되었으며 아방강역고의 한성고(漢城考)에서는 한성(漢城)이 백제 개로왕(蓋鹵王)[55]이 처음 연 땅으로 지금의 서울 한양동이 그 옛터라고 한 것이다. 다산의 주장을 종합하면 백제의 도성은 근초고왕 이후에도 줄곧 한수 이남에 있었음이 확인되는데도 불구하고 근초고왕이 고구려로부터 남평양을 빼앗아 강북의 지배권 강화를 위해 건국당시의 하북위례성으로 돌아가 한성백제가 멸망하는 개로왕시대 까지 그곳에 있었다고 한 것이다. 또한 한성고(漢城考)에서 개로왕이 한성 땅을 처음 열었다고 하고 있으나 한성은 전술한대로 온조왕 때부터 있던 성인데 이 역시 무슨 근거에서 그렇게 하였는지 알 수 없다. 백제가 건국을 하북위례성에서 했으면 한성 땅을 연 것은 온조왕이라고 해야지 고전기에서 한성으로 천도하였다는 14대왕 근초고왕보다 후대(後代)인 21대 개로왕이 어떻게 한성을 처음 열었다고 말할 수 있는가? 아마도 개로왕이 아니고 4대 개루왕(蓋婁王) 5년에 북한산성을 쌓았다는 삼국사기의 기록을 보고 개루왕을 개로왕으로 착각하여 그리 하였는지는 몰라도 이 역시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말이다. 이토록 다산은 당시 한산, 삼각산, 부아산, 북한산성, 하남위례성, 한성, 남성, 북성 등에 대한 확고한 위치관념이 확립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음이 분명하다.

필자는 이러한 혼돈이 당시 고전기에서 한산을 한성으로 잘못 기록한 이후 삼국유사 고려사 세종실록지리지 등에서 근초고왕이 평양성을 공격한 기록을 두고 당시의 상황을 오판하여 어림으로 강북으로의 천도를 추정한 결과이고 이를 비판 없이 근거로 삼은 학자들이 하북위례성이라는 가공의 도성을 창조하였다고 본다. 이는 백제가 고구려 평양성를 공격하여 고국원왕을 사살하고

55) 아방강역고 정약용 지음, 이민수 옮김, 범우사, 2004

한산(漢山)으로 이도(移都)한 기록에 대하여 남평양을 빼앗은 것으로 판단하고 새로 빼앗은 남평양의 지배권 강화를 위해 신라시대의 한산지역의 하나인 북한성으로 천도한 것으로 오판하여 기록한 것이다. 여기서 당시 남평양을 북한산주나 한양 등으로 본 것인데 실제는 근초고왕이 당시의 고구려와의 접경지역인 치양(雉壤) 수곡성(水谷城) 등에서 격전을 벌인 것으로 보아 지금의 황해도 중부지역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렇듯 다산 정약용은 아방강역고의 위례고에서 당시의 직산위례성설을 부정하고 삼각산 동록에 위례성이 있었다고 주장함으로써 실질적 하북위례성설의 창시자가 되는 역사의 오류를 자초하게 되었다고 본다.

4) 이병도의 하북위례성의 허상(虛像)

이병도가 주장한 하북위례성은 세검동계곡설로 요약되는데 그 뿌리는 다산 정약용의 삼각산 동록설과 괘를 같이 하고 있다. 이는 백제의 건국을 중국의 사서인 북사 등에서 기록한 시입국대방고지(始立國帶方故地)의 대목을 대방의 전신인 구진번(舊眞番)이라는 의미로 해석하고 백제초기 수도를 한강이북에 비정한 것은 확실한 일리가 있다하였고 부아악(負兒嶽)을 하북의 삼각산으로 비정하였기 때문이다. 이병도는 다산이 주장하는 삼각산 동록이라는 곳에 여러 번 가 보았으나 토성의 흔적과 당시의 유적이 전무함으로 신라의 유적이 비교적 집중된 세검동 계곡이 백제가 건국한 도성이었을 것이라는 지극히 막연한 추정에서 세검동계곡설을 주장하기에 이른 것이다. 이병도는 한산이 지금의 남한산성이라는 것과 한산하(漢山下)가 지금의 하남시 춘궁동 지역이며 한성이 춘궁동 왕성임을 인정하면서도 수지한산 등부아악(遂至漢山登負兒嶽:마침내 한산에 이르러 부아악이라는 봉우리에 오르다)의 대목에서 한산(漢山)을 일개의 산으로 보지 않고 신라시대의 한산주지역으로 보고 오로지 부아악(負兒嶽)에만 매달려 부아악이 하북(河北)의 삼각산임을 상기하고 강북으로 해석하는 오류를 범한 것이다.

한편 이병도는 '삼한문제의 재 고찰'[56]에서 백제의 건국연대를 고이왕 27-8년(260-261)으로 보고 엄밀한 의미의 백제 건국태조는 온조로 부터 8대(代)라고 하는 고이왕(古爾王) 즉 중국사서에 이른바 구태(九台)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면서 고이왕 이전은 부락국가(部落國家)에 불과하다고 과소평가 하면서 백제 건국시기의 삼국사기(三國史記) 기록자체를 부회조작(附會造作)으로 폄하(貶下)하고 중국사서에 단편적으로 언급한 불확실하기 짝이 없는 북사 등의 기록을 더 신봉하여 가공의 하북위례성을 동조하기에 이른 것이다.

이렇듯 우리나라의 정사인 삼국사기를 근본으로부터 부정하고 우리의 역사를 단편적 외국사서

56) 진단학보 권6 한국사 고대 편.

에 의존하려 했던 것이다. 그러나 부회조작에 불과하다고 폄하한 삼국사기의 기록은 백제 무령왕릉의 지석에서 확인[57] 되었듯이 정확함이 입증되었고 지금에 와서는 많은 학자들이 신뢰하는 역사서가 되었다. 따라서 삼국사기는 1145년경 김부식(金富軾)등이 고려 인종(仁宗)의 왕명에 의하여 편찬한 우리나라 삼국시대의 현존하는 최고의 정사(正史)인 것은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이다.

삼국사기는 김부식 단독으로 저술한 책이 아니고 11인[58]의 편사관(編史官)에 의하여 편찬된바 편찬자들은 독단적 서술이라기보다는 여러 문헌[59]을 참고하여 재구성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국사편찬은 왕권강화의 기념적 사업인 동시에 당대의 정치문화 수준을 반영하는 척도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삼국사기를 국가사업으로 편찬할 당시에는 고려건국 후 200여 년이 흘렀고 유교와 불교가 융합됨으로써 고려왕조가 안정을 구가하던 시대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자기역사의 확인 작업으로 전 시대의 역사를 정리할 필요성이 대두되었으며 당시 조정에서는 거란 격퇴이후 국가적 자신감과 여진위협에 따른 강렬한 국가의식이 고조되어 소실된 국사의 재 편찬은 단순한 유교정치의 이념구현만이 아니라 민족의식차원에서 삼국사기의 편찬이 요구되었던 것이다.' [60]

따라서 편사관들은 당시 역사에 정통한 사람들로 구성되었고 그들 또한 역사의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당대의 모든 사료를 집대성하는 심혈을 기우린 역작이었던 것이다. 이에 대하여 이병도는 삼국사기의 백제초기 기록자체를 신화나 부회조작으로 무시했으니 그러면 우리의 역사를 어디서 찾아야 된다는 말인지 또 그러한 사관에 젖어있던 학자로부터 배운 작금의 학자들이 스승을 떠받든다는 차원에서 아무 비판의식 없이 무조건 수용만 하는 현재의 많은 강단 사학자들의 세태를 어떠한 눈으로 바라보아야 옳은 것인지 답답함이 안개처럼 밀려 올 뿐이다.

---

57) 삼국사기 백제본기 무령왕 23년조 '여름 5월에 왕이 죽었다 시호를 무령(武寧)이라 하였다' 이해는 계묘년(523년)인데 중국「양서」45 열전 48제이(諸夷) 백제전에는 왕의 졸년(卒年)을 보통(普通) 5년(524년)으로 기록하였다. 그러나 무령왕릉 출토 묘지(墓誌)에 의하면 '영동대장군백제사마왕(寧東大將軍百濟斯麻王)은 나이 62세 되던 해인 계묘년 5월 병술 삭 7일 임진에 붕어하셨다'라고 하여 「삼국사기」의 기록이 정확한 것을 입증하였다.

58) 11인의 편사관: 최산보(崔山甫) 이온문(李溫文) 허흥재(許洪材) 서안정(徐安貞) 박동계(朴東桂) 이황중(李黃中) 최우보(崔祐甫) 이영온(李永溫) 등 8인의 참고(參考)와 김충효(金忠孝) 정습명(鄭襲明) 2인의 관구(管句 :관리) 등 11인.「한국민족문화대백과」

59) 삼국사기의 참고문헌: 국내: 고기(古記) 삼한고기(三韓古記) 신라고기(新羅古記) 구삼국사(舊三國史). 김대문(金大問)의 고승전(高僧傳) 화랑세기(花郎世記) 계림잡전(鷄林雜傳). 최치원(崔致遠)의 제왕연대력(帝王年代歷)
중국: 삼국지(三國志) 후한서(後漢書) 진서(晉書) 위서(魏書) 송서(宋書) (南北史) 신당서(新唐書) 구당서(舊唐書) 및 자치통감(資治通鑑)「한국민족문화대백과」

60) 한국민족문화대백과 삼국사기

3. 온조 14년(BC5) 한산 아래로 천도 후 왕은 줄곧 한강 남쪽에 있었다.

1) 삼국사기 온조왕 37년(서기19) 조에는 '한수 동북쪽에 흉년이 들어 고구려로 도망해 들어간 이들이 1천여 호에 달해 패수(浿水예성강)와 대수(帶水한강)사이가 텅 비어 사는 사람이 없었다.' 는 기록이 있는데 이는 하북위례성이 도성이었다면 도성사람들도 거의 다 도망하였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과연 이러한 곳에 도성을 가지고 있었을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보아 당시에도 도성은 강남에 있었음을 유추할 수 있다.

2) 책계왕 1년(286)조에는 '고구려가 침구해 올까 염려하여 아단성(阿旦城)과 사성(蛇城)을 수리해 대비하였다.' 라고 하였는바 이는 아단성은 지금의 아차성이고 사성은 한강 남쪽 연안을 따라 축조된 연하수언(緣河樹堰)[61]이 시작되는 서쪽 시작 지점임을 감안할 때 당시 도성은 한수 이남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3) 침류왕 2년(385) 조에는 '한산에 가람을 창건하고 승려 10명에게 도첩을 주었다.' 라는 기록은 도성이 강남에 있었기 때문에 도성 근처 한산에 사찰을 창건한 것이고 한산은 지금의 남한산이 자리한 주변 전체의 산으로 당시 도성이 지금의 이성산성을 포함한 춘궁동 지역이었음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것이다.

4) 진사왕 8년(391) 7월조에는 '고구려의 담덕이 군사 4만을 거느리고 북쪽변경으로 쳐들어와 한수 북쪽의 여러 부락들을 대부분 빼앗겼다.' 라는 기록은 한수 북쪽지역을 거의 모두 잃었으니 왕성은 한수 이남에 있었음이 분명하고 만약 한수 북쪽에 도성이 있었다면 의당 한수 이남으로 천도하였을 터인데 당시 천도하였다는 기록이 없는 것만 보아도 도성은 한수 이남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5) 아신왕 4년(395) 11월조에는 '왕이 패수의 패전을 보복하기 위해 군사 7천을 거느리고 한수를 건너 청목령 아래에 이르렀을 때 큰 눈이 쏟아져 사졸들이 많이 얼어 죽으므로 군사를 되돌려 한산성(漢山城)으로 와서 군사들을 위로하였다.' 라는 기록에서 왕이 한수를 건너 진격했다는 것은 당시 왕성이 강남에 있었음을 말해주는 것이며 한산성으로 퇴각하였다는 말은 하남의 이성산성으로 퇴각하였다는 뜻이다.

---

61) 연하수언(緣河樹堰):백제 개로왕 말기 연례적 홍수에 대비하기 위하여 한강 남쪽의 사성(蛇城) 동쪽에서 숭산(崇山)북쪽까지 쌓았다는 한강의 제방시설. 필자는 『하남에서 백제를 만나다. 2014. 농민신문사』 에서 사성(蛇城)을 하남시 장수동 마을로, 숭산(崇山)을 하남시 검단산으로 비정하였다.

퇴각할 당시 음력 11월은 양력으로는 12-1월에 해당되어 한강이 얼어 군사 이동에는 육지와 별 차이가 없을 뿐 아니라 남한산성(南漢山城) 남한성(南漢城) 남한(南漢) 한산성(漢山城) 한성(漢城) 등은 시대에 따라 변한 동의어(同意語)이기 때문이며 근자에 하남의 이성산성(二聖山城)에서 남한성(南漢城)이라는 목간(木簡)이 출토되었고[62] 하남시의 옛 지명이 남한(南漢)이었다는 사실에서도 알 수 있다. 이를 두고 일부에서는 한산성이 속칭 강북의 북한성(아차산성)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으나 이는 상황을 정확하게 간파하지 못한 잘못된 주장이다.

6) 하남시에 있는 도미나루는 당시 도성이 하남에 있었음을 암시하고 있다.

하남시 창우동에는 삼국사기 도미전(都彌傳)에 나오는 도미나루와 도미부인 이야기가 전하고 있는데 이는 도미진(都彌津), 도미원(渡迷院), 도미천(渡迷遷), 도미강(渡迷江) 또는 두미강(斗迷江), 도미협(渡迷峽), 도미사(渡迷寺), 도미기우제단(渡迷祈雨祭壇) 등의 지명이 창우동에 있었고 남한비사, 중정남한지, 조선왕조실록, 대동지지, 증보문헌비고, 광주부지, 세종실록지리지, 신증동국여지승람 등의 문헌기록과 택당집, 아방강역고, 다산시문집, 동문선 등의 개인문집과 남한산성도, 팔도군현지도, 해동지도, 광주부전도, 대동여지도 등의 옛 지도에서 하남의 창우동에 소재하였음이 확인되고 2003년 경기대학교의 유구조사[63]에서도 확인되었으며 서애 유성룡(柳成龍)의 저서 서애집(西厓集)에서도 1598년 11월 22일 한양벼슬생활을 청산하고 낙향하던 길에 '도미천(渡迷遷)에 당도하여 말에서 내려 삼각산을 바라보고 네 번 절했는데 이는 여기를 지나면 다시는 서울의 산을 볼 수 없었기 때문이다, 라는 구절이 나오는데 이는 도미나루를 지나치면 서울 산이 보이지 않는다는 이야기로 실제 창우동 도미나루 지점을 지나면 검단산이 가려 서울의 산이 보이지 않는다.[64] 이렇듯 하남에 도미나루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은 백제의 도성이 풍납동이나 몽촌지역이 아니라 하남에 있었다는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다. 만약 당시도성이 풍납동 토성에 있었

62) 이성산성 1차 저수지의 출토 목간에는 무진년(戊辰年), 남한성(南漢城), 수성(須城), 도사(道使), 촌주(村主)등의 목간이 출토되었다. 『하남의 문화유산』 2004.2.25 하남 역사박물관.
또한 심정보 교수는 C지구 저수지 제 5문화층의 신묘(辛卯)명(銘)목간은 신묘(辛卯), 욕살(褥薩), 밀계(密計), 벌백제(罰百濟)등으로 이 목간을 광개토대왕 비문에 언급된 신묘년(391년)과 같은 년대의 내용으로 보고 '고구려에서 백제에 보내 힐책하는 글'로 보았다. 『위례문화 15호』. 2012. 하남문화원.

63) 「하남 도미나루 유적」, 경기대학교박물관 조사보고총서 4집, 경기대학교박물관, 도서출판 학연문화사 2003

64) 2016년 5월 4일 필자와 하남향토사연구소 연구위원과 함께 현재 도미나루 표식이 있는 창우동 도미나루에 가서 서울의 삼각산을 관망한바 유성룡의 '서애집' 기록에서처럼 '삼각산이 마치 일몰직전의 석양처럼 아슬아슬하게 검단산 능선에 걸려있는 형상'을 확인하였다.
한편 일부 학자들이 '배알미리 나루터'가 도미나루터라는 주장의 근거를 확인하기 위하여 예전 배알미리 나루터가 있던 현장을 확인한바 팔당발전소 부근의 마을 상류의 강 쪽으로 돌출된 장소에서는 삼각산을 볼 수 있었으나 나루터 위쪽의 원주민('할머니 팔당 집' 식당 사장 이은희)에게 문의한바 예전나루터에서는 지대가 낮아 하류 쪽으로는 마을 언덕이 가려 삼각산 등 모든 것이 보이지 않았다는 증언을 청취할 수 있었다.

다면 도미부인이 그 근처의 한강하류지역을 찾아가 탈출할 것이지 구태여 시간을 낭비해 가면서 20여리의 상류 쪽 도미나루까지 와서 배를 타고 다시 풍납토성 앞 광나루를 지나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이렇듯 백제의 도성은 온조 14년 한산 아래로 천도한 이후 근초고왕 이후에도 줄곧 한수 이남에 있었음이 확인되는데도 다산과 이병도는 근초고왕이 371년 한산이도(漢山移都)한 곳이 지금의 서울 강북으로 백제가 멸망하는 개로왕시대 까지 강북에 있었다고 하는 것이다.

또한 삼국사기에는 기록에는 없지만 광개토왕 비문의 영락6년(396년 백제 아신왕 5)조의 기록을 보면 고구려 군대가 백제의 58성 700촌을 함락하고 아신왕의 항복을 받을 때 광개토왕은 한강을 건너(渡阿利水) 백제왕성을 포위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다. 이 역시 당시 도성이 한강 이남에 있었음을 알려주는 문구이다.

물론 다산이 살던 시대에는 광개토왕비의 존재유무도 몰랐기[65] 때문에 내용 또한 알 수 없는 일이었지만 아신왕 시대에 한강 남쪽에 있던 도성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구려의 남진정책에 따라 더 남쪽으로 내려갔으면 갔지 79년(475-396)후에 강북으로 다시 옮겨갈 이유는 없는 것이다. 그것은 당시 광개토왕의 국토확장 정책과 병행하여 장수왕이 남진정책을 수행 중에 있었기 때문에 북쪽 변경지역 상당수가 고구려에 잠식당하는 상황에서 북쪽으로 도읍을 옮긴다는 것은 불가능한 현실로 인식하기에 충분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IV. 한산 아래로 천도한 남한산성은 지금의 이성산성

현재 남한산성에서 하남시를 향하여 왼쪽으로 내려뻗은 능선을 따라 내려가면 금암산이 나오고 금암산 아래의 낮은 봉우리가 이성산성인데 한양대 박물관에서 그 이성산성 발굴시 남한성(南漢城)이라는 목간(木簡)이 출토된 바 있고 현재의 하남지역 옛 지명이 백제의 도읍인 남한(南漢)이었으며 중정 남한지에서 이성산에 있는 성을 온조고성(溫祚古城)[66]이라고 지칭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온조14년 천도한 한산하의 남한산성[67]이 지금의 이성산성임을 증명해 주고 있다.

한산 아래로 천도한 이후 남한산성이라는 이름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남한성(南漢城) 또는 한

65) 광개토대왕비의 발견: 광개토대왕비는 1876년(광서2년) 중국에서 비석이 서있는 일대에 회인현(懷仁縣)을 설치하였는데 회인현 설치요원의 한 사람으로 금석학에 조예가 깊은 탁본(拓本)기술자 관월산(關月山)이라는 사람이 비의 탁본을 떠서 세상에 알림으로써 비의 존재가 알려지게 되었다. 고고학사전

66) 홍경모의 중정 남한지 권11 하편 잉적(賸蹟)조

67) 고려사의 기록

성(漢城)이라고도 불리었다는 것은 하남지역이 신라시대 초창기 중부지역 통치의 기반이 되었던 신주(新州)의 소재지였으며 그 후 한산주(漢山州) 및 한주(漢州)의 치소(治所)가 계속 지금의 하남시에 소재하였던 곳임을 상기하더라도 어렵지 않게 예측이 가능한 부분이다. 이성산성은 475년 한성백제 멸망 이후 고구려가 차지하여 고구려의 성이 되었다가 551년 백제와 신라가 연합하여 옛 땅을 다시 수복하여 백제의 영토가 되었으나 553년 신라가 다시 중부지역을 차지하고 통치의 거점으로 신주(新州)의 주성(主城) 역할을 하게 되었으며 이때 신주의 책임자인 군주(軍主)는 신라의 삼국통일에 크게 기여한 김유신(金分信)의 조부(祖父)이며 금관가야(金官伽倻)의 마지막 왕인 구형왕(仇衡王)의 셋째아들 김무력(金武力)이었다. 이성산성은 남한강과 북한강이 만나 한강의 본류를 이루는 양수리(두물머리)인근으로 수운(水運)의 요충지일 뿐만 아니라 북쪽으로 한강 주변의 여러 성을 관망할 수 있고 남쪽은 남한산(漢山)이 동쪽은 검단산(黔丹山)이 북쪽은 한강(漢江)이 막아주고 있으며 서쪽은 여러 겹의 야산(野山)이 둘러쳐있어 한강유역과 도성방어에 절대 유리하기 때문에 남쪽의 평야지역을 안전히 확보할 수 있는 유리한 입지조건을 갖추고 있는 전략적 요충지로 선사시대 이래 이 지역을 점유해온 지배세력의 중심지가 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한산 아래라 함은 당시 한산에 연접한 지금의 이성산 금암산 등 주변의 작은 산의 이름은 없었고 모두 한산으로 불렸기 때문에 한산의 북서쪽 능선 아래에 있는 지금의 이성산을 한산 아래(漢山下)로 표시하였으며 지금도 한산아래의 성은 이성산성이 유일하기 때문이다. 만약 일부 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당초에 강북에서 백제가 건국하여 온조14년 몽촌이나 풍납동으로 천도하였다면 한산아래 (漢山下)라고 하지 않고 강 건너 남쪽으로 천도하였다고 기록하였을 것이며 '강 건너' 지역은 절대로 '산 아래' 라고 부르지 않는 것이니 강북에서 강남으로 천도하였다는 주장은 '한산 아래'라는 단어 하나로도 신빙성을 상실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V. 당초의 남한산성(南漢山城:이성산성) 이름이 주장성(晝長城:지금의 남한산성)으로 옮겨간 이유

신라는 660년에 백제를 668년에 고구려를 차례로 무너뜨리고 672년에는 당나라와 상대하기 위하여 하남위례성이 있던 한산 정상부에 주장성(晝長城)[68]이라는 대규모 성을 축성하고 남한성(南漢城:이성산성)에 있던 모든 군사와 시설을 새로운 성으로 이전하고 남한성은 폐성(廢城)에 가까

68) 주장성(晝長城):신라 문무왕 12년(672)년에 지금의 남한산성에 쌓은 석성

운 보조성으로 남게 된다.

그런데 사람들이 남한성의 군사기지가 인근의 주장성으로 옮겨간 후 종전의 남한산성은 폐성이 되었기 때문에 새로 이전한 인근의 주장성을 알기 쉽게 종전의 남한성이라고 더 많이 호칭한 것으로 보인다.

종전의 남한성은 익히 알려진 성인데 신라의 수도 경주 같은 외지에서 주장성을 호칭할 때 남한성과 인근의 산성이기 때문에 남한성으로 더 많이 호칭하고 산성의 주변사람들도 남한성이 이전한 성이 주장성이므로 남한성의 호칭을 더 선호하였을 수도 있어 조선조 이후에는 한산아래에 있던 남한성(지금의 이성산성)이라는 이름이 한산 정상부의 지금의 남한산성으로 고착화 된 것이라고 본다.

이렇듯 남한산성이라는 이름이 현재의 이성산성에서 지금의 남한산성으로 옮겨간 사실을 모르고 남한산성을 한산의 정상부에만 존재하였던 것으로 인식하면 중정 남한지(重訂 南漢志)의 저자 홍경모(洪敬謨)처럼 혼동[69]을 초래할 수 있는 것이다.

VI. 하남시지역의 백제 때 지명은 남한(南漢)

지금의 하남시 지역 이름이 남한(南漢)이었다는 사실은 일찍이 백제 온조왕 14년(BC5년)한산의 하남위례성(河南慰禮城)에서 한산 아래로 도읍을 옮기고 그 옮긴 도성을 남한산성(南漢山

69) 중정남한지 성지(城池)편: "백제 온조의 고성은 한산 아래에 있다. 살피건대 백제사에 이르기를 온조왕13년 한산아래를 취하여 성궐을 세우고 위례성의 민호를 옮겨 이를 하남위례성 이라하였다. 한산은 즉 지금의 일장산이요, 온조가 산 아래를 취하여 성궐을 세웠다하니 성을 산 위에 세운 것이 아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는 남한산성을 온조가 도읍했던 성이라고 하니 무슨 근거로 하는 말인지 알 수 없다."
필자 주(註): 여기서 중정 남한지의 저자 홍경모(洪敬謨)는 남한산성의 이름이 당초 지금의 이성산성에서 한산 정상부의 주장성으로 옮겨간 사실을 간과하고 사서(史書)에 '한산 아래로 천도하였다고 하면서 한산아래의 도성이름이 한산위에 있는 남한산성이라고 하니' 이를 알 수 없다고 한 것이다
그러나 이는 온조1년 온조가 한산의 부아악에 올라 한산 정상부에서 백제를 건국한 곳이 하남위례성이요 온조14년 한산아래에 천도한 곳이 남한산성인데 이를 혼동하고 있는 것이다. 한산 아래를 하남위례성이라 한 것은 후일 정약용이 하북위례성설을 주장하면서 자기주장을 합리화하기 위하여 삼국사기의 온조 1년의 기록이 온조13년의 일을 잘못 기록한 것이라고 주장한데에 따른 것으로 처음 도읍을 정할 때 이미 한산 정상부를 "하남위례성(河南慰禮城)" "북대한수(北帶漢水)" 라고 하였기 때문에 당초부터 한강 이남지역에서 도읍한 것이 분명한데 정약용은 북사(北史)의 기록에 백제가 대방고지(帶方故地)서 건국하였다는 기록과 부아산(負兒山)이 지금의 북한산이라는 고정관념에 빠져 삼국사기의 기록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그러나 한산은 이미 하남(河南:한강이남)에 있었고 부아악도 한산의 한 봉우리(송악)이므로 도읍 이름을 하남위례성이라 하였던 것이다. 비류와 함께 열 신하를 대동하고 부아악에 동행하였는데 그것이 온조 13년의 일이라면 다른 부분에서 역사는 모순과 혼돈을 자초하므로 가당치 않은 주장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城)[70]이라고 하였고 신라가 668년 고구려를 멸한 후 670년(문무왕10년) 남한산주(南漢山州)[71]로 한바 있으며 8-9세기 신라 석곽묘인 광주(廣州) 대쌍령리 고분에서 출토된 청동제 방울에서 '남한산 조사(南漢山助舍)'라는 명문(銘文)이 나왔고[72] 668년 (신라 문무왕8년)10월 22일 문무왕은 고구려 평양 함락작전에 전공을 세운 장군들에게 관위와 포상을 하였는데 '군사(軍師)인 남한산(南漢山)의 북거(北渠)는 평양성 북문전투에서 공로가 으뜸이었으므로 술간(述干)의 관위(官位)를 수여하고 벼 1천석을 내려주었다'는 기록[73]이 있으며 유형원(柳馨遠)은 삼국사기 열전에서 전하는 도미설화에 대하여 '도미설화(都彌說話)의 이야기는 백제의 도읍이 남한(南漢)일 때의 이야기로 도미천(渡迷遷)과 도미원(渡迷院)이 있는 현재 하남시의 도미나루 부근의 이야기일 것'[74]이라고 하여 남한(南漢)이 백제의 도읍이었음을 기록하였고 지금도 이성산성이 소재한 하남지역에서는 백제시대의 옛 지명인 남한(南漢)이라는 이름이 남한 중고등학교(南漢中高等學校), 중정남한지(重訂南漢志), 남한비사(南漢秘史) 등에서 옛 이름을 찾아 볼 수 있다.

Ⅶ. 근초고왕의 한산이도(漢山移都)

1. 한산이도(漢山移都)의 이유

백제의 13대(代) 근초고왕(近肖古王)은 371년(근초고왕26) 겨울 태자와 함께 정예병 3만 명을 거느리고 고구려 평양성을 공격하였는데 교전 중 고구려의 고국원왕이 죽자 곧바로 회군하여 한산이도(漢山移都)를 단행하였다. 이러한 조치는 고구려를 더 압박하기위한 조치라기보다는 수세적 입장에서 적의 자객 투입 등 보복공격에 대비한 왕의 신변안전을 우선하여 당분간 안전한 곳으로 몸을 옮기려한 결과이다. 한산으로 이도하였다는 의미는 한산 아래 즉 이성산성이 소재한 하남의 춘궁동에서 당초 백제가 건국하였던 남한산성 정상부의 하남위례성으로 임시 피신하였다는

70) 고려사 및 세종실록지리지 광주목조

71) 세종실록지리지 광주목조: '당나라 고종 현경5년 경신(660년)에 당나라 장수 소정방이 백제를 치는데 신라 태종왕이 김유신을 보내어 협공하여(挾攻)하여 백제를 멸하고 당나라 군사가 돌아가매 문무왕이 차츰 그 땅을 거두어 차지하여 4년 갑자(麟德元年)에 한산주(漢山州)로 고치고 10년 경오(670년 咸亨元年)에 남한산주(南漢山州)로 하였다가 경덕왕 16년 정유(757년 당나라 肅宗 至德2년)에 한주(漢州)로 고쳤고...'

72) 황보경 "광주 대쌍령리 고분출토'남한산조사(南漢山助舍)' 銘 청동제 방울 고찰" 한국문화사학회. 2009.

73) 삼국사기 신라본기 문무왕 8년 10월22일조 '군사 남한산 북거 평양성 북문 전공 제일 수위 술간 사 속일천석(軍師南漢山北渠平壤城北門戰功第一授位述干賜粟一千石)'

74) 1656년 동국여지지(東國輿地志) 광주목(廣州牧) 열녀조(烈女條)

뜻이다. 백제는 이보다 67년 전 10대(代) 분서왕(汾西王) 7년(304년) 2월에 군사를 내어 낙랑의 서쪽 현을 습격하여 빼앗았었는데 그해 10월 낙랑태수가 보낸 자객에게 분서왕이 살해되는 아픈 경험을 가지고 있었다.

당시 13대(代) 근초고왕이 이러한 사실을 왜 몰랐겠는가? 따라서 근초고왕은 여러 사정을 감안하여 한산으로 이도를 하였는데 여기서 삼국사기에 온조14년 1월에 한산 아래로 옮길 때는 천도(遷都)로 쓰고 여기서는 이도(移都)로 기록하였다는 것은 분명히 다른 의미가 있어서 그렇게 구분하였다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당시 백제는 고구려와 대적할 수 있는 군사력을 보유하고 고구려의 잦은 침입을 응징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지만 결코 고구려를 침입하여 그 영토를 영구히 차지하려는 영토 확장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고는 단정하기 어렵다. 만약 영토 확장 의도로 고구려를 공격하였다면 고국원왕을 사살한 후 적의 사기가 떨어진 틈을 이용하여 계속 공격했어야지 회군(回軍)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이보다 2년 전 근초고왕 24년(369년)에도 고구려 고국원왕이 치양(雉壤)[75]에 쳐들어 왔을 때 태자 수(須)를 보내 막게 하였는데 태자는 적들을 추격해 수곡성(水谷城)[76] 서북쪽까지 이르렀다 이때 수하 장군 막고해(莫古解)는 도가(道家)의 말을 인용 '만족할 줄 알면 욕되지 않고 머무를 줄 알면 위태롭지 않다(知足不辱 知止不殆)'고하며 태자에게 돌아갈 것을 주청하여 회군을 결정하였다는 근구수왕1년의 기록을 보아도 당시 백제는 고구려를 정복하여 차지하려는 의도는 당초부터 없었다고 보아야 한다.

2. 천도(遷都)와 이도(移都)의 의미

먼저 온조 14년의 천도의 상황을 보자 온조는 천도하기 1년 전(온조13년) 5월에 천도를 결정하고 7월에 한산 아래로 나아가 목책을 세우고 위례성 민호(民戶)를 옮기고 8월에 마한에 사신을 보내 천도할 것과 강장(疆場)[77]을 알리고 9월에는 성과 궁궐을 세웠다. 이렇듯 미리 궁궐 등을 준비한 후 도읍을 옮기는 것을 천도(遷都)로 본 것이다.

그러나 근초고왕 26년의 경우는 전술한바와 같이 적국의 왕을 사살하였으니 필시 대규모의 군

75) 치양(雉壤): 백제의 북방 요새로 황해도 연백지역의 옛 지명. 민족문화대백과

76) 수곡성(水谷城): 황해도 신계군(新溪郡)에 있던 고구려 때의 행정구역. 고구려 때에는 수곡성(水谷城), 매차홀(買且忽), 통일신라 때에는 단계현(檀溪縣), 고려 초에 협계현(俠溪縣), 조선에 들어와서는 1397년 신은현(新恩縣)에 폐합되었다. 두산백과

77) 강장(疆場):북지패하(北至浿河:북으로 패하에 이르고) 남한웅천(南限熊川:남으로는 웅천까지 이고) 서궁대해(西窮大海:서로는 큰 바다에 닿고) 동극주양(東極走壤:동으로는 주양에 이르렀다)

사반격이나 아니면 전례(前例)[78]와 같은 자객 등을 보내 왕을 시해하려 할 것이니 우선 안전하고 왕의 신변보호가 용이한 한산의 정상부에 있는 처음도읍지인 지금의 남한산성인 하남위례성으로 중요사람들만 대동하고 임시로 피신하여 정사를 돌보는 기간이 있었으니 이를 두고 이도(移都)라고 하여 천도와 차별성을 둔 것으로 판단된다.

3. 이도 기간 중 이성산성을 석성(石城)으로 축성한 것이다

이렇게 하여 한산으로 이도(移都)한 다음 도성의 방어와 왕의 신변보호를 보다 견고히 하기위하여 토성(土城)이었던 지금의 이성산성인 한성에 방어력을 대폭 강화할 수 있는 석성(石城)으로 재구축할 것을 결정하고 이도한 시기가 371년(근초고왕26) 추운 겨울이기 때문에 다음해(372년) 해동(解凍)이후 부터나 석성축성이 시작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일부학자들이 이성산성을 한산으로 비정하고 371년 왕의 신변보호를 위하여 이성산성에 석성을 축성하고 이도하였다는 주장은 공사기간을 감안하지 아니한 현실성이 결여된 주장이며 이는 풍납토성에서 이성산성으로 이도한 것이 아니고 기왕의 토성상태의 이성산성에서 한산 정상부근인 남한산성으로 석성축성기간 동안만 이도하였음을 대변해 주고 있으며 이는 304년 분서왕이 토성상태의 이성산성에서 살해되었기 때문에 석성축성을 시도했을 가능성을 암시하고 있다. 따라서 이성산성은 한산 아래의 지역으로 온조14년 천도할 때의 그 장소로 보아야 합당 할 것이다. 따라서 남한산성 행궁부근에서 출토된 대형기와도 한산이도 전후시대의 산물일 가능성에 대해 재검토의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렇듯 천도(遷都)[79]는 왕이 새로이 궁성을 건설하고 도읍을 옮기는 것이며 이도(移都)는 이어(移御)[80]나 이감(移監)[81]처럼 기왕의 시설로 몸만 옮겨가는 형태로 보아 삼국사기에 그러한 기록상 차별을 두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

4. 한산이도(漢山移都)의 기간

한산이도는 석성이었던 이성산성이 완벽한 도성방어나 자객침투방지가 미흡하여 석성으로 보

78) 304년(분서왕 7년) 낙랑태수가 자객을 보내 백제 분서왕(汾西王)을 살해한 일

79) 천도(遷都): 서울을 옮김. 좌전(左傳) 주(註)에서는 성왕영왕성(成王營王城)이라 하여 왕이 지어진 왕성으로 옮길 때를 천도라고 한 것으로 보인다. 大漢韓辭典/1964/省文社

80) 이어(移御): 임금이 거처하는 것을 옮김.

81) 이감(移監): 한 교도소에서 다른 교도소로 수감자를 옮김.

완할 것을 전제로 임시로 한산 정상부로 이도한 것이기 때문에 석성축성을 시작하여 공사가 완료되는 3-4년[82] 정도가 소요되었을 것으로 보이며 석성축조로 보다 강화된 도성의 방비태세를 구축한 후 다시 한성(漢城)인 이성산성으로 환도(還都)[83]한 것으로 추정되며 한산이도기간(漢山移都期間)은 이성산성의 석성축성기간(石城築城期間)과 동일한 기간으로 보여 진다.

5. 하북(河北)으로는 이도(移都)할 형편이 아니었다.

다산의 주장처럼 도성을 한강 이북으로 이도(移都)하였다면 백제가 고구려의 영토를 정벌하여 영토 확장을 꽤하였다는 정황이 보여야 되는데 근초고왕(13대)과 근구수왕(14대)의 전성기를 보낸 다음부터는 계속 수세에 몰려 강북지역을 거의 다 잃고 그로부터 25년 후인 396년(17대 아신왕5년)에는 급기야 광개토왕에게 항복[84]을 당하는 수난을 겪었는데 삼국유사 등의 기록처럼 어찌 한강이북으로 이도하여 105년을 지냈겠는가? 또 아신왕시대에 광개토왕은 아리수(阿利水:한강)를 건너 백제도성을 포위하였었고 개로왕 시대에도 지금의 워커힐 뒤편 아차산 보루에 고구려 군과 대치[85]하고 있었는데 어찌 강북에 도성이 있을 수 있었겠는가? 따라서 근초고왕은 한산인 지금의 남한산성으로 이도한 것이지 정약용 등 일부학자들이 제기하는 한수이북으로 천도(遷都)하였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이론임이 분명하다.

---

82) 1.석성을 축성하려면 주변으로부터 돌을 가져와야 하고 백제시대 최초의 석성임을 감안하면 준비기간도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이도한 371년은 시기상 겨울에 해당되므로 그해에 석성축성을 완료하고 환도(還都)는 거의 불가능하였다고 보이며 3-4년 후 석성 축성을 완료한 후 근초고왕 재위시인 374-375경(375년 11월 근초고왕 죽음)에 이루어 졌을 것으로 보며 이도 기간 동안에는 왕은 큰 전투의 경험이 풍부한 태자에게 군권을 주어 대대적인 모병과 군사훈련을 병행하였을 것으로 보이며 성남시 창곡동의 태자궁(太子宮)전설의 장본인도 근초고왕의 태자 수(須)를 대상으로 형성된 것으로 추측된다.
2. '이성산성과 비슷한 규모의 산성인 충북 보은의 삼년산성(三年山城)을 축성하는데 3년이 걸렸다는 기록이 있고 이성산성의 높이가 7m이고 기저부의 너비가 7m 상단부의 너비가 5m 성 둘레가 1,665m로 추정할 때 전체 성 돌의 무게는 181,818톤으로 10톤 트럭 약 1만 8천여 대에 해당하는 석재가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정하여 축성기간을 약 3년으로 추정하였다.' 『심광주. 하남문화유산의 보고 이성산성』 하남의 문화유산 2004. 하남문화원
3.이성산성의 석성축조시기를 400년 이전으로 추정하고 신묘년(391년) 목간은 이성산성이 당시 백제의 도성이었음을 알 수 있는 자료라고 평가했다. 『심정보. 이성산성의 축조시기에 의한 검토』 2012. 위례문화 15호. 하남문화원.

83) 3-4년 후 이성산성으로 환도하였을 것으로 보는 이유는 온조가 온조14년(BC5) 1월 한산 아래로 천도한 후 동년 7월 기록과 온조 25년 (서기7)2월 기록에서 도성이름을 한성(漢城)이라 하였는데 근초고왕26년(371) 한산이도(漢山移都)가 있은 후인 아신왕1년(392)년과 개로왕21년(475)의 기록에서도 도성이름을 같은 한성(漢城)으로 기록하였다는 것은 한산이도 후 다시 환도하였음을 나타내는 기록으로 보아야 한다.

84) 광개토왕 비문

85) 삼국사기 개로왕 21년 (475년)조: (1)강을 따라 둑을 세워(緣河樹堰) 사성(蛇城) 동쪽에서부터 숭산(崇山)북쪽까지 이르게 하였다.
(2)고구려 장수 걸루 등이 왕을 발견하자 말에서 내려 절을 하더니 이윽고 왕의 얼굴을 향해 세 번 침을 뱉고 곧 죄목을 헤아린 다음 아차성(阿且城)아래로 묶어 보내 죽이고 말았다.

Ⅷ. 한성백제(漢城百濟) 2경체제설(二京體制說)의 부정확성

다산 정약용은 백제가 하북의 삼각산 동록에서 건국하여 그때의 도성을 위례성이라 하였는데 온조14년 한강 남쪽의 춘궁동지역으로 천도하였으니 하남위례성이라고 이름 한 것으로 보았다. 그리고 이때부터 도성 2개를 가지고 함께 운용하여 다산은 강북에 있는 도성을 북위례(하북위례성) 강남에 있는 도성을 남위례(하남위례성)로 명명하기에 이른 것이다. 이렇게 한강 남쪽과 북쪽에 각각 1개씩 모두 2개의 도성을 가지고 필요에 따라 왕이 오가면서 도성을 운용하였다고 보았는데 이를 2경 체제라고 한다. 2경체제는 다산이 강북에서 백제가 처음 일어났다고 믿었기 때문에 한산 아래로 천도한 이후 강북사람을 동원하여 위례성을 수리하였다는 삼국사기의 기록을 보고 그 수리한 위례성이 강북의 속칭 북위례를 수리한 것으로 믿어 2경체제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삼국사기 본기에서는 처음 한산에서 건국할 때 한강 이남인 한산에서 건국하였기 때문에 하남위례성이라 한 것이고 온조14년 한산 아래로 천도한 이후에는 도성의 이름을 하남위례성이라 칭한 곳은 한 군데도 없고 위례성 한성 등으로 호칭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다산이 주장하는 북위례는 당초부터 없는 것이요 근초고왕의 '한성천도'는 본기의 기록대로 '한산이도'로 보아 얼마 후 환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Ⅸ. 개로왕(蓋鹵王)시대의 북성(北城)과 남성(南城)

다산 정약용은 아방강역고의 위례고에서 근초고왕 26년 이후 개로왕 말기까지 백제의 도성이 북위례(하북위례성)에 있었다고 보아 북성과 남성이 모두 한강 이북에 있었던 것으로 보았다. 그는 북성을 삼각산 동록인 북위례(하북위례성)로 보고 남성을 개루왕5년 쌓았다는 북한산성으로 보았는데 여기서의 북한산성은 지금의 북한산성이 아니고 아차산근처의 산성으로 본 것이다. 그러나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개로왕대의 백제도성은 한강 이남에 있었던 것이 분명해 지고 있다. 근자에 풍납토성과 몽촌토성을 백제의 도성으로 주장하는 학자들은 북성을 풍납토성으로 남성을 몽촌토성으로 비정하고 있으나 당시의 고구려 군사 3만 명이 먼저 북성을 공격할 때 군사를 나누어 네 갈래 길을 끼고 7일 밤낮으로 공격해 왕성인 대성이 함락되었다는 삼국사기와 일본서기의 기록을 참고하면 당시 병력규모나 전투상황으로 보아 북성이 산성(山城)임을 암시하고 있고 남성이라는 몽촌토성은 원래 성곽의 위치로 보아 왕성은 후미에 있어야 퇴로와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법인데 풍납토성이 전방에 위치하고 남성인 몽촌토성이 후방에 위치하고 있어 이것이 사실이라면 개로왕이 북성이 함락되기 전 남성인 몽촌토성으로 피신하였는데 평지성인 풍납토성에서 어떻게 남성으로 갈 수 있었겠는가? 무엇보다 풍납동지역은 상습 홍수피해지역인데 어찌 왕성을 그런 곳에 정할 수 있었겠는가? 이러한 여러 사항을 감안 할 때 필자는 북성은 왕성인 하남의 이성산성이요 남성은 지금의 남한산성이 유력하다고 본다.

X. 금암산 석실 고분군 발굴

2016년 하남 역사박물관에서 발굴을 시작한 금암산 석실고분군은 발굴결과에 따라 백제고분군일 가능성에 기대를 걸고 있다. 하남이 도성지역이라면 부근에 대단위 고군군(古墳群)이 존재하여야 하는데 필자는 이 고분군이 백제 왕실 및 귀족의 고분군으로 밝혀질 경우 하남의 백제도성 존재의 고고학적 규명이 더욱 명확해 질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고분군의 위치가 춘궁동 도성의 서쪽에 위치하기 때문에 백제시대의 장례풍습[86]이나 고대인들의 매장문화와 일치하기 때문이다.

XI. 결론

백제의 건국과 도성의 변천에 대하여는 학자마다의 이론(異論)이 다양하여 끊임없는 논쟁이 지속되다가 근자에 와서는 몽촌 풍납동지역이 새로운 도성지역으로 떠오르고 있다.

그러나 이 지역도 도성으로서의 주장이 많은 불합리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정사화(正史化)에는 이르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필자는 백제를 비롯한 고대사에서 이러한 여러 의견이 대립충돌되어 혼돈을 자초하는 까닭은 우리나라의 고대사를 어느 역사서에 기준을 두고 정립해 나가야 하는가라는 기본적인 문제를 사학계가 정리하지 못하고 있는 연유에서 비롯되었다고 본다.

현재 삼국의 역사를 논할 때 대부분의 역사적사건은 일상적으로 삼국사기에 그 근거를 두고 설명하고 있음에도 유독 백제 초기사(初期史)부문에서는 삼국사기의 기록을 도외시한 시각의 연구

86) 무령왕릉지석: 서기 병오년(서기 526년) 12월 백제국 태왕비(무령왕비)께서 천명대로 살다 돌아가셨다. 서쪽 땅에서 장례를 치르고 기유년(529년)2월 12일 다시 대묘로 옮겨 장례를 지내며 기록한다.(丙午年 十二月 百濟國王太妃壽終 居喪在酉地 己酉年 二月 癸未朔 十二日 甲午 改葬還大墓 立志如左)

와 평가가 이루어지는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는 조선조이후 원로 사학자들이 삼국사기의 기록을 신화나 부회조작으로 폄하하고 중화사상에 입각한 주변소국의 역사를 단편적이며 편파적으로 기록한 중국사서에 더 신빙성을 부여한 사대사상과 일제이후 일본사학자들이 일본의 한반도지배를 정당화하기 위하여 가능한 우리의 역사를 축소하고 은폐함에 익숙한 식민사관에 물든 영향이 작용한 결과라고 판단된다.

이제 우리나라가 광복을 되찾은 지도 70여년이 지났고 통일은 아직 이루지 못하였지만 세계 10위권에 육박하는 경제성장으로 선진국대열에 진입하는 단계에 이른 만큼 이제 우리역사를 보는 시각도 자주적인 시각에서 관조할 필요가 있으며 삼국사기에 대한 기존의 시각도 재평가할 시대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의 고대사는 정사(正史)인 삼국사기 중심으로 재 정돈되어질 것이다. 그러한 관점에서 백제의 건국과 도성의 변천과정을 추적 탐구한 결과 백제의 처음도읍지는 BC18년 한산에서 건국하였으며 한산은 한강 남쪽의 지금의 남한산이다. 온조 일행은 고구려 추모왕(주몽)과 함께 있다가 BC19년 주몽이 북부여에 있을 때 낳은 유리가 찾아와 태자가 되고 이어서 왕위에 오르자 용납되지 못할 것을 두려워해 어머니 소서노와 함께 예성강과 한강을 건너 지금의 인천 미추홀에 도착해 도읍할 곳을 물색하던 끝에 후보지로 떠오른 한산에 와서 부아악(松嶽)에 오르는데 부아악은 지금의 남한산성 수어장대 부근으로 추정된다. 이는 남한산성 수어장대 부근에서 바라본 사방의 지형이 삼국사기에서 지적한 지형설명에 완벽히 일치하는 유일한 곳이기 때문이다. 종래에 다산 정약용과 이병도가 제시한 이른바 하북위례성 설은 여러 각도의 분석결과 삼국사기 본기에서는 거론된바 없는 가공의 도성으로 불합리한 이유와 원인을 제시 하였다. 이는 다산이 주장한 삼국사기 기록의 온조 원년과 온조 13년의 도치설(倒置說)을 그대로 놓고 본다하더라도 강북의 부아산(삼각산 인수봉)에서 바라본 사방의 지형설명이 50리 밖의 하남시 춘궁동을 기준으로 한 지형을 기록할 이유가 없어 어불성설의 주장에 불과한 것이다. 또한 온조 14년의 한산 아래로 천도한 곳은 지금의 춘궁동 이성산성으로 처음에는 남한산성으로 불러 주변지역이 남한성 한성 남한 등으로 부르게 되었으며 이성산성 발굴시 출토된 남한성(南漢城)이라는 목간은 이를 증명하고 있다. 이성산성이 당초에는 남한산성이었으나 후일(673년) 한산 정상부에 주장성이 축성되어 모든 군사와 기능이 인근 주장성으로 옮겨 감에 따라 남한산성의 이름도 함께 따라가 주장성을 남한산성으로 부르게 되는 원인이 되었다고 추정된다.

한편 근초고왕 26년(371년)의 한산으로 이도(移都)한 것에 대하여 다른 사서에서 남평양의 한성으로 천도한 것으로 기록함에 따라 이를 한강 북쪽 지금의 서울로 천도하여 2경체제로 운용되었을 것으로 인식하는 경향에 대해 이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이도(移都)는 왕의 신변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우선 임시로 지금의 남한산성으로 잠시 옮긴 후 이성산성의 석성 축성을 완료하고 도

성의 방어태세를 한 단계 격상시킨 후 다시 환도한 것이 분명하며 한산이도기간은 이성산성 축성 기간과 괴를 같이함을 제시하였다. 또한 개로왕시대의 남성과 북성에 대하여 여러 설이 존재하나 당시의 전투상황을 기준으로 북성은 하남의 이성산성이며 남성은 지금의 남한산성임을 제시하였다. 종합하면 백제는 한산에서 일어나 한산을 떠난 적이 없는데 풍납동을 비롯한 여러 이설이 난무하는 것은 삼국사기 기록에 대한 이해에 충실하지 못한 역사인식에서 비롯되었음을 지적하면서 우리의 정사인 삼국사기에 충실하면 남한산과 지금의 하남이 백제의 도성이었다는 사실이 확연히 드러난다는 것을 천명하는 바이다.

참고문헌

1.삼국사기(三國史記)
2.삼국유사(三國遺事)
3.세종실록지리지(世宗實錄地理志)
4.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
5.고려사(高麗史)
6.『아방강역고(我邦疆域考)』정약용(丁若鏞) 범우사 2004
7.『위례고』이병도(李丙燾) 한국고대사 연구 1981
8.『한강유역 백제초기 성지연구』성주탁(成周鐸) 백제연구 1984
9.『고고학적 자료를 통해본 백제초기의 영역 고찰』최몽룡(崔夢龍) 권오영(權五榮) 한국사학논총1985
10.『위례성과 한성에 대하여』차용걸(車勇杰) 1981
11.『한강유역에 있어서의 백제문화연구』윤무병(尹武炳) 1994
12.『한홀시대의 백제 말을 찾아서』도수희(都守熙) 2011
13.『한성백제의 하이테크 기술』오순제(吳舜濟) 2013
14.『환단고기』안경전(安耕田) 상생출판사 2012
15.『징비록』유성룡(柳成龍) 홍익출판사 2015
16.『서애집』유성룡(柳成龍) 민족문화추진회
17.『중정남한지(重訂南漢志)』하남 역사박물관 2005
18. 남한비사(南漢秘史) 구민회(具敏會) 광주문화원 2003
19.『하남에서 백제를 만나다』이강범(李綱範) 농민신문사 2014
20.『백제초도 위례성고』오세창(吳世昌) 천안군 1994
21.『하남의 문화유산 하남』 역사박물관 2004
22.『역사 속으로의 하남여행』 하남 역사박물관 2003
23.『이성산성에 대한 학술대회』하남문화원 2011
24.『백제인의 제 문화에 대한 학술대회』하남문화원 2013
25.『성남향토문화총서』성남문화원 2005
26.『경기향토사학』한국문화원연합회 경기도지회 2012
27.『한국인의 성씨』일신각 1985
28.『백제의 왕궁』한성백제박물관 2014
29.『백제 마한과 하나 되다』한성백제박물관 2013
30.『하남문화유산의보고 이성산성』심광주 하남문화원 2004
31.『이성산성 축조시기에 의한 검토』심정보 2012
32.『고구려 광개토왕릉 비문연구』이도학 서경 2006
33.『동아세계대백과사전』동아출판사 1991
34.『대한한사전』성문사 1961
35.『인터넷사전』「민족문화대백과」「한국지명유래」「위키백과」「오픈백과」
36.『하남 도미나루 유적』「경기대학교 박물관 조사보고 총서4집」경기대학교 2003

매초성. 과연 어디인가?

이 준 용 (연천문화원 향토사료 연구위원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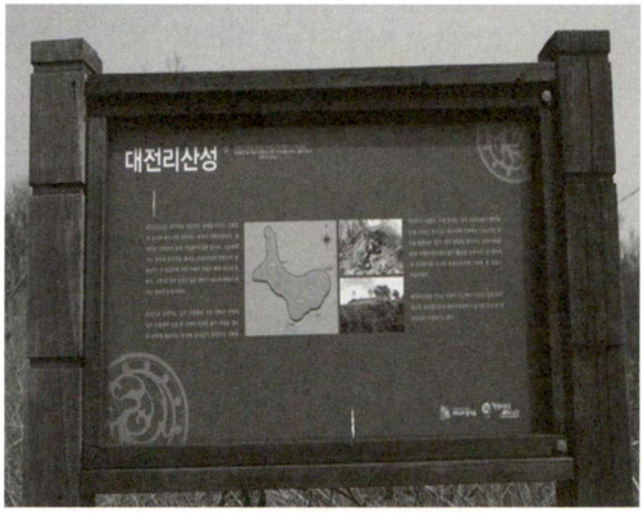
목 차

Ⅰ. 신라의 삼국통일과 매초성
Ⅱ. 백제와 고구려의 멸망, 그리고 당의 야심
Ⅲ. 당나라의 배신과 전투
Ⅳ. 매초성과 김원술(김유신 장군의 2남)
Ⅴ. 대전리산성이 매초성이다.
Ⅵ. 양주산성(대모산성)이 매초성일 수 없는 이유
Ⅶ. 대전리산성이 매초성일 수밖에 없는 이유
Ⅷ. 맺는 말

집필자
이 준 용 연천문화원 향토사료 연구위원장

Ⅰ. 신라의 삼국통일과 매초성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면서 가장 큰 전승을 올렸던 성이 매초성이라고 알려져 있다. 당시 당나라의 이근행이 이끄는 20만 대군이 주둔하던 곳으로 신라의 5만 병력에 참담하게 패배를 당하고 결국은 한반도에서 완전히 물러나게 만든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극적인 승리를 가져다 준 전투이다. 그러나 이 매초성이 아직까지 어디인가는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고 비정만 될 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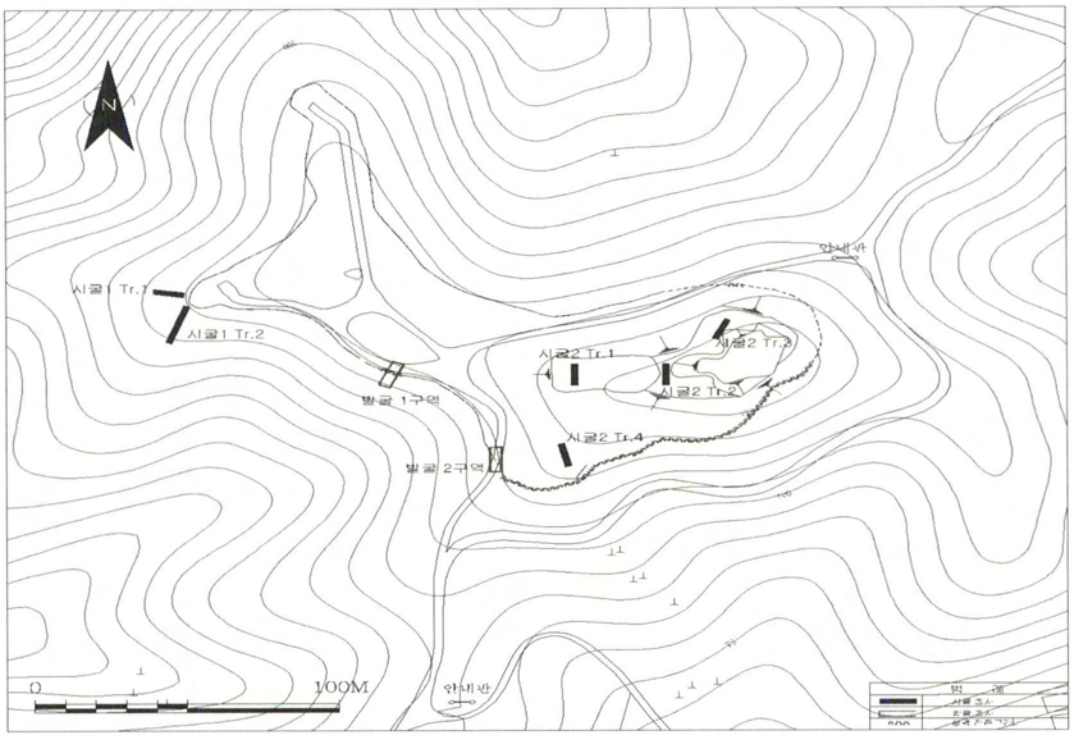


매초성이 가장 유력시 되는 연천군청산면의 대전리산성 표지판(필자 촬영)

대전리 산성은 청산면 대전리와 장탄리의 경계지점에 있는 성재산(137.5m)의 산록(山麓)에 위치한다. 대전리산성에 대해서는 조선시대 지리지에서 거의 나타나지 않으며, 대동여지도(大東輿地圖)를 포함한 고지도에도 표기되어 있지 않다. 현재 성의 명칭도 상이하여 동명을 따라 대전리산성이라고 부르고 있다. 이 성에 관해서는 조선보물고적조사자료(朝鮮寶物古蹟調查資料)에 처음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석축으로 둘레는 약 270칸 정도이고 대략 타원형을 이루고 있으며, 성내에 우물 1개소와 와편이 산재하고 있다'고 하였다.

전국유적일록(全國遺蹟目錄)에도 내용이 대동소이하며, 『文化遺蹟總攬』에는 '임진왜란 때 향토를 방위할 목적으로 향인들이 자력으로 축조한 성으로 전하며, 거의 다 퇴락하고 토성 둘레 500~600m 정도의 잔해만 남아있다'고 하였다. 이 산성은 羅唐戰爭期의 買肖城으로 비정되기도 한다. 산성은 동쪽과 서북쪽에 솟아있는 산봉을 중심으로 둘러쌓은 테뫼식 산성으로 성의 둘레는 약 700m, 성내의 면적은 약 14,000㎡ 정도의 규모이다.

성재산은 서쪽으로는 한탄강에 면해 있고, 남쪽은 신천이 동에서 서로 흘러 한탄강에 합류되고 있다. 산성은 성재산의 해발 120m 지점에 축조되어 있으며, 성벽은 6.25 전쟁 이후 군사시설로 인



연천 대전리산성 현황도(연천군발행 대전리산성)

하여 대부분 훼손되거나 토사에 매몰되었으며 남벽 일부에 성벽이 일부 잔존해 있다. 유물은 성의 남쪽 최정상부의 북사면에서 태선선조문과 격자문의 회색이나 적갈색을 띄는 삼국시대 와편들이 출토된다. 토기류는 소량이지만 인화문토기편을 비롯한 경부파상문대옹, 기형을 알기 어려운 회청색경질토기편 등 대체로 삼국통일기를 전후한 시기로 비정되는 신라 토기류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II. 백제와 고구려의 멸망, 그리고 당의 야심

서기 660년 나당연합군에 의해 결국 백제는 멸망한다. 백제의 계백장군이 이끄는 5,000여 결사대가 황산벌에서 최후의 1인까지 목숨을 걸고 결사 항전을 하였지만 결국 나. 당연합군의 숫적 열세에 결국은 패망하고 만 것이다. 이후 백제의 의자왕은 당나라군의 포로가 되어 당나라로 끌려가고 만다. 이로서 기원전 18년 온조가 서울의 아차산 일대에서 나라를 세우고 약 700여년간 지탱해 오던 백제가 결국 멸망하고 만 것이다.

나당연합군은 백제를 멸망시킨 것에 그치지 않고 드디어 고구려까지 멸망시키기 위해 고구려의 수도인 평양성으로 공격하기 시작한다. 나. 당연합군의 합동공격에 처한 고구려는 설상가상으로 내분까지 겹치게 된다. 연개소문이 사망하자 연개소문의 큰아들 남생과 그 밑의 남건, 남산간의 권력싸움 등 내부 갈등이 심화되어 남생은 당에 항복하고 연개소문의 동생 연정토가 신라에 투항하자 신라와 당은 이를 틈타 668년 결국 고구려까지 멸망시켰다

이로서 기원전 37년에 건국된 고구려는 천년을 미처 채우지도 못하고 나. 당연합군에 의해 멸망한 것이다. 백제와 고구려를 멸망시킨 당나라는 신라마저 접수하기 위해 온갖 흉계를 꾸민다. 당나라는 백제의 고토에 5도독부를 설치했으며, 백제의 부흥운동을 은밀하게 지원했다. 그리고 고구려 멸망 후에는 9도독부와 안동도호부를 설치했다. 이에 대해 신라는 669년부터 옛 백제의 땅을 점령하였고, 고구려의 부흥운동을 지원하면서 당나라와 맞서게 된다. 드디어 신라와 당나라 전쟁이 벌어진 것이다.

신라는 668년 고구려의 수도 평양성을 함락시키고 다시 고구려의 백성들을 받아들이고, 당나라 지배하에 있던 백제의 옛 땅을 점령하여 세력 확장을 꾀하였다. 이 소식을 들은 당나라 고종은 크게 노하여 군대를 보내 신라를 공격하였다.

672년 8월 평양에서 황해도 배천까지 남하한 당나라군은 신라군의 반격을 받아 다시 석문으로 북상했다. 석문은 황해도 서흥에 있는 들판으로 이곳은 임진강을 건너 평양으로 가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곳이다.

신라군은 석문 들판의 남쪽에서 북쪽을 바라보고 진을 쳤다. 의복, 원술 등이 지휘하는 신라군은 최선두에 대기병 방어부대 장창당(長槍幢)이 있었는데, 그것은 신라 중앙군단의 여러 부대를 적의 기병공격으로부터 막아주기 위한 것이었다.

예상대로 고간이 이끄는 당 기병단이 신라군 진영쪽으로 돌격해왔다. 먼저 신라 장창당의 최선두에 섰던 궁수들이 화망을 구성하여 화살을 발사하기 시작했다. 당의 기병이 가까이 접근하자 선두의 궁수들은 창을 땅에 고정시킨 장창보병의 대열 뒤로 숨었다. 이때 장창보병이 겨냥한 것은 사람이 아니라 말이었다.

당 기병의 선두대열이 장창보병에 걸려 낙마하자, 기병대의 흐름이 정체되기 시작했고, 신라의 장창보병이 기동력이 사라진 당 기병을 포위하여 대파하였다. 이때 장창당이 당병 3,000명을 포로로 잡았다 한다. 그러나 이후 신라군은 장창당을 너무나 과신하게 되었고 다른 여러 부대들의 포진에 있어 긴장감이 떨어졌다.

당 기병이 이 허점을 노리고 다시 진격해왔다. 역습을 받은 신라군은 장군 의복을 비롯하여 대아찬 효선, 사찬 의문 · 산세, 아찬 능선 · 두선, 일길찬 안나함 · 양신 등이 전사하는 등 전멸하다시피 했던 것이다. 화랑 원술(元述)이 참전하였다 대패하고 일생을 숨어 살다가 태백산으로 들어가 후회 속에 산 것도 이 전투에서 비롯됐다. 화랑도의 정신인 세속오계 중 임전무퇴를 실천하지 못한 행동 때문에 아버지 김유신 장군에게 끝내 용서받지 못했다.

원술랑이 당나라 군대에 크게 패하고 군사가 원술랑의 투구를 가져오자 김유신은 아들이 용감히 싸우다가 전사한 줄 안다. 그런데 뜻밖에도 아들이 살아 돌아오자 분노한 김유신은 단칼로 원술랑의 목을 베려고 했으나 부인이 한사코 말리는 데다 죽이지 말라는 왕명도 있어 집에서 쫓아낸다.

Ⅲ. 당나라의 배신과 전투

매초성 전투란 문무왕 15년(675년) 가을 9월29일 당나라 장군 이근행이 군사 20만명을 거느리고 매초성에 주둔했는데 우리 군사가 공격하여 쫓고, 말 3만380필을 얻었으며 노획한 병기도 이만큼이었다.(삼국사기)

그런데 신당서(당나라의 기록) 신라전에는 이 전황이 다르게 기록되어 있다. 황제가 이근행을 안동진무대사로 삼고 매소성에 주둔하게 했다. 당나라군이 3번을 싸워 오랑캐(신라군)를 모두 패배시켰다. 문무왕이 사신을 보내 사죄하고 많은 공물을 바쳤다. 이에 김인문을 신라왕으로 임명한 것을 취소하고 법민의 관작을 복구해 주었다. 그러나 (신라가) 백제의 땅을 많이 취하고 고구려의 남쪽 국경지대에 도달했다.

『신당서』는 당나라군이 3번이나 신라군을 격퇴했지만, 문무왕이 사죄했기에 신라와 화친했다고 기록했다. 하지만 이 기사도 신라가 백제 땅을 뺏고, 고구려 남쪽까지 확보했다는 사실은 솔직

하게 기록하고 있다. 당나라군이 20만이었다는 것은 과장일 수도 있다. 당시 노획했다는 말의 숫자를 볼 때 3만380필이라면 기마병 4~5만 정도에 보병 6~8만 정도를 합쳐 10~13만 정도가 정상일 것이다.

신라군은 당나라군을 공격해 3번의 전투 끝에 당나라군을 패퇴시켰다. 다만 당나라군이 전멸에 가까운 피해를 입은 것은 아니었을 것이다. 삼국사기 기록을 보면 당나라군의 살상자 수나 포로의 수는 없고, 많은 전리품을 노획했으며, 당나라군을 쫓아냈다고만 되어 있다. 그렇다면 신당서에서 이근행이 3번 싸워 신라군을 무찌르고 큰 피해를 입혔다고 한 것도 어느 정도는 사실일 수도 있다. 다만 신당서의 '신라전' 편도 실제의 내용이 의심스러울 수가 있다. 그동안 중국의 어느 전투일지에도 중국의 군사들이 적들과 싸워 패배를 시인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는 사실이다. 전쟁에 져서 패퇴를 하고도, 천재지변에 의해 물러섰느니 괴질이 돌아 후퇴했느니 하는 변명만 있을 뿐 중국 역사상 어느 전기(戰記)에도 패배를 했다는 기록은 찾아 볼 수가 없기 때문이다.

신라군의 공세에 맞서 당나라군은 몇 번 신라군의 공세를 격퇴했을 것이다. 그러나 식량이 떨어졌거나 더 이상 공세를 막아낼 수 없게 되자 많은 말과 장비를 버리고 후퇴했던 것이다. 어쩌면 당시의 국제정세로 보았을 때 당나라와 토번군의 전투가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이미 이근행의 토번 전선 투입이 결정이 나거나 정보가 들어와서 전투 의욕이 이미 상실되어 있었을 수도 있다.

이근행 군의 토번 투입이 갑작스럽게 결정된 사안은 아닐 것이기 때문이다. 어쩌면 당나라 황제가 이근행을 안동진무대사로 삼으면서 매초성에 주둔하라고 명령했던 자체가 토번 이동을 전제로 한 것일 수도 있다.

백제와 고구려를 무너뜨린 나. 당연합군이 당나라의 약속파기와 배신으로 인해 신라와 당나라의 충돌은 피할 수 없는 전투였으며 당나라를 한반도에서 몰아낸 결정적인 승부처가 바로 매초성이었던 것이다. 왜 신라는 이 매초성에서 혈맹이었던 당나라와 건곤일척의 싸움을 벌였을까. 두 나라는 연합하여 백제(660년)와 고구려(668년)를 차례로 멸망시켰다. 그리고 사이좋게 전리품을 나누어 가지려 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이것은 동상이몽이었다.

원래 당나라는 "백제 · 고구려를 평정하면 평양 이남의 땅을 모두 신라에게 줄 것"이라고 약속했다. 하지만 손바닥 뒤집듯 약속을 파기했다. 신라군을 평양성까지 오라 가라 해서 계속 허탕을 치게 만들어 힘을 빼더니 668년에는 "신라가 군대의 동원기일을 어겼으니 신라의 공은 아무 것도 없

다"고 선언해버린 것이다. 670년 당나라에 사신으로 갔던 김흠순이 백제 · 고구려 멸망 이후 강역을 나눈 지도를 가져왔다. 그런데 지도를 보면 백제의 옛 땅을 백제 부흥군에 모두 다 돌려주도록 돼있었다. 신라의 배신감은 극에 달했다.

이때부터 신라는 야금야금 옛 백제 땅을 접수했으며, 급기야 그 영역이 고구려 남쪽에 이르렀다. 이에 화가 난 당나라군은 9월 설인귀를 대장으로 침공했으나 신라군의 반격을 받아 군사 1400명과 병선 40척, 군마 1000필을 잃었다. 설인귀가 도망가자 당나라군은 본때를 보여주겠다면서 20만대군을 동원한다. 그러나 신라는 매초성에 주둔한 당나라군을 공격하여 쫓음으로써 매초성 대첩을 이룬다.

한편, 이 매초성 전투의 승리로 당나라를 한반도에서 축출함으로써, 신라는 대동강과 원산만 이남의 땅을 차지하게 되어 이로부터 통일신라시대를 열게 된다. 이후 신라는 당나라와 벌인 전투에서 18전 전승을 거두었다. 당나라는 왜 이렇게 무기력하게 신라군에 연패를 당하고 한반도에서 쫓기는 신세가 되었을까? 아마도 당시의 국제정세로 봤을 때 토번군과 전투를 치루고 있어 신라군과의 전투에 매진하지 못하고 패전을 거듭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다. 결국 이듬해 2월 안동도호부의 치소를 평양성에서 요동성으로 옮겼다. 한반도에서 완전히 쫓겨난 것이다.

IV. 매초성과 김원술(김유신 장군의 2남)

671년 당군 5,300명을 깨고 백제고토를 회복한 신라는 이듬해 석문(황해 서흥)에서 당나라군의 반격을 받아 패퇴한다. 이때 비장(裨將 · 군사참모)이었던 원술랑(김유신 장군 2남)도 '임전무퇴'의 정신으로 싸우다 죽으려 했다. 하지만 보좌관 담릉이 나섰다.

"대장부는 죽는 것이 어려운 게 아닙니다. 죽을 곳을 찾아 죽는 것이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자 원술은 "사나이는 구차하게 살지 않아야 한다. 무슨 면목으로 아버지(김유신)를 보겠느냐."

원술이 말에 박차를 가하려 하자, 담릉이 말고삐를 잡아당겨 질질 끌려가면서도 놓아주지 않았다. 원술은 끝내 되돌아서고 말았다. 그러나 그것은 죽음보다 더 엄청난 고통이었다. 살아 돌아온

아들 원술을 김유신은 문무왕에게 이렇게 주청을 한다. "원술은 왕명을 욕되게 하였고, 가훈마저 저버렸으니 목을 베어야 합니다."

아버지(김유신)가 아들의 목을 벨 것을 왕에게 요청하는 것이 아닌가? 그러나 원술은 왕의 특전으로 풀려났으나 아버지 김유신은 원술을 아들로 대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근처에 얼씬거리지도 못하게 하였다. 요즘말로 하면 호적을 파버린 것이다. 이에 원술은 시골(田園)로 숨어 버렸다. 이듬해 아버지가 죽자(673년) 원술은 어머니(지소부인)를 뵙기를 청했다. 하지만 어머니 지소부인 역시 단호했다.

> "여자에겐 삼종지의(어려서는 부모에 의지, 결혼해서는 남편에 의지, 늙어서는 자식에 의지하는 것)가 있다. 지아비가 죽었으니 이젠 아들을 따라야 하나 아들이 아들 구실을 못했으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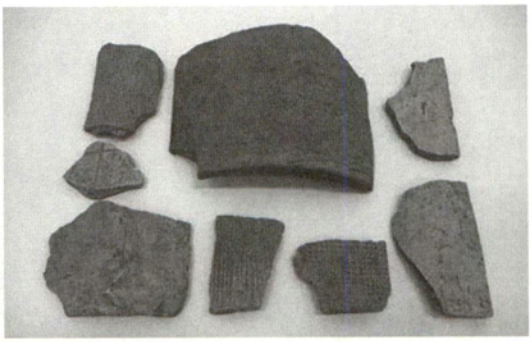
원술은 가슴을 두드리며 통곡했지만, 어머니는 끝내 아들이 자신에게 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화랑으로서 불충과 불효를 저지른 원술에게 675년 매초성 전투는 와신상담의 일전이었다. 원술은 수치심을 씻으려 힘껏 싸워 큰 공을 세웠다. 하지만 원술은 "부모에게 버림받은 자가 무슨 상이냐?" 면서 끝내 벼슬길에 몸담지 않았다.

이 매초성 전투는 신라와 당나라의 사기(신당서-신라전) 어느 곳에도 이 전투를 승리로 이끈 신라의 장수는 명기되어 있지 않으며 이 전투로 사망한 군사의 숫자도 기록되어 있지 않다. 당나라군의 전마(戰馬) 3만 380마리를 신라군이 노획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을 뿐이다. 전마를 포기한다는 것은 그만큼 전세가 급박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즉 기마병이 전마를 포기하고 도보로 후퇴한다는 것이 당시의 전세를 잘 설명해 주고 있다. 이렇게 피아간의 군사적 피해가 상세히 기술되어 있지 않은 것이 현재로서는 답답하기만 하다. 다만 672년 석문에서의 패전 후 은거하던 원술랑은 이 전투에서 당나라군을 맞아 큰 활약을 했다고 하는 작은 기록만 있을 뿐이다.

V. 대전리산성이 매초성이다.

대전리산성의 성벽 몸체는 내성벽을 갖춘 협축식으로 외성벽에 보축성벽을 덧붙여 쌓은 축성기

시굴구역 출토 토기(연천군발행 대전리산성)



발굴 1구역 출토 기와(연천군발행 대전리산성)

법을 보여준다. 외성벽은 주로 장방형으로 치석된 편마암계 성돌을 이용하여 품자형(品字形)으로 정연하게 쌓았는데, 기저부에서 상단까지의 높이는 최대 13m나 되는 곳도 있다.

이런 성벽 몸체의 축성기법 등으로 미루어 대전리산성이 처음 축성된 시기는 삼국시대 후기인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현재까지의 고고학적 자료로 볼 때 축조 주체는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 중에서 일단 신라일 것으로 추정된다.

대전리산성은 한탄강의 도강처에 위치하며 연천방면에서 동두천을 거쳐 서울로 진입하는 요충지였다. 이 길은 현대의 군사 활동에서도 수도권의 방어와 관련하여 전략적 요충지로 알려져 있다. 대전리산성 주변에도 동서 방향으로 한탄강과 임진강을 따라서 다수의 산성이 분포하며 남북 방향으로도 양주대모산성~서울 아차산성~하남 이성산성 등 종심장어를 위한 신라 산성이 이어지고 있었다. 따라서 대전리산성의 축조 배경 및 성격, 사용기간 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대전리산성의 지리적 위치, 주변 교통로와의 관계, 주변 지역의 성곽의 분포상태 등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1978년 고대사 연구가 및 고고학자들은 여러 근거들을 토대로 매소성 위치를 경기도 양주시에 있는 대모산성으로 추정했다. 이 사실을 박정희 대통령에게까지 보고하고 발굴조사에 착수했다. 1979년 어느 날 연천 대전리산성을 몇 차례 답사했던 故 최영희 당시 국사편찬위원장 겸 한림대학교 사학과 교수와 김철준 서울대 교수는 마음을 바꾸었다. 어느 모로 보나 이 대전리산성이 매초성일 가능성이 더 크다고 판단한 것이다. 하지만 1년 전 매초성으로 비정된 양주 대모산성에 대한 발굴조사가 진행 중이었고, 이미 대통령에게 보고까지 한 상황이었으니 어쩔 수 없었다는 것이었다.

시굴구역 출토 진단구(연천군발행 대전리산성)

이것은 바로 당시 박정희 대통령의 이른바 '한국적 민주주의'와 관련이 있다. 박정희 대통령은 10월 유신을 선포하면서 이른바 한국적 민주주의를 내세웠다. 그에 따라 국수주의라 할 만큼 지나친 민족주의가 성행하였으며, 그 영향이 학계까지 미쳤다. 우리 민족의 자긍심을 고취시킨다는 명목으로 고대의 전적지를 찾은 것이다.

신라가 크게 부각되었으며 그 가운데 가장 빛나는 승전보로 꼽힌 것이 매초성 전투였다. 그러자 학계에서는 이 매초성이 어디인가에 초점이 맞추어진다. 더욱이 정부에서는 빠른 시일 안에 매초성을 찾아 보고하라는 성화에 한반도 중심축에 있는 성을 찾다 보니 양주의 대모산성을 주목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대모산성을 매초성이라고 비정하여 보고하였고 이미 박정희대통령에게까지 보고가 된 것이다.

대전리산성에서 바라다 본 전곡읍(필자 촬영)

하지만 매초성으로 비정된 양주의 대모산성보다 사료에 나오는 입지조건과 실제 전투의 흔적들이 연천의 대전리 산성에서 발견됐기 때문에 이후 1984년부터 실시된 국사편찬위원회의 실측조사 결과 경기도 연천군 청산면 대전리산성이 매초성의 터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현재 남아있는 이 성터는 둘레 670m 넓이 1천960㎡ 등이며 한탄강에 임하는 천험의 요새로 오랫동안 논란을 빚어왔던 매초성은 대전리산성으로 최종 확정됐다.

故 최영희 교수는 "한반도내에서 매초성이라고 단정 지을 수 있는 곳은 오직 이 대전리산성 뿐이다. 이렇게 한탄강이 흐르고 성의 주변이 드넓은 것으로 봐서 또 위치적으로 볼 때 이곳이 매초성이라는 것을 충분히 추론할 수 있다." 라며 예로부터 큰 물이 있는 곳의 지명은 '매'자가 들어간다며 일례로 인천을 '매홀' 또는 '맷골'이라고 했던 것을 예로 들었다.

또한 산 정상에 있는 성 자체는 매우 좁지만 산성에는 고위 지휘부가 지휘소를 차리고 전투를 지휘하였고 바로 성 아래의 드넓은 평야지대는 당군의 20만 대군이 야영을 하며 전투를 하기에 매우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군 작전지역으로 성곽의 많은 부분이 훼손되었다.(필자 촬영)

하지만 이렇게 최적의 조건을 갖춘 대전리산성이 왜 매초성의 후보지에서 제외되었던 것일까? 그것은 10월 유신당시만 해도 이곳은 민간인의 출입이 철저히 통제되었던 주요 군사시설이었기 때문이다. 아예 접근조차 할 수 없는 곳이었기에 이곳에 성이 있었는지조차 몰랐었으니 매초성이라고 상상조차 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VI. 양주산성(대모산성)이 매초성일 수 없는 이유

한때 매초성이라고 비정되었던 양주의 대모산성(국가사적 526호 지정)은 너무 좁아서 당나라의 20만 대군이 한꺼번에 성안에 주둔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20만 대군이 마실 물도 없다. 성안에 겨우 5개의 우물이 발견되었으나 이 산위에 있는 5개의 우물로 약20만명의 군사와 어림잡아 약 5만여필이나 되는 말의 갈증을 달래기에는 턱도 없는 것이다.

산 아래에 어둔천이라고 하는 실개천이 있기는 하나 도랑 수준이고, 그나마 갈수기에는 한 방울의 물도 흐르지 않는다. 지금처럼 운반수단(공중과 육로)이 좋은 경우라면 차량과 헬기를 이용해 식수를 공급한다지만 당시로서는 어림도 없는 일이다. 식량이 부족한 것과 물이 부족한 것은 그

양주 대모산성 성벽(출처 문화재청)

차원이 다르다 사람이던 동물이던 물이 없으면 단 하루도 견디기 힘든 것이다.

그러면 왜 양주의 대모산성을 매초성이라고 비정을 한 것일까? 한반도내에서 매초성이라고 단정할만한 곳은 이곳 한반도의 중심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연천과 양주, 그리고 파주, 포천 정도에 있는 성이라고 추측할 수가 있다. 삼국시대 신라가 삼국을 통일할 시점이라면 그 중에서도 전략적 요충지로서 단연 대전리산성을 지목할 수도 있었을 텐데 1978년 당시로서는 이곳이 군 작전지역으로 군사시설물의 설치, 철저한 보안상의 이유 등으로 민간인들의 출입이 엄격히 통제되어 있었고 당시로서는 이곳에 성이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으니 이곳을 주목할 수가 없었던 것이고 이에 따라 매초성이라고 단정하기에는 너무도 부족한 점이 많았지만 양주의 대모산성을 억지춘향식으로 꿰어 맞출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Ⅶ. 대전리산성이 매초성일 수밖에 없는 이유

2013년 처음으로 대전리산성에 대한 시굴 및 발굴조사가 경기문화재연구원에 의해서 실시되어, 그동안의 매초성 진위에 대한 궁금증이 해소되기를 기대했지만, 발굴조사 범위가 시굴조사 2개소(2,345㎡), 발굴조사 2개소 160㎡로 작은 면적이다 보니 뚜렷한 고고학적 증거는 만족할만하게 확보하지 못한 듯하다.

그리고 오랫동안 군사지역으로 출입이 통제된 상태에서 군인들이 참호를 쌓는다. 대전차 방어벽을 만든다는 이유로 성벽의 돌들을 마구잡이로 뜯어내는 바람에 성벽자체도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훼손이 되어 있는 실정이다.

다만, 이번 발굴조사를 통해서 확인된 성벽의 구조와 출토유물로 볼 때 이미 나당전쟁 이전에 신라가 축성하고 관리하였던 것으로, 이러한 성과는 대전리산성이 나당전쟁기에 이용되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대전리산성이 매초성으로 비정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은 일단 갖추고 있음을 보여주는 고고학적 증거라 할 수 있겠다.

특히나 삼국시대 당시의 임진강과 한탄강 주변의 강안 평지성(호로고루, 당포성, 은대리성)의 특성을 보여주는 예로서 첫째. 성의 강 쪽의 면이 깎아지른 듯한 단애로 이루어졌다는 점, 둘째.

성의 한쪽에는 실개천이 흐르고 있어 홍수가 났을 시 성의 하안에 많은 토사물을 쏟아 부어 강바닥을 메움으로서 별다른 도하장비 없이도 쉽게 강을 건널 수가 있다는 것과 이러한 지리적 특성상 성을 공격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점이다.

Ⅷ. 맺는 말

현재 대전리산성은 비지정문화재이다. 때문에 대전리산성을 제대로 보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문화재 지정이 급선무일 것이다. 현재까지 비지정 문화재들이 각 기관이나 단체의 학술조사나 세미나를 통해 문화재로서의 가치를 되찾고 지방 또는 도 지정, 국가지정문화재가 되어서 정비계획이나 복원계획이 세워지고 제대로 된 정비를 추진하기까지는 오랜 기간이 소요된다. 일 예로 장남면에 있는 호로고루의 경우 제대로 된 조사와 발굴을 통해 국가사적(제467호)으로 지정이 되고 정비계획이 진행되기까지는 약 20여년의 기간이 소요되었음을 생각해 보면 문화재의 지정이 하루아침에 주먹구구식으로 해결될 문제는 아닐 것이다. 문화재 지정 또한 정비계획의 한 부분이

성벽이 훼손된 대전리산성(연천군발행 대전리산성)

라고 판단되며, 현재 발굴조사가 꾸준히 진행되고 있고 또 지속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발굴조사 과정 속에서 문화재지정 절차가 시급하며 또한 대전리산성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도 매우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제 막 첫 삽을 뜬 발굴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단계에서 대전리산성을 홍보하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여야 할 것이다.

경원선 철도와 3번국도가 지나는 곳에 자리 잡고 있는 대전리 산성. 산성에 올라서서 전곡시가지 쪽을 굽어보면 산 아래쪽으로 흐르는 한탄강물의 깊이가 얕아서 군사들이 도강 장비 없이도 걸어서 또는 말을 타고 쉽게 건널 수가 있어 더욱 더 이곳이 매초성임을 짐작케 한다. 하지만 이곳이 한반도의 첫 통일국가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한 당나라군 20만명을 격퇴한 매초성 대첩의 움직일 수 없는 후보지로 거론되지만 그동안 군사시설(참호와 벙커)이 들어서면서 성곽도 허물어지고 방치된 채 내버려지고 있다. 하루빨리 대전리산성의 문화재 지정과 좀 더 세밀한 발굴과 복원 작업이 시급하기만 하다.

2007년 당시 제안된 정비안(연천군발행 대전리산성)

자료 : 연천 대전리산성 학술회의 역사문화연구협동조합 대표 임용한 발표문.
한울문화재 연구원 조사연구실장 최종규 발표문. 경기문화재연구원 조병택 토론문.
대전리산성 활용을 위한 제언(提言). 경기도박물관 학예연구사 허미형 발표문
대전리 산성 매초성인가(경기문화재단. 연천군).
삼국사기, 신증동국여지승람, 경기읍지, 양주대모산성 발굴보고서.

한말 정미의병의 서울진공작전과 삼산리전투

이 복 재 (경기향토문화연구소 연구위원)

목 차

Ⅰ. 머리말
Ⅱ. 한말의병
1. 한말의병
2. 정미의병(후기의병)
3. 양평의 정미의병(후기의병)
Ⅲ. 13도창의군의 서울진공작전
1. 연합의병의 탄생
2. 13도창의군의 주둔지
3. 13도 창의군의 서울진공작전
가. 작전의 경과
나. 작전의 의의
Ⅳ. 삼산리전투
1. 삼산리전투의 경과
2. 삼산리전투에 참여한 의병(장)
3. 삼산리전투의 의의
Ⅴ. 맺음말
참고자료

집필자
이 복 재 경기향토문화연구소 연구위원

Ⅰ. 머리말

사람이 마땅히 지켜야할 도리인 의(義)를 매우 중요한 덕목으로 배운 유생(儒生)들이 중심이 되어 나라를 지키고 되찾는 일이야 말로 백성으로써 마땅히 해야 할 도리라 여겨 양평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이미 임진왜란 때 의병을 일으켜 왜군과 싸웠고, 한말에도 을미의병을 일으키고 참여하였으며 후일 정미의병(후기의병) 등 항일의병전쟁을 주도하거나 참여했기 때문에 양평을 의향(義鄕)이라 한다. 의병의 정신적 지부가 된 의(義)나 의사상(義思想)은 조선건국이후 수 백 년 동안 지속된 숭유(崇儒)사상 아래 삶을 영위해온 백성 모두의 의식 속에 녹아든 것이지 결코 양평사람들만의 것은 아닐 것이다. 양평 또는 양평인들이 주축이 된 의병전쟁의 밑바탕에는 잠재해 있는 투철한 의사상을 일깨워 발현하게 한 그 어떤 조건이 있었던 것이다. 그 중 가장 중요한 것이 이념적 · 정신적인 조건으로써 화서 이항로(華西 李恒老,1792~1868)에 의하여 정립되고 양평인들의 의식 속에 뿌리 깊게 박혀있던 위정척사사상(衛正斥邪思想)을 들 수 있다. 그 밖의 조건들로는 양평의 지리적 조건을 들 수 있다. 지리적 조건은 두 개로 하나는 교통이며 다른 하나는 지세(地勢)와 지형(地形)이다. 교통은 다시 수로와 육로로 나눌 수 있다. 서울과 가까우면서 남북한강이 흐르는 양평에는 나루터가 많았고, 서울과 평해를 잇는 평해로(平海路, 조선시대에 서울에서 당시 강원도 평해를 잇는 약1000리 길로 '관동대로'라고도 한다)가 양평지역을 관통하고 있으며, 홍천, 횡성 등으로 갈라지는 분기로(分岐路)가 연결되어 수륙을 합한 교통의 요지였다. 특히 뱃길과 육로가 만나는 갈산부근의 양근나루나 두물머리는 시국상황을 비롯한 시중의 모든 정보가 교류되는 곳이었다. 일제침탈과 국가의 존망 등 정보역시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접할 수 있었던 것이다. 또한 관동대로는 후기의병인 정미의병 전쟁 때 강원과 충청, 그리고 여주 · 양평 등의 의병들이 서울진격을 위한 집결지인 양주로 가는 중요한 길이었다. 임진왜란 때 부산에 상륙한 왜군이 충주를 거쳐 단 20여일 만에 서울을 점령했을 때는 남한강을 통해 서울을 공격하면서 의병이 일어나 왜군을 상대로 싸웠으며, 왜군은 양평을 지나며 분탕질을 해댄 곳이었음으로 민중의 가슴속에 항일의식이 어느 지방보다 강하게 잠재해 있었던 점도 영향을 끼쳤을 것이다. 지세와 지형은 의병전쟁에 큰 영향을 끼친다. 양평은 남북한강이 흐르고 있을 뿐 아니라 웅반고대(雄盤高大)한 용문산이 있어 일본군을 상대로 게릴라전을 하기에 알맞은 지형과 지세를 갖췄다. 실제로 후기의병인 정미의병전쟁 때 권득수 · 조인환 의병대장은 용문산을 근거지로 삼아 일본군을 상대로 게릴라전을 펼쳐 큰 전과를 올렸다. 이러한 지형과 지세는 물론 서울이 한나절 안으로 서울과 가까운 지리적 조건은 의병을 소모(召募)하고 주둔(駐屯)시키기에도 적합했다.

이러한 조건들로 양평은 다른 지역에 비해 많은 사람들이 의병에 참여했고, 의병전쟁을 치룰 수 밖에 없었는데도 그 횟수와 규모, 전과나 피해상황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고, 제대로 된 기록도 찾을 수 없어 안타깝다. 다만, 항일독립운동사(抗日獨立運動史)나 항일의병사(抗日義兵史)에서 권득수 · 조인환의병부대의 의병전쟁과 삼산리전투 등은 양평지역 의병전쟁 중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기술되어 단편적으로 나마 평가받고 있음은 눈여겨 볼 대목이다. 그 중에서도 삼산리전투는 의병 5천 여 명을 상대로 한 일본군의 대규모 소탕작전에 따라 일어난 전투였음에도 의병의 피해가 적어 이인영(李麟榮, 1867~1909)의병장이 총대장으로 주도한 13도창의군의 서울탈환을 목표로 진공작전을 수행하기 위한 준비에 지장을 끼치지 않은 의미 깊은 전투였다. 만일 양동면에 주둔한 의병진이 삼산리전투에서 패하여 주저앉고 말았다면 빼앗긴 국권을 되찾으려는 의병전쟁이나 후일 독립운동의 큰 맥이 끊어지고 말았을지도 모른다.

역사적으로 상당한 평가를 받아야 할 양평의병에 대하여 중부지역 또는 경기지역 의병의 일부로 서술되는 등 역사학계의 관심이 소홀했고, 이는 삼산리전투도 마찬가지여서 1996년 양평문화원이 발행한 향맥 제6집 『양평의병운동사(楊平義兵運動史』에 짤막하게나마 언급되기 시작한 이후 양평군이 2000년에 발행한 『양평의향지(楊平義鄕志)』에 조금 더 자세히 수록되긴 했으나 내용이 충실하지 못하며, 2004년 김상기의 논문 「한말 양평에서의 의병항쟁과 의병장」, 『한국독립운동의 역사 제11권 한말의 후기의병』 등 일부 논문이나 역사서에도 기술되었으나 내용이 단편적이다. 이 밖에 다른 문헌에도 원주의 민긍호의병장이 이 전투에도 참가했다는 정도가 기술되어 있어 대체적으로 내용이 부실한 편이다. 따라서 삼산리전투의 경과와 전말, 역사적 의미를 재조명하고 역사학계 등의 심도있는 연구를 통하여 정확하고 사실에 부합한 정립과 평가가 필요하다. 여러 기록과 지금까지 학자들의 연구로 밝혀낸 사실, 그리고 위에 열거한 서적들의 관련 내용을 참고하여 한말 정미의병의 서울진공작전과 삼산리전투를 정리해 보았다.

II. 한말의병

1. 한말의병

의병(義兵)의 사전적 의미는 "외적의 침입을 물리치기 위하여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한 군

대. 또는 그 군대의 병사."이다.[1]

한말 의병전쟁은 국권을 수호하기 위하여 일제의 침략에 무력항쟁한 민족운동을 말한다. 갑오변란과 청일전쟁을 전후하여 일제의 군사적 위협은 노골화되어 나타났다. 이에 따라 1894년 이후 조선인들은 반침략을 시대적 과제로 인식하게 되었으며 의병을 조직하여 국가와 민족을 수호하기 위한 피의 항쟁을 전개한 것이다. 따라서 의병전쟁은 한민족의 반침략 투쟁이며 아울러 국권침탈 이후 독립전쟁을 일으키게 한 정신적 · 인적 토대가 된 점에서 그 역사적 의의는 실로 크다. 의병이란 맥켄지가 『The Fight For Freedom』 에서 'Righteous Army'라고 표현하고 있듯이 '정의를 위해 일어난 군대'라는 뜻이다. 그러나 한말 의병은 이와 같은 개념만으로는 설명이 부족한 것 같다. 한말 의병의 의(義)는 정의와 충의의 의(義)이며 동시에 '군신유의(君臣有義)'의 의(義)이다. 즉 한말 의병은 정의심과 충의정신에 입각하여 개화정권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였다. 동시에 조선에 대한 침략 야욕을 드러내고 있는 일본을 구축하기 위해 반침략 구국항쟁을 전개하였으니 의병전쟁은 민족주의운동으로 발전될 수 있었다. 비록 의병이 초기단계에는 유학자가 중심이 되어 반침략 반개화 항쟁을 전개하였으나 점차 민족의 위기가 심화되면서 여기에 농민 · 포수 · 보부상, 그리고 동학교도까지 의병에 합세하여 민족적 대항전을 전개해 간 것이다. 후기의병의 경우에는 척사사상보다 반개화론과 특히 반봉건 이념이 강하게 나타난다. 의병을 민중운동사의 측면에서도 평가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와 같이 의병이란 충의정신에 입각하여 외적의 침략에 대항하여 자발적으로 무장항쟁한 군사집단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즉 의병을 규정하는 첫 번째 요인은 그 주요이념이 주자학 사상에 기반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역사적으로 의병은 임진의병에서 비롯되었다 할 수 있다. 동학농민군의 제2차 봉기에서 항일운동의 성격이 보인다. 하지만 이를 '의병적'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역사적 개념으로 의병이라고는 하지 않는다. 비록 동학농민군들이 자신들을 충의군이라고도 불렀을지라도 동학의 배일(排日)이념은 동학사상에서 찾아야 할 것이며, 반봉건적 사회개혁 또는 혁명운동의 차원에서 그 의의를 평가해야 할 것이다.

의병의 개념을 규정하는 두 번째 요건으로 그 투쟁의 중심대상이 외세라는 점이다. 1894~1895년간 동학농민전쟁이 전개될 때 동학농민군에 대항하기 위하여 일부 지역에서는 민군을 편성하였다. 갑오의려(甲午義旅) 일명 유회군(儒會軍)이라 불리는 이 민군은 자신들을 의병이라고도 불렀다. 안중근(安重根)의 공초를 보면 그의 조부가 의병장이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는 바로 갑오의려를 가리키는 것이다. 그러나 갑오의려는 관군 또는 일본군과 연합하여 동학농민군과 항쟁하였으니 항쟁의 대상이 외세가 아닌 동학군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들 역시 의병과도 구분된

1)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다. 민란에 참여한 세력 역시 그러하다. 이들 중에 일부가 비록 충의군적인 성격을 띠었다 하더라도 투쟁대상이 관군이었으니 이들 역시 의병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이처럼 의병의 개념을 분명히 하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의병적 성격' 또는 단순히 '정의의 군대' 라는 '일반적 개념으로서의 의병'과 임란과 한말 외세의 침략에 주자학 사상의 충의정신에 기초하여 무장투쟁한 '역사적 개념으로서의 의병'과는 구별해야 할 것이다.[2)]

우리나라의 의병은 삼국시대부터 비롯되어 고려 · 조선 시대를 거쳐 조선 말기에까지 이르기 까지 국란을 당할 때 스스로 일어나 활약하였다. 그 중 항일의병(抗日義兵)의 시원은 1592년에 일어난 임진왜란 이었다. 한말의 의병과 의병전쟁은 일제의 우리나라 침략야욕이 드러나면서부터인 1894년 갑오변란에 항거하여 일어나기 시작한 후 3.1운동 직전까지 끈질기게 계속되었다.

한말의병은 일본의 야만적 침략야욕이 노골화된 갑오변란과 단발령 등에 맞서 국수보복(國讐報復)을 위한 투쟁으로 시작하여 경술국치(庚戌國恥)이후에는 빼앗긴 나라를 되찾으려는 국권회복(國權回復)을 위한 투쟁을 전개하였다. 이들은 식량 · 무기 · 군비 등 모든 군자를 스스로 조달하며, 의병소모 · 의병진운영 · 작전 · 전투 등도 독자적 또는 의병진간 연합 또는 상호협력 체제를 구축하여 스스로의 결정으로 움직였다. 의병항쟁은 독립운동의 하나로 정치 · 외교 등을 통한 비폭력적인 운동이 아니라 의병을 모집하고 의병진을 조직하여 관군이나 일본군을 상대로 무력으로 투쟁한 폭력운동, 즉 의병전쟁이었다. 한말 의병전쟁은 이후 애국계몽운동, 3.1운동 등으로 이어진 독립운동이었다.

2. 정미의병〔丁未義兵,후기의병(後期義兵)〕

한말의병의 시대별 구분은 학자와 연구목적에 따라 여러 가지 기준을 제시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임진왜란 이래 최초의 본격적인 항일의병인 을미의병〔乙未義兵;제1기 또는 전기 : 1895.10~1896.10;이하 '을미의병','전기의병' 또는'을미의병(전기의병)'이라 한다.〕과 을사의병〔乙巳義兵;제2기 또는 중기:1905.11~1907.7;이하 '을사의병','중기의병' 또는 '을사의병(중기의병)'이라 한다.〕, 정미의병〔丁未義兵;제3기 또는 후기 :1907.8~1914.5;이하 '정미의병','후기의병' 또는 '정미의병(후기의병)'이라 한다.〕과 같이 간지로 호칭되는 3시기 구분법이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다.

정미의병(후기의병)은 1907년 7월 31일 군대해산을 계기로 주로 해산 군인들이 중심을 이루어 일어나 그해 후반부터 1909년 후반까지 약 2년 동안 일제와 더불어 전선이 없는 전쟁을 벌였다. 특히 1908년을 전후한 시기에 대략 10만의 의병들은 전국 방방곡곡에서 혈전을 벌이다 약 1만5천

2) 김상기, 『한국독립운동의 역사』, 「제9권 한말전기의병」,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2005

명의 목숨을 빼앗겼다. 같은 기간 일본군 전사자는 채 100명을 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를 전쟁이라기보다는 무자비한 학살사건이라 할 수 있다. 정미의병은 오로지 일제에게 강탈당한 국권을 회복하고 민족의 자유를 지키기 위하여 수많은 의병들이 고귀한 생명을 바쳐 싸운 독립전쟁이었다. 정미의병의 직접적 배경은 1907년 중반 잇달아 발생한 정치적 침탈에서 비롯되었다. 고종의 강제퇴위와 정미7조약의 체결, 그리고 군대해산으로 말미암아 의병항쟁이 크게 고조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1908년에는 강원 · 전남 · 전북 · 황해도에서, 1909년에는 단연 전라남북도에서 의병항쟁을 주도하였다. 이처럼 후기의병의 주 무대는 중부이남, 특히 전라도 지역이었다.[3]

3.양평의 정미의병

가. 양평군과 양평의병의 개요

(1) 양평군

양평군(楊平郡)은 구한말 이전까지 양근(楊根)과 지평(砥平)으로 나누어져 있었다. 1908년 9월 당시 양근군(楊根郡)과 지평군(砥平郡)을 합병하여 양평군(楊平郡)이라고 칭하게 되었는데, 양근군(楊根郡)은 고구려시대에 항양군(恒楊郡), 신라시대에 빈양(濱陽)으로 개칭하였으며, 고려시대 초기에 다시 양근(楊根)으로 개칭하여 광주(廣州)에 속하게 되었고, 고려 고종 때에 영화(永化)라 칭해오다가 고려 공민왕 5년에 군으로 부활되면서 양근군(楊根郡)으로 개칭(1356년)하였다.

지평군(砥平郡)은 고구려시대에 지현현(砥峴縣), 신라시대에는 지평(砥平), 고종 32년에는 지평군(砥平郡,1895년)으로 칭하였었다.

이후 1914년 3월에는 군 관할 남종면(南終面)이 광주군(廣州郡)에 이속되었고, 1942년 4월 에는 군 관할 설악면(雪岳面)이 가평군(加平郡)으로 이속되었으며, 1963년 1월에는 여주군(驪州郡) 관할 개군면(介軍面)이 군에 편입되었고, 1973년 7월에는 서종면(西宗面)의 삼회리(三會里)와 노문리(盧門里) 일부가 가평군(加平郡)으로 이속되었으며, 1979년 5월에는 양평면(楊平面)이 읍으로 승격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3) 홍영기, 『한국독립운동의 역사』, 「제11권 한말후기의병」,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2009

나. 양평군의 위치와 인문적 · 사상적 기반

양평군은 한반도의 중서부에 있는 경기도의 북동부에 위치하고 있다. 북동쪽으로는 강원도 홍천군, 동쪽으로는 횡성군, 남동쪽으로는 강원도 원주시, 남쪽으로는 경기도 여주시, 남서쪽으로는 경기도 광주시, 서쪽으로는 경기도 남양주시, 북쪽으로는 경기도 가평군과 인접한 곳이다. 사람이 마땅히 지켜야할 도리인 의(義)를 매우 중요한 덕목으로 배운 유생(儒生)들이 중심이 되어 나라를 지키고 되찾는 일이야 말로 백성으로써 마땅히 해야 할 도리라 여겨 양평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이미 임진왜란 때 의병을 일으켜 왜군과 싸웠고, 한말에는 1895년(을미년)에 당시 지평현의 이춘영 · 안승우 · 김백선이 주축이 되어 전국 최초로 지평의병을 일으켜 강원도 원주 등지와 충청도의 제천 등지, 경상도의 문경 등지에서 의암 류인석을 총대장으로 하는 이른바 호좌의진(湖左義陣)으로 확대 개편되어 의병전쟁을 주도하였고, 이승룡은 양근에서 의병을 일으켜 남한산성에 들어가 활약하였으며 양평사람들이 후일 정미의병 등 항일의병전쟁을 주도하거나 참여했기 때문에 양평을 의향(義鄕)이라 한다. 의(義)나 의사상(義思想)은 조선건국이후 수 백 년 동안 지속된 숭유(崇儒)사상 아래 삶을 영위해온 백성 모두의 의식 속에 녹아든 것이지 결코 양평사람들만의 것이 아님은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양평 또는 양평인들이 주축이 된 의병전쟁의 밑바탕에 잠재해 있는 투철한 의사상을 일깨워 발현시킨 것은 화서 이항로의 위정척사(衛正斥邪)사상이었다는데 큰 이의가 없는데 이는 한말의 항일의병이 초기단계에는 유학자가 중심이 되어 반침략 반개화 항쟁을 전개하였던 것만 보아도 알 수 있다.

다. 양평의 정미의병

1907년 7월 군대해산 이후 해산 군인들을 중심으로 의병이 일어나 전국으로 확대되자 양평에서도 의병이 일어나 활약하였다. 양근의 양반출신인 조인환과 양주출신으로 양근에 와 정착한 권득수와 함께 용문산의 상원사와 용문사를 근거지삼아 양근 지평 등지에서 활동하였다. 이들은 연합전선을 형성하여 일제 군경에 공동으로 대응하기도 하고 분산투쟁을 벌이기도 하였다. 1907년 9월 초순 조인환 의병부대가 경원(京元)-경의(京義) 가도를 중심으로 세력을 확장하자, 일제는 보병 제52연대를 동원하여 이들의 진압에 온갖 노력을 기울였다. 일제의 진압 군경은 지평의 장수동(長壽洞) 연안막(連安幕)을 습격한 후 상원사 · 용문사에 비치한 의병의 군량과 군수물자를 찾아내어 불태워버렸다. 즉 의병의 근거지라 하여 유서 깊은 사찰인 상원사와 용문사는 일본군 보병 제52연대 제9중대에 의해 1907년 8월 24일과 25일 양일간 불태워 졌으며 사나사는 그 해 10월

27일 일본군 보병 제51연대 제11중대에 의해 불태워졌다.[4] 뿐만 아니라 일제는 양근읍내를 비롯한 인근 면에서 민가 수백 호를 불태우고 지평 용문동(龍門洞)의 기독교인 가옥 14호와 평민 가옥 6호를 소각하였다.[5] 주민들이 의병에 협조해준 것에 대한 일제의 잔혹한 보복조치였다. 이 과정에서 조인환 의병부대는 당시 양근의 분원동(分院洞)에서 20여 명의 부하를 잃었다.[6] 분원동전투 이후 의병장 조인환은 의병부대를 이탈하였다. 그러자 그 부하들은 해산군인 출신의 신창현(申昌鉉)을 의병장으로 추대하였다. 9월 하순 부대를 정비한 신창현은 일본군 보병 제52연대의 1개 소대를 습격하여 승리를 거두었다. 그러나 그는 일제측의 이어진 공격으로 부하 27명이 전사하는 타격을 받았다. 10월경 신창현 등 의병 300여 명은 강원도 인제로 이동하여 민긍호 의병부대에 합류하여 13도 연합의진에 참여하였다.[7] 그 후 그는 강원도에서 이구채 의병부대와 합진하여 일본군경과 10여 차례나 교전하였다. 그러나 서울진공작전이 실패한 후인 1908년 6월 18일 그는 서울에서 체포되고 말았다.[8] 양평출신인 김춘수는 강원도 홍천에서 의병을 일으켰는데, 부하 200명을 이끌고 양평을 비롯한 광주·가평·홍천 등 경기도와 강원도를 넘나들며 활동하였다. 1908년 4월 그는 부하 70~80명을 이끌고 가평·양주·홍천 등지에서 방곡령을 지시하는 한편, 각 면장과 동장들에게 군수품의 조달을 요청하였다. 이들은 주로 화약이나 화승(火繩) 및 탄환, 또는 짚신이나 식량 등을 요구했다. 그는 그해 4월에 가평군에서 체포되었는데, 얼마 뒤 탈옥해서 다시 활동하다가 1909년 12월 자수하였다.[9]

한편 최태평(본명은 최대평)은 부하 300명을 인솔하고서 양평을 주요 활동무대로 삼아 인근 지역을 넘나들며 활동했다. 그는 1907년 8월경 서울을 습격할 목적으로 남종면에서 일본군과 격전을 치르기도 하였다. 최태평은 그해 12월 하순 의병항쟁을 포기하고 투항했으나, 1910년 1월 군자금 모집을 한 것으로 보아 다시 의병에 투신하여 활동한 것으로 보인다. 군대해산 시 정위였던 권중식(權仲植)은 양근을 근거지로 삼아 해산군인들과 산포(山砲)들로 구성된 의병을 조직하였다.[10] 그는 경기관찰사에게 수원 용주사(龍珠寺)로 군수품을 보내라는 격문을 발송하였다. 또한 관동병영장(關東兵營將) 정대무(丁大武)가 지평을 중심으로 활동하다가 1908년 음력 정월 부대

---

4) 『조선폭도토벌지』,(『독립운동사자료집』 3, 709쪽) 「10월의 폭도토벌」에 의하면, "보병 제51연대 제11중대는(중략)27일에는 양근북방 사나사에서 약150의폭도를 습격 궤란시키고 사나사를 소각해 버렸다"라고 10월 27일 사나사소각사실을 알려주고 있다.

5) 『대한매일신보』 1907년 11월 6일 「地方情形」.

6) 『대한매일신보』 1907년 9월 22일 「地方消息」.

7)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자료집-별집 1』 1974, 68~69쪽.

8) 『황성신문』 1908년 6월 26일 「偶捉兩魁」.

9) 김순덕, 『경기지방 의병운동 연구(1904~1911)』 42쪽의 각주 174 참조.

10) 뒤바보, 「의병전」, 『독립신문』 1920년 5월 11일.

를 해산하고 귀순하자, 그 부대의 선봉장 김응서(金應西)가 독립하여 활동하던 중 13도 연합의진에 참여하였다.[11] 하지만 1908년 3월 중순 그는 지평에서 체포되어 일제 헌병대에 의해 사살되고 말았다. 을미의병 때 양근에서 의병을 일으켜 남한산성에 들어가 활약하다 적에게 붙잡혀 살해당해 순국한 이승룡의 장남인 이연년은 민기희가 의병장에 추대하여 그들과 함께 활동을 개시하였다가 그 해 8월 이후에 홍천에서 창의한 김춘수 의진에 들어가 종사가 되어 활동하였다. 양평출신인 김춘수는 200여명을 규합, 창의하여 양평 · 여주 · 광주일대에서 활동하였다.

1907년 가을 영국의 신문기자 맥켄지는 의병을 취재하기 위해 나섰다가 제천을 출발, 원주를 지나 양근에 와서 처음으로 의병을 만난 내용을 글과 사진으로 남겼다. 특히, 그가 쓴 책 『대한제국의 비극』에 실린 의병사진은 한말항일의병을 상징하는 대표사진으로 잘 알려져 있으며 일본군에 의해 민가가 수백 채 불에 타고 부근에서 산발적인 교전이 이루어진 때여서 당시 의병들의 활동상황이 잘 기록되었다. 또, 이 사진은 양평군 양평읍 오빈리 또는 옥천면 아신리에서 찍은 것으로 보인다. 이 책 본문의 내용과 배경이 된 뒷산의 능선모습으로 보아 전자가 맞는 것으로 보여 지며, 양평지역에서 활동한 군인출신 의병장은 정위(正尉)출신인 권중식(權仲植)이 있어 군복을 입은 의병장은 권중식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향토학계의 일치된 의견이다.

Ⅲ. 13도창의군의 서울진공작전

1. 연합의병인 13도창의군의 탄생

군대해산으로 정미의병은 전국적으로 확산되었고, 해산군인을 중심으로 창의한 대표적인 부대로는 원주의 원주진위대 대대장 대리 김덕제와 특무정교 민긍호의 주도아래 창의한 의병부대를 들 수 있다. 이 부대는 원주를 공격하는 일본군의 공격을 막아낸 후 2개의 부대로 나뉘어 강원도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의병이 되었다. 김덕제는 약 600명을 이끌고 평창 강릉 양양 지역, 민긍호는 약 1,000명을 지휘하며 충주 · 제천 · 죽산 · 여주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하였다.[12] 민긍호는 의진을 나누어 게리라식으로 활동하였는데, 이 부대뿐 아니라 초기의 정미의병은 전국의 거의 모든 의병들이 의진 별로 독립하여 일제에 맞서 게릴라식으로 활약했다.

전국 각지에서 고립적이고 외로운 항일투쟁을 전개해왔던 의병들은 해산군인들의 항쟁을 통해

11) 『대한매일신보』 1907년 11월 14일 「義兵情形」 ;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자료집-별집 1』 117~118쪽.
12) 신용하, 「민긍호의병부대의 항일무장투쟁」, 『한국독립운동사연구』 4, 65쪽.

점차 자신감을 회복하였다. 나아가 이들은 해산군인들의 투쟁역량을 바탕으로 투쟁방안을 전혀 새롭게 전환시켜 갔다. 무엇보다 먼저 이들은 각기 고립적으로 투쟁해왔던 방법에 대한 반성이 이루어졌다. 비록 주변 지역에서 활동하는 의진들과 연합투쟁을 전개하거나 연합을 시도한 경우도 없지 않았으나[13] 이때부터는 도의 경계를 넘어서서 의진 간의 연합이나, 연계하는 투쟁전략을 적극적으로 시도하였다. 당시 상황은 다음의 신문보도내용이 잘 설명해 주고 있다.

> "평안도의병은 황해도의병장 박기섭(朴基燮)과 연락하고, 황해도 의병은 장단군 의병장 김수민(金秀敏)과 연결하고, 김수민은 철원 의병장 김규식(金奎植)과 연락하고 김규식은 적성-마전 의병장 허위와 연락하고 허위는 지평(砥平) · 가평(加平) 등의 이인영과 연락하고 이인영(李麟榮)은 제천 · 영남 등의 이강년(李康秊)과 원주 등의 민긍호와 연락되어 서로 상의하여 통모(通謀)하고 있다한다." [14]

중부이북 지역에서 활동하던 의병부대끼리 도간(道間) 경계를 넘어서는 연락체계가 구축되고 있다. 이러한 연락망의 구축이 전국적으로 통일된 대규모의 의진, 즉 13도창의대진소(十三道倡義大陣所)[15]를 결성하려는 시도로 이어진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웠을 것이다. 요컨대 전국 각지에서 독자적으로 활동하던 대표적인 의병부대를 하나의 통일된 체계를 갖춘 이른바 13도창의대진소의 결성으로 빛을 보게 된 것이다.[16]

1907년 8월 군대해산을 계기로 활발한 의병운동이 재개되는 가운데 9월, 강원도 원주 등지에서 활약하던 이은찬(李殷瓚) · 이구재(李九載, 본명은 求采)가 의병 500명을 모집하였다. 그 뒤 경상북도 문경으로 거유(巨儒)인 이인영(李麟榮)을 찾아가 그를 총대장으로 추대하였다. 이인영은 원주를 거점으로 하는 관동창의대장에 오른 뒤 사방에 격문을 띄워 의병을 모집하는 한편, 김세영(金世榮)을 서울로 잠입시켜 격문을 등사해 각국 영사관에 전달함으로써 항일의병투쟁의 합법성을 국제적으로 호소하였다. 이인영은 원주를 떠나 횡성 · 지평(砥平) · 춘천을 횡행하며 8도의병 규합에 진력하면서 각 도의 의병부대에 격문을 띄워 11월 양주에 집결하도록 하였다. 이에 호응한 각 도의 의군은 '13도창의대진소'를 설치했으며, 이인영을 총대장으로 추대하였다. 이때 편성된 13도창의대진소의 부서를 보면 다음과 같다. 13도의병 총대장 이인영 그 배하에 전라창의대장

---

13) 『대한매일신보』 1907년 12월 4일 잡보 ; 홍영기, 『대한제국기 호남의병 연구』, 202~203쪽.
14) 『대한매일신보』 1907년 11월 28일, 이종익, 『양평독립운동사자료집』,양평문화원,2003,490쪽
15) 신용하, 「전국 '십삼도창의대진소'의 연합의병운동」, 『한국독립운동사연구』 1,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1987 ; 오영섭, 「한말 13도창의대장 이인영의 생애와 활동」, 『한국독립운동사연구』 19, 2002.
16) 홍영기, 『한국독립운동의 역사』, 「제11권 한말후기의병」,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2009

문태수(文泰洙), 호서창의대장 이강년(李康季), 교남창의대장 신돌석(申乭石), 진동창의대장 허위(許蔿), 아장 박정빈(朴正斌), 관동창의대장 민긍호(閔肯鎬), 관서창의대장 방인관(方仁寬), 관북창의대장 정봉준(鄭鳳俊)이었다. 그리고 총병력은 1만 명에 이르렀고 그 중에는 정예군이라 할 수 있는 해산군인 3,000명도 포함되어 있었다. 그 뒤 원수부 13도창의대진소 총대장 이인영, 군사장 허위, 관동창의대장 민긍호, 호서창의대장 이강년, 교남창의대장 박정빈, 진동창의대장 권중희(權重熙), 관서창의대장 방인관, 관북창의대장 정봉준으로 개편되었다. 개편 후의 의병장은 모두 양반 유생 신분으로서 천민 출신의 용장인 신돌석이 배제되었다. 또한 홍범도(洪範圖)·김수민(金秀民) 등 평민 출신 의병장이 연합전선에 참가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이 13도연합의군이 폭넓은 대중적 기반을 형성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17] 이러한 한계성은 있었지만 이들은 한말의 항일 의병사에서 보기 드물게 전국단위연합의병부대인 13도창의군을 탄생시켜 11월부터 서울 진격을 목표로 설정하고 진격을 개시해 경기 일대에서 의병활동을 활발히 전개하였다.

2. 양평의병의 연합의병 참여

양평에서 활약하던 의병진도 13도창의군에 참여하였다. 양평의 정미의병장 김춘수(金春洙,본명은 金魯洙)는 이인영이 13도창의대진소를 편제할 때는 안무장(按撫將)에 임명되었다가[18] 7월 이후에는 홍천에서 의병 800명을 모아 창의하여 홍천, 양근에서 활약하였다. 또한 을미의병 때 양근의병장으로 창의하여 남한산성에 들어가 싸우다 적의 속임수에 빠져 순국한 이승룡의 장남인 이연년도 1907년(저자 주) 12월에 전국의병을 가평으로 집결하라는 격문을 받고 가평 화악산기슭에 유진하여 설빙혹한에 적과 치열한 격전이 벌어졌다. 공(公,이연년;저자 주)은 사격을 계속하였는데 총열이 달아서 총알이 앞에 떨어지기도 했다.[19]는 것과 1907년 봄에 의병장 김춘수(金春洙)의 의진에 입진하여 종사(從事)로 임명되어 의병 200여명과 같이 동년 11월에는 홍천(洪川) 남창(南倉)에서, 12월에는 여주(驪州) 천양(川陽)과 홍천(洪川) 각길리(角吉里)에서 왜적과 전투하였다20)는 것으로 보아 이연년도 의진을 이끌고 13도창의군의 일부로 활약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미의병전쟁과정에서 용문사, 사나사, 상원사 등 유서 깊은 고찰과 수백 호에 달하는 민가가 불태워지고, 무고한 양민이 수없이 학살당하는 피해를 입었다. 이는 근대식 무기로 무장하여 압도적인 무력을 가졌을 뿐 아니라 끔찍한 잔인성을 지닌 일본군경을 상대로 전쟁하면서 불가항

17) 인터넷,[네이버 지식백과] 십삼도창의군 [十三道倡義軍]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18) 장삼현, 『양평의병운동사』, 양평문화원,1996, 229쪽
19) 장삼현, 『양평의병운동사』, 양평문화원,1996, 232쪽
20) 『大韓民國 獨立有功者 功勳錄』 第8卷, 國家報勳處, 1990年, 471쪽

력적으로 발생한 피해로 양평만의 피해가 아니라 의병전쟁이 발발한 모든 지역, 즉 전국적 상황이었다.

3. 13도창의군의 주둔지

1907년 9월 2일 이인영은 원주에서 관동창의대장에 추대되어 일제의 침략을 물리치고 친일 대신을 타도하여 새로운 내각을 수립하고자 거의하였다. 아울러 거의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각국의 영사들에게 일본의 국제법 위반을 호소하였으며 전국 각지에도 격문을 보내어 연합의진의 결성에 박차를 가하였다. 또한 이인영은 자신의 명의로 된 「해외 동포에게 보내는 격문」(Manifesto to All Coreans in All Parts of the World)을 국외에 거주하는 동포들에게도 보내어 의병전쟁의 정당성을 천명하였다. 그의 일제에 대한 적개심과 일제 구축의 당위성을 천명한 글의 일부를 보면 다음과 같다.

> "동포들이여! 우리는 함께 뭉쳐 우리의 조국을 위해 헌신하여 우리의 독립을 찾아야 한다.
> 우리는 야만적인 일본인의 잔혹한 만행과 불법행위를 전 세계에 호소해야 한다.
> 교활하고 잔인한 일본제국주의자들은 인류의 적이요, 진보의 적이다.
> 우리는 최선을 다해 모든 일본인들과 그들의 첩자, 그들의 동맹국과 야만적인 군대를 모조리 죽이는데 힘을 다해야 한다."

광무 11년 9월 25일 대한관동창의대장 이인영[21]의 관동창의군은 전국 각지, 더 나아가 해외 동포들의 지지와 후원을 얻기 위해 적극 노력했음을 알 수 있다.[22] 전국적인 규모의 연합의진을 좀 더 쉽게 결성하기 위해서는 적당한 주둔지가 필요했다. 주둔지는 연합의진에 참여할 의진들이 집결하기에 적당하도록 교통이 편리하면서 적의 공격을 방어하기에 적합하여야 하는 등의 지리적 · 지형적 조건에 맞아야 하며, 특히 주민의 정서가 친의병적이어야 한다. 군량과 군수품조달이 용이하여야 한 점도 적합한 주둔지의 조건이 되었을 것이다. 경기도 지평군(지금의 양평군으로 이하 '양평' 또는 '양평군'이라 한다) 상동면(지금의 양동면으로 이하 '양동' 또는'양동면'이라 한다.)을 주둔지로 결정한 것은 이러한 여러 조건들이 맞았기 때문이었다. 이인영이 주둔지로 정한 양동면은 평해로상에 위치한 지역으로 600m이하의 높은 산줄기가 에워싼 산악지대가 많은 분지

21) 『일본외교문서』 41-1, 819쪽.
22) 홍영기, 『한국독립운동의 역사』, 「제11권 한말후기의병」,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2009

형(盆地形)의 지형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 서쪽으로 여주, 동쪽으로 횡성, 남쪽으로 원주와 접해 있어 도보로 한나절거리이고 양평 · 여주 · 원주 · 횡성 · 홍천과의 거리가 비슷한 반면 서울까지 거리가 그리 멀지 않아 하루면 이동이 가능한 특징도 가지고 있다. 경기도 등 중부이남지역으로부터의 의병소모와 이동과 주둔이 용이하며 적의 공격을 받았을 때 양동으로 들어오는 적을 여러 고개에서 일단 막을 수 있는 조건들도 가지고 있다. 그 예로는 서울이나 양평방면에서 처 들어오는 적은 구둔치에서, 용두리방면에서 처 들어오는 적은 벗고개나 모른고개에서, 원주방면에서 처 들어 오는 적은 송치에서 막을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적의 공격이 있을 경우 응전하면 시간을 지체할 수 있고, 반격과 대피도 손쉬울 뿐 아니라 서울이 가까우면서도 군사적 요새로써의 조건을 두루 갖춘 곳이다. 더구나 출생지인 여주 상교리와는 지근거리이며, 자신이 이미 1895년 을미의병에 참여한 바 있는 명망이 높은 유학자 이인영 의병장으로서는 태어나고 살아온 주변 지리를 잘 알고 있고, 을미의병의 주축을 이룬 호좌의진의 발상지로써 이미 호좌의진의 총대장 류인석 휘하에서 양동 출신 이춘영 · 안승우 의병장과 함께 활약했던 점과 유림을 비롯한 주민들의 의리정신(義理情神)과 항일의식이 남달랐던 점 등도 주둔지로써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조건이 되었을 것이다. 양동주둔의병진의 본대는 양동면 삼산리 원삼산마을에 두었다. 삼산리는 양동의 남쪽에 위치한 강원도 원주와 경계를 이룬 마을로 평해로의 경기도 끝인 송치(松峙)가 이 마을에 속하고 마을 중심으로 흘러내리는 삼산천을 중심으로 북쪽으로는 넓은 들이 펼쳐있고 남쪽으로는 험한 산줄기가 감싸는 지형을 이루고 있다. 특히 원삼산과 속골(금곡)마을, 도소리마을과 분터골은 평해로와 거리는 가까우나 아늑하고 넓은 골짜기이고 많은 물이 풍부했을 뿐더러 삼산천을 따라 원주 땅 간현의 섬강으로 통하는 계곡이 협소하여 비상시 대피이동로로 사용할 수 있는 등 많은 병력이 적의 움직임을 감시, 방어하며 안전하게 주둔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었다. 또한 구둔치를 넘어 평해로를 따라 이곳을 공격하려면 최소 3~4시간이 소요되는 거리이므로 공격해 오는 정보를 받으면 상황에 따라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시간을 벌 수도 있는 곳이었다.

9월 2일 관동창의대장에 추대된 이인영은 횡성 · 춘천 등지에서 군세를 확장하며 모집한 2,000여명을 이끌고 10월 20일 경 안학관〔安學官;여기서 학관은 향교에서 학생을 가르치는 관직으로 양동면 출신 안종엽(安鍾曄)을 말하는 것으로 보임〕과 함께 원주에서 경기도 양평군 양동면으로 이동하였다. 이들은 양동에서 약 두 달간 주둔하며 일본군과 수차례의 전투를 벌이는 한편 서울을 공격하기 위한 군사력 보강에 힘을 쏟았다. 이인영은 명망 있는 유생 출신이면서도 해산 군인을 다수 포함하는 의병을 이끌어 척사의병과 해산군인의병의 중간적인 형태의 의병 부대를 이끌었고, 고종에게서 의병을 일으키라는 밀지를 받았다고 주장하였다.

이후 이인영은 밀지의 권위를 내세워 여러 의진의 연대를 추진하였다. 문경에서 단양 · 영춘 등

지로 북상하면서 호좌의진, 김현규의 여주의진, 민긍호 부대 등과 직·간접적으로 제휴하였고, 10월 중순에는 양동의 삼산리에 새로운 근거지를 마련하고 10여 개 의진이 이끄는 수천 명의 병력을 모았던 것이다. 이인영은 삼산리에서 8도와 통감 이토 히로부미 및 각국의 영사관에 격문을 보냈다. 특히 여러 공사관에 보낸 통문에서 일본이 조선의 독립을 보장한다는 약속을 어긴 일을 비판하고, 의병을 전쟁 단체로 인정하라고 요구하였다. 그뿐 아니라 국외의 교포들에게도 격문을 보내어 국제 여론을 일으켜 달라고 요청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주장과 행동은 서구인들이 한국인들의 의병 항쟁을 자유 전쟁으로 이해하도록 하는 데 크게 이바지하였다. 약 2개월 동안의 삼산 주둔 기간에 이인영의 관동의진은 민긍호 부대와 연대하면서 여러 중소 규모의 의병 부대를 관동의진 휘하에 편제시켰다. 대표적인 휘하의 의병장으로는 방인관(方仁寬)·정봉준(鄭鳳俊)·김병화·권중희·이구채·이은찬·김현복 등이 있다. 그중에는 상인이나 금광 노동자 같은 하층민도 있었다. 따라서 이인영의 관동의진은 사족(士族)이 지도층을 독식하다시피 한 을미 의병기의 여러 의진과 뚜렷한 차별성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이인영은 관료 출신으로서 임진강 유역에서 활동하던 허위(許蔿) 의진과도 공조하였다.[23] 이때까지는 13도창의대진소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이미 대규모 연합의병이 결성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따라서 양평군 양동면은 사실상의 13도창의군의 창설지가 되었다. 그리하여 후일에는 전국 각지에서 16개 의진이 합세함으로써 약 8천명의 연합의진을 형성하며 세를 과시하였다. 이들은 통감부로부터 회신을 기대하였으나 전혀 반응이 없자 그해 11월 홍천과 춘천을 거쳐 양주로 이진하였다. 이때 의병장 허위(許蔿, 1854~1908)를 비롯한 각지의 의병부대들이 양주로 집결함으로써 48개 의진 약 1만 명의 규모로 증가하였다.[24] 이인영의 주도로 양주에 모인 각도의 의병장들은 연합의진의 결성에 진력한 이인영을 13도창의대진소(十三道倡義大陣所)의 대장으로 추대하였다. 13도창의대장에 추대된 이인영은 양주에 집결한 의병장들과 상의하여 진명(陣名)을 정하고 각도 의병의 칭호를 부여하는 등 전국적인 연합의병부대를 편성하고 부서를 확정하였다. 이때가 연합의진이 양주에 모인 1907년 12월경으로 추정되며 확정한 연합의진의 부서는 다음과 같다.

13도 창의 총대장 이인영
전라유진소 전라창의대장 문태수
호서유진소 호서창의대장충청도 이강년
교남유진소 교남창의대장경상도 신돌석

23) 인터넷,[네이버 지식백과] 이인영 [李麟榮]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한국학중앙연구원)
24) 국사편찬위원회, 「13도 창의대장이인영체포시말」, 『한국독립운동사』 1, 719쪽.

진동유진소 진동창의대장경기도 황해도 허 위, 아장(亞將) 박정빈
관동유진소 관동창의대장강원도 민긍호
관서유진소 관서창의대장평안도 방인관
관북유진소 관북창의대장함경도 정봉준

그러나 얼마 후 영남과 호남에서 항일투쟁을 전개하던 신돌석과 문태수 의병부대가 양주에 도착하지 않는 등 연합의병 편제를 개편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1908년 1월경 이인영 등 지도부는 부득이 다음과 같이 부서를 재정비하였다.[25]

13도창의대진소 총대장 이인영
군사장 허위
관동창의대장 민긍호
호서창의대장 이강년
교남창의대장 박정빈
진동창의대장 권중희
관서창의대장 방인관
관북창의대장 정봉준

13도창의대진소는 강원도를 기반으로 하는 이인영 계열의 민긍호 · 이은찬 · 이구채 · 방인관 · 정봉준 등의 관동 의진과 경기도와 황해도를 무대로 활동한 허위계열의 박정빈 · 김준수 · 연기우 등의 의병부대, 그리고 충청도에서 주로 활동하던 이강년 의병부대 등이 핵심적인 전력을 구성하였다. 따라서 13도창의대진소는 강원도와 경기도를 중심으로 활동하던 중부지방의 연합의병부대라 할 수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전국적인 연합의병부대로서 '13도창의대진소'라는 전국적 조직을 표방한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13도창의대진소의 규모는 약 1만 명이었는데, 그 가운데 양총을 가진 해산군인들이나 기타 포군 등이 약 3천 명이었다.[26] 이 13도창의대진소 연합의병 부대를 '13도창의군'으로 부르는 것이다.

25) 신용하, 「전국 '13도창의대진소'의 연합의병운동」, 『한국독립운동사연구』 1, 15~16쪽 ; 오영섭, 『고종황제와 한말의병』, 320쪽
26) 홍영기, 『한국독립운동의 역사』, 「제11권 한말후기의병」,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9

4. 13도 창의군의 서울진공작전

가. 작전의 경과

양주에 모인 13도창의군의 목표는 서울 공략이었다. 이들은 1908년 1월 서울 진격을 감행하였으니 이른바 13도창의군의 서울진공작전이었다. 당시 작전상황을 『기려수필(騎驢隨筆)』은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 "의진끼리 서로 연락하여 성원을 받았으며, 각 도에 격문을 전하니 북을 치고 일어나는 원근의 응모자가 주야부절로 모여들어 모두 1만여 명이나 되었다. 그리하여 서울로 진군하여 통감부를 격파해서 협약을 취소시키고 국권을 회복코자 하였다. … 군사(軍師)는 그 군대를 정돈하고 진격할 준비를 갖추었다. 이에 이인영은 각도 의병으로 하여금 일제히 진군하도록 촉구하고, 몸소 3백 명을 이끌고 먼저 동대문 밖 30리에 이르렀다. 하지만 각 군이 이르지 않았는데 일본군이 먼저 쳐들어 와 서로 분전하였으나 적과 대적할 수 없어 퇴군하였다." [27]

이인영이 주도한 서울 진공 작전은 한때 도성을 지키는 일본군을 긴장시켰으나, 동대문 밖까지 진출한 선발대가 일본군의 기습으로 물러섰고, 이인영이 마침 부친상을 당하여 지휘부에서 물러서는 바람에 성공하지 못하였다.[28] 이로써 13도창의군에 참여하였던 의병진은 각각 본래 활동하던 지역으로 흩어지고 대규모 연합의진은 와해되고 말았다.

나. 작전의 의의

대규모병력이 일시에 서울로 진격함으로써 통감부를 점령한 후 외교적 담판을 벌이되 한국에 주재 중인 구미열강의 외교적 지원을 촉구하며, 의병 중에서 인물을 골라 정부를 조직할 의도, 즉 일제 통감부를 타격하고 일제와 맺은 조약을 파기하며 친일정부를 축출, 의병주도의 신정부 조직 등을 목표로 추진된 13도창의군의 서울진공작전은 일제 군경의 방어선을 뚫지 못하여 좌절되고 말았던 것이다.

그러나 13도창의군의 서울진공작전은 여러 가지 역사적 의의를 남겼다.

첫째, 을미의병이래 시작된 항일의병사 중 최초로 전국적인 연합의병진을 꾸렸다는 점이다. 유

---

27) 송상도, 『기려수필』, 127쪽

28) [네이버 지식백과] 이인영 [李麟榮]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한국학중앙연구원)

림이 중심세력을 이루는 등 여러 가지 사정으로 경기도와 강원도, 황해도, 충청도 등 주로 중부지방에서 활약하던 의진이 중심이 되어 실제로 전국적 연합의진의 구성과 활동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추구한 목표와 실제 규모면에 있어서 최초였고 대규모의 의진이었던 점은 높이 평가하여야 한다.

둘째, 서울진공작전의 목표가 새로웠다는 것으로써, 13도창의군을 주변국으로부터 국권회복을 위해 활동하는 공식적인 교전단체로 인정받고, 서울진공작전을 통하여 통감부와 외교적 담판을 하고 새로운 정부를 조직하려 했다.

셋째, 서울 진공작전은 좌절로 끝났지만 중간주둔지와 최종 집합지인 양주까지 집결하는 과정에서 일군경과의 수많은 접전을 통하여 전술과 전력의 향상이 이루어져 후기의병활동을 활성화시키고 확산시키는 계기가 됐다. 이인영은 거사 이래로 약 4개월 동안 강원도 경기도의 각지에서 대소 약 38회의 전투를 거듭하였다.[29] 이러한 수차례의 전투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전투가 1907년 11월의 경기도 삼산(三山) 전투와 마전(麻田) 전투였다.

Ⅳ. 삼산리전투

1.삼산리전투의 경과

1907년 10월 20일 의병(義兵)이 양평군 양동의 삼산(三山) 등을 의병이 근거지로 삼아 2000명 가량이 원주로부터 이진하였는데, 우군 정대일〔鄭大一,1907년11월 13일자 대한매일신보와 한성신문에는 '정은대일,鄭銀大一'로 보도한 것은 '정대일(鄭大一)'의 오기로 보임)이 삼산리 이천(梨川, 즉 '배내'로 앞의 두 신문에 '利川'으로 보도한 것은 '梨川'의 오기로 보임), 좌군 이인영(李麟榮)은 석곡리 석실(石室)에 두었으며, 제일선은 양동(楊東)부근에서 동남령(東南嶺)에 이르며, 총은 모두 400정(挺)으로 30년식(年式) 총도 10정이 있으며 한병(韓兵)은 대부분 총을 지니고 주둔했다. 삼산(三山) 등에 모인 의병은 부근마을에서 화약(火藥)을 수취하고, 장정(壯丁)을 모집하며, 그 해 결세(結稅)는 삼산(三山) 대장소(大將所)로 납부하도록 전령하였다[30](이 기록과 증언 등에 따르면 양동의 이인영 연합의진 본부는 삼산리의 원동인 원삼산마을 이었음). 이인영은 10월 20일 경 안학관(安學官)과 함께 양동에 주둔했고, 양동면 내의 주둔지는 섬실동(蟾實洞,지금의 석곡리 섬실), 삼산리(三山里), 단석리(丹石里, '舟川里'라 기록되었으나 丹石里의 오기로 보임), 설

29)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자료집-별집 1』, 372쪽.
30) 『대한매일신보』 및 『한성신문』 1907년 11월 13일, 이종익, 『양평독립운동사자료집』, 양평문화원,2003, 489쪽.

매실〔雪梅室,산매실동('山梅實洞'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雪梅實洞 의 오기로 지금의 매월리 설매실〕, 석우리(石隅里, 지금의 금왕1리)일대로 양동면의 전역에 의병진별로 다른 마을에 분산하여 주둔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양동면 계정리와 계정리와 경계를 이룬 횡성군 고모곡면(古毛谷面;지금의 서원면,이하 '서원면'이라 한다)에 걸쳐서도 의병의 일부가 주둔하고 있었다.

"지평현 수서기(首書記)를 체포하여 주민에게 명령하여 군용금이라며 돈을 징수하고, 2~3리마다 보초를 배치 경계하면서 진지를 구축하고 전열을 가다듬었다.[31]"라는 일본군의 정보보고가 있었던 것으로 미루어 엄격한 군율에 의거 통제되었고, 일본군의 공격에 철저히 대비하고 있었으며, 장차 소요될 군비마련을 위한 활동도 전개했음을 알 수 있다. 실제로 양주로 갈 부대 중 경기동부 이남의 이인영 부대, 민긍호 부대, 허위 부대, 전라도의 문태수(文泰守)의병부대는 물론 서울진공작전에 사용할 탄약을 구입하기 위해 서울로 들어갔다가 일군에 잡힌 경상남도의 김훈(金壎,유생으로 의병장이었음)도 합류하여 양동에 주둔해 있었다. 특히 김훈은

"허위 및 이인영과 행동을 같이하던 사이에 일본군과 충돌전투한 일이 수십 회인 바 그중 양평군 삼산에서 전투하였을 때는 의병의 수 약 5천명, 일본군 약 5~6백 명으로 다수의 사상자를 낸 대충돌이었다."[32]고 당시의 삼산리전투상황을 증언하였다. 따라서 양동은 중간주둔지라기보다 사실상의 13도창의군의 창설지로 보아야 한다는 점은 앞에서도 언급했다. 그 밖에도 방관일(方觀一)·정대일(鄭大一)의병장도 양동에 주둔하였던 것이 기록상으로 확인되고 있다. 양동에 주둔한 의병이 5천 여 명에 이르기 까지 일본군이 모르고 있을 리가 없었고 그냥 놔 둘리 없었다. (이하 내용은 본문말미의 '참고자료, 삼산리전투에 관해 기술한 책자 내용과 기록'를 참고하여 저자가 재구성한 것이므로 문장별 각주로 대함) 상부로부터 양동지역의병토벌지시를 받은 일본군 보병 제51연대 제12중대의 사카베(坂部)소좌는 원주에 내려와 원주수비대로부터 양동면의 의병주둔상황 등 정보를 취합하여 작전계획을 수립하였다. 이에 따라 경성(京城,지금의 서울, 이하 '서울'이라 한다)에서는 보병 제51연대 제12중대와 기병 제17연대 제3중대 1개 소대, 공병 제13대대 1개 소대, 임시산포1소대 등으로 구성된 사카베(坂部)소좌가 이끄는 혼성군(混成軍)인 경성토벌대(이하 서울토벌대라 함)를 편성하여 공격하기로 하였다. 또한 원주에서는 원주수비대의 아까쿠라(赤倉)대좌가 1개 중대와 충주수비대병력을 지원받고 경찰병력을 지원받아 토벌대(이하 원주토벌대라 함)를 편성하여 협공하기로 하였다. 아까쿠라(赤倉)는 한강토벌대소속으로 10월 말 서울로부터 충주로 이동했으나 양동지역의 의병을 토벌하라는 명령을 받고 11월 초 충주를 출발하여 주포를 거쳐 원주에 도착, 정보를 종합한 뒤 양동면 삼산리로 출동하였다.

---

31) 『한국독립운동사 자료』 8권, 「의병편 I」,국사편찬위원회,1979, (四)十一月,江原道 (13번째 기사)
32) 『편책』, 「韓憲警 乙 제404호」; 국사편찬위원회, 『한국독립운동사』 자료 10, 129쪽.

한편, 춘천수비대에서도 보병1개 소대 및 기병6기로 토벌대(이하 춘천토벌대라 함)를 편성하여 작전에 참여하기로 하여, 양동주둔의병토벌대는 이 작전을 '대토벌(大討伐)'이라 하고, 서울의 사카베(阪部) 소좌가 지휘하게 하였다. 사카베의 지휘아래 서울방변 구둔치를 통해서 서울토벌대가, 원주방면 송치에서는 원주토벌대가, 용두 · 횡성방면(벗고개와 몰운고개)의 춘천토벌대 등 총 500~600명의 병력이 3면에서 동시에 협공하기로 하였던 것이다.

11월 4일 서울을 출발한 사카베소좌의 서울토벌대는 고안(지금의 남양주시 조안면 능내리), 양근(지금의 양평읍소재지)을 경유 11월 6일 양평의 광탄에 도착하여 대기하다가 11월 7일 새벽을 기하여 기습적으로 구둔치를 넘으려 했으나 그 곳을 지키고 있던 150여 의병들의 강력한 저항을 받았다. 토벌대는 의병이 강력히 응전해 옴으로 일시 퇴각하였다가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2시간에 걸쳐 의병진을 향해 산포공격을 집중했다. 구둔치를 지키던 의병들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진지를 적에게 내주고 말았다. 따라서 토벌대가 구둔치를 넘은 시간은 11월 7일 정오 이후가 되었다. 그날 새벽 구둔치를 통과하여 설매실과 섬실에 있던 의병부대를 시작으로 삼산리 본진까지 공격하여 궤멸시키려던 서울토벌대의 작전계획은 어긋나고 말았다. 구둔치에서의 교전으로 시간을 지체하는 동안 설매실에 주둔하고 있던 의병진은 대피하였고, 섬실에 있던 의병진은 원주에서 출동한 토벌대와 교전하다 흩어진 후에야 석곡리 섬실을 통과하여 의병 본진이 있는 삼산리에 도착할 수 있었다. 원주토벌대는 삼산리전투 하루 전인 11월 6일 원주수비대의 우수이(臼井) 중위에게 20명의 병력과 경찰 7명을 주어 안창에서 양동, 즉 삼산리-원주간의 평해로변 등에 의병부대가 설치한 초소를 공격하여 토벌대의 공격을 받고 퇴주할지도 모르는 의병부대의 퇴로를 사전 차단하였다. 11월 6일 급습을 받은 강원도 이운리와 판관대동 등지의 2~3리마다 요소(要所)에 초소를 설치하고 20~30명씩 보초를 서던 의병들은 토벌대의 공격을 받아 많은 피해를 입고 흩어지고 말았다.

한편, 11월 6일 오전 2시 원주를 출발한 아까쿠라토벌대는 1개 중대와 가등(加藤)보조원 외 3명 및 순검(巡檢)4명과 함께 횡성군을 경유 11월 7일 양동면에 도착, 삼산리와 섬실에 있던 의병부대를 공격하여 치열한 전투를 벌였다. 보병1개 소대, 기병6기로 토벌대를 편성한 춘천토벌대는 11월 5일 경찰대와 합동, 춘천을 출발 홍천군에 도착한 후 11월 6일 횡성군으로 이동 중 오전10시 30분경 홍천군 삼마치(三麻峙)고개의 300m고지로부터 1발의 총성과 동시에 의병150명(韓兵도 섞여있었음)의 공격을 받자 교전하여 의병7명을 사살하고 1명에게 부상을 입혀 화승총 2정을 노획한 후 11월 7일 횡성의 상창봉(上倉峰)을 출발 서원면에 도착했으나 단애절벽(斷崖絶壁)의 산곡(山谷)으로 의병의 흔적이 없으므로 청운면 용두리(龍頭里)로 이동, 서울의 50연대소속 암좌(岩佐) 중위가 인솔하는 1개 소대를 만나 양동면 금왕리의 석우리(石隅里,지금의 돌모루), 율목곡

(栗木谷,지금의 밤나무골), 월대리(月垈里,지금의 워리터)에 조정호(趙正浩)가 모집한 의병 400여 명이 주둔하고 있다는 정보를 얻고 벗고개를 넘어 양동으로 들어오다 이곳을 지키던 의병과 접전하여 돌파해 금왕리에 다다랐으나, 의병은 이미 2~3일전 주민과 함께 삼산리로 대피하고 없었다. 헛걸음을 한 토벌대는 이곳을 의병의 소굴로 인정 18호의 가옥을 소각한 후 삼산리의 의병부대를 공격하려했으나 삼산리는 이미 서울에서 출동한 사카베소좌와 원주에서 출동한 사카쿠라의 부대에 의해 격퇴 궤주시켰다는 기병의 전령에 따라 11월 8일 철수하였다. 원주토벌대의 양동작전(兩動作戰)은 먼저 출발시킨 토벌대가 평해로를 확보하여 퇴로를 차단한 다음 횡성을 경유하여 들어온 본대가 서울에서 온 토벌대와 춘천에서 온 토벌대와 합세하여 총공격을 가함으로써 주둔하고 있던 의병진본진을 꼼짝 못하도록 포위하여 재기할 수 없을 정도의 결정적인 피해를 입히려는 치밀한 전략이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

11월 6일 일본군 토벌대가 평해로 송치와 이운리 판관대동 등에 설치한 초소를 급습해 오자 의병진은 강하게 저항하며 교전하였으나 끝내는 평해로를 적에게 내어주고 흩어져 버리고 말았다. 교전과정에서 주변지리에 밝은 의병들이 산속으로 흩어지고 겨우 평해로만 확보하는데 그친 토벌대는 솔안동(松內洞)의 의병거처로 쓰던 가옥 9채를 불태우는 만행을 저질렀다. 다음날인 11월 7일 9시 부터 원주토벌대의 공격을 받은 의병진은 삼산리 일대에서 해가 질 때까지 내내 교전을 벌였다. 토벌대는 수적으로는 열세였지만 기마로 이동이 빨랐고 신식무기로 무장하였다. 개인화기는 미약하지만 수적으로 우세하고 지형지물에 밝은 의병부대는 나름대로 공격과 후퇴를 번복하며 잘 싸웠다. 11월 7일 오후 늦게부터는 서울토벌대가 합세함에 따라 상황이 달라졌다. 서울토벌대가 새벽부터 구둔치를 넘어 공격해 오려다 그곳을 지키고 있던 의병에 의해 저지당하자 일단 퇴각하였다가 산포공격과 함께 공격을 해 옴으로 결국 정오경에 구둔치를 내어주고 말았지만 본진과 다른 마을에 있던 의병진에게 대비할 시간을 벌어 줌으로써 의병의 피해를 많이 줄일 수 있었던 것이다. 삼산리에 있던 주력부대는 원삼산과 속골, 분터골, 도소리, 솔치마을 등 곳곳에서 접전하였으며 주격전지는 도소리와 분터골을 잇는 다리부근 이었다. 일본군은 원주로 퇴군하면서 분터골의 민가에 불을 지르는 만행도 저질렀다. 삼산리를 비롯한 양동주둔 각 의병진들은 열악한 무기를 가지고 11월 7일부터 8일까지 토벌대와 수차례 교전하였는데 8일 오후 토벌대와 맞서 싸우던 삼산리부근의 잔여병력들이 게릴라전을 벌이다 모두 흩어지자 삼산리전투는 종료되었다. 지금까지는 이틀간의 삼산리전투과정에서 산속 등지로 흩어진 의병들은 모두 서울진공작전을 위한 집결지인 양주로 갔다고 알려져 있으나, 삼산리에서 30~40여㎞ 거리인 원주시 부론면 정산동과 호저면 고산리로 들어가 재집결하였다는 일본군의 내부보고내용으로 보아 양동에 주둔해 있던 모든 의병진이 양주로 간 것이 아님이 밝혀졌다. 즉 양동주둔 의병진 중 이인영의 관동창의군

으로 추측되는 1,500여명은 원주군 부론면(富論面) 정산동(鼎山洞;지금의 정산리)으로, 300여명은 원주군 호매곡면(好梅谷面;지금의 원주시 호저면) 고산리(高山里)로 산길 등을 이용하여 재집결하였음이 확인되고 1,000여명은 양주로 이동하였으며, 나머지는 그 이외의 지역으로 흩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삼산리전투에서 500~600명으로 편성된 토벌대는 수십 명에 그치는 사상자를 냈으나, 5천여 명에 달했던 의병진은 200~300명 정도의 많은 사상자를 내고 말았지만 일제가 노렸던 재기불능상태의 완전진압에는 실패한 토벌작전이었다.

2. 삼산리전투에 참여한 의병(장)

사실상의 13도 창의대진소 창설지인 양동면 일원에 모인 의병의 수는 1907년 말 경 8천 여 명에 달하였음은 앞에서 언급한바 있다. 원주토벌 대가 삼산리전투 하루 전인 그해 11월 6일 원주수비대의 우수이(臼井) 중위에게 20명의 병력과 경찰 7명을 주어 의병부대의 퇴로를 사전 차단 할 당시 양동주둔의병은 5천 여 명에 달하였다. 그해 10월 양동에 의병을 이끌고 주둔하기 시작한 두 의병장 이인영 · 안종엽은 말할 것도 없고, 이인영 휘하의 의병장이었던 방인관(方仁寬) · 정봉준(鄭鳳俊) · 김병화 · 권중희 · 이구채(李球采) · 이은찬 · 김현복 등도 이 전투 참여한 의병(장)이었다. 결성 초기의 각도 창의대장이었던 전라창의대장 문태수(文泰洙), 호서창의대장 이강년(李康季), 교남창의대장 신돌석(申乭石), 진동창의대장 허위(許蔿), 아장 박정빈(朴正斌), 관동창의대장 민긍호(閔肯鎬), 관서창의대장 방인관(方仁寬), 관북창의대장 정봉준(鄭鳳俊)등도 이 전투에 임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정봉준의진의 종사(從事)였던 한원태(韓元泰)[33]와 이 의진에 속했던 정시항(鄭時恒)[34]과 방관일(方觀一) · 정대일(鄭大一)[35]의병장도 양동에 주둔하였던 것이 기록상으로 확인되고 있고, 문의영(文宜瑛)[36] · 우상옥(禹相玉)[37] · 이태영(李泰營)[38] · 한상열(韓相烈)[39] · 여용서(余龍瑞)[40]와 이 전투에서 사망한 안재항(安載恒)[41]도 확인된다. 서울진공작전에 사용할 탄약을 구입하기 위해 서울로 들어갔다가 일군에 잡힌 김훈(金壎), 금왕리에서 의병 400명을 모아 삼

33)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별집 제1집 123 ~ 125쪽』
34)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별집 제1집 341 · 342쪽』
35) 조선주차군사령부, 『조선폭도토벌지』 (『독립운동사자료집』 3, 「의병항쟁사자료집」 ,국역), 독립기념관, 713 ~ 714쪽
36) 상촌장학회, 『양평사람들』 , 장삼현, 2013 298~300, 393쪽
37) 양평문화원, 『양평의병운동사』 , 장삼현, 1995 244쪽
38)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별집 제1집 371 · 372쪽』
39)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3권 585, 599, 734쪽』
40) 양평문화원, 『양평의병운동사』 , 장삼현, 1995 244쪽
41) 상촌장학회, 『양평의병운동사』 , 장삼현, 2013 395쪽

산리로 갔다는 조정호(趙正浩)는 안종엽과 함께 양동출신의병장으로 이 전투에 참전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에 열거한 의병(장)외의 나머지 의병(장)들은 이름 석 자 나마 알 수 없음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이들 무명의 삼산리전투 참전 의병을 비롯한 한말 항일의병에 참여한 무명의병들을 찾아내 기리는 것도 앞으로의 연구과제이다.

3.삼산리전투의 의의

강원도와 경기도 등지에서 의병을 소모하여 이인영관동의병장의 연합의병을 양주로 집결하기 위해 이동하는 과정에서 총38회에 걸친 전투가 벌어졌으며 그 중 삼산리전투가 대규모이고 가장 치열했다. 삼산리전투 이후 양주로 이동한 의병은 그곳의 주둔지에서 머물렀으며, 원주등지로 재집결한 의병들은 주둔지에서 전열을 정비하면서 양주집결을 준비하였다. 이처럼 서울진공작전 수행을 위한 최대의 중간주둔지였던 양동의 여러 의병진은 물론, 강원도 등 다른 곳에서 창의하거나 소모하여 서울진공작전에 참여하려던 의병들은 지역의 지리적여건 등을 최대한 활용하여 일본군의 출동이나 공격상황에 따라 수차례에 걸쳐 흩어졌다가 다시모이는 산합(散合)을 거듭하며 일본군의 양민학살, 방화와 회유, 그리고 악랄한 토벌작전에도 굴하지 않고 연합의병의 양주집결에 대비했다. 일본토벌대는 "이번 대토벌로 의병은 사방으로 흩어졌으나 흩어진 의병들은 다시 어느 지점에 모였다가 토벌대 철수 후 다시 어느 지점에 집결하기를 반복하여 '반상(飯上)의 청승(靑蠅)'과 같다"며 의병을 밥상에 덤비는 파리 떼에 비유하여 토벌결과를 상부에 보고하였다. 양동주둔의병토벌작전의 실패와 어려움을 간접적으로 나마 토로한 것이다. 양동주둔의병을 토벌하려던 대토벌작전은 의병 200~300명을 사상케 하고, 당장 의병을 흩어지게 하기는 하였지만 완전토벌에는 이르지 못했고, 양주로가기 위해 다시 양동에 모인 의병수가 8천명에 달했다는 이인영 의병장의 다음 재판기록으로 보아 의병이 얼마나 끈질기게 목숨을 바쳐 항일의병전쟁을 수행하였는가를 말해주고 있다.

"(앞부분 생략)진군하여 양평군 양동에 이르자 그의 도당이 8천명에 이르렀다. 이어 양주로 가서 동지인 허위 이강년의 무리와 합하니 그 규모가 1만 명에 달하였다.(이하 부분 생략)"

결국 1907년 11월부터 1908년 1월까지 전국 각지의 의병진 48진 1만여 명이 양주에 모여 13도창의군을 조직하고, 서울진공작전은 개시되었다. 그러나 아버지의 부고를 접한 이인영 총대장이 모든 권한을 군사장 허위에게 넘기고 장례를 치루기 위해 급히 고향으로 돌아가자 전권을 넘겨받은 허위는 1908년 1월에 통감부를 격파하기 위하여 각 도의 의병들이 동대문 밖 30리 지점인 양주 수택리에 집결하기로 한 약속에 따라 감사병(敢死兵;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싸우는 병사) 300명

을 이끌고 도착하였으나 다른 도의 의병들이 교통 불편으로 도착이 지연되었다. 그 사이에 이러한 정보를 입수한 일본군이 선수를 쳐 1월 25일 공격을 해옴으로 필사의 전투를 벌였으나 중과부적으로 의병사상자만 나올 뿐이라 할 수 없이 양주로 후퇴하고 말았고 그 후 허위는 제2차 진공작전을 시도하였으나 계획단계에 머물렀을 뿐 실행에 이르지는 못했다. 13도창의군에 참여했던 이들 의병진들은 자기 지역으로 되돌아가거나 각지로 흩어져 후기의병전쟁을 계속했다. 연합의병은 양동과 양주에 집결하고 연합의진을 결성하는 과정에서 의병진간의 연락체제를 구축하고 일본군에 효과적인 대응을 하는 등 단위 의병진 활동의 효율화에 기여했으며 삼산리전투를 비롯한 크고 작은 여러 차례의 전투를 통하여 전투력이 향상되었다. 증강된 전투력은 서울진공작전 실패 후 전개된 후기의병전쟁을 활성화하는데 기여하였고 또한 외국영사관을 상대로 통문발송을 통해 일본과 체결된 조약의 불법성을 성토하고 일본의 불법적이고 야만적인 군사적 침략에 대응하여 무장투쟁을 전개하는 의병들의 활약상을 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 의미가 크다. 삼산리전투는 13도창의군의 서울진공작전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려는 일본군의 대토벌작전이었고, 일본경찰은 이 작전으로 의병을 재거불능상태로 만들었다고 다음과 같이 파악하였으나, 오히려 토벌대에도 피해를 입히고 서울진공작전을 계획대로 수행할 수 있게 한 의병항쟁사에서 의의가 큰 전투였음이 분명하다. 조선총독부 경무국, 『폭도사편집자료』 (국역),독립기념관, 515쪽의 기록은 다음과 같다.

> "양평군 삼산리(三山里)에는 대소 폭도 수괴 12명이 집합 부대 약 3천 명을 인솔하고 의기충천의 기세를 보여 횡포를 자행하였다. 동년(同年) 11월 7일 이천(利川) · 여주에 주둔한 군대가 대거 이를 격파한 이래 적의 세력은 급격히 쇠퇴하여 수괴는 종적을 감추고 부하는 지리멸렬의 쇠락을 하였다. 더욱이 융희 2년 6월 25일부터 동년 9월 8일까지 군대 · 경찰 연합의 대토벌이 수행되자, 적도의 잔당은 더한층 궤멸 이산하여 도망하는 비경(悲境)을 보여 도저히 재거할 용기가 없게 되었다."

V. 맺음말

한말의 정미의병(후기의병)은 오로지 일제에게 빼앗긴 국권을 회복하고 민족의 자유를 지키기 위하여 수많은 의병진과 의병들이 고귀한 생명을 바쳐 싸운 전선 없는 독립전쟁이었다.

첫째, 한말 의병 중 정미의병은 우리나라 의병의 연원이 된 임진왜란을 겪으면서 분연히 일어나

싸웠던 의리사상을 기초로 자주성과 독립성이 발현되어 신분을 가리지 않고 일어난 반외세 · 반침략의 민족적 무력항쟁이었다. 둘째, 후기의병의 강력한 반일투쟁은 일제의 한국 식민화정책을 지연시켰다. 일제는 대규모 군대를 동원한 이른바 토벌작전을 통하여 의병을 무자비하게 진압한 후에야 우리나라를 식민지로 삼을 수 있었다. 셋째, 국내외에 항일운동기지를 만드는 초석이 되어 후일 독립운동으로 승화 계승되었다는 역사적 의의가 있다.

이렇듯 역사적의의가 큰 정미의병(후기의병)을 확산시킨 계기는 전국연합의병인 13도창의군의 탄생과 이들 1만 명의 서울진공작전이었고, 13도창의군의 주역이었던 경기 · 황해 · 강원 · 충청 등 중부지역 의병진이 약 2달간 주둔하면서 전력을 정비하고 일제의 대토벌에도 의연히 맞서 싸워서도 주저앉지 않은 삼산리전투였다. 경기도 양평군 양동면일대에 주둔하여 사실상의 13도창의군 창설지가 되었고,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삼산리전투도 규모와 끼친 영향이나 의의에 대한 합당한 평가를 받아 한말의 항일의병사는 물론 역사에 길이 남도록 해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삼산리전투에 관해 기술한 책자 내용과 기록

1907년 11월(저자 주) 7일 풍수원(楓樹院)에 이르렀을 때 다시 삼산리(三山里)부근에 폭도 집합의 정보를 얻고 그리로 향하여 급진하였으나, 이미 도주한 후였다. 동지에서 판부지대(坂部支隊)와 연락하고, 8일 지평(砥平)으로 향하는 도중 삼산리(三山里) 서남 약 20리 지점인 노안산(魯安山) 속에 약 2백의 폭도가 잠복 중임을 정지(偵知)하고 그를 급습, 그 28을 사살하고 궤주시킨 다음 1소대를 지평(砥平)으로 분진(分進)시키고 중대는 이수두(二水頭)에 머물렀다.

강기(岡崎) 제13사단장은 지평(砥平)·횡성(橫城)간, 고모곡(古毛谷) 부근의 폭도 토벌을 위하여 보병 제51연대 제3대대장 판부소좌(坂部少佐)에게 동 제 12중대, 기병 제17연대 제3중대의 1소대, 임시 산포 1소대 및 공병 제13대대의 1소대를 지휘시켜 토벌을 명하였다.

판부지대(坂部支隊)는 4일 경성(京城)을 떠나 고안(高安)·양근(楊根)을 경유 6일 광탄(廣灘)에 도착 7일 새벽 뇌성호우(雷聲豪雨)를 무릅쓰고, 지평(砥平) 동방 '구둔치 재'에 도착하였을 때 폭도 약 1백 50은 그 고개마루 각처에 구축한 산병호에서 아군을 향해 난사를 하여 왔으므로, 지대는 일부로써 그를 공격하여 궤주시켰다. 주민들의 말에 의하면 폭도의 주력은 삼산(三山)·석실(石室) 부근에 주둔하고 있었으나, 어제 각 방면으로 도주를 한 듯하고 '구둔치 재'에 있던 자는 그 감시부대였다고 한다.

지대는 폭도를 추격하여 오후 석실(石室)을 소탕하고 도중 약간의 폭도를 죽이고 삼산(三山)에 이르러 적창토벌대(赤倉討伐隊)와 연락하였다. 삼산(三山)·석실(石室) 부근에 있던 폭도는 약 7백으로 수괴(首魁)는 이인영(李麟榮)·방관일(方觀一)·정대일(鄭大一)이라고 한다.

8일 삼산(三山)·석실(石室) 부근 산곡에 있는 부대를 수색하여 약간의 폭도를 구축하고 10일 이천(利川) 수비를 맡아 지대의 편성을 풀고 동지에 이르렀다.

【전거】 조선주차군사령부, 『조선폭도토벌지』(『독립운동사자료집』 3, 「의병항쟁사자료집」,국역),독립기념관, 713~714쪽

(앞부분 생략)13도창의대진소의 본래 계획은 동대문 밖에서 전군이 집합하여 대오를 정비한 후 서울로 진격하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통감부를 격파한 후 을사조약을 철회시킨 다음 국권을 회복할 의도였던 것이다.

그런데 이들은 서울진공작전을 감행하기 이전부터 반일투쟁을 전개하고 있었다. 가장 대표적인 전투가 1907년 11월의 경기도 삼산(三山) 전투와 마전(麻田) 전투이다. 이들이 원주에서 지평으로 이동하여 여러 의병부대가 합류함으로써 약 5천명의 규모로 증가하였다. 이들은 서울을 공격하기 위해 군수품과 군자금을 조달하고 있었는데, 이를 눈치 챈 일제는 원주와 서울에 주둔중인 일본군을 동원하여 이들과 이틀 동안이나 치열한 전투를 전개하였다.

허위 의병부대에서 활동하다가 1907년 11월 지평의 연합의병부대에 합류하여 활동한 김훈(金壎)은 당시의 전투상황을 다음과 같이 술회하였다.

허위 및 이인영과 행동을 같이하던 사이에 일본군과 충돌전투한 일이 수십 회인 바 그중 지평군 삼산에서 전투하였을 때는 의병의 수 약 5천명, 일본군 약 5~6백 명으로 다수의 사상자를 낸 대충돌이었다.

이와 같이 삼산전투는 치열한 혈전을 벌였으나 연합의병측은 200~300명의 사상자가 나올 정도로 큰 피해를 당했다.

전국적인 규모의 연합의진을 좀더 쉽게 결성하기 위해 이들은 원주에서 경기도 지평(砥平)으로 이동하였다. 이들은 지평에서 약 두 달간 주둔하며 일본군과 수차례의 전투를 벌이는 한편 서울을 공격하기 위한 군사력 보강에 힘을 쏟았다. 그리하여 전국 각지에서 16개 의진이 합세함으로써 약 8천명의 연합의진을 형성하며 세를 과시하였다.(이하 부분 생략)

【전거】 홍영기, 『한국독립운동의 역사』, 「제11권 한말후기의병」,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2009

지평군 삼산리(三山里)에는 대소 폭도 수괴 12명이 집합 부대 약 3천 명을 인솔하고 의기충천의 기세를 보여 횡포를 자행하였다. 동년(同年) 11월 7일 이천(利川)·여주에 주둔한 군대가 대거 이를 격파한 이래 적의 세력은 급격히 쇠퇴하여 수괴는 종적을 감추고 부하는 지리멸렬의 쇠락을 하였다. 더우기 융희 2년 6월 25일부터 동년 9월 8일까지 군대·경찰 연합의 대토벌이 수행되자, 적도의 잔당은 더한층 궤멸 이산하여 도망하는 비경(悲境)을 보여 도저히 재거할 용기가 없게 되었다.

【전거】 조선총독부 경무국, 『폭도사편집자료』 (국역), 독립기념관, 515쪽

지난 달 20일 의병(義兵)이 지평(砥平)군 삼산(三山) 등을 의병이 근거지로 삼아 2000명 가량, 우군 정은대일(鄭銀大一)이 이천(利川), 좌군 이인영(李麟榮)은 석실(石室)에 두었으며, 제일선은 상동(上東)부근에서 동남령(東南嶺)에 이르며, 총은 모두 400정(挺)으로 30년식(年式) 총도 10정이 있으며 한병(韓兵)은 대부분 총을 지녔다 한다.

지평(砥平)군 삼산(三山) 등에 모인 의병은 부근마을에서 화약(火藥)을 수취하고, 장정(壯丁)을 모집하며, 올 해 결세(結稅)는 삼산(三山) 대장소(大將所)로 납부하도록 전령하였다 한다.

【전거】 『대한매일신보』 및 『한성신문』 1907년 11월 13일, 이종익, 『양평독립운동사자료집』 ,양평문화원,2003, 489쪽.

隆熙 元年(一九〇七·明治 四〇) 十一月, 江原道

暴徒 橫行件 報告

原州分遣所補佐官補 狩野近造 警視總監 丸山重俊 앞

暴徒 橫行件 報告

(앞부분생략)

二. 暴徒의 巨魁 李猋榮 安學官의 引率하는 暴徒 千餘名은 目下 砥平郡 上東面 蟾實洞 三山里 舟川里 山梅實洞(自 原州邑 七里 乃至 八里)의 各 洞에 屯集 同郡 首書記를 逮捕 各 洞民에게 命令 軍用金이라 稱하고 各戶로부터 金錢을 徵收하고 있다.

또 彼 等은 日本軍의 襲擊을 두려워하여 二里 或은 三里許의)各處에 步哨를 配置 警戒하고 있는 模樣이다.

(중간부분 생략)

四. 京城으로부터 派遣한 赤倉 大尉의 討伐 中隊는 本月 四日 當 原州邑에 와서 暴徒 討伐에 對하여 策戰 計劃中이다.

右 報告 함.

【전거】 『한국독립운동사 자료』 8권, 「의병편 I 」,국사편찬위원회,1979, (四) 十一月,江原道 (13번째 기사)

隆熙 元年(一九〇七・明治 四〇) 十一月, 江原道

暴徒 討伐 目的의 出張의 件 報告

原州分遣所補佐官補 狩野近造 京城警視廳

警視總監 丸山重俊 앞 暴徒 討伐 目的의 出張의 件 報告

一. 砥平郡 砥平上東面 三山 蟾實의 各 洞에 暴徒 約 二千이 屯集 米穀 金錢을 强奪 暴行하고 있다는 報告를 接하고 京城으로부터 派遣된 赤倉 大尉가 引率하는 一中 討伐隊가 該 暴徒 討伐을 目的으로 本月 六日 午前 二時 當 原州邑을 出發 橫城郡을 經由 暴徒들이 屯集한 砥平 上東面으로 向하였다.

二. 狀報에 依하면 砥平 上東面에 屯集한 暴徒를 包圍 攻擊할 目的으로 새로 京城으로부터 坂部 少佐가 引率한 一箇 中隊가 該 所를 向하여 行進하여 이미 赤倉 中隊와 聯絡을 通하고 있다고 한다.

三. 當 原州守備隊에 있어서는 討伐隊에 依하여 包圍`攻擊을 受하고 있는 暴徒의 遁逃要路를 扼할 目的으로써 本月 六日 午後一時 臼井 中尉에게 兵 二十名을 附하여 本職은 加藤 補助員 外 三名 및 巡檢 四名을 引率하고 同隊와 共히 原州郡 地向谷面 安昌(自原州邑 四里)에 出張 其 附近의 模樣을 偵察한 바 同所로부터 一里 京城을 通하는 道路 松田洞 伊雲里 및 板舘垈洞에는 暴徒들이 三十 或은 二十 可量씩 步哨를 設하고 있으므로 臼井 中尉가 引率하는 小隊는 이를 擊退하였다. 그리고 松內洞에서 暴徒의 宿泊하였던 家屋 九戶를 燒毁하였다.

四. 十一月 七日 午前 三時 原州守備隊長 田邊 大尉로부터 臼井 中尉에게 橫城郡 古毛谷面 石花村 附近을 警戒한 後 橫城邑으로 撤收 守備하라는 命令이 있으므로써 同日 午前 八時 安昌을 出發 石花村을 經由 今日 午後 十二時 橫城邑으로 撤收하였다.

五. 十一月 七日 午前 九時로부터 十一時에 至하는 그리고 八日 午後 一時부터 三時 사이에 砥平 方面에서 山砲의 砲聲이 있었다. 생각건대 坂部隊가 暴徒를 砲擊한 것일 것이다.

六. 坂部 少佐 赤倉 大尉의 二箇 中隊에게 包圍攻擊을 受한 暴徒는 各 方面으로 潰亂遁逃하고 暴徒의 一部 約 千五百名은 原州郡 富論面 鼎山洞(自 原州邑 八里) 一部 約 三百名은 同郡 好梅谷面 高山里(自 原州邑 三里)處處에 屯集하고 있는 模樣이다. 狀報에 依하면 今回의 戰鬪에서 敵의 死傷이 約 二三百名이었다 한다.

七. 臼井 中尉가 引率하는 小隊는 一時 橫城郡 守備로 駐屯하므로 本職은 補助員 及 巡檢을 引率하고 九日 午後 四時 無事히 原州로 撤收하였다.

右 報告 함.

【전거】 『한국독립운동사 자료』 8권, 「의병편 I」,국사편찬위원회,1979, (四) 十一月,江原道 (25번째 기사)

隆熙 元年(一九〇七・明治 四〇) 十一月, 江原道

大討伐 狀況 報告

春川警務顧問支部

警部 森高時 內部警務局長 松井茂 앞

大討伐 狀況 報告

(중간부분생략)

一. 七日 橫城郡 上倉峰을 發하여 京畿道 砥平郡 古毛谷面에 達하였던 바 古毛谷은 斷岸絶壁의 山谷으로 全然暴徒가 籠居한 形跡이 없으므로 我軍 等은 繼續 砥平郡 龍頭로 進行하였던 바 同地에서 京城의 五十聯隊附 岩佐 中尉가 引率하는 一箇 小隊와 會合하여 暴徒 等의 集團하고 있는 場所를 偵察하였던 바 同郡 上東北面 石隅 및 栗

木谷 月垈里에 있다는 것을 探知하고 我軍이 石隅에 이르니 同地에 集合하였던 賊은 이미 我軍이 옴을 前知 逃去하고 또 人民도 避難하고 있었다. 그런데 栗木谷居 趙正浩가 同 地方으로부터 暴徒 四百餘名을 募集하여 討伐隊의 到着 二三日前 三山里를 向하여 逃走하고 또 石隅 栗木谷 月垈里의 人民들이 많이 暴徒에 加入하였으므로 同地方을 巢窟로 認定하여 十八餘戶를 燒却하고 三山里로 前進하려고 할 때 騎兵의 傳令에 依하면 三山里에 集合한 暴徒 五百名은 京城으로부터 向한 阪部少佐의 部隊에서 이를 擊退 潰走시켰다고 한다. 따라서 我 軍隊는 月垈里로부터 龍頭로 撤收하든 途中 新平里에서 池在龍이란 者가 暴徒 및 糧食을 徵募하여 現在 籾二百가마니를 自宅 內의 倉庫에 두고 있음을 探知하고 夜 十二時 同人 宅 및 附近의 賊의 家屋을 襲擊하고 또 同人 家屋 外 十三戶를 燒却하였다.

以上과 如히 今回의 大討伐은 京城의 阪部 少佐의 指揮 下에 春川 忠州 原州의 各 守備隊는 討伐에 參加하여 賊을 擊退 四散시켜 于先 結了 後 再昨 十三日 當隊도 歸隊하였다.

그런데 彼 暴徒 等은 洪川 橫城 砥平 등 各 郡에 集合하여 其 數 約 千五百餘名이었던 바 今回의 大討伐로 因하여 四散하였으나 偵察한 바에 依하면 彼等은 一旦 四散하였다가 또 我軍의 撤收 後는 어느 地點에 集合하여 오는 狀況으로서 마치 飯上의 靑蠅과 같을 뿐으로 再昨日 어느 情報에 依하면 楊口郡 芳山面 登每洞(一名씨름골)에 暴徒 三四百名이 集團하여 目下 同所에 火藥製造場을 設置하고 盛히 製造中이라 한다. 또 各面洞의 人民으로부터는 火藥稅라 稱하고 不法稅를 强奪하고 있으므로써 此等은 偵察結果에 依하여 不日 討伐할 目的이다.

(중간부분생략)

右 報告 함.

【전거】 『한국독립운동사 자료』 8권, 「의병편 I」,국사편찬위원회,1979, (四) 十一月,江原道 (38번째 기사)

隆熙 元年(一九〇七·明治 四〇) 〉 (四) 十一月, 江原道

春川 森警部 電報

警務局長 松井茂 春川 森警部 電報 午前[六時 發信 七時 受信]

五日 大討伐을 爲하여 當地를 出發한 當 守備隊 及 警察隊는 洪川 砥平 春川의 各郡에 集團한 暴徒를 潰走四散시키고 只今 歸隊한다. 이 戰鬪에서 敵을 殪하기 三十人 그리고 多數의 負傷者를 내게 하였으며 賊의 巢窟家屋 六十六 及 糧米貯藏所를 燒却하고 銃彈 若干을 鹵獲하였다. 我에게 死傷 없다.

右 報告 함.

【전거】 『한국독립운동사 자료』 8권, 「의병편 I 」,국사편찬위원회,1979, (四) 十一月,江原道 (30번째 기사)

참1발 호외 1

명치 40년 11월 16일 참모총장

한국 주차군사령관 보고의 요지

(이하 중간부분생략)

4. 경성에서 출발한 판부(坂部) 소좌의 토벌대는 동월 8일 고모곡(古毛谷) 부근 일대의 지점을 탐색하고,

(이하 중간부분생략)

경성 보병 제51연대 적창 대위의 토벌대는 11월 7일 횡성 출발 고모곡에 전진하는 도중 적 4명을 죽이고, 익 8일 고모곡 부근 삼산리 서남쪽 약 20리 산중에서 약 2백명의 적이 있음을 탐지하여 1소대를 파견, 이를 공격하여 궤란시켰음. 적의 시체 28구, 노획품 약간.

(이하 생략)

【전거】 『독립운동사자료집』 별집 1, 「의병항쟁재판기록」의 부록 '한국폭도봉기의 건(1)'

제2장 정미의병(후기의병)과 양동

제1절 양동에서 후기의병항쟁과 삼산리전투

(내용 전부생략)

【전거】 안상복, 『양동독립항쟁사』 ,한동문화사,2015, 164~175쪽

여 백

남양주에 잠든 사대부(士大夫)들의 사당(祠堂)을 찾아서

엄 중 오 (경기향토문화연구위원)

목 차

Ⅰ. 드러가는 말

Ⅱ. 사당(祠堂) · 재실(齋室) · 제각(祭閣)등의 용어

Ⅲ. 남양주시 읍 · 면 · 동 별 사당 현황

Ⅳ. 나가는 말

집필자

엄 중 오 남양주 문화원 향토 문화연구 소장

Ⅰ. 드러가는 말

우리 남양주시는 예로부터 역사적 풍수지형적으로
-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은 상서로운 고장이다.
한양(漢陽)·도성(都城)과 가까우면서 맑은 한강이 굽이굽이흘러 토지가 비옥하고, 산자수명(山紫水明)하여 산자락 명당에 자리 잡은 조선왕릉 광릉(光陵: 세조와 정희왕후 릉)·사릉(思陵: 단종비 정순왕후 릉)·홍릉(洪陵: 고종과 명성황후 릉)·유릉(裕陵: 순종과 순명·순정황후 릉)을 비롯해 광해군(光海君)묘 영원(英園)·순강원(順康園)·휘경원(徽慶園) 등 많은 왕족들의 능·원·묘가 자리하고 있고,
- 고려·조선나라를 통해 높은 벼슬을 한 사대부(士大夫)들의 묘역들이 수를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뿐 아니라 이에 따른 선조님들의 음덕을 기리기 위해 별도로 묘역 옆에 건립한 역사 문화적 가치가 높은 사우(祠宇)들이 여러 곳에 존재하고 있다. 이 귀중한 명문가의 재실들을 하나하나 찾아서 빠짐없이 심도있게 조사 분석하였다.

Ⅱ. 사당(祠堂)·재실(齋室)·제각(祭閣) 등의 용어들

- 본 논문 제목을 "남양주에 잠든 사대부(士大夫)들의 사당(祠堂)을 찾아서"로 하면서 이에 관련된 용어들을 알아본바 다음과 같다.
○ 불천위(不遷位) : 경국대전 예전(禮典) 봉사조(奉祀條)에 의하면
- 처음으로 공신에 봉해진 자는 제사지내는 대수가 다하였어도 신주(神主)를 옮기지 말고 별도로 하나의 감실(龕室)을 두고 제사를 지내고,
- 또한 종묘의 묘정(廟庭)에 배향된 배향인물도 불천위 대상에 해당 된다고 되어있다.
○ 재각·재궁(齋閣·齋宮) : 능이나, 종묘 등의 제사 지내는 집
○ 사당(祠堂) : 조상의 신주를 모셔 놓은 집
○ 재실(齋室) : 무덤이나 사당 옆에 제사 지내려고 지은 집
○ 재전(齋殿)·문묘(文廟)에서 유생들이 공부하던 집
○ 별묘(別廟) : 왕실에서 사친(私親)의 신주를 모시던 사당
○ 가묘(家廟) : 한집안의 사당(祠堂)

○ 사우(祠宇): 따로 세운 사당 집

○ 제각(祭閣): 무덤 근처에 제청(祭廳)으로 쓰려고 지은 집 등이다.

Ⅲ. 남양주시 읍 · 면 · 동 별 사당(祠堂) 현황

와 부 읍

1. 박원종(朴元宗) 선생 사당

○ 명　칭 : 세덕사(世德祠) 〈불천위: 不遷位〉

○ 위　치 : 남양주시 와부읍 도곡리 산 31번지

○ 구　조 : 목재한옥와가

○ 면　적 : 148.5㎡

○ 봉안인물 : 충렬공 박원종(朴元宗), 시조 박영규(朴英規), 중시조 박숙정(朴淑貞), 박천상(朴天祥), 박거소(朴去疎), 빅석명(朴錫命), 박중선(朴仲善)의 (위패)

○ 제사일시 : 매년 양력 11월 첫 일요일

○ 문화재구분 : 경기도 기념물 제 170호 (2000. 3. 24)

- 박원종(朴元宗) 묘역 -

○ 봉안되신 인물의 행적

- 박원종(朴元宗: 1467년 〈세조 13〉 ~ 1510년 〈중종 5〉 - 42세)선생은 조선조 제10대 연산군을 폐위시킨 조선최초의 반정을 이끈 으뜸 공신이다. 본관이 순천(順天)이고 자는 백윤(伯胤), 시호는 무열(武列)이다. 아버지는 아조판서를 지낸 박중선(朴重善)이고, 어머니는 행호군 허곤의 따님 허씨(許氏)이며, 박원종 선생은 월산대군과 제안대군의 처남이고 아버지에게는 세종의 이모부 소헌왕후가 이모이며, 문종과 세조가 이종사촌 간이다. 이처럼 박원종 가문은 왕실과 깊은 인연을 맺었다. 박원종의 경력은 무신으로 시작이 된다. 공신가문에서 태어난 음보(蔭補)로 호군(護軍)이 되고, 1486년(성종 17)에 선전관(宣傳官)이 되었으며 같은 해 무과에 급제도 했다. 이로 볼 때 나이 20세에 무과에 급제한 것은 대단한 행적으로 성종은 그에게 특별한

관심을 보이게 된다. 기록에 의하면 이런 관심은 1492년(성종 23)그를 요직인 승정원 동부승지에 책봉한다. 사헌부는 나이도 어린데다가 무과 출신에게 동반의 3품직에 제수할 수 없다고 반대를 한다. 그러자 성종은 공조참의로 발령을 한다. 사헌부가 다시 반대하자 그를 무릅쓰고 요직인 병조참지로 임명했다. 이어서 10대 연산군의 시대에 박원종은 외직과 중앙직을 두루거쳤다. 1495년(연산 1) 경상좌도 병마절도사 첨지중추부사 1498년(연산군 4)에 이조 · 병조참의 · 동부승지 · 좌부승지와 1500년(연산 6) 평안도 병마절도사 · 동지중추부사 · 한성부우윤 1502년(연산 8) 평성군(平城君) · 강원도 관찰사 · 동지의금부사 등의 여러 관직을 지냈다. 이로보아 연산군도 박원종을 상당히 신뢰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연산군은 재위 10년 무렵부터 경기도 일대에 금표(禁標)를 세워 사냥터를 만들었다. 이때에 이를 부당히 여긴 박원종이 이를 간언 한바 있고, 특히 1506년(연산 12) 경기도 관찰사로 나가게 되면서 금표문제로 연산군의 미움을 받아 파직이 된다. 이러한 연산군의 만연한 폭정으로 팽배한 신하들의 불만을 규합한 박원종은 1506년 9월 2일 종중반정을 주도해 성공시킴으로써 조선왕조의 물줄기를 바꾸었다. 다시 박원종은 1506년(중종원년) 9월에 좌참찬 · 정국1등공신 · 우의정 · 좌의정 · 평성부원군이 되고, 1509년(중종 4)윤 9월에 영의정이 되었다가 호사다마라고 나할까 너무 아쉽게 그 이듬해 4월 43세에 운명하기 까지 명실상무한 조정의 1인자로 군림했다. 그는 중종의 묘정에 매향 되었으며, 무열(武烈)이라는 시호(諡號)를 추증 받았다. 조선왕조 중기를 다시연 박원종은 우리 남양주시 와부읍 도곡리에 영원히 잠들어 있다.

2. 김상용(金尙容) 선생 사당

○ 명　칭 : 김상용 선생 종가 〈불천위: 不遷位〉
○ 위　치 :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리 302번지
○ 구　조 : 철근콘크리트 와가
○ 면　적 : 152㎡
○ 봉안인물 : 문충공 김상헌 (위패)
○ 제사일시 : 불천위 제사는 매년 1월 22일에 지낸다.
○ 문화재구분 : 경기도 기념물 제 99호
(1987. 2. 12) - 김상용 선생 묘역 -

○ 봉안되신 인물의 행적

- 김상용(金尙容: 1561년 〈명종16〉 ~1637년 〈인조15〉 :76) 선생은 조선 중기의 문신으로 본관

은 안동(安東)이고, 자는 경택(景擇)이며, 호는 선원(仙源)·풍계(楓溪)·계옹(溪翁)등 이다. 아버지는 돈녕부도정(敦寧府都正)을 지낸 김극효(金克孝)이며, 어머니는 좌의정 정유길(鄭惟吉)의 딸 동래정씨이다. 좌의정을 지내고 1636년 병자호란 때 남한산성에서 최명길(崔鳴吉)에 반해 척화(斥和)를 강력주장 했던 김상헌(金尙憲)선생의 형님이다. 서울에서 태어났으며, 1582년(선조 15)진사가 되고, 1590년(선조 17) 증광문과에 병과로 급제한 후 승문원부정자(承文院副正字)·예문관검열이 되었다. 1592년(선조 19)임진왜란이 일어나자 강화선원촌(江華仙源村)으로 피란했다가 양호체 찰사 정철(鄭澈)의 종사관이 되어 왜군 토벌과 명(明)나라 군사 접대로 공을 세워 1598년(선조 31) 승지(承旨)에 오른다. 임진전란중 선조의 측근에서 여러 어려운 일을 보필했으며, 성절사(聖節使)로 명나라에도 다녀오기도 했다. 1601년 대사간까지 올랐으나, 북인들의 배척을 받아 정주 목사로 좌전 이후 여러 곳의 지방관을 전전하다가 1608년(선조 40) 잠시 한성우윤, 도승지를 지낸 뒤 한동안 한직에 머물다가 1617년(광해군 9) 인목왕후 폐모론이 일어나자 이에 반대해 벼슬을 버리고 원주로 거처를 옮긴다.

1623년(인조원년) 인조반정후 판돈녕부사에 기용되고, 이어 병조·예조·이조의 판서를 역임했으며, 1627년(인조 5) 정묘호란 때는 유도대장(留都大將)으로서 서울을 지켰다. 1632년(인조 10) 우의정에 발탁되었으나, 노령을 이유로 바로 사퇴한다. 그러다 1636년(인조 13) 병자호란 때 묘사(廟社)의 신주를 받들고 빈궁·원손을 수행해 먼저 강화도에 피난했다가 이듬해 1637년 강화성이 청군에 함락되자 성의 남문루(南門樓)에 있던 화약에 불을 지르고 순절하였다. 이때 김상용 선생의 13세된 손자 김수전(金壽全)도 순절하는 할아버지를 따라 죽겠다고 간청하여 함께 불에 뛰어들었다. 지금 남양주 와부읍 덕소리 할아버지 김상용 선생 묘 옆에 김수전의 묘가 있어 사후에도 함께 할 수 있게 하였다. 묘역입구에 건립된 정려각에는 선생의 충신정려와 김수전의 효자정려가 함께 있다. 김상용 선생은 어려서 외할아버지인 정유길에게서 글을 배우고 성혼(成渾)과 이이(李珥)의 문인으로 황신·이정구·오윤겸·신흠 등과 친밀했으며, 정치적으로 서인에 속하면서 노서(老西)의 영수가 되었다.

3. 김상헌(金尙憲) 선생 사당

○ 명　칭 : 김상헌 선생종가 〈불천위: 不遷位〉
○ 위　치 :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리 312-3
○ 구　조 : 철근콘크리트와가
○ 면　적 : 148.5㎡

○ 봉안인물 : 문정공 김상헌 (위패)

○ 제사일시 : 불천위 제일은 매년 음력 6월 24일에 지낸다.

○ 문화재구분 : 경기도 기념물 제 100호 (1987. 2. 12)

- 김상헌 선생 묘역 -

○ 봉안되신 인물의 행적

- 김상헌(金尙憲: 1570년〈선조3〉~ 1652년〈효종3〉: 83세) 선생은 조선중기 문신으로 본관은 안동(安東)이며, 자는 숙도(叔度)호는 청음(淸陰)·석실산인(石室山人)·서간노인(西磵老人) 등이다. 이중 석실산인은 양주 석실에 물러나 있으면서·서간노인은 만년에 경상도 안동에 은거하면서 사용했다. 아버지는 돈녕부도정을 지낸 김극효(金克孝)이며, 어머니는 좌의정 정유길(鄭惟吉)의 딸 동래정씨이다. 또한 우의정을 역임하고 병자호란 때 강화도를 지키다 순절한 김상용(金尙容)선생의 동생이다. 서울에서 태어난 김상헌 선생은 1585년(선조 8) 윤근수(尹根壽)의 문하에서 경사(經史)를 수업하고, 성혼(成渾)의 도학에 연원을 두었다. 이정구(李廷龜)·김유(金楺)·신익성(申翊聖)·이경여(李敬輿)·이경석(李景奭)·김집 등과 교유하였다.

1590년(선조23)진사가 되고 1596년 전쟁 중에 실시한 정시 문과에 병과로 급제, 권지승문원부정자(權知承文院副正字)에 임명되었다. 이후 부수찬(副修撰)·좌랑·부교리(副校理)를 거쳐 1601년 제주도에서 발생한 길운절(吉雲節)의 역옥(逆獄)을 다스리기 위한 안무어사(安撫御史)로 파견되었다. 이듬해 왕에게 결과를 보고하고, 고산찰방(高山察訪)과 경성도호부판관(鏡城都護府判官)을 지냈다. 1608년(광해군 즉위년) 문과 중시에 을과로 급제, 사가독서(賜暇讀書)한 뒤 교리·응교(應敎)·직제학을 거쳐, 1611년(광해군 4)동부승지가 되었다.

그러나 이언적(李彦迪)과 이황(李滉) 배척에 앞장선 정인홍(鄭仁弘)을 탄핵했다가 광주부사(廣州府使)로 좌천되고, 1613년 칠서지옥(七庶之獄)이 발생, 인목대비의 아버지인 김제남(金悌男)이 죽음을 당할 때 혼인관계로 인해 파직되자 안동풍산으로 이사하였다. 즉 김상헌 선생의 아들 김광찬(金光燦)이 김제남의 아들 김래의이 사위였기 때문이다.

1623년 인조반정 이후 이조참의에 발탁되자 공신 세력의 보합위주정치(保合爲主政治)에 반대, 시비(是非)와 선악의 엄격한 구별을 주장해 서인 청서파(淸西派)의 영수가 되었다.이어 대사간·이조참의·도승지·부제학을 거쳐, 1626년(인조 4) 성절겸사은진주사(聖節兼謝恩陳奏使)로 명나라에 다녀왔으며, 이후 육조의 판서 및 예문관·성균관의 제학 등을 지냈다.

1632년 인조왕의 생부를 원종(元宗)으로 추존하려는 데 반대해 벼슬에서 물러났다. 1635년(인조 13) 대사헌으로 재기용되자 군비의 확보와 북방 군사 시설의 확충을 주장하였다. 이듬해 병자호란이 일어나자 예조판서로 주화론(主和論)을 배척하고 끝까지 주전론(主戰論)을 폈다. 특

히 최명길이 청 태종에게 보내는 항복문서를 작성하였는데, 이때 김상헌 선생이 국서를 보다가 찢어버리며 통곡했다는 일화는 잘 알려져 있다. 그러나 끝내 인조가 항복하자 김상헌 선생은 안동으로 은퇴하였다.

1639년 청나라가 명나라를 공격하기 위해 요구한 출병에 반대하는 소를 올렸다가 청나라에 압송되었다. 이때 지은 "가노라 삼각산아 다시 보자 한강수야. 고국산천을 떠나고야 하랴마는 시절이 하 수상하니 올동말동하여라"는 절개를 대표하는 시조로 유명하다. 6년 후 풀려 귀국하였다. 1645년(인조 23) 특별히 좌의정에 제수되고, 기로사에 들어갔다.효종이 즉위해 북벌을 추진할 때 그 이념적 상징으로 '대로(大老)'라고 존경을 받았으며, 1653년(효종 4) 영의정에 추증되었으며, 1661년(현종 2) 효종 묘정에 배향되었다. 시호는 문정(文正)이다. 시문집 청음전집 40권이 전한다.

4. 이맹현(李盟賢) 선생 사당

○ 명　칭 : 대산재 (臺山齋)
○ 위　치 : 남양주시 와부읍 도곡리 산 40
○ 구　조 : 목조한옥와가
○ 면　적 : 44.01㎡
○ 봉안인물 : 이맹현(위패)
○ 제사일시 : 매년 음력 10월 10일 10:00
○ 문화재구분 : 경기도 기념물 제 114호
(1987. 2. 12) - 이맹현 선생 묘역-

○ 봉안되신 인물의 행적

- 이맹현(李孟賢: 1436년〈세종 18〉~ 1487년〈성종 18〉: 51세) 선생은 조선초기의 문신으로 본관은 재령(載寧), 자는 사성(師聖), 호는 근재(覲齋)이다. 호조참판 이개지(李介知)의 아들이며, 어머니는 진주 하씨(河氏)로 경리(敬履)의 따님이다. 벼슬은 홍문관부제학(弘文館副提學), 이조참판(吏曺參判), 나주목사 황해도 관찰사 등을 역임하고, 뒤에 청백리(淸白吏)에 녹선되었다. 묘역은 이맹현 선생과 부인 파평윤씨(坡坪尹氏)와 쌍분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묘표석에 유명조선국 통정대부 수황해도 관찰사 이맹 현지 묘(有明朝鮮國 通政大夫 守黃海道 觀察使 李孟 賢之 墓)라 쓰여져 있다. 비는 홍치원년 2월 경신, 즉 1488년(성종 19)에 세워진 것으로 허연(許堧)이 찬하고, 후손 이현덕(李玄德)이 썼다.

5. 이래(李래) 선생 사당

○ 명　칭 : 도심사(陶深祠)
○ 위　치 : 남양주시 와부읍 도곡리 산 40번지
○ 구　조 : 목조한옥와가
○ 면　적 : 100.5㎡
○ 봉안인물 : 이래 (위패)
○ 제사일시 : 매년 음력 10월 11일 10:00
○ 봉안되신 인물의 행적

- 이래(李래 : 1469년 〈예종원년〉 ~ 몰년미상) 선생은 본관이 재령(載寧)이며, 아버지는 청백리이며 홍문관 부제학 · 이조참판을 지낸 이맹현(李盟賢)이다. 벼슬은 음사(蔭仕)로 현감에 까지 이르고, 마지막임지가 충청도 은진(忠淸道恩津)인고로 후손들은 지금도 은진현감이라 칭한다.

6. 김홍복(金洪福) 선생 사당

○ 명　칭 : 영모사(永慕祠)
○ 위　치 : 남양주시 와부읍 율석리 산 105번지
○ 구　조 : 목조한옥와가
○ 면　적 : 132㎡
○ 봉안인물 : 김홍복 (위패)
○ 제사일시 : 매년 음력 10월 8일 10:00
○ 봉안되신 인물의 행적

- 김홍복(金洪福 : 1649년 〈인조 37〉 ~ 1698년 〈숙종 24〉 : 50세) 선생은 이름은 홍복 · 호는 동원(東園) · 자는 자회(子懷) · 본은 김해(金海)이다. 아버지는 사간원 헌납(司諫院獻納)을 지내고, 이조판서를 추증받은 김덕승(金德承)이며, 어머니는 파평윤씨이다.

1682년(숙종 8) 정시(庭試) 문과에 합격 승문원(承文院), 한림원(翰林院)에서 실록 편찬에 참여하고, 1686년(숙종 12)에 중시(重試)에 합격 예조 낭관, 병조낭관, 정언(正言) · 지평(持平) · 직강(直講)을 역임하고 서장관(書狀官)이 되어 연경에 다녀오고, 1689년(숙종 15) 정주목사(定州牧使)가 되었으며 이어서 동래부사(東萊府使)를 지내고 1694년(숙종 20) 폐비민씨(閔氏: 인현왕후)를 복위시키고 승지(承旨)로 임명되고, 황해도 감사 예조참의 · 여주 목사를 거쳐 대사간(大司諫)을 지냈다.

진접읍

7. 류순(柳珣) 선생 사당

○ 명　칭 : 숭모재(崇慕齋) 〈불천위 : 不遷位〉
○ 위　치 : 남양주시 진접읍 팔야 4리 668-2번지
○ 구　조 : 목조한옥와가
○ 면　적 : 82.8㎡
○ 봉안인물 : 유순선생 (위패, 영정)
○ 제사일시 : 매년 음력 10월 5일 10:00
○ 봉안되신 인물의 행적

- 류순(柳洵: 1441년 〈세종 23〉 ~ 1517년 〈중종 12〉 : 77세) 선생은 조선전기 문신으로 본관은 문화(文化)이고, 자는 희명(希明)이며, 호는 노포당(老圃堂), 시호는 문희(文喜)이다. 아버지는 세자좌세마(世子左洗馬)를 지낸 류사공(柳思恭)이다. 선생은 어려서부터 기품과 기량이 뛰어나 독서를 즐기며 스스로 다스릴 줄 알았고, 15세에 한시를 지어 읊었는데 그 말과 뜻이 다 노련하고 건장하므로 당대의 문장가들이 예견하기를 장차 큰 인물이 되리라 기대하였다.

1459년(세조 5)에 성균관 사마시에 장원하여 생원이 되고 1462년 발영시에 합격하여 벼슬길로 나아갔다. 1465년에는 『경국대전(經國大典)』 편찬 작업에도 참가하였다. 1466년(세조 9) 문과 중시에 합격하고 성균관주부, 응교, 전한, 우부승지 등을 거쳐 홍문관부제학이 되었다. 1482년 왕명으로 서거정 · 노사신 · 어세겸 등과 함께 중국 원나라 때의 작시법(作詩法)인 『연주시격(聯珠詩格)』을 한글로 번역하였다. 1487년 천추사(千秋使)로 명나라에 다녀온 뒤 이어 사헌부대사헌, 예조참판 · 형조참판 · 병조참판, 동지중추부사 겸 동지경연, 성균관 의금부사, 도총부부총관, 개성부유수, 성균관 대사성을 역임하여 이르는 곳마다 명성과 치적이 있었다. 성종이 세상을 떠나자 산릉도감제조로서 왕릉 조성하는 일을 맡았고, 연산군이 즉위한 뒤 형조판서로 지춘추관사와 동지경연사를 겸했다. 연산군의 폭정이 날로 심하여지자 관직을 사직하려 하였으나 승낙을 받지 못하고 이조판서, 도총관, 한성부판윤 등을 두루 지냈다. 1499년(연산군 5)에 형조판서가 되었는데, 그 뒤 좌참찬, 호조판서를 역임하고, 우의정, 좌의정을 거쳐 1505년에 영의정이 되었다. 1506년 중종반정에 직접 가담하지는 않았으나 사태가 수습된 뒤에 중종의 신임과 배려로 정국공신(靖國功臣) 2등으로 문성부원군(文城府院君)에 봉해졌다. 이후 대간들이 선생이 연산군 때의 충신이었다 하여 탄핵하자 한 때 관직에서 물러나가도 했으나 대신들

의 간청으로 1514년(중종 8) 다시 영의정이 되어 국정을 총관하여 이끌었고 1516년 신병을 이유로 물러났다.

1517년 5월 30일 병환이 위중하여 유명을 달리하였으니 향년 77세였다. 임금이 크게 슬퍼하고 공경대부로부터 서민에 이르기까지 애통해하였다. 시호는 문희(文僖)이며, 양주 동촌 무둔산 팔야리에 예장하였다. 시부(詩賦)에 뛰어나고, 자학(字學), 의방(醫方), 지리학에도 밝았다.

8. 한상경(韓尙敬) 선생 사당

○ 명　칭 : 신재묘(信齋廟) 〈불천위 : 不遷位〉
○ 위　치 : 남양주시 진접읍 금곡리 785-2번지
○ 구　조 : 목조한옥와가
○ 면　적 : 66.0㎡
○ 봉안인물 : 한상경 (위패, 영정)
○ 제사일시 : 기일인 음력 4월 17일, 시향제는 음력 10월 3일 11:00
○ 문화재구분 : 경기도 유형 문화재 제 166호 (1998. 3. 20)
- 한상경 영정 -
○ 봉안되신 인물의 행적

- 한상경(韓尙敬: 1360년 〈공민왕 9〉 ~ 1423년 〈세종 5〉 : 64세) 선생은 고려 말 조선 초의 문신으로 본관은 청주이고, 자는 숙경(叔敬) · 경중(敬仲)이며, 호는 신재(信齋)이다. 호부상서를 지낸 한공의(韓公義)의 손자이며, 아버지 판후덕부사(判厚德府事) 한수(韓脩)와 어머니 안동 권씨 사이의 4형제 중 셋째이다. 시호는 문간(文簡)이다.

1382년(우왕 8) 문과에 급제한 뒤 예의 좌랑이 되었으며, 이어 우정언, 응교, 종부령 등을 역임하고 1392년(공양왕 4)에 밀직사우부대언이 되었다. 이 해에 이성계를 도와 조선 건국에 공헌하여 개국공신 3등에 책록되고 도승지에 올랐다.

1396년(태조 5)에 첨서중추원사 · 도평의사사 · 충청도관찰사를 역임하고 서원군(西原君)에 봉해졌다. 1399년(정종 1)에 경기좌도도관찰사에 이어 이듬해 태종이 즉위하자 참지의정부사가 되고, 뒤에 풍해도(豊海道)와 강원도의 도관찰사, 공조판서, 지의정부사, 대사헌을 역임하고 1412년(태종 12)에 호조판서가 되었다. 그 후 참찬의정부사(參贊議政府事), 이조판서를 지냈으며, 1415년(태종 15)에서 서원부원군(西原府院君)에 봉해져 우의정이 되고, 이듬해 영의정에 이르렀다.

1423년(세종 5) 음력 3월 7일 64세로 세상을 떠나니 임금은 미두(米豆) 70석과 한지(韓紙) 150권을 내려 예장을 명하였다. 초장지(初葬地)는 광릉이었으나 후일 세조의 국장지로 택정되어 지금의 위치로 옮겼다고 한다. 현재 묘는 남양주시 진접읍 금곡리에 있으며, 사당에는 영정이 봉안되어 있다. 시호는 문간(文簡)이다.

9. 류자해(柳子諧) 선생의 사당

○ 명　칭 : 숭인사(崇仁祠)
○ 위　치 : 남양주시 진접읍 금곡리 413번지
○ 구　조 : 목조한옥와가
○ 면　적 : 132㎡
○ 봉안인물 : 류자해 (위패, 영정)
○ 제사일시 : 매년 음력 10월 2일 11:00
○ 봉안되신 인물의 행적

- 유자해(柳子諧)선생은 본관이 진주(晉州)이고, 영의정 류순정(柳順汀)의 조부가 되며, 세종대왕의 넷째 동서지간이며, 동부지돈녕부사(同副知敦寧府事)를 지냈으며, 세조 때 원종공신(原從功臣) 2등에 녹훈 되었다. 유자해 장인이되는 영의정 심온(沈溫)은 명가문가로 세종대왕의 장인이며, 차자 심회(沈澮)가 영의정을 둘째 사위는 교하 노물재(盧物載)로 영의정 노사신(思愼)의 아버지이며, 여섯째 사위 지돈령부사 춘천 박거소(巨疎)는 영의정 박원종(元宗)의 조부이기도 하다. 남양주시 진접읍 금곡리 주릿골을 본래 주곡(酒谷)이라고 불렀으며, 진주류씨 집성촌으로 현재도 20여 가구가 살고 있다. 진주류씨가 지금의 금곡에 터를 잡은 것은 사패지를 하사 받은 것과 광릉(光陵)일대가 세조(世祖)의 능침으로 채택되어 인근에 있던 가족의 묘역을 이장했을 때부터이다. 진주류씨 6세손 되시는 유자해 선생의 사패지(賜牌地)를 아들 류균(柳均)이 하사 받았으며, 1468년 9월 세조의 능침택지로 인해 8대 예종(睿宗)이 부모와 처자의 무덤을 옮기는 류균에게 관곽(棺槨), 역 군인을 내려 주었다는 기록이 있다. 류자해 선생의 묘역은 진주류씨 족보의 기록에 의하면 양주군(楊州郡), 봉접면(棒接面), 금곡리(金谷里), 주곡산(酒谷山), 사패지(賜牌地) 내에 위치한다고 전해진다. 류자해 선생 묘소 앞에 숭록대부 의정부 좌찬성 겸 판의금부사 진천군 진주류공 자해지묘, 배정경부인 청송 심씨부(崇祿大夫 議政府左贊成 兼 判議禁府事 晉川君 晉州柳公 子諧之墓, 配貞敬夫人 靑松 沁氏祔)라는 비가 세워져 있다.

10. 연안이씨(延安李氏) 력헌공파(櫟軒公派) 사당

○ 명　칭 : 청덕사(淸德祠)
○ 위　치 : 남양주시 진접읍 내곡2리 610-6번지
○ 구　조 : 석조2층와가
○ 면　적 : 264.0㎡
○ 봉안인물 : 이익신 (李翼臣)외 12인 (위패)
○ 봉안되신 인물의 행적

- 남양주시 진접읍 내곡리 원내곡 마을은 왕숙천 하류지역으로 경관이 뛰어나고 토지가 비옥하여 농경사회 때는 남양주에서 제일의 곡창지대이기도 한 곳 이다. 남양주 어느 곳이고 명문가인 연안이씨(延安李氏)가 고루 살고 있지만 진접읍 관내 내곡리에는 오래전부 연안이씨들이 많은 역사인사 인물을 배출하며 살고 있다.
- 1730년경(영조때) 이곳에 터를 잡은 분이 연안이씨 력헌공파(櫟軒公派) 동지공(同智公) 이익신(李翼臣) 선생이다. 이때에 이익신 선생이 큰 한옥을 짓고 살았는데 이 가옥이 국가 중요 민속자료 제12호(1984. 1. 10)로 지정되어 현재까지 잘 관리 되고 있다.
- 력헌공파조 이경장(李敬長: 1482년〈성종 13〉~ 1561년〈명종 16〉: 79세) 선생은 본관은 연안(延安) 자는 흠중(欽仲) 호는 역헌(櫟軒) 아버지는 성균관 사예 이혼(李渾)이고 어머니는 조씨이다. 부인은 순흥안씨이다. 1519년(중종 14) 생원 · 진사에 합격하였으며, 1534년(중종 29) 식년시 병과에 급제 1536년(중종 31) 내자시첨정 · 성균관전적에 제수 · 예조 · 형조 · 호조좌랑에 임명되고 어사로서 서정관 첨지 중추부사(僉知 中樞府事)로 오위장(五衛將)을 겸하였다.
- 근년에 석조 2층 건물 재실인 청덕사(淸德祠) 2층에는 력헌공 이경장(李敬長) · 사정공 이잠(李岑) · 사과공 이연규(李延虯) · 사복사정공 이준한(李俊漢) · 동지공 이익신(李翼臣) 등 13위의 위패가 모셔져 있다.

11. 원주원씨(原州元氏) 사당

- 원주원씨 원성백계 심사 좌윤공제 삼파 부평리종중-

○ 명　칭 : 숭조각(崇祖閣)
○ 위　치 : 남양주시 진접읍 부평8리 산 60번지
○ 구　조 : 씨멘트 철골조벽돌한와가
○ 면　적 : 165㎡

○ 봉안인물 : 원건지, 원중선 (위패)

○ 제사일시 : 매년 음력 10월 첫째 주 일요일 오전 11:00

○ 봉안되신 인물의 행적

- 진접읍 부평8리 평촌마을은 원주원씨 집성촌으로 지금도 40여 가구 정도가 살고 있다. 원주원씨 원성백계 삼사좌 윤공파(原城伯係三司左尹公派)의 중시조 원선(元宣)이하 후손들이 현 의정부시 밀락공에서 세계를 이어 오다가 22세(世) 원건지(元建之)가 조선국선조(宣祖)초에 현재의 마을에 이주해 현재 37세손까지 살고있다. 입향조인 22세손 원건지 묘표에는 원주원공건지(原州元公建之) 유인 김해김씨지묘(孺人金海金氏之墓)라 적혀 있고,

- 23세손 원중선(元重宣)은 조선시대 정3품의 무관품계인 어모장군(禦侮將軍)행 훈련원 주부를 지냈다.

12. 권우(權遇) 선생 사당

○ 명　칭 : 봉현재(蜂峴齋)

○ 위　치 : 남양주시 진접읍 장현리 산 61-1

○ 구　조 : 목조한옥기와

○ 면　적 : 142㎡

○ 봉안인물 : 권우

○ 제사일시 : 매년 음력 3월 10일

○ 봉안되신 인물의 행적

- 권우(權遇 : 1363년〈공민왕 12〉~ 1419년〈세종 1〉: 57세) 선생은 고려말 조선초의 문인이며 학자이다. 본관은 안동(安東) 자는 중려(仲慮)·여보(慮甫), 호는 매헌(梅軒). 아버지는 검교정승(檢校政丞) 희(僖), 어머니는 한양한씨(漢陽韓氏)로 정승 종유(宗愈)의 딸이다. 어려서는 형인 근(近)에게서 학문을 배우다가, 자라서는 정몽주(鄭夢周)의 문하에 들어가 수학하였다. 1377년(우왕 3) 진사가 되고, 1385년 문과에 을과로 급제해 문첩녹사(文牒錄事)가 되고, 이어 성균박사·밀직당(密直堂)·장흥고사(長興庫使)·군기주부(軍器主簿) 등을 역임하였다.

1390년(창왕 2) 액정알자감(掖庭謁者監)을 거쳐 예조좌랑이 되고, 이듬해 이조좌랑을 거쳐 군자감승(軍資監丞)을 역임하였다. 조선이 건국된 뒤에도 계속 등용되어, 1394년(태조 3) 광주판관(廣州判官)에 임명되고, 이듬해 중부유학교수관(中部幼學敎授官)이 되었다.

1400년(정종 2)에는 사헌부사헌에 오르고 성균직강(成均直講)·예조정랑·사간원좌헌납(司諫

院左獻納) · 집현전지제교(集賢殿知製敎) · 예문응교(藝文應敎) 등을 거쳐 사헌부장령에 올랐고, 그 뒤 성균사예(成均司藝) · 사헌부집의 · 사간원우사간 겸 춘추편수관 등을 거쳐 성균대사성에 올랐다. 1412년(태종 12) 예조우참의와 세자우보덕(世子右輔德)이 되었다가 곧 예조(좌)참의와 세자좌보덕이 되고, 형조참의를 거쳐 집현전직제학이 되었다. 1415년 원주목사를 거쳐 예문관제학이 되었으며, 1418년 충녕대군(忠寧大君)이 세자로 책봉되자 세자빈객이 되었다. 관직에 재임하는 동안 두 번이나 시관(試官)이 되어 정인지(鄭麟趾) 등 명사 1백여 인을 선발하였다. 그는 글씨를 잘 썼으며 또한 시문에 능했으며 성리학과 『주역』에 밝았다. 당시 그의 학풍이 떨쳐져 정인지 · 안지(安止) 등 많은 학자를 배출하였다. 저서로는 『매헌선생집』 6권이 있다.

13. 동래정씨(東萊鄭氏) 사당

○ 명　칭 : 문경공제각(文景公祭閣)
○ 위　치 : 남양주시 진접읍 장현리 산 99번지
○ 구　조 : 목조한옥와가
○ 면　적 : 49.5㎡
○ 봉안인물 : 정흠지(鄭欽之), 정갑손(鄭甲孫), 정부(鄭符), 정희손(鄭喜孫)의 (위패)
○ 제사일시 : 매년 음력 10월 초 3일 12:00
○ 봉안되신 인물의 행적

- 장현리 봉현에 위치한 동래정씨 묘역은 제7대 세조(世祖)의 광릉(光陵)과 인연이 있다. 세조가 승하하고 묘자리를 찾던 예종(睿宗)은 나중에 영의정을 지낸 정창손(鄭昌孫)의 부친 정흠지(鄭欽之)의 묘가 쓰여진 자리가 능침에 가장 좋다는 보고를 받는다. 그리고 그 자리를 능지로 정한다. 정흠지의 옛 지명은 본래 양주(楊州), 풍양(豊壤), 직동(直洞), 후록(後麓)이었다. 이일로 인하여 1468년(예종원년) 10월 정창손은 동래정씨의 기존 묘 할아버지 한성부윤 정부(鄭符) · 아버지 중추원사(中樞院使) · 정흠지(鄭欽之) · 형님인 좌참찬 정갑손(鄭甲孫) · 동생인 희손(喜孫) 등 다섯분의 묘를 지금의 자리로 옮기여 지금에 이르고 있다. 그때 예종은 정창손에게 관곽(棺槨) · 유둔(油芚) 종이100권, 쌀콩 아울러 1백석을 내려 주었다. -예종 즉위년(1468. 10.4)-

14. 파평윤씨 학림공파(坡平尹氏鶴林公派) 팔야종중 사당

○ 명　칭 : 학림재(鶴林齋)
○ 위　치 : 남양주시 진접읍 팔야리 357-3번지
○ 구　조 : 콘크리트철골조와가
○ 면　적 : 198㎡
○ 봉안인물 : 윤성백(尹聖伯)외 8위(位)
○ 제사일시 : 매년 음력 10월 10일 10:00
○ 봉안되신 인물의 행적

- 남양주시 진접읍 팔야리에 입향하여 터를 잡은 파평윤씨 제26대손 윤성백은 이름이 성백(聖伯)이고, 호는 학림(鶴林), 벼슬은 통덕랑(通德郎)이다. 1667년(현종 8)교하에서 태어났으며, 아버지는 윤건(尹鍵)이다. 입향조 윤성백의 호를 딴 학림재(鶴林齋)에는 윤성백 위패를 모시고, 27대 윤취신(尹就新) · 윤취선(尹就善) · 윤취길(尹就吉)과 그 이하계대 아홉위의 의패를 봉안하고 있다. 파평윤씨 학림공파 입향처인 진접읍 팔야리에는 지금도 300여 년간 집성촌으로 30여 가구가 살아오고 있다.

15. 임구풍씨(臨朐馮氏) 사당

○ 명　칭 : 충의사(忠義祠)
○ 위　치 : 남양주시 진접읍 팔야리 295-4번지
○ 구　조 : 목조한옥와가
○ 면　적 : 39.6㎡
○ 봉안인물 : 풍삼사 (위패, 영정)
○ 제사일시 : 매년 약력 10월 넷 째주 일요일 11:00
○ 봉안되신 인물의 행적

- 풍삼사(馮三仕 : 1607년〈선조 40〉 ~ 1672〈현종13〉 : 66세)선생은 조선 중기의 유신(遺臣), 본관은 중국산동성 임구현(臨朐縣) · 자는 유영(惟榮)이고, 부친은 명나라 병부시랑(兵部侍郎) 도찰원부도어사(都察院副都御史) 풍수(馮秀)이다. 중국 산동성(山東省) 임구현(臨朐縣)에서 태어났다. 어려서부터 천성이 공손하고 검소했으며 모든 일에 의리가 있었다. 그러나 중국에 있을 때 조정의 기강이 문란해지고 탐관오리가 횡행한 것을 보고 벼슬길에 나아가지 않았다. 그 대신에 풍삼사는 고향에서 학문에 진력

하였는데 그의 나이 30세가 되던 해인 1636년에 산동성 일대에 큰 흉년이 들자 전답 등의 가산을 정리하면서까지 양곡을 마련하여 빈민구제에 적극적이었다. 이로 말미암아 그 일대의 지방민들이 크게 감탄하여 명망이 자자하고 그의 나이 32세가 되던 1638년에는 청의 병사들이 산동성에 침입하였는데, 의병을 소집하여 덕주(德州)를 굳게 지키고 항전하니 적들이 더 이상 진격하지 못하였다. 이듬해에는 청병이 무성(武城)을 포위했다는 소식을 듣고 의병을 이끌고 구원하러 갔으나 이미 지현(知縣) 이승방(李承芳)이 전사하고 군사들이 흩어져 달아나고 있었다. 이 때 그는 의병들에게 황급히 돌진하라는 명을 내리고 선두에 서서 진격해 들어가니 청병들이 성을 버리고 달아났다. 청병을 물리친 후 성의 주위에 호를파고 제방을 구축하여 남천(南川)의 물을 대어 해자를 완성하는 등 방어를 철저히 하였다 한다. 그 후 의병을 이끌고 출병하였으나, 수십 배나 많은 청병에 밀려 결국은 적에게 생포되었다. 그 후 그는 심양관에 억류당해 있다가 1645년(인조 23)에 봉림대군(鳳林大君) 일행을 따라 조선으로 망명하였다. 봉림대군을 따라 조선으로 들어온 그는 조양루 남쪽에 살았는데, 봉림대군이 효종으로 즉위한 뒤에 부름을 받아 북벌계획에 자문을 하는 등 크게 활약하였다. 그러나 1659년에 효종이 승하하자 그는 두문불출하고 항상 수심으로 살았다. 1672년(현종 13) 66세로 세상을 떴다.

16. 풍천임씨(豊川任氏) 사당

○ 명　칭 : 모선재(慕先齋)
○ 위　치 : 남양주시 진접읍 팔야3리 747번지
○ 구　조 : 씨멘트철근와가
○ 면　적 : 132㎡
○ 봉안인물 : 임중선 (신위)
○ 제사일시 : 매년 음력 10월 10일
○ 봉안되신 인물의 행적

- 풍천임씨 재실 모선재(慕先齋)는 진접읍 팔야3리 원팔야 마을에 크게 건립되어 있으며, 묘역은 재실과 근거리에 위치해 있다. 본관 풍천(豊川)은 현재 황해도 지역이며 9세 이상 선조 묘가 황해도 및 개성 지역에 있어 조상의 묘제를 못 모셔 안타까워하여 조상 임중선(任中善)묘가 있는 현 남양주 진접읍 팔야리에 선조제단비(先祖祭壇碑)를 세웠다고 한다. 종중에 의하면 임중선 묘역은 광릉(光陵)지내에 위치했었는데, 세조(世祖) 승하 후 왕릉 택지가 되면서 현재 산을 하사 받고 이장하였다고 한다. 임중선(任中善)은 조선초기 문신으로 본관은 풍산이며, 아버지

는 한성부윤을 지낸 임산보(任山寶)이다. 이조판서 벼슬에 있을 때 청렴하여 세종대에 영상들의 칭송을 받았다한다.

화도읍

17. 능원대군(陵院大君) 이보(李補) 사당

○ 명　칭 : 담은재(湛恩齋)
○ 위　치 : 남양주시 화도읍 녹촌리 64번길-4
○ 구　조 : 목재한옥와가
○ 면　적 : 165.0㎡
○ 봉안인물 : 능원대군 (위패)
○ 제사일시 : 매년 음력 9월 27일
○ 문화재구분 : 경기도 문화재 자료 제115호
(2002. 9. 16) - 능원대원군 묘역 신도비 -

○ 봉안되신 인물의 행적

- 능원대군 이보(1598년 〈선조 31〉 ~ 1656년 〈효종 7〉 : 59세)는 16대 인조(仁祖)의 동생으로 조선의 제 14대 왕인 선조(宣祖)의 아들인 정원군과 인헌왕후 구씨의 둘째아들이다.

1623년 3월 인조반정으로 왕이된 형을 통해 대군(大君)에 봉해졌으며, 아버지인 정원군도 1627년(인조 5) 왕으로 추존되었다. 11세 때 백부인 의안군(義安君)에 입양되어 능양군이 되었다. 호는 담은당(湛恩堂), 경숙(敬叔)이고 시호는 정효(貞孝)이며 문화유씨 유호림(柳호림)의 딸과 혼인하였다. 인조가 왕위에 오른 후 형제인 인조와 능원대군과의 우애가 매우 깊었음을 알 수 있는 기록이 많이 남아있다.

1623년 어머니인 인헌왕후 구씨가 돌아가시자 어머니 사묘(私廟)를 고쳐서 흥경원(興慶園)을 만들고 구씨에게 계운궁(啓運宮)이라 존호 하였다. 이때 능원대군은 생가로 돌아와 어머니의 제사를 받들었다. 능원대군이 제사일로 쇠약해진 것을 본 인조는 눈물을 흘리며, 몸을 위태롭게 말라고 경계하며 약을 내려 주었으나 절을 하고 받아 놓고는 먹지 않았다고 한다.

1644년(인조 22)에 인조는 능원대군의 집에 손님들 접대할 곳이 없는 것을 알고 집을 크게 지어주고자 하였다. 이에 능원대군은 나라의 여러 걱정이 많은데 무릅을 들여 놓을 만한 집이 쉽고 편하다고 극구 사양하는 바람에 인조는 새집 짓기를 거두고 인경궁(仁慶宮) 바깥 행랑채를

철거하여 집을 지어 준 것이 바로 담은당이다. 능원대군은 1636년(인조 14: 38세) 병자호란이 일어나자 남한산성에서 오위도총부도총관(五衛都摠府都摠官)으로 국난 극복에 힘썼다. 군신은 부자와 같은 것이나, 마땅히 충의(忠義)를 다하여야하고, 나라와 임금을 위한 충심과 함께 청나라에 맞서 싸워야 한다는 척화론(斥和論)을 주장하였다. 청나라가 세자(소현세자 · 봉림대군)를 인질로 내 놓을 것을 요구 하였을 때 능원대원군은 세자는 나라의 근본이니 결코 허락해서는 아니된다하며 자기가 대신 가기를 청허하기 도하였다. 나아가서 청나라에 끌려간 많은 사신들의 가족을 보살폈으며, 대명(大明)의 연호를 그대로 고집하였다. 또한 척화론을 주장한 문정공 김상헌(金尙憲)을 공경히 사모하고 높이 우러러서 항상 태산북두(泰山北斗)처럼 여겼다고 한다.
능원대군 신도비는 묘역입구 마을 앞에 세워져 있는데, 넓고 커다란 귀부와 이수가 화려하고 정교하게 조각되어 있다. 비문은 좌의정 송시열(宋時烈)이 지었고, 이조판서 조상우(趙相愚)가 글씨를 썼으며, 아들 영은군 이함(李函)이 전(篆)을 하고 영의정 최석정(崔錫鼎)이 발문을 썼다.

18. 기계유씨 숙민공(杞溪兪氏肅敏公) 사당

○ 명　칭 : 양효재(養孝齋)
○ 위　치 : 남양주시 화도읍 차산리 (775-4)
○ 구　조 : 목재한옥와가
○ 면　적 : 82.8㎡
○ 봉안인물 : 유강선생,유성증선생,유황선생, 유철선생
○ 문화재구분 : 남양주시 향토 유적 제 9호 (2011. 1. 11) - 능원대원군 묘역 신도비 -
○ 봉안되신 인물의 행적 -묘역 및 신도비-

- 기계(杞溪)는 경상북도 포항시에 위치한 지명이다. 기계유씨는 조선시대에 문과급제자 98명, 상신 3명을 배출하였다고 한다.기계유씨(杞溪兪氏)의 시조는 신라 때 6두품에 오른 유삼재(兪三宰)이며, 그 후손이 신라가 멸망한 뒤 고려를 따르지 않자 고려 태조왕건은 그를 기계현의 장으로 삼고 본을 기계로 사성하였다 한다. 고려 후기 많은 뜻을 품은 사람들이 서울 경기지방으로 이주하였는데, 이때에 기계유씨도 처음 남양주에 발을 들인 것으로 보인다. 남양주시 화도읍 차산리 일대에 기계유씨가 수대로 집성촌을 이루고 살고 있는데 그곳 기계유씨 재실 양효재(養孝齋)에 모셔진 주요 역사인물의 행적은 다음과 같다.

- 유강(兪絳 : 1510년 〈중종 5〉 ~ 1570년 〈선조 3〉 : 61세) 선생은 조선전기 문신으로 자는 강지(絳之) · 이름은 강(絳) 시호는 숙민(肅敏)이다. 아버지는 예조판서 시(諡) 경안공(景安公) 여림(汝霖)이며, 1541년(중종 36) 별시문과 을과로 장원급제하고 승문원 부정자(承文院副正字)로 출사하여 자헌대부(資憲大夫) 호조판서(戶曹判書) 겸지의금부사(兼知義禁府事) 오위도총부도총관(五衛都摠府都摠管)을 역임했으며 시호는 숙민공이다. 유강선생은 함흥 문회서원(文會書院)에 배향되었다.
- 유성증(兪省曾 : 1576년 〈선조 9〉 ~ 1649년 〈인조 27〉 : 74세) 선생은 조선중기의 문신으로 본관은 기계(杞溪)자는 자수(子修) 호는 우곡(愚谷) 아버지는 대의(大儀)이다. 1610년(광해군 2)에 사마시를 거쳐 1619년(광해군 11) 별시문과에 급제 예조 · 공조 · 호조 · 형조 · 병조의 좌랑(佐郎)과 형조 · 공조 · 병조의 정랑(正郎)을 거쳤으며, 사헌부(司憲府)의 지평 · 장령 · 집의를 지냈고 사간원사간 · 홍문관의 수찬과 교리로 지냈다. 성균관과 세자시강원 뿐아니라 춘추관 편수관 · 통정대부 · 당상직 · 판결사 · 참의로 지냈다. 외직은 호서 조도사의 종사관과 해운판관을 비롯하여 영해 · 회양 · 철원 · 능주 · 강릉 등 다섯 고을의 부사(府使)를 지냈다.
- 유황(兪榥 : 1599년 〈선조 32〉 ~ 1655년 〈효종 6〉 : 57세) 선생은 조선중기의 문신으로 본관은 기계(杞溪) 자는 전숙(典叔) 호는 봉주(鳳洲) 시호는 충간(忠簡)이다. 아버지는 관찰사 유성증(兪省曾)이며, 어머니는 구씨(具氏)이다. 1624년(인조 2) 사마시에 합격 성균과에 입학했고, 1633년(인조 10) 상운찰방(祥雲察訪)으로 증광문과에 병과로급제 승문원에 배속되어 검열 · 대교 · 봉교를 거쳐 전적에 올랐다.

  1636년(인조 14) 병자호란 때 팔도에 사신을 보내 전쟁에 대비 할 것 등 반청주전론을 주장하였다. 병자호란이 끝난 뒤에는 배청파(排淸派)로 지목되어 단양에 유배되었다가 풀려나 향지에 은거 했으며, 1640년(인조 18) 다시 예조정랑에 기용되고, 그 후 교리 직에 있을 때 임금에게 시사육조(時事六條)를 올려 받아드렸다. 1648년 전라도 관찰사 공조참의 벼슬을 하였다.
- 유철(兪撤 : 1606년 〈선조 39〉 ~ 1671년 〈현종 12〉 : 65세) 선생은 강원감사 유성증의 아들이며, 목사 유명건(兪命健)의 아버지이며, 영의정 유척기(兪拓基)의 할아버지이다. 1633년(인조 11) 계유년 28세때 문과에 급제하여 1636년 설서로 재임할 때 병자호란이 일어나 인조를 호종(扈從) 남한산성에 들어가 있을 때 많은 신하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청나라에 사대의 예를 바치자고 주장한 평화론자였다. 1645년 경상도 관찰사를 역임하고 예조참판으로 있을때 청나라 사은부사(謝恩副使)로 다녀와서 경기 관찰사로 재임 중인 1659년(현종원년) 효종왕 능행 때 교량이 무너져 파직 덕산으로 유배되기도 했으며, 1660년 55세 때 현종이 즉위 하자 복관되어 대사헌(大司憲)을 역임하였다.

진건읍

19. 홍경주(洪景舟) 선생 사당

○ 명　칭 : 홍경주 선생 별묘(別廟)
〈불천위 : 不遷位〉
○ 위　치 : 남양주시 진건읍 송능리 43번지
○ 구　조 : 철근콘크리트구조와가
○ 면　적 : 160.8㎡
○ 봉안인물 : 홍경주 선생 (위패, 영정)
○ 제사일시 : 매년음력10월둘째일요일오전11:00
○ 봉안되신 인물의 행적

- 홍경주(洪景舟 : 1461년〈세조 7〉~ 1521년〈중종 16〉: 61세) 선생은 조선 중기 중종때 문신으로 자는 제옹(濟翁)이고 본관은 남양(南陽)이며, 시호는 도열(度烈)이다. 지중추부사 증찬성 당은군(唐恩君) 홍임(洪任)의 둘째 아들이고 중종의 후궁인 희빈 홍씨의 아버지이다.

1501년(연산군 7) 식년 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여 홍문관정자를 거쳐 1506년(연산군 12) 사헌부 지평에 임명되었다. 사복시첨정으로 있던 홍경주 선생은 당시 연산군이 국정을 어지럽혀 민생이 도탄에 빠지자 1506년 9월 2일 지중추부사 박원종 · 부사용 · 성희안 · 이조판사 · 윤순종과 함께 중종반정을 도모하여 병력동원의 책임을 맡아 성사시킴으로써 정국공신(靖國功臣) 1등에 채록되고, 남양군(南陽君)에 봉해졌다. 이어서 중종의 신임이 두터워 동부승지(同副承旨)에서 도승지(都承旨)에 오르고 품계는 정2품 자헌대부가 되었다. 이어 병조판서에 올라 지경연사(知經筵事)를 겸하여 경연에서 국사를 논했다. 그 뒤 판중추부사 · 호조판서 · 좌참찬 · 대사헌 · 승록대부 · 좌참찬 · 공조판사 · 좌찬성이 되어 국가원훈의 입장에서 중종의 절대적인 신임을 받고 국가의 중대사를 자문했다. 특히 북쪽의 야인과 남쪽의 왜적에 대한 대비방어 책과 흉년으로 굶주리는 백성의 구호와 어민들의 생계 등 국방과 민생안정에 진력했다.

1519년(중종 14) 10월 조광조 등 사림(士林)들이 정부 요소에 대거 등 용되어, 76명의 정국공신 삭훈을 강력 추장하자 훈구세력의 반발을 불러 일으키는 결과가 되어 대사헌 조광조는 유배사약을 받게되고, 대사성 김식은 자결하는 등 많은 선비들이 화를 당하는 기묘사화(己卯士禍)가 발생한다. 이에 홍경주 선생은 사림(士林)들의 지나친 사습(士習)의 과오를 고치기를 바랐을 뿐, 과중한 처벌을 막는 입장에서 예조판서 남곤, 영의정 정광필에게 임금님의 뜻을 알리고 의논 한

것으로 되어 있다. 홍경주 선생은 이조판서 재임 중인 1521년 6월 20일 병환으로 졸하니 나라에서는 2일간 조회와 저자를 폐하여 애도하였으며 도열(度烈)이라는 시호를 내렸다.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읍 송능리(상독정) 산 17-3번지에 묘소가 자리하고 선생의 불천위 위패와 영정은 송능리 43번지에 예로부터 지어져 수호해온 별묘에 묘서져 있다.

20. 이극균(李克均) 선생 사당

○ 명　칭 : 숭모재(崇慕齋) 〈불천위 : 不遷位〉
○ 위　치 : 남양주시 진건읍 용정리 산 56번지
○ 구　조 : 목조한옥와가
○ 면　적 : 33.5㎡
○ 봉안인물 : 이극균 선생 (위패)
○ 제사일시 : 매년 음력 9월 28일 11:00
○ 봉안되신 인물의 행적

- 이극균(李克均: 1437년 〈세종 19〉 ~ 1504년 〈연산군 10〉 : 68세) 선생은 조선전기 문신으로 본관은 광주(廣州)이고, 자는 방형(邦衡)이며 호는 오봉(五峯)이다. 우의정 이인손(李仁孫)의 아들이다. 1456년(세조 2) 19세에 문과에 급제하였으며 무예에도 뛰어나 임금의 총애를 받아 선전관이 되었다. 1459년에 성균관 주부를 역임하고, 이어 회령도사, 지평, 도체찰사의 종사관이 되었다. 1460년에 김구 · 최항 · 정인지 등과 더불어 손자병법을 알기 쉽게 풀이하고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은 『교정손자주해(校正孫子註解)』를 찬술 하였으며 변방의 일을 잘 알아서 내외직을 두루 맡아가며 국방력 강화에 힘썼다.

1467년(세조 13)에 부호군(副護軍)과 만포절제사가 되어 압록강 상류의 국경 요충지를 수비하는 한편 남만주의 통구지방에서 발호하는 건주위(建州衛)의 여진족을 정벌한 공훈으로 3등공신에 책록되었다.

1469년(예종 1)에 경상우도병마절도사가 되었으며 1472년(성종 3)에는 형조참판에 오른 후 천추사(千秋使)로 명나라 황태자 탄생일 축하연에 참석하고 돌아왔다. 1473년 전라도관찰사가 되고 다음해에 동지중추부사로 사은부사가 되어 다시 명에 다녀왔다. 1475년 영안도관찰사가 되어 누차 변방의 정세를 조정에 알렸고, 이어 강원도관찰사, 의금부도사, 평안도절도사, 사헌부 대사헌, 도총관, 한성부판윤, 병조판서 등을 역임하였다.

1491년에 이조판서로 서북면 도원수가 되어 여진족 토벌에 공을 세우고 좌참찬을 거쳐 1497년(연산군 3) 판중추부사 때에 『경상우도지도』를 제작하였다. 이어서 좌찬성, 평안도경변사를 지내고, 1499년(연산군 5) 왕명에 따라 『비변사목』을 지었으며, 1501년 성준 등과 『서북제번기』 및 『서북지도』를 편찬하였다. 1502년(연산 8) 영의정 한치형, 좌의정 성준과 함께 경연과 정사 등에 관한 『시폐십조』를 올렸고, 1503년 우의정을 거쳐 좌의정 겸 세자사가 되었다. 1504년 연산군의 실정을 바로잡으려고 직간을 서슴지 않다가 도리어 생모 폐비윤씨(廢妃尹씨) 사건으로 갑자사화에 연루되어 인동(仁同)에 유배된 후 사약을 받고 68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 1506년(중종 1)에 신원되어 공신치제를 받은 후 성남시에 후장하였으나 분당 신도시 개발로 인해 남양주시 진건읍 용정리에 묘를 옮긴 후 재실을 새로 짓고 신도비를 세웠다.

21. 변안렬(邊安烈) 선생 사당

- 명　칭 : 추원재(追遠齋)
- 위　치 : 남양주시 진건읍 용정리 산 704-1
- 구　조 : 목조한옥와가
- 면　적 : 165㎡
- 봉안인물 : 변안렬 선생 (위패, 영정)
- 제사일시 : 매년 음력 10월 9일
- 문화재구분 : 경기도 문화재 자료 제 115호

(2002. 9. 16) - 변안렬 선생 묘역 -

- 봉안되신 인물의 행적

- 변안렬(邊安烈 : 1334년 〈충숙왕 3〉 ~ 1390년 〈광양와 2〉 : 56세) 은 자는 충가(忠可)고, 호는 대은(大隱)이며, 본관은 원주(原州)이다. 변안렬은 최영(崔瑩), 이성계(李成桂) 등과 함께 고려 후기를 대표하는 무장이었다. 그의 행적에서 특이한 사실은 중국 심양(瀋陽)에서 천호후 변양(邊諒)의 둘째 아들로 태어났다는 점이다. 변안렬의 가문은 원래 황해도 황주(黃州)를 본관으로 하고 있었는데 원나라와 국경을 맞대게 되면서 그 가문은 자연스럽게 원과 친해졌고, 마침내 변안렬의 조부 변순(邊順)이 1268년(원종 9)원의 사신 탈타아(脫朶兒)를 수행해 원에 들어갔고, 그 뒤 그가 심양 천호후(千戶候)에 책봉되는 변화를 맞게되고, 변안렬의 아버지 변양도 심양천호후를 이어 받았고한다. 변안렬 선생의 형은 변안백(邊安伯 호부전서역임)이고 동생은 변안서(邊安緖)이다. 변안렬은 1351년 중국 심양에서 원나라 무과에 장원급제하고 형부상서

에 올랐다. 사람이 삶을 결정하는 전기는 어떤 사람과의 만남이냐에 따라 다르듯이 변안렬의 삶에서 고려 공민왕(재위 1351~1374)과의 인연이다. 변안렬은 공민왕보다 네 살이 아래였다. 1352년 12월 17세의 변안렬은 심양에 가있던 공민왕과 노국공주(魯國公主)가 귀국하면서 함께 돌아오게 된다. 이런 사실은 차기 국왕을 예약한 공민왕이 그의 능력을 높이 평가했음을 알려준다. 변의 가문으로 치면 거의 한세기 만에 귀국한 변안렬은 명문인 원주원씨(原州元氏) 출신의 추밀원의(元顗)의 딸과 혼인을 하게 된다. 공민왕은 그에게 원주를 본관으로 내려주었다. 그래서 원주변씨(原州邊氏)의 역사는 이렇게 시작되었다.

공민왕은 1356년(공민왕 5) 반원개혁을 펴 고려와 자신을 짓누르던 기철(奇轍)등 세력을 제거하고 정동 행정을 폐지하며, 쌍용총관부를 회복하는 전면적이고 전격적인 반원정책을 단행했다. 그러나 한편 중국대륙에서도 원(元)·명(明) 교체가 일어나는 혼란이 진행되면서 고려 공민왕은 외적의 침입에 시달리게 된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홍건적의 침입이다. 변안렬은 이런 홍건적 등 외적의 침입을 막는데 뛰어난 공로를 세운다.

1361년(공민왕 10) 홍건적의 1차 침입이 일어나자 변안렬은 안우(安祐)와 함께 그들을 물리쳐 2등공신에 책봉되고 판소부감사(判小府監事)로 승진했다. 그 뒤 2년이 지난 1363년(공민왕 12) 홍건적은 또 다시 10만 명으로 대규모의 침입이 일어났다. 공민왕은 개경을 버리고 안동까지 피신했다. 함락된 개성의 인명, 재산 피해는 막심했다. 고려는 이를 곧 반격해 개경을 수복했다. 변안렬은 거기서 뛰어난 공로를 세워 1등공신에 책봉되고 관직도 예의판서(禮義判書)·판밀직사사(判密直司事)·지문하부사(知門下府事)·문하평리(門下評理) 같은 요직을 역임했다. 그 뒤에도 뛰어난 무공을 세운다. (공민왕 21-38세-) 최영과 함께 제주를 정벌해 문하찬성사가 되고, 1376년(우왕 2)에는 조사민(趙思敏) 나세(羅世) 등과 함께 부안에 침입한 왜구를 크게 물리쳤다. 변안렬은 새로 즉위한 우왕(禑王)보다 31세 위였고, 이성계보다 한사 위였다. 고려 후기에 극심했던 왜구의 침략에서 고려가 거둔 가장 큰 승리는 1380년(우왕 6) 9월 전라도 운봉 (현재남원)의 황산(黃山) 대첩이다. 한편 그 대첩은 이성계의 용맹상을 확립시킨 결정적 계기이기도 했다. 운봉의 황산전투에서 1만5천명의 고려군은 15만의 왜구를 물리쳐 온천지가 피로 물들고 말 1,600여필을 노획 했다는 사실은 그 승리의 규모를 짐작게하고 특히 이성계가 적장 아지발도(阿只拔都)를 사살한 것 등이 고려사 열전 39, 변안전에 기록되어있다. 변안렬은 이로인해 당시의 대표적인 인물로 떠 올랐고 그는 정방제조(政房提調)가 되어 임견미(林堅味)·이인임(李仁任)등과 대등한 위상을 가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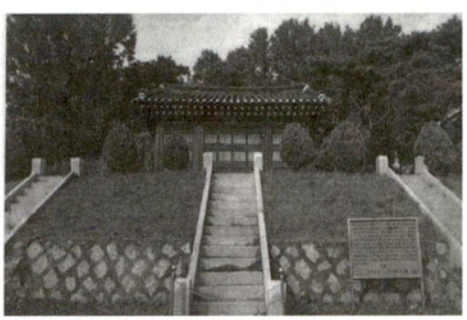
1382년(우왕 8) 4월 단양에서 한방언(韓邦彦) 등과 함께 왜구 80여 급(級)을 베고 말 200여 필을 노획했고, 안동에서도 왜구를 격파해 그는 원천부원군(原川府元君) 판삼사사(判三司事)에

책봉된다. 허나 고려의 운명을 결정한 가장 큰 사건은 1388년(우왕 14 -54세-) 5월에 이루어진 위화도 회군일 것이다. 그 때에 변안렬은 이성계를 도 왔다. 그러나 미루어 볼 때 변안렬의 정치적 지향은 이성계와 가까웠지만 이성계가 고려를 멸망시키고 새왕조를 세우리라고 생각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런 측면은 정몽주와 비슷하다. 정몽주의 「단심가(丹心歌)」와 함께 변안렬의 「불굴가(不屈歌)」가 남아 있는 것도 흥미롭다. 이런 정치적 자세는 그의 최후의 운명을 다가오게 했다.

1388년(우왕 14) 7월 조준의 전제개혁을 반대하는 이색을 지지 했다. 그 이듬해 1389년(창왕 1) 11월 김저(金佇)-최영의 조카) 독사에 연루된 것이다. 김저옥사 사건은 우왕복위 시도 사건으로 대호군(大護軍) 김저와 부령 정득후(鄭得厚)가 여흥에 머물고 있던 우왕을 알현 했을 때 이성계를 암살하고 자신을 복위시킬 것을 부탁한 사건이나 물거품이 된다. 그는 두 달 뒤인 1390년(공양왕 2) 1월 윤소종(尹紹宗)·이첨(李詹)·오사충(吳思忠)등의 상소로 한양에 유배되었고 1월에 한양에서 처형됨으로써 56세의 일생을 마쳤다.

그러나 그는 오히려 1393년(태조 2) 2등공신에 복작되고 변현(邊顯)·변이(邊頤)·변예(邊預) 등 세 아들이 모두 조선에서 벼슬했으며, 변안렬의 딸은 태조의 일곱 번째 아들 무안대군 이방번(李芳蕃)의 아내가 되었다는 사실에서 알듯이 그는 우왕복위에 적극 참가하지 않았다고 여겨진다. 그는 남양주 진건읍 용정리에 잠들어 있다.

22. 사육신 유응부(兪應孚) 선생 사당



○ 명　칭 : 충목사(忠穆祠)
○ 위　치 : 남양주시 진건읍 진관리 산 51-1
○ 구　조 : 목조한옥와가
○ 면　적 : 23.1㎡
○ 봉안인물 : 유응부 선생 (위패)
○ 제사일시 : 매년 음력 6월 8일 11:00 (기신제)
○ 봉안되신 인물의 행적

- 유응부 선생(출생 ? ~ 1456년 (세조 2년)은 자는 신지(信之) 또는 선장(善長) 호는 벽량(碧梁) 시호는 충목(忠穆)이고 본관은 천녕(川寧)이다. 선생은 1400년 초에 출생 세종 30년에 첨지중추원사에 세종 31년에는 함길도 경원도호부사 겸 경원절제사에 1453년(단종원년) 평안도 도절제사에 1455년(세조원년)동지중추원사에 임명되고, 세조가 왕위를 찬탈한 것에 대하여 그 해

겨울부터 성삼문, 박팽년 등과 단종복위 모의를 하다가 이듬해 1456년 6월 명나라 사신 초대연에서 세조와 세자를 일시에 처단하고 단종을 복위시키기로 하였다가 운검을 폐하여 거사를 실행하기 어렵게 되자, 성삼문 박팽년이 다음 기회에 실행 할 것을 의논하였고, 선생은 이번 기회를 놓쳐서는 안된다며 강행 할 것을 주장하였으나, 만전의 계책이 아니라는 강한 만류에 거사를 미루었다가 고변을 당하였다. 세조가 국문하며"너는 무엇을 하려 하였는가?"하니 족하(세조를 이름)를 죽이고 선왕(단종)을 복위코자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였으니 나를 죽이라고 하였고 자세한 내용은 저 유생들에게 물으라 하며 담금질을 받던 인두를 던지며"이 쇠가 식었으니 다시 달구어오라!"하고 호통하며 끝내 굴복하지 아니하고 돌아간 분이다. 선생은 무인이면서 학문이 뛰어나 절의파 학자로 알려졌고, 청렴결백하여 재상의 반열에 있으면서도 몹시 가난하여 거적으로 방문을 달았고, 양식이 떨어졌으나 효심이 지극하여 노모를 모시는데, 소홀함이 없었다 한다.

1691년(숙종 17) 신원 복관작 〈교지 유응부 자헌대부 오위도 총부도총관자(敎旨 兪應孚 自憲大夫 五緯都 摠部都摠管者)〉 되고, 1758년(영조 38년)증직 〈교지 오위도총부 부총관 유응부 증자헌대부 병조판서 겸 지의금부사 훈련원 사자(敎旨 五緯都摠部 部摠管 兪應孚 贈資憲大夫 兵曹判書 兼 知義禁府事 訓練院 事者)〉 시호: 증병 조판서 유응부 충목공사 진절왈 충포덕집의 왈목(贈兵 曹判書 兪應孚 忠穆公事 盡節曰 忠布德執義 曰穆)이 내려졌고 봉사손이 정해졌다.
묘(묘)는 노량신 사육신 묘역에 있고, 유시 3수가 전한다. 그 중 한수를 적어본다.

상설래 휘유응부(霜雪來 諱兪應孚)
작야풍구상설래(昨夜風驅想雪來) 간밤에 불던 몹쓸 바람에 눈과 서리까지 몰아쳤단 말인가?
장송낙역음최락(長松落亦音崔落) 곧고 푸른던 낙낙장송도 그리하여 다 쓰러졌단 말인가?
미개화목지다소(未開花木知多少) 그러할진대 다 피지도 못한 꽃들이야
영복형언가급재(寧復形言可及哉) 말해서 무엇 하겠는가?

23. 정세호(鄭世虎) 선생 사당

○ 명　칭 : 효간사(孝簡祠)
○ 위　치 : 남양주시 진건읍 진관리 414-14
○ 구　조 : 씨멘트부록와가
○ 면　적 : 16.5㎡
○ 봉안인물 : 정세호 선생(위패, 영정)

○ 제사일시 : 매년 음력 10월 8일

○ 봉안되신 인물의 행적

- 정세호(鄭世虎: 1486년〈성종 17〉~ 1563년〈명종 18〉: 77세) 선생은 조선중기의 문신이며, 덕흥대원군의 장인이며, 선조의 외조부이다. 정인지(鄭麟趾)의 손자이며 부친은 정상조(鄭尙祖)이다. 본관은 하동(河東)으로 자는 자인(子仁), 호는 서계(西溪), 시호는 효간(孝簡)이다. 1519년(중종 14) 식년 문과에 병과로 급제하고 의정부사인에 재직중 일을 잘못 처리하여 경상도로 유배되었다가 풀려나 복관되고 성균관대사성이 되었다. 1532년(중종 26) 명나라에 파견되는 성절사가 되어 연경에 다녀오고 그 뒤 승정원 부승지, 홍문관 부제학을 거쳐 1552년(명종 7) 호조판서가 되었다. 1559년 자중추 부사에 오르고 수릉(守陵)의 공로로 숭정대부에 승자(陞資)되었다.

24. 조맹(趙孟) 선생 사당

○ 명　칭 : 풍양재(豊壤齋)

○ 위　치 : 남양주시 진건읍 송능리 산 55번지

○ 구　조 : 목조한옥와가

○ 면　적 : 66.0㎡

○ 봉안인물 : 풍양조씨 시조 조맹 (위패)

○ 제사일시 : 매년 양력 둘째 주 토요일 11:00

○ 봉안되신 인물의 행적

- 조맹(趙孟) 선생은 본관이 우리 남양주 일원의 옛 지명인 풍양조씨(豊穰趙氏)의 시조(始祖)임에 더욱 의의가 있다하겠다. 풍양현은 경기도 남양주 일대의 옛 지명이다. 백제와 고구려에 속했을 때는 골의 노현(骨衣奴縣)이라 불렀으며, 757년(신라 경덕왕 16)에 황양(荒壤)으로 고쳐 한양군(漢陽郡)에 속하였다. 그 후 940년(고려 태조 23)에 풍양(豊壤)으로 고쳐 양주목(楊州牧)에 속하였다가 1018년(고려 현종 9) 포주(抱州:포천)에 이속 되었다. 1427년(세종 9)에 다시 양주(楊州)에 속하게 되었으며, 풍양을 본향으로 두었던 풍양조 씨는 고려시대부터 명문가로 자리 잡았으며, 조선시대 때는 숙종조 이후 문중적 세력 기반을 탄탄히하여 대표적인 양반가로 자리매김을 한다. 풍양조씨 종보(宗報)에 수록된 풍양조씨의 유래를 요약하면 「풍양조씨의 발상지는 고려시대 풍양현이니, 지금의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읍 송능리이다. 신라말기에 "바위"라는 은자(隱者) 한분이 천마산(天摩山) 지맥인 독정산(獨井山)의 암굴(巖窟)에서 수도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고려 태조왕건이 찾아가 장군을 삼으니 보령 70세였고, 모습이 웅위하고 수염이 아름다웠다. 」 태조의 남정(南征)에 여러 차례의 공을 세워 개국공신이 되고, 맹(孟)이란 이름을 하사 받았으며, 벼슬이 문하시중(門下侍中)에 이르러 풍양조씨의 시조가 되었다.

25. 정미수(鄭眉壽) · 정효준(鄭孝俊) 선생 사당

○ 명　칭 : 해평사(海平祠)
○ 위　치 : 남양주시 진건읍 사능리 149
○ 구　조 : 목재한옥와가
○ 면　적 : 26.4㎡
○ 봉안인물 : 정미수, 정효준 (위패, 영정)
○ 제사일시 : 매년 음력 4월 15일 11:00
○ 봉안되신 인물의 행적

- 정미수(鄭眉壽: 1456년 〈세조 2〉 ~ 1512년 〈중종 7〉 : 56세) 선생은 조선중기의 문신 호는 우재(愚齋) 시호는 소평(昭平) 아버지는 문종의 따님과 혼인하여 영양위(寧陽慰)에 봉해지고 단종 초기에 형조판서가 된 정종(鄭悰)이고 어머니는 단종의 누이 경혜공주(敬惠公主)이다. 아버지의 유배지 광주(光州)에서 태어났다. 아버지가 사사되자 어머니와 함께 서울로 소환 세조가 길렀다한다. 1473년(성종 4)에 돈녕부직장 형조정랑을 지냈다. 죄인의 자손으로 임관되었다하여 여러 차례 탄핵을 받았으나, 성종의 무마로 무사했다. 1476년 중부 참봉을 거쳐 1489년(성종 20) 사헌부 장령 한성부서윤, 인천부사 등을 지냈다. 연산군이 즉위하자 당상관으로 올라 장례원 판결사에 임명되고, 1496년(연산군 2) 충청도 관찰사 1498년 동부승지, 우승지, 좌승지, 도승지를 거쳐 공조참판, 지동녕부사, 한성부판윤을 지내고 1506년(중종 1) 우찬성이 되어, 중종반정 때 공으로 정국공신(靖國功臣) 3등이 되고, 보국숙록대부에 올랐으며, 해평부원군에 봉하였다. 법조문에 밝았으며, 문장에 능하여 유고로 한중계치(閑中啓齒)가 있다. 성종의 윤허를 얻어 단종왕후(端宗王后)인 정순왕후(定順王后)의 시양자(侍養子)자가 되어, 정순왕후로 추존되기 전에 여산송씨 부인을 보살펴 드렸다. 묘와 신도비(神道碑)는 사릉(思陵)능 역내에 있다.

- 정효준(鄭孝俊: 1577년 〈선조 10〉 ~ 1665년 〈현종 6〉 : 97세) 선생은 조선 중기 문신으로 본관은 해주(海州), 자는 효우(孝宇) 호는 낙만(樂晩) 시호는 제순(齊順)이다. 아버지는 돈녕부 판관 정흠(鄭欽)이며, 1618년(광해군 10) 사마시에 합격하고 세 번이나 부인을 잃고 홀로지내

다가 병마절도사를 지낸 이진경의 딸 자의부인(紫衣夫人)을 만나 다섯 아들을 낳아 다섯아들이 모두 과거에 합격 높은 벼슬에 올라 오룡가(五龍家)라하며 칭송이 자자했다.

1656년(효종 7) 해풍군(海豊君)에 봉해졌으며, 이후 현종은 그의 음덕을 높이여겨 1663년 (현종 4)효준 선생에게 정2품 자헌대부의 품계와 더불어 지돈녕부사를 내렸다. 97세까지 장수하면서 조정의 많은 관료와 학자들에게 존중을 받았다. 벼슬은 인종(仁宗) 능인 효릉(孝陵) 참봉을 거쳐 1634년(인조 12) 전 생서봉사(典牲暑奉事) 찰방 등을 거쳐 판돈녕부사가 되고, 시호는 제순(齊順)이다. 묘와 신도비(神道碑)는 사릉(思陵)역 내에 위치하고 있다.

26. 이지란(李之蘭) 선생 사당

○ 명　칭 : 청해재(青海齋)
○ 위　치 : 남양주시 진건읍 용정리 130-1
○ 구　조 : 목재한옥와가
○ 면　적 : 99.0㎡
○ 봉안인물 : 이지란, 이화영 선생 (위패)
○ 제사일시 : 매년 음력 10월 15일
○ 봉안되신 인물의 행적

- 이지란(李之蘭: 1331년 〈충혜왕 1〉 ~ 1402년 〈태종 2〉 : 71세) 선생은 조선초기 무신으로 원래 여진족으로 만주에 거주하다가 고려에 귀화하여 이성계를 도와 의형제를 맺고 조선 개국을 도와 일등 공신이 되었다. 본관은 청해(青海):지금의 북청), 초성은 퉁 초명은 쿠룬투란티무르인데 생략하여 동두란(冬豆蘭)이라 하였고, 아버지는 여진의 금패천호(金牌千戶)아라무카이며, 이화영(李和英)의 아버지다. 고려조에 귀화하면서 본관은 청해(青海) 이름을 이지란(李之蘭)으로 사성명(賜姓名)을 사용 청해이씨의 시조가 되었다. 1380년(우왕 6) 이성계의 편장으로서 황산에서 왜구를 무찔렀으며, 1385년 이성계 휘하로 왜구를 함주에서 격파해 선력좌명공신(宣力左命功臣)에 봉해짐. 1388년 위화도의 회군에 참가해 1390년(공양왕 2) 밀직사가되고, 같은해 서해도서에서 왜구를 격파해 판도평의사사(判都評議司事), 지문하부사(知門下府事)에 임명되었다. 1392년(태조 1) 이성계를 새로운 왕으로 추대한 공훈으로 참찬문하부사(參贊門下府事)에 오르고, 보조좌명 개국 일등공신 청해군(青海君)에 봉해졌다. 1397년 동부면도 병마사, 1398년 문하 시랑찬성사 판형조사의 홍삼군부사중군 절제사가 되었다. 제1차 제2차 왕자의 난에서 공을 세워 정사공신 2등 익대좌명공신 3등에 봉해졌다. 태조의 묘정에 배향되었으며, 묘

소는 함경남도 북청군 신북청읍 안곡리에 있다고 한다. 시호는 양렬(襄烈)이다.

- 이화영(李和英: ? ~ 1424년 〈세종 6〉) 선생은 생년월일은 미상이며, 본관은 청해(青海) 시호는 무후이다. 할아버지는 여진 금패천호(金牌千戶) 아라불화(阿羅不花)이고, 아버지는 조선태조 배향공신(配享功臣)이며, 개국공신 1등 이지란(李之蘭)이다. 부인은 태조 원종공신 판사 동안로(童安老)의 딸이다. 본래 여진족이었지만 아버지와 함께 이성계에게 투항하여 고려에 귀화하였다. 18세 때 낭장(朗將)에 임명되고, 이어 사복사정(司僕寺正)에 올랐다. 1392년 조선이 개국되자 원종공신(原從功臣)이 되었으며, 1398년 상장군에 올랐다. 1400년 태종이 즉위하자 태종을 보좌한 공을 인정받아 토지를 하사 받았으며, 이듬해에 예조전서(禮曺典書)가 되었다. 1402년 조사의(趙思義) 반란을 평정하는데, 공을 세웠으며, 1406년 도총제를 역임하고, 1409년 지의정부지사(知議政府知事) 거쳐 1415년 참찬 1423년(세종 5) 판좌군도총제(判左軍都摠制)가 되고 판우군부사에 이르렀다. 묘(墓)는 청해재 재실 뒤 청해이씨 선산 상부에 서향하여 있는데, 정숙부인 동성동(童)씨 와의 합장묘 있다. 묘역은 전형적인 고려 양식으로 고려 말, 조선 초기 석물 양식의 변화과정을 살피는데, 좋은 자료로 여겨진다.

오남읍

27. 신전(愼銓) 선생 사당

○ 명　칭 : 양산재(陽山齋)
○ 위　치 : 남양주시 오남읍 양지리 535
○ 구　조 : 철근콘크리트조와가
○ 면　적 : 165.0㎡
○ 봉안인물 : 신전(愼銓) (위패)
○ 제사일시 : 매년 음력 10월 10일
○ 문화재구분 : 천연 기념물 제232호 양지리 향나무
(1970. 11. 5) - 신전묘역의 향나무 -
○ 봉안되신 인물의 행적

- 신전((愼銓)은 생, 졸년도는 미상이며, 시호는 양간(襄簡) 증조부는 지 영주군사 신사경(愼思敬) 조부는 검교부윤 신인도(愼仁導) 아버지는 판이 주현사 신이충(愼以衷) 어머님은 순창설(薛)씨 배위는 고성군사 안금강(安金剛)의 따님 순흥안씨, 아들이 여의정 신승선(愼承善) 손자가 좌의정 신수근(愼守勤) 손녀사위는 연산군(燕山君) 부인 폐비 신씨 증손녀이며, 증손녀는

중종비 단경왕후이다. 1429년(세종 11) 문과에 급제 예문관 직제학, 호조참의, 황해도관찰사 등을 지내고 순총보조 공신에 책록되었으며, 의정부 영의정에 추증되고 거창부원군에 추봉되어 가세를 크게 이르켰다. 묘는 양산재 동북방향 근거리에 위치하며 신도비는 묘역입구 천연기념물 제232호인 양지리 향나무와 함께 서 있다.

28. 하자종(河自宗) 선생 사당

○ 명　칭 : 발현재(發賢齋)
○ 위　치 : 남양주시 오남읍 팔현리 297-1
○ 구　조 : 목재한옥와가
○ 면　적 : 45.78㎡
○ 봉안인물 : 하자종 (위패)
○ 봉안되신 인물의 행적

- 하자종(河自宗: 출생 ? ~ 1433년 〈세종 15〉

선생은 본관은 진주(晉州) 호는 목옹(木翁) 조부는 하즙(河楫)이며, 아버지는 대사헌(大司憲), 진산군(晉山君), 하윤원(河允源)이다. 이들로는 영의정을 지낸 하연(河演)과 대사간을 지낸 하결(河潔), 하보(河보) 등이 있다. 하자종은 고려조에서 병부상서(兵部尙書)를 지냈으며, 1396년(태조 5)에 식년 문과에 급제하여 전서(典書)로 있었으나, 1404년(태종 4)에 유배되었다가 풀려나 1407년(태종 7)에 공조 참의로 세공마(歲貢馬)를 이끌고 명나라에 갔다가 고황후전(高皇后傳)을 받아왔다. 그 후 충주목사와 홍주목사를 1419년(세종 1)에는 공안부윤(恭安府尹) 1422년(세종 4)에 판청주목사(判淸州牧使)가 되었다. 묘역은 별묘 뒤편으로 산길을 따라 5분 정도 올라가면 나지막한 구릉에 북동향하여 하자종 묘와 정경부인 진주정씨와의 쌍분을 이루고 있으며, 묘갈(墓碣)은 봉분 앞에 위치하며 비신의 비문은 전후 2면에 있으며, 전면에 이비는 1702년(숙종 28)에 세워진 것으로 하시도(河始圖)가 찬하고 하섭(河涉)이 썼다.

29. 안건(安騫) 선생 사당

○ 명　칭 : 경민재(景閔齋)
○ 위　치 : 남양주시 오남읍 양지리 586번지
○ 구　조 : 목재한옥와가
○ 규　모 : 132㎡

○ 봉안인물 : 안건(安騫), 환(煥), 세형(世亨), 필(馝), 기량(驥良), 계(稧)의 (위패)

○ 제사일시 : 매년 음력 10월 10일 10:00

○ 봉안되신 인물의 행적

- 안건(安騫 : 1446년 〈세종 28〉 ~ 1495년 〈연산군 1〉 : 49세) 선생은 자는 경민(景閔) 본은 순흥(順興)이다. 아버님은 연안부사(延安府使) · 이조참판(吏曹參判)을 증식받는 안의(誼)이며, 어머님은 파평윤씨로 사헌감찰(司憲監察)을 지낸 윤효동(尹孝童)의 따님이며, 부인은 임영대군 따님인 임하현주(臨河縣主)이다.

1461년(세조 7) 세자좌위솔(左衛率) · 사헌감찰(司憲監察) · 공조 · 형조정랑(正郞) · 사도사정(司도寺正)을 지내고, 1468년(세조 14) 모친상으로 인하여 관직에서 물러나 있다가 다시 돈녕부정 · 통례원좌통례가되고, 1483년(성종 14) 통정대부(通政大夫) · 수원부사(水原府使) 1488년(성종 19) 장예원 판결사로 있으면서 명성을 나타내고, 1489년 병조참지 1491년(성종 22) 병조참의(兵曹參議)가 되었다. 전라 좌수영으로 부임하고 1495년 형조참판(刑曹參判)에 올랐다. 경민재에는 후손인 환(煥), 세형(世亨), 필(馝), 기량(驥良), 계(稧)의 위패가 함께 모셔져 있다.

조안면

30. 류량(柳亮) 선생 사당

○ 명 칭 : 문충사(文忠祠) 〈불천위 : 不遷位〉

○ 위 치 : 남양주시 조안면 시우리 산 26번지

○ 구 조 : 목재한옥와가

○ 면 적 : 112.5㎡

○ 봉안인물 : 류량

○ 제사일시 : 매년 음력 4월 2일 오전 11:00

○ 문화재구분 : 경기도 기념물 제 78호

(1984. 9. 12) - 류량 선생 묘 -

○ 봉안되신 인물의 행적

- 류량(柳亮: 1355년 〈공민왕 4〉 - 1416년 〈태종 16년〉 : 62세) 선생은 고려 말 조선 초의 문신으로 본관은 문화(文化)이고, 자는 명중(明仲)이다. 밀직사(密直使)를 지낸 류계조(柳繼祖)의 아들로 시호는 충경(忠景)이다. 우왕 때 문과에 급제하고 전의부령(典儀副令)을 거쳐 판종부시

사가 되었다. 1388년(우왕 14) 전라도안렴사(全羅道按廉使)가 되고, 1390년(공양왕 2) 형조판서가 되었다가, 1392년 이조전서(吏曹典書)로 있을 때, 조선왕조 개국에 협력한 공으로 개국원종공신(開國原從功臣)에 책록되었다.

1397년(태조 6) 계림부윤(鷄林府尹)으로 부임하여 다음해 왜구가 침입해오자 이를 맞아 싸워 크게 무찔렀다. 형세가 불리해진 왜구들이 항복을 청해오자 그들의 항복을 받아들인 뒤 일거에 섬멸하려는 전략을 세웠으나, 그 계획이 누설되어 왜구들이 도망쳐버렸다. 그 죄로 합산(合山)에 유배되었다가 1398년(태조 6년) 나주로 송치되었으나 곧 풀려났다. 그 뒤 상의중추원사(商議中樞院事)로 있다가 1400년(정종 2) 방간(芳幹)의 난을 평정하는 데 협력한 공으로 1401년(태종 1) 좌명공신(佐命功臣)에 책록되었다.

1402년 문성군(文城君)으로 봉작되었고, 그해 동북면순문사가 되어 변방을 살피고 돌아왔다. 1404년(태종 4)에 대사헌에 이어 형조판서가 되었으며, 예문관대제학도겸하였다. 그 뒤 판한성부사 · 이조판서를 거쳐 참찬의정부사(參贊議政府事)에 올랐으며, 다시 대사헌이 되었다.

1413년 태종에 의해 문성부원군(文城府院君)으로 진봉되었다가 1415년 우의정으로 승진하였다. 1416년 신병으로 굳게 사양하고 요양 중에 62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 조정에서 충경(忠景)이라는 시호와 함께 부조(不祧)의 은전을 내렸다.

31. 한확(韓確) 선생 사당

○ 명　칭 : 한확선생 재실 〈불천위 : 不遷位〉
○ 위　치 : 남양주시 조안면 능내리 산 69-5번지
○ 구　조 : 목재한옥와가
○ 면　적 : 137.5㎡
○ 봉안인물 : 한확 선생 (위패)
○ 제사일시 : 매년 기일인 음력 9월 6일
○ 문화재구분 : 경기도 유형문화재 기념물
제127호 (1985. 6. 28) - 한확 선생 신도비 -

○ 봉안되신 인물의 행적

- 한확(韓確: 1400년 〈정종 2〉 ~ 1456년 〈세종 2〉 : 56세) 선생은 조선전기의 문신이자 외척 · 외교관이며, 명나라의 문신이기도하다. 본관은 청주(淸州) 자는 자유(子柔) 호는 간이재(間易齋)이다. 아버지는 지순창군사(知淳昌郡事) 한영정(韓永矴)이며, 어머니는 김영렬(金英烈)의

딸 의성 김씨이다. 성종(成宗)의 어머니인 인수왕후(仁粹王后)의 아버이자 성종의 외할아버지로 이름이 나 있다. 한확은 조선초기 명나라와 관계가 아직 불안정한 시기에 명황실에 후궁으로 드러간 누이들 둘을 매개로 조선왕실의 정치안정을 꾀하던 외교관이자 행정가로서 큰 활동을 한 인물이다. 그는 태종대에서 세조대 초까지 다섯 왕을 섬기면서 조선과 명나라와의 가교역할을 하고 정치 · 행정가로 확략하면서 청주한씨 가문을 당대 최고의 가문으로 성장시키는데 실질적 기여를 하였다. 한확이 몇 살에 관직에 나아갔는지는 불분명하지만 1417년(대종 17) 18세의 나이로 그의 누이들 데리고, 북경으로 갈 때 부사정(副司正)이었고, 이후 그의 누이가 공녀에 뽑히자 부사정으로 진헌부사(進獻副使)의 직책을 띠고 명에 다녀왔다. 한확 선생이 정치생활에서 가장 큰 전환기는 계유정난의 1등공신이 되고 나서 부터이다. 1453년(단종 1년) 우찬성이었던 한확 선생은 9촌 관계에 있던 한명회(韓明澮)와 수양대군의 이복동생이자 자신의 사위인 계양군 (桂陽君)등과 함께 계유정난에 참여하였고, 정난공신 1등에 책봉되었다. 그 서열은 정인지 다음으로 한명회보다 더 높은 지위이었다. 전권을 장악한 수양대군은 한확선생을 우의정으로 삼아서 수충위사협 책정공신 의정부 우의정 서성부원군 (輸忠衛社協策靖功臣義政府右義政西城府院君)이 되었다. 이어 1455년 윤 6월 세조가 즉위한 뒤 의정부 좌의정이 되어 명나라에 세조의 책봉고명을 성사시킨 공로로 좌익공신 1등에 오르고, 서원부원군(西原府院君)에 책봉된다. 세조 2년 4월에는 고명사은사 겸 주청사(誥命謝恩使兼奏請使)가 되어 형조판서 권준과 함께 명나라에 가 고명 사례하고, 겸하여 세자 책봉을 주청하기로 하였다. 그는 명나라에 가 세조의 왕위 계승이 찬탈이 아니라 양위라는 명분을 내세워 명황제를 설득하여 왕위 인정을 받게 하는 등 세조의 집권에 큰 외교적 역할을 하였다. 한확 선생은 1456년(세조 2) 세조의 고명과 세자 책봉 문제를 해결하고 명나라에서 돌아오다 안타깝게도 칠가령(七家嶺: 사신으로 이동하던 중 지나던 하북성의 한 지역으로 여겨지는 곳)에 이르러 병을 얻어 단주 사하포(沙河鋪)에서 객사하였다.세조는 당시 도승지였던 한명회에서 명하여 호상 · 예장토록하고 일설에 의하면 왕실에서 쓰려고 터를 잡아 놓았던 능터를 한확묘소로 하사하였다 한다.

32. 다산(茶山) 정약용(丁若鏞) 선생 사당

○ 명　칭 : 문도사(文度祠)
○ 위　치 : 남양주시 조안면 능내리 85-2번지
○ 구　조 : 목재한옥와가
○ 면　적 : 41.3㎡

○ 봉안인물 : 정약용 (위패, 영정)

○ 제사일시 : 남양주 문화원에서

- 다산 선생 추모제향 : 매년 음력 2월 22일
- 다산 문화재 행사때 : 헌다례

나주정씨종중에서

- 매년 음력 3월말경 정(丁)간지일
- 시향제 매년 음력 10월 9일

○ 문화재구분 : 경기도 기념물 제 7호 (1972. 10. 10)

- 정약용 선생 묘역 -

○ 봉안되신 인물의 행적

- 정약용(丁若鏞: 1762년〈영조 38〉~1836년〈현종 2〉: 75세) 선생은 조선후기의 문신으로 18세기 실학사상을 집대성한 한국 최대의 실학자이자 개혁가이다. 자는 미용(美鏞), 송보(頌甫), 호는 다산(茶山), 사암(俟菴) 당호는 여유당(與猶堂), 시호는 문도(文度) 본관은 나주(羅州)이며, 정약용은 1762년 음력 6월 16일 경기도 광주군 마현(지금의 남양주 조안면 능내)에서 진주목사의 벼슬을 지낸 재원(載遠)의 아들이며, 어머니는 해남윤씨로 윤두서(尹斗緖)의 손녀딸이다. 1789년(정조 13) 문과에 급제, 벼슬이 부승지(副承旨)까지 이르렀다. 선생은 문장과 경학(經學)에 뛰어 났으며, 수원성을 쌓을 때 기중가설에 의한 활화녹로를 만들어 과학적인 기술을 이용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정조(正祖)말 서교(西敎)를 가까이 한 탓으로 금정찰방(金井察訪)으로 좌천 되었으나, 다시 부름을 받아 좌부승지(左副承旨)·병조참지·동부승지(同副承旨)·부호군·형조참의(刑曹參議) 등을 역임하였다.

1801년(순조 1) 천주교(天主敎) 박해를 위한 신유사옥이 일어나 정약용 선생은 이가환·권철신·이승훈·최필공·홍교만·홍낙민·최창현·정약종·정약전 등과 함께 체포되어 형정약종은 장사(杖死)되고, 정약전은 흑산도로, 다산 정약용 선생은 강진(康津)으로 귀양 갔다. 다산 선생은 강진에서 18년간 독서와 저술에 힘썼으니, 그의 대부분의 저서는 이 적소(謫所) 강진에서 완성되었다. 정약용 선생이 유배지에서 풀려나 고향인 마현으로 돌아온 것은 1818년 가을 그의 나이 57세 때 였다. 57세에 해배되어 1836년 음력 2월 22일(음력 4월 7일) 75세의 나이로 세상을 뜰 때까지 고향인 마현에서 자신의 학문을 마무리 한다. 다산 선생은 반계 유형원·성호이익을 통해서 내려온 실학사상을 한 몸으로 집대성했다. 우리 근세(近世)에 있어서 남인학파의 불평의 비판과 정치적으로 비현실적인 태도에 비하여 다산은 남인학파 중에서도 다분히 실제적인 경험

을 지니었고, 자기의 학문, 사상의 체계화를 정리한 귀양지 강진에서 귀양살이를 보내기까지의 중앙관리의 경력, 지방 행정의 경험, 연천방면의 암행어사행각, 청년시절 부친의 임소에 수행한 견문 그리고 귀양살이 등은 그대로의 생생한 교훈이며, 평생을 통하는 힘이었다. 견문과 경력은 그의 사상에 현실적인 인식으로 제공되어 성리(性理)· 천문(天文)·지리·역상(曆象)·산학·의복(醫卜)은 물론이요. 관제·군현제(郡縣制)와 전제·부역·공시(貢市)·창저(倉儲)·군제·과거제·해세(海稅)·상세(商稅)·마정(馬政)·선법(船法) 등 국가 경영에 관한 일체의 제도 법규에 대하여 논정한 경세유표와 지방목민관으로 치민(治民)에 관한 목민심서(牧民心書) 그리고 치옥(治獄)에 대한 주의와 규범을 말한 흠흠심서(欽欽심書)등은 모두 다산학의 귀결이라 할 수 있는 사회·경제·사상 즉 조선근세사를 총라 한 대표적인 실학자이다.

수동면

33. 홍우창(洪禹昌) 선생 사당

○ 명　칭 : 의열재(義烈齋)
○ 위　치 : 남양주시 수동면 내방리 43번지
○ 구　조 : 콘크리트조한옥와가
○ 면　적 : 66㎡
○ 봉안인물 : 홍우창 선생 (위패)
○ 제사일시 : 매년 음력 10월 10일 11:00
○ 봉안되신 인물의 행적

- 홍우창(洪禹昌) 선생의 생애에 대하는 종회와의 연결이되지 아니하여 상세사항은 금번에 파악할 수 가 없으나, 홍우창 선생의 묘역 묘비명에는 가선대부동지중추부사 남양홍공휘 우창지묘 (嘉善大夫同知中樞府事南陽洪公諱禹昌之墓) 배정부인 김해씨, 김씨합장(配貞夫人金海,金氏合葬)이라 쓰여 있다.

별내면

34. 남효의(南孝義) 선생 사당

○ 명　칭 : 청학재(靑鶴齋)

○ 위　치 : 남양주시 별내면 청학리 산 77번지
○ 구　조 : 목재한옥와가
○ 면　적 : 165㎡
○ 봉안인물 : 남효의: 남선(南銑) · 남춘(南春) · 남맹하(南孟夏) · 남복흥(南復興)의 (위패)
○ 제사일시 : 매년 음력 10월 7일 11:00
○ 봉안되신 인물의 행적

- 남효의(南孝義 : 1474년 〈성종 5〉 ~ 1551년 〈명종 6〉 : 78세) 선생은 조선시대의 문신이며 자는 중유(仲柔) 호는 지소재(志素齋) 본관은 의령(宜寧)이다. 조선 개국공신 남재(南在)의 현손이자 생육신 남효온의 종제이다.

1511년(중종 6) 별시문과(別試文科)에 병과로 급제 · 여러 벼슬을 지내고, 1525년(중종 20) 사섬시첨정(司贍寺僉正) · 사간(司諫)을 지냈고 전주부윤을 거쳐 1533년(중종 28) 명나라를 다녀온 뒤 한성부윤(漢城府尹) · 공조참판 · 강원도 관찰사를 지냈다. 1540년(중종 35)에는 대사헌(大司憲)을 역임했으며, 1544년(중종 35)에 형조판서에 이르러 기로소(耆老所)에 들었으며 1551년(명종 6)에 세상을 떠나 수(壽)가 78세이다.

35. 보성군(寶城君) 사당

○ 명　칭 : 묵수재(默守齋)
○ 위　치 : 남양주시 별내면 광전리 234번지
○ 구　조 : 목재한옥와가
○ 면　적 : 68.2㎡
○ 봉안인물 : 보성군 (위패)
○ 제사일시 : 매년 음력 10월 6일 11:00
○ 봉안되신 인물의 행적

- 보성군(寶城君: 1416년 〈태종 16〉 ~ 1499년 〈연산 5〉 : 84세)은 효령대군(孝寧大君)과 예성부부인 해주정씨(海州鄭氏)의 셋째 아들로 태어났다. 이름은 갑이다.

1441년(제종 23) 보성군으로 봉해졌고, 종2품 가선대부, 1443년(세종 25) 정2품 숭덕대부(崇德大夫), 1444년 정2품 숭헌대부, 1489년(성종 20) 정1품 흥록대부(興綠大夫)로 승진하였다.

1457년(세조 23) 단종이 죽자 그 대전관(代奠官)을 맡았고, 1466년 해청위(海靑衛)가 되었다. 특히 세조 때에 무관으로 활동하여 도진무(都鎭撫)선전관(宣傳官), 좌상대장(左廂大將) 등으로 공헌하였다.

그러나 예종 초에는 남이(南怡) 장군과의 친분관계로 위기에 처했으나, 예종의 급서로 위기를 모면하고 1469년(예종 1) 풀려나 과거의 관직으로 복직되고 특별히 1499년(연산군 6) 종친의 최고 품계인 정1품 현록대부(顯祿大夫)까지 올랐다가 그해 9월에 84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 그는 임종시 시호와 예장을 받지 않겠다라는 유언을 남겼다 한다.

봉성군의 묘소는 처음 장례를 지낸 지금의 서울 금천구 박달골이 었느나, 1941년 6월 현 위치 남양주시 별내동 광전리로 옮겼다.

호평동

36. 의안대군(義安大君) 사당

○ 명　칭 : 의안대군 사당(義安大君 祠堂)
〈불천위 : 不遷位〉
○ 위　치 : 남양주시 경춘로 1360번길 3
○ 구　조 : 목재한옥와가
○ 면　적 : 29.04㎡
○ 봉안인물 : 의안대군 이화(李和), 완천군(完川君), 하령군(河寧君)의 위패
○ 제사일시 : 매년 음력 10월 10일
○ 문화재구분 : 남양주시 향토 유적 제 4호 (1986. 4. 10)
- 의안대군 사당 -
○ 봉안되신 인물의 행적

- 의안대군 이화(李和: ? ~ 1408년 〈태종 8〉 는 조선 초기의 공신으로 호는 이요정(二樂亭) 시호는 양소(襄昭)이며, 본관은 전주(全州)이고, 태조 이성계(李成桂)의 이복동생이며, 어머니는 정안옹주(定安翁主) 김씨이며, 고려 공민왕 때 방원(芳遠: 태종)과 뜻을 같이 하여 정몽주(鄭夢周)를 죽여 조선개국이 이룩되자 개국 1등공신으로 되고 의안백(義安伯)에 봉해졌다. 1398년(태조 7) 정도전(鄭道傳)의 난을 평정하고 정사 1등 공신이 됐다.

1400년(정종 2) 박포(朴苞)의 난을 평정하고 좌명 3등 공신이 되었으며, 1407년(태종 7) 영의정이 되고, 대군(大君)으로 진봉됐다. 사후 태조의 묘정에 배양되었다. 묘역에는 묘표 · 상석 · 혼유석 · 장대석 · 동자석 · 망주석 · 문인석 · 장명 등 마석 · 양석 · 호석이 있다.

- 완천군 이숙(李淑: 1373년 〈공민왕 22〉 ~ 1406년 〈태종 6〉 : 33세)은 고려 말기의 선비이자 조선 초기의 왕족종실(王族宗室) 무신 · 문신 · 좌명공신이며, 휘는 숙(淑) 시호는 제의(齊懿)이다. 의안대군 이화(李和)의 셋째 아들이며, 증 완풍대군 이원계(李元桂)와 영성대군 이천계(李天桂)와 조선 태조 이성계(李成桂)의 이복 조카이다. 고려(高麗)말기에는 동북면(함경도) 화령의 이름없는 무인(武人)이요. 촌부(村夫)이자 선비로 지내다가 1392년 이복 큰아버지 이성계(李成桂)가 조선(朝鮮)을 건립하고 초대 군주로 등극 하자 이듬해1393년 무관(武官)으로 등용되었고, 1398년 이후에는 문관(文官)으로도 겸직하였다. 1398년(태조 7) 우부승지에 이어 좌부승지로 임명되고, 1401년(태종 1)에 좌명 1등공신 녹권을 받고 완천군(完川君)으로 봉해졌다. 1405년(태종 5) 의정부 찬성사에 제수되었다. 완천군은 부친 의안대군과 함께 태조고황제를 도와 개국에 참여하여 큰 공을 세웠다.

1406년(태종 6) 10월 17일에 별세했으며, 이 때 조정에서는 3일간 조회를 폐하고 제문을 내려 예로써 장례를 치렀다. 묘지는 광주군 노우개 일안인데 장남 하령군 양(穰)이 계유정난에 3상신(相臣)과 함께 순절하여 실전되었다. 후에 숙종은 이런 부자의 높은 공을 기려'양세원훈(兩世元勳)'이라 친필을 내렸다.

- 하령군 이양(李穰: ? ~ 1453년 〈단종원년〉)은 작위는 하령군(河寧君)시호는 충민(忠愍)이다. 본명은 이양(李穰) 본관은 전주(全州) 아버지는 완천군 이숙(李淑)이며, 수양대군의 왕권 찬탈을 위한 계유정난에 죽임을 당했다.태조의 이복동생인 조부 의안대군의 후광을 입어 호군에 제수되어 김종서와 더불어 국방강화에 혁혁한 공을 세웠다. 이때 맺은 인연으로 훗날 불사이군(不事二君)의 투철한 정신에 입각하여 계유정란때 김종서와 함께 생을 마감했다. 하령군 생전의 벼슬들을 살펴보면 1433년(세종 15) 옥구진 병마사 1439년(세종 21) 의주목사 · 첨지 · 중추원사 · 동지 돈녕부사가 되고, 1444년(세 26) 충청도 수군도안무처치사 1446년(세종 28) 동지중추원사 · 공조참판 1447년(세종 29) 서은사로 북경에 다녀와서 강계절제사를 제수받고, 1451년(문종원년) 문종이 등극하여 수릉관(守陵官)으로 발탁 지중추원사 · 지돈녕부사 · 우찬성으로 판병조사(判兵曹事)를 겸직하기까지 관요직에 승승장구 하였다. 세종이 승하 할 때 김종서(金宗瑞)와 같이 이양도 불러 어린 단종을 잘 돌보도록 당부한바 있고, 문종도 운명 전에 이들을 다시 불러 세자를 도와 태평성세를 이루도록 당부를 했다.

1453년(단종1) 이양은 좌찬성이 되어 단종을 각별히 모셨지만 계유정난으로 순절하였다.

또한 아들 이승윤과 4촌형제 등 의안대군 자손 16인이 이때 절의를 세우다 화를 당했다. 이들은 1791년(정조 15) 영월 장릉의 어정배식단사에 배향되고, 특히 하령군 이양은 육종영(六宗英) 종친으로 안평대군 금성대군 · 화의군 · 한남군 · 영풍군과 함께 배향되었다.

양정동

37. 김육(金堉) 선생 사당

○ 명　칭 : 효사재(孝思齋) 〈불천위 : 不遷位〉
○ 위　치 : 남양주시 삼패동 산 29-1번지
○ 구　조 : 목재한옥와가
○ 면　적 : 33.3㎡
○ 봉안인물 : 김육, 김좌명, 김석주 (위패)
○ 제사일시 : 매년 음력 9월 4일 낮 12:00
○ 문화재구분 : 경기도 기념물 제 177호
(2001. 9. 17) -김육 선생 묘역-

○ 봉안되신 인물의 행적

- 김육(金堉: 1580년 〈선조 23〉 ~ 1658년 〈효종 9〉 79세) 선생은 조선 중기의 문신이요 학자로 아버지는 참봉 흥우(興宇)이고, 본관은 청풍(淸風)이며, 자는 백후(伯厚), 호는 잠곡(潛谷), 초호는 회정당(晦靜堂), 시호는 문정(文貞)이다.

1605년(선조 38)에 성균관 사마시(司馬試)를 거쳐 1624년(인조 2)에 증광문과에 갑과로 급제, 이듬해 지평(持平), 이어 문학 · 직강 등을 지내고 1636년(인조 14)에 동지사(冬至使)로 청나라에 다녀왔다. 1638년 충청도관찰사, 이듬해 동부승지 · 대사성 · 부제학 등을 거쳐 1643년(인조 21)에 한성부우윤 · 도승지가 되고, 소현세자가 심양에 볼모로 잡혀가자 보양관으로 수행, 귀국하여 우부빈객이 되었다.

1645년 관상감 제조, 이듬해에 사은사가 되어 청나라 북경에 다녀온 후 1649년 (효종 즉위) 대사헌을 거쳐 우의정이 되고 이어 사은 겸 동지사로 다시 청나라에 다녀왔다. 1650년 대동법(大同法) 실시문제로 김집(金集)과 논쟁하고 퇴직, 영중추부사로 전직되어 진향사(進香使)로 또 청나라에 다녀왔다. 고령을 이유로 사직했다가 이듬해 실록청 총재관이 되어 『인조실록』 편찬을 맡아보았고, 우의정과 좌의정을 거쳐 1654년(효종 5)에 영돈령부사가 되고 이듬해에 영의정이

되었다. 경제정책에 탁월한 식견을 갖고 있어 충청도 관찰사로 재직 중 백성 수탈의 방법이었던 공물법을 폐지하고 미포(米布)로 대납하는 대동법(大同法)을 1651년에는 충청도에, 1657년에는 전라도 연안(沿岸) 지방에 이를 심시케 했다. 한편1651년 상평통보(常平通寶)의 주조를 건의하여 서울 서북 지방에 유통케 했고, 1636년 병자호란으로 소실된 활자를 새로이 제작하여 많은 서적을 간행하게 했다. 그의 경제학은 실학의 원조인 유형원(柳馨遠)에게 큰 영향을 끼쳐 실학의 선구적 역할을 했고, 성리학을 비롯하여 천문 · 지리 · 병략(兵略) · 복서(卜筮) · 율력(律曆)에 정통했다. 또한 관상감 제조로 재직 중에 한흥일(韓興一)이 구해온 서양의 새로운 역법『신력효식(新曆曉式)』을 보고 당시 400년 동안 사용되어 오던 우리나라의 구식 역법을 개정하자고 건의하여, 1653년부터 시헌력(時憲曆)이라는 새 역법을 시행, 4계절의 변화를 일상생활에 맞추어 적용하게 했다. 선생은 1657년 7월에 전라도에도 대동법의 실시를 건의하여 이에 대한 찬반의 논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1658년 향년 79세로 세상을 떠났다. 묘소는 남양주시 삼패동에 소재하고 있으며 신도비가 남아 있다.

- 김좌명(김좌명: 1616년〈광해군 8〉~ 1671년〈현종 12〉56세) 선생은 조선후기 문신으로 본관은 청풍(淸風)이고, 자는 일정(一正)이며 호는 귀계(歸溪) · 귀천(歸川)이다. 부친 영의정 김육(金堉)과 모친 파평 윤씨 사이에서 태어나 1644년 별시문과에 급제하여 승문원(承文院)에 등용된 후 박사(博士) · 설서(設書)를 거쳐 홍문관 옥당에 들어갔다.

1646년(인조 24)에 병조좌랑으로 문과중시에 급제하여 수찬(修撰)이 되었는데 사건에 연루되어 안변(安邊)으로 귀양 갔다가 3년 만에 풀렸다. 효종 때 대사헌 · 경기도관찰사 · 대사간 · 대사성 · 도승지 등 요직을 역임하고, 현종 초기에 공조참판이 되었다.

이때 아버지 김육이 생전에 호남 지방에 실시케 한 대동법(大同法)의 시행에 애로가 있음을 한탄하고, 아버지의 유지를 펴기 위해 호남 관찰사로 임명해 줄 것을 청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다시 대사헌, 도승지를 거쳐 예조참판을 지냈고, 1662년(현종 3)에 공조, 예조판서를 역임하고, 같은 해에 병조판서 겸 수어사(守禦使)가 되어 병기와 군량을 충실히 하고 군사훈련을 엄격히 실시하여 국방력 강화에 기여했다.

1665년(현종 6)에 북경에 사신으로 갔다가 돌아와서 한성부판윤, 형조판서, 병조판서를 역임했으며, 1667년에 영령전(永寧殿)을 재건축하고 좌참찬이 되었다. 1668년 이후 호조판서 겸 판의금부사, 예조판서, 호조판서, 병조판서 등을 거치고 보국숭록대부(輔國崇祿大夫)에 올랐다.
선생이 국정에 진력하다 1671년에 56세를 일기를 세상을 떠나자 현종은 애통해하며 후장을 명하였다. 1675년(숙종 2)에 시호를 내리고 영의정과 청릉부원군(靑陵府院君)에 추증하였으며 현종 묘정에 배향하였다.

- 김석주(김석주: 1634년 〈인조 12〉 ~ 1684년 〈숙종 10〉 51세) 선생은 조선후기 문신으로 본관은 청풍(淸風)이며, 자는 사백(斯百)이고 호는 식암(息庵)이다. 영의정 김육(金堉)의 손자이고, 부친 병조판서 김좌명(金左明)과 모친 평산 신씨 사이에서 태어났다.

1657년(효종 8)에 사마시에 장원하여 성균관 진사(進士)가 되고 1662년(현종 3)에 문과에 장원한 뒤 전적, 홍문관 수찬, 이조좌랑 등 요직을 두루지냈다. 파벌관계로 한동안 중용되지 못하다가 1675년(숙종 즉위)에 제2차 예송(禮訟)이 일어나자 남인(南人) 허적(許積) 등과 결합하여 송시열(宋時烈), 김수항(金壽恒) 등을 물러나게 하고 수어사, 도승지 등으로 특진되었다. 그러나 남인의 정권이 강화되자 이를 거세하기 위해 다시 서인들과 제휴하였다. 송시열을 사형하려는 남인들의 책동을 꺾음으로써 이때부터 송시열과 밀접한 관련을 맺었다. 1680년 허적 등이 유악사건(油幄事件)으로 실각당한 뒤 이들 남인의 잔여세력을 박멸하고자 허견(許堅)이 모역한다고 곡변케 하여 이들을 추방하고 그 공으로 보사공신(保社功臣) 1등으로 청성부원군(淸城府院君)에 봉해졌다.

1682년(숙종 8)에 우의정으로 호위대장을 겸직하였다. 사은사로 청나라에 다녀온 뒤 병조판서를 겸임하라는 명을 받았으나 병환이 심해 51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 부고를 들은 숙종은 3일 동안 조회를 폐하고 장례를 극진히 하라고 명하였다. 1689년(숙종 15)에 기사환국(己巳換局)으로 공신호를 박탈당했다가 1694년(숙종 20)에 복권되었다. 숙종 묘정에 배향되고 문충(文忠)이라는 시호가 내려졌다.

지금동

38. 조말생(趙末生) 선생 사당

○ 명　칭 : 영모재(永慕齋)
○ 위　치 : 남양주시 수석동 50번지
○ 구　조 : 목재한옥와가
○ 면　적 : 97.5㎡
○ 봉안인물 : 조말생
○ 제사일시 : 매년 음력 10월 둘째 토요일 11:00
○ 문화재구분 : 남양주시 향토 유적 제 8호

(1990. 11. 2) - 조말생 선생 신도비 -

○ 봉안되신 인물의 행적

- 조말생(趙末生: 1370년〈공민왕 19〉~ 1447년〈세종 29〉: 77세) 선생은 조선초 세종 때의 문신으로 자는 근초(謹初) 시호는 문강(文剛) 본관은 양주(楊州) 서운정 조의(趙誼)의 아들이며, 1401년(태종 1) 문과에 장원급제하고, 감찰 · 정언(正言) · 헌납(獻納)을 거쳐 이조정랑에 이르러 중시(重試)에 2등으로 합격하여 전농부정(典農副正) · 사헌장령 · 예문관직 등에 보직되었다. 판선공감사(判繕工監事) 승정원 동부대언(承政院 同副代言) · 지신사(知申事)를 역임하고 이조참판에 이르러 가정대부(嘉靖大夫)가 되었다. 형조판서에서 병조판서에 전임되어 군정(軍政)을 맡고 태종을 시종하여 날로 총애를 받았으며, 세종 때 예문관 대제학을 거쳐 판중추원사(判中樞院事)에 이르러 궤장(几杖)의 하사를 받고 1447년 영중추원사에 이르러 세상을 떴다. 대학자로서 특히 글씨가 매우 뛰어났다. 조말생 선생 묘소는 본래 양주군 금초면 금곡리 (현 남양주시금곡동)에 위치했었으나, 이곳이 1900년 9월 고종(高宗)의 능으로 봉표되어 현재의 위치로 이장되었다. 신도비 제는 유명 조선보국 숭록대부영 중추원사 겸병조판서 보문각 대제학 시문강 조공말생지묘 (有明 朝鮮輔國 崇祿大夫領 中樞院事 兼兵曺判書 寶文閣 大提學諡文岡 趙公末生之墓)라 하였다.

별내동

39. 남재(南在) 선생 사당

○ 명　칭 : 충경사(忠景祠) 〈불천위 : 不遷位〉
○ 위　치 : 남양주시 별내동 283번지
○ 구　조 : 목재한옥와가
○ 면　적 : 330㎡
○ 봉안인물 : 남재 선생 (위패)
○ 제사일시 : 매년 음력 9월 11일 낮 11:00
○ 문화재구분 : 경기도 문화재 자료 제 114호
(2002. 9. 16) -남재 묘역-

○ 봉안되신 인물의 행적

- 남재(南在: 1351년〈공민왕 원년〉~ 1419년〈세종 원년〉68세) 선생은 고려말 조선초 문신으로 본관은의 의령(宜寧)이며, 자는 경지(敬之), 호는 구정(龜亭)이다.

아버지는 고려 밀직부사(密直府使)를 지내고 검교시중(檢校侍中)이 된 남을번(乙番)이고 어머니는 최강(崔江)의 딸이다. 남재 선생이 본격적으로 입신한 시기는 당시 고려 대유학자인 이색(李穡) 선생의 문하에서 학문을 닦고 1371년 (공민왕 20) 성균관 진사에 합격하고서 부터이다. 그가 활동하던 고려후기에는 지배 세력인 권문세족에 새로히 도전하는 신진사대부들의 개혁정치세력들이었다. 그들은 원을 축출하려는 공민왕의 개혁으로 세력이 자못 성장하였다.

1390년(공양왕 1년) 남재가 고려 판전교시사 겸 집의가 되었을 때 이성계가 위화도에서 회군하자 비록 행군에는 참여하지 않았으나, 아우인 남은(南誾)과 함께 이성계의 세력에 가담하여 사직의 정책을 의논하고 조선개국과 함께 태조가된 이성계로부터 재(在)라는 이름을 하사받고 개국 1등으로 의성군(宜城君)에 봉해졌다.

1393년(태조 2) 주문사(奏聞使)가 되어 조선과 명나라와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명나라로 건너가 명태조로부터 3년에 한 차례 조공할 것을 논하는 등 큰 공을 세웠다. 그 공으로 판중추원사가 되었으며, 1396년(태조 4)에는 문관임에도 변방의 방위 체제에 관심을 기우려 도병마사가 되어 도통처치사 김사형을 따라 대마도 정벌에 참가하고, 1398년(태조 6년) 승승장구하던 남재 선생에게 고비가 생긴다 즉 왕세자 옹립문제로 이방석(芳碩)을 지지했던 아우 남은이 이방원(태종) 수하에 의해 살해되자 남은이 동생 관계라는 이유로 한 때 유배되었다가 풀려나온 뒤 남재 선생은 오히려 지속적인 신임을 받는다.

1403년(태종 3) 경상도 관찰사 1414년(태종 14) 우의정과 의령부원군에 오르고 하륜과 함께 고려사를 개수하였다. 그해에 좌의정에 임명되고 1415년 물러나 수문전 대제학겸 세자의 사부가 되었다가 1416년(태종 16) 영의정이 되어 조선초기 국가경영의 기틀을 다지는 일에 진력하다가 1419년(세종 1) 12월 14일에 운명하니, 세종대왕은 즉시 조회와 저자를 정지하고 부의를 내려 직접 조문하여 예장을 명하였다.

40. 덕흥대원군(德興大院君) 사당

○ 명　칭 : 덕흥사(德興祠)
○ 위　치 : 남양주시 별내동 산 15-13번지
○ 구　조 : 목재한옥와가
○ 면　적 : 264㎡
○ 봉안인물 : 덕흥대원군 (위패)
○ 문화재구분 : 경기도 기념물 제 55호
(1980. 6. 2) -덕흥대원군묘역-

○ 봉안되신 인물의 행적

- 덕흥대원군(德興大院君: 1530년〈중종 25〉~ 1559년〈명종 14〉: 30세)은 조선 제 11대 임금인 중종(中宗)의 일곱째 아들로, 본관은 전주(全州)·휘는 이초(李岹)·자는 경앙(景仰)·아명(兒名)은 환수(歡壽)이다. 1538년(중종 33) 덕흥군으로 책봉되었으며 부인은 중추부판사(中樞府判事)·정세호(鄭世虎)의 딸이자 정인지의 손녀이다. 덕흥대원군에 대한 조선왕조 실록의 기록은 그리 많지 않다. 명종 7년에는 "덕흥군 이초의 성품이 교만하고 패려하여 재상을 능욕하고 사류(士類)를 구타하며 창기(娼妓)와 사랑에 빠져 변복(變服)으로 나돌아 다닌다."라는 명목으로 사헌부에서 덕흥군 이초를 파직시킬 것을 건의하는 상소가 올라왔지만, 명종은 "이초가 연소하여 몰라서 망령된 행동을 하는 것인데, 파직까지야 할 수 있겠는가"라며 넘어간다. 또한 명종 9년에는 덕흥군과 정세호를 노비가 투탁(投託)한 죄로 추고 할 것을 아뢰는 상소가 올라오기도 하는데, 사관은 덕흥군에 대해 "덕흥군은 종실(宗室)의 무식한 사람이니 논할 것도 못 된다."라는 평을 남기기도 하였다.

1559년(명종 14년)에 병으로 죽은 후 남양주 별내동 덕릉에 묘가 조성되었다. 명종 22년(1567년) 6월 명종이 후사(後嗣) 없이 죽자 덕흥군의 셋째 아들 하성군(河城君) 균(鈞)이 명종의 뒤를 이어 즉위하였는데, 그가 곧 조선 제 14대 임금인 선조이다. 덕흥대원군은 조선 최초의 대원군(大院君)이다. 대원군은 조선시대 왕이 형제나 자손 등 후사(後嗣)가 없이 죽고 종친 중에서 왕위를 계승하는 경우, 신왕의 생부(生父)에게 주던 존호(尊號)를 일컫는다. 조선 대원군 제도는 선조(宣祖)의 아버지 덕흥군을 덕흥대원군(德興大院君)으로 추존한데서 최초 대원군이다. 총 4명이 대원군으로 봉하여졌는데, 두 번째 대원군은 제16대 인조(仁祖)의 아버지 정원, 세 번째 대원군은 제 25대 철종(哲宗)의 아버지 전계대원군(全溪大院君)이며, 네 번째 대원군은 제26대 고종(高宗)의 아버지 흥선대원군(興宣大院君)이다.

41. 한효원(韓效元) 선생 사당

○ 명　칭 : 감모재(感慕齋)
○ 위　치 : 남양주시 별내동 산 12-25번지
○ 구　조 : 모조한옥기와
○ 규　모 : 165㎡
○ 봉안인물 : 한효원
○ 제사일시 : 매년 음력 10월 5일

○ 봉안되신 인물의 행적

- 한효원(韓效元 : 1468년 〈세조 14〉 ~ 1534년 〈중종 29〉 : 67세) 선생은 중종대의 대신이며, 자는 원지(元之) 호는 오계(梧溪) 시호는 장성(章成) 본관은 청주(青州) 사도시정 한증의 아들이다. 1489년(성종 20) 식년 문과에 을과로 급제하고 사관(史官)에 등용되 승문원부정자 · 예문관검열 · 홍문관박사 -아버지 상을 당하여 한때 한직- 다시 사헌부장령 · 병조좌랑 · 수찬 · 교리 · 장령 · 집의 · 검상 · 사인 · 응교 · 전한을 역임하고 함경도 진휼경차관(咸鏡道賑恤敬差官)이 되어 굶주린 백성들을 구제 했으며, 1516년(중종 11) 황해도문폐어사(黃海道問弊御史)로 황해도에 재변이 있음을 아뢰고 직제학 · 부제학 · 동부승지를 역임했으며, 1531년(중종 26)에 이조판서 겸 판의금부사(判義禁府事)에 제배되어 좌찬성에 의정부우의정을 1533년(중종 28)에 좌의정 · 세자부(世子傅)로 승진 하였으며 위로 3대가 추은(推恩)되어, 아버지 사도공에게는 좌의정 · 조부 자정공에게는 찬성이 · 증조 중추공에게는 이조판서가 각각 추증되었다.

1534년(중종 29)에 영의정(領議政) · 세자사(世子師)에 승진, 이해 12월에 병세가 위중하여 향년 67세에 세상을 떴다.

42. 안홍량(安弘量) 선생 사당

○ 명　칭 : 죽안재(竹安齋)
○ 위　치 : 남양주시 별내동 산 257번지
○ 구　조 : 석조2층한옥와가
○ 규　모 : 297㎡
○ 봉안인물 : 안홍량
○ 제사일시 : 매년 음력 10월 셋째주 일요일 11:00
○ 봉안되신 인물의 행적

- 안홍량(安弘量 : 1590년 〈선조 23〉 ~ 1616년 〈광해군 8〉 : 26세) 선생은 조선중기의 문신이며, 본관은 죽산(竹山) 자는 몽부(夢孚) · 호는 취봉(醉峰)이다. 증조부는 안순(安恂)이고, 조부는 감사(監司) 안방경(安邦方慶)이며 부친은 부사(府使) 안창(安昶)이다.

1606년(선조 39)에 사마시(司馬試)에 진사 3등으로 합격하였고, 1612년(광해군 4)에 통사랑(通仕郞)으로 임자증광문과 병과(兵科) 17등으로 급제하고 성균관 전적(典籍)을 거쳐 삼사(三司)의 여러 관직을 두루지냈다. 문장에 능하였고, 사후 통정대부(通政大夫) 도승지(都承旨)에 증직 되었다. 묘와 사당이 별내동 불암산하에 있다.

4. 나가는 말

- 남양주에 분포되어 있는 여러 명문가의 명현(名賢) · 석유(碩儒)등 역사적 인물들이 잠들어 있는 묘역 옆에 오랜 세월을 지켜온 역사 문화적 가치가 높은 사당들을 조사 분석하여 보았다.

- 이들 사당은 부모의 상례를 정중하게 치르고 조상추모에 정성을 다하는 본보기라 할 수 있다. 나아가서 인간사에는 흥망성쇠가 상주하지만 조상의 봉안처가 있고, 친족의 우애와 이웃의 온정이 있다면 항상 복되고 희망의 원천을 소유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 이 논문이 우리 남양주 지역의 정체성과 시민의 자긍심을 높이는 한줌의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 일러두기

  읍 · 면 · 동별 사당 순서는 불천위 · 문화재 지정 인물 기타 순으로 정했다.

참고문헌

남양주시지
남양주시 역사박물관도록
조선왕조실록
남양주금석문집
민족문화 대백과사전
각 문중의 족보자료와 종보
이조실록

밀양변씨 공장공파 세장지 향토지명 연구
密陽卞氏 恭莊公派 世葬地 鄕土地名 硏究

양 경 직 (부천문화원 향토문화연구소 수석연구위원)

목 차

Ⅰ. 서론
1. 밀양변씨(密陽卞氏)의 원계(源系)
2. 밀양변씨(密陽卞氏) 공장공파(恭莊公派) 세계(世系)

Ⅱ. 본문
1. 세장지(世葬地) 향토지명 유래
2. 밀양변씨(密陽卞氏) 부천(富川)의 인물

Ⅲ. 결론

집필자
양 경 직
한국문화원연합회 한국향토문화연구소 연구위원
경기문화원연합회 경기향토문화연구소 연구위원
부천문화원 향토문화연구소 수석연구위원

Ⅰ. 서론(序論)

경기도 부천시 고강동에 세거(世居)하고 있는 밀양변씨는 춘당공파(春堂公派) 공장공종중(恭莊公宗中)이다. 12世 춘당공(春堂公) 변중량(卞仲良, 1345~1365)의 증손자 변예생(卞禮生,?~1444)이 부평부 하오정면 흑량리(黑梁里: 현, 부천시 고강동)에 정착한 이래로 그의 후손들이 약 600여 년간 부천에 세거하고 있다. 부천 입향조(入鄕祖) 변예생은 우군사정(右軍司正)을 지냈으며 세종 때 이조참판(吏曹參判)에 추증된 인물로, 그의 묘소는 경남 합천 선영에 있지만 그의 후손들은 장남 계열이 이어받아 부천지역에 지금까지 세거하고 있다. 다만 변예생의 아들 변종인(卞宗仁, 1433~1500)을 기준으로 하여 공장공파(恭莊公派)로 분류한다. 부천에 세거하고 있는 밀양변씨 후손들은 오랜 세월 부천지역에 유지가로 활동하면서 지역에 많은 공헌을 한 문중이다. 그의 후손 중에 변영만(1889~1954), 변영태(1892~1969), 변영로(1897~1961) 삼형제는 특히 유명하여서 변씨삼절(卞氏三絶), 부천삼변(富川三卞), 한국의 삼변(韓國三卞)으로 불릴 정도로 이름을 떨친 걸출한 인물을 배출한 명문거족(名門巨族)이다.

○ **부천 입향조(入鄕祖)　　: 10世 변예생(卞禮生, ?~1444)**

○ **밀양변씨 집성촌(集姓村) : 부천시 고강동(古康洞)**

1. 밀양변씨(密陽卞氏)의 원계(源系)

중국의 주나라 문왕의 여섯째아들 조숙진탁(曺叔振鐸)의 후손이 변읍(卞邑)을 식읍으로 받아 변(卞)을 성으로 삼았다고 한다. 우리나라의 변씨는 당나라에서 예부상서를 지낸 변원(卞源)이 8학사(學士)로 신라 경덕왕 때 《효경(孝經)》을 가지고 귀화하였다. 그러나 이후 세계(世系)를 실전(失傳)하였다.

■ 초계변씨(草溪卞氏) 세계(世系)

○ 始祖 : 고려 성종 문과 급제
　　고려 문하시중(門下侍中)
　　봉군(封君) : 팔계군(八溪君)

○ 2世 -변광(卞光) --변요(卞耀) -------변휘(卞輝)

○ 3世　　변중보(卞沖甫)

○ 4世　　**【변고적(卞高迪)】 : 밀양변씨(密陽卞氏)로 위관분적(爲貫分籍)**

2. 밀양변씨(密陽卞氏) 공장공파(恭莊公派) 세계(世系)

○ 始祖 : 변고적(卞高迪) : 묘소 실전(失傳)

✤ 고려 때 국자진사(國子進士)를 지냈다.

✤ 변고적은 초계변씨(草溪卞氏) 4世 변중보(卞沖甫)의 3子로 밀양(密陽)에서 대대로 살면서 위관분적(爲貫分籍)하여 밀양변씨(密陽卞氏)의 시조가 되었다.

○ 2世 변익성(卞益成) : 묘소는 실전(失傳)이다.

○ 3世 변화경(卞和景) : 묘소는 실전(失傳)이다.

벼슬은 진사(進士)이다.

○ 4世 변주(卞珠) : 묘소는 실전(失傳)이다.

벼슬은 좌우위보승상장군(左右衛保勝上將軍)을 지냈으며 사후 광정대부 문하평리상호군(匡靖大夫 門下評理上護軍)에 추증되었다.

○ 5世 변원(卞原) : 묘소는 밀양 구령촌(龜齡村)

초명(初名)은 원(元)이었으나 공민왕 3년 제휘원자(帝諱元字)를 피하여 원자(原字)로 개명하였다. 벼슬은 추성익위공신중대관(推誠翊衛功臣重大匡)이며 사후 찬성사(贈贊成事)에 추증 되었다.

○ 6世 변옥란(卞玉蘭, 1322~1395) : 묘소는 장단(長湍) 구화리(九和里)

1346년(충목왕 2) 문과에 급제하고 액정내시(掖庭內侍)를 거쳐 예빈시승(禮賓寺丞)에 보임되었다. 1360년(공민왕 9)진주판관을 지낸 뒤 전법정랑(典法正郞)이 되어 전라도안렴 사로 파견된 바 있고, 1372년수원부사가 되었다. 1375년(우왕 1)판선공시사(判繕工寺事)에 이어 판내부시사(判內府寺事)를 지내고, 충주(忠州)·청주(淸州)의 목사를 역임하였으며, 1390년(공양왕 2)호조판서에 이어 병조판서와 이조판서에 제수되었다. 이와 같이 공양왕(恭讓王)대에 고위직에 현달한 배경에는 둘째 아들 중량(中良)이 이성계(李成桂)의 형 원계(元桂)의 사위로서 이성계 집권을 형성한 중요인물로 활약하였기 때문이다. 조선 건국 후에는 고려 때 기로(耆老)를 예우(禮遇)하는 시책에 따라 검교판중 추원사(檢校判中樞院事)에 임명되고 개국원종공신에 책훈되었다.

○ 7世 변중량(卞仲良, 1345~1365) : 묘소 장단(長湍) 선영

고려 말기에 문과에 급제하여 밀직사를 지냈다. 1392년(공양왕 4) 이방원(李芳遠)이 이제(李齊) 등과 함께 스승인 정몽주를 제거하려는 계획을 미리 눈치 채고 이성계에게 문병 가는 것을 말렸으나 정몽주는 정세를 살피기 위하여 이성계의 집에 다녀오다가 이방원의 문객 조영규(趙英珪)·고려(高呂) 등에게 살해되었다.

1395년(태조 4) 전중경(殿中卿)으로 있으면서 병조정랑 이회(李薈) 등과 함께, 정권과 병권이

조준(趙浚)·정도전(鄭道傳)·남은(南誾) 등에게 다 맡겨진 것은 옳지 못하다는 말을 했다가 순군옥(巡軍獄)에 갇히고 전중경의 관직을 박탈당하였다. 1395년 원종공신(原從功臣)에 녹훈될 때에 전중경이었다. 1398년 우부승지·우산기상시(右散騎常寺)에 이르렀다. 이해 제1차 왕자의 난에 정도전의 일파로 몰려 참살되었다. 시에 능하였고, 경상남도 거창의 병암서원(屛巖書院)에 제향되었다.

○ **8世 변길상(卞吉祥) : 묘소는 장단(長湍) 선영이다.**

통정대부 지풍주사(知豊州事)를 지내고 사후 사복시정(司僕寺正)에 추증되었다.

○ **9世 변을명(卞乙明) : 묘소는 합천(陜川)이다.**

호조참의에 추증되었다. 부인은 실판사조주녀(實判事趙周女)"[1]이다.

○ **10世 변예생(卞禮生,?~1444) : 부천(富川) 입향조(入鄕祖)**
: 묘소는 합천(陜川)이다.

○ **11世 변종인(卞宗仁, 1433~1500) -- 이하 공장공종중(恭莊公宗中)**

○ **12世 변강지(卞綱之)** ----------紀之--維之--遜
▼(부천) (포천)(공주) x

○ **13世 변응몽(卞應夢)(부천)**

○ 14世 希訥 - **希詮(부천)**-希諶-希譚-**希謙(부천)**-希詢-希錫(홍천)

○ 15世	x	**乾元(부천)**	x	x	**忠元(부천)**	x 福天(홍천)
○ 16世		三近(부천)			三達(부천)	禮立(홍천)
○ 17世		克纘(부천)			和(부천)	時相(홍천)
○ 18世		東碩(부천)			東弼(부천)	世輝(홍천)
○ 19世		世逸(부천)			世彦(부천)	斗彬(홍천)
○ 20世		光緖(부천)			光協(부천)	德膺(홍천)
○ 21世		赫祚(부천)			奎祚(부천)	成彦(홍천)
		▼			▼	▼
		(부천)			(부천)	(홍천)
					(양천)	
					(김포)	

1) 《씨족원류(氏族源流)》(조종운(1607~1683)

II. 본론(本論)

1. 세장지(世葬地) 향토지명 유래

부천지역에 살고 있는 밀양변씨는 고강동을 집성촌으로 하여 부천에 정착하였다. 아래는 《밀양변씨족보》(1864, 1906, 2008)에서 발췌한 부천과 관련한 향토지명들이다.

강장골(康莊洞)	괴리동(槐里洞)	간담산(間墻山)	구름산(窟雲山)
능골(陵谷)	고달현(古達峴)	웅현(熊峴)	여월동(如月洞)
고달현(高達峴)	고음현(古音峴)	삼기리(三奇里)	하오정(下梧亭)
고리동(古里洞)	식골(息谷)	식골(蒔谷)	고강동(古康洞)
차밭(茶田)	방골(傍谷)	오롱골(五隴谷)	청룡 밖(青龍外)
오롱가리(五隴柯里)	안산(案山)	보농산(保農山)	여월동(如月洞)
지루지(支樓支)	남여리(南餘里)	백호 밖(白虎外)	
고강공동묘지(古康共同墓地)		대가리고개(大佳里峴)	

상기 지명들 중에 괴리동(槐里洞), 간담산(間墻山), 오롱가리(五隴柯里), 남여리(南餘里), 보농산(保農山), 지루지(支樓支), 식골(息谷), 구름산(窟雲山)은 부천에서 발굴된 귀중한 향토지명들이다. 죽은 자는 말이 없지만 묘소는 말을 한다. 족보 속에 등장하는 묘소의 향토지명들은 금방울옥방울 같이 소중한 지명이다. 후손들은 조상님들의 묘소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당시에 부르던 묘소의 지명과 좌향(坐向)을 대단히 정확하게 기록하기에 더더욱 신빙성이 많다. 따라서 족보에 기록된 세장지(世藏地) 곧 선영(先塋)의 향토지명은 중요하고도 중요하다. 특히 그동안 지명 왜곡이나 오류가 대단히 심했던 고리동(古里洞), 간담산(間墻山), 구름산(窟雲山), 청룡산(青龍山)에 대해서 이번 발굴로 인하여 지명유래를 바로잡게 되었다. 이렇듯 족보 속에서 잠자고 있는 고유지명, 곧 옛 언어를 살려내면 훗날 이 지명을 사용하여 이 일대에서 장사를 하는 분들이 상호(商號)로 쓴다든지 또는 언어학자들이 연구를 한다든지 할 때 좋은 자료가 된다. 다만, 묘소가 그 자리에 그대로 몇 백 년이고 있다면 모를까, 요즘같이 도시개발로 인하여 부득이 이장할 수밖에 없는 경우, 더군다나 후손들이 본향(本鄕)을 떠나고 없으면 묘소 자리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고유지명은 이렇게 사라진다. 어쨌든 어원 유래는 미상이지만 훗날을 기약하면서 여기에 기록해 둔다.

① 고강동(古康洞) : 밀양변씨 공장공파(恭莊公派) 세거지

연 도	행 정 동	법 정 동	군면구(郡面區)	비 고
1789년		고리동리(古里洞里)	* 부평부 하오정면	* 《호구총수》
1803년			//	* 괴리동(槐里洞)[2]
1809년		//	//	* 괴리(槐里)[3]
1843년		//	//	* 괴리동(槐里洞)[4]
1864년		//	//	* 괴리동(槐里洞)[5]
1895년 5월26일		고리동(古里洞)	* 인천부 부평군 하오정면	* 인천부 편입
1896년 8월4일		//	* 경기도 부평군 하오정면	* 경기도 복구
1901년		//	//	* 속칭, 괴리동(槐里洞)[6]
1911년		고리울(古里洞)	//	* 《조선지지자료》
1914년 3월1일		고리동(古里洞)	* 부천군(富川郡) 신설	* 부평군 폐지 * 부군(府郡) 폐합
1914년 4월1일		고강리(古康里)	* 부천군 오정면 신설 1. 상,하오정면 통합 2. 주화곶면 통합	* 면리(面里) 폐합 * 행정구역 개편안 공포 * 고리울(古里洞)과 강장골(康莊谷) 통합
1973년 7월1일		//	* 김포군 오정면 편입	* 계양면, 오정면 =김포군 편입 * 소래면=시흥군 편입
1975년 10월1일	성지동(城址洞)	고강동(古康洞)	* 부천시 오정면 복구	* 원종리 통합 고강리 통합 * 오쇠리(밖오시) 편입
1988년 1월1일	성지동(城址洞)	//	* 부천시 중구(中區)	* 남구, 중구 설치
1989년 5월1일	고강동(古康洞)	//	//	* 고강동과 원종동 分洞
1990년 1월1일	고강본동 고강1동	//	//	* 고강본동에서 고강1동 分洞

2) 《인동장씨세보(仁同張氏世譜)》 (1803,1914)에 선공감가감역(繕工監假監役)을 지내고 수직(壽職)으로 가선동지중추부사를 받은 28世 장지홍(張志弘, 1793~1889) 부인 정부인 나주임씨(1794~1844) 등의 묘소를 "부평 괴리동(槐里洞) 간곡(間谷)"으로 기록하였다.

3) 《의령남씨족보》 (1809) 19世 남조(南照, 1778~?)의 묘소 위치를 '괴리(槐里)'로 기록하였다.

4) 《청송심씨족보》 (1843) 16世 심종해(沈宗海, 1744~1807)의 묘소를 하오정면 괴리동(槐里洞)으로 기록하였다.

5) 《밀양변씨족보》 (1864)에 많이 기록되어 있다.

6) 《인동장씨족보(仁同張氏族譜)》 (1828년) -28世 장지홍(張志弘, 1793~1889)의 부인 정부인 나주임씨(1794~1844) 등의 묘소를 부평(富平) 괴동(槐里洞)으로 기록하였다.

연 도	행 정 동	법 정 동	군면구(郡面區)	비 고
1993년 2월1일	고강본동	//	* 오정구(吾丁區) 신설	* 남구 -소사구로 * 중구 -원미구와 오정구로 분구
	고강1동			
1995년 8월15일	고강본동	//	* 오정구(梧亭區)으로 개칭	* 개칭
	고강1동			
2007년 9월1일	고강본동	//	* 오정구(梧亭區)	* 2007년 동사무소 명칭을 '동주민센터' 로 변경
	고강1동			
2016년 7월4일	고강본동	//	* 성곡동행정복지센터 관할구역 : 고강본동 고강1동 성곡동	* 구제(區制) 폐지 * 원미구, 소사구, 오정구를 폐지하고 행정복지센터로 개편
	고강1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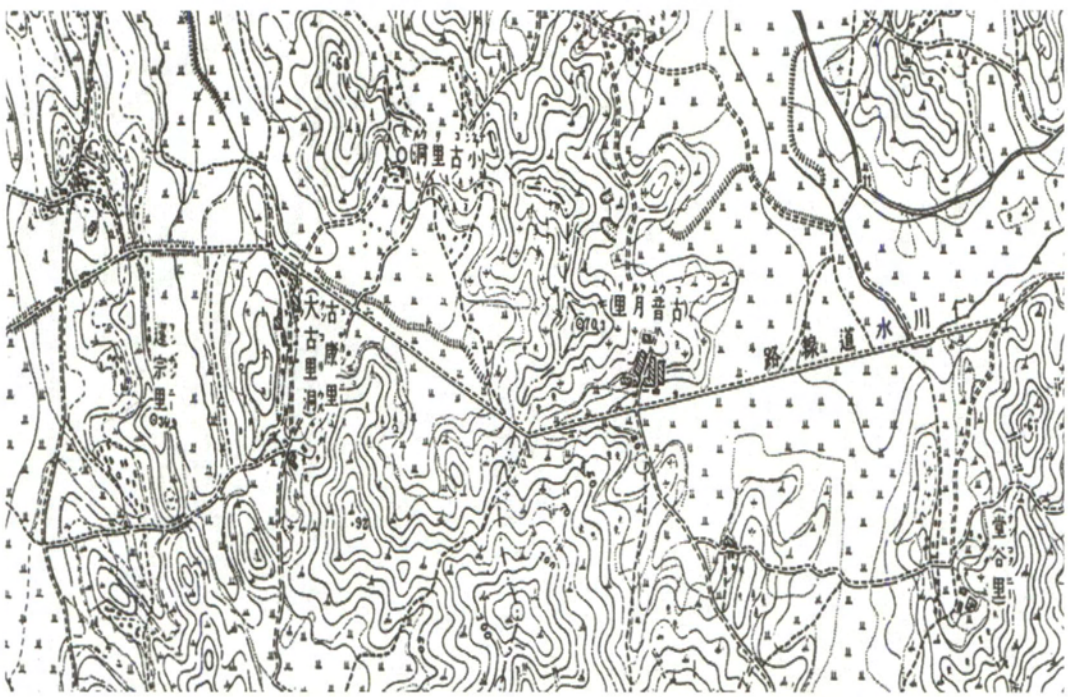


그림1) 조선총독부에서 1913년에 측량하여 1915년에 발행한 고리울 일대의 1:25,000 지도

○ 지명유래 : 고강동(古康洞)은 본래 조선시대 부평군 하오정면 고리동리(古里洞里)로 불러오다가, 1914년 4월 1일 행정구역 통폐합 때 자연마을 고리동(古里洞)에서 '고(古)' 자를 강장골(康莊谷)에서 '강(康)' 자를 따서 고강리(古康里)라 하였다. 고리

동은 큰고리동(大古里洞:고리울)과 작은고리동(小古里洞:강장골)으로 불렀었고, 과거 고강1리, 고강2리, 고강3리로 나뉘었었다. 이후 1973년 소사읍이 부천시로 승격하면서 오정면은 김포군에 잠시 편입되었다가 1975년 부천시 오정면으로 복구하면서 고강리와 원종리, 오쇠리 일부를 합쳐 성지동(城址洞)이라 불렸다. 1989년 성지동이 고강동과 원종동으로 분동되었다. 1988년 구(區) 설치령에 의하여 부천시 중구(中區)가 되었고 1990년 고강본동과 고강1동으로 분동되었다. 1993년 오정구(吾丁區)로 분구(分區) 되었다가 1995년 오정구(梧亭區)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 《밀양변씨족보》(2008)에 기록된 고강동(古康洞)

✤ 한국의 변씨삼절(卞氏三絶)로 불리는 26世 변영만(卞榮晩, 1889~1954), 변영태(卞榮泰, 1892~1969), 변영로(卞榮魯, 1898~1961) 등의 묘소를 고강동(古康洞)으로 기록하였다.

○ 비고 : 2016년 7월 4일 전국 최초로 구제(區制)를 폐지함에 따라 부천시 관내 원미구, 소사구, 오정구를 폐지하고 10개의 행정복지센터로 개편하였다. 고강동은 현재 고강동본, 고강1동, 성곡동을 통합하여 성곡동행정복지센터에 편제되었다.

그림2) 강장골 옛 집터에 세운 밀양변씨 강장골(康莊谷) 시거지암(始居地巖)

② 밀양변씨 강장골(康莊谷) 시거지비(始居地碑)

○ 앞면 : 증 이조참판 관 우군사정(贈 吏曹參判 官 右軍司正)
밀양변공휘예생(密陽卞公諱禮生)
세종 칠 을사(1425)년 2월(世宗 七 乙巳(一四二五)年 二月

○ 뒷면 : 자합천군 야로면 돈평촌 시 이거 부평 하오정면 고리동(흑량리)
(自陜川郡 冶爐面 敦坪村 始 移居 富平 下梧亭面 古里洞(黑梁里)
강장골 314번지(康莊谷 三一四 番地)

서기(西紀) 1965년 3월 7일 계춘(季春)
공장공(恭莊公) 제17대손 대종손(大宗孫) 변창순(卞昌淳) 立

③ 흑량리(黑梁里)

○ 위치 : 정확한 위치 미상. 1433년 당시 부평지역의 전체적인 마을 지명이 명확하게 남아 있는 문헌기록이 없다. 다만, 밀양변씨 고택이 있는 '강장골(康莊洞)' 일대로 추정된다.

○ 지명유래 : '흙이 검은 들판에 자리 잡은 마을'로 추정됨. 곧 토탄(土炭)이 많은 지역임으로 여기에서 유래한 것으로 추측된다. 성현(成俔:1439~1504)이 지은 변종인(卞宗仁)의 신도비(神道碑)에 "어머니께서 일찍이 달을 품에 안는 꿈을 꾸었는데, 이내 잉태하여 선덕(宣德) 8년 계축년(1433) 공을 부평 흑량리(黑梁里)에서 낳았다"라고 하였다.

○ 비고 : '흑량리(黑梁里)'는 고유지명으로 '검돌' 또는 '검은들'이라고 부른다. '흑(黑)'은 '검다'는 의미이고 '량(梁)'은 '돌' 또는 '들'로 읽히기 때문이다. 곧 땅이 검은 들판이었다는 얘기다. 이에 대해서 천소영은,

> "ᄃᆞᄅᆞ>ᄃᆞᆯ 형 지명 표기에 동원된 차자 중 량(梁)은 그 기원이 매우 이른 것으로 보인다. 삼국 역사를 기록한 두 사서(史書에 전하는 사로(斯盧) 6촌(六村)중 량부(梁部), 사량부(沙梁部), 점량부(漸梁部:牟兩)에 쓰인 '량(兩)' 이 바로 그 흔적이다. 일찍이 양주동(1965:565)에서 량(梁)은 현대어 '터(基)' 의 기원형으로 보았고, 일인 삼품창영(三品彰英:1900:418)에서는 '梁(돌)은 촌락을 뜻하는 고대어로서 그 본뜻은 돌(石), 또는 들(野)이라 하였다." [7]

7) 《한국지명어연구》 (천소영, 2003)

라고 하였다. 물론 '량(梁)'에 대한 많은 지명학적 의미요소가 꼭 이것만 있는 것은 아니다. 지명이란 주위 환경에 따라 같은 한자를 쓰더라도 의미가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다만 여기서는 '黑 +梁'을 대비했을 때 '들판(野)'의 의미가 가까운 지명요소로 여겨지기에 연구과제로 남기로 고강동 주변의 자연환경에 대해서 말해보기로 하겠다. 오정동, 대장동, 오곡동, 오쇠동, 과해동 벌판에는 거미줄처럼 얽혀있는 농수로가 많은데, 어느 농수로를 보든 하단에 쌓여있는 토탄층을 쉽게 볼 수 있고, 오쇠동 습지는 현재도 땅을 조금만 파도 토탄층이 나온다. 아울러 들판과 가까운 고강동, 원종동, 오정동 일대에서 아파트나 빌라 건축공사 때 굴착한 흙을 보면 시커먼 토탄(土炭)이 나오는 것을 자주 보았다. 실제로 1949년 인근의 오곡동(五谷洞)에서 질 좋은 토탄이 발견되기도 하였다.

가. 오정(吾丁)에 토탄층(土炭層) 발견

> "김포항도(金浦港都)의 인접지인 부천군 오정면 오곡리 일대에는 무진장의 토탄층이 발현되어 오정면 원종리(遠宗里) 한기학(韓基鶴) 씨가 당국의 허가를 얻어 채취에 착수하였는데, 당국의 말에 의하면 이 토탄은 도대산 품종 중 가장 우수하다 하며, 교통이 편리한 만큼 앞으로는 서울, 인천의 연료난 문제도 해소될 것이라고 한다."
>
> - 출처 : naver 뉴스라이브러리 〉 동아일보 1949년 11월 21일자

위의 내용으로 보면 농사를 짓다가 노지(露地)에서 우연히 발견한 것으로 보인다. 과거 한강변인 김포평야부터 오쇠동 · 대장동 · 고강동 · 원종1동까지, 이 일대는 한강의 잦은 범람(氾濫)으로 수 만년 동안 광활한 습지의 일부였기 때문이다. 아닌 게 아니라 중동 · 상동 · 대장동 · 오정동 들판은 70~80년까지만 해도 홍수가 나면 바다처럼 변해기 일쑤였다. 1925년 을축(乙丑) 장마 때 신문기사를 보면,

나. 부평 일대 참재(慘災)

> "경인선 부평역 전에 보이는 부천, 김포, 시흥 일대를 연접(連接)한 2만6천여 정보의 광활한 평야는 이번 홍수에 일망무제(一望無際)한 바다로 화하야 농작물 피해는 이로 말할 수 업는 비참을 일으워 그 면 안의 일부인 부천군 방면은 소사수리조합(素砂水利組合) 여섯 곳의 제방이 무너져 오정면 · 계남면 · 계양면 · 부내면의 토지는 전부 무너져 넘어오는 물이 범람하야 막대한 피해를 입었는데, 계양면에는 지붕까지 넘은 것이 1백34호, 무너진 가옥이 83호, 유실된 가옥이 26호이라는데, 배로 구호하다가 배가 전복되야 ……오정

면과 계남면의 피해는 더욱이 만흐리라 하나 아즉까지도 범람이 물이 빠지지 안어서 자세한 수자는 아지를 못하나……" -출처 : naver 뉴스라이브러리 〉 동아일보 1925년 7월 24일자

이외에도 오정면 일대 홍수로 인한 범람에 대한 자료는 무수하다. 이에 대해서,

"부천지역에 많이 보이는 토탄층(土炭層)의 존재는 이 지역이 선사시대에 한동안 습지로 남아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부천시와 유사한 토층 구조를 가진 것으로 알려진 일산지역에서도 토탄층 속에서 신석기시대의 토기들이 출토된 바 있어서 부천의 토탄층이 산재하는 지역에서 신석기시대의 유적이 나타날 가능성이 다분히 있다" [8]

라고 한 점으로 미루어 보아 흑량리(黑梁里)는 '흙이 검은 들판에 자리 잡은 마을'로 읽혀진다. 다만 정확한 위치는 미상이다.

④ 느리울(槐里洞, 槐里, 槐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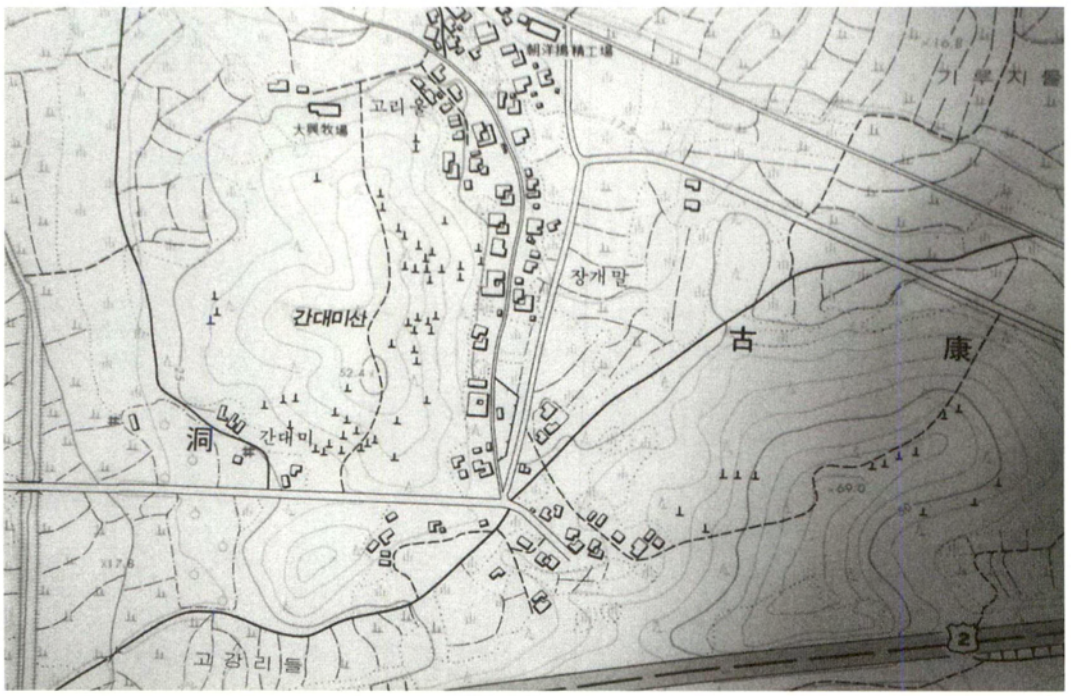


그림3) 1976년 국립지리원 1:5,000 간담산 일대 지도

8) 《부천시사》 (2002)

○ 위치 : 간담산/간담뫼(間墻山) 일대의 現 부광아파트, 건우아파트, 삼두아파트, 서원아파트, 고강동성당, 부촌아파트 일대의 밋밋하게 길게 뻗은 산 아래에 있던 마을이다.

☞ 그림1), 그림3)

○ 지명유래 : 마을이 자리 잡고 있는 간담산 산줄기가 길게 늘어진 데서 '느리울'이라 부르면서 유래한 것으로 여겨진다. 그림3)에서 보듯이 간담산 아래로 마을이 길게 늘어져 자리 잡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마을을 '고리울'이라 불렀다. 자연마을 고리울(大古里洞)과 강장골(小古里洞)은 엄연하게 나뉘었던 마을이었다. 고리울은 길쭉한 간담산 아래로 마을이 줄느런히 자리 잡은 마을이었고, 강장골은 벌판 건너 능골산 아래에 자리 잡은 마을이었다. 공장공파 대종손 변창순 씨에 의하면 고리울은 공장공 변종인의 손자 변희겸(卞希謙)이 분가하여 살던 마을로 간담산(間墻山)을 기준으로 동쪽을 산야지 마을이라고 하였다. 또한 옛 노인들의 구전에 의하면 노거수 느티나무가 특색으로 이곳에 산재하여 있어 불리워진 지명유래라고 하였다고 하였다. 그러나 현재 이 일대에 느티나무가 한 그루도 없다.

어쨌든《밀양변씨족보》(1864,1906)를 보면 간담뫼(間墻山) 일대의 묘소는 모두 '느리울(槐里洞)'로 기록하였고, 강장골에 위치한 묘소는 한결같이 강장골(康莊洞)로 기록하였다. 곧 강장골과 고리울 두 마을을 확실하게 구분해서 기록했다는 말이다. 또한 고리울을 '건너말'이라고 불렀는데 나중에 생기는 마을은 보편적으로 처음 형성된 자연마을을 기준으로 하여 건너 쪽에 있으면 '건너말'이 되고, 마을이 새로 생기면 '새텃말(新村)'이라 명칭을 붙인다. 자연마을의 명칭은 그냥 짓는 것 같아도 이렇게 나름대로의 명확한 기준이 있다.

○ 이칭

✤ 건너말 :《부천역사연구》(최현수, 1993)에서 "일명 괴리동(槐里洞). 혹은 고리울이 아닌가 한다. 서원아파트 아래 고강주유소 부근이다."라고 하였다. 당시 답사 조사한 최현수 선생은 어느 정도 흔적을 찾기는 찾았으나 더 이상 연구를 하지 못하고 안타깝게도 졸하였다.

✤ 고리울 :《부천문화의 재발견》(부천문화원, 1996)에서 "일명, 괴리동(槐里洞)으로 이곳은 고강동의 한 축이기도 하다."라고 하였다.

○ 고리울(古里洞)의 원형 : 느리울/느리골(槐里洞)로 추정

'느리울(槐里洞,槐里)'은 지명학에서 마을의 지형이 길게 늘어졌거나 개울이나 강물이 느릿느릿 흐르는 지형을 '느리울, 늘골, 느러니, 느내' 등으로 연구되어 있다. 지금은 그 지명 개체수가 거의 사라진 화석화(化石化)된 이두식 지명이다.

죽은 자는 말이 없지만 묘소는 말을 한다. 족보 속에 등장하는 묘소의 향토지명들은 금방울

옥방울 같이 소중한 지명이다. 조상님들의 묘소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당시에 부르던 묘소의 지명과 좌향(坐向)을 대단히 정확하게 기록하기에 더욱 신빙성이 많다고 볼 수 있다..

○ 《밀양변씨족보》(1864, 1906)에 기록된 느리울(槐里洞, 槐里, 槐洞)

✤ 하오정(下梧亭) 괴리동(槐里洞) : 18世 변동필(卞東弼, 1661~1737)의 묘소

✤ 괴리동(槐里洞) : 20世 변광후(卞光垕, 1742~?)의 묘소

✤ 괴동(槐洞) 굴운산(屈雲山) : 21世 변익조(卞翼祚, 1759~?)의 묘소

✤ 괴동(槐洞) 지루지(支樓支) : 21世 변삼조(卞參祚, 1742~?)의 묘소

✤ 부평 괴동(槐洞) 간담산(間淡山) : 21世 변석조(卞碩祚:?)의 묘소

✤ 괴동(槐洞) 굴운산(屈雲山) : 21世 변익조(卞翼祚, 1759~?)의 묘소

✤ 괴동(槐洞) 백호 밖 기슭(白虎外麓) : 22世 변희용(卞熙鏞, 1806~?)의 묘소

✤ 괴리동(槐里洞) 차밭(茶田) : 22世 변성용(卞聖鏞, 1776~1835)의 묘소

✤ 괴리동(槐里洞) 오룡가리(五隴柯里) : 22世 변대용(卞大鏞, 1764~1808)의 묘소

✤ 괴리동(槐里洞) 안산골(案山谷) : 22世 변우용(卞羽鏞, 1786~1811)의 묘소

✤ 괴동(槐洞) 오룡가리(五隴柯里) : 22世 변대용(卞大鏞, 1764~1808)의 묘소

✤ 괴리동(魁里洞) 차밭(茶田) : 22世 변성용(卞聖鏞, 1776~1835)의 부인 밀양박씨 묘소

✤ 괴동(槐洞) 백호 밖 기슭(白虎外麓) : 22世 변희용(卞熙鏞, 1806~?)의 묘소

✤ 부평 괴리동(槐里洞) 간담산(間淡山) : 23世 변해룡卞海龍, 1826~1853)의 묘소

✤ 괴동(槐洞) : 23世 변해식(卞海湜, 1832~1870)의 묘소

✤ 괴동(槐洞) : 23世 변해근(卞海根, 1804~?)의 묘소

✤ 괴동(槐洞) 간담산(間墻山) : 23世 변해룡卞海龍, 1826~1853)의 묘소

✤ 괴리(槐里) : 23世 변해우(卞海禹, 1817~1879)의 묘소

✤ 괴동(槐洞) 차밭(茶田) : 24世 변구상(卞龜相, 1838~?)의 부인 강릉김씨 묘소

✤ 괴리(槐里) 가후(家後) : 24世 변구상(卞龜相, 1838~?)의 묘소

✤ 괴리(槐里) : 24世 변익상(卞益相, 1848~?)의 묘소

○ 밀양변씨 후손이 자호(自號)로 삼은 느리울(槐里)

✤ 19世 변세언(卞世彦, 1694~1783)의 자호(自號)[9]

변세언은 경종(景宗) 3년(1723) 계묘(癸卯) 식년시(式年試) 진사(進士) 3등 40위로 합격한 인물로 당시 거주지는 부평이었다. 족보를 보면 변세언은 자호(自號)를 '괴리(槐里)'로 지었

9) 《밀양변씨족보》(1864) 列 참조 -- 《밀양변씨족보》(2008) 3권 43쪽

다. 곧 자기가 태어난 마을의 고유지명을 자호로 삼았다는 것은 법정동은 고리동(古里洞)이지만 마을 사람들은 속칭 '느리울(槐里)'로 부르고 썼다는 얘기다.

필자 고향의 법정명은 신추리(新楸里)이지만 태어나 자란 곳의 자연마을은 '용댕이(龍堂里)'이다. 이에 필자 역시도 자호를 '용당(龍堂)'으로 하였다. 고금을 상고하면 고향의 고유지명으로 자호(自號)를 지은 예는 많다. 변영만의 자호 '산강재(山康齋)' 역시도 강장골(康莊洞)에서 '강(康)' 자를 따서 지은 것이다.

○ 《의령남씨족보(宜寧南氏族譜)》(1809)에 기록된 느리울(槐里)

✤ 19世 남조(南照)의 부인 양천허씨(1719~1779)의 묘소를 '괴리(槐里)'[10]로 기록했다.

○ 《인동장씨세보(仁同張氏世譜)》(1803,1914)에 기록된 느리울(槐里洞)

✤ 선공감가감역(繕工監假監役)을 지내고 수직(壽職)으로 가선동지중추부사를 받은 28世 장지홍(張志弘, 1793~1889) 부인 정부인 나주임씨(1794~1844) 등의 묘소를 "부평 괴리동(槐里洞) 샛골(間谷)"로 기록하였다.

○ 《청송심씨족보》(1843)에 기록된 느리울(槐里洞)

✤ 16世 심종해(沈宗海, 1744~1807)의 묘소를 하오정면 괴리동(槐里洞)로 기록하였다.

○ 고리울(古里洞)과 느리울(槐里洞)의 연관 관계

위에 보았다시피 같은 마을에서 오랫동안 살았던 밀양변씨, 의령남씨, 청송심씨, 인동장씨 족보에 한결같이 "槐里洞 / 槐里 / 槐洞"으로 기록했다는 것은 '괴리(槐里)'가 보편적인 지명요소이고 '고리동(古里洞'은 법정지명으로만 존재했다는 말이다.

1906년 《밀양변씨족보》에 18世 변동필(卞東弼, 1661~1737)과 20世 변광후(卞光垕, 1742~?)의 묘소[11] 단 2基만 고리동(古里洞)으로 기록하였을 뿐, 나머지는 모두 "槐里洞 / 槐里 / 槐洞"으로 기록하였다. 재미난 것은 변광후의 경우 1864년 《밀양변씨족보》에는 괴리동(槐里洞)으로 기록하였다가 1906년 《밀양변씨족보》에는 '고리동(古里洞)'로 기록하였다는 점이다. 왜 그랬을까. 그렇다면 왜 이 동네 사람들은 오랜 세월 '고리동(古里洞)'이 아닌 "槐里洞 / 槐里 / 槐洞"으로 기록했을까 하는 의문이 남는다. 그 의문을 풀기 위해서는 먼저 어원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겠다. 이에 대해서 연구할 시간이 부족하여 지금 연구 중에 있으므로 좀 더 고증을 거친 후에 다시 거론하기로 하겠다. 차후 연구과제로 남기고 우선 여기에 기록해둔다.

---

10) 《의령남씨족보(宜寧南氏族譜)》(1809, 의령남씨족보소 발행)

11) 《밀양변씨족보》(1906) 3권 47쪽 - 《밀양변씨족보》(1864)에는 괴리동(槐里洞)으로 기록.

그림4) 고리울 마을 표석 - 밀양변씨 공장공파 대종손 변창순 씨 고택 앞

⑤ 고리울(古里洞)

○ 고리울의 본래 위치 : 간담산/간담뫼(間墻山) 일대의 부광아파트, 동광 모닝스카이아파트, 건우아파트, 삼두아파트, 서원아파트, 고강동성당, 삼우아파트, 부촌아파트 일대의 밋밋하게 길게 뻗은 산 아래에 있던 마을이다. ☞ 그림1), 그림3)

○ 지명유래 : '고리울(古里洞)'은 '느리울(槐里洞 / 槐里 / 槐洞)'의 이두식 지명으로 추정된다. 고리울은 오랜 세월 법정명으로 쓰면서도 족보에 기록하기는 속칭 '느리울(槐里洞 / 槐里 / 槐洞)'로 오랜 세월 부르고 기록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 고리울에 수 백년 세거하고 있는 《밀양변씨족보》(1864,1906)에 보면 '고리울(古里洞)'로 기록하지 않고 한결같이 "槐里洞 / 槐里 / 槐洞"으로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의령남씨족보나 청송심씨나 인동장씨족보에도 "槐里 / 槐里 / 槐洞"으로 기록했다. 따라서 필자는 '고리울(古里洞)'의 원형을 '느리울'로 추정하고 있다. 《조선지지자료》(1911)에 "고리울(古里洞)"로 기록하였다. ☞ ④ 느리울

○ 원형 : 괴리동(槐里洞)은 지명학에서 속칭 '느리울'로 부른다.

○ 《밀양변씨족보》(1906)에 기록된 고리울(古里洞)

✤ 18世 변동필(卞東弼, 1661~1737)과 20世 변광후(卞光垕, 1742~?) 묘소[12] 단 2基만 고리동(古里洞)으로 기록하였을 뿐이다.

○ 이칭 : 고리동(古利洞) - 《연안이씨 판사공파대보(延安李氏 判事公派大譜)》(소부판사공파대종회, 2002)를 보면, 이천보의 2男 이준원(李準源, 1754~1814)의 묘소 위치를 "富川郡 吾丁面 古康里 古利洞"으로 기록하였다.

⑥ 강장골(康莊洞)

○ 위치 : 현재 고강동 29통 4반 지역으로 밀양변씨 시거지(始居地)가 있는 공장공종중(恭莊公宗中) 대종손 변창순 씨가 살고 있는 마을이다. ☞ 그림10)

○ 지명유래 : 부천시향토유적 제1호인 변종인(卞宗仁, 1433~1500)의 시호(諡號) 공장공(恭莊公)에서 유래하였다. 강장골은 변종인의 생거지(生居地)이다.

○ 왜곡된 지명유래 : 마을 앞에 세운 강상골 안내판을 보면 "강상골은 밀양변씨 집안의 선영이 있는 골짜기로 조선지지자료에는 강상곡(綱常谷)으로 나와 있다. 강상골 아래는 골짜기가 비탈져 있었다. 비탈진 골짜기라는 뜻으로 벼리골이 되었고 한자로 표기 되면서 강상골로 명명한 것이다."라고 왜곡하여 기록하였다. 변종인을 비롯한 밀양변씨 후손들 묘소를 1864년 《밀양변씨족보》를 비롯한 여러 족보에 "강장골(康莊洞)"로 기록되어 있는데 참으로 안타깝기만 하다. 변종인의 묘소 아래 동네가 곧 '공장골(恭莊谷)이다. 따라서 원형을 기록하는 것이 옳은 지명유래이다.

○ 변천과정 : 공장골(恭莊谷) → 강장골(康莊谷) → 강상골(綱常谷) → 강상골(康上谷)의 변형이 있었으나 본래는 공장골(恭莊谷)이다. 다만 《조선지지자료》(1911)에 표기한 '강상골(綱常谷)'은 '강장골(康莊谷)'에 대하여 언어의 변화와 아울러 의미를 좋게 하기 위하여 견강부회한 지명으로 보인다. 강상(綱常)이란 유교문화의 덕목인 삼강(三綱)과 오상(五常)을 말한다. 삼강은 군위신강(君爲臣綱) · 부위자강(父爲子綱) · 부위부강(夫爲婦綱)을 말한다. 오상은 부자유친 · 군신유의 · 부부유별 · 장유유서 · 붕우유신을 말한다.

12) 《밀양변씨족보》(1906) 3권 p47 - 《밀양변씨족보》(1864)에는 괴리동(槐里洞)으로 기록하였다.

○ 이칭 : 강장골(康莊洞) / 康莊谷)[13)-14)], 강상골(綱常谷)[15)], 강상골(康上谷)[16)-17)]
강장굴(강장동)[18)], 강장동(康壯洞)[19)], 장장골(莊將谷)[20)], 장정골(莊丁谷)[21)]

○ 《밀양변씨족보》(1864)에 기록된 강장골(康莊洞)

✤ 강장골(康莊洞) : 11世 변종인(卞宗仁, 1433~1500)의 묘소
강장골(康莊洞) : 20世 변광섭(卞光燮, 1740~?)의 부인 순흥안씨 묘소
강장골(康莊洞) : 21世 변두조(卞斗祚, 1757~1818)의 묘소
강장골(康莊谷) : 21世 변의조(卞義祚, 1792~?) 의 부인 함열남궁씨 묘소

✤ 기타 묘소를 선영하(先塋下)라고 기록한 묘소는 많으나 여기에서는 제외하였다.

○ 《밀양변씨족보》(1864)에 기록된 강장골(康莊洞)

✤ 강장골(康莊洞) : 11世 변종인(卞宗仁, 1433~1500)의 묘소
강장골(康莊洞) : 20世 변광섭(卞光燮, 1740~?)의 부인 순흥안씨 묘소
강장골(康莊洞) : 21世 변두조(卞斗祚, 1757~1818)의 묘소
강장골(康莊洞) : 22世 변하용(卞夏鏞, 1864~?)의 묘소

⑦ 간담산(間墻山) : 일명, 간데미

○ 위치 : 그림5)에 보이는 '간담산(間墻山)'을 경계로 고강동과 원종동이 나뉜다. 고강동 지역의 부광아파트, 동광모닝스카이아파트, 건우아파트, 삼두아파트, 서원아파트, 고강동 성당, 삼우아파트, 부촌아파트 일대의 밋밋하게 길게 뻗은 산이다. ☞ 그림5)

○ 지명유래 : 과거 수역리(壽域里:현, 원종동)와 고리울(古里洞:현, 고강동) 사이를 경계 짓는 담처럼 길게 뻗어 있다고 해서 유래한 지명이다. 1864년, 1906년에 발간한 밀양변씨 족보를 보면 '사이 간(間)' 자와 담을 뜻하는 '담 장(墻)' 자를 써서 '간담산(間墻山)'으로 기록하였다. 속칭 '간대미, 간데미'로 부른다.

---

13) 《밀양변씨족보》(1864) 변종인의 묘소
14) 《부천예총》(1977)
15) 《조선지지자료》(조선총독부, 1911)
16) 변창순 씨 소유의 빌딩을 '강상빌딩'이라 하고 목욕탕을 '강상탕(康上湯)'이라 하였다.
17) 《부천사연구》(최현수, 1993)
18) 《한국지명총람》 17. (한글학회, 1985)
19) 《한국지명총람》 17. (한글학회, 1985)
20) 《한국지명총람》 17. (한글학회, 1985)
21) 《부천 문화의 재발견》(부천문화원, 199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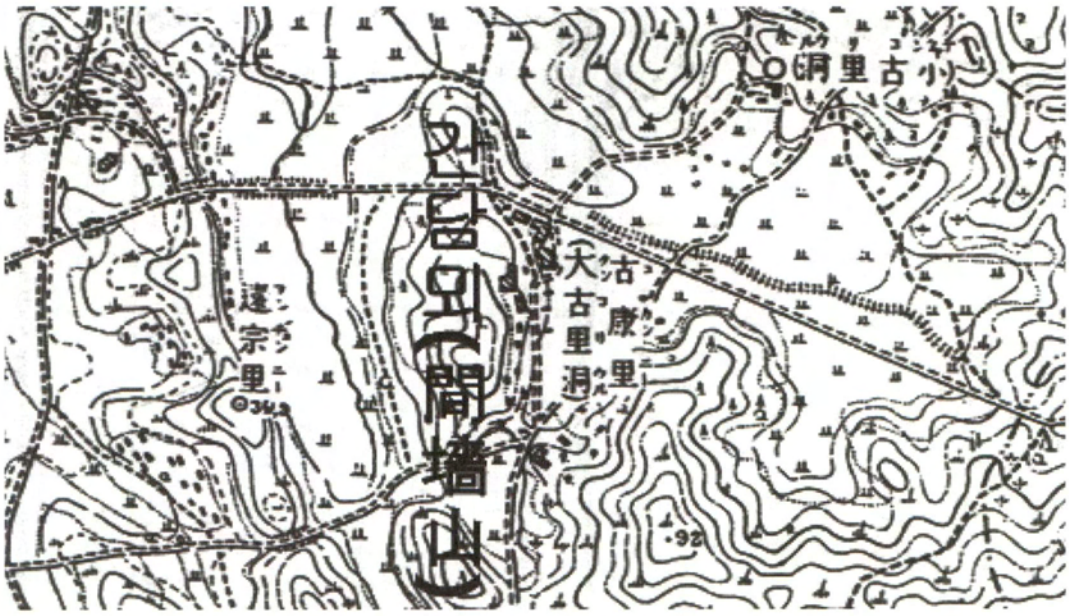


그림5) 1915년 1:25,000 지도

○ 출처 : 《밀양변씨족보》(1864)에 기록된 간담뫼(間墻山)

✤ 간담산(間墻山) : 21世 변석조(卞碩祚)의 묘소

23世 변치용卞致鏞, 1806~1848)의 묘소

23世 변해룡卞海龍, 1826~1853)의 묘소

○ 이칭 : ✤ 간담산(簡淡山)[22], 간담산(間淡山)[23)-24)], 간담산(幹淡山)[25]

✤ 감담뫼(肝膽山)[26)-27)], 간데미(肝膽山)[28)-29)-30)], 간대미산[31]

✤ 간데미(일명, 간뎀)[32]으로 표기하였으나 모두 오기(誤記)로 빚어진 지명들이다.

---

22) 《밀양변씨족보》(1864)

23) 《밀양변씨족보》(1906)

24) 《부천 문화의 재발견》(부천문화원, 1996)에서 "간담뫼(肝膽山) 혹은 간담산(間淡山) : 서원아파트 너머 부천프라자(구, 나드리쇼핑) 못 미친 원종동 쪽으로 고강동과 원종동의 경계지역이다. 간담산(間淡山)에 차밭(茶田)이 있었다.

25) 《밀양변씨족보》(1906)

26) 《조선지지자료》(조선총독부, 1911)

27) 《富川市史》(부천시사편찬위원회, 1988)

28) 《부천 문화의 재발견》(부천문화원, 1996) - 《부천역사연구》(최현수, 1993)

29) 《富川市史》(부천시사편찬위원회, 2002)

30) 《부천의 땅이름 이야기》(부천문화원, 2001)

31) 1976년 국립지리원 1:5,000 발행지도

32) 디지털부천문화대전 2008

○ 《부천의 땅이름 이야기》(한도훈, 2001)에서 왜곡한 지명유래

간데미(肝膽山)

"조선지지자료에는 감담뫼라고 해서 한자로는 간담산(肝膽山)이라고 표기하고 있다. 이는 간과 쓸개의 산이라는 의미이다. 그래서 감담뫼로 표기하기도 하지만 간데미가 맞다. 간데미를 어원적으로 풀이하면 '데미'는 둠에서 왔다. 둠이란 둥근, 둘러싸인, 뭉침, 덩이의 의미로 쓰였다……간은 간(干)으로 예전에는 한(韓,漢,翰), 환(丸,桓), 감(邯)과 더불어 '크다'는 의미로 쓰였다……그러므로 간데미는 크고 둥근 언덕이라는 말이다. 간데미는 예부터 산으로 여긴 것이 아니라 언덕으로 여겼다. 또한 이 언덕은 덩치가 큰 것이 아니라 그 곳에 신성한 무엇이 있어서 크다는 의미를 나타냈을 것으로 보인다. 삼한시대에 족장이 기거했다든지 하는 곳이어서 간데미라는 땅이름이 탄생하게 되었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라고 하였다. '간담산(間墻山)'의 지명유래는 대단히 단순한 지명이다. '사이 간(間)' 자와 담을 뜻하는 '담 장(墻)' 자를 써서 유래한 지명임을 까마득히 모르고 삼한시대 족장까지 끌고 간 것은 잘못이다.

향토지명은 기본적으로 한자지명과 이두식 지명과 고유지명 그리고 한자지명과 고유지명이 복합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를 명확하게 구분할 줄 알아야 한다. 필자는 향토지명을 30년 가까이 연구해 온 사람으로, 왜곡된 지명을 많이 보았지만, 툭하면 삼한시대 족장이 살았던 곳이라고 운운하는 불가사의한 지명유래를 처음 보았다.

⑧ 식골(息谷)

○ 위치 : 곰달내고개 너머 은행나무단지에서부터 고리울삼거리까지의 긴 골짜기를 말한다. 경인고속도로로 인해 잘렸지만 아주 큰 골짜기였다. 인근에 곰달내서낭당이 있었다. ☞ 그림6)

○ 지명유래 : 자세한 지명유래는 미상이다. 차후 연구과제로 남긴다. '식골(息谷)'은 지명학에서 '늘 식(息)' 자로 읽혀 길게 늘어진 지형을 이르는 이두식(吏讀式) 지명으로서 보편적으로 '늘골'로 읽히는 지명이다.

○ 비고 : 《조선지지자료》(1911)에는 '식골(植谷)'로 기록하였다.

○ 출처 : 《밀양변씨》(1864,1906) 족보에 18世 변세범(卞世範, 1698~1763)의 묘소를 '하오정(下梧亭) 식골(息谷)'로 기록하였다.

○ 비고 : 기타 《밀양변씨》(1864,1906) 족보에 기록된 '시골(蒔谷)'은 묘소 위치로 보아 '식골(植谷)'로 보인다.

그림6) 1970년 1:25,000 지도 -굵은 글씨는 필자가 편집함.

- ✤ 시골(蒔谷) : 21世 변두조(卞斗祚, 1757~1818)의 부인 전주이씨 묘소
- ✤ 시골(蒔谷) : 22世 변덕용(卞德鏞, 1786~1864)의 묘소
- ✤ 시골(蒔谷) : 23世 변해근(卞海根, 1804~?)의 부인 전주이씨 묘소
- ✤ 시골(蒔谷) : 23世 변해근(卞海根, 1804~?)의 묘소

○ 이칭 : 은행단지 - ☞ 그림6)

고강동 12통 지역으로 은행나무단지였다가 이후 건설업자가 매입하여 집을 짓다가 부도가 나자 채권은행에서 은행직원들의 사택용으로 매입을 하게 되면서, 다시 또 은행단지의 별칭을 얻게 되었으니, 별칭으로 부르는 은행단지는 엎어지나 되치나 은행단지로서의 지명을 유지하게 되었으니, 지명도 타고난 운명을 있는 모양이다.

⑨ 곰달내고개(古音達乃峴)

○ 위 치 : 고강본동과 서울시 신월1동과 신월7동 일부의 경계. ☞ 그림6), 그림7), 그림8)

○ 지명유래 : 고강동에서 신월동으로 넘어가는 고개를 이르는 지명이다. 옛 양천군(陽川郡) 장군소면(將軍所面) 고음달리(古音月里)로 넘어가는 고개여서 유래한 지명이다. 고음달리

그림7) 1915년 지도. 고음달리(古音月里)에서 고강리(古康里)로 이어지는 인천수도선로로 가운데 영어 V 자로 꺾어진 일대가 곰달내고개이다.

(古音月里)는 본래 옛 양천군 장군소면 고음달리(古音月里)였다가, 1914년 김포군 양서면이 되었다가 1963년 서울특별시에 편입되어 양천구 신월동이 되었다.

○ 《밀양변씨》(1864,1906) 족보에 기록된 곰달내고개

✤ 고달현(古達峴) : 21世 변심조(卞心祚, 1782~1847)의 묘소
21世 변규조(卞奎祚, 1762~?)의 부인 밀양박씨 묘소
22世 변태용(卞泰鏞, 1818~1848)의 묘소

✤ 웅현(熊峴) : 20世 변광한(卞光漢:?)의 부인 순흥안씨 묘소
22世 변대용(卞大鏞, 1764~1808)의 부인 전주이씨 묘소

✤ 고달현(高達峴) : 22世 변태용(卞泰鏞, 1818~1848)의 묘소

○ 기타 문헌에 기록된 곰달내고개

✤ 고음달내현(古音達乃峴) : 《대동여지도(大東輿地圖)》(1864)
《대동지지(大東地志)》〈정리고(程里考)〉(1864)

✤ 고음달ᄂᆡ고ᄀᆡ(古音月山嶺) : 《조선지지자료》(1911)

○ 비고 : 《대동여지도》(1864) 및 《대동지지》(1864)의 곰달내고개(古音達乃峴)가 원형으로 이후 여러 기록들은 이칭이다. 다만 《조선지지자료》(1911)에서는 앞에 먼저 고유어를 쓰고 뒤에 한자 넣어서 **"고음달늬고기(古音月山嶺) : 부평군 하오정면(下吾丁面)"**으로 기록하였다. 한자로 쓰기는 월(月)로 쓰지만 우리말은 달이니 '곰달내'로 읽는 것이다. 고음달리(古音月里)의 지명 유래를 밝히는데 좋은 자료가 되고 있다. 따라서 고음달리(古音月里)의 '월(月)'은 하늘의 달을 뜻하는 게 아니고, 높은 지대일 때 '달(達)' 자를 주로 지명으로 써왔다.

✤ 고구려 지명	✤ 신라 경덕왕 개칭
달을성현(達乙省縣)	고봉현(高烽縣)
달홀(達忽)	고성군(高城郡)
오사함달현(烏斯含達縣)	토산현(土山縣)
부사달현(夫斯達縣)	송산현(松山縣)

- 출처《삼국사기》〈지리지〉 권35

위에 발췌한 지명들은 고구려 계통의 지명으로 달(達)을 고(高)와 산(山)으로 일관되게 개칭하였다. 지명학에서는 위와 같이 일관되게 바뀌는 한자지명의 개체수가 많을 때 비로소 표준을 얻고 지명으로서의 의미부여를 올바르게 받는다. 따라서 고음달리(古音月里)는 높은 지대에 위치한 마을은 맞다. 사실 과거 양천군 지역은 한강변에 위치하여 여름이면 한강이 범람하여 오랜 세월 동안 수해가 막심했던 지역이다. 오죽하면 '양천 원님은 올 때도 울고 나갈 때도 운다.'는 속담이 있을 정도였다. 곧 '고음달늬고기'의 '늬'는 곧 '川'을 의미하는 우리말이므로 '내(川)'와 관련된 지명으로 보인다. 《조선지지자료》(1911년)에 당시 부천지역의 개울을 기록한 지명을 좀 보고가자.

✤ 별인늬(別仁川) : 원미산 칠일약수터에서 발원

✤ 용못늬(龍池川) : 원미산 춘덕약수터에서 발원

이에 대해서 지명학자 배우리는,

"서울 양천구의 신월동(新月洞)은 큰 들의 내란 뜻에서 불린 듯한 '곰달내' 란 마을이었다 … 서울시에서 몇 년 전 이 곳을 지나는 길을 '곰달래길' 이라 하여 사라질 뻔한 이름을 되살려 놓았으나, 엄연히 내(川)의 이름이어서 '곰달내' 인 것을 '곰달래' 로 해 놓은 것에

아쉬움이 있다. '곰달내' 는 원래 '큰 들판의 내' 란 뜻의 '검달내' 인 듯하다.[33]

라고 하였다. 〈대동여지도(大東輿地圖)〉에도 '고음달내(古音達乃)'로 잘 나타나 있다. 따라서 '곰달내'의 유래는 마을을 흐르던 개울을 '곰달내(古音月川) 또는 곰달내(古音達乃)로 부르는 것으로 보아 동네 이름에 개울의 우리말 '내' 자를 붙여서 것이다. 아닌 게 아니라 이 동네에는 큰 개울이 많이 있었다. 〈대동여지도〉에 나타난 노선을 따라 따라가 보면 곰달내고개(고강동) → 멧마루(遠宗洞) → 성골(城谷) → 당아래고개 → 조마루(朝宗里) → 깊은구지(深谷洞) → 산골(山谷:송내동) → 중앙병원(송내동) → 비루고개(星峴)를 넘어가는 노선도가 그려진다. 《대동지지》 〈정리고(程里考)〉에 보면.

○ 鐵串浦 西 ○見三十八之十六行 古音達乃峴 十八里 分岐 星峴二十五里自楊花 渡至岐灘橋八里 梧里谷七里 星峴三十里行人多由此

: 철곶포 서쪽 ○38쪽 16행을 보라 곰달내고개 18리 갈림길. 비루고개 25리 여기에서 양화쪽으로 기탄교 8리, 오리곡 7리, 벼리고개 30리이며 길손이 이 길로 많이 다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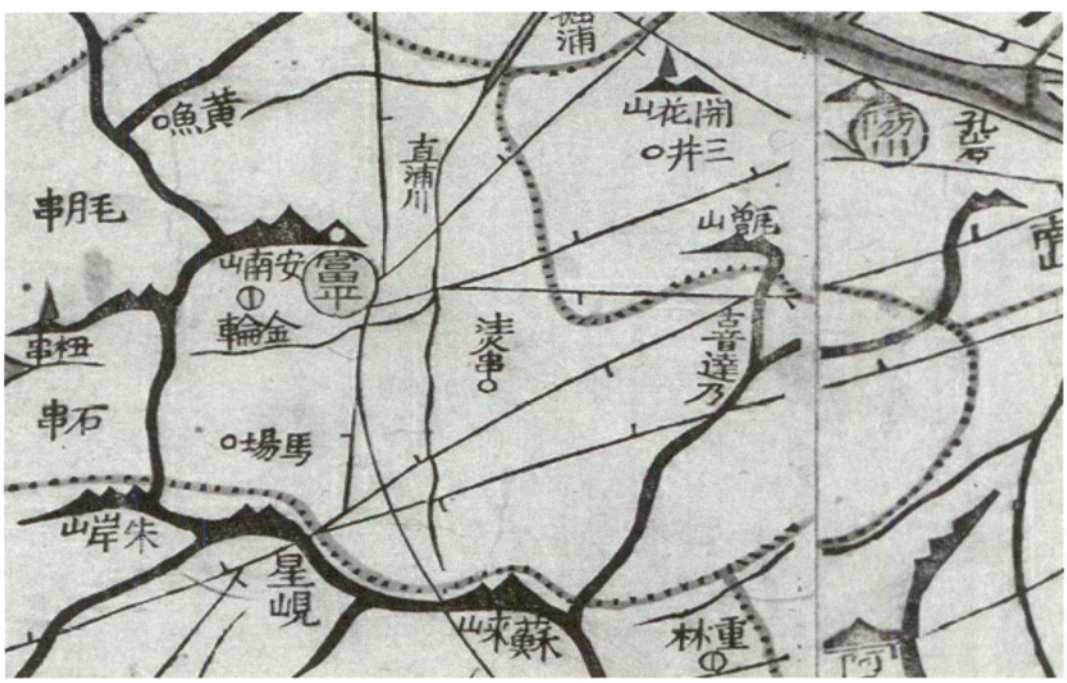


그림8) 1864년 대동여지도에 나타나는 곰달내고개(古音達乃峴)

33) [출처] 월악산 땅이름 〈산이름 땅이름〉 한국땅이름학회 배우리 명예회장

○ 古音達乃峴 西○見本板九行 富平 二十里京五十五里 ○西海邊十五里

: 곰달내고개 서쪽 ○본판 9행을 보라 부평 20리 서울 50리 ○서쪽 바닷가 15리

라고 기록하고 있다. 곧 '고음월(古音月川:곰달내)'를 고유어로 기록한 이두식 지명이다

⑩ 안산골(案山谷)

○ 위치 : 식골(은행단지) 옆이다. ☞ 그림6)

○ 지명유래 : 마을 앞에 위치한 산을 보편적으로 안산이라고 부른다. 풍수지리상 혈(血)이 귀인(貴人)이라면 귀인 앞에 놓인 책상과 같다고 하여, 한자로 '책상 안(案)' 자를 넣어 안산이라고 부르는 것일 뿐 정식 명칭의 산명(山名)이 아니다. 족보에 무수하게 나타나는 앞산(前山), 안산(案山)이 이에 해당되는 산들이다.

○ 출처 : 《밀양변씨》 (1864,1906) 족보에 22世 변문용(卞文鏞:1783~?) 등의 묘소를 "안산골(案山谷)" 또는 "안산(案山)"으로 기록하였다.

⑪ 지루지(支樓支)

○ 위치 : 고리울 삼거리 일대를 지칭한다. ☞ 그림9)

○ 지명유래 : 자세한 지명유래는 미상이다. 차후 연구과제로 남긴다.

○ 출처 : 《밀양변씨》 (1864,1906) 족보에 20世 변광후(卞光垕, 1742~?) 등의 묘소를 "지루지(支樓支)"로 기록하였다.

○ 비고 : 작은 지역에서 지명을 대단히 국한적(局限的)으로 쪼개서 사용하고 있다.

⑫ 보농산(保農山)

○ 위치 : 구름산 아래 고리울 삼거리 일대를 총칭하여 지칭한다. ☞ 그림9)

○ 지명유래 : 자세한 지명유래는 미상이다.

○ 출처 : 《밀양변씨》 (1864,1906) 족보에 기록된 보농산(保農山)

✤ 21世 변성조(卞星祚:?)의 부인 칠원윤씨 묘소

✤ 22世 변시용(卞時鏞:?)의 부인 전주이씨 묘소

✤ 22世 변문용(卞文鏞, 1783~?)의 부인 전주이씨 묘소[34]

✤ 23世 변해응(卞海應, 1822~?)의 묘소

○ 비고 : 작은 지역에서 대단히 국한적(局限的)으로 지명을 쪼개서 사용하고 있다.

⑬ 구름산(雲山)

○ 위치 : 수주중학교 뒷산을 말한다. ☞ 그림9)

○ 지명유래 : 고증자 변창순 씨에 의하면 구릉으로 비교적 높지는 않지만 주변이 온통 평야 지대이다 보니, 여름이면 산에 구름이 자주 걸렸다고 해서 유래한 것이라고 한다.

○ 구름산(雲山) 출처 : 《청송심씨대동보(靑松沈氏大同世譜)》(2000) 823쪽

✤ 하오정면 괴리동(槐里洞) 운산(雲山) : 16世 심종해(沈宗海, 1744~1807) 의 묘소

✤ 괴리동(槐里洞) 운산(雲山) : 18世 심담지(沈淡之, 1813~1902)의 묘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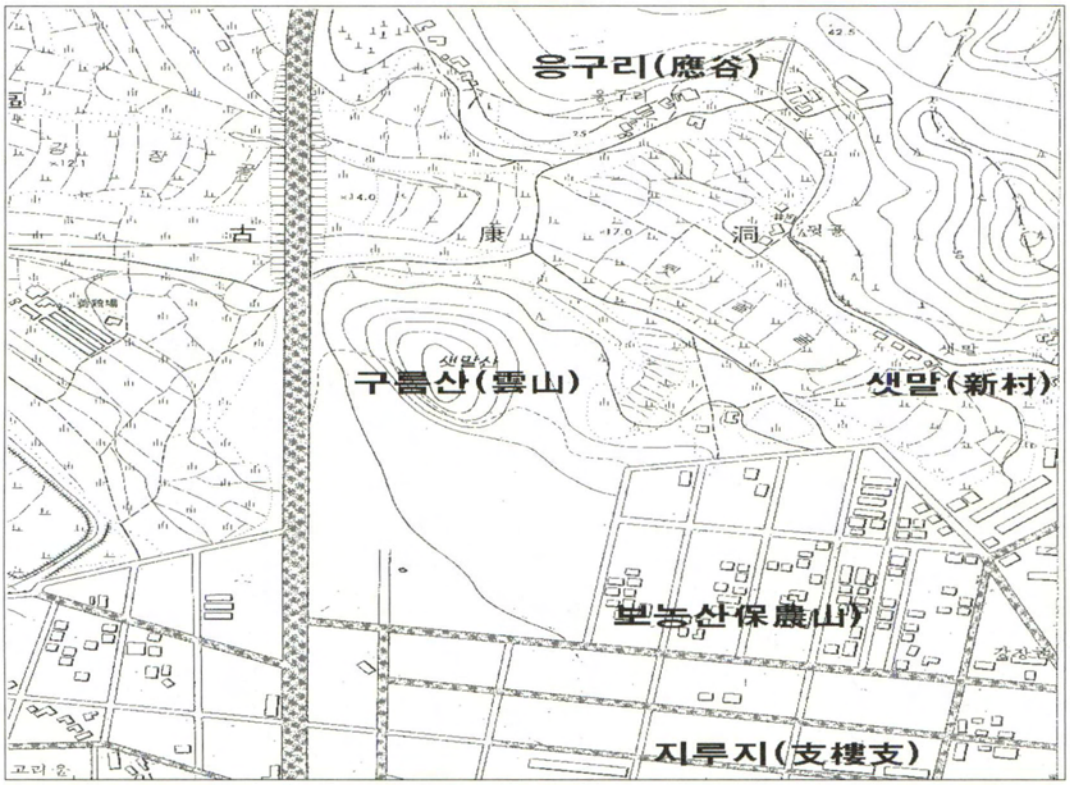


그림9) 1977년 구름산 일대의 1:5,000 지도- 굵은 글씨는 필자가 편집함.

34) 《밀양변씨족보》(1864) 8권 成 참조

○ 이칭

❖ 샛말산 : 후대에 구름산의 존재를 잃어버리고 '샛말(新村)' 뒤에 있는 산이라고 하여 '샛말산'이라고 하였다. 이에 필자가 문헌을 고증하여 바로 고쳐놓았다.

❖ 굴운산(窟雲山) : 구름산을 발음 나는 대로 한자로 기록하다 보니 이두식 지명으로 '굴운산(窟雲山)'으로 기록한 것이다. 이에 필자가 문헌을 고증하여 '구름산(雲山)'으로 바로 고쳐놓았다.

○ 《밀양변씨》(1864,1906) 족보에 기록된 구름산(窟雲山)

❖ 괴동(槐洞) 굴운산(窟雲山) : 21世 변익조(卞翼祚, 1759~?)의 묘소

❖ 괴동(槐洞) 굴운산(窟雲山) : 22世 변희용(卞熙鏞, 1806~?)의 묘소

⑭ 대가리고개(大佳里峴)

○ 위치 : 고강1차아파트에서 궁전빌라-태청빌라-고강제일교회 앞으로 해서 신월3동으로 넘어가는 고개. 고강로 170번길이다. ☞ 그림10)

○ 지명유래 : 고증자 변창순 씨는 신월동으로 넘어가는 "큰거리고개"라고 하였다.

○ 《밀양변씨족보》(1906) 7권에 23世 변해조(卞海朝1883~?)의 묘소를 "대가리고개(大佳里峴)"로 기록하였다.

그림10) 고리울 옛이름 찾기 지도[35]

35) 자료제공 -변규리

⑮ 능골(陵谷) : 일명, 능골산(陵谷山)

○ 위치 : 장미아파트 북쪽 지역 밀양변씨 종중산 일대를 말한다. ☞ 그림10)

○ 지명유래 : 능골(陵谷)은 산줄기가 늘어졌다고 하여 고유어로 '는골/늘골'[36]로 부르는데 한자의 뜻과는 무관한 '능골(陵谷)'은 이두식 지명이다. 인하여 능골산이라도 부른다. 참고로 여월동의 '능미(陵尾 / 陵山)'와 마찬가지로 '늘메/늘뫼/늘미/능메/느미'의 전형적인 이두식 지명표기이다. 능(陵)자와 관련한 지명들은 대체적으로 '늘/느리(於/陵/黃/乙') 등과 관련하여 전국에 개체어가 무수하게 나타난다.

○ 《밀양변씨족보》 1864, (1906)에 기록된 능골(陵谷)

✤ 능골(陵谷) 합천공묘동록(陜川公墓東麓) : 20世 변광보(卞光輔, 1701~1746)의 묘소

✤ 능골(陵谷) : 23世 변해승(卞海昇, 1797~?)의 부인 청주한씨 묘소

○ 비고 : 《조선지지자료》 (1911)에는 "陵谷 : 능실 -고리동(古里洞)"으로 기록되어 있다.

⑯ 오롱가리(五隴柯里)

○ 위치 : 고증자 변창순 씨는 뒷골을 지나 웅구리(應谷)로 가는 야산을 말한다. ☞ 그림9)

○ 지명유래 : 자세한 지명유래는 미상이다. 다만 '롱(隴)' 자는 고개이름이나, 땅 이름이나, 산 이름에 주로 쓰이는데 대체적으로 언덕일 때 주로 사용하는 지명어다. 차후 연구 과제로 남긴다.

○ 《밀양변씨족보》 (1864, 1906, 2008)에 기록된 오롱가리(五隴柯里)

✤ 괴동(槐洞) 오롱가리(五隴柯里) : 22世 변대용(卞大鏞, 1764~1808)의 묘소

✤ 오롱골(五隴谷) : 24世 변은상(卞殷相, 1821~1877)의 묘소

✤ 오롱골(五隴谷) : 24世 변정상(卞廷相, 1853~?)의 묘소

✤ 오롱골(五隴谷) : 27世 변종복(卞鍾福, 1924~2007)의 묘소

⑰ 삼기리(三奇里)

○ 위치 : 18世 변동선(卞東善, 1660~?)의 묘소 위치를 선영이라고 했고, 또한 변동선의 아버지 17世 변극찬(卞克纘, 1625~1697)의 묘소 역시 선영 동쪽 기슭이라고 했다. 따라서 변극찬의

36) 《부천시사》 (2002)

아버지 16世 변삼근(卞三近, 1579~1648)의 묘소가 곧 '삼기리(三奇里)' 임을 알 수 있다.

○ 지명유래 : 한자지명으로 보면 세 가지 기이한 무슨 사연이 있었던 모양이다. 자세한 지명유래는 미상이다.

○ 《밀양변씨족보》(1864, 1906, 2008)에 18世 변동선(卞東善, 1660~?)의 묘소를 "선영(先塋) 삼기리(三奇里)"로 기록하였다.

⑱ 오정(梧亭)

○ 지명유래 : 변삼근(卞三近, 1579~1648)의 호 '오정(梧亭)'에서 유래하였다.

○ 《밀양변씨족보》(1864, 1906)에 기록된 오정(梧亭)

✤ 하오정면(下梧亭面) 고리동(古里洞) : 18世 변동필(卞東弼:1661~1737)의 묘소

✤ 하오정(下梧亭) 식골(息谷) : 18世 변세범(卞世範, 1698~1763)의 묘소

✤ 하오정(下梧亭) 차밭(茶田) : 20世 변광하(卞光夏:1729~1790) 묘소

○ 지명 변천

1) 1750년 : 부평부 하오정면(下梧亭面)[37]

2) 1760년 : 부평부 하오정면(下梧亭面)[38]

3) 1789년 : 부평부 하오정면(下梧亭面) 마오정리(馬梧亭里)[39]

4) 1809년 : 부평부 하오정면(下梧亭面)[40]

5) 19C初 : 부평부 하오정면(下梧亭面)[41]

6) 1856년 : 부평부 하오정면(下梧井面)[42] : '정(井)' 자를 오기함

7) 1860년 : 부평부 하오정면(下梧井面)[43] : '정(井)' 자를 오기함

8) 1863년 : 부평부 하오정면(下梧井面)[44] : '정(井)' 자를 오기함

9) 1871년 : 부평부 하오정면(下吾丁面)[45] : **'오정(吾丁)' 자로 처음으로 오기함**

---

37)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해동지도(海東地圖)〉(1750년~1751 官撰)

38)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여지도서(輿地圖書)》 〈부평부지도〉(1760년, 官撰)

39) 《호구총수》(1789, 官撰)

40) 《의령남씨족보》(1809년)

41)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廣輿圖〉(19세기초)

42)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여도비지(輿圖備志)》(1856)

43)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동여도(東輿圖)〉 : 19세기 중엽 金正浩가 제작하여 〈大東輿地圖〉의 저본으로 삼았던 것으로 추정되는 朝鮮全圖

44)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대동지지(大東地志)》(1863)

45)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경기읍지》 〈부평부지도〉(1871, 官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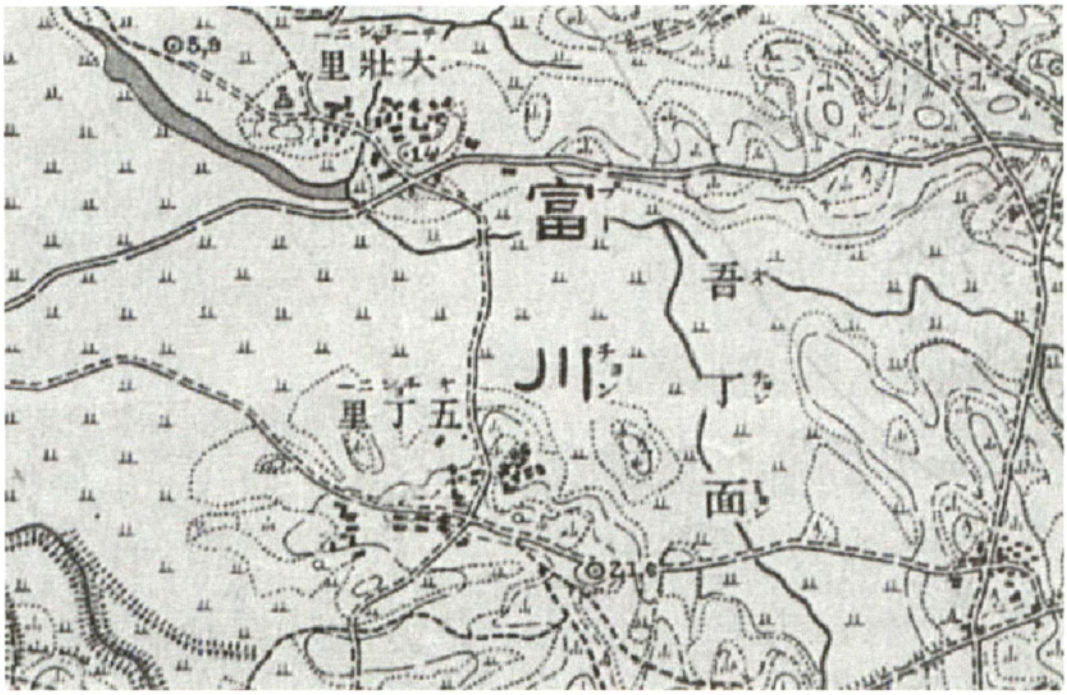


그림11) 1919년 조선총독부 1:50,000 지도, 오정면(吾丁面) 일대

10) 1872년 : 부평부 하오정면(下梧丁面)[46]

11) 1895년 : 인천부(仁川府) 부평군 하오정면(下吾丁面) 오정리(吾丁里)[47]

12) 1896년 : 경기도 부평군(4等) 하오정면(下吾丁面)[48]

13) 1899년 : 경기도 부평군(4等) 하오정면(下吾丁面)[49]

14) 1899년 : 경기도 부평군(4等) 하오정면(下梧亭面)[50]

15) 1911년 : 경기도 부평군(4等) 하오정면(下吾丁面)[51]

16) 1914년 4월 1일 : 경기도 부천군 오정면(吾丁面)[52] 신설

-부평군 상오정면(上吾丁面), 하오정면(下吾丁面), 주화곶면(注火串面) 통폐합

46)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부평부지도(富平府地圖)》(1872년 지방도)

47)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畿甸邑誌》〈부평지도〉1895년 지방관제의 개정에 따라 전국을 23부로 나눌 때 부평군은 인천부에 소속됨.

48) 전국을 13도로 개편할 때 경기도 인천부에 소속됨

49)《부평군읍지》〈부평지도〉(1899)

50)《부평군읍지》(1899)

51)《조선지지자료(朝鮮地誌資料)》(1911, 조선총독부)

52) 행정구역 부군면동 통폐합으로 상오정면과 하오정면, 주화곶면을 통합하여 오정면이 됨.

17) 1973년 : 김포군 오정면(吾丁面) 편입

18) 1975년 : 부천시 오정면(吾丁面) 복구

19) 1993년 : 부천시 오정구(吾丁區) 신설

20) 1995년 : 부천시 오정구(梧亭區) 개칭

21) 2016년 7월 4일 행정구역 구제(區制) 폐지로 오정구(梧亭區)는 폐지되었으나 현재 오정동(梧亭洞)은 남아 있다.

⑲ 차밭(茶田)

○ 위치 : ☞ 그림9)

○ 지명유래 : 차밭(茶田)이 있어서 유래하였다.

○ 《밀양변씨족보》(1864, 1906)에 기록된 차밭(茶田)

✤ 괴리동(槐里洞) 차밭(茶田) : 22世 변성용(卞聖鏞, 1776~1835)의 묘소

✤ 괴리동(槐里洞) 차밭(茶田) : 22世 변성용(卞聖鏞, 1776~1835) 부인 밀양박씨 묘소

✤ 차밭(茶田) : 22世 변덕용(卞德鏞, 1786~1864)의 부인 한양조씨 묘소

✤ 간담산(間淡山) 차밭(茶田) : 23世 변해룡卞海龍, 1826~1853)의 묘소

✤ 간담(間淡) 차밭(茶田) : 22世 변승용(卞升鏞, 1823~?)의 묘소

✤ 괴동(槐洞) 차밭(茶田) : 24世 변구상(卞龜相, 1838~?)의 부인 강릉김씨 묘소

⑳ 청룡(青龍)

○ 위치 : 고강본동사무소 일대의 산줄기 일대이다.

○ 지명유래 : 풍수지리상 좌청룡(左青龍)에 해당하는 지형을 말한다. 곧 변종인의 묘소를 중심으로 좌청용의 산줄기에 위치한 묘소이기에 풍수상 지명에서 유래하였다. 이에 대해서 문중의 대종손 변창순 씨가 고강본동사무소 일대의 산줄기라고 알려주었다.

○ 《밀양변씨족보》(1864,1906)에 기록된 청룡(青龍)

✤ 강장골(康莊谷) 청룡(青龍) : 21世 변의조(卞義祚, 1792~?)의 묘소

✤ 강장골(康莊谷) 청룡(青龍) : 21世 변의조(卞義祚)의 부인 함열남궁씨 묘소

✤ 강장골(康莊谷) 청룡(青龍) 밖(外) : 22世 변하용(卞夏鏞, 1864~?)의 묘소

✤ 청룡밖길가(青龍外路邊) : 24世 변무상(卞武相, 1867~?)의 묘소

○ 청룡산의 위치의 착오된 지명유래

위에서도 보듯 '청룡(靑龍)' 또는 '청룡(靑龍) 밖(外)'이라고만 했지 산명을 붙인 것은 아니다. 그런데 그동안 이를 '청룡산(靑龍山)'이라고 위치를 잘못 파악하고 있었다.

✤ 청룡산(靑龍山) : 찬우물 뒷산이 청룡산으로 청동기시대 유물이 발굴된 곳이다"[53]

✤ 청룡산(靑龍山) : 《밀양변씨대동보》에는 강장동(康莊洞) 청룡산으로 표기되어 있다. 찬우물 뒷산으로 이곳 정상에서 1995년 10월 청동기시대 유물이 발견되어 신고 되었다."[54]

✤ 청룡산(靑龍山) : 한강이 동서로 흐르는 낮은 구릉지대의 동편으로 보이는 녹지 언덕이 있는 청룡산(靑龍山)이다. 이 산은 원래 남쪽으로 연결되어 있었지만 경인고속도로에 의해서 주능선과 떨어지게 되었다.[55]

○ 필자 註) : 청룡(靑龍)은 산이 아니다. 풍수상 좌청룡(左靑龍)에 해당하는 산줄기의 지형일뿐이다. 다시는 착오가 없기를 바란다.

㉑ 백호(白虎)

○ 지명유래 : 풍수지리상 우백호(右白虎)에 해당하는 지형을 말한다.

○ 《밀양변씨족보》(1906)에 22世 변희용(卞熙鏞, 1806~?)의 묘소를 "괴동(槐洞) 백호 밖 기슭(白虎外麓)"이라고 기록하였다.

㉒ 소두머리골 : 일명, 내며리

○ 위치 : 現 수주고등학교 일대를 '소두머리들' 또는 '내며리'라고 한다. ☞ 그림12)

○ 지명유래 : 지형이 소머리에 해당한다 하여 유래한 것으로 추정된다. 지도를 보면 채석장(삼태기산)이 소의 머리에 해당하고 양쪽으로 소뿔처럼 갈라진 들판을 소두머리들이라고 하였다. 이에 대하여 고증자 변창순 씨는 '남여리(南餘里)'가 바로 '내며리'인데 지명유래는 모른다고 하였다.

○ 《밀양변씨족보》(1864)에 21世 변시조(卞蓍祚:?)의 부인 묘소를 "남여리(南餘里)"로 기록하였다.

○ 이칭 : ✤ 내며리 - 《부천사연구(富川史硏究)》 1집(최현수, 1993) ☞ 그림12)

---

53) 《부천문화의 재발견》 (부천문화원, 1996)
54) 《부천문화의 재발견》 (부천문화원, 1996)
55) 《부천시의 민속과 문화》 (소진섭, 2000)

그림12) 소두머리골 일대 지도[56]

㉓ 고강공동묘지(古康共同墓地)

○ 위치 : 신작동(新鵲洞) 입구에서 왼쪽 산 일대를 말한다. ☞ 그림13)

○ 지명유래 : 과거 이 지역은 고리울공동묘지였다. 공동묘지 근처만 가도 소름이 돋는다고 하여 유래하였다. 곧 소름이골이 후대에 '서름이골'로 변한 것이다. 신작동을 개발하면서 공동묘지를 이장하였다.[57]

○ 《밀양변씨족보》(2008)에 23世 변해신(卞海信, 1867~1927)의 묘소를 "고강공동묘지(古康共同墓地)"로 기록하였다.

○ 이칭

❖ 서름이터[58] : "범바위산 밑 장수의 발자국이 있는 바위가 있던 곳으로 부자인 서름이가 살았다는 데서 유래하였다." 라고 하였으나 신빙성은 없다.

---

56) 《부천사연구(富川史硏究)》 1집(최현수, 1993)
57) 《고강동.성곡동 마을誌》 (부천문화원, 2015)
58) 《부천사연구(富川史硏究)》 1집(최현수, 199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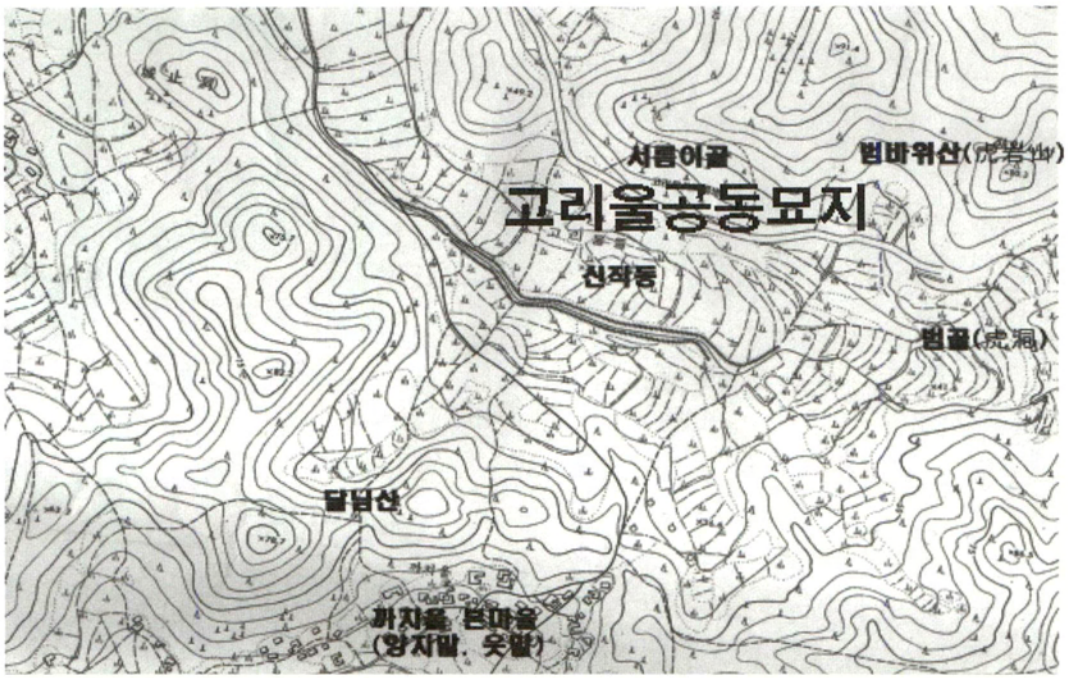


그림13) 1980년 국립지리원 1:5,000 범바위산 일대 지도. 굵은 글씨는 필자가 편집함

✤ 서름이골[59] : "서름이는 서늘이 그 어원으로 서늘한 바람이 불어 늘 시원한 곳이라는 말이다." 라고 하였으나 신빙성은 없다.

㉔ 여월동(如月洞) 방골(傍谷)

○ 위치 : ☞ 그림14)

○ 지명유래 : 자세한 지명유래는 미상이다. 《조선지지자료》 (1911)에는 '방골(芳谷)'로 기록되어 있다.

○ 《밀양변씨족보》 (2008)3권 181쪽에 26世 변옥수(卞玉壽, 1923~?)의 부인 제주고씨(濟州高氏, 1932~1969)의 묘소를 "여월동(如月洞) 방골(傍谷)"로 기록하였다.

○ 이칭 : 망골(望谷), 망골(亡谷), 밤골, 방골(芳谷), 방골(傍谷)

○ 비고 : 이 지역은 본래 여월동이었으나 1993년 1월 16일 구간(區間) 경계 편입으로 인하여 도로 건너편 일부가 1993년 2월 1일 원미구 춘의동이 되었다. 이하 자세한 사항은 〈원주원씨 세장지 향토지명연구〉를 참고하기 바란다.

59) 《부천시사》 2002)

그림14) 1980년 국립지리원 1:5,000 지도 방골(芳谷)' 일대. 굵은 글씨는 필자가 편집.

2. 밀양변씨(密陽卞氏) 부천(富川)의 인물

① 10世 변예생(卞禮生, ?~1444) : 부천(富川) 입향조(入鄕祖)

우군사정(右軍司正)을 지냈으며 세종 때 이조참판(吏曹參判)에 추증되었다.

② 11世 변종인(卞宗仁, 1433~1500)

- ✤ 부천시(富川市) 향토문화재(鄕土文化財) 제1호
- ✤ 공장공恭(莊公) 변종인(卞宗仁) 묘와 신도비(神道碑) 1986년 4월 29일 지정

변종인(卞宗仁)은 밀양변씨 11세손으로 세종 15년(1433년) 부평 흑양리(黑梁里)에서 변예 생(卞禮生)의 4남 중 장남으로 태어났다. 세조 5년(1460년) 무과에 급제하고, 1467년 이시애(李施愛) 난 때 1등 공신에 올라 당상관(堂上官) 동지중추부사(同知中樞府事)가 되었다. 성종 4년(1473년) 오랑캐가 북변(北邊)을 침범하자 조전장(助戰將)으로 공을 세워 가선대부(嘉善大夫)에 오르고, 그 공으로 1478년 온성도호부사(穩城都護府使)가 되었다. 이후 1495년 평안절도사(平安節度使). 1497년 경상도수군절도사(慶尙道水軍節度使), 1498년 공조판서(工曹判書)를 지냈다. 연산군 5년(1499년) 여름, 순변사로 함경남도에서 변방을 구축하다가 과로로 인하여 풍질(風疾)이 생겨 다음 해인 1500년 3월 18일 68세로 졸(卒)하였다. 시호(諡號)는 공장(恭莊)으로 "일을 조심스럽게 하고, 임금 섬기기를 공손히 하여 '공(恭)'이고, 적을 이기고 뜻이 강하였으므로 '장(莊)'이라 하였다.

부인 이천안씨(利川安氏)와의 사이에서 강지(綱之), 기지(紀之), 유지(維之), 손(孫)을 낳았다. 장남 변강지는 부천지역에 세거하였고, 차남 변기지는 경기도 포천에 이거하여 세거하였고, 삼남 변유지는 충정도 공주로 이거하여 세거하였으면 4男 변손은 무후하였다.

그림15) 변종인의 묘소 부천시 고강동 산 67-3번지

그림16) 변종인의 신도비각

③ 12世 변강지(卞綱之) * 묘 : 부천시 고강동 산 63-7번지

[생원시] 성종 11년(1480) 경자(庚子) 식년시(式年試) 3등 56위(86/100)[60]

[진사시] 성종 11년(1480) 경자(庚子) 식년시(式年試) 2등 22위(27/100)[61]

[문과] 성종 23년(1492) 임자(壬子) 별시(別試) 병과(丙科) 1위(4/14)[][62]

자(字) : 국맥(國脈)

본관 : 초계(草溪)[63]

거주지 : 한성([京])(주1) 거주지

[이력사항] 선발인원 : 14명

전력 : 생원(生員)

관직 : 승문원정자(承文院正字)

타과 : 성종 11년(1480) 경자(庚子) 식년시(式年試) 생원(生員) 3등 56위

타과2 : 성종 11년(1480) 경자(庚子) 식년시(式年試) 진사(進士) 2등(22위

[가족사항] [부] 성명 : 변종인(卞宗仁)

[조부] 성명 : 변예생(卞禮生)

[증조부] 성명 : 변을명(卞乙明)

[외조부] 성명 : 안진(安震)

[처부] 성명 : 이수(李陲)

[처부2] 성명 : 김치제(金致齊)

④ 13世 변응몽(卞應夢, 1519~?) * 묘 : 부천시 고강동 산 67번지에서 63-9번지로 이장.

[진사시] 중종(中宗) 14년(1519) 기묘(己卯) 식년시(式年試) 3등 16위(46/100)[64]

벼슬은 진사(進士)와 통훈대부(通訓大夫) 행 합천군수(行陜川郡守)를 지냈고 사후 좌통례(左通禮)에 추증되었다.

---

60) 한국역대인물정보시스템 〉 한국학중앙연구원 〉 [출전] 「성화16년경자3월초3일사마방목 (成化十六年庚子三月初三日司馬榜目)」 (『세촌선생실기(細村先生實紀)』, 국립중앙도서관[한古朝57-가618])

61) 한국역대인물정보시스템 〉 한국학중앙연구원 〉 [출전] 「성화16년경자3월초3일사마방목(成化十六年庚子三月初三日司馬榜目)」 (『세촌선생실기(細村先生實紀)』, 국립중앙도서관[한古朝57-가618])

62) 한국역대인물정보시스템 〉 한국학중앙연구원 〉[출전] 『국조문과방목(國朝文科榜目)』 (규장각한국학연구원[奎106])

63) 본래는 밀양이지만 당시 사마방목 기록 그대로 초계로 한다.

64) 한국역대인물정보시스템 〉 한국학중앙연구원 〉 [출전] 『정덕14년기묘식사마방목(正德十四年己卯式司馬榜目)』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수집 고문서-韓山李氏 문중])

⑤ 14世 변희눌(卞希訥, 1517~?) * 묘 : 부천시 고강동 산 63-9번지

[생원시] 명종(明宗) 13년(1558) 무오(戊午) 식년시(式年試) 3등 44위(74/100)[65]

자(字)는 이민(而敏)으로 42세에 생원(生員)에 합격한 이후 찰방(察訪)을 지냈다.

⑥ 14世 변희전(卞希詮, 1531~1659) * 묘 : 부천시 고강동 산 63-9번지

[무과] 선조 22년(1589) 기축(己丑) 증광시(增廣試) 갑과(甲科) 3[探花郎]위(3/28)[66]

자 : 공택(公澤)

생년 : 신묘(辛卯) 1531년(중종 26)

합격연령: 59세

본관 : 초계(草溪)[67]

거주지 : 한성([京])

[이력사항] 선발인원 : 28명

전력 : 겸선전관(兼宣傳官)

부모구존 : 영감하(永感下)

[가족사항] [부] 성명 : 변응몽(卞應夢)

품계 : 통훈대부(通訓大夫)

관직 : 행합천군수#(行陜川郡守)

[형] 성명 : 변희눌(卞希訥)

성명 : 변희심(卞希諶)

성명 : 변희역(卞希譯)

성명 : 변희겸(卞希謙)

성명 : 변희순(卞希諄)

* 사후 승정원 좌승지에 추증되었다.

---

65) 한국역대인물정보시스템 〉 한국학중앙연구원 〉 출전] 『가정37년무오추사마방목(嘉靖三十七年戊午秋司馬榜目)』 (국립중앙도서관[古6024-145])

66) 한국역대인물정보시스템 〉 한국학중앙연구원 〉 [출전] 『기축4월일증광용호방목(己丑四月日增廣龍虎榜目)』 (국사편찬위원회[MF A지수149 1])

67) 본래는 밀양이지만 당시 사마방목 기록 그대로 초계로 한다.

⑦ 15世 변건원卞(乾元, ?~1615) * 묘 : 부천시 고강동 산 63-9번지 선영

종6품 선무랑(宣務郞)을 지냈으며 사후 의정부 좌찬성에 추증되었다.

⑧ 15世 변충원(卞忠元, 1568~1627) * 묘 : 부천시 고강동 산 63-9번지 선영

나이 36세에 [생원시] 선조(宣祖) 36년(1603) 계묘(癸卯) 식년시(式年試) 2등 22위(27/100)4[68]로 합격하였다. 이후 김포령(金浦令)을 지냈다. 장남 변삼달은 현, 서울 신월동에 이거하여 후손들이 세거하고 있다. 변충원의 셋째딸 밀양변씨(1611~1656)가 의령남씨 14世 남두추(1605~1682)에게 시집갔는데, 그의 두 아들 남징(1645~1685)과 남연(1650~1728)이 부평 수역리(현, 원종동)로 이거하여 부천 입향조가되었다.

⑨ 15世 변제원(卞悌元, 1572~?)

나이 32세에 [생원시] 선조(宣祖) 36년(1603) 계묘(癸卯) 식년시(式年試)3등(三等) 53위(83/100)[69]로 합격하였다. 종친부첨정을 지냈으며, 사후 가선대부(贈嘉善大夫) 호조참판(戶曹參判)에 추중되었다.

⑩ 16世 변삼근(卞三近, 1579~1648) * 묘 : 부천시 오정구 고강동 산 63-7

나이 28세에 [진사시] 선조(宣祖) 39년(1606) 병오(丙午) 식년시(式年試) 3등 31위(61/100)[70]로 합격하였다.

[문과] 광해군(光海君) 3년(1611) 신해(辛亥) 별시(別試) 병과(丙科) 6위(12/13)[71]

자(字) : 성지(誠之)

생년 : 기묘(己卯) 1579년(선조 12)

합격연령 : 33세

---

68) 한국역대인물정보시스템 〉 한국학중앙연구원 〉 [출전] 『만력31년계묘식년사마방목(萬曆三十一年癸卯式年司馬榜目)』 (국립중앙도서관[의산古6024-11

69) 한국역대인물정보시스템 〉 한국학중앙연구원 〉 [출전] 『만력31년계묘식년사마방목(萬曆三十一年癸卯式年司馬榜目)』 (국립중앙도서관[의산古6024-114])

70) 한국역대인물정보시스템 〉 한국학중앙연구원 〉 [출전] 『만력34년병오10월29일사마방목(萬曆三十四年丙午十月二十九日司馬榜目)』 (국사편찬위원회[MF A지수402])

71) 한국역대인물정보시스템 〉 한국학중앙연구원 〉 [출전] 『국조문과방목(國朝文科榜目)』 (규장각한국학연구원[奎106])

본관 : 초계(草溪)[72]

거주지 : 미상(未詳)

[이력사항] 선발인원 : 13명

전력 : 생원(生員)

관직 : 참판(參判)

관직 : 승정원주서(承政院注書)

[가족사항] [부] 성명 : 변건원(卞乾元)

[조부] 성명 : 변희전(卞希詮)

[증조부] 성명 : 변응몽(卞應夢)

[외조부] 성명 : 김침(金琛)

[처부] 성명 : 윤붕(尹鵬)

[처부2] 성명 : 윤희(尹禧)

변삼근은 1611년(광해군 3) 별시문과에 병과로 급제한 이후 종사랑(從仕郞), 통사랑(通仕郞), 무공랑(務功郞), 선무랑(宣務郞), 승훈랑(承訓郞), 1613년 오위도총부 현신교위(顯信校尉), 1614년 주서(注書)가 된 후 사관(史官)으로 활약하였고, 1618년 경기도사(京畿都事), 1626년 비변사(備邊司)의 상계(上啓)로 성천(成川)에 파견되었다. 1641년 진하겸진주사(進賀兼陳奏使)의 부사(副使)로 청나라에 다녀왔다. 이후 서장관, 조천관(朝天官), 형조참판(刑曹參判)을 지냈다.[73] 아들은 변극찬(卞克纘)이고 사위는 부천 계수동에 묘소가 있는 청주한씨 한혜(韓惠)이다. 한혜(韓橞, 1605~1634)의 본관은 청주(淸州)로 초명(初名)은 휘(樟), 자(字)는 시백(始伯)으로 사후 사복시정(司僕寺正:정3품)에 추증되었다. 부인(夫人)은 증 숙부인(贈淑夫人) 밀양변씨(密陽卞氏, 1603~1637)이고 아들은 한오규(韓五奎, 1621~1652)이다.

⑪ 16世 변삼계(卞三戒, 1613~?)

[무과] 인조(仁祖) 15년(1637) 정축(丁丑) 별시(別試) 병과(丙科) 2969위(3070/5536)[74]

이후 감목관(監牧官)을 지냈다.

---

72) 본래는 밀양이지만 당시 사마방목 기록 그대로 초계로 한다.

73) 출처: 부천디지털문화대전

74) 한국역대인물정보시스템 〉 한국학중앙연구원 〉 [출전] 『정축정시문[무]과방목(丁丑庭試文 [武]科榜目)』 (고려대학교 도서관[대학원 B8 A2 1637])

⑫ 16世 변삼달(卞三達, 1651~?)

승사랑(承仕郎)을 지냈다.

⑬ 16世 변삼필(卞三必, 1627~?)

*** [무과] 효종 2년(1651) 신묘(辛卯) 정시(庭試) 병과(丙科) 37위(47/56)**[75]

자 : 취숙(就叔)

생년 : 정묘(丁卯) 1627년(인조 5)

합격연령 : 25세

본관 : 초계(草溪)[76]

거주지 : 한성([京])

[이력사항] 선발인원 : 56명

전력 : 내금위(內禁衛)

부모구존 : 자시하(慈侍下)

[가족사항][부] 성명 : 변충원(卞忠元)

품계 : 통훈대부(通訓大夫)

관직 : 행김포군수(行金浦郡守)

⑭ 17世 변극찬(卞克纘, 1625~1697) 묘 : 부천시 오정구 고강동 산 63-5

통덕랑(通德郎)을 지냈다.

⑮ 19世 변세언(卞世彦, 1694~1742) * 묘 : 부천시 오정구 고강동 산 63-5

나이 30세에 [진사시] 경종 3년(1723) 계묘(癸卯) 식년시(式年試) 3등 40위(70/100)[77]로 합격하였다.

---

75) 한국역대인물정보시스템 〉 한국학중앙연구원 〉 [출전] 「신묘3월28일문무정시방목(辛卯三月二十八日文武庭試榜目)」 (『가재사실록(嘉齋事實錄)』, 국립중앙도서관[한古朝57-가61])

76) 본래는 밀양이지만 당시 사마방목 기록 그대로 초계로 한다.

77) 한국역대인물정보시스템 〉 한국학중앙연구원 〉[출전] 『계묘식년사마방목(癸卯式年司馬榜目)』 (한국학중앙학연구원장서각[B13LB-17])

⑯ 21世 변혁조(卞赫祚, 1730~1806) * 묘 : 부천시 오정구 고강동 산 63-4

나이 34세에 영조(英祖) 39년(1763) 계미(癸未) 증광시(增廣試) [생원] 2등(二等) 16위(21/100)로 합격하고 이후 [78]1777년(정조 1) 문과 (文科)에 장원급제하였다. 정조가 그의 문장을 보고 대궐로 부른 뒤 직접 지은 교지를 내렸는데, 이를 시기하는 세력이 장원급제를 실격으로 몰아가자 미련 없이 고향으로 돌아가 산수를 벗하며 살았다. 이후 조정에서 여러 차례 등용하려 하였으나 지조를 지켜 끝까지 고사하였다. 문장에 능하여 계양8문장가(桂陽八文章家)로 이름을 떨쳤고 병암서원 〈상량문(上梁文)〉을 썼다.

⑰ 23世 변해준(卞海準, 1836~1902) * 묘 : 부천시 오정구 고강동 선영

자는 효원(孝源)이고 종9품 장사랑(將仕郞)의 품직을 받았으며 1885년 선공감가감역(繕工監假監役)을 지냈다.

⑱ 24世 변정상(卞鼎相, 1861~1935) * 묘 : 부천시 오정구 고강동 선영

밀양삼변(密陽三卞) 또는 부천삼변(富川三卞)의 변영만, 변영태 변영로의 아버지이다. 변정상은 1889년(고종 26년)에 문과에 급제하여 관직에 진출하였으며 1908년(순종 2년) 중추원 부참의에 임명되었으나 1910년의 경술국치로 인해 관직에서 물러났으며 독립협회 · 기호흥학회 · 인천박문학교 등에 기부금을 내는 등 자강운동(自强運動)에 힘을 쏟았던 인물이다.

⑲ 25世 변영대(卞榮大, 1866~1902) * 묘 : 고강동 산 63의 4

통덕랑(通德郞)을 지냈다.

⑳ 25世 변영모(卞榮謨, 1893~1960)

오정면장을 지냈다.

---

78) 한국역대인물정보시스템 〉 한국학중앙연구원 〉 출전: 계미증광사마방목(癸未增廣司馬榜目)(『조선시대(朝鮮時代) 생진시방목(生進試榜目)』 16, 국학자료원, 2008.)

㉑ 25世 변영만(卞榮晩, 1889~1954)

중국 북송시대 문장가였던 소순(蘇洵)·소식(蘇軾)·소철(蘇轍) 삼부자를 일컬어 삼소(三蘇)라고 했는데, 변영만(卞榮晩)·변영태(卞榮泰)·변영로(卞榮魯) 삼형제도 그와 비견되어 '한국의 3소(三蘇)·변씨삼절(卞氏三絶)·부천삼변(富川三卞)'으로 불렸다. 창씨개명 정책에 저항하여 끝까지 이름을 바꾸지 않아 많은 고초를 겪었다고 한다. 변영만에게는 '우리나라 한문학의 마지막 페이지를 장식한 문장대가', '한문고전을 기반으로 서양의 문학과 사상을 폭넓게 수용하여 독특한 정신세계를 개척', '식민지 시대에 어디에도 소속되지 않은 독립적 지성', '조선의 천재', '회색 괴짜' 등 다양한 수식어가 따라다닌다. 변영만의 호는 산강재(山康齋)·삼청(三淸)·곡명(曲明)·백민거사(白旻居士) 등의 호를 는 초가 13칸이었던 것으로 보아, 풍족할 살림은 아니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어려서 수당(修堂) 이남규(李南珪:1855~1907)의 문하에서 한학을 수학하고 1906년 1월 14일 제4회로 법관양성소 졸업하고 법관양성소 판임관 8급의 박사에 임명되었다. 1913년 후반 중국으로 망명, 중국 망명 후 북경에서 짧은 기간 위안스카이(袁世凱) 정권의 총통부에서 근무하였고, 1914~1917년까지 중국신문사인 황종일보사(黃鍾日報社), 북경일일신보사(北京日日新報社)에서 근무하였다.

1918~1919년 무렵에 귀국하여 한동안 경성에서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하고 보성전문학교·연희전문학교·불교전문학교 등에서 한학을 강의하였다. 1950년 반민족행위 특별재판위원장으로 최남선을 심리하기도 했다. 성균관대학교 교수로 재직하며 동국대학교·서울대학교 등에서 후진 양성에 힘썼으며, 1952년에는 사법부 법전편찬위원을 지냈다. 1954년 졸하였다.

저서로는 《세계삼괴물(世界三怪物)》과 《20세기의 참극 제국주의(二十世紀之慘劇帝國主義)》, 《단재전(丹齋傳)》, 《산강재문초(山康齋文鈔)》 등 다수가 있다.

㉒ 변영태(卞榮泰, 1892~1969) * 묘 : 부천시 오정구 고강동 선영

본관은 밀양으로 아버지 변정상(卞鼎相)과 어머니 진주강씨 사이의 3남 4녀 중 둘째 아들로 태어났는데, 형은 변영만이고 동생은 변영로이다. 호는 일석(逸石)으로 원래는 형인 변영만의 호였는데 사정하여 형으로부터 받았다는 것이다. 4세 때부터 《천자문》을 배우기 시작하고, 재동소학교(齋洞小學校)에 입학하여 졸업 후 교동고등소학교(校洞高等小學校)를 거쳐 계산보통학교(桂山普通學校)로 전학, 15살에 고등소학교 과정을 마치고, 보성중학교(普成中學校)에 입학하였다.

을사늑약, 군대해산, 사법권 피탈 등으로 일제의 침략야욕이 극에 달하자 이회영 등 신민회 회원 등은 1909년 만주에 독립군 기지를 건설하기로 하고 남만주 유하현(柳河縣) 삼원보 추가가(三源堡鄒家街)에 정착하고, 1911년 경학사(耕學社)를 조직하였다. 그리고 국내에서 만주로 오는 애

국청년들에게 구국이념과 항일정신을 고취시켜 조국광복의 간성으로 양성시키고자 신흥강습소(新興講習所)를 설치하였다. 이것이 신흥무관학교의 전신인데, 변영태는 19세에 보성중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이곳으로 가서 1912년 제1회로 졸업하고 한동안 이 학교에서 교편을 잡았다. 1916년 북경의 협화대학(協和大學) 2년간 수학하고, 모교에서 교편을 잡고 있다가 1920년 귀국하였다. 1920년 고국에 돌아와 민족학교인 중앙고등보통학교 영어 교사로 후진 양성에 정진하다가 1943년부터 일제의 압력을 피하여 형인 변영만과 함께 고향인 고강동에서 은거한다.

그림 17) 좌로부터 변영태, 변영만, 변영로 3형제의 묘소

광복 후에는 고려대 영문과 교수로 취임하여 1949년 이승만에 의해 외교관으로 발탁 될 때까지 1946년 민주의원접흡단비서처(民主議院接洽團祕書處)에서 영어비서 잠깐 한 것을 제외하고는 줄곧 고려대학교수로 재직하였다. 변영태는 1951년부터 1955년까지 제3대 외무부장관직을 수행하였다. (1954년부터 1955년까지 국무총리 겸임). 변영태를 이야기 하면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독도와 평화선(平和線)이다. 평화선의 정식명칭은 "대한민국 인접해양의 주권에 대한 대통령선언(1952년 1월 18일 국무원고시 제14호)"으로 '이승만 라인'이라고도 한다.

평화선은 당초에는 어업보존수역 선포를 목적으로 계획되었으나 검토심의 과정에서 '인접해양에 대한 주권선언'으로 확대되었다. 처음에는 독도를 어업관할수역에서 제외시켰는데, 외무부는 독도를 수역 밖에 두면 외국에게 독도가 한국의 영토가 아니라는 잘못된 인식을 줄 수 있을지 모른다는 이유로 독도를 '어업보호수역'안에 포함시켰는데 이 안을 '변영태 안'이라 한다. 이것은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임을 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으며 이후 '평화선(平和線)'으로 재탄생 되었다. 외무부장관을 그만 둔 후 1956년부터 서울대 상과대학, 고려대학 교수 등을 역임하였으며 1962년에는 고려대학교에서 명예 문학박사학위를 받았다.

1969년 3월 10일 76세를 일기로 사망하였다. 묘소는 고강동 선산세 형 변영만, 동생 변영로와 함께 영면하고 있다. 저서로는 《Tales from Korea》(1946), 《Song from Korea》(1948) · 《나의조국, Korea My Country》(1949) · 《TThe Analects of Confucius》(1960) 등이 있다. 형 변영만과 동생 변영로(卞榮魯)와 아울러 밀양삼변(密陽三卞) 또는 부천삼변(富川三卞)으로 칭한다. 아들로 변지수, 변혜수, 변종수가 있다.

㉓ 25世 변영로(卞榮魯, 1898~1961) * 묘 : 부천시 오정구 고강동 선영

본관은 밀양으로 1898년 5월 9일 한성부 맹현(孟峴:현, 종로구 가회동)에서 중추원부참의를 지낸 아버지 변정상(卞鼎相)과 어머니 강재경(姜在卿) 사이에서 3남 4녀 중 셋째 아들로 태어났다. 초명(初名)은 영복(榮福)이며, '한국의 삼소(韓國의 三蘇) 또는 변씨삼절(卞氏三絶)'로 불린 변영만 · 변영태 삼형제 중 막내이다. 변영로는 1904년 재동보통학교(齋洞普通學校)에 입학하였다가 계동보통학교(桂洞普通學校)로 전학하여 이 학교를 졸업하였다. 1907년 중앙학교를 입학. 1915년 조선중앙기독교청년회학교 영어반에 입학하여 3년 과정을 6개월만에 마쳐, 사람들로부터 수재라는 칭송을 받았다. 1918년 조선중앙기독학교청년회 및 중앙고등보통학교 영어교사로 취임하였고, 6월에는 영시(英詩) 〈코스모스(cosmos)〉를 《청춘(靑春)》 에 발표하였는데, 저자로 변영복을 사용하였으며, 조선문단의 총아로 등장하였다. 1919년 3 · 1운동 때는 YMCA의 구석진 방에서 일본 경찰의 눈을 피해 가며 〈독립선언문〉을 영역하여 해외로 발송하는 일을 하였다.

1920년 《폐허(廢墟)》 · 《동인(同人)》, 1923년 이화여자전문학교 강사를 지내다가 이화여전(梨花女專)의 교수가 되어 영문학과 조선 문학을 강의하였다. 1931년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 산호세대학(San Jose)대학으로 유학. 1933년 동아일보사에 입사. 광복직전에는 고향인 고강리에서 은거한다. 광복 후인 1946년 성균관대학교 영문과 교수, 1950년 해군사관학교 영어교관, 1953

그림 18) 수주 변영로 기념상

년 대한공론사(大韓公論社) 이사장을 지냈다. 국제펜클럽 한국본부 초대 위원장으로 영문일간지 《Korea Republic》를 발간하고 1955년에는 제27차 비엔나국제펜클럽대회에 한국대표로 참석하였다. 1961년 3월 14일 별세하였으며, 형인 변영만, 변영태와 함께 고향인 고강동 선산에 영면하고 있다. 저서로 《조선의 마음》 · 《명정 40년》 등이 있다. 1922년 발표한 〈논개〉는 변영로의 대표적인 시로, 진주성 촉석루에서 왜장 게야무라 로구스케(毛谷村六助)를 껴안고 남강으로 떨어져 죽은 논개(論介)의 애국충절을 노래한 시이다. 형 변영만, 변영태와 아울러 밀양삼변(密陽三卞) 또는 부천삼변(富川三卞)으로 칭한다. 아들로 변철수, 변공수, 변갑수, 변문수, 변천수가 있다.

㉔ 25世 변영모(卞榮謨, 1893~1960)

오정면장(吾丁面長)을 지냈다.

㉕ 26世 변경수(卞慶壽, 1908~1980) * 묘 : 부천시 고강동 산 63-1

오정면사무소 호적계장을 지냈다.

㉖ 26世 변철수(卞鐵壽, 1919~1978)

일본 명치대학교 졸업. 수주 변영로의 2男이다.

㉗ 26世 변공수(卞恭壽, 1931~1955)

미국 남가주대학원 졸업. 한국투자금융회사 사장을 역임하였다. 수주 변영로의 아들이다.

㉘ 26世 변갑수(卞甲壽, 1935~2003)

성균관대학교 졸업. 한진선박 과장을 지냈다. 수주 변영로의 3男이다.

㉙ 27世 변호덕(卞鎬德, 1908~1942) * 묘 : 부천시 고강동 산 63-9

부천군청 산림감수를 지냈다. 아들은 변창순(1937~)이다.

㉚ 27世 변호철(卞鎬喆, 1934~1964)

서울대학교 농과대학 졸업. 축협중앙회 서울구판장장을 지냈다.

Ⅲ. 결론(結論)

경기도 부천시 고강동에 세거(世居)하고 있는 밀양변씨는 춘당공파(春堂公派) 공장공종중(恭莊公宗中)으로 장남 계열이 이어받아 부천지역에 지금까지 세거하고 있다.

- ㅇ 10世 **변예생(卞禮生, ?~1444)**
- ㅇ 11世 **변종인(卞宗仁, 1433~1500) – 이하 공장공파(恭莊公派)**
- ㅇ 12世 **변강지(卞綱之)**----------紀之---維之---遜
  ▼(부천) (포천) (공주) x
- ㅇ 13世 **변응몽(卞應夢, 1519~?)**
  ▼(부천)
- ㅇ 14世 希訥-**希詮**-希諶-希譚-**希謙**-希詢-希錫(홍천)
- ㅇ 15世 x **乾元** x x **忠元** x 福天(홍천)
  (부천) **(부천)** ▼
  ▼ ▼

특히 13世 변응몽(卞應夢)의 7男 중에서 2男과 5男 후손들이 부천지역에 오랜 세월 집성촌을 이루며 살고 있는 것이 눈에 띈다. 아무쪼록 밀양변씨 세장지(世葬地) 향토지명을 연구하면서 밀양변씨 공장공종중 변창순 대종손께서 많은 도움을 주셨다. 향토사 연구에 필요한 족보도 많이 주셨고, 문중의 묘소 위치를 하나하나 물어볼 때마다 자세하게 알려준 점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문화(文化)란 누군가 만들어내기도 하지만 아울러 누군가는 기록을 해야 한다. 특히 향토지명은 변하기 쉬운 음식과도 같아서, 한 시대만 지나도 변질되거나 자연스럽게 사장(死藏)되고 만다. 필자가 향토지명을 연구하는 목적 중 하나는 지역에 살았던 분들이 그 지역만의 고유언어로 남긴 문화를 남기고자 하는 데 있다. 그 시대, 그 지역이 아니면 나올 수 없는 민초(民草)들의 삶의 흔적이야말로 지역의 큰 자산이라고 할 수 있다.

강장골(康莊洞) **괴리동(槐里洞)** **간담산(間墻山)** **구름산(窟雲山)**
곰달내고개(古達峴) **고리울(古里洞)** **오룡골(五隴谷)** **보농산(保農山)**

이러한 지명들은 들으면 들을수록 정감이 간다. 농경시대에 살았던 분들이 남긴 고유의 언어들이야말로 우리가 이어받아서 다시 또 써야 된다. 상호(商號)로 쓰든 문학에서 쓰든 자꾸 쓰다보면 언어는 저절로 살아나게 돼 있다. 아무쪼록 미진한 면이 없지는 않다. 그러나 늘 그렇듯이 기록자로서의 의무를 다하려 한다. 사라지는 것은 미덕이 아니다. 모든 지명에는 이유가 있듯이 기록으로 남기려는 이유 또한 있다. 여기에 기록된 향토지명들은 앞으로 책 속에서 나와 다시 또 사용되기를 바라면서 이만 줄인다.

참고문헌

○ 족보류

《밀양변씨족보》(1864)
《밀양변씨족보》(1906)
《밀양변씨족보》(2008)
《의령남씨족보》(1809)
《청송심씨족보》(1843)
《청주한씨이양공파세보》(청주한씨이양공파종회 ,1960)
《원주원씨족보(原州元氏族譜》(원주원씨대동보소, 1925)
《원주원씨족보(原州元氏族譜》(원주원씨대동보소, 1936)
《원주원씨족보(原州元氏族譜》(원주원씨세보소, 1823)
《원주원씨족보(原州元氏族譜》(원주원씨세보소, 1869)
《원주원씨족보(原州元氏族譜》(원주원씨시중공계족보편찬위원회, 1985)
《의령남씨족보(宜寧南氏族譜)》(의령남씨대종회, 1992)
《인동장씨세보(仁同張氏世譜)》(1803,1914)
《밀양박씨밀원부원군파보》(밀양박씨밀원부원군파세보간행소, 1930)
《씨족원류(氏族源流)》(조종운(1607~1683)

○ 부천시 관련 자료

《고강동.성곡동 마을誌》(부천문화원, 2015)
《복사골문화》(부천문화원, 1982)
《부천문화의 재발견》(부천문화원, 1996)
《부천사연구(富川史硏究)》1집(최현수, 1993)
《부천시사(富川市史)》(부천시사편찬위원회, 1988)
《부천시사》(부천시사편찬위원회,2002)
《부천시예총(富川藝總)》(예총부천지구회, 1977)
《부천시의 민속과 문화》(소진섭, 2000)

《부천의 땅이름 이야기》(한도훈 2001)
《부천의 흐름》(부천시 문화공보실, 1982)
디지털부천문화대전 2008

○ 지도류
25,000/1 지도(1915)
25,000/1 지도(1963)
25,000/1 지도(1970)
25,000/1 지도(1972)
25,000/1 지도(1973)
25,000/1 지도(1976)
5,000/1 지도(1981)
5,000/1 지도(1983)
1:25,000 (1915)
1:5,000(1976)
50,000/1 지도 (1919)
대동여지도(1864)
《부평군읍지》〈부평지도〉(1899)
새서울道路計劃道路番地略圖〉(1971)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廣輿圖〉 (19세기초)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경기읍지》〈부평부지도〉(1871, 官撰)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畿甸邑誌》〈부평지도〉1895년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대동지지(大東地志)》(1863)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부평부지도(富平府地圖》(1872년 지방도)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여지도서(輿地圖書)》〈부평부지도〉(1760년, 官撰)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동여도(東輿圖)〉 : 19세기 중엽 金正浩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해동지도(海東地圖)〉(1750년~1751 官撰)
종로도서관 〉 고문헌자료 〉 朝鮮 五万分一 地形圖.京城(京城三號(조선총독부, 1919)

○ 기타
《조선지지자료(朝鮮地誌資料)》(조선총독부,1911)
《한국지명어연구》(천소영, 2003)
《한국지명총람》17 경기도편 (한글학회, 1985) 〈부천관내도〉
《호구총수(戶口總數)》(1789년)
한국역대인물정보시스템 〉 한국학중앙연구원 〉[출전]『국조문과방목(國朝文科榜目)

○ 고증 : 밀양변씨 춘당공파 공장공종중 대종손 변창순

안성의 선비 정신과 전통교육기관의 재조명

-역사 속 선비들의 모습과 안성의 선비 교육 기관을 중심으로-

홍 완 표 (안성문화원 부원장)

목 차

Ⅰ. 들어가는 말
Ⅱ. 펼치는 말
1. 선비란 누구인가?
2. 선비 정신
3. 역사에 기록된 선비들의 모습
4. 안성의 선비 교육 기관
5. 선비 정신을 잇는 안성의 선비 마을
Ⅲ. 맺는 말

※ 참고 문헌

집필자
홍 완 표 안성문화원 부원장 | 국사편찬위원회 사료조사위원

Ⅰ. 들어가는 말

선비 마을이 있는 동네는 안성, 안동, 영주 등이 있다. 이 곳의 선비 마을(선비촌)에서는 체험 활동도 가능하다. 안동은 2002년에, 영주는 2003년에 각각 체험 프로그램을 시작하였다. 안동은 도산서원이 있는 곳으로 도산서원 선비문화수련원에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영주는 소수서원이 있는 곳으로 선비촌에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 두 곳은 모두 서원 문화로 유명한 곳인데 비해 안성은 전국적 지명도를 가진 서원이 없다. 그럼에도 안성의 선비 마을이 유명해진 이유는 덕봉 서원 근처에 해주 오씨 집성촌이 있기 때문이다. 안성 양성면 덕봉리에 있는 선비마을은 2007년 문화재청에서 문화마을로 선정된 이후 2009년 12월에 준공을 마치고 그 이후에 체험 활동이 시작되었다.

전통을 잇는 문화마을 이외에도 선비라는 이름을 쓰는 곳들이 있다. 아파트에도 선비마을이라는 명칭을 사용한다. 건설사 삼정은 용인과 대전에 '선비마을'이라는 아파트를 98년과 99년에 완공했다. 90년대 이후 한국적인 것에 대한 관심이 깊어지고 한옥, 한식, 한복 등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한류의 유행과 결합되며 우리 것에 대한 자부심도 높아졌다. 그런 과정을 거쳐 유형의 문화에 대한 관심이 점차 무형의 정신 문화에 대한 관심으로 변화되고 있는 듯하다. 한옥 마을과 전통 건축에 대한 관심에서 그 곳에 살던 선비들의 삶의 향기와 정신을 돌아보기 시작한 것이다.

선비 마을들이 본격적으로 조성된 것은 21세기 들어와서이다. 그리고 선비에 관한 책들도 근래 들어 많이 나오고 있다. 지난 20세기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었던 '선비'를 요즘 들어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왜 '선비'라는 명칭이 21세기에 들어와서 다시 주목받게 되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물질 만능주의가 판을 치게 된 근대 이후, 우리는 남보다 잘 살기 위해 무한 경쟁을 통해 물질적 풍요를 추구한 대가로 정신적 빈곤을 얻게 되었다. 그래서 그 반작용으로 우리가 그동안 잊고 살았던 선비들의 드높은 정신적 경지를 다시 찾게 된 것은 아닐까 한다. 이기기 위한 공부보다는 자신을 돌아보기 위한 공부를 했던 선비들, 삶의 원칙을 가지고 자신만의 경지를 추구했던 선비들로부터 삶의 대안을 얻을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갖게 된 사람들이 많아져 선비와 선비들의 삶, 정신 세계, 공부법, 리더십, 선비 인문학에 관한 서적들이 많이 출간되고 있다.

본고는 요즘 나오는 인문서와는 거리를 두려 한다. 일반적인 관점에서 전국적 지명도를 가진 선비들, 역사적인 위인으로서의 선비들을 중심으로 그들의 삶과 역사적 의의를 밝히려는 시도는 하지 않으려 한다. 범위를 안성 지역으로 한정하여 안성과 관련이 있는 선비들의 흔적을 되짚어보려 한다. 물론 일반론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을 것이다. 선비 정신이라는 일반적인 관념을 살펴

보지 않는다면, 안성 지역의 삶이라는 보다 구체적이고 지역적인 모습들을 발견할 수 없을 것이기에 먼저 선비들은 누구고, 무엇을 지향하고, 어떻게 살았는지를 살펴보려 한다. 그 후 안성의 선비들이 선비의 모습들 중 어떤 면모를 많이 지녔는지를 살피려 한다. 그리고 그러한 선비로서의 정체성을 형성하게 한 안성의 선비 교육 기관들을 살펴보려 한다.

II. 펼치는 말

1. 선비는 누구인가?

한국민족문화대백과에 나오는 선비[士]의 정의는 '학식과 인품을 갖춘 사람에 대한 호칭'이다. 여기에서 학식과 인품을 갖춘 사람으로서의 선비라는 말은 특히 유교 이념을 구현하는 인격체나 신분 계층을 가리킨다. 선비라는 말은 「용비어천가」에 처음 나온다.[1] 용비어천가 80장과 82장에 '선ᄇᆡ' 라는 명칭이 나오고 있다. 어원적으로 보면 우리말에서 선비는 '어질고 지식 있는 사람'이란 뜻인데, '선ᄇᆡ'의 '선'은 몽고어의 '어질다'는 말인 'sait'의 변형인 'sain'과 연관되고, 'ᄇᆡ'는 몽고어 및 만주어에서 '지식이 있는 사람'을 뜻하는 '박시'의 변형인 'ᄇᆞ이'에서 온 말이라고 분석되기도 한다.[2] 즉 몽고말의 '사인 바이'와 우리 말의 '선비'는 다같이 '지식이 있는 어진 사람'이란 뜻이다.

조선 전기까지는 선비를 유(儒)로 번역했고, 선비 사(士)의 용례는 1588년에 간행된 『석봉천자문』에서 나타나기 시작한다. 그 이후로 선비를 사(士)로 칭하였다. 연암 박지원은 "오직 그 양반은 이름이 다단(多端)해서 독서를 하는 사람을 '사(士)'라 하고, 정치를 하는 사람을 '대부(大夫)'라 하며, 덕(德)이 있는 사람을 군자(君子)라 한다."라고 하여 재야 학자들도 모두 선비로 보았다. 1894년 과거제의 폐지로 선비와 관료가 구분되었고, 이희승의 『국어대사전』에서는 선비를 "학식이 있되 벼슬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풀이하게 되었다.[3] 이제는 벼슬과 무관한 포의(布衣)의 독서인도 선비라 부를 수 있는 것이다.

2. 선비 정신

1) 청렴정신

공자(孔子)와 그의 제자들은 "선비의 집단"으로 자신들을 인식하였다. 그들은 다만 자신의 인생

1) 최영봉, 『조선시대 유교문화』, 사계절, 1997, 44쪽.
2) 민족문화대백과사전, '선비'항목에서 인용.
3) 이성무, 『선비평전』, 글항아리, 349~351쪽 요약.

목적을 도(道)를 실현에 두고 있었기 때문에, 유교적 이상을 실현하기 위한 인격체로 선비의 개념을 상정하였던 것 같다. 공자는 도에 뜻을 두어 거친 옷이나 음식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인격을, 선비의 모습으로 그리고 있다.

≪논어(論語)≫ 〈옹야(雍也)〉 편에, "子曰 賢哉라 回也여 一簞食와 一瓢飮으로 在陋巷을 人不堪其憂어늘 回也不改其樂하니 賢哉라 回也여!"라고 하여, 공자가 그의 수제자 안회의 안빈낙도(安貧樂道)를 칭찬한 것은, 바로 이러한 선비정신을 상정하고 말한 것이다. 공자는 제자인 자공(子貢)에게, "자신의 행동에 염치가 있으며 외국에 사신으로 나가서 임금의 명령을 욕되게 하지 않으면 선비라 할 수 있다."고 말하면서, 당시 정치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가리켜, "좀스러운 인물들이니 헤아려 무엇하랴!"라고 탄식하였다. 이는 바로 선비라는 개념이 관직과 같은 신분적인 계급을 넘어서서 인격적인 덕성을 갖춘 존재여야 함을 지적한 것이다.

조선 시대의 선비는 남에게 후하고 자신에게는 박하게 하는 박기후인(薄己厚人)의 정신을 체질화하여 청빈하고 검약한 생활 방식을 자연스럽게 몸에 익혔다. 이 세상에 쓰고 싶은 대로 다 쓰고 남는 여유란 없으므로 아끼고 절약해야 남에게 베풀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청렴 정신이 청백리의 바탕이 된다.[4] 2016년에 만들어진 '김영란 법'이라는 법 때문에 자정의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맑고 깨끗하고자 하는 내적 지향점이 사회를 맑게 하는 것이다.

2) 인정과 의리를 추구하는 진실함

공자는 "뜻이 있는 선비와 어진 사람은 살기 위하여 어진 덕을 해치지 않고, 목숨을 버려서라도 어진 덕을 이룬다."고 하여, 유교적 사랑인 "어진 마음"을 강조하고 있고, 맹자(孟子)는 "일정한 생업이 없이도 변하지 않는 마음을 갖는 것은 선비만이 할 수 있다."고 하여, "지조와 의리"를 선비의 덕목으로 말하였다. 공자는 "향원(鄕原)은 덕(德)의 적이다."라고 하여, 덕이 있는 것처럼 보이려고 가장하는 거짓된 위선자를 싫어하였다. 향원은 사이비(似而非) 위선자들을 말하는데, 공자는 이런 자가 찾아오는 것까지도 싫게 여겼다. 조선 선비의 최대 관심은 공의(公義)의 실현에 있었다. 개인적인 욕망을 이겨내고 나와 타인이 다 함께 이 세상에서 생을 실현할 수 있는 공동의 선인 공적 의로움, 즉 공의를 실현하는 일이야말로 이 세상을 살기 좋은 세상으로 만드는 지름길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공의,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잣대는 인정과 의리라는 두 기준이 평형을 이루는 사회가 모든 사람이 소외감 없이 공평하게 삶을 누릴 수 있는 사회라는 인식을 하였다.[5]

---

4) 정옥자, 『우리가 알아야 할 우리 선비』, 현암사, 29쪽.
5) 위의 책, 29쪽.

3) 지행합일(知行合一)을 위한 평생 마음 공부 지향

선비는 한평생 학문을 중단하는 일이 없었다. 그렇다고 단순히 글만 공부하는 학문이 아니었다. 그들은 학문의 목적을, 다만 지식의 양적 축적에 둔 것이 아니라, 도리의 실천에 두었기 때문이다. ≪논어(論語)≫ 〈학이(學而)〉 편에, "제자가 〈집에〉 들어가서는 효하고 〈밖에〉 나와서는 공손하며, 〈행실을〉 삼가고 〈말을〉 성실하게 하며, 널리 사람들을 사랑하되, 어진 이를 친해야 하나, 이것을 행하고 여유가 있으면, 글을 배워야 한다."고 하였다. 선비가 공부하는 경전은 고차적인 이론보다도 일상생활의 실천방법을 제시하는 내용이 주가 되었다. 한훤당 김굉필은 학문이 매우 깊었던 사람인데도, 김종직의 문하에서 ≪소학(小學)≫을 읽고 스스로 소학동자라 일컬으며 한 평생 손에서 놓지 않았다고 한다. ≪소학≫은 인륜을 밝히는 조목과 자신을 공경하는 조목으로, 선비가 일생을 통하여 필요한 마음가짐과 행동규칙을 설명하고 있다. 《소학(小學)》에서 나오는 선비의 생애는 다음과 같다.

어린아이가 가정에서 교육을 받으며 성장하다가 10살이 되면 남자아이는 사랑에서 아버지와 자며 선생을 찾아가 배우고, 20살이 되면 관례를 하고 널리 배우며, 30살에는 아내를 맞아 살림을 하며, 40살에서는 벼슬에 나가고, 70살에는 벼슬을 사양하고 물러난다. 이런 생애는 누구나 비슷하지만 특히 선비에게는 학업과 벼슬이 중요하다.[6] 선비는 한평생 학업을 중단해서는 안 된다. 선비는 타고난 신분이 아니라 학문과 수련으로 형성되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선비는 독서인이요, 학자다. 선비가 배우는 학문의 범위는 인간의 일상생활 속에서 부딪히는 일의 마땅한 도리를 확인하고 실천하는 것이다. 선비는 학문을 통해 지식의 양을 쌓는 것이 아니라 도리를 확인하고 실천하는 인격적 성취에 목표를 둔다. ≪대학(大學)≫에서는 삼강령(三綱領) 팔조목(八條目)을 제시하고 있는데, "밝은 덕을 밝히는 일", "백성을 새롭게 하는 일", "지극한 선에 머무는 일"이 세 가지 강령이고, 격물(格物)·치지(致知)·성의(誠意)·정심(正心)·수신(修身)·제가(齊家)·치국(治國)·평천하(平天下)가 여덟 가지 조목이다. 수신은 먼저 격물치지로 지혜와 학문을 닦고, 성의정심으로 마음가짐을 바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수기와 치인으로 요약되는 유교의 정신은, 남을 다스리려면 우선 자신의 몸과 마음부터 닦아야 한다고 한다. 그래서 선비정신의 본질을 인의예지(仁義禮智)와 효충(孝忠), 경신(敬信)으로 보기도 한다. 개인의 인격 계발을 위해서는 인의예지의 4가지 원칙이 기본 핵이 되며, 조직이나 대인 관계의 인격 계발을 위해서는 효(孝), 충(忠), 경(敬), 신(信)의 4가지 원칙이 기본 축이 되는데 이는 모두 행동 덕목이었다.[7]

---

6) 황훈영, 『우리 역사를 움직인 33가지 철학』, 푸른숲, 145-146쪽.
7) 김진수, 『선비 리더십 1』, 열린 창고, 17-26쪽.

4) 시대적 사명감과 책임 의식

선비는 시류에 영합하는 것을 비루하게 여겼고, 역사 의식에서 시시비비(是是非非)의 춘추(春秋) 정신을 신봉했다. 그들은 '청(淸)' 자를 선호하여 청의(淸議), 청백리(淸白吏), 청요직(淸要職), 청명(淸名), 청류(淸流) 등의 용어를 즐겨 썼다.[8] 명분에 맞는 일이라면 목숨을 거는 일도 마다하지 않았다. 도끼를 들고 왕 앞에 나가 상소가 옳지 않으면 머리를 자르라는 용기를 보여준 선비들이 있었고, 이는 구한말 최익현에까지 이르고 있다. 비록 조선 후기와 구한말에 세계적인 시류를 정확하게 읽지 못하여 현재 사전적 정의에서 '품성이 얌전하기만 하고 현실에 어두운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라는 부정적 관념이 생기기는 하였으나 명분을 중요시하는 선비들의 정체성을 부정적으로만 평가할 수 있다. 그들을 부정적으로만 평가한 것은 일제 제국주의자들의 목적 때문이었다. 선비 정신이 살아있으면 민족적 저항이 계속될 것이기에 선비 정신을 어떻게든 폄하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 진실된 선비라면 시대가 그들의 목숨을 필요로 한다면 언제든 목숨을 버릴 수 있는 마음을 지니고 있었다. 그것은 여론의 형성자이며 백성들을 생각하는 인도자로서의 선비의 책임감 때문이기도 하다. 이것이 선비들의 리더십이었다.

3. 역사에 기록된 선비들의 모습[9]

1) 조선 중기 이전의 모습

우리나라는 삼국시대 초기부터 유교문화가 점차 폭넓게 받아들여지게 되자, 유교적 인격체인 선비의 덕성에 관한 이해가 성장하여 왔다. A.D. 2세기 말엽 고구려 고국천왕 때, 은둔하여 밭갈이하고 살다가 추천을 받아서 재상의 자리에 올랐던 을파소라는 인물이 있었다. 그는 재상의 책임을 맡고 나올 때 말하기를, "때를 만나지 못하면 숨어살고 때를 만나면 나와서 벼슬하는 것이 선비의 떳떳한 일이다."라고 하여, 자신의 처지를 선비로 자각하였고, 선비의 나가고 물러서는 도리를 명백하게 제시하였다.

A. D. 7세기 신라의 인물인 강수와 설총은 선비의 활동 모습을 뚜렷하게 보여준다. 강수는 탁월한 한문의 조예와 유교에 대한 신념을 지녔던 인물로서, 삼국통일 시기에 민감한 외교적 문서를 다루는데 기여하였던 당대의 대표적 문장가였다. 그는 비천한 출신의 아내를 맞는 것을 부끄러운

8) 정옥자, 위의 책, 57쪽.

9) 이 부분에서는 주로 금장태(『정암과 조선시대의 선비(성대출판사)』, 『의리사상과 선비정신(월간조선 1981. 6월호』)와 최봉영(『조선시대 선비정신 연구(한국학대학원석사학위논문)』, 이우성(『조선유교정치와 사림의 존재(창작과 비평사)』의 연구를 토대로 인물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하였다.

일이라고 반대하는 아버지에게, "가난하고 부끄러운 것이 천한 일이 아니요, 도리를 배우고서도 이를 실행하지 않는 것이 참으로 부끄러운 일입니다."라고 대답한 것은 의리를 지키는 선비의 태도를 보여준 것이다. 강수는 6두품인 사찬(신라 17 관등의 여덟째 위계)에 임명되었다. 설총은 이두를 지어 유교경전을 해설 보급함으로써 이러한 유교적 선비의 양성에 기여하였다. 그가 신문왕에게 어진 이를 가까이하고 여색을 멀리하도록 간언하였던 것도 선비의 태도를 보여주었다. 조선 초기 청빈한 선비정신의 대표적인 인물로서 황희(1363~1452)를 들 수 있다. 그는 고려 창왕 1년(1389) 문과에 합격하여 성균관 학관이 되었다가 고려가 망하자 한때 두문동에 들어가 은거했으나, 조선 태조의 간청으로 관직에 참여하여 세종 때 영의정에 오르기까지 많은 정치적 업적을 남겼다. 그는 영의정이라는 높은 관직에 있으면서도 청빈한 생활로 일관하여, 심지어 먹을 끼니도 모자랐고 지붕을 이지 못해 비가 내리면 빗물이 방으로 새어드는 초라한 집에 살면서 오직 국정에만 몰두했다고 하며, 그 외에도 그의 청렴성과 선비정신을 보여주는 여러 가지 일화들이 현재까지도 세상에 회자되고 있다. 삼국통일의 원동력이 된 화랑도의 정신 역시 이 선비정신과 통하는 것이다. 무사나 군사의 "사"는 곧 "선비"를 의미하며, 이 때의 선비란 의리에 강하여 전장에 나가서 비겁하게 물러서지 않고 용감하게 싸우는 사람이다. 전쟁터의 군인은 사기가 생명이다. 김유신(595~673)은 그 대표적인 인물이며, 화랑 관창(645~660)과 김유신의 아들 원술에 대한 이야기는 비겁하지 않은 용기가 그 핵심적인 내용이다.

A. D. 7세기 안성에도 이런 용기 있는 장수가 있었다. 바로 백성군(안성의 옛 지명) 사산에는 심나와 소나라고 하는 두 장군이 있었는데, 심나 장군은 신라 안에서도 용감하기로 이름난 장수로, 신라 삼국통일기에 큰 공을 세운 사람이다. 당시 백제 사람들은 심나를 가리켜, "신라의 비장"이라고 불렀고 그가 나타나기만 하면 모두 도망하기에 바빴다. 심나의 아들 소나 역시 용맹하고 충성스러워 675년(문무왕 15년) 아달성 전투에서 말갈과 맞서 장렬히 싸우다가 마치 고슴도치처럼 화살을 맞고 죽었다. 안성에 있던 소나의 아내 또한 국가를 위해 싸우다 죽은 남편을 영광스럽게 생각하였다. 문무왕은 그의 부음을 듣고 눈물을 흘리며, "소나의 부자는 가히 대대로 충의를 이루었다 할 만하다." 하고는, 잡찬의 벼슬을 소나에게 추증하였다.

고려시대 선비의 대표적인 인물은 제 6대 성종 때 외교가로 이름을 날린 서희(942~998)를 꼽을 수 있다. 그는 993년(성종 12년) 거란이 침공하자 중군사로서 북계에 출병하였으나, 이 때 전세가 불리해지므로 조정에서는 적장 소손녕의 요구대로 항복하든가 서경 이북 땅을 할양하여 강화하자는 의견이었는데, 이에 극력 반대하여 자진 국서를 가지고 소손녕의 군영에 가서 담판을 시도, 탁월한 화술로 거란군을 철수시키는데 성공했다. 그 후 청천강 이북에 살고 있던 여진족을 축출하고 압록강 일대의 여러 곳에 축성하여 국토를 보전시키는 데 막대한 공헌을 하였다. 우리 안성

출신으로 이와 비견되는 인물이 있었으니, 고려 제 11대 문종 때 박인량(?~1096)은 거란의 침공에 눈부신 활약상을 보여주고 있다. 그는 1075년(문종 29년) 요나라가 압록강 동쪽을 국경으로 삼으려 하자 진정표를 지어 압록강으로 국경을 삼을 것을 주장, 요나라 황제가 그 문장의 훌륭함에 감탄하여 그들의 주장을 철회하게 하였다. 그 후 1080년(문종 34년) 예부시랑으로 송나라에 사신으로 들어갔을 때 시문으로 크게 격찬을 받아 뒤에 그의 시문을 수록한 ≪소화집≫을 중국인들이 발간하였다.

고려 말엽 충렬왕 때는 안향과 백이정 등에 의하여 원 나라로부터 주자학이 도입되면서 유교이념의 새로운 학풍과 학통이 형성되었다. 여기서 이른바 도학이념이 정립됨과 동시에 선비의 자각도 심화되어, 유교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사회개혁의식이 성장하게 되었는데, 이색을 중심으로 정몽주, 이숭인, 길재 등은 그 대표적인 인물들이다. 고려 "삼은"으로 통칭되는 이들을 비롯하여 이석지 등 이른바 두문동 72현은, 이성계의 역성혁명에 영합하지 않고 고려에 끝까지 충성을 지킨 사람들로서, 학문이나 의리 등에서 이 시대 선비의 모범으로 존중되는 인물들이었다.

조선시대에 들어와 유교이념을 통치 원리로 삼으면서 선비들은, 고려 말에 절개를 굽히지 않고 절의를 지킨 이들의 정신을 계승하였다. 세종 때에 한글창제 작업에 참여했던 집현전을 중심으로 관계에 진출했던 선비들은, 세조의 왕위찬탈에 대항해서 자신들의 주군이었던 단종을 위해 충성과 의리를 지켰다. 성삼문, 박팽년, 유성원 등 사육신과 생육신 등은 그러한 선비정신을 발휘했던 대표적인 인물들이었다. 김종직은, 고려 말 절의를 지킨 길재의 학통을 이어받은 사람으로, 일찍이 〈조의제문〉을 지어, 항우가 초회왕을 죽인 중국의 고사에 비유, 세조에게 죽임을 당한 단종을 애도했다가 그가 죽은 뒤 폭군 연산에 의해 부관참시되었다.

연산군의 폭정을 거친 다음, 중종 때에 와서 김종직, 김굉필의 학통을 이은 조광조 등 사림파 선비들은 유교의 이상정치를 실현해 보려고 하다가, 1519년(중종 14년)에 일어난 기묘사화로 모두 유배되거나 사사되었다. 이른바 도학 사상에 입각하여, 유교적 이상을 추구하려는 사림과 선비들의 수난이었다. 이후 1545년(명종 즉위년)에 일어난 을사사화 때도 많은 선비들이 화를 당하였다. 이 때 사화에 희생된 사림파 유학자로 안성 출신의 유인숙(1485~1545)이 있다.

사화로 인해 많은 선비들이 목숨을 잃자, 그 여파로 뜻있는 선비들은 관직을 버리거나 아예 관직을 단념하고 학문에만 열중하는 풍조가 일어났다. 학문의 풍조도 도학사상의 정치적 이념으로 현실참여 의사를 가졌던 종래의 관념에서 벗어나, 사색과 이론의 방향으로 일변하여 주자학의 우주론 · 심리설 등을 깊이 연구하였다.

2) 조선 중기의 모습

도학정신이 정착하면서 선비의식은 어느 때보다도 선명하고 자각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선조 때에는 사림들 자체가 내부의 분열을 일으키고 대립하게 되었다. 이른바 당쟁이 시작되면서부터 당파는 계속하여 핵분열을 거듭하여, 서로 비난하면서 주도권을 잡기 위해 살육전을 일으키기도 하였다. 당쟁은 출발점에서 보면 선비정신의 기본이념에 따라, "군자와 소인"을 분변하여 비판하는 그럴 듯한 입장이었다. 그러나 선비가 자신을 반성하고 다른 사람의 좋은 것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군자라 칭하고 남을 소인으로 비난하면서 서로 격심한 적대감을 일으키는 식이었다. 선비가 권력의 부당성을 비판하면서 남을 견제할 때는 순수한 입장을 지키는 듯했으나, 자신이 권력의 주체가 되었을 때는 엄청난 권력을 독점하려고 들었다. 이것은 선비의 타락상이요, 선비의 진실한 모습을 상실한 것이었다. 또한 선비가 국가권력에 참여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 향촌에서 온갖 특권을 누렸다. 국가가 선비를 우대하도록 요구하였고 선비는 봉사자가 아니라 권력의 향유자로 군림하게 되었다. 선비는 사회의 문화와 규범을 담당하는 역할을 맡았다. 여기서 선비의 문화적 기준은, 한자로 된 중국문화에 젖어 민족문화의 자주성과는 유리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유교적 선비문화가 점점 귀족적으로 세련되면서, 서민문화는 더욱 위축되거나 이탈되는 분열상을 보이게 되었따. 이른바 반상의 차별이 철저하게 정착되고 신분주의가 더욱 가속화되었다. 이로 인해 사회적 조화는 점차 깨지고 계층 사이의 분열이 더욱 심화되었던 것이다. 선비문화의 중요한 기능은 사회의 도덕적 질서와 규범 체계를 확보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의례와 규범들이 선비의 계층적 권위를 드러내기 위하여 너무 강화하다보면 형식화되기 십상이다. 의례의 완벽한 집행자가 되기 위해, 선비들은 의례를 너무 섬세하고 지나치게 과장하여 조직하는 경향을 보였다. 예의 범절이 너무 형식주의에 빠지면서 결국 실질적인 효용성을 외면하고 말았다. 조선 중기의 이른바 예송이라 불리우는 당쟁도 실은 이러한 형식주의의 말기적 현상이었다. 병자호란 때에 항복을 반대하다가 결국 청나라에 끌려갔으나 끝내 선비의 지조를 굽히지 않고 순절한 삼학사가 있으니, 홍익한, 오달제, 윤집이다. 오달제는 바로 안성출신이다. 오달제는 이해 관계를 초월한 사생관을 지니고 있었다. 처남인 남일성에게 한 말에서 이러한 사생관이 잘 드러난다. "무릇 사람이 이해에 임했을 때 자신이 지키던 것을 많이 잃게 된다. 대개 사는 것을 보면 이(利)를 택하는 자가 반드시 사는 것은 아니며 해(害)에 처한 자가 반드시 죽는 것은 아니다. (중략) 사람은 마땅히 해야 할 바를 해야 할 뿐이니 어찌 이해를 비교하고 사생(死生)을 헤아려 뒤를 돌아보고 앞을 바라보며 망설이리요."[10]

10) 정옥자, 앞의 책, 201~203쪽.

3) 조선 후기 및 구한말의 모습

이러한 도학적 관념성과 형식주의에 대해 반성하고, 실질적 효용성에 대한 관심을 높였던 새로운 학풍이 대두되었으니, 바로 실학의 등장이다. 실학사상을 이끌어갔던 세력도 역시 선비들이었다. 이러한 실학파의 선비들은 도학적인 선비문화의 문제점에 대해 예리하게 반성하고, 그 폐단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실학파의 선구적 인물인 유형원은 신분의 귀천이 문벌에 의하여 세습되는 것을 비판하여, "예법에는 나면서부터 귀한 자가 없다."고 하며, 상하의 서열을 재덕과 연령에 따라서 나눌 것을 주장하였다. 박지원이 ≪양반전≫에서 가식적인 행동규범과 지배계층으로서의 탐학상에 대해 조소적으로 비판한 것도 신분제도에 대한 비판이었다. 그는 선비의 구실을 재평가하면서 "농사를 밝히고 상품을 유통하게 하며 공장에게 은혜롭게 하는 것"이 바로 선비의 학문이라고 지적하였다. 그는 또한 선비는 도덕규범만 담당하고 생산을 외면할 것이 아니라, 직접 생산에 참여하여 산업을 성장시키는 데에서 그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곧 재화의 생산활동이 바로 도덕적임을 인정한 것이다. 이익은 자신이 전형적인 선비인데도, "나는 실오라기 하나, 낱알 하나라도 생산하지 못하고 있으니 어찌 좀벌레가 아닌가?"라고 자신을 자책하고 있다. 선비의 바른 기풍을 추구하는 것은 도학자 사이에도 있었던 것이 사실이지만, 이와 같이 선비의 허위적 면모를 깊이 성찰하고 진실한 선비의 모습을 추구한 것은 실학자 선비들이었다. 이러한 실학사상의 학풍은 세력이 사뭇 커서 일시 학계와 사상계를 풍미하는 듯했으나, 동점하여 오는 서학에 물들었다는 혐의를 받아, 결국 정부의 탄압을 받고 그 탁월한 경륜과 해박한 지식을 경국제민에 활용해 보지도 못하고 한말의 격동기를 맞게 되었다.

한말에 이르러서는 도학이 다시 활기를 찾기 시작하였다. 곧 선비정신이 쇠퇴할 때 유교이념도 은폐되고, 선비정신이 살아날 때 유교이념도 활력을 찾는다는 것은 당연한 이치였다. 한말에 이른바 〈척사위정파〉의 선비들은 이 시대의 기본과제를, 우선 유교이념에 배반되는 서구적 이념을 거부하고, 오직 그들의 도학이념을 수호하는 데에만 두었다. 이들은 도학의 정통성에 대한 확신과 우리민족의 문화적 우월성에 대한 신념을 확고하게 지녔었다.

1866년(고종 3년) 병인양요를 당하자, 척사위정의 대표적 인물이었던 이항로는, 국가적인 위기상황에 선비의 적극적인 참여 자세를 강조하였다. 그들은 곧 인간의 욕망을 개방하여 인간으로 하여금 재화를 유통하게 하고 남녀가 자유로이 접촉케 하는, "통화, 통색"을 서양문화의 성격으로 규정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그들의 수구운동은 마침내 성공하지 못하고 오히려 우리나라의 개화혁신에 장애적 요소로 작용하였다. 그 원인은 조선 말엽 유가의 대부분이 국제정세에 눈이 어두웠고, 유교 본령의 하나였던 유신정신을 망각하여 보수와 완고함만 고집하였기 때문이다.

결국 나라가 위급한 지경이 돼서야 선비들은 분연히 일어나 선비의 기상을 드높였다. 이항로의 제자 유중교는 "천자라도 선비의 몸을 죽일 수 있지만 선비의 뜻을 빼앗을 수는 없다."고 하면서, 외국 침략세력과 그 추종자들에게 대항하였다. 역시 이항로의 제자 유인석도 1896년 의병을 일으키면서, "죽음은 선비의 의리이다."라고 하면서, 선비의 의리정신을 보여주었다. 국권이 일본의 손아귀에 넘어가자 송병선, 최익현, 조병세, 민영환, 이준, 안중근 등은 다 유가의 선비로서 살신성인의 자세를 취하여 대의를 이루었다. 또한 나라가 일본에 병탄되는 지경에 이르러서는, 유가의 선비로서 송병선, 최익현, 조병세, 민영환, 이준, 안중근 등이 다 살신성인의 자세를 취하였다. 그러나 선비의 나라 조선이 이렇게 선비의 비극적 종말을 자초하게 된 것은, 보다 일찍이 선비의 정신을 가다듬지 아니하고, 너무 정체된 생각에 빠져 있었던 때문이었다.

4. 안성의 선비 교육 기관

배움은 평생 추구해야갈 선비들의 삶의 지향점이었다. 배운 것을 실천하는 삶이 그들의 정신이었다. 유명한 유학자들은 각자 그들만의 공부 방법이 있었다. 정약용은 중요한 내용을 옮겨 쓰며 공부했으며, 박지원은 쓸모 있는 공부를 도모하였다. 홍대용은 새로운 내용을 배우는 데 주저함이 없었고, 이황은 거울을 닦듯 매일 꾸준하게 공부하는 자세를 중요시했다. 이이는 숙독하여 통달할 때까지 읽고 또 읽었으며, 서경덕은 스스로 생각하고 이치를 구했다. 조식은 칼과 쇠방울로 심성을 수양했으며, 윤증은 언제 어디서든 기록하며 공부하였다. 류성룡은 마음을 수련해 본원공부를 하였으며, 송시열은 말을 적게 하는 공부를 하였다. 김득신은 다독을 중요하게 여겼고, 이덕무는 공부하는 시간을 규칙적으로 정하였다. 최한기는 공부의 완성은 책을 쓰는 것이라 여겨 평생 책쓰기를 실천하였다.[11] 벼슬에 나아가서는 올바른 정치에 힘쓰고, 물러나서는 후학을 양성하는 것을 큰 즐거움으로 알았기에 선비들은 여러 교육 기관에서 그들이 깨우친 바를 가르쳤다.

유학은 조선 건국 초기부터 정교의 근본이념으로써 채택되었다. 따라서 조선시대의 과거제도나 교육제도 역시 유교이념에 바탕을 둔 것이었다. 대부분의 과거 응시자격은 양반계급에 국한되었기 때문에, 유학 역시 입신양명의 유일한 도구로서 그들에 의해 독점되었다. 양반의 자제들은 대개 어릴 때에 서당에서 유학의 초보적인 지식을 배우고, 15, 16세 이전에 서울 사학, 지방은 향교에 들어가서 공부하여 몇 년 뒤에 과거의 소과에 응시, 여기에 합격하면 성균관에 입학할 자격을 얻었다. 서울에 있는 성균관과 사학은 중앙정부에 직속되고, 향교는 각 군, 현에서 관할하던 관학으로서, 상호간에 상하의 연락계통이 서 있었던 것은 아니었고, 각각 독립된 교육기관의 성격을

11) 김병완, 『선비들의 평생 공부법』, 이랑, 책 전반적인 내용을 요약.

띠고 있었다. 즉 성균관의 입학자격은 생원 · 진사였지만 생원, 진사가 꼭 사학이나 향교를 거치지 않아도 될 수 있었으며, 또 성균관의 유생에게는 대과인 문과에 응시하는 자격과 기타 여러 가지 특전을 주었으나, 그렇다고 꼭 성균관을 거쳐야만 문과의 응시자격이 부여되었던 것은 아니고, 그 밖의 사람들도 얼마든지 시험을 치를 수가 있었다. 이들 관학 가운데 성균관만은 조선 말기까지 줄곧 최고 학부로서의 시설과 권위를 유지하고 있었으나, 사학과 향교는 후세에 점점 쇠퇴하여져서, 교육기관으로서의 기능은 유명무실하게 되었고, 다만 그 대신 사숙으로서 서당 이 외에 서원이 기세를 떨치게 되었다.

조선시대 역대 왕들은 유학의 진흥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조선 초기 태종은 성균관에 가서 선성을 제사하고 세자를 입학시키기까지 하였다. 이리하여 임금의 알성례와 세자의 입학례는 상례가 되었다. 또 재정적인 뒷받침으로 많은 전토와 노비 · 어장 등을 지급함으로써 적극 지원하였다. 이와 같이 유학을 중심으로 한 문과 계통의 교육기관은 비교적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무과 계통의 교육기관은 전혀 없는 상태였다. 이는 조선사회가 문을 숭상하고 무를 경시한 결과 생긴 당연한 현상이었다. 그리고 특수 분야인 잡과 계통의 교육기관으로서는, 태종 때에 이학, 역학, 음양풍수학, 의학, 자학, 율학, 산학, 약학 등의 교육기관을 두었으나, 이는 특수한 신분계층이 세습하였기 때문에 그 수가 그리 많이 못하였다. 또 이러한 교육과목과 담당 교육기관은 시대에 따라 여러 가지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왔다. ≪경국대전≫에 의하면 한학, 몽학, 여진학, 왜학은 사역원과 특정한 지방에서, 의학은 전의감 · 혜민서와 지방의 각 고을에서, 천문학 · 지리학 · 명과학은 관상감에서, 주학은 호조에서, 율학은 형조와 각 지방 고을에서, 화학은 도화서에서, 도학은 소격서에서 각각 일정한 수의 학생을 가르쳤다. 이중 외국어, 의학, 천문학, 법률학 등은 특수기술로 취급되어, 대개 중인(9중인) 계급에 의해 세습되게 마련이었다. 한편 고종 때에 미국 선교사들에 의해 세워진 육영공원, 배재학당, 이화학당 등의 설립은 근대 교육제도로의 전환점을 이루었다.

1) 향교

향교는 조선시대 각 지방에 세워졌던 문묘와 그에 딸린 옛날식 학교의 명칭으로, 일명 교궁 또는 재궁이라 불렀다. 고려시대에서 비롯하여 조선시대에 계승된 지방의 관학 교육기관이다. 1392년(태조 1년) 태조는 전국 각 도의 안찰사에게 명하여, 향교의 흥폐로써 지방관의 고과의 기준을 삼는다고 하고, 크게 교학의 진흥을 꾀하였다. 그리하여 점차 부, 목, 군, 현에 각각 1개 교씩 설립을 보게 되어, 웬만한 지방고을에는 향교가 설립되기에 이르렀다. 향교에는 문묘 · 명륜당 및 중국 · 우리나라의 선철 · 선현을 제향하는 동서양무 · 동서양재가 있다. 동서양재는 강당인 명륜당

이 전면에 있으며, 동재에는 양반, 서재에는 서류를 두고, 보통 내 · 외 양사로 갈라진다. 내사에 있는 자는 내사생이라 하고, 외사에는 내사생을 뽑기 위한 증광생을 두었다. 유생의 수는 부 · 목에 90인, 도호부에 70인, 군에 50인, 현에는 30인으로 정하였다. 직원으로는 교수 · 훈도 각 1인씩을 두는데, 소군에는 훈도만을 두었으며, 또 교예가 속하고 있었다. 또한 독서와 일과를 매월 수령이 관찰사에 보고하여, 우수한 교관에게는 호역을 양감하여 주었다. 향교에는 그 공수를 위하여, 나라에서 학전 7~5결을 지급하고 수세로써 비용에 충당케 하였으나, 새로 지방민으로부터 징수하거나 또는 매수하여 많은 전지를 소유한 곳도 적지 않았다. 이들의 향교는 중앙의 사학과 같으며, 여기에서 수학한 후 1차 과거시험에 합격된 자는 생원 · 진사의 칭호를 받고 다시 성균관에 가게 되며, 다시 문과에 응시하여 고급 관위에 오르게 되는 자격을 얻었다. 그러므로 조선 중기 이후의 향교는 과거의 준비 장소로 되고, 서원이 발흥하게 되자 향교는 점차 쇠미하여 갔다.

1894년(고종 31년) 말에 과거제도의 폐지와 함께 향교는 완전히 이름만이 남아 문묘에 향사하는 기능만 가지게 되었다. 그 후 근대 교육제도의 확립에 따라 각종 교육기관도 정비되었으며, 향교는 1911년 조선총독부령에 의해, 문묘직원을 명예직으로 하여 부윤 혹은 군수의 감독하에 두고, 문묘를 지키며 서무에 종사케 하였다. 학전과 지방유림의 구림 등 향교재산은 구한국 정부 학부의 소관으로, 1900년(융희 4년) 4월에 향교 재산 관리규정을 정하고, 부윤 · 군수로 하여금 정리케 하였으며, 그 수입은 부 · 군내의 공립학교 또는 지정하는 학교의 경비로 쓰거나, 또는 문묘의 수리 · 향사에 드는 비용에 충당케 하였다. 1918년 조사에 의하면, 향교의 총수 335개소에 소관 토지는 모두 48만 평이었다. 그 후 재산 관리규정은 폐기되어, 공립학교의 경비에 사용하지 않고 문묘의 유지와 사회교화사업의 시설에만 충당케 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현재 안성에는 3개의 향교가 남아 있다. 이들 향교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12]

(1) 안성향교

안성향교는 1533년(중종 28년)에 건립되었다. 안성시 명륜동에 소재하며, 이 건물은 지방유형문화재 제33호로 지정되어 있다. 건물의 구성은 대성전 12.5칸, 명륜당 10칸, 동 · 서무 각각 3칸, 전사청 6칸, 서재 6칸, 동문 3칸, 풍화루 상 · 하 각각 11칸 등 모두 합하여 총 65칸에 136여 평에 달한다. 문묘에 배향된 성현은, 5성위와 공자의 문인 중 10철의 위패 및 우리 나 대현 18위의 위패 등, 총 33위로 되어 있다. 현재 문묘의 향사는 매년 유림들에 의해 지속되고 있으며, 종래의 교육

12) 이 부분은 주로 『증보문헌비고』, 『경국대전』, 『학교등록』, 『조선교육제도사(조선사강좌)』, 『안성시지』 등을 참고하였다.

기능은 완전히 사라지고, 다만 향교재단으로 설립된 명륜여자중학교가 있어 현대교육의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2) 죽산향교

죽산향교도 역시 안성향교 설립연대와 같은 1533년(중종 28년)에 설립되었다. 안성시 죽산면 죽산리에 소재하며, 지방 유형문화재 제32호로 지정되어 있다. 건물은 대성전, 동, 서재, 명륜당, 내삼문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 명륜당은 겹처마에 팔작 지붕의 전통적인 양식이나 독특한 아름다움은 없다.

(3) 양성향교

양성향교는 숙종대에 건립된 것으로, 안성군 양성면 동항리에 소재하며, 지방유형문화재 제34호로 지정되어 있다. 건물의 구성은 대성전, 명륜당, 내삼문, 홍살문 등으로 되어 있으며, 이 중 대성전은 특히 익공계 양식의 단청 맞배지붕으로, 조선후기 건축양식의 일면을 잘 보여주고 있다.

2) 서원

서원은 조선 중기부터 보급되기 시작하나 대표적 민간 사학기관으로, 이 서원이란 명칭은 중국 당나라 현종 때 여정전서원, 집현전서원 등의 설치에서 유래된 것이다. 중국의 이 서원은 원래 내, 외의 명현을 제사하고, 청소년을 모아 인재를 기르던 사설기관이었는데, 선현을 제사하는 사와 자제를 교육하는 재가 합하여 설립되었다고 한다. 조선은 건국 초부터 유교중심 정책을 써서 고려시대 사원을 대신하여, 서재, 서당, 정사, 선현사, 향현사 등을 장려하였다. 특히 세종은 이를 장려하여 상을 내린 일까지 있었다. 그러나 이때의 서원은 사와 재의 두 기능을 겸한 서원의 형태를 갖춘 것이 못되었다.

그 후 1542년(중종 37년) 풍기군수 주세붕이 순흥에서 고려의 학자 안향을 모시는 사당을 짓고, 이듬해 백운동서원이라 한 것이 우리나라 최초의 본격적 서원이었다. 이를 기점으로 전국 각지에 많은 서원이 생겼으며, 1550년(명종5년) 이퇴계의 건의로 임금이 백운동서원에 소수서원이라는 액(간판)을 하사하고, 책과 노비, 전결 등을 주어 장려하였다. 이것이 사액서원의 시초가 되었으며, 때마침 퇴색되어가는 향교에 대신하여 국가의 보조를 받는 서원이 각처에 우후죽순처럼 설치되었다. 그리하여 명종 이전에 설치된 서원만도 29개, 선조 때에는 1백 24개, 숙종 때에는 한 도에 8~90개를 헤아리게 되었다.

한편 서원은 양적인 증가뿐만 아니라, 일종의 특권적인 것이 되어, 여기에 부속된 토지에는 조세를 과하지 않았고, 또 양민이 원노가 되어 군역을 기피하는 일까지 있었다. 유생들은 향교보다도 서원에 들어가 학문을 공부하는 것에 긍지를 갖고 선호하는 대신, 자연히 당시 성행하던 붕당에 가담하여 당쟁에 골몰하여 색깔을 가르고 부질없이 사변적 논쟁만을 일삼는가 하면, 심지어는 서원을 근거로 하여 양민을 토색질하는 폐단도 생기게 되었다. 이와 같은 서원의 남설 내지 누설은 조정의 큰 두통거리가 되어, 1644년(인조 22년)에는 서원설치를 허가제로 하였고, 1657년(효종 8년)에는 서원을 누설할 경우 처벌하는 규정까지 발표하게 되었다. 그 후 계속하여 영조, 정조, 철종 때에도 서원정비에 노력하였으나 성과를 얻지 못하여, 정조 때의 경우만 해도 서원의 수는 650개가 남아 있었다. 그 중 유명한 것으로는 도산서원, 송악서원, 호양서원, 만동묘 등이었다. 그러나 흥선 대원군이 섭정하게 된 직후인 1864년(고종 1년) 서원에 대한 모든 특권을 철폐, 서원의 누설을 엄금하고 이듬해인 1865년(고종 2년) 5월에는 각종 폐단의 대표적인 서원이었던 만동묘를 폐쇄하였다. 이와 같은 대원군의 적극적인 정책으로 대부분의 서원은 정비되고 급기야 1871년(고종 8년) 서원철폐령을 내려, 세상에 사표가 될 47개 서원만을 남겨 놓았다. 이 47개의 서원 중에는 안성의 덕봉서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도기서원과 남파서원은 훼철되었다. 이들 각 서원이 봉안된 인물의 성격 등을 검토함으로써, 당시 이들 서원을 중심으로 배출된 인물들의 학맥과 사상적 배경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이밖에 정식 서원은 아니나 학문연구 또는 학자들의 교유장소로, 대재유언집과 유언호를 추모해 유생들의 학문 연구장소로 세워졌던 동안강당과, 남파 홍우원이 수학하던 장소였던 계고당이 있었다.

(1) 도기서원[13]

도기서원은 사계 김장생(1548~1631)의 학문과 덕행을 추모하기 위해, 1668년(현종 9년) 한여기 등 지방유림의 공의로 창건된 것으로, 안성시 도기동에 있었던 서원이다. 1669년 〈도기〉라는 사액을 받아 사액서원으로 승격되었으며, 1695년(숙종 21년) 송시열이 상주하여, 1712년(숙종 38년)에 복액되었다. 1871년(고종 8년) 흥선대원군의 서원철폐령에 의해 훼철된 뒤, 복원되지 못하였다. 이 서원에 봉안되었던 사계 김장생의 위패는 땅에 묻었다. 김장생은 원래 조선 중기의 대학자로서 1688년(숙종 14년)에는 문묘에까지 배향되었으며, 이 도기서원 이외에 연산의 둔암서원 등 전국 10여개의 서원에서 제향되고 있는 인물이었다. 따라서 서원을 정비할 때, 한 사람의 위패를 여러 군데 겹치기로 봉안하는, 이른바 누설된 서원을 우선적인 정비대상으로 삼았던 만큼, 그

13) 이 부분은 주로 『한국유학사』, 『해동명신록』, 『사계행장(송시열 찬)』, 『안성시지』의 내용을 참고하였다.

의 고향인 연산의 둔암서원만 남겨두고, 도기서원은 훼철시켰던 것이다. 당초 김장생을 추모해서 안성에 도기서원을 설립하게 된 배경에는 그가, 임진왜란이 진행중이던 1598년(선조 31년) 안성군수로 한 때 재직하고 있을 때 선정을 베풀었던 관계로, 안성과는 전쟁의 와중에서 깊은 인연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또 한편으로 당시 안성에는 그의 학맥을 이은 학자들이 많이 있었다는 사실은, 도기서원 창건과 연관이 있을 것이다. 당시 사계의 학맥을 이어 정계에서 크게 활약했던 사람으로는 양성의 오두인(1624~1689)이 있으며, 오두인의 인맥과 통하는 학자들이 안성에 많았던 것 같다. 이재는 용인사람이나, 오두인의 사위가 되며, 유언집, 유언호의 스승이기도 하다. 이재는 연대가 약간 떨어져 도기서원 창건에 직접 관여한 사람은 아니다. 도기서원 창건에 힘썼던 한여기는 일찍이 김집의 문하에서 수학하다가, 이어 송시열과 송준길의 문하에 들어가 수학한 사람이다.

사계 김장생은 일찍이 송익필의 문하에서 예학을 전수받고 이이의 문하에서 성리학을 배웠다. 특히 예학을 깊이 연구, 아들 김집에게 계승시켰고 조선시대 예학의 태두로서 이른바 예학파의 주류를 형성했다. 그의 문하에서는 송시열 · 송준길 등의 대 유학자를 배출, 서인을 중심으로 한 기호학파를 이룩하여, 이와 더불어 조선 유학계의 양대 산맥 중 하나인 영남학파와 쌍벽을 이루었다. 참고로 그의 출신과 연보를 소개한다. 자는 희원, 호는 사계, 본관은 광산, 대사헌 계휘의 아들로, 충남 연산 출신이다. 1578년(선조 11년) 학생으로 천거되어 6품 직에 오르고, 창릉참봉 · 순릉참봉 등을 거쳐, 동몽교관 · 정산현감을 지냈다.

1592년 임진왜란때 호조정랑으로 명군의 군량조달에 공을 세워 군자감첨정이 되었고, 1597년(선조 30년) 남양부사 등을 역임, 이듬해인 1598년(선조 31년) 안성군수로 있다가, 유성룡의 천거로 종친부 전부가 되었다.

1602년(선조 35년) 청백리에 녹선되었고, 3년 후 익산군수가 되었다. 1609년(광해군 1년) 회양 · 철원부사를 역임하고, 1613년(광해군 5년) 계축옥사에 신문받았으나 무혐의로 누명을 벗은 뒤 관직을 사퇴하고, 연산에 은퇴하여 학문연구에 전심했다.

1623년 인조반정 후 장령에 임명되었고 사업과 상의원정 등을 역임하였다. 이듬해 사헌부 집의를 거쳐 병조 참의 · 부호군을 역임한 후, 관직을 다시 사퇴하고 고향으로 돌아갔다가, 1625년(인조 3년) 특명으로 동지중추부사에 임명되고, 다음해 행호군에 보직되었다.

1627년 정묘호란이 일어나자 양호호소사로 군량미 조달에 힘쓰면서, 청나라와의 화의에 반대했다. 이듬해 형조 참판에 임명되었으나 사퇴하고, 고향에 돌아와 향리에서 교육에 전심하였다. 그의 저서로는, 『경서변의』, 『근사록석의』, 『의례문해』, 『서소잡록』, 『가례집람』, 『상례비고』 등 다수가 있으며, 따로 그의 문집인 『사계집』 이 편집, 발간되었다.

(2) 남파서원[14]

남파서원은 안성시 봉남동 비봉산 남쪽 기슭에 있던 서원으로, 일명 봉양서원이라고도 하였다. 1692년(숙종 18년) 지방유림의 공의로 남파 홍우원의 학문과 덕행을 추모하기 위해 창건하여 위패를 봉안하였다. 1871년(고종 8년) 흥선 대원군의 서원철폐령에 의해 훼철된 뒤 복원되지 못하였다. 서원 유지에 〈봉양단〉이란 제단을 마련하여 향사를 지내오다가 6 · 25전쟁 이후 중단되었다.

홍우원은 대유학자로 인조대에서 숙종대의 4대를 봉사하여 내외직을 두루 거쳤다. 지방관시절 빈민구제와 조세의 적적한 조정, 관리의 부정부패 방지 등에 남다른 노력을 경주했다. 특히 숙종대에는 경원관의 중책을 맡아 시강할 때에는, 「군신지도 수치지본 보국지도 재애민」이라는 애민사상을 강조하여, 왕으로부터 두터운 신임을 받았다. 허목 · 권대운 등과 교유하면서 영남학파의 남인 계열인 청남계를 이끌었다. 참고로 그의 출신과 연보를 소개하면, 그의 자는 군징, 호는 남파, 본관은 남양으로, 서윤 영의 아들로, 안성에서 태어났다.

1645년(인조 23년) 별시문과에 병과로 급제, 검열이 되고 주서 · 정자를 거쳐 1654년(효종 5년) 부수찬이 되었다. 그는 이때, 앞서 유배된 소현세자의 세 아들을 풀어주고, 소현세자의 빈인 강빈의 옥사 사건도 날조된 것이니 이를 신원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소현세자는 병자호란 때 청나라에 인질로 잡혀갔다가 귀국했으나, 2개월 만에 갑자기 원인 모를 병으로 급사(이에는 그 아버지 인조와의 불화로 독살당했다는 설이 있음)했고, 이어 1646년(인조 24년) 강빈의 옥사 사건도 일어났던 것인데, 이 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 당시 조야에서는 의론이 분분한 상황이었다. 홍우원의 이와 같은 주장에 의해, 조야의 여론은 차츰 강빈의 신원을 찬동하게 되었으나, 황해도 관찰사 김홍욱의 반대직언으로 그 동안 강빈의 원사에 동정하던 효종의 태도가 표변하여, 강빈의 신원을 주장하던 일파를 모조리 잡아들일 때 홍우원도 체포되어 삭직당했다. 그 뒤 다시 기용되어 수찬으로 복직되었으나, 1660년(현종 1년) 제1차 예송 때 서인 송시열이 주장하는 기년제가 잘못된 것이라고 논박했다가 파직당했다.

1674년 제2차 예송 때 송시열을 비롯한 서인들이 몰락하고 남인이 집권하자 그 이듬해 고성군수에 복직하였다. 이어 동부승지 · 부제학 겸 대사성, 공조 참판, 예문관 제학 등을 거쳐, 1676년(숙종 2년) 예조판서가 되고, 이듬해 이조판서를 거쳐 좌참찬이 되었다.

1680년 경신대출척으로 파직당하고, 명천에 유배, 다시 문천으로 이배되었다가 배소에서 죽었다. 안성 남파서원은 그의 위패를 봉안한 서원이었다. 시호는 문간이다. 그의 저서로 남파집이 있다.

---

14) 이 부분은 주로 『효종실록』, 『현종실록』, 『숙종실록』, 『한국인명대사전』, 『안성시지』의 내용을 참고하였다.

(3) 덕봉서원

덕봉서원은 안성군 양성면 덕봉리에 있는 서원으로, 1695년(숙종 21년) 지방유림의 공의로, 양곡 오두인의 충절과 덕행을 추모하기 위해 창건하여 위패를 모셨다.

1697년(숙종 23년) 〈덕봉〉이라는 사액을 받아 사액서원으로 승격되었으며, 1794년(정조 18년) 강당을 중수하였다. 이 서원은 1871년(고종 8년) 흥선대원군의 서원철폐령에 의해 철폐되지 않고 존속한 47개 서원 중의 하나이며, 선현배향과 지방교육의 일익을 담당하여 왔다.

1890년(고종 27년)과 1974년에 중수하였고, 광복 후 1979년 사우를 중건하였으며, 1984년 동재와 서재를 궁건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경내의 건물로는, 6칸의 사우, 10칸의 정의당, 동재와 서재의 건물이 있고, 그 밖에 외삼문, 내삼문, 홍살문 등이 있으며, 사우에는 오두인의 위패가 봉안되어 있다. 강당인 정의당은 중앙의 마루와 양쪽 협실로 되어 있는데, 원내의 여러 행사와 유림의 회합 및 학문의 강론장소로 사용된다. 매년 2월 중정과 8월 중정에 향사를 지내며, 제품은 6변 6두이다.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8호로 지정되어 있으며, 소장된 유물로는 1681년 김창협이 그린 오두인의 화상 1점과 오두인의 문집이 있다. 재산으로는 전답 5천 여평과 대지 3천여 평이 있다. 오두인의 출신과 연보를 소개하면, 그의 자는 원징, 호는 양곡, 본관은 해주로, 경상좌병사 정방의 증손이며, 종친부 전부 상의 아들로 안성에서 태어나고, 경상도관찰사 숙에게 양계하였다.

1648년(인조 26년) 진사시에 1등으로 합격하고 그 이듬해 별시문과에 장원급제하여, 성균관 전적에 임명되었다. 그 후 병조 · 예조의 낭청이 되었다가, 1650년(효종 1년) 사헌부 지평이 되고 이듬해 경상도사로 나갔다. 그 이듬해 시강원 문학으로 춘추관 기사관을 겸임하여, ≪인조실록≫ 편찬에 참여했다. 1656년(효종 7년) 사헌부 장령이 되고 1661년(현종 2년) 사간원 헌납을 거쳐, 그 이듬해 정조사의 서장관으로 청나라에 다녀왔다.

1665년(현종 6년) 동부승지가 되고, 1667년 부교리 · 사간 등을 역임했다. 1679년(숙종 5년) 공조참판으로 사은부사가 되어 청나라에 다녀와 이듬해 호조참판이 되었다. 1682년(숙종 8년) 경기도 관찰사를 거쳐 다음 해에는 공조판서에 올랐다. 같은 해 아들 태주가 현종의 딸 명안공주와 혼인, 부마가 되었다. 1689년(숙종 15년) 형조판서로 재직중 기사환국으로 서인들이 실각하자, 이에 대한 반발로 지의금부사에 세 번이나 임명되고도 나가지 않아 삭직당했다. 같은 해 인현왕후 민씨가 폐위되자 이세화 · 박태보와 함께 이에 반대하는 상소를 올려, 이에 왕의 노여움을 사 국문을 받고 의주로 유배되는 도중, 파주에서 죽었다. 1694년(숙종 20년) 영의정에 추증되고, 시호는 충정이다. 양성의 덕봉서원, 북청의 노덕서원, 파주 풍계사, 광주 의열사, 의성 구현사 등에 제향되었다. 묘소는 양성면 덕봉리에 있다. 저서로 ≪양곡집≫이 있다.

(4) 동안강당(東安講堂)

이 동안강당은 당초 대재 유언집(1714~1783)의 학문과 덕행을 추모해서, 그가 죽은 후 얼마 되지 않은 1786년(정조 10년:추정)경에 문인들과 유씨 문중에서 협력하여 세운 것이다. 원래 이 동안강당은 서원을 만들기 위한 취지로 세웠던 것이나, 서원의 남설을 억제하던 당시 조정으로부터 정식 서원의 명칭을 얻지 못했다. 따라서 다만 강당이란 명칭을 세워 유생들의 학문연구장소로 이용되었다. 그의 아우인 유언호(1730~1796)의 사후에는 그를 추모하는 장소로도 활용되었다.

1878년(고종 15년)경 대규모로 중수하여 한때 활발한 모습을 보였으나, 근대화의 물결로 쇠락하여 그 옛터의 일부는 배나무 밭으로 변하였었다. 현재 삼덕포도원이 그 자리를 차지하여 옛 자취를 전혀 찾아볼 수 없다. 유언집은 조선 후기의 문신이며 학자로, 자는 사호, 호는 대재, 본관은 기계이며, 한성부 좌윤 직기의 아들로 안성시 숭인동에서 출생, 성장하였다. 유언호는 그의 동생이다. 일찍이 이재로부터 수학하여, 권상하, 송시열로 소급되는 기호학파의 정통학맥을 이었다. 그는 유일(遺逸)로 1762년(영조 38년) 선공감 감역과 1765년(영조 41년) 동궁세마로 각각 임명되었으나, 벼슬길에 나아가지 않았다. 1776년(정조 1년) 정조가 즉위한 후, 사헌부 지평과 장령으로 출사하여, 이듬해 집의로 승진하고, 경연관을 겸하여 성균관 사업을 지냈다. 1783년(정조 7년) 통정대부로 이조, 호조, 형조의 참의를 역임한 후 돈녕부 도정에 승진되어 원자를 보도하다가 이조참의로 치사하였다. 그가 죽자 정조가 어제 제문을 내려 조문하였다. 그는 일찍부터 향리인 숭인리 숭늉골에서 학문연구와 후진양성에 노력하였다. 그의 문하에 이채 등 많은 제자들이 배출되었으며, 김양행 · 송덕상 등과도 학문적으로 친교가 있었다. 그는 일찍이 스승 이재를 도와 ≪율곡전서≫와 ≪사례편람≫의 편찬에 참여했으며, 저서로 ≪오복예의≫ 3권과 ≪대재문집≫ 10권 등을 남기고 있다. 그의 묘소는 보개면 동안리에 있다.

(5) 계고당(稽古堂)

이 계고당은 남파 홍우원이 수학하던 별당건물로서 건립연대는 자세히 알 수 없다. 그의 생존연대로 보아 그가 태어난 1605년(선조 38년) 경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원래 홍우원의 영정이 있었으나 분실되고, 영정보관함만 보존되고 있다 한다. 그의 친필은 ≪어제자성편(御製自省編)≫ 1권의 갈피에서 발견되었다. 그 내용은, 「孝廟甲午三月十五日 內賜世子師 侍講院應教 藝文館 弘文館副提學 洪宇遠御製自省編一册 令除謝恩 嘉善大夫 臣 洪宇遠 南坡 洪宇遠」으로 되어 있다. 또 이 곳에는 많은 고서(古書)와 전적(典籍)이 있었는데 모두 분실되고, 일부를 국립 한경대학교 도서관에서 보관하고 있다.

또한 〈계고당(稽古堂)〉이란 홍선대원군의 친필액판이 있는데, 이 현판은 현재 대덕면 소현리에 있는 그의 후손 집에 보관되어 있다 한다. 홍우원의 연보는 위 (2)항 남파서원 조에서 설명한 바와 같다.

3) 서당[15]

서당은 옛날 향촌사회에서 소위 〈글방〉이라고 하는 사설 교육기관으로서, 주로 초급단계에 속하는 학생들을 모아 한문경전을 중심으로 인성과 도덕 및 일상생활에 필요한 한문지식을 교육하던 곳이다. 향교나 서원이 양반자제들을 교육시키는 곳으로서, 중등 정도 이상의 기본지식을 가진 학생들을 대상으로 허였던 반면, 서당은 반상의 구별 없이 초입학자를 모집하여, 독서, 습자, 작문 등을 교육시켰다. 서당의 종류는 지방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었으나, 대체로 세 가지 종류가 있었다. 첫째로 개인집에서 독선생을 초빙하여 자기 집 아동 및 동네아이들을 교육, 훈도하는 형태이고, 둘째로 유생 자신이 서재를 차려놓고 한 동네의 아동들을 모집하여 교육하는 형태이며, 셋째로 각 동네에서 공동으로 서재를 차려놓고 동네 전체하동들을 교육하는 형태이다. 서당의 인적 구성은 우선 글방선생인 훈장이 있고, 그 밑에 오늘날의 조교격인 접장이 있으며, 그 나머지 배우는 학도들이 있다. 접장의 "접"이란 원래 "무리"라는 뜻을 지녔지만 서당에서는 일반적으로 동급의 학도를 지칭한다. 같은 학도끼리는 동접(同接)이라 하고, 학도의 수가 많아서 훈장 한 사람으로는 많은 학도를 일일이 가르칠 수 없을 경우에, 학도 가운데서 나이와 지식이 많은 자를 뽑아 접장을 두었다. 이 접장은 훈육을 책임지고 풍기 단속의 임무도 띠고 있었다. 서당의 교수방법은 강(講)이 주된 것이다. "강"이란 배운 글을 소리 높여 읽고 그 뜻을 질의 응답하는 전통적인 교수방법이다. 강은 대개 열흘마다 하는 순강(旬講), 보름마다 하는 망강(望講), 한달마다 하는 월강(月講) 등으로 나뉘어지지만, 초급단계의 학생을 가르치는 경우, 대개는 매일 하는 일강(日講)이 위주였다. 또 강을 하는 방법에 따라 배강(背講)과 면강(面講)이 있었다. 배강이란 등을 돌려서 책을 보지 않고 자기가 배운 것을 암송낭독하는 것이고, 면강이란 책을 보면서 읽는 임문강독하는 것이다. 강을 하고 난 뒤에 전개되는 질의응답은, 학생들이 기계적인 기억에 빠지기 쉬운 함정, 즉 너무 암기위주로 읽어서 글뜻을 전혀 딴 방향으로 잘못 해석하는 것으로부터 건져주는 것이었으며, 또 스승과 제자가 일 대 일로 마주보고 하는 학습이었기 때문에, 능력별 수업이 가능하고 선생과 제자와의 인격적 교류가 가능하였다. 서당교육은 공부만을 위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인성교유

15) 이 부분은 주로 『조선왕조실록』, 『경국대전』, 『조선교육사(이만규, 을유문화사』, 『한국근대교육사(손인수, 연대출판부)』, 『일제하민중교육운동사(노영택, 탐구당)』의 내용을 참고하였다.

고가 함께 예의범절에 대한 교육을 병행하는 것이었으므로, 진퇴에 있어서 정중한 배례와 동접 간에 읍례(揖禮)는 필수적이었다. 강은 날마다 학동의 실력에 맞게 범위를 정하여 배우고, 그 날의 학습내용을 숙독 암기하기 위하여 서산(書算: 보통 서산대라고 함)을 옆에 놓고 횟수를 세어가며 읽는다. 글을 읽는 횟수, 즉 독서량은 보통 100독을 기본으로 하였다. 전날에 배운 것은 그 이튿날 책을 보지 않고 배송해서 다 외워야만 그 다음의 학습으로 나아갔다. 만약 외우지 못하면 외울 때까지 다시 반복해서 읽게 하는 것이 상례였다. 따라서 이는 일종의 완전학습의 형태로, 암기력이 좋은 사람은 그만큼 나아가는 진도가 빨랐다. 또한 야독을 장려하여 자정이 넘도록 등불 아래서 글을 읽는 소리가 온 마을에 퍼졌다.

학습교재의 순서는 대개 ≪천자문≫이나 ≪유합≫과 같은 책으로 기초한자를 가르치고, 다음에 ≪동몽선습≫이나 ≪계몽편≫ 등으로 글자를 붙여서 소리내어 읽는 방법을 가르쳤다. 글의 뜻을 깨치는 방법으로 우선 다독을 권장하였던 것인데, 대개 글을 읽는 데는 일정한 가락이 있어서 낭랑한 목소리로 글을 잘 읽을 때는 어떤 감흥을 일으키게도 한다. 한문경전은 원래 중국 고대어에 속하는 문어체의 글로 되어 있고, 현대적 의미의 문법체계가 확립된 것도 아니기 때문에, 다만 많이 읽어서 문리를 깨치는 도리밖에 별다른 방법이 없게 되어 있다. 그래서 ≪맹자≫ 3천독을 해야 문리가 난다는 말도 생겨난 것이다. 그리고 서당교육에 있어서는 계절학습에 관한 것이 특색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예컨대 겨울에는 경전과 같은 어려운 학과를 하게 하고, 여름에는 시율과 같은 흥미본위의 학습을 하게 하였으며, 봄가을에는 ≪통감≫ 이나 ≪고문진보≫와 같은 글을 읽게 하여, 계절에 따라 학습의 능률을 높이는 학습 방법이었다. 또한 이러한 여러 과목의 복합적인 학습은 전인교육에 목표를 두었기 때문이다. 책을 한 권 다 떼면 "책시세" 또는 "책걸이"라 하여, 떡이나 별식을 해서 간단한 잔치를 베풀게 마련이었다. 이는 훈장에 대한 공궤의 의미도 있으려니와, 동접 간의 경쟁의식도 불러일으키는 효과가 있었다.

조선시대에 조정에서는 서당에 관한 여러 가지 진흥책을 폈으나, 조선조 말기에 이르러서는 점차 교육내용이 부실하고 형식에 그치게 되었다. 이는 당시 학풍의 쇠퇴를 야기시킨 사회적 · 경제적 모순의 당연한 귀결이었다. 매관매직을 통한 입신영달의 풍조는 교육의 기본적인 질서를 무너뜨리게 하였고, 서당은 단지 문자해독교육의 구실 밖에는 다른 교육적 실효를 거둘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서당교육의 정체성을 극복하고자 하는 움직임은 선각적인 학자들에 의해서 부단히 검토되었다. 유형원, 정약용, 이승희 등이 주장한 교육체제 일원화 구상이 바로 그것이다. 가령 서당과 서원을 사실상 관학체제에 흡수시킴으로써 당시의 학제를 계열화하자는 논의였다. 그것은 당시로서 매우 혁신적인 발상으로 조선사회가 그것을 받아들일 만한 입장에 있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19세기 말 근대적 교육의 전개와 더불어 커다란 변화를 맞이하였고, 특히 일제강점기에 들어서면서부터는 더욱 큰 변화가 일어났다. 당시의 서당은 옛날 형태를 그대로 유지한 재래식 서당과, 새로운 시대조류에 적응하려고 한 개량서당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개량서당은 재래식 서당과는 달리 근대교육의 교과를 도입하여 설정하고, 교원 또한 근대식 교육을 받은 자들로 구성하였으며 민중교육에 큰 공헌을 하였다. 그러나 일제통치자들은 서당교육이 민족교육 내지 민족의식 앙양의 역할을 담당하는 온상으로 보아 갖은 탄압을 실시하였는데, 그 대표적인 것으로는 1918년에 공포된 이른바 〈서당규칙〉이라는 것이었다. 일제 강점기의 서당은 그들의 동화교육정책에 대항하는 장소였으며, 근대학교로의 발전이 가능한 요소를 지니고 있었으면서도 외세의 침탈 때문에 그러한 기회를 상실하지 않을 수 없었던 민중의 마지막 교육기관이었다. 일제 총독부의 통계에 의하면, 1911년 3월말 현재 서당수는 1만 6,540개소이며, 학동수는 14만 1,604명이었다. 그런데 총독부가 〈서당규칙〉을 공포한 1918년 현재 서당수는 2만 4,294개소, 학동수는 26만 4,835명이었으며, 1921년에는 서당수 2만 5,482개소, 학동수 29만 8,067명으로 증가되었다. 그러나 1922년을 기점으로 〈서당규칙〉을 강력히 시행, 서당 억제책을 시행함으로써 서당과 학생은 해마다 감소하여, 1930년에는 서당수 1만 36개소에 학동수 15만 892명, 1940년에는 서당수 4,105개소에 학동수 15만 8,320명으로 크게 줄었다. 참고로 1925년(일본대정 14년) 안성에 남아 있던 서당수와 학생수 현황을 살펴보면, 〈별표〉와 같다. 당시의 서당중에는 일부 개량서당을 운영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참고; 安城記略]

광복 후에는 〈교육법〉 제정에 따라 학제가 정비되면서 서당은 점차 소멸되었으며, 오늘날에는 방학 등을 이용하여 서당이라는 이름으로 한문강좌 등을 개설하는 간이강습소와 같은 형태를 이따금 볼 수 있을 따름이다.

〈별표〉 1925년 현재 안성의 서당 현황

면이름	서당수	선생수	남학생 수	여학생 수	합계
안성읍	5	5	40		40
보개면	7	7	67		67
금광면	6	6	40		40
서운면	5	8	86	14	100
미양면	5	7	114	17	131
대덕면	9	9	76		76
양성면					
공도면	7	7	60		60
원곡면	5	5	47		47
일죽면	6	6	34		34
이죽면	3	3	12		12
삼죽면	9	9	69		69
합 계	67	73	645	31	676

5. 선비 정신을 잇는 안성의 선비 마을

안성선비마을은 양성면 덕봉리에 있다. 2007년 5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원하는 '문화역사마을 가꾸기 사업'에 선정되어 '덕봉 문화역사마을'로도 불린다. 이 곳은 예전부터 해주 오씨가 모여 살던 집성촌으로 지금도 95%가 해주 오씨이다. 이 마을은 이괄의 난 때 인조를 공주까지 호종하여 후에 병조판서가 추증된 오정방과 영의정까지 올라간 오윤겸, 우의정까지 올라간 오명항 등 대대로 명문가의 전통을 계승한 곳이기도 하다. 그래서 단합의 힘도 매우 강해서 500년 동안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산신제를 지냈으며, 매년 제계를 올려 선대 조상들을 기리고 있다. 고성산 아래 풍수지리의 삼수혈을 따라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마을로 충과 효와 예를 지키며 살아 온 마을의 전통 관습, 옛 모습이 그대로 잘 보존되어 있는 곳이다. 현재 이 곳에서는 '선비정신', '선비생활사', '선비미풍양속', '농심(農心)'이라는 네 가지 테마를 통해 선비의 삶을 체험하는 경험을 제공하고 있다.

Ⅲ. 맺는 말

청렴이 미래다. 2016년 9월 28일자로 법령이 시행되는 '김영란법'은 여러 우려에도 불구하고 물질을 뛰어넘어 선비의 청렴 정신을 회복하기 위한 좋은 계기가 될 것이다. 일찍이 김계행은 자신의 호이자 당호(堂號)인 보백당(寶白堂)의 의미를 해석한 시에서 "우리 집에는 보물이 없네 / 보물이 있다면 오직 청백뿐이네"라고 하였다.[16] 윤동주 시인의 「서시」 의 한 구절처럼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 한 점 부끄러움이 없'게 살아간 청백리 조사수는 오늘 날의 지식인들에게 많은 시사를 준다.

조선 11대 임금 중종은 궁궐 안뜰에 문을 세 개 만들어 세우고, 청문(淸問)과 예문(例問)과 탁문(濁門)이라고 써 붙이도록 했다. 청문은 맑고 깨끗한 사람이 통과하는 문이고, 예문은 예사 사람이 통과하는 문이고, 탁문은 깨끗하지 못한 사람이 통과하는 문이다. 그런 후에 만조백관들에게 자기에게 해당된다고 생각하는 문을 통과하게 했다고 한다. 이때 조사수 혼자만 머뭇거림 없이 지나갔다고 한다.[17] 청문회를 보며 조사수와 같은 사람들이 오늘 날 사람들을 교화시키는 리더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음을 확신하게 된다.

박지원은 이미 선비가 지닌 사회기능적 성격을 종합적으로 규정 내린 바 있다. "천하의 공변된

16) 김봉규, 『조선의 선비들, 인문학을 말하다』 , 행복한미래, 188~189쪽.
17) 김상홍, 『선비의 보물상자』 , 조율, 57~60쪽 요약.

언론을 '사론(士論)'이라 하고, 당세의 제일류를 '사류(士流)'라 하며, 온 세상에 의로운 주장을 펴는 것을 '사기(士氣)'라 하고, 군자가 죄 없이 죽은 것을 '사화(士禍)'라 하며, 학문과 도리를 강론하는 것을 '사림(士林)'이라 한다." 그는 또한 선비의 도학적, 인격적 위치를 해명하여, "효도와 우애는 선비의 벼리요, 선비는 사람의 벼리이며, 선비의 아름다운 행실은 모든 사람의 벼리이다."라고 하였다.[18] 언론을 선도하고 남의 모범이 되는 삶을 살며, 지행합일의 삶, 인격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선비라는 것이다. 과거 전통사회에서 선비는 분명히 그 사회의 양심이요 지성이며 인격의 기준으로 인식되어 왔던 것이다. 삼국시대부터 조선사회에 이르기까지 그 시대적 양상에 따라 비치는 모습에는 비록 다소의 차이가 있었다 하더라도, 선비는 각 시대에 있어서 지도적 구실을 다하는 지성인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감당해 왔던 것이다. 이처럼 오늘날에 있어서도 오늘의 시대이념을 수호하고 이끌어갈 주체로서 선비의 구실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독립투쟁기에는 의사(義士)와 열사(烈士)가 요구되고, 산업사회에서는 청렴하면서도 모범적인 인격자로서의 경영자, 기술자가 요구되는 것이다. 선비는 언제나 어떤 형태로든 그 사회가 요구하는 이념적 지도자요 지성인임을 의미할 수 있다. 즉, 전통의 선비상은 우리 현대사회에서도 의미 있는 기준을 제시해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곧 선비는 현실적, 감각적 욕구에 매몰되지 않고 보다 높은 가치를 향하여 상승하기를 추구하는 가치의식을 갖는 사람이며, 그 신념을 실천하는데 꺾이지 않는 용기를 지닌다. 또한 자신의 과오를 반성할 줄 아는 자기 성찰의 자세가 필요하며, 사회의 모든 계층을 통합하고 조화시키는 중심적 가치기준을 가져야 한다. 선비는 이제 특권을 갖는 신분적 존재가 아니다. 선비는 인간의 도덕성과 보편적 가치기준을 개인 내면에서나 사회질서 속에서 확립한 인격의 모범이요 양심의 주체로서, 앞으로 우리 나라를 이끌어갈 새로운 비전과 개척정신의 소유자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미국에는 "푸론티어 정신"이 있어 오늘의 번영을 이루었고, 일본은 "사무라이 정신"이 있어서 세계를 제패하려고 하였다. 강항이 일본에 잡혀가 성리학을 전파하여 사무라이 정신을 한 단계 더 승화시켰듯, 선비정신은 우리가 자랑할 만한 위대한 정신적 문화유산이다.[19]

앞으로 우리 사회에서 필요한 미래형 지도자는 다음의 네 가지 선비 리더십을 가져야 한다. 첫째 솔선수범하는 모범형 행동가가 되어야 하고, 둘째 '공동선을 창조'하는 이상향의 건설가가 되어야 하며, 셋째 '새로운 생각의 창조자'가 되어야 하고, 넷째 인간을 위한 꿈, 희망, 비전의 제시가 및 공유가가 되어야 한다.[20] 우리나라 사람들이 21세기에 세계 속에 나아가 멋있게 활동하자면,

---

18) 『민족문화대백과 사전』 의 '선비' 항목에서 재인용.
19) 김진수, 『선비 리더십 2, 클린리더십은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 , 이야기꽃, 215~218쪽 요약.
20) 김진수, 『선비 리더십 1』 , 열린 창고, 195~201쪽 요약. 김진수는 이 네 가지를 'ABCD 선비 리더십'이라고 하였다.

우리가 본래부터 가지고 있었던 신사정신, 즉 선비정신을 승화 발전시켜 정신적 재무장을 해야 한다. 바로 그 길이 백범 김구가 그토록 원했던 문화대국으로서의 대한민국의 미래가 될 것이다.

참고문헌

김진수, 『선비 리더십 2, 클린리더십은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 이야기꽃
김진수, 『선비 리더십 1』, 열린 창고
최영봉, 『조선시대 유교문화』, 사계절
이성무, 『선비평전』, 글항아리
정옥자, 『우리가 알아야 할 우리 선비』, 현암사
황훈영, 『우리 역사를 움직인 33가지 철학』, 푸른숲
김병완, 『선비들의 평생 공부법』, 이랑
김봉규, 『조선의 선비들, 인문학을 말하다』, 행복한미래
김상홍, 『선비의 보물상자』, 조율
이만규, 『조선교육사』, 을유문화사
손인수, 『한국근대교육사』, 연대출판부
노영택, 『일제하민중교육운동사』, 탐구당

안성시지편찬위원회, 『안성시지』 1권 역사와 지리
안성시지편찬위원회, 『안성시지』 2권 안성의 자랑
안성시지편찬위원회, 『안성시지』 6권 인물자료집
안성시지편찬위원회, 『안성시지』 7권 문헌자료집

그 외 기초사료
『증보문헌비고』, 『경국대전』, 『학교등록』, 『민족문화대백과 사전』,
『해동명신록』, 『한국인명대사전』, 『조선왕조실록』

참조한 홈페이지
http://www.sunbidm.com/ 안성 선비마을
www.dosansunbi.kr 안동 도산서원선비문화수련원
www.sunbichon.net 영주선비촌

시흥시(始興市)의 한국양명학(韓國陽明學) 연구(硏究)

-장유(張維)와 정제두(鄭齊斗)를 중심으로-

이 병 권 (시흥문화원 사무국장)

목 차

Ⅰ. 머리말

Ⅱ. 한국양명학의 선유(先儒) 계곡 장유
1. 생애(生涯)
2. 덕수 장씨 세장지(世葬地)와 해장정사(海莊精舍)
3. 초장(初葬)과 이장(移葬)
4. 장유의 사상(思想)과 양명학(陽明學)

Ⅲ. 한국양명학의 대종사(大宗師) 하곡 정제두
1. 문하(門下)와 생애(生涯)
2. 영일 정씨 세장지(世葬地)와 추곡(楸谷) 거주
3. 추곡시기의 교우관계(交友關係)
4. 사상과 학문적 특징
5. 출처(出處)와 평가

Ⅲ. 맺는 말

집필자

이 병 권 시흥문화원 사무국장

Ⅰ. 머리말

시흥시(始興市)는 전통시대 인천(仁川)과 안산(安山)을 경유한 지역으로, 이지역의 역사와 맥을 같이 한다. 특히 이 글에서 주목하고 있는 한국양명학(韓國陽明學)의 장유(張維, 1587-1638)와 정제두(鄭齊斗, 1649-1736)는 당시 안산에 지역적 연고를 맺고 활동하였다. 현재 이들의 연고지는 시흥시이다.

양명학은 주자학(朱子學=程朱學)과 함께 신유가 철학의 양대 주류를 형성했다. 양명학은 심학(心學) 혹은 육왕학(陸王學)이라고도 한다. 정주학 특히 주희(朱熹, 1130-1200)의 학설을 부정하던 육구연(陸九淵, 1139-1192)의 이론을 왕수인(王守仁, 1472-1528)이 계승하여 발전시킨 이론이다. 정주학을 부정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정주학을 통치 원리로 삼고 있던 조선에서 크게 발달할 수 없었다. 16세기 초반 중종 16년(1521) 전후로 알려지기 시작하여 박상(朴祥, 1474-1530)에 의해 비판되었고, 특히 대표적인 정주학자인 이황(李滉, 1501-1570)이 「왕양명전습록변(王陽明傳習錄辨)」을 통해 적극 비판·배척되어 이후 조선 말기까지 매우 미미한 상태로 머물렀다.[1]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도 몇몇 사류에 의해서 양명학이 호의적으로 받아들여졌다. 정인보(鄭寅普, 1893-1950)는 『양명학연론(陽明學演論)』에서 조선의 양명학자를 세 부류로 구분했다. 첫째, 뚜렷한 저작이 있거나, 그 사람의 말이나 글 가운데 분명한 증거가 있어서 다른 사람들은 몰랐다 하더라도 양명학파로 분류하기에 의심이 없는 사람들이다. 대표적인 사람이 최명길(崔鳴吉, 1586-1647)과 장유, 정제두이다. 둘째, 양명학을 비난한 기록이 있지만, 그 전후를 따져 보면 허위로, 속으로는 양명학을 주장한 사람들이다. 이광사(李匡師), 이영익(李令翊), 이충익(李忠翊) 등이다. 셋째, 양명학을 단한마디도 언급하지 않고 또 실제로 주자학을 하였지만, 일생토록한 주장의 핵심적인 정신이 양명학자인 사람이다. 바로 홍대용(洪大容, 1731-1783)이다. 이 세 부류를 흔히 '한국양명학'이라고 부른다.[2]

1995년 한국 양명학회가 성립된 이래로 한국양명학에 대한 연구 성과는 '연구사'로서 1)한국양명학 연구의 시기분류(태동기, 기초 확립기, 발전기, 성숙기)및 주변학문과의 연계 연구 2)한국양명학관련 기초자료의 발굴과 정리 3)강화학파의 개념설정과 그 연구방향이라는 조금씩 다른 제안을 담고 있지만, 한국양명학에 대한 다음과 같은 공통된 시각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그것은 한국양명학의 존재양태에 관한 대전제로서 1)한국의 양명학파 가운데 양명학을 적극 표방하지 않고

1) 윤사순, 2012 『한국유학사』 상, 지식산업사, 469-470쪽 참조
2) 천병돈, 2007 「하곡학 연구 현황 분석」, 『양명학』 제19호, 한국양명학회, 146-147쪽

때론 비판하면서도 그 사상적 맥락은 양명학이 주를 이루는 학자가 많았고 2)한국양명학은 역사적 질곡 속에서 사상사 전면에 등장하지 못했지만 꾸준히 명맥을 유지하여 실학, 개화사상 등 근대적 사유의 저변을 형성하는데 일익을 담당했다는 것이다. 한국양명학에 관한 국내 연구들은 대부분 이와 같은 기조 아래 양명학파의 명맥을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자료의 발굴과 사유의 분석, 그리고 근대적 사유 형성과정과의 연관성을 밝히는 작업을 과제로 삼아왔다. 이러한 연구 기조는 양명학 연구 초기에 형성되어 2000년대까지 70여 년간 지속되어 오면서 한국양명학 연구의 저변을 확대하는 데, 많은 기여하였다.[3]

이 글에서는 한국양명학의 전체의 주된 연구 성과보다는 시흥시라는 역사문화적 공간 속에서 지역적으로 연고가 깊은 장유와 정제두에 주목하고자 한다. 이러한 본격적인 연구는 시사편찬을 통해서 이루어졌다.[4] 이어서 시흥문화원의 제3차 시흥지역문화세미나에서 심우일이 정제두의 안산 거주를 실증하였다.[5] 차례로 4차 세미나에서 정인재는 양명학의 선유 장유와 정제두의 사상이 시흥시에서의 가치와 의의를 밝혔다.[6] 그리고 시민으로 구성된 시흥한국양명학연구회의 5차 세미나와 이어서 한국양명학회를 중심으로 6차 세미나가 진행되었다.[7] 이들 연구에서 지역적 연고를 중심으로 연구 된 것은 심우일과 정인재 정도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한국양명학의 중심에

---

3) 주요 연구 성과는 다음과 같다.
최재목, 1998「韓國에서의 陽明學硏究成果의 回顧와 展望」,『중국학보』제38집, 한국중국학회
2005「강화 양명학파 연구의 방향과 과제」,『유학연구』제12집, 충남대학교 유학연구소
노관범, 2001「한국양명학사연구의 반성적 고찰」,『한국사상과 문화』제11집, 한국사상문화학회
송석준, 2004「조선조 양명학의 수용과 연구현황」,『양명학』제12호, 한국양명학회
2005「한말 양명학 전개와 연구현황」,『양명학』제13호 한국양명학회
김용재, 2005「한국 양명학 연구현황과 새로운 모색」,『양명학』제14호, 한국양명학회
최재목, 이상훈 2006「'강화양명학'연구를 위한 기초자료 정리」,『양명학』제16호, 한국양명학회
김세정 2007「한국에서의 상산학과 양명학 관련 연구목록」,『유학연구』제15집, 충남대학교 유학연구소
천병돈 2007「하곡학 연구 현황」,『양명학』제19호, 한국양명학회
김용재 2011「'기호양명학'연구의 현황과 향후 전망」,『유학연구』제24집, 충남대학교 유학연구소
한국학술정보 , 2008『강화양명학연구총서』1, 2, 3 -김윤경, 2013「국내 한국 양명학 연구 경향에 대한 반성적고찰」,『양명학』제35호, 한국양명학회, 157-158쪽 참조

4) 시흥시사편찬위원회, 2007「시흥의 전통시대」,『시흥시사』2(4부 조선시대 지역민의 동향 2장 사족의 동향-조준호 / 3장 지역 사류의 교유-박용만), 안산시사편찬위원회, 2011「학문과 예술, 그리고 문화유산」,『안산시사』4권(제1편 안산의 인물, 안산의 정신 제1장 학문과 예술의 뿌리-김문식)

5) 심우일, 2015「안산 거주시기 하곡 정제두의 삶과 학문」,『제3차 시흥지역문화세미나』, 시흥문화원

6) 정인재, 2015「시흥의 문화를 이끌어 갈 정신적 지주는?-양명학자 장유, 정제두의 사상을 중심으로-」,『제4차 시흥지역문화세미나』, 시흥문화원

7) 시흥문화원,『제5차 시흥지역문화세미나-추곡 정제두와 양명학』(2016. 6. 8)는 비전문가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시흥시(시흥문화원 주관)에서 전문가들의 연구로서 지역적 연고에 따른 역사적 사실보다는 아닌 정제두의 일반 연구로 김덕균, 2015「하곡학의 효제윤리와 인성교육」,『제4차 시흥지역문화 세미나』,『제6차 시흥지역문화세미나』(2016. 7. 29)에서 정인재,「한국양명학에서 본 '시흥양명학연구회'의 위상」, 김덕균「인문학이 살아야 지역이 산다-시흥시와 한국양명학-」, 김세정,「하곡 정제두의 생태수양론」, 진성수,「하곡 정제두의 교육사상」, 이은용,「하곡 정제두의 경세사상」이 있다.

있던 장유와 정제두를 중심으로 안산, 즉 현재 시흥시의 지역적 연고를 실증적으로 밝히는 한편, 이들의 학문적 성과를 살펴보겠다. 그리고 이들을 중심으로 당시 지역에서 교유(交遊)한 저명한 인물들과의 관계를 밝히고, 아울러 장유와 정제두의 관계도 살펴보겠다. 이는 장유와 정제두의 지역적 연고를 바탕으로 시흥시가 한국양명학의 발원지(發源地)로서의 역사적 사실과 위상을 밝히는 것이기 때문이다.

II. 한국양명학의 선유(先儒) 계곡 장유

1. 생애(生涯)

장유(張維, 1587-1638)의 본관은 덕수(德水), 자는 지국(持國), 호는 계곡(谿谷)·묵소(默所)이다. 아버지는 장운익(張雲翼, 1561-1599)이며, 어머니는 판윤 박숭원(朴崇元)의 딸이다. 우의정 김상용(金尙容, 1561-1637)의 사위이고, 김장생(金長生, 1548-1631)의 문인이다.[8]

1605년(선조 39) 사마시를 거쳐 1609년(광해군 1) 증광 문과, 을과로 급제, 승문원에 소속되어 시강원 설서(侍講院說書)를 겸하고, 사관(史館)과 주서(注書)를 하였다. 1612년(광해군 4) 김직재(金直哉)의 무옥(誣獄)에 연루해 파직되자 안산(현 시흥시 장곡동 산 68번지 안골)으로 내려가 12년간을 살면서 독서와 저술에 몰두했다. 이때 효종비 인선왕후를 낳았다.(1618)[9]

이후 1623년 인조반정(仁祖反正)에 가담해 정사공신(靖社功臣) 2등에 녹훈되고 봉교를 거쳐 전적과 예조·이조의 낭관을 지내고, 호당독서(湖堂讀書)를 거쳐 옥당(玉堂)에 들어가 대사간 등을 역임하였다.[10] 1624년(인조 2) 이괄(李适)의 난 때 인조를 공주로 호종하면서 대사헌과 그 공으로

8) 판서공이 판윤 박숭원의 딸을 맞았는데, 박 부인이, 아침 해가 몸을 비추다가 이윽고 품속으로 들어오는 꿈을 꾸었는데, 공이 만력(萬曆) 정해년 12월 25일에 선천부(宣川府) 내아(內衙)에서 출생하였다. 판서공이 장공(長公 장유의 형)을 가르칠 때 공이 겨우 5세의 나이로 옆에서 듣고도 뜻을 해득하였고 10세에 경서(經書)를 죄다 외었으며, 15세에 월정 윤근수에게 가르쳐 주기를 청하였고 또 문원공 김 선생 장생을 따라 배웠다. 김 선생이 일찍이 공에 대하여, "총예 역학(聰睿力學)하고 견해가 뛰어나니, 그 성취를 이루 헤아릴 수 없다."고 말하면서 사문(斯文)의 책임으로 기대 권면하였다.(判書公娶判尹朴崇元女 朴夫人夢旭日照身 俄而日入懷中 而公以萬曆丁亥十二月二十五日生于宣川府之衙廨 判書公數長公 公五歲 傍聽而便解 十歲 悉誦經書 十五 請業于尹月汀根壽 又從文元公金先生長生學 先生嘗曰 聰睿力學 見解超詣 將不可量也 因以斯文之責期勉焉)-『송자대전(宋子大全)』 권156, 「계곡장공신도비명(谿谷張公神道碑銘)」 병서(幷序)

9) 시흥문화원, 1999『장곡동의 어제와 오늘』, 8쪽

10) 장유·이식을 이조 좌랑으로 삼았다. 장유는 천품이 순수하고 정대했으며 학식이 고원(高遠)했다. 문장이 혼후하여 스스로 일가(一家)를 이루었으며 군서(群書)에 박통하여 무엇이고 통하지 않는 곳이 없었다. 광해조 초기에 내한(內翰)이 되었다가 곧바로 흉도의 배척을 받아 향리에 은거하면서 오로지 독서와 저술하는 일로 세월을 보냈다. 정사(靖社)하던 날 모의에 참여하여 공을 세워 마침내 권병(權柄)을 쥐게 되었는데, 당대의 명류(名流)들이 의지처로 삼고 중하게 여겼다.(以張維 李植爲吏曹佐郎 維天資粹正 學識高遠 文章渾厚 自成一家 博極群書 觸處皆通

신풍군(新豊君)에 책봉되었다. 이조참판, 홍문관 부제학, 성균관 대사성 등을 역임했다. 정묘호란(丁卯胡亂, 1627)이 일어나자 강화로 인조를 호종하고, 이조판서, 양관(兩館) 대제학을 겸임했다. 1629년 나만갑(羅萬甲)을 신구(伸救)하다가 나주목사로 좌천되었다. 형조판서로 올라와 1631년 원종추숭론(元宗追崇論)이 대두하자 대사헌으로 반대하고 전례문답(典禮問答) 8조를 지어 바쳤다. 좌부빈객(左副賓客), 예조판서, 관상감 제조, 이조판서 등을 역임하였다.

병자호란(丙子胡亂, 1636) 때 남한산성에서 최명길과 주화론(主和論)을 주장하였다. 이는 서인 내에서 명분을 중시한 김상헌(金尙憲, 1570-1652) 중심의 청서파(淸西派)와 달리 현실론에 주장한 공서파(攻西派)의 입장이었다. 삼전도 비문을 지었으나 채택되지 않았다. 대가(大駕)를 호종한 공으로 우의정을 제수하였으나 나가지 않았다.

천문 · 지리 · 의술 · 병서 등 각종 학문에 능통했고, 서화와 특히 문장에 뛰어나 이정구(李廷龜) · 신흠(申欽) · 이식(李植)과 한문사대가(漢文四大家)로 불렸다. 신풍부원군(新豊府院君)에 봉해지고 영의정에 추증되었다. 시호는 문충(文忠)이다. 저서로 『계곡만필』 · 『계곡집』 · 『음부경주해(陰符經注解)』가 전한다.[11]

2. 덕수 장씨 세장지(世葬地)와 해장정사(海莊精舍)

그림1. 안골 터 및 상양산 자락 덕수 장씨 세장지(경기도 시흥시 장곡동)

장유는 1612년(광해군 4) 김직재의 옥사에 연루되어 벼슬길에서 물러나면서 12년 동안 안산에서 머물렀다. 벼슬길에서 물러난 초기에는 한양의 필운대(弼雲臺) 아래의 집과 안산(현 시흥시 장곡동)의 선영 아래에 지은 집 사이를 오가면서 지냈다. 안산에는 증조부가 경영했던 정자 호호정(浩浩亭)이 있었다. 그런데 1616년 말 정국이 급변하여 선조대 고명신(誥命臣)의 처벌이 가볍다는 의논으로 1617년 박동량(朴東亮, 1569-1635)이 아산에, 신흠(申欽)은 춘천으로 유배되었다. 장유는 이들의 자제였던 박미(朴瀰, 1592-1645)[12] · 신익성(申翊聖)과 친분이 두터웠는데, 박미와 신익성은 각각 부친들의

光海初 爲內翰 旋被兇徒所斥 屛居田里 惟以讀書著述爲事 靖社之日 參謀有功 遂被柄用 一時名流 倚以爲重)-『인조실록(仁祖實錄)』 권1, 1년 4월 경진

11) 『송자대전』 권156, 「계곡장공신도비명」 병서, 『선조실록(宣祖實錄)』, 『광해군일기(光海君日記)』, 『인조실록』 참조

12) 금양위 박미(선조 부마-정안옹주)는 시흥시와 관련이 깊다. 시흥시 군자봉 자락에 그의 묘가 아버지 박동량 묘

유배지로 갔고, 선배 학자 이항복(李恒福)도 유배를 갔다. 사정이 이렇게 되자 장유는 한양 생활을 완전히 접고 안산으로 옮겨, 여기서 살기로 결심하고 해장정사(海莊精舍)를 지었다.[13]

장유가 낙향한 곳은 현재 시흥시 장곡동(長谷洞) 안골마을이다.[14] 개발 전에 고조부 장옥(張玉)의 43칸의 기와집과 연못(장곡고 사거리), 덕수 장씨 세장지가 있었다. 현재는 1996년 '연성2지구 택지개발사업으로 아파트 단지로 변하였다. 다만 장경창(장신 후손, 1951)에 따르면 동양아파트 서쪽 구릉인 상양산 자락에 덕수 장씨 세장지 일부가 남아있다. 이곳에는 예로부터 장유의 선친인 정경부인 밀양박씨(추정), 장옥, 장륜 등 선대 많은 묘소와 애국지사 장수산(張壽山, 순한, 1900-1981)[15]의 묘 등이 있었으나 개발로 거의 실전되었다. 개발이 끝나고 아파트 단지가 된 안골에는 덕수 장씨 23~27세손에 해당하는 8가구가 거주하며, 안산분회 모임을 이어 가고 있다.

장곡동을 중심으로 세거한 덕수 장씨는 원나라의 제국공주(齊國公主)가 고려에 들어올 때 겁령구(怯怜口 : 사속인)로 공주를 따라 들어와 귀화한 순룡(舜龍, 1255-1297)을 시조로 한다. 이후 조선 전기 장충보 · 장옥(張玉) 부자 때에 관직에 나아가 활동하며 양천 허씨, 동래 정씨 등 중앙관인가문과 혼인을 맺었다. 장유의 증조 장임중(張任重)이 장례원 사의(掌隷院司議), 조부 장일(張

아래에 위치한다.(군자동 산22-2) 현재 '박동량 선생 묘와 신도비'는 향토유적 제21호(1988)이다.

13) 안산시사편찬위원회, 2011「학문과 예술, 그리고 문화유산」,『안산시사』4권, 39-40쪽 참조

14) 시흥시 장곡동은 조선시대 안산군 마유면 장하리(長下里, 장종리長宗里), 도촌리(島村里), 응곡리(鷹谷里)였다가, 1912년 2월 5일 조선총독부 경기도 고시 제7호로 안산군 내 동리의 구역과 명칭을 변경할 때, 장곡리로 합쳐졌다. 장하리에서 '장'을 응곡리에서 '곡'을 따서 지은 것이다. 이후 1914년 시흥군 군자면에 속하였다가 1989년 시흥시가 승격하면서 장곡동(법정동, 행정동)이 되었다. 안골(꼴)은 매골(꼴) 북쪽으로 장곡초등학교 남쪽에 위치해 있었다. 상양산 밑 골짜기 안에 자리 잡은 마을(삼태기처럼 생김)이므로 '안골(內谷)'이라 했다. 덕수 장씨가 처음으로 자리를 잡았으며, 입향조는 장유의 형인 장륜(張綸, 의금부 경력 역임)으로 이곳에 사는 장씨는 대부분 그의 후손이다. 장곡동 산 68에서 장유가 12년간 은거하는 동안 장선징(張善澂)과 인선왕후를 낳았다. 시흥시의 연성2지구 택지개발사업으로 1996년에 폐동 된 뒤 1999년 동양아파트가 들어섰으며, 마을명칭은 안골이 본래 매골에 속한 곳이므로 매골이 되었다. 매골은 안골 동쪽에 위치하고, 풍수로 보아 엎드려 있는 꿩을 매가 낚아채는 지형(伏雉形)이므로 '매골(응곡)'이라 불렀다. -시흥문화원, 2006『始興市地名由來』, 265, 267쪽, 1999, 『장곡동의 어제와 오늘』, 11쪽 참조

15) 장수산은 장유의 동생 덕창군(德昌君) 장신(張紳)의 11대손으로 장곡리 614-2 출생하였다. 1919년 4월 5일 장현리의 서당생도 권희(權憘, 20세)가 '비밀통고(秘密通告)'라는 사발통문(沙鉢通文)을 집필하여 돌리자 이를 장수산(21세)이 장곡리 구장(區長) 이덕증(李德增)에게 전하여 이를 월곶리 구장 등이 사환을 시켜 '4월 7일 구시장(군자면 거모리)에서 대한독립만세를 외칠테니 집합하라'고 모의하다 발각되어 체포 후, 경성지방법원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복역하였다. 3.1운동 이후 시흥지역의 인사들이 조직한 한시 동인회인 연성음사(蓮城吟社)가 주최한 전국 한시모집에서 4등으로 입상(1927)하였다. 전당홍(錢塘紅) "어느 해에 사신 따라 전당을 떠났는가 흰 바탕에 붉은 꽃잎은 뭇꽃과 사뭇 달라 반도의 가을빛은 꽃잎 속에 숨어드는데 명나라 바람이 붉은 꽃잎에 살랑이네 그 향기 연못에 뻗쳐 글제에 걸렸으니 그 옆 숲속에서 갖는 시모임이 아름답고나 오래도록 꽃내에 심어 괴임을 받으니 연성의 꽃, 이웃고을까지 번지리라(何年隨使出錢塘 瓣白尖紅衆芳 半島秋光藏瓣扇 大明風氣葆尖房 香蓮太液縣題美 色近東林結社良 久植花川逢愛護 蓮城可作幷州鄕)"

해방이후 군자초등학교 오이도간이학교(금호간이학교, 거모동 566)를 이전(1952), 장곡초등학교 설립에 앞장섰다. 1990년 8월 15일 건국훈장애족장이 추서되었다.-이병권, 2015「시흥군(始興群) 수암면(秀岩面) 3 · 1운동과 윤동욱(尹東旭)의 사상(思想)」,『京畿鄕土史學』제20집, 京畿道文化院聯合會, 271쪽, 이승언, 1995, 「시흥의 인물과 행적」,『시흥향토문화총서』2, 시흥시, 219-220쪽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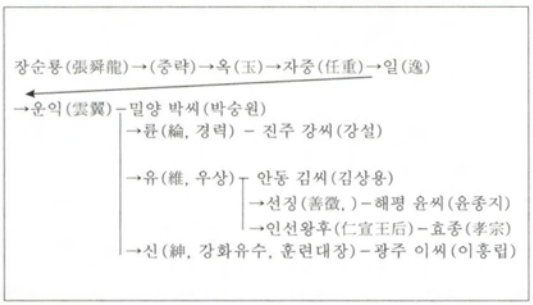


그림2. 장유 가계도

逸)은 목천현감을 지냈고, 부친 장운익이 선조대 형조판서를 역임하였다.[16] 장유와 장신(張紳, ?-1637)은 인조반정에 참여하여 정사공신(靖社功臣)에 책봉되면서 가문이 번성하였다. 특히 반정에 장신의 처부 훈련대장 이흥립(李興立, ?-1624)의 동조는 성공의 결정적이었다. 이렇듯 서인의 핵심세력으로 활동하면서 장유의 딸이 국혼으로 1631년(인조 9) 인조의 둘째 아들 봉림대군(鳳林大君, 효종)과 혼인 하였다. 또한 이 무렵부터 서인계의 유력한 가문들과 혼인을 맺었다. 장유의 처부는 인조대 우의정을 역임한 안동 김씨 김상용이었고, 아들 장선징(張善徵, 1614-1678)의 사위는 숙종대 좌의정을 역임한 전주 이씨 이관명(李觀命, 1661-1733)이다. 또한 서인계 학맥의 종장이었던 사계(沙溪) 김장생의 현손인 김진서(金鎭瑞)도 장선징의 딸을 부인으로 맞이하였다. 이렇듯 장곡동에 세거한 덕수 장씨는 명문가였다.[17]

장유의 12년간 생활 모습은 그가 쓴 「해장정사기(海莊精舍記)」를 통해 살펴 볼 수 있다.

> 장자(張子)가 해장(海莊)에 돌아온 지 달포 남짓 되었을 때 향리의 부로(父老) 몇 명이 술통을 들고 찾아와 위로하기를, "선생은 서울에서 생장(生長)하여 옥당(玉堂)과 대성(臺省)에 출입한 날이 오래 되었다. 최근에는 비록 집에서 쉬면서 한가하게 시간을 보내게 되었다 하더라도, 밖에 나가면 의관을 갖춘 고관대작들과 함께 노닐었고 안에 들어오면 따뜻하고 포근한 집안 분위기가 선생을 맞이하였으니, 매우 편안하고도 쾌적한 생활을 즐겼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욕되게도 전야(田野)에 내려와서는 황무지를 이웃하고 쑥대밭 속에 거처하게 되고 보니, 바람결에 풍겨오는 거름 냄새가 뜰 안에 가득하고 모기와 뱀들이 방 안에까지 침투해 들어오는 상황에서, 사귀던 벗들도 점차 멀어지고 친척들도 소원해지게 되었고 보면, 이 또한 영락(零落)하여 잃게 된 경우라고 할 수가 있겠다. 이에 삼가 선생을 위해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바이다." 하였다. 이에 장자가 말하기를, "찾아와 주신 분들의 뜻은 고맙지만 사절하는 바이다. 내가 여기에 온 목적은 대체로 위태로운 지경을 벗어나 안정을 다시 찾고 고달픈 처지를 떨치고 나와 즐겁게 살아가기 위함인데 이제 육체적으로도 쾌적하고 정신적으로도 만족스러우니 번거롭게 부로들이 수고하실 필요가 없다.(중략)…

16) 德水之張 出自中國 元時有舜龍來仕高麗 官至贊成事德城府院君 高祖玉 擢壯元及第 曾祖任重 掌隷院司議 祖逸 縣監 考雲翼 刑曹判書 蓋自高曾以至判書公 皆以文名世-『송자대전』 권156, 「계곡장공신도비명」 병서

17) 시흥시사편찬위원회, 2007 「시흥의 전통시대」, 『시흥시사』 2, 316-315쪽 참조

이제 시골로 돌아오고 보니, 변변찮은 누옥(陋屋)이나마 비바람을 가리기에는 충분하고, 얼마 안 되는 전토(田土)나마 밥을 끓여 먹기에는 충분하다. 그리고 농사를 지으면서 틈이 날 때마다 방 하나를 깨끗이 치우고 향(香)을 피운 뒤 묵좌(默坐)를 하며 도적(圖籍)을 뒤적여 해묵은 실마리를 찾아 내기도 하고 서시(書詩)를 읊조리며 음미하기도 한다. 게다가 나는 노장(老莊)의 현허(玄虛)한 지취(旨趣)를 좋아하는 성격이라서 삼교(三敎 유(儒)·불(佛)·선(仙))를 연구하며 그 같은 점과 다른 점을 비교 검토하기도 하고, 이와 함께 정신 집중과 호흡 조절을 통해 육체의 건강을 도모하는 한편 창출(蒼朮)이나 복령(茯苓)을 채취하여 복용하기도 한다. 그러다가 때로는 수풀 사이를 어슬렁거리고 연못을 따라 산보하면서 물고기나 새들과 친해지기도 하고 자욱이 피어오르는 운연(雲煙)을 보며 감회에 젖기도 한다. 그 결과 전원에 돌아온 뒤로부터 대체로 몸이 날마다 건강해지는 느낌이 들고 마음 역시 하루가 다르게 안정을 되찾는 기분이 든다.

대저 세상에서 호시탐탐 나를 노려보면서 틈만 있으면 저격(狙擊)하려고 하는 것은 단지 명예와 이익 때문일 따름이다. 내가 일찍이 명예를 구한 적이 없는데도 엉뚱하게 명성을 얻게 되고 말았는데, 명예가 있는 곳에는 이익이 간혹 뒤따르기도 하는 까닭에 명예를 다투어 얻으려는 자들이 나를 질시(嫉視)하고 이익을 독점하려는 자들이 나를 꺼린 것이니, 이것이 바로 그동안 계속 으르렁대는 소리가 그치지 않았던 이유라 하겠다. 그러나 이제 시골로 돌아왔고 보면 나는 그야말로 한 사람의 농사꾼일 따름이다. 일개 농사꾼에 대해서야 어찌 사람들이 꺼리고 미워하기야 하겠는가. 이제야 비로소 오늘날 세상의 손가락질을 면하게 되었으므로 내가 안심이 된다. 속세의 풍진이 나의 청정함을 더럽힐 수 없음은 물론이요, 시골 촌부(村夫)들과도 나의 그윽한 회포를 함께 나누며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모기나 독사와 같은 근심거리가 있다고 하나 그것 역시 교묘하게 모함하는 적구(赤口)와 독설(毒舌)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럼에도 부로(父老)들은 나를 축하하지는 않고 오히려 나를 위로하러 왔단 말인가." 하니, 부로들 모두가 홀륭하다고 하였다. 이에 장자가 마침내 그 이야기를 기록하여 해장정사의 기문(記文)으로 삼았다.[18]

---

18) 張子歸海莊之月餘 鄕之父老數人者 提壺榼以來勞苦之曰 先生生長京華 出入金鑾粉署之日久矣 近雖家食就閒出有衣冠軒蓋之遊 入有堂寢突奧之居 雍容甚適也 一朝辱在田野 斥鹵之爲隣 蓬藜之爲處 灰糞堀堁 蓊勃乎戶庭 蚊蚋鳧蝪 密邇乎屛帷 交游疏間 親昵契闊 亦可謂淪落失所矣 敬爲先生病焉 張子曰 謹謝客 僕之來此也 蓋去危而就安也 舍苦而卽樂也 甚適於體而愜於心 無煩父老見勞也(중략)… 今而歸也 弊廬足以庇風雨 薄田足以具饘粥 每於耕耘之暇 淨掃一室 焚香默坐 紬繹圖籍 諷詠書詩 又性喜老莊玄虛之旨 研究三敎 參合異同 亦復凝神調氣 以全形生 採朮黃芩 以充服食 時或婆娑林樾 散步池澗 魚鳥親人 雲煙娛懷 蓋自歸田以來體若日以健而心若日以泰也 且夫世之耽耽其視 日狙伺於僕者 只爲名與利耳 僕未嘗求名而名謬歸焉 名之所在利或隨焉 爭名者嫉之 專利者忌之 此狺狺之所以未已也 今而歸 乃一田夫耳 一田夫 何能得人忌嫉耶 而今而後吾知免於今之世矣 草莽灰塵 不足以涴我淸淨 田翁野夫 亦可以啚我幽悁 蚊蚋蟲蛇之爲患 比之赤口毒舌之憯且巧則亦有間矣 迺父老不賀僕而顧勞僕爲 父老皆曰善 張子遂錄其說 以爲海莊精舍記-『계곡집(谿谷集)』 권8, 기(記) 19수(首) 「해장정사기」

이처럼 장유는 낙향하여 얼마 안 되는 농토에서 손수 농사를 지으며, 독서와 시를 짓고, 촌부들과 어울리며 살았다. 특히 「호미씻이(세서)」라는 칠언 고시(七言古詩)에는 자신이 직접 체험한 농촌풍습과 함께, 세금을 걷는 아전의 횡포를 남기고 있다.[19] 이렇듯 장유는 농민의 어려운 실상도 주목하였다. 현재 해장정사는 그 터조차 남아있지 않다. 1996년 '연성2지구 택지개발사업'으로 동양아파트가 건립되었기 때문이다. 개발되기 전 해장정사 자리에 장순태(장신 후손, 1947년생)의 10여칸의 초가집과 그 앞에 연자방아가 있어서 방앗간집으로 불렸다.

3. 초장(初葬)과 이장(移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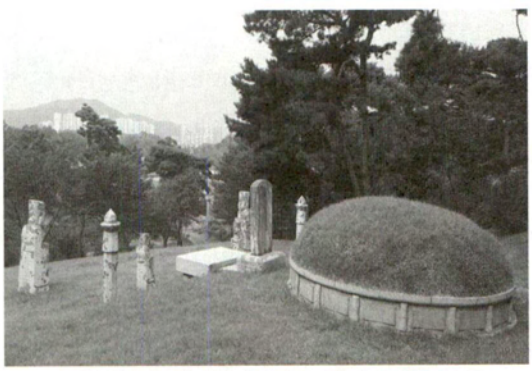


그림3. 장유 묘 및 신도비(경기도 시흥시 조남동 산1-5)

장유는 인조반정(1623)에 참여해 성공하자 12년간의 해장정사의 생활을 끝냈다. 이후 조정에 중용되어 병자호란이 일어나자 남한산성으로 인조를 호종하였다. 모친 박씨 부인이 강화도에서 별세하자 장사를 치루고, 이어 우의정에 제수되자 18차에 소(疏)를 올려 체직(遞職)되었다. 노쇠한 몸으로 모친의 집상(執喪)에 열중하다 병이 악화되어 무인년(1638, 인조16) 3월 17일에 별세하였다.[20]

---

19) 농가에서 김매는 일을 다 끝내고 나서 남녀노소가 한데 모여 먹고 마시는 것을 호미씻이(洗鋤)라고 하는데, 내가 시골에 살면서 그 일을 눈으로 확인했기에 이를 시로 기록하였다. "남정네는 하얀 대오리 갓 머리에 쓰고 여인네는 푸른 무명 치마 삶은 박에 오이 썰어 새우도 듬뿍 올려놓고 오래 된 옹배기엔 막걸리가 찰랑찰랑 잔디 덮인 언덕의 뽕나무 그늘 아래 앉자마자 사방에서 꽃 피우는 농사 얘기 저쪽은 이쪽보다 김매기가 늦었다느니 아랫배미가 윗배미보단 벼가 더 잘 됐다느니 잔 돌리는 청년들에 노인들 거나해져 짧은 옷 소매 일어나서 춤도 절로 덩실덩실 일 년 내내 고된 농사 이 날 하루 즐거움 농촌 들녘 오늘만은 모든 근심 잊으리라 알다시피 지난해 세금 독촉 아전이 들이닥치자 바삐 마련하랴 사흘 굶기도 하였었지 농부들 즐거운 일 어찌 쉽게 얻으리요 가지 말고 천천히 실컷 먹고 취하시라" (農家耘事已畢 老少男婦聚飮 謂之洗鋤 余田居目擊其事而記以詩 "田翁白竹笠 田婦靑布裙 烹匏斫瓜薦鰕魚 老瓦盆盛黍酒渾 靑莎原頭桑葉陰 坐來四座農談喧 東家耘較西家晩 低田禾比高田繁 少年行酒長老醉 短袖起舞何蹲蹲 一年作苦一日歡 田家此夕百憂寬 君不見去年吏到索租時 翁姥狂奔三日飢 田家樂事豈易得 勸君醉飽無遽歸")-『계곡집』 권26, 칠언 고시

20) 丙子 從難于南漢城 要所以救君父之禍者 無所不用其極 隨駕還都 始聞母夫人沒於江都 旣葬返哭 上命起復而拜議政府右議政 公驚惶欲死 瀝血乞免 上必欲奪情 加以隆禮者 迥出今古 公遂舁出墓側 前後十八疏始許 公襄年執喪 不怠不解 疾漸劇 遂以戊寅三月十七日卒-『송자대전』 권156, 「계곡장공신도비명」 병서, 『인조실록』 권36, 16년 3월 경진 참조

장유가 장곡동에 칩거 당시는 병자호란 때, 장인 김상용이 강화(江華)에서 화약을 안고 자결하고, 어머니 역시 강화에 피난 중 작고하였으며, 사위인 봉림대군과 딸이 심양(瀋陽)으로 끌려가고, 동생 장신은 강화유수(江華留守)로 패전의 책임을 지고 사약(賜藥)을 받는 등, 불행을 연거푸 겪은 뒤였다. 당시 심정이 처남 김회여에게 보낸 시에 나타나 있다. "남북으로 헤어진 위태로운 상황에서 육친의 비극을 차례로 맞았어라 나의 주거지는 구름 낀 저 산 너머 그대가 떠난 곳은 장기(瘴氣) 자욱한 해변가 고향에 돌아간들 즐거운 일 뭐 있겠나

장유의 묘는 「계곡장공신도비명」에 "묘는 안산(安山) 월곡리(月谷里) 앞에 안장되었고 어제(御題) 표액(表額)이 있다.(墓在安山月谷里 前有御題表額)"고 되어있다. 장경창은 월곡리를 근거로 현재 덕수 장씨 세장지가 상양산 서쪽 구릉으로 장곡동과 달월에 걸쳐 있으므로 이들 지명의 '월'과 '곡'자를 따서 월곡리로 추정한다.(현재 초장지 구덩이 흔적이 있음) 그러나 그 위치를 단정할 수는 없다. 다만 『인조실록』에 장유가 '안산 묘소'[21]와 '선대 묘소'[22]에 거한다고 한 것으로 보아, 장곡동의 덕수 장씨 세장지가 예로부터 이어져 온 곳이므로 이곳이 장유의 초장지로 추정된다.

그리고 지금의 장유의 묘는 같은 안산군내로 이장되었다. 『현종실록』의 "신풍부원군의 묘소 이장으로 왕대비가 망곡례를 행하였다.(1664년)"[23]는 기사 등, 이장에 관한 여러 기사가 확인된다. 따라서 이렇게 이장된 묘는 영가부부인(永嘉府夫人)과 합장되어 현재 시흥시 조남동 장군재에 있다. 장군재는 조선후기 제청리(祭廳里)였는데, '제청'의 의미가 묘제(墓祭)를 위한 공간을 뜻하므로 이 마을의 명칭이 장유 묘에서 유래되었다.[24] 이장 이후 특기한 것은 정조가 1789년 8월 행행(行幸)에서 16일 안산관아에 머물면서

> 우리나라에 본디 현명한 국구(國舅)가 많으나, 문장과 공업(功業)의 성대함으로는 신풍부원군만한 이가 없다. 숭릉(崇陵-현종) 어필(御筆) 신도비(神道碑)의 성대한 유적을 추모하니 배나 슬픈 생각이 든다. 고 부원군 장유와 영가 부부인 김씨의 묘소에 승지를 보내어

차가운 하늘 아래 눈보라만 몰아칠걸 가로막힌 산천 너머 생각만 할 뿐 대규(戴逵) 찾아 배 타기도 어렵게 됐소 해마다 이별을 일삼다 보니 그대로 세상을 피하는 길이 됐소 꿈속에서도 아른아른 젖어드는 나그네 길 시를 보면 그대 심정 알고말고요 먹장구름 뒤덮인 병란의 기운 밤새도록 빛나는 하늘의 요망한 별 어쩔꺼나 서쪽 향해 웃던 그곳도 이젠 다시 옛날 한양 그 모습이 아닌 것을(鞿危各南北 骨肉迭悲憐 我住雲山外 君歸瘴海邊 田園無樂土 風雪逼寒天 相憶川原隔 難乘訪戴船 每作經年別 因成避世行 夢中迷客路 詩裏見君情 兵氣連雲黑 妖星照夜明 可憐西笑地 非復舊秦京)"-『계곡집』 권27, 오언 율시, 「차운주기김회여(次韻詶寄金晦汝)」

21) 우의정 장유가 기복(起復)을 굳이 사양하였으나 윤허하지 않으니, 장유가 드디어 지레 안산(安山)의 묘소 아래로 갔는데, 상이 다시 승지를 보내어 돈유(敦諭)하였다.(右議政張維 固辭起復 不許 維遂徑往安山墓下 上復遣承旨敦諭)-『인조실록』 권35, 15년 9월 병인

22) 최명길이 나아가 아뢰기를, 이홍주가 다시 수상으로 들어왔으므로 사람들의 희망을 자못 위안하게 되었으나, 장유는 선대의 묘소 아래에 가 있으면서 병세가 점점 위중하여진다 하니 매우 불행합니다.(鳴吉進曰 李弘胄復入首揆, 頗慰人望, 而張維則往先壟之下, 病勢漸重云, 不幸甚矣)-『인조실록』 권35, 15년 9월 신미

23) 以新豐府院君遷葬, 王大妃行望哭禮-『현종실록(顯宗實錄)』 권9, 5년 9월 갑오
이장과 관련된 기사는 『현종실록』 권9, 5년 8월 임술의 호조의 이장절차에 관한 기록과 『현종실록』 권9, 5년 8월 정묘에 인선왕후가 구묘를 파는 관계로 망곡례를 행한 기록이다.

24) 조남동은 조선시대 안산군 초산면의 조남리(鳥南里)와 제청리(祭廳里)였다가, 1912년 2월 5일 조선총독부 경기도고시 제7로 안산군내 동리의 구역과 명칭을 변경할 때, 조남리로 합쳐졌다. 1914년 조선총독부령 제111호와 경기도령 제3호에 따라 시흥군과 수암면으로 속하였다. 1989년 1월 1일 시흥군 승격으로 조남동(법정동)이 되었다.(행정동 목감동) 장군재는 응단말인데, 장승박이 동남쪽에 위치해 북향받이로 해가 비추지 않아 '응단말'이라 부르고 있으며, 장유의 후손과 동지중추부사 김유향의 후손(김해 김씨 구직파)이 자리를 잡아 취락이 이루어졌다. 응단말은 북쪽에 있는 양단말, 서북쪽에 있는 장승박이를 통칭해 '장군곡'이라 지칭하는데, 이는 장유 묘가 이곳 동쪽 기슭에 있어 그의 성씨와 군호를 따서 '장군재'라 부른다. 이른 기록은 『조선지지자료』의 안산군 초산면조에 제청리를 '장군잿'이라고 했다. -시흥문화원, 2006 『始興市地名由來』, 시흥문화원, 136, 138쪽 참조

치제하도록 하라. 그리고 고 판서 장선징(張善澂)에게도 똑같이 치유(致侑)하도록 하라.[25]

명하고 어제로 장유와 영가부부인의 치제문[26]을 지은 것이다. 현재 장유 묘와 신도비는 1986년 3월 3일 향토유적 제2호로 지정되었다.[27]

4. 장유의 사상(思想)과 양명학(陽明學)

장유는 당대 주자학의 일변도의 학문적 경직성을 비판하고 양명학을 포함한 학문적 다양성 추구하였다.

> 중국의 학술은 다양하다. 정학(正學 유가(儒家)의 학문)이 있는가 하면 선학(禪學 불가(佛家)의 학문)과 단학(丹學 도가(道家)의 학문)이 있고, 정주(程朱 정자(程子)와 주자(朱子))를 배우는가 하면 육씨(陸氏 상산(象山) 육구연(陸九淵))를 배우기도 하는 등 학문의 길이 한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유식 무식을 막론하고 책을 끼고 다니며 글을 읽는 자들을 보면 모두가 정주(程朱)만을 칭송할 뿐 다른 학문에 종사하는 자가 있다는 말을 들어 보지 못하였다. 어쩌면 우리나라의 사습(士習)이 중국보다 실제로 훌륭한 점이 있어서 그런 것인가. 아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고, 중국에는 학자가 있는 반면에 우리나라에는 학자가 없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다. 대체로 중국의 인재들은 그 지취가 결코 녹록(碌碌)하지를 않아서, 이따금씩 큰 뜻을 품은 인사가 나오면 성실한 마음가

---

25) 我朝固多賢國舅 而文章功業之盛 未有如新豐 追惟崇陵御筆神道之盛蹟 一倍愴想 故府院君張維 永嘉府夫人 金氏墓 遣承旨致祭 故判書張善澂 一體侑之-『정조실록(正祖實錄)』 권47, 21년 8월 계축

26) "신풍부원군 장유와 영가부부인 김씨의 묘소에 치제한 글. 조정에 있어서는 명신이고 국가에 있어서는 원구였으니 공훈은 마원(馬援)과 등애(鄧艾)를 능가하고 문장은 한유(韓愈)와 구양수(歐陽脩)를 앞질렀네 아름다운 영가부부인을 배필로 맞아 복을 돈독히 하여 성후(聖后)를 낳았으니 공의 집이 더불어 영화로워 성자신손(聖子神孫)이 줄곧 이었도다 경사를 기른 터전에 공경을 다하는 정성으로 깊고 넓은 관아에 밤중에 앉았으니 시각이 깊었다네 엄숙하게 모습을 접한 듯하여 나의 생각 유유하니 상경의 반열이었던 아들과 일체로 아름다움을 함께하네(新豐府院君張維 永嘉府夫人金氏墓致祭文 在朝名臣 在國元舅 功駕馬鄧 文軼韓歐 匹美永嘉 篤祜塗莘 公家與榮 承繼聖神 毓慶之地 致敬之誠 潭潭衙閣 坐夜深更 肅焉如接 我思悠悠 胤子上卿 一體同休)-『홍재전서(弘齋全書)』 권24, 제문(祭文)6, 「신풍부원군장유영가부부인김씨묘치제문(新豐府院君張維永嘉府夫人金氏墓致祭文)」

27) 장군재 마을에 위치한 묘는 봉분과 앞에 묘비, 혼유석, 상석, 향로석 등이 놓여있다. 그리고 좌우에 문신석인 두 쌍과 망주석이 세워져 있다. 신도비는 묘에서 서쪽으로 70m쯤 떨어져 있는데, 1676년(숙종 2)에 세워졌다. 높이 2.65m, 폭 1.3m, 두께 32cm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신도비이다. 비문은 우암 송시열이 짓고, 글씨는 청평위 심익현이 썼으며, 전자는 광성부원군 김만기가 했다.-시흥시, 2013 『시흥문화유산』, 27쪽 참조

장군재 마을에는 1650년(효종 1)에 인선왕후가 아버지 장유의 명복을 빌기 위하여 창건한 법련사(法蓮寺)가 있다.(대한불교조계종 제2교구 본산인 용주사(龍珠寺)의 말사) 그 계승 연원은 정확치 않으며, 1927년에 주지 벽숭(碧崇)이 중수 하는 등, 한국전쟁을 거치며 소실된 절을 여러 차례 중수하였다. 1981년에는 장유의 후손들이 철조석가여래좌상을 만들어서 봉안하였다. 현존하는 당우로는 대웅전과 요사채 2동이 있다. 이밖에 인선왕후가 심었다는 측백나무가 있다.

짐으로 학문의 길에 매진하기 때문에, 그의 취향에 따라 학문의 성격은 서로 같지 않을지라도 각자 실제로 터득하는 바가 왕왕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렇지를 못해서 기국(器局)이 워낙 좁아 구속을 받은 나머지 도대체 지기(志氣)라는 것을 찾아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저 정주(程朱)의 학문이 세상에서 귀중하게 여겨진다는 말을 얻어 듣고는 입으로 뇌까리고 겉모양으로만 높이는 척하고 있을 따름이다. 그런 까닭에 소위 잡학(雜學)이라는 것조차 나올 여지가 없으니, 또한 어떻게 정학(正學) 방면에 소득이 있기를 기대할 수가 있겠는가. 이를 비유하자면, 땅을 개간하고 나서 씨를 뿌려야만 이삭이 패고 열매를 맺을 것이요, 그런 뒤에야 오곡(五穀)이니 제비(稊粃 돌피와 쭉정이) 뉘를 구별해 낼 수 있는 것과 같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것이라곤 말과 비틀어진 땅덩어리뿐인데, 거기에서 무엇을 오곡이라 하고 무엇을 제비라 할 수 있겠는가.[28]

이와 함께 앞서 살펴본 「해장정사기」에도 "노장 현교를 좋아하고 삼교를 연구했다"는 장유는 성리학 일변도의 조선 사상계에서 학문적 다양성을 주장하는 것, 뿐만이 아니라 직접 실천하고 있었다. 일찍이 양명학에 접한 그는 위와 같이 당시 주자학의 편협한 학문 풍토를 비판해, 학문에 실심(實心)이 없이 명분에만 빠지면 허학(虛學)이 되는 것을 경계하였고 또한, 지행합일(知行合一)을 통해 마음을 바로 알고 행동을 통해 진실을 인식하려 하는 양명학적 사고방식을 추구하였다. 이러한 장유에 대해서 당대 육왕학을 좇는다는 비판이 일었다.[29] 특히 한문사대가의 한 사람인 이식(李植, 1584-1647)은 다음과 같이 장유를 육왕학파(陸王學派)로 비판하였다.

장공(張公)은 천성적으로 타고난 자질이 순수하고 아름다운데다, 일생 동안 견지해 온 학문을 보아도 박문(博文)과 약례(約禮)의 두 측면을 모두 극진히 하였으니, 만약 얼핏 보기만 한다면 그 누구인들 대유(大儒)로 인정하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 하지만 그의 논의를 살펴보면, 오로지 육상산(陸象山)과 왕양명(王陽明)의 학술을 위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선

28) 中國學術多岐 有正學焉 有禪學焉 有丹學焉 有學程朱者 學陸氏者 門徑不一 而我國則無論有識無識 挾筴讀書者 皆稱誦程朱 未聞有他學焉 豈我國士習果賢於中國耶 曰非然也 中國有學者 我國無學者 蓋中國人材志趣 頗不碌碌 時有有志之士 以實心向學 故隨其所好而所學不同 然往往各有實得 我國則不然 齷齪拘束 都無志氣 但聞程朱之學世所貴重 口道而貌尊之而已 不唯無所謂雜學者 亦何嘗有得於正學也 譬猶墾土播種 有秀有實而後五穀與稊稗可別也 茫然赤地之上 孰爲五穀 孰爲稊稗者哉-『계곡만필(谿谷漫筆)』 권1, 「아국학풍경직(我國學風硬直)」

29) 공의, 『중용(中庸)』에 대한 논설이 주자(朱子)의 장구(章句)와 약간 다른 점이 있다. 하지만 이는 공이 여기에 대해 우연의 의문이 있었으나 감히 우길 수는 없으므로, 연구하는 도중 다소 이의를 제기한 바가 있었을 뿐, 그 말이 겸손하고 그 예절이 공손하였으니, 이 점은 사실 주자도 일찍이 허여(許與)한 바이다. 어찌 온릉(溫陵)이나 상산(象山 육구연)의 무리처럼 억지로 이설(異說)을 내세워 함께 맞서려는 자와 비하겠는가. 다만 고금의 글을 다 읽고 난 자라야 거의 공을 논평할 수 있을 것이다.(惟公所論中庸 略異於朱子章句 然此則公於此偶有所疑而不敢強故不免有所憤悱 而其辭遜其禮恭 此實朱子之所嘗許者 豈若溫陵象山輩強立異說 求與爭衡者之比哉 惟盡讀古今書者而後 庶可以論公也)-『송자대전』 권156, 「계곡장공신도비명」 병서

유(先儒)가 교시(敎示)해 준 정론(定論)에 대해서 구절마다 다른 의견을 내세우고 있으며, 또 불학(佛學)에 대해서도 "비록 이단이라고는 하지만 그 학술에 신심(身心)을 도와주는 면이 있으니, 공격해서 배척하면 안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 이런 경우가 바로 내가 말한 '차라리 배우지 않은 것보다 못하다.' 라고 하는 것이니, 그 인물이 아무리 뛰어나더라도 그의 학설은 배격해야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된 것은 대체로 그가 어렸을 적에 문장을 배울 욕심으로 노장을 숙독하다가 홀연히 계오(契悟)하는 바가 있었다고 하는 데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하겠는데, 이는 그야말로 고명(高明)한 자질을 소유한 탓으로 잘못 빠져 들어가게 된 경우라고 할 것이니, 정말 애석한 일이라고 하겠다.[30]

이식은 장유의 학설이 주자(朱子)와 반대된 것이 많다 하여 육왕학파로 비판하고 있는데, 당시 신망이 높던 우암 송시열(尤菴 宋時烈)은

공은 위로 한구(韓歐 한유와 구양수(歐陽脩))를 넘겨다보았으면서도, 그 의리(義理)는 정(程子) · 주(朱子)를 주장한 때문에 상하(上下) 5, 6백 년 사이에 공과 그 경중을 겨룰 이가 없다. 아, 참으로 성대하다.[31]

라고 하며 이식 등 조야의 비판을 "정주의 의리를 높이 하였다."고 평하며 두둔하였다. 이처럼 당대 양명학을 했다고 비판되었지만 그 유작은 온전히 남아 있다. 이를 위당(爲堂) 정인보는 『양명학연론』 에서

지금 전하는 최명길의 『지천집』 내용은 아마 많은 부분이 잘려나간 채 요행히 남은 것일지도 모른다. 그러면 장유는 처음의 견해를 지켰다고 최창대가 대놓고 말한 것은 어찌해서인가? 장유는 문장으로 한 시대를 휘어잡았기 때문에 그의 말들을 갑자기 가려 버리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다. 게다가 장유는 최명길과 조금 다른 점이 있다. 최명길은 이미 춘추대의(春秋大義)에 죄를 지은 사람으로 세상의 지탄을 한 몸에 받고 있는 상태였다. 이러한 와중에 그의 손자인 최석정이 조정에 나가 당쟁의 소용돌이에 휩쓸리면서 온갖 함정이 그의 앞뒤로 있었으니 그 무서움이 더해졌을 것이다. 하지만 장유는 효종의 장인이었다. 그래서 현종과 숙종 이하의 모든 열조(列朝)가 모두 장유의 외가 쪽 후손들이

30) 張公天資粹美 一生操持其學 博約兩盡 若驟見之 則孰不以爲大儒也 顧其論議 專主陸 王 凡先儒訓說定論 逐節立異 又謂佛學 雖曰異端 其學有補於身心 未可攻斥也 此正吾所謂不如不學者 其人雖賢 其說可闢也 蓋其少時 欲學文章 熟讀老 莊 忽有契悟 此誠因高明而誤入者 可惜可惜-『택당집(澤堂集)』 별집(別集) 권15, 잡저(雜著), 「추록(追錄)」

31) 是蓋上窺韓 歐 而義理則主於程 朱故 上下五六百年間 無可與軒輊者矣 嗚呼盛哉-『송자대전』 권156, 「계곡장공신도비명」 병서

니, 그 위치를 존중하여 죄인으로 몰아붙이기가 만만치 않았다. 때문에 『계곡만필』 등과 같은 유작들을 어떻게 할 수 없었을 것이니, 처음의 견해를 지켰다고 말해도 크게 누될 것이 없었던 것이다. 장유에게 누될 것이 없을진대 그와 같이 공부한 최명길에게도 누가 되지 않을 수 있지 않겠는가? 이것은 공론화된 말이라 이러한 경위가 있는데 어떻게 그들에게 무시무시한 상황이 닥치겠는가?[32]

이처럼 장유는 효종의 장인으로서 조선 왕실에서 존숭되었고 이는 당대 벗이자 동지였던 최명길과 대비되는 사실이다.[33] 이러한 계곡의 양명학적 저술들은 후대의 학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다. 조선양명학의 태두(泰斗)가 되는 정제두는 장유의 『계곡만필』 에서 계발[34]이 되었고, 최명길의 손자인 최석정(崔錫鼎)도 『계곡만필』 을 접하고 왕양명의 『전습록(傳習錄)』 에 관심을 가졌다고 한다.[35]

Ⅲ. 한국양명학의 대종사(大宗師) 하곡 정제두

1. 문하(門下)와 생애(生涯)

정인보는 정제두를 "조선양명학파의 대종사"라고 했다.[36] 조선시대 정제두만이 양명학에 대한 전문저서를 남겼다. 그의 학문이 확립된 후, 아들 정후일(鄭厚一)과 그의 문인(門人)인 이광명(李匡明), 이광사(李匡師), 이광신(李匡臣), 심육(沈錥), 윤순(尹淳), 이진병(李震炳), 정준일(鄭俊一), 송덕연(宋德淵), 최상복(崔尙復), 이선협(李善協), 신대우(申大羽), 이광려(李匡呂), 성이관(成以

32) 정인보, 역자 홍원식, 2004 『양명학 연론』 , 계명대학교출판부, 143쪽

33) 최명길의 손자 최석정(호 明谷)은 양명학을 배척하였으며, 할아버지 최명길이 양명학파가 아니었다고 힘써 변론까지 했다. 그리고 그의 증손자인 최창대(최창대, 호 昆侖) 역시 자신의 아버지 견해에 덧붙여, 최명길은 장유와 같이 어릴적에는 육구연의 상산학과 왕수인의 양명학을 좋아했지만 나중에 그것이 옳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장유는 끝끝내 처음의 견해를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사실 최석정도 『예기류편』 이란 책을 지었다가 주희의 주석과 다른 내용이 있다는 이유로 책이 불태워지고 목판이 깨부수어지는 야단이 있었다. 그래서 최석정이나 최창대가 최명길을 양명학자가 아니라고 강변한 것도 사실은 화를 피하려는 계책에 불과한 것이리라고 생각된다.-앞의 책, 143쪽 참조

34) 본문 II. 한국양명학의 대종사 하곡 정제두, 3. 사상과 학문적 특징, 2) 장유 사상의 영향 참조

35) 안산시사편찬위원회, 2011 「학문과 예술, 그리고 문화유산」 , 『안산시사』 4권, 39쪽

36) 정인보는 『양명학연론』 에서 "정제두는 조선 양명학파 가운데 가장 뛰어난 사람으로 조선 양명학파의 대종사이다. 정제두의 평생에 걸친 저작 가운데 순수하게 양명학을 연구한 학설만도 책으로 수십 편에 달한다. 최명길은 한 편의 글로 그가 양명학을 공부했던 흔적을 찾을 수 있게 하고, 장유는 몇몇 단서가 될 글월이 있다고 해도 조각에 지나지 않지만, 정제두는 매우 깊고도 넓게 자신을 학설을 세워서 양명의 제자들도 따라오지 못할 만큼의 큰 저작을 남겼다."고 평했다.-정인보, 역자 홍원식, 2004 『양명학 연론』 , 계명대학교출판부, 143-144쪽

觀), 오세태(吳世泰), 이선학(李善學), 김택수(金澤洙) 등이 있었다.[37] 이후 이들의 학문은 가학(家學)으로 전승된다. 정후일의 학문은 사위인 이광명과 그의 고손(高孫)인 정문승(鄭文升), 정기석(鄭箕錫), 정원하(鄭元夏) 등으로 이어졌으며, 신대우의 심학(心學)은 그의 아들인 신작(申綽), 신현(申絢)으로 계승되었다. 이렇게 정제두를 중심으로 전개되는 학통을 보통 '하곡학', '강화학', '강화양명학', '강화하곡학' 등 여러 가지로 부른다.[38]

정제두의 본관은 영일(迎日), 자는 사앙(士仰)이다. 1649년(인조 27) 한성부 반석방(盤石坊)에서 출생하였다.[39] 어려서부터 학문에 뜻을 두어 남계 박세채(南溪 朴世采), 명재 윤증(明齋 尹拯)의 문인으로 성리학을 배웠으며 경사(經史)와 백가(百家)에 통달하였다. 소릉 최규서(少陵 崔奎瑞)는 늘 선생을 보고 탄복하여 이르기를, "모공(某公)의 가죽 속에는 제자백가(諸子百家)의 글

---

37) 정인보는 "정제두는 일찍이 문호(門戶)를 표방하지 않아서 그 문도가 많지 않다. 하지만 적막하고 황량한 바닷가 땅 강화에서 현세의 영화를 제쳐두고 온 세상 사람들이 비판하는 이 학문을 연구한 이들, 비록 그 수는 많지 않지만 그렇기에 그들이 더욱 귀중하다고 하겠다."고 하였다.-앞의 책, 153쪽

38) 천병돈, 2007 「하곡학 연구 현황 분석」, 『양명학』 제19호, 한국양명학회, 146-147쪽
정인재는 "정제두에서 정인보에 이르기까지 200여 년간 이어간 학파를 하곡학파라고 부른다. 강화는 하곡학이 발생하고 하곡학파가 주로 활동한 고장이기에 하곡학의 성지(聖地)이다. 강화가 하곡학의 성지지만 강화학으로 부를 수 없다. 하곡학은 정제두 및 그 후학들의 학문을 가리키는 실체가 있는데 강화라는 인물은 없다. 그런데 이 하곡학을 강화학 혹은 강화학파라고 통념적으로 알고 있다. 우리가 퇴계학을 안동학이라 일컫지 않고, 다산학을 강진학이라 부르지 않듯이 하곡학을 강화학이라 불러서는 철학적 학술명칭에 맞지 않는다. 안동학, 강진학, 강화학은 해당 지역의 모든 것을 연구하는 지역학인 데 비하여 하곡학은 양명학과 주자학을 종합하여 새로운 체계를 세운 철학사상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강화양명학이라고 부르는 것은 하곡학을 중국 양명학에 예속시켜 그 독립성을 훼손한다. 중국에는 지역에 따라 양명후학이 발전하여 여요, 귀주, 강우, 절동양명학 등이 있는데 만일 강화양명학이라고 한다면 중국 지역의 한 분파로 오인되어 한국 철학의 독자성을 무너트릴 위험이 있다."고 하였다.-정인재, 2014 『양명학의 정신』, 세창출판사, 26쪽 참조

39) 선생은 휘는 제두요, 자는 사앙이고, 성은 정씨이며 영일인인데, 고려 때 추밀지주사 습명을 시조로 하였다. 포은 선생, 휘 몽주에 이르러서 비로소 크게 나타났으니 벼슬은 시중이었으며 이름은 일월(日月)과 빛을 다투었다. 아조(我朝)에 들어와서는 휘 종성이 이조참의였고 증조, 휘 근은 승문박사에, 증직(贈職)은 영의정이었으며 조, 휘 유성은 우의정에, 시호는 충정공(忠貞公)이었다. 고(考) 휘 상징은 진사인데 증직이 좌찬성이었고, 비는 한산 이씨로, 정경부인에 추증되었는데 호조 판서 호암(浩庵), 휘 기조(基祚)의 따님이었다. 선생은 인조(仁祖) 27년 기축(己丑)에 태어났다. 다섯 살 되던 해에 아버지를 여의고 조부인 충정공에게서 국양(鞠養)되어 자라났다. 어려서부터 어른들의 가르침에 조금도 뜻을 어기거나 거스른 적이 없었으니 백부 찬성공은 항상 기특히 여기고 이르기를 "오! 어린애가 이와 같음이 있겠는가!"라고 하였던 것이다. 일찍이 조부인 충정공을 곁에서 모시고 있을 때에, 마침 진귀한 완구(玩具)가 있자 충정공이 시험삼아 그것을 가지고 놀게 하였으나 그는 가지고 놀다가 곧 제자리에다 도로 갖다 놓고 물러나가니 충정공은 탄식하며 이르기를, "세상에 재물 얻기를 탐내는 이들 중에는 이 아이를 부끄러워할 자가 많을 것이라."고 하였다. 바깥 스승에게 나아갈 나이[就外傅]가 되자 이 교관(李敎官) 상익(商翼)에게 종학(從學)하였는데 이때에, 동춘(同春) 송선생이 서울에 들르는 길에 묻기를, "이군(李君)이 가르치는 아이(童蒙) 중에서 재수가 영특한 애가 있는가?" 하자, 이상익은 선생을 가리켜 대답하고는 또 말하기를, "상익으로서는 그의 스승이 되기에 부족합니다." 하였던 것이다.(先生諱齊斗字士仰姓鄭氏 迎日人也 以高麗樞密知奏事襲明爲始祖 至圃隱先生諱夢周始大 位侍中 名與日月爭光 入我朝有諱宗誠吏曹參議 曾祖諱謹 承文博士贈領議政 祖諱維城 右議政忠貞公 考諱尙徵 進士贈左贊成 妣韓山李氏 贈貞敬夫人 戶曹判書浩庵諱基祚之女 先生以仁祖二十七年己丑生 五歲而孤 被養於大父忠貞公 自在孩提 於長者之敎無少違忤 伯父贊成公常奇之曰 小兒乃有如此者耶 嘗侍忠貞公側 適有玩好物 試令取之 旣取遽又還置故處而退 忠貞公歎曰世之貪得者 有愧此兒多矣 及就外傅 從學於李敎官商翼 時同春堂宋先生入京 問李君童蒙中有穎異者 李以先生對 且曰商翼不足爲其師)-『하곡집(霞谷集)』, 행장(行狀), 심육(沈錥)

로 꽉 차 있으니 또 무슨 책을 볼 것이 있겠는가?"[40]라고 까지 할 정도였다.

그림4. 정제두 묘(인천광역시 강화군 양도면 하일리 산62-6)

32세 때(1680, 숙종 6년) 영의정 김수항(金壽恒)이 경명행수(經明行修)로 천거하여 사포서별제(司圃署別提)가 되었으나 나가지 않았다. 이 해에 기허(氣虛)한 병을 얻었다. 34세에 갑자기 병이 심해져 여러 번 생명이 위태롭게 되자, 일신(一身)의 뒷일을 아우 광주군(廣州君) 정제태(鄭濟泰)에게 맡겼다. 또한, 「의상박남계서(擬上朴南溪書)」를 짓고 "자못 천리가 즉 성이라고 여기는데 인의예지가 이것입니다. 심성의 근본적인 종지는 아마도 왕문성(왕양명)의 학설을 바꿀 수 없을 것입니다."[41]라며 양명학을 신봉하는 입장을 강하게 밝혔다. 40세 때인 1688년(숙종 14년)에 평택현감(平澤縣監)에 제수되었다.

41세 때(1689, 숙종 15년)에는 안산 추곡(현 시흥시 화정동 가래울)으로 이주하였다. 이 시기 스승 박세채, 윤증을 비롯하여 최석정 · 민이승(閔以升) · 박심(朴鐔) 등과 편지를 주고받으며 토론과 논쟁을 하였으며, 『학변(學辨)』과 『존언(存言)』이 저술되었다. 이후 서연관, 경기도사, 삭녕군수, 종부시주부, 장령, 집의에 제수되었으나 계속 사직하였다. 61세 때(1709, 숙종 35년)에 강화 하곡으로 들어가 은둔하였다. 이후 호조참의, 강원감사에 제수되었으나 사직하였다. 『심경집의(心經集義)』, 『정문유훈(程門遺訓)』을 연이어 저술하였다. 71세 때(1719, 숙종 45년)에 한성 좌윤에 제수되었으나 역시 사직하였다. 『중용설(中庸說)』, 『경학집요(經學集要)』를 저술하였으며, 세자이사(世子貳師)로 양명학을 한다는 이유로 이정박(李廷樸, 1689-?)의 탄핵을 받았다. 80세(1728,영조 4년)에 자헌대부에 오르고 이어서 우참찬, 대사헌, 지중추부사, 우찬성에 제수되었다. 『집경서(集經書)』를 저술하고, 88세(1736, 영조 12년)로 별세하였다.[42]

2. 영일 정씨 세장지(世葬地)와 안산 추곡(楸谷) 거주

정제두는 41세부터 안산(安山)에서 거주했는데, 현재 시흥시 화정동(花井洞) 가래울(楸谷)이다. 추곡은 가래울의 한자식 명칭으로 조선시대 안산군에 속했다. 이곳은 한국사상사에서 양명

40) 少陵崔相公每見之歎曰某公皮裏自有百家諸書 何須較閱編簡耶-『하곡집』, 「연보」 현종 13년 임자
41) 窃以爲天理卽性也 仁義禮智是也 心性之旨 王文成說恐不可易也-『하곡집』 권1 書1, 「擬上朴南溪書」
42) 심우일, 2015 「안산 거주시기 하곡 정제두의 삶과 학문」, 『제3차 시흥지역문화세미나』, 시흥문화원, 17-18쪽 참조

학을 집대성하여 후학을 양성하였던 정제두가 41세에 이주하여 60세까지 학문에 매진하였던 곳이다. 특히 정제두는 이곳에서 한국양명학의 중요한 저술인 『학변』과 『존언』을 집필하고, 스승 박세채에게 자신이 양명학을 성학(聖學)으로서 위기지학(爲己之學)한다고 밝혔던 역사적인 곳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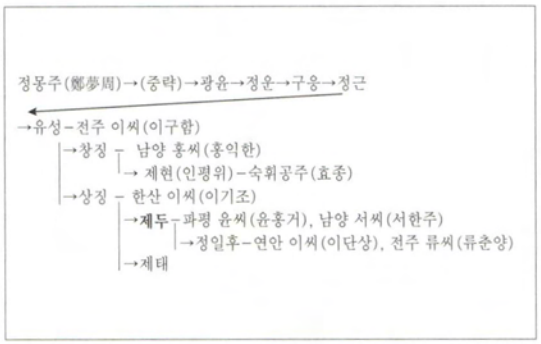


그림5. 정제두 가계도

가래울은 화정동 고주물과 능곡동 능골 사이에 위치해 있다. 이곳은 고주물과 능곡동을 왕래하는 분기점이 되는 마을이다. 가래울 남쪽 지역을 웃말, 동북쪽 지역은 외딴말, 서쪽 지역을 양지말, 외딴말 북쪽 지역을 아랫말, 아랫말 서쪽 지역은 양지말, 동북쪽 지역은 외딴말이라 각각 부른다.[43]

정제두의 후손인 정한일[44]에 따르면 가래울은 정몽주(鄭夢周, 1337-1392)의 5대손인 정광윤(鄭光胤 1483-1524)의 사패지로서 영일 정씨 지주사공파(知奏事公派), 포은공파(圃隱公派)의 400년 세거지다. 따라서 이곳에는 정제두의 6대조이자 입향조 정광윤과 충주 정씨의 묘[45], 5대조 정운(鄭運), 고조 정구웅(鄭龜應), 증종조 정설(鄭說), 증조모 창원 황씨(昌原黃氏)의 묘가 화정동 산 90-4번지 및 그 일대에 위치한다.

1) 영일 정씨 세장지 추곡(楸谷)

정제두의 선대 묘역의 현황[46] 은 다음 표1.과 같다.

---

43) 조선시대에 안산군 인화면의 화정리(花井里)와 광곡리(廣谷里)였다가, 1912년 2월 5일 조선총독부 경기도 고시 제7호로 안산군 내 동리의 구역과 명칭을 변경할 때, 화정리로 합쳐졌다. 그 뒤 조선총독부령 제111호에 따라 1914년 3월 1일을 기해 안산군을 시흥군과 수원군으로 분리할 때, 시흥군에 속하고 같은 해 3월 13일 조선총독부 경기도령 제3호에 따라 옛 안산군의 군내면, 인화면, 초산면을 합쳐 수암면을 설치함으로써 시흥군 수암면에 속하였다. 그 뒤 1988년 12월 31일 제정된 법률 4050호에 따라 1989년 1월 1일자로 시흥군을 폐지하고, 소래읍, 수암면, 군자면을 합쳐 시흥시로 승격하자 시흥시 화정동이 되었다가 1995년 4월 20일 대통령령 제14629호로 제정된 '시군자치구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규정'에 따라 대부분의 지역은 안산시로 편입되고 화정동의 일부만이 시흥시 화정동으로 남게 되었다. 그러므로 행정구역명은 시흥시 화정동 가래울 마을이다. 2011년 12월말 현재 면적은 516,875km²이다. 인구는 2015년 10월 현재 전체 92명으로 남자가 49명, 여자가 43명이며, 43세대이다. 조선 정조 13년(1789)에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호구총수』에는 '화정리'지명이 없다. 1911년 경에 나온 『조선지지자료』의 안산군 인화면조에는 화정리를 '곶쥬물'로 부른다고 기록했다.-시흥문화원, 2006 『始興市地名由來』 230쪽, 2015 「시흥시 통계자료」, 2011 「지적통계」 참조

44) 1942년생으로 가래울 태생이다. 본적은 화정동 650번지. 지주사공파, 포은공파 32대손이다.

45) 有明朝鮮藝文館檢閱鄭公諱光胤 字胤仲 迎日人.(중략)… 葬安山楸谷癸坐原-『하곡집』, 권6, 「검열공묘표(檢閱公墓表)」

46) 정제두 유허와 관련하여 기전문화재연구원이 2000년에 펴낸 「시흥시의 역사와 문화유적」을 참조하여 2015년에 1차(10.29)로 정광윤, 정설, 창원 황씨 묘를 조사하였다. 이어 2(11.12), 3(11.18), 4(11.19), 5차(11.20)에 걸쳐 이들 묘와 보고서에 확인되지 않은 가래울 안쪽 정제두 유허지(추정)를 조사하였고, 5(2016.03.15), 6차(4.19)에 걸쳐

표1. 영일 정씨 세장지 일람표

순번	유적명	소재지	시설물	관계
1	정광윤(鄭光胤) 묘	화정동 산90-4	묘표2기, 상석, 향로석, 문인석2기	6대조
2	정설(鄭說) 묘	화정동 산90-4	묘표, 상석, 문인석2기	증종조
3	창원황씨(昌原黃氏) 묘	화정동 산90-4	묘표, 상석,향로석, 문인석2기(동자석 2기 도난)	증조모
4	정운(鄭雲) 묘	화정동 산90-19	묘표, 상석, 망주석2기, 문인석2기	5대조
5	정구응(鄭龜應) 묘	화정동 산90-23	묘표, 상석, 향로석, 동자석2기	고조

정광윤은 중종대의 문신으로 사용(司勇)을 지낸 완(鄭浣)의 아들이다. 진사와 문과에 급제한 뒤, 종7품 계공랑(啓功郞)의 품계에 오르고 예문관(藝文館) 검열(檢閱)을 역임하였다. 정광윤의 묘소는 능곡동 우남퍼스트빌 1차 맞은편 북측 능선에 자리 잡고 있다. 바로 아래로 정설 묘가 있고 그 서편 아래에 창원 황씨 묘가 위치한다.

묘역에는 상석, 향로석, 문인석의 옛 석물이 구비되어 있는데 문인석(높이 157cm)이 쓰고 있는 복두(幞頭)의 윗부분이 모두 훼손된 상태이다. 봉분의 앞쪽에는 '가정4년(嘉靖4年, 1525, 중종 20) 2월 일'에 조성한 방부하엽 양식의 묘표(총 높이 110cm)가 세워져 있고, 좌측에는 '황명숭정후 92년(皇明崇禎後92年, 1736, 영조 12)'에 중건(重建)한 묘표(총 높이 136cm)가 건립되어 있다. 묘표는 방질원수(方趺圓首) 양식에 대리석의 비신(높이 104cm)을 갖추고 있는데, 앞면에는 '계공랑 예문관검열겸춘추관기사관정광윤묘 안인광주정씨부좌(啓功郞芸文館檢閱兼春秋館記事官鄭光胤墓 安人光州鄭氏附左)'라고 왕희지체의 단정한 해서(楷書)로 써 놓았다. 뒷면의 음기는 6대손 제두가 식(識)하였다. 그러나 표제와 서자는 따로 기록하지 않았다.[47]

정설은 선조대의 인물로 자는 학인(學而)이며 정광윤의 손자이자 참봉 정구응(參奉 鄭龜應)의 아들이다. 어려서부터 천성이 맑고 부모에 효도하며, 형제간의 우애가 깊었으나 일찍 요절하였다. 묘역은 상석과 문인석(높이 141cm)의 옛 석물로만 단촐하게 꾸며져 있으며, 봉분 앞에는 방질원수 양식의 묘표(높이 173cm)가 건립되어 있다. 백대리석의 비신(높이 137cm)과 방질은 박락(剝落)이 심하다. 비신의 전면 중앙에 한 줄로 '학생정설지묘(學生鄭說之墓)'라고 써 놓았으며 뒷면에는 음기를 각자하였다. 표제를 '유명조선국학생정공묘표(有名朝鮮國學生鄭公墓表)'라고 하여 비석의 종류가 묘표임을 밝히고 있다. 통정대부승정원 부승지겸 경연참찬관춘추관수찬관 기령(通

새로이 정운과 정구응의 묘를 조사하였다.

47) 기전문화재연구원, 2000「시흥시의 역사와 문화유적」, 시흥시, 375-376쪽 참조

政大夫承政院副承旨兼經筵參贊官春秋館修撰官奇𡍮)이 찬한 묘표음기를 종사랑문관검열겸춘추관기사관김상용(從仕郎文館檢閱兼春秋館記事官金尙容(1561-1637)이 중해로 서하였다.

김상용은 이양빙체 전서(李陽氷體 椽書)에 매우 능하여 당대 제일의 연서가로 알려진 인물이다. 그동안 다수의 연액이 확인되었으나 해서로 된 작품의 발견은 이번이 처음이다. 따라서 정설묘표는 김상용의 필체 연구는 물론, 조선 중기 서예사 연구의 귀중한 자료이다.[48]

그림6. 창원 황씨 묘
(비문 오른쪽 아래 '추곡(楸谷)' 이라고 쓰여있다.)

창원 황씨(1576-1635)는 승문원박사(承文院博士) 정근(鄭謹)의 두 번째 부인으로 황치경(黃致敬, 1554-1627)의 딸이다. 창원 황씨의 아들 정유성(鄭維城, 1596-1664)은 현종대 우의정을 역임하였다. 창원 황씨 묘소는 혼유석, 상석, 향로석, 동자석(높이 76cm), 문인석(높이 163cm)의 옛 석물이 갖추어져 있는데, 금관조복(金冠朝服)을 착용하고 몸집이 각진 것이 특징이다.

묘역의 좌측에는 방부원수 양식의 묘표(총높이 151cm)가 서있다. 백대리석의 비신(높이 128cm) 전면에는 '증정경부인황원황씨지묘(贈貞敬夫人昌原黃氏之墓)'라고 써 놓았으며, 뒷면의 음기는 증손 제두가 경직하여 숭정후갑자(崇禎後甲子, 1684, 숙종10) 8月 日'에 입석하였다. 음기의 표제(表題)는 따로 마련하지 않았으며 서자(書者)는 미상이다. 상석의 앞면에 각자된 '증정경부인창원황씨묘우의정충정공휘유성지비(贈貞敬夫人昌原黃氏墓右議政忠貞公諱維城之妣)'라는 기사는 확인되나 좌우면에 새겨진 글씨는 매몰되어 파악할 수 없는 실정이다.[49]

그리고 묘표 뒷면에는 '안산군마하산서추곡좌(安山郡磨河山西楸谷좌)'라고 음기된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 바로 이곳이 '추곡'이라고 정확히 밝히고 있다. 2015년 조사에서 창원황씨 묘 앞에 있던 동자석은 유실되어 그 자리만 패여 있다. 큰길에서 불가 2~30m 거리에 있어 2년 전에

48) 앞의 책, 376-377쪽
49) 앞의 책, 377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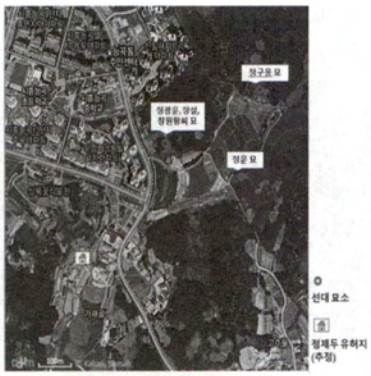


그림7. 추곡 정제두 유허 위치도

도난 된 것으로 보고 있다. 더욱이 10여 년 전에는 봉분 절반이 파헤쳐졌고, 관이 보이는 등, 도굴도 되었다고 한다.(정한일)

정운(1491-1521)은 정제두의 5대조이다. 아버지는 정광윤, 어머니는 광주 정씨이다. 할아버지는 감찰 정인창(鄭仁昌)이며 비는 정부인(貞夫人) 파평 윤씨, 아들은 정구응이다. 묘 정면(서쪽)으로 군자봉이 보인다. 비석(높이 104cm, 너비 38cm)은 방질원수의 형태이고, 앞면에 '여절교위 증자헌대부 이조판서 겸지의금부사오위도총관정운묘(勵節校尉 贈資憲大夫吏曹判書 兼知義禁府事五衛都摠管鄭雲墓)'라고 음기되었다. 뒷면에도 음기 되어 있으나 이끼 등으로 매몰되어 판독이 어렵다. 망주석 2기(높이 129cm, 너비 32cm)와 문인석 2기(우측 110cm, 37cm)가 있고, 복두공복이다. 좌측의 문인석(높이 114cm, 너비 38cm)의 복두의 윗부분 끝이 사선으로 파손되었다. 상석(높이134cm, 너비 80cm) 전면에 음기가 되어 있으나 마멸로 판독이 어렵다.[50]

정구응은 정제두의 고조이다. 묘 앞에는 방질원수 형태의 비석(높이 101.5cm, 너비 45.5cm)이 있고 전면에 음각으로 '장사랑 사직서참봉정구응지묘(將仕郎 社稷署參奉鄭龜應之墓)'라고 되어 있다. 백대리석의 비신과 방질은 박락이 심한 상태로 뒷면의 음기는 판독이 어렵다. 묘표 이외 석물로는 상석(높이 10cm, 너비78.5cm)이 있고 전면과 우면 음각이 있는데 글씨가 매몰되어 파악할 수 없는 실정이다. 그밖에 향로석(높이 29cm, 너비 19.5cm)의 우측이 파손되었고 좌우 한쌍으로 망주석 (높이 128cm, 너비 34cm)이 서있다. 그 앞에 석인으로 쌍머리를 한 동자석(무인석, 높이 72cm, 너비 27cm)이 좌우에 있고 좌측의 동자석은 손에 든 홀의 상부가 파손되었다.

2. 정제두의 추곡(楸谷) 거주와 생활

정제두가 추곡(楸谷)에 정착하게 되는 결정적인 사건은 기사환국(己巳換局)이다. 환국 전해인 1688년(숙종 14)에 40세 이르러 재신(宰臣)들이 연거푸 정제두를 천거한 끝에 겨울에 평택현감을 제수 받자[51] 1689년(숙종 15)년 봄에 부임 한다. 하지만 얼마 안 되어 기사환국으로 사상적 스승인 서인(西人)의 우계 성혼(牛溪 成渾)과 율곡 이이(栗谷 李珥)가 남인(南人)들에 의해서 문묘(文

50) 지난 신해년에 세운 비석이 깨져서 정제두 등이 다시 비석을 세우고 비석의 글을 새겼다. 우리 임금 경종 12년(1736) 3월이며, 명나라 마지막 황제 숭정 이후 92년이다.(舊有辛亥所立石頑缺 齊斗等改立石 識其陰 時我主上十二年丙辰三月日 皇明崇禎後九十二年-「증판서공묘표(贈判書公墓表)」

51) 四月吏曹判書呂公聖齊戶曹判書柳公尙運 薦先生于朝… 十二月丙寅 除平澤縣監-『하곡집』 권10, 「연보」 숙종 14년 무진

廟)에서 출향(黜享)되자 정제두는 평택현감을 버린다. 이후 조정에서는 천리(擅離 : 멋대로 직책을 떠남)하였다는 죄목으로 문초를 가하고 면직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한양을 떠나 안산(安山) 추곡에 집을 짓고 살기 시작한다.[52]

그림8. 가래울 정제두 유허지(추정)

정제두가 살았던 곳은 마을 안의 마을비가 서있는 맞은편 서쪽 언덕에 집들이 위치하고 있는데, 그 중턱에 집자리[53]가 위치한다. 41세(1689) 때, 이경익(李景益)에게 답하는 편지글에서 "겨울부터 봄까지 이사(吏事)의 일을 수행하는데 분주히 하였고, 계속해서 병이 심해져 안산으로 돌아왔습니다."[54]라고 하여 추곡에 들어온 이유가 기사환국이라는 정치적인 이유도 있지만 그의질병도 한 몫 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 그의 생활 모습은 44세(1692) 때, 윤증에게 답하는 편지글에서 "제두(齊斗)는 산 밑에서 대문을 닫고 노친을 모시며 겨우 지냅니다. 그밖에 보잘 것 없는 생활은 족히 알려 드릴 것도 못 됩니다."[55]라고 두문불출하던 생활을 밝히고 있다.

추곡은 선대 묘소는 물론, 아버지와, 첫 번째 부인인 파평 윤씨(부 윤홍거)의 초장지였다. 따라서 추곡은 정제두가 한양에 살면서도 자주 들리던 곳이다. 후에 두 번째 부인인 남양 서씨(부 서한주)도 추곡에 권조(임시 장사)하였다가 천안으로 이장하였다. 이렇듯 추곡은 영일 정씨의 세장지로서 정제두 생전에도 영위되면서 여러 차례 집안의 장지(葬地)로 초장(初葬)과 이장(移葬)이 거듭되었다. 이러한 추곡은 정제두가 강화로 옮겨간 이후에도 자주 찾았다.[56]

---

52) 二月赴任 時以母夫人命 入都謝恩仍赴任 四月棄官歸對吏 時李文成 成文簡二先生黜文廟從享 先生不樂居官 棄歸安山楸谷 按使以擅離聞就吏 七月宥歸安山居焉 因築室於楸谷而居焉-『하곡집』 권10, 「연보」 숙종 15년 기사

53) 정제두 유허지 추정 : 시흥시 능곡로 75번길 14(678번지)

54) 自冬徂春 奔走於行役吏事 繼以病劇歸山 -『하곡집』 권3, 서5, 「답이경익서정겸(答李景益書廷謙」 기사

55) 某閉守山下 粗保奉老 自餘荒陋之狀-『하곡집』 권1, 서1, 「답윤명재서(答尹明齋書)」 임신

56) 추곡 관련 정제두 행력(『하곡집』, 「연보」 참조)
효종대왕(孝宗大王) 원년(元年, 1650) 경인4년 계사 선생 5세 9월에 황고(皇考)가 서거(逝去)하였다. 안산(安山) 추곡(楸谷)에 장사하였다.(四年 癸巳 先生五歲 九月皇考卒 葬安山楸谷) 현종대왕(顯宗大王) 원년(元年, 1660) 경자 12년 신해 선생 23세 11월 정사(5일)에 부인 윤씨가 졸거하였다. 안산(安山) 추곡(楸谷)에 장사하였다.(十二年 辛亥 先生二十三歲 十一月丁巳夫人尹氏卒 葬安山楸谷)
경종대왕(景宗大王) 원년(元年, 1721) 신축 8월 기미(1일)에 윤 부인을 천안군(天安郡)으로 옮겨 장사하였다. 그전 묘소(墓所) 가까이에 개장하였다.(景宗大王元年 辛丑 先生七十三歲 八月己未 改葬尹夫人于天安郡 就舊塋近地改葬) / 17년(1691) 신미 43세 윤 부인의 묘를 천안(天安)으로 옮겨 장사하였다.(十七年 辛未 先生四十三歲 改葬尹夫人於天安郡北富土里 月佚)
영종대왕(英宗大王) 원년(元年, 1725년) 을사 4년 무신 9월 신미(24일)에 안산(安山)에 가서 선조묘소[先墓]에 성묘하였다. 길을 돌려서 과천(果川)으로 향하여 외조부[外王考] 호암(浩庵 이름은 이기조) 이공(李公)의 산소에 성묘(省墓)하였다.(九月辛未 往安山省先墓 轉向果川 省外王考浩庵李公墓)

3. '추곡(楸谷)' 호(號)의 사용

정제두의 호는 '하곡'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데, 이는 안산 생활을 접고 강화로 이주하여 거처했던 마을에서 유래한 것이다.[57] 따라서 하곡은 강화시절의 호였다. 안산시기 주목할 것은 바로 정제두의 호가 '추곡'으로 불리고 있었다는 것이다.

> 추곡(楸谷)의 학문에서 만약 범위의 넓은 곳을 가지고 논한다면 혹 옛사람에게는 조금은 손색이 있으나 밝게 나아가고 스스로 얻으려던(自得) 지취(旨趣)에서는 이 세상에서 뒤따라갈 이가 거의 없을 것이라.[58]

정제두와 교분이 두터웠던 친구 민이승(閔以升, 1649-1698)이 정제두를 '추곡'으로 부르고 있다. 민이승은 안산시기에 양명학에 심취해 있던 정제두를 바로 잡으려 한 인물이다. 민이승은 정제두가 추곡에 살 때 별세하였는데, 제문을 지어 추모하였다.[59]

안산시기에 정제두가 '추곡'으로 불렸던 흔적은 많이 보인다. 정제두가 안산으로 내려가자 그 근처로 이사했던 박심(朴鐔, 1652-1707)[60]은 「묘지명」에서 정제두를 '추곡'으로 적고 있다.

7년 신해 2월 계축(20일)에 안산(安山)에 갔다. 추곡(楸谷)에 있는 증조비(曾祖妣)의 묘가 지세(地勢)가 기울어져서 곧 무너질까 염려되어 다른 곳으로 이장(移葬)하려 하였는데, 종손(宗孫)이 병이 나서 일을 잘 주장할 수 없는지라 선생이 몸소 가서 경기(經紀 잘 다스리는 것)하였다.(七年 辛亥 先生八十三歲 二月癸丑往安山 楸谷曾祖妣墓地勢傾反慮日後崩毁 爲營遷奉 而宗孫病不能主事 先生躬往經紀)

57) 상도면(上道面) 187. 하일동(霞逸洞) 하현(霞峴)의 서남쪽은 골짝마다 그윽한데(霞峴西南谷谷幽), 재상이 예로부터 이 산중에 머물고 있네(山中宰相古今留). 두 정승(정제두, 최규서)의 집터와 세 정승의 무덤(정유성, 정제두, 권개)이 있어(二公宅址三公墓), 이곳을 강화도의 '제일구(第一區)'이라고 부른다네(云是江州第一區). 상도면(上道面)은 강화부 관아 남쪽 35리에 있다. 도촌 정유성(陶村 鄭維城)은 묘는 하일리(霞逸里)의 서쪽 산기슭에 있다. 정제두는 도촌의 손자이다. 집터가 여기에 있는데 유일(遺逸)로 천거되어 여러 번 조정에서 불렀지만 나아가지 않았다. 고향에 은거하면서 도학을 온전히 갖추었으며 오조를 거쳐 국태로(國太老)의 학자라고 하였다. 또 하곡 선생이라고 불리었으며, 원자보양관(元子輔養官)의 명을 받들어 지위가 숭록대부 우찬성 겸 성균좨주(崇祿大夫 右贊成 兼成均祭酒)에까지 올랐고, 죽어서는 문강(文康)이라는 시호를 받았다. 거처하는 초가집은 비바람을 막지 못하여서 유수 민진원(閔鎭遠)이 평소에 선생을 공경하였기 때문에 집을 지어주었다. 묘는 하현의 동쪽 기슭에 있다. 지금 그 손자인 참판(參判)을 지낸 정원하(鄭元夏)가 와서 살고 있다.-고재형, 역자 김형우·강신엽, 2008『역주 심도기행』, 인천학연구원·도서출판 아진, 213-214쪽 참조

58) 楸谷之學 若論廣闊處 或少遜古人 而明造自得之趣 當世無幾及之者-『하곡집』, 「연보」, 숙종 22년 병자

59) 그대가 장차 사천(沙川) 산기슭으로 영원히 돌아가려 하니,친구들과 함께 모여 영원한 길을 결별합니다. 뜻을 같이 했던 감동과 더불어 놀던 정은 또 어찌 다시 한탄하겠소마는 유독 내 홀로 여기서 사사로운 한이 되는 것은 우리 도학(道學)을 위하여 애통하는 것이며, 그 나머지는 또한 무엇을 말하리까? 아! 애통합니다. 흠향하소서!(沙川之麓 子將永歸 友朋共集 以訣長終 同志之感 並遊之情 又復何恨 而獨我所以私恨於斯者 以爲吾道慟 餘復何言 嗚呼哀哉尙饗)-『하곡집』, 「민성재제문(祭閔誠齋文)」

60) 본관은 고령(高靈). 자는 대숙(大叔), 호는 지포(芝浦). 부친은 대사헌 박장원(朴長遠)이다. 학행(學行)으로 일컬어졌고 천거(薦擧)로 서연(書筵)에 뽑혔으나 나가지 않았다. 만년에 영천군수(榮川郡守)를 지냈다. 어려서는 가정에서 배우고 장성해서는 또 박세채의 문하(門下)에 종유(從遊)하였다. 또한, 동생 박진(朴鎭)과 함께 윤증에게 수학하였다. 천관으로 자의(諮議)를 지냈는데 선생이 추곡에 거주하자 박공도 또한 지포에 와서 살았다. 지포는 같은

1678년(숙종 4) 27세, 아우 박진(朴鎭)과 함께 윤증(당시 50세)을 종유(從遊)하였다.(중략)… 성재(誠齋) 민이승, 양와 이세귀(養窩 李世龜), 창계 임영(滄溪 林泳), 추곡 정제두(楸谷 鄭齊斗)와 교유하여 학문을 강론하였다. 항시 "안국이민(安國利民)하려면 신명(身命)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고 하였다."[61]

1678년 내용이지만 박심이 1707년 죽어 정제두가 추곡에 살 때 기록이다. 이 시기에 정제두가 '추곡'으로 불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밖에도 정제두의 제자인 이광신의 동문 김택수가 지은 제문(祭文)[62]에도 정제두를 '추곡'이라고 하고 있다. 이처럼 하곡으로 널리 알려진 정제두지만, 강화 이전 안산시기에 '추곡'으로 불러진 것이 확실하므로 앞으로 그의 호인 '추곡'도 '하곡'과 더불어 병용되어야 할 것이다.

추곡에 살며, '추곡선생'으로 불린 정제두가 추곡을 떠나 강화로 옮긴 것은 강화도 역시 선조들의 터전이었기 때문이다. 특히, 이곳은 일찍 여읜 아버지를 대신하여 길러주신 할아버지 정유성의 고향[63]이었다. 추곡에 묻힌 창원 황씨는 정유성의 어머니고, 이 창원 황씨가는 강화에 유력한 집안이었다. 또한 정유성은 강화의 명문가 안동 권씨 권철(權轍, 1503-1578, 4남 권율 장군)가와도 연결되었다.(3남 권개의 사위 정구웅) 그런 연유로 정유성은 자신의 묘를 강화에 써줄 것을 당부하였고, 정제두는 추곡의 아버지 묘를 강화로 이장하고 그 곁에 할아버지를 모셨다. 따라서 61세에 장손이 요사하는 변을 당하자 이곳 선묘(先墓) 가까운 곳에 살고자 추곡을 떠나 하일리로 옮긴 것이다.

고을 땅이다. 자주 강회(講會)가 있어 우의(友誼)가 심히 돈독하였다. 묘소는 충남 보령시 미산면에 있다. 상석에 '조선국 영천 군수 박공심지묘'라고 적혀 있다. 박심은 암행어사로 백성들의 억울함을 풀어준 박문수(朴文秀, 1691-1756)의 종조부이다. 홍천현감(47세)과 영천군수(54세)를 지내며 배곯는 주민이 없도록 전력을 다했다고 전해진다.-2013년 12월 9일「박문수 종조부 박심은 조선 양명학의 대가-노승석 여해고전연구소장 밝혀-」,『동아일보』기사. http://news.donga.com/3/all/20131208/59418023/1

61) 노승석, 2014「지포 박심에 대한 일고찰 연구」,『양명학』 39호, 111-112쪽 : 『西堂私載』 권9, 「芝蒲朴公-鐫-墓誌銘」, 서울대규장각

62) 이광신의 동문 김택수(金澤秀)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의 호와 자가 무엇인지 알 수가 없고, 그 관향이 어디인지도 알 수 없다. 정제두가 죽은 뒤 쓴 제문(중략)… 앞에서 양명께서, 뒤에서는 선생께서 일체의 등불이 되어서 더욱 빛나고 더욱 밝히시더니, 슬프도다. 그 빛이 이제 꺼져 버렸으니 누가 다시 이 빛을 이을 것인가! 그 빛 "추곡의 눈 속에서 다행히 춘풍을 만나 괴로워서 하지 못하던 말을 밝혀주시니, 갑자기 나를 덮고 있던 의심이 벗겨진 듯하였다."-정인보,역자 홍원식, 2004『양명학 연론』, 계명대학교출판부, 158-159쪽

63) 독정촌(獨政村) "한 골짜기 돌아들어 그윽한 독정촌엔 정유성 공 가신 뒤에 그 누가 대를 삼았나백발의 조옹이 흔쾌히 나를 맞아 놀러오는 사람 왕래가 드물다고 말해주네(獨政村幽一谷回 鄭公去後孰爲臺 趙翁白髮欣迎我 云是遊人少往來)" 영일이 본관인 포은의 후손 정유성은 강정공(康定公) 권철(權轍)의 외예(外裔)였다. 유복자로 연동(烟洞) 독정촌에서 태어났는데, 감사 황치경의 외손자였으므로 일찍이 연미정(鷰尾亭)으로 와서 살았다. 정묘년(1627년)에 강화의 과거에서 이종사촌 윤계(尹棨)와 함께 합격해서 우의정까지 지냈다. 시호는 충정(忠貞)이다. -고재형, 역자 김형우 · 강신엽, 2008『역주 심도기행』, 인천학연구원 · 도서출판 아진, 27-28쪽

3. 추곡(楸谷)시기의 교우관계(交友關係)

정제두가 안팎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양명학을 연구할 수 있었던 것은 그를 둘러싼 가까운 사람들의 분위기가 큰 도움이 되었다. 첫 부인의 당숙 윤선거는 송시열과 대립한 박세당의 둘째 형의 장인이었고, 사문난적(斯文亂賊)으로 죽은 윤휴의 친구였다. 자신은 최명길의 형 내길(來吉)의 외손주 사위이자, 최명길의 손자인 석정이 친구였다. 그밖에 그가 가깝게 가르침을 받은 사람은 첫 부인의 6촌으로 당시 송시열과 대립하던 윤증, 박세채이다. 이 밖에 벗이었던 민이승, 박심 등과도 편지를 통한 교류가 많았다. 물론 그들은 모두 정제두가 양명학을 하는 것을 반대하였다. 박세채는 그런 뜻을 담아서 『양명학학변(陽明學學辨)』을 지었다.[64] 그러나 그들과의 서신을 통한 교류가 오히려 정제두의 학문을 발전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왜냐하면 그들의 의견을 반박하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보낸 편지글에 보이듯이, 양명의 글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아울러 그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논리적으로 개진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자신을 아껴주면서도 반대의사를 개진하는 그들과의 치열한 토론을 통해 발전해간 것이므로, 정제두의 학문은 거의 독자적으로 성취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65]

이와 같은 정제두의 교우관계에서 시흥시, 즉 당시 안산의 존망이 높던 이들과의 교유(交遊)를 빼놓을 수 없다. 특히 이글에서 주목한 장유도 정제두와 관련이 깊다. 바로 그의 부인인 영가부부인 김씨가 김상용의 딸인데, 김상용은 권개의 사위로 정제두의 고조부인 정구응과 동서지간이다. 그리고 장유의 절친한 최명길의 손자가 그의 친우였다.

또한 스승 박세채는 시흥시에 묘가 있는 박동량의 손자이다. 박동량은 장유의 장인인 김상용의 아우 김상헌과 매우 친하였다. 더욱이 백부 박미는 장유와 매우 가깝게 사귀었으며, 장유가 있는 안산을 자주 찾았다. 박세채 역시 차자였던 부친 박의(朴猗)을 따라 조부의 묘소가 있는 안산을 자주 들렀을 것이다. 그리고 박세채는 정제두와 친분이 있는 송시열의 손자 순석(淳錫)의 장인이기도 했다.

박세채와 함께 당대 소론(少論)을 이끌며, 안산의 저명한 인사는 숙종의 총애를 받던 동산 윤지완(東山 尹趾完, 1635-1718)이다. 안산의 명문가로 성혼을 사사(師事)한 윤민헌(尹民獻, 1562-1628)의 손자이자, 이조판서 윤강(尹絳, 1597-1667)의 아들이다. 특히 형 윤지선(尹趾善, 1627-

64) 양명을 배척하여 이단(異端)이라 하고 선생을 헐뜯어 이학자(異學者)라고 하는 것은 더불어 논할 수 없음은 물론이었다. 그리하여 선배나 어른들 중에 명재, 남계, 명곡, 성재와 같은 여러 선생들도 대체로 일찍이 이를 걱정하였는데 역시 생각해 보건대 양명학에 빠질까를 두려워하여 깊이 생각하는 것이 깊지 못하였고 그 걱정하는 것이 지나쳤던 것이다.(斥陽明爲異端 譏先生爲異學者 固不可與議而先輩長者如明齋, 南溪, 明谷, 誠齋諸先生蓋嘗憂之 而亦恐於陽明考之不深 而其憂之也過矣)-『하곡집』, 「문인어록(門人語錄)」

65) 김교빈, 1995 『양명학자 정제두의 철학사상』, 도서출판 한길사, 20-21쪽

1704)과 함께 형제 정승(政丞)으로 유명하였다. 특히 시흥의 인물로 수암면 3.1운동의 주역, 윤동욱이 그의 직계후손이다.[66]

> 아무개가 이마를 땅에 닿게 재배하고 말씀드립니다. 삼가 대배(정승에 제수)[67]의 명되신 줄을 듣고 원이에도 기쁘고 위안이 되고 그지없이 우러러 사모(瞻仰)하고 편지를 내려 안부를 살펴 주셨는데 엄연히 이제야 (주신 편지)인하여 삼가 대감께서 기거와 신상이 만복하심을 살펴 알게 되었습니다. 보내주신 글 잘 받고(承荷) 감사하며 위로가 됨을 구구히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암랑(고위 기관)의 지체로 겨를이 없는데 특별히 굽어 글을 내려주시고 거듭 진귀한 약재(珍劑)와 신력을 내려주시니 권렴(돌아보고 생각함)이 이보다 더할 수가 있겠습니까 애감의 지극함이 더욱 간절합니다. 저희들은 세월만 유만하나니 목숨(頑喘)만을 보존하고 초기(소상일)[68]가 임박하여 다만 쓰라린 고통(痛毒)만 누를 뿐입니다. 천만번 오직 기체후 균안하시고 더욱 자중하시길 빕니다. 광제(바르게 고치어 널리 구제함)의 때를 맞춰 광응성제 하소서 삼가 대감께서 굽어 살펴 주시고(下鑒) 불비한 소를 공경하게 올립니다. 고애자(상중에 있는) 정제두, 제태 재배합니다.[69]

윤지완은 정제두의 모친 상중에도 서로 안부를 묻고 각별히 교유하였다. 또한 그는 정제두의 학행(學行)을 들어 조정에 천거하였다.[70] 이렇게 윤지완과 정제두가 가깝게 지낸 것은 정제두의 스승인 박세채가 윤지완과 함께 소론의 영수였던 관계도 있지만, 사사롭게는 정제두와 아주 가까운 친구 박심이 윤지완의 사위였다.[71] 특히 박심은 정제두가 안산으로 내려가자 그 이웃한 곳으로 옮

66) 이병권, 2015「시흥군(始興群) 수암면(秀岩面) 3 · 1운동과 윤동욱(尹東旭)의 사상(思想)」,『京畿鄕土史學』제20집, 京畿道文化院聯合會, 292-299쪽 참조

67) 이는 윤지완이 정제두의 스승 박세채와 더불어 좌참찬에서 우의정에 제수되어 상국이 된 소식이다. "우찬성 박세채를 좌의정으로, 좌참찬 윤지완을 우의정으로 제배(除拜)하였다.(拜右贊成朴世采爲左議政左參贊尹趾完爲右議政-『숙종실록(肅宗實錄)』26권, 20년 4월 갑오)" 당시 윤지완은 다리가 아파서 안산에 내려와 사직 소를 올렸고, 숙종은 이를 무마하고자 돈유와 면유를 하고 있었으나, 79차례 인책으로 면직이 허락 되었다. 일각정승(一脚政丞)으로 불렸는데, 부모님의 3년상을 치루며, 무릎에 동상을 입고 다리 한쪽을 잃어서이다.

68) 황비가 작년 1월에 돌아 가셨기에 윤지완에게 보내는 편지가 1월 중에 쓰여진 것을 알 수 있다.

69) 某稽顙再拜言 伏聞大拜之命 聳慰遠邇 殊切瞻仰 下書垂問 儼及此際 仍伏審大監起居神相萬福 承荷拜慰 無任區區巖廊無暇之地 特紆垂記 重之珍劑新曆之賜 眷念有加 益切哀感之至 某等歲月流邁 頑喘存 初葬已迫 只切痛毒而已 千萬惟祝均候益重 以時匡濟 光膺盛際 伏惟大監下鑒 不備敬疏 孤哀子鄭齊斗 齊泰再拜-『하곡집』 권1, 서1,「답윤상국서지완(答尹相國書趾完)」을해(乙亥) / 21년(1695)

70) 영중추부사 윤지완은 소로써 정제두를 천거하며 말하기를, 글을 읽고 뜻을 구하여 명성이 크게 나타났으니, 그 인품을 논한다면 금옥과 같은 군자요, 그 재능과 기량을 말한다면 고금을 널리 통달하였습니다. 마땅히 먼저 방악에 시험하고 인하여 조정의 계책에 협조하게 하소서(領府事尹趾完 疏薦鄭齊斗 以爲 : 讀書求志 聲聞大著 論其人品 金玉君子 語其才具 博通古今 宜先試方岳 仍令協贊廟謨)-『숙종실록』권43, 32년 3월 기미
정제두는 1706년 사헌부 장령(司憲府 掌令)을 제수 받았으나 곧 사직하였다.

71) 余友前泰仁縣監朴君子龍 以其先妣尹淑人錦山之阡(중략)… 十六歲 歿于芝浦朴公諱鏞寔贈領議政行吏曹判書文孝公諱長遠第三子 淑人在室 而以忠正公爲父-『서당사재(西堂私載)』권9,

겨와서 살았던 사람이다. 이렇듯 박심이 정제두를 좇아 안산에서 살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안산이 박심의 처가였기 때문이다.

> 오늘은 봄볕이 화창한데 형께서는 어떻게 지내시는지요? 새로 사업시 주부(司僕寺 主簿)에 제수 받고 부임하셨으니 많은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히려 앞으로 형과 함께 어울리지 못할 것이 아쉽습니다. 마치 한유(韓愈)가 만년에 재능이 뛰어난 선비 온생(溫生)과 함께 노닐려고 했으나 관원으로 발탁되어 떠나는 것을 아쉬워했던 것과 같습니다. 떠나신 뒤에는 어떻게 할까 모르겠습니다. 서울에서 장례는 마치셨나요? 임영(林泳, 1649-1696)이 끝내 세상을 떠났으니 "가슴 아픕니다. 덕행이 있는 사람이 이렇게 떠나다니요!" 얼마 전에 논의한 「천명도」에서 말이 크게 틀리지나 않았는지요, 보내드린 서신을 꼭 보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다만 형의 결정적인 내용의 서신을 받지 못한 까닭에 마음에 쌓여 답답합니다. 동산(윤지완) 선생이 병환을 회복하신 뒤에는 어떠십니까? 상서(尙書)께서 또 오셨다고 들었는데 그렇습니까? 최근에 아이들은 서울에 가서 있고 집안 종복들도 바빠서 이제야 글을 보내드리며 다른 예의를 갖추지 못하였습니다.[72]

이처럼 정제두가 박심에게 답하는 편지내용에서도 박심과 매우 가깝게 안부를 챙기는 것은 물론, 윤지완의 안부까지 챙기고 있어서 이들과 매우 각별하게 지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박심이 정제두를 좇아 안산에 살았던 곳은 정확히 알 수 없으나 그의 호인 지포(芝浦)로 추정하건데, 윤지완의 사당이 동산골(현 안산시 원곡동)에 있었고, 그 아래 남쪽 마을이 초지동(草芝洞)이므로 그의 호가 이곳에 근거한 것으로 추측된다. 이렇게 각별하게 지냈던 박심이 죽자 정제두는 시마복을 입고 곡을 하며, 제문을 지었다.[73]

「윤숙인묘지명(尹淑人墓誌銘)」
숙인 윤씨는 윤지완의 딸로서 이 기록은 태인현감을 지낸 아들 박양한(朴亮漢, 1677-1746)이 서당 이덕수(西堂 李德壽, 1673-1744)에게 부탁하여 쓴 묘지명이다. 박양한은 자는 사룡(士龍), 호는 매옹(梅翁)이다. 1696년(숙종 22)에 사마양시에 합격하였다. 소론의 명문출신으로 그의 저서 『매옹한록(梅翁閑錄)』은 인조 · 효종 · 현종 · 숙종 4조의 시사(時事)를 기록한 것인데, 소론파의 사적으로 귀중한 책이다.

72) 卽日春和 兄候何如 新除之命 殊慰僉望 然此區區之恨 不能不如韓公之稱於溫處士者矣 不審去就將如何洛中葬禮已卜邪 林令竟以死歸 傷哉傷哉 斯人而止於斯也 前日所論天命圖 其言或不至爲大謬否 想在淸覽第無由得奉究竟之論紆菀 東山病患去腐之後 症候何居 方聞尙書台行又至然邪 近有兒輩京行 僮指無暇 今始展此餘萬不備敬狀-『하곡집』 권2, 서4, 「여박대숙서(與朴大叔書)」 병자, 1696년 박심 45세) / 역주 이경룡 하곡서원장

73) 아! 지금 형께서는 세상을 버리고 떠나면서 친구도 버리고 떠나십니까?(중략)… 형께서는 저에게 아주 돈독하셔서 충고를 부지런히 하셨고 아는 것이 있으면 반드시 다 가르쳐주시고 남들이 저를 의심하여도 믿어주셨습니다. 친구라고 하지만 저에게는 어른 같았습니다. 그래서 덕있는 형이 있기 때문에 외롭지 않았으며 세상에서 가장 즐거웠습니다.(중략)… 지난 달에 잠시 함께 있을 때 다음에 다시 만나 날마다 같이 지내자고 하였는데 어떻게 멀리 떠나시고 돌아오지 않습니까? 지난 날들의 추억을 되돌릴 수 없습니다. 헛된 이 세상이 빠르게 흘러가는 것을 알지만

그리고 박심은 윤증(尹拯, 1629-1714)을 사사한 제자이다. 따라서 정제두와 박심은 동문이었다. 특히 윤증은 반주자학적 학풍으로 정제두에게 영향을 준 스승이다.[74]

> 민생 윤창(閔生 允昌, 민이승의 장남)이 와서 보내신 편지를 전해 받고 차가운 날씨에 조용히 지내시는 기후가 보중하심을 알았으니 위안되고 감격스러운 마음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저는 지난번에 죽기 전에 선영에 마지막으로 성묘할 계획으로 억지로 길을 나섰습니다. 처음에는 묘 아래에서 조금 머물려고 했는데, 과분한 은혜에 황공하여 바삐 집에 돌아왔습니다. 신하로서의 분의(分義)와 자손으로서의 정리를 모두 다 펴지 못하여 스스로 한탄할 뿐입니다. 돌아오는 길이 안산(安山)을 경유했으면 그대와 대숙(大叔, 박심)을 한번 만나 정담을 나눌 수 있었을 것인데, 행색이 뜻대로 되지 않아 인사(人事)를 제대로 주선할 수 없었으니, 하는 일마다 슬프고 서운함을 어찌 말로 다하겠습니까. 지금 중간에서 그냥 돌아가셨다는 말을 들으니 더욱 부끄럽고 한탄스럽습니다. 저는 돌아온 뒤에 더욱 몸이 쇠약해졌습니다. 대숙의 편지에 매번 경책하는 말을 해 주니 그 우의(友誼)는 참으로 감사하지만, 정신이 이처럼 혼미하여 그 말을 따를 수 없으니 이 점이 송구합니다. 민생은 그 선인의 훌륭한 모습을 잘 본받아 멀리서 찾아와 배우고 있으니 사람으로 하여금 슬픔과 기쁨이 함께하게 합니다. 그대의 문하에 있는 그의 중씨(仲氏, 민경창閔景昌) 또한 성취될 가망이 있습니까?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어찌 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경진 10월 2일[75]

윤증의 편지에서 정제두와 박심이 안산에 살고 있고, 이들과 서로 안부를 나누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추곡에서 정제두가 양명학을 하는 것을 극구 반대하던 민이승이었는데, 그의 차자 민경창(閔景昌)이 정제두 아래서 수학하고 있었다. 이밖에도 윤증은 추곡시절 서신을 통해서 정제두

어찌 하루 밤 사이에 영원히 세상을 떠나셨습니까? 술 한잔 올리고 글을 지어 보내드립니다. 영혼이 있으시면 저의 끝없는 슬픔을 굽어보시고 흠향하시길 바랍니다.(嗚呼 今兄乃遺斯世而逝也 乃棄朋友而逝耶?(중략)…兄於是惟篤必勤忠告 有知必盡 無間於人我 畏友之稱 在昔長者而已 然幸玆德鄰之邇托 實云並世之一樂(중략)…前月一出方留後期 謂指日而相隨 何乃斯行 遽永逝而不回 漠遺跡而無追 固知浮世遄忙 豈謂亟一夕而長終 隔千古之茫茫 一盃長辭 來送君歸 惟冀不昧之靈 鑑玆無窮之悲焉 嗚呼哀哉 尙饗)-『하곡집』 권6, 「제박지포문(祭朴芝浦文)」 정해 / 역주 이경룡

74) 양명학과 관련하여 실공을 위주로 하는 실심의 학문을 주장한 윤증의 심학은 외재적 합리성(客觀 定理)보다는 실천주체인 본심(本心)의 자각에 철저하여 앎과 행동이 하나가 되는 실천 철학을 주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양명학과 연계될 수 있는 가능성이 나타나 있다.-송석준, 2001 「한국 양명학의 형성과 하곡 정제두」, 『양명학』 제6호, 22쪽

75) 閔生允昌來 得承惠札 以審霜冷 靜候保重 區區慰感 無以容喻 拯昨爲未死前 永辭先墓之計 強作行役 初擬少留於墓下而誤恩惶恐 悤忙下歸 分義情私 俱不得自盡 自咄而已 歸路若由安山 則與吾左右及大叔 庶有一晤之便而行色不能自在 不得周旋於人事 到處悵缺 何可言 今承虛枉於中間 尤增愧歎 拯歸蟄益以憊劣 大叔書每有警策之語良感友誼 昏陋如許 末由受用 是可悚也 閔生極有其先人典刑 遠來相從 令人愴與喜幷也 其仲在席間者 亦有成就之望否餘萬何能盡意 庚辰十月二日-『명재선생유고(明齋先生遺稿)』 권18, 「여정사앙(與鄭士仰)」 경진

가 양명학을 그만 두었는지, 또한 박심이 홍천현감에 제수(2월 4일)되어 그 소임을 잘 하리라 기대를 나타내고 있다.[76]

4. 사상과 학문적 특징

1) 양명학 입문과 포부

정제두는 어려서 주자학을 하면서 『주자대전(朱子大全)』과 『주자어류(朱子語類)』 등을 공부하여 깊이 천착하고 두루 꿰었다. 그러던 중 주희가 『대학(大學)』의 '격물치지(格物致知)'를 '사물의 리를 궁구하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대목에서 이것은 아무래도 맞지 않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주돈이(周敦頤), 정호(程顥), 정이(程頤)의 학설까지 살피며, 여러 경전에서 말하는 본래의 뜻을 찾아 중년에 양명의 책을 구하여 '치양지설(致良知設)'과 '지행합일설'을 보고 깨달아 그 뒤로는 평생 동안 오로지 양명학에만 매달렸다.[77]

또한 당시 양반들은 출세 외에 생계를 위해서도 관계(官界) 진출을 택했으나, 정제두는 몸이 약해 그런 의욕을 내지 못했다. 34세에 스승인 박세채에게 유서(遺書)에 해당하는 글을 보낼 정도로 건강이 좋지 않았다. 그런 악조건이 아마도 그에게 사문난적의 지탄을 무릅써야 하는 양명학을 택할 수 있게 한 용기를 불러온 것이다.[78]

> 대개 제가 왕씨의 설에 애착을 가지는 것이 만약 남보다 특이한 것을 구하려는 사사로운 마음에서 나온 것이라면 결연히 끊어 버리기도 어려운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학문하는 것은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성인의 뜻을 찾아서 실지로 얻음이 있고자 할 뿐입니다.[79]

---

76) 그대는 평소에 뜻이 정해져 있을 것이니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모르겠습니다. 오직 덕과 학문을 힘써 진전시켜 명망과 실제가 부합하도록 더욱 궁구하여 우리 도의 중임을 맡는 분이 되시는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예전에 양명(陽明)의 글을 탐독하시어 사우(士友)들의 근심이 되었는데 지금은 이미 버렸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만나 벗들과 떨어져 외로이 지내는 마음을 위로받을 길이 없고, 쇠잔한 목숨이 위태로워 언제 죽을지 모르는 형편이며, 서찰을 왕래하는 인사 또한 거의 끊어져서 서글플 따름입니다. 대숙(大叔)이 현감에 부임하였으니, 대각(臺閣)에 의망되는 것은 피했지만 거기에서도 필시 사람들을 구제할 것입니다. 거듭 기근이 들어 한재가 예사롭지 않으니 일상적인 공사 간에도 우려가 끝이 없습니다. 계령(季令)이 이러한 때에 승자되어 중한 직임을 받았으니 한편으로는 하례하고 한편으로는 염려됩니다.(左右想有素定 未知前頭何以爲計 惟願勉進德學 益究望實 以爲吾道之重 區區之望也 前日陽明之書 爲士友之所憂者 未知今已捨去否 無由一得盍簪 慰此離索 殘喘懍懍 朝不保夕 書札人事 亦幾廢絶矣 只可悵然 大叔赴縣 想避臺擬 然於人必有所濟也 荐饑之餘 旱災不似 尋常公私憂慮無涯 季令陞受重寄於此際 爲之一賀 一慮)-『명재선생유고』 권18, 「여정사앙제두(與鄭士仰齊斗)」 정축 오월칠일(五月七日, 1697, 숙종 23, 5월 7일) /*계령은 정제두의 아우 정제태(鄭齊泰, 1652-1698)로 이해 4월 12일에 통정대부(通政大夫)로 가자되고 광주부윤(廣州府尹)에 제수되었다.

77) 정인보, 역자 홍원식, 2004 『양명학 연론』, 계명대학교출판부, 144쪽

78) 윤사순, 2012 『한국유학사』 상, 지식산업사, 472쪽

79) 蓋齊斗所以眷眷王氏之說 倘出於求異而濟私 則決去斷置 非所難焉 但未敢知吾人爲學 將以何爲耶

이처럼 정제두는 스승 박세채에게 민언휘와의 이야기를 말하면서 "이것이야말로 죽고 사는 갈림길이온데 해결 없이 그대로 버려 둘 수 있겠습니까? 한 번 철저히 변론하여 그 학설을 죄다 알아보고 그 밑바닥까지 쪼개어 보면 반드시 어떤 결론이 나올 것입니다."[80]라고 양명학을 하는 것이 성인의 학문을 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정제두는 심즉리(心卽理), '마음이 곧 이치다'를 주장하는 양명학을 금기시하던 현실 속에서 자신의 목숨을 걸고 양명학에 심취하였다. 양지(良知)를 실심(實心)으로 해석하는 학문 체계를 바탕으로 허위와 개인의 영달만을 추구하는 세태를 비판[81]하면서 실리(實理)와 실학(實學)의 정신을 구현하고자 하였다. "성인의 실학을 능히 얻지 못하고 다만 허울 좋고 들떠있는 허위의 학문을 추구하면 곧 학문될 것은 없다."[82]라는 말에는 그의 핵심 사상이 무엇인지 잘 나타나 있다. 또한, 최석정은 "내가 여러 공(公)들과 함께 강설(講說)할 적에는 항상 신을 신고 그 위에서 긁는 것과 같았는데, 사앙의 한마디 말만 듣고서도 나도 모르게 구름이 흩어지고 안개가 걷혔으며, 매양 나라에 큰 일이 있을 때면 반드시 글을 보내어 묻고 의논하여 그의 답변을 얻었다. 그리고 곧 말하길, 이는 이른바 내성(內聖)과 외왕(外王)의 도(道)이며 명체(明體)와 적용(適用)의 학문이다."[83]고 하였으니 성인의 뜻을 따라서 성학(聖學)[84]을 이상으로 삼는 정제두의 학문의 깊이와 사상의 본질을 대변해주고 있다.[85]

2) 장유 사상(思想)의 영향

> 일찍이 계곡(谿谷 장유(張維))의 양명에 관한 글을 보았는데, 그는 양명의 글에 대하여 문의(文義)와 견해가 다 익숙함으로 한 번 보자 곧 그 요령을 파악하였습니다. 그래서 선배들의 안목이 높고 흉회(胸懷)가 공정함을 매양 탄복한 일이 있습니다.[86]

위와 같이 정제두는 일찍이 많은 책을 다독하면서 장유의 글을 통해 양명학을 접했다. 특히 정제두는 계곡의 글을 단순히 보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본뜻을 찾아 연구하였다.

思欲求聖人之意而實得之而已-『하곡집』, 「답박남계서(答朴南溪書)」 정묘

80) 近與閔彦暉講此 而彦暉方銳意論卞 此眞死生路頭 不得其可措耶 庶幾一與痛講 殫竭其說 剖析其蘊 則將必有一決矣 賤心所存-앞의 책

81) 其實同是爲聖人之學 何嘗不善乎 後來學之者多失其本 至於今日之說者則不是學朱子 直是假朱子 不是假朱子直是傅會朱子 以就其意 挾朱子而作之威 濟其私-『하곡집』 권9, 「존언(存言)」 하

82) 不能得聖人之實學而徒以文華浮泛之學則非所以爲學也 -『하곡집』 권3, 서6, 「답종자준일서(答從子俊一書)」

83) 『하곡집』 권10, 「연보(年譜)」, 숙종 42년 병신(1716)

84) 思欲求聖人之意而實得之而已-『하곡집』 권1, 서1, 「답박남계서」 정묘

85) 심우일, 2015 「안산 거주시기 하곡 정제두의 삶과 학문」, 『제3차 시흥지역문화 세미나』, 시흥문화원, 18-19쪽 참조

86) 嘗觀谿老於陽明之書 惟其文義見解之熟 故一見便會 無不得其要領 於是每歎先輩眼目之高胸懷之公-『하곡집』 서24. 「답최여화서(答崔汝和書)」 계유(癸酉)

계곡(溪谷)의 잡술(雜述)에 이르기를, "눈은 볼 수 있는 것이나 보아서 그 빛을 아는 것은 눈이 아니다. 귀는 들을 수 있는 것이나 들어서 그 소리를 아는 것은 귀가 아니다. 코는 냄새를 말을 수 있는 것이나 냄새를 맡고서 그 냄새를 아는 것은 코가 아니다. 입은 맛을 볼 수 있는 것이나 맛보고서 그 맛을 아는 것은 입이 아니다." 이것은 마음이요 모두 마음이 알 수 있는 것이다. 즉 정신이 이(理)를 낳는다는 것이 이것이다. 대개 이 · 목 · 구 · 비(耳目口鼻)의 주인인 까닭에 그러한 것이다. "보아서 그 빛을 아는 것은 눈이 아니지만 눈이 아니면 볼 수 없고, 들어서 그 소리를 아는 것은 귀가 아니지만 귀가 아니면 들을 수 없고, 냄새를 맡고 맛을 보아서 그 냄새와 맛을 아는 것은 코와 입이 아니지만 코와 입이 아니면 냄새를 맡고 또한 맛을 볼 수 없는 것이다." 라고 하였다. 이것은 귀와 눈에 있는 것이다. 마음으로 알 수 있는 것은 귀 · 눈 · 코 · 입 등 형질(形質)의 용(用)에 있는 까닭에 그러한 것이다. 마음의 용은 형(形)으로 말미암아 작용하고 이의 체[理之體]는 형으로 말미암아 발하는 것이니 귀 · 눈 · 코 · 입 등이 없다면 곧 마음의 용은 잃어버리고 이(理)의 체(體)도 없어지는 것이다.(중략)….[87]

이는 장유가 체용일원론의 입장에서 감각과 마음의 관계 그리고 사물의 관계를 이목구비를 바탕으로 밝힌 것을, 정제두가 더 확대하고 설명하여 「이목구비설」 상, 하를 만들었다. 이것은 인간의 인식능력과 그 작용에 대하여 밝힌 내용이다.

이처럼 정제두는 계곡의 이목구비설을 이어받아 그것을 보충하며 자기의 학설을 펼쳐 나갔다. 『존언』 등이 이곳 추곡에서 쓰여진 것이라면 계곡을 계승한 것도 우연은 아닐 것이다. 계곡은 이목구비 등 감각기관은 색깔 소리 냄새 맛을 알 수 없다고 하였다. 그런데 하곡은 그것을 아는 것은 마음이라고 분명히 밝히었다. 감각기관과 마음의 관계를 분명히 한 것이다. 정제두는 계곡과 마찬가지로 주자학의 격물궁리의 방법으로 외물을 궁구하여 지식을 넓히는 것을 부정하면서 밖에서 기대함(有待於外)이 있는 것이 아니라고 잘라 말하였다. 정제두는 마음의 인식능력은 감각기관의 형질의 작용에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감각능력이 없으면 마음의 작용은 상실되고 이치의 본체도 없어진다고 하였다. 그리고 이치의 본체는 사물로 인하여 존재하고 마음의 작용은 사물로 인하여 일어난다고 하였다.[88] 이렇듯 정제두는 장유의 학설을 받아들여 그것을 더욱 발전시켰다.

---

87) 谿谷雜述曰 目能視 視而知其色者非目也 耳能聽 聽而知其聲者非耳也 鼻能臭 臭而知其臭者非鼻也 口能嘗 嘗而知其味者非口也 是心也 是皆心之能知者也 卽精神生理是也 蓋耳目口鼻之主也故然 視而知其色者非目也 非目則不能視 聽而知其聲者非耳也 非耳則不能聽 臭嘗而知其臭味者非鼻口也 非鼻口則不能臭且嘗矣 是在耳目心之能知 在耳目鼻口等形質之用故然 心之用 由形而作 理之體 由形而發 無耳目鼻口等則心之用喪而理之體亡-『하곡집』, 「존언」 상, 14. 이 · 목 · 구 · 비설(耳目口鼻說) 상

88) 정인재, 2015 「시흥의 문화를 이끌어 갈 정신적 지주는? -양명학자 장유, 정제두의 사상을 중심으로-」, 『제4차 시흥지역문화 세미나』, 시흥문화원, 24-26쪽

3) 정제두의 생애 구분 및 학문적 특징

정제두는 1649년(인조 27)부터 1736년(영조 12)까지 88년을 살면서 장수하였다. 그의 생애는 크게 41세(1689, 숙종 15) 이전까지 한양에서 살던 시기와 60세(1708, 숙종 34)까지의 안산에서 살던 시기, 그리고 이후 강화에서 살던 시기로 나누어진다. 그의 저술은 대부분 41세 이후에 나온다. 안산시기에 『학변』과 『존언』의 대체적인 틀이 이루어졌으며, 강화 생활기에 『심경집의』, 『경학집록』, 『중용설』 등이 저술되었다. 『학변』과 『존언』이 하곡철학에 들어 있는 양명학적 성격과 아울러 그의 철학체계를 잘 드러내는 저술임을 감안한다면, 그의 학문이 청년기의 문제제기를 통해 주자학에서 양명학으로 전환하였고, 중년기의 이론체계 수립에 의해 문제를 해결해냈으며, 노년기의 경학 연구[89]를 통해서 자신의 관점으로 사서(四書)를 비롯한 경전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해갔음을 알 수 있다.[90]

한편, 그가 거주하였던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구분하기도 하는데, 한양에 거주하던 경거기(京居期), 안산에 거주하던 안산기(安山期), 강화에 거주하던 강화기(江華期)의 세 시기로 나누어서 생애와 학문적 특징[91]을 설명한다. 이러한 내용들을 정리하면 표2.와 같다.

구분/시기	초년	중년	만년
생애의 삼변	경거기(京居期) 출생(1649,인조 27)~40세	안산기(安山期) 41세(1689, 숙종 15)~60세	강화기(江華期) 61세(1709, 숙종 35년) ~88세 졸(1736, 영조 12)
학문의 삼변	정주설기 (程朱說期)	왕학설기(王學說期)	예설(禮說) · 복제설(服制說),천문(天文) · 성력(星曆), 기수론(氣數論) · 경세론(經世論) · 존경복고기(尊經復古期)
비고		· 왕학(王學)으로의 전화기(轉化期) : 24세~33세 · 왕학의 표명(表明) 및 전치기(專治期): 34세~	· 왕학의 병폐 지적(83세), · 주(朱) · 왕학의 연계 혹은 정주학으로의 회귀?

표2. 정제두의 생애 및 학문의 변화 과정[92]

89) 한편 그의 왕학은 본래의 주자보다도 후세의 가짜 주자를 비판했던 것인 만큼, "이른바 왕씨의 설도 역시 비록 주자와 같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 지의(指意)는 하나의 정주(程朱)인 것이다."라고 했듯이 왕학 수용에는 한계성을 가졌던 것이다. 그는 오히려 주 · 왕학을 포섭한 심성학을 지향한 것이었고 이 점에서 후일 그의 『심경집의』가 저술되고 『경학집록』이 이루어졌던 것이며, 여기서는 경학의 세계 안에서 주 · 왕학을 융해시키려던 존경복고성(尊敬復古性) 내지는 정주(程朱)에의 회귀성(回歸性)이 예상되는 것이었다.-이상은, 1973 『하곡집(霞谷集) 제1집 해제(解題)』, 한국고전종합DB

90) 김교빈, 1995 『양명학자 정제두의 철학사상』, 도서출판 한길사, 20쪽
정제두의 생애와 학문적 특징을 정인재는 하곡이 공부했던 유학 사상을 중심으로 주자학을 공부한 1세부터 33세까지, 양명학을 공부한 34세부터 60세까지, 주자학과 양명학을 회통하여 독자적인 학문체계를 수립했던 61세부터 88세까지의 3시기로 구분하였다.-정인재, 2014 『양명학의 정신』, 세창출판사, 411-412쪽 참조

91) 윤남한, 1982 『조선시대의 양명학 연구』, 집문당, 226쪽 참조

92) 김교빈, 1995 『양명학자 정제두의 철학사상』, 도서출판 한길사, 20쪽, 최재목, 이상훈 2006 「'강화양명학'연구를

4.) 추곡시기 『학변(學辨)』 과 『존언(存言)』 의 저술 의의

정제두는 추곡시기 양명학의 기틀을 다지는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시기였다. 특히, 저술면에서 보면, 하곡은 "아주 광범위한 학설을 세워서 양명의 문하에서도 미치지 못할 대저(大著)를 남긴 사람"[93]으로 평가된다. 그가 남긴 저술은 현재 『하곡집』 에 온전히 수록되어 있다. 그 대부분은 41세 이후에 이루어진 것들이다. 그의 대표적인 저술로서 양명학적 입장으로 일관하는 『학변』 과 『존언』 의 대체적인 틀이 안산시기에 만들어졌다.[94]

『학변』 과 『존언』 은 왕학자로서의 정제두의 대표적인 저술이다. 그 내용은 각각 왕학(王學)으로 일관되었고 그런 입장에서 정주학의 지리성(支離性)을 비판한 것이었다. 그중 『학변』 은 주로 왕학의 정당성을 위한 논변서(論辨書)였다면, 『존언』 은 주로 양명학적 입장에서 시도되었던 그의 심성학(心性學)의 체계화라고 할 수 있다.

『학변』[95]은 하곡의 43세(숙종 17) 전후에 저술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때는 기사환국으로 남인(南人) 정권하로 정제두는 파주(坡州)에 퇴거했던 박세채에게 배우다가 이 무렵에 왕학 신봉을 표면화하였다. 박세채는 정제두의 이학 신봉(異學信奉)을 충고하여 『왕양명학변(王陽明學辨)』 을 저술하였고, 윤증도 글을 보내어 그의 이학(異學)을 꾸짖었다. 특히 지우(知友) 최석정은 「변학설(辨學說)」 을 지어 보내 이학 신봉을 충고하였다. 또한 "현장(玄丈 : 남계)의 말씀에 그대가 왕양의 문자를 좋아하여 한 책을 만들고 대략 『근사록』 과 같이 하였다는데 역시 한번 보고 싶소."[96]라고 하여 이 무렵에 『학변』 과 『존언』 이 저술된 것으로 보인다. 명곡이 보낸 편지가 임신년(壬申年) 즉, 1692년(숙종 18)이기 때문이다.

『학변』 은 전문에 걸쳐서 요순(堯舜)과 공맹(孔孟)의 도학을 주자와 정자의 설을 바탕으로 양명설을 원용하면서 그의 주일적 심성학을 밝힌 것이다. 그가 원문으로서 양명설을 직접 내세운 것은 몇 조에 불과하였지만 정주학의 지리함을 비판한 데에 일관하였고 그가 말한 주일적인 존양(存養)이나 심성 학설은 거개(擧皆)가 바로 『전습록(傳習錄)』 을 인용하거나 이에 따른 것이다. 그는 "성현(聖賢)의 교훈이 비록 천 마디 만 마디의 말이라 하더라도 학문하는 데에 있어서는 이 마음의 천

위한 기초자료 정리」, 『양명학』 제16호, 한국양명학회, 98쪽, 『하곡집』 참조

93) 정인보, 역자 홍원식, 2004 『양명학 연론』, 계명대학교출판부, 144쪽

94) 최재목, 이상훈 2006 「'강화양명학'연구를 위한 기초자료 정리」, 『양명학』 제16호, 한국양명학회, 86-87쪽

95) 그의 학문관을 총체적으로 드러내는 것은 『학변』 이다. 그는 여기서 요순으로부터 왕양명에 이르기까지 유학에 일관하는 핵심 사상을 나름대로 서술하면서, 그 문맥 속에 자신을 견해를 드러냈다. 여기에 나타나는 그의 견해는 대체로 유학의 전통이 심성(心性) 및 심성 수양을 중요시해 왔다는 요지로 집약된다.-윤사순, 2012 『한국유학사』 상, 지식산업사, 473쪽

96) 玄丈云足下裒捽王氏文字 作一書 略如近思錄之爲者 亦思一覽耳-『명곡집(明谷集)』, 권13, 서독(書牘), 「여정사앙서(與鄭士仰書)」 임신(壬申)

리를 보존하고자 하는 데에 불과한 것이다."[97] 하였고, 또한, "물(物)이란 것은 내 마음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니[98]" 한 것도 모두 양명의 말이며, 주자의 물리의 학(物理之學)을 배격하는 것이었다.

『학변』 이 이러한 주일적 심성학을 바탕으로 물리의 학을 비판한 것이라면 『존언』 은 훨씬 체계적으로 그의 심성학을 정리한 것이다. 상 · 중 · 하의 3편으로 나누되, 상편은 건룡4효설(乾龍四爻說)에서 성학설(聖學說), 치지설(致知說) 등을, 중 · 하편에서는 이를 다시 부연하여 천리와 인욕, 인심과 도심설을 비롯하여 성 · 정 · 심 · 의(性情心意)설의 각반(各般)에 걸쳐서 그의 심성설을 토로하고 있다.

『존언』 의 말이 『학변』 과 중첩된 것이 많이 있으나 모두 주 · 정(周程)에 근간을 두면서 양명의 사상에 근거하고 있지만 이를 '성인의 학(聖人之學)'으로 요약하되 "성인의 학은 대학(大學)에 있고 성인의 전(典)은 춘추에 있으며 이는 성인의 뜻을 말한 것이나 그 경(經)을 밝힌 것은 맹자 7편과 같음이 없는 것이다."[99]고 하였고, 주자학을 비판하되, "뒤에 와서 배우는 이는 허다히 그 근본은 잃고 오늘날의 학설만을 주장하기에 이르렀으니, 이것은 주자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곧 주자를 빌리는 것이요, 주자를 빌릴 뿐만 아니라 곧 주자를 부회(傅會)함으로써 그 뜻을 성취하고 주자를 끼고 위엄을 지어 사사로움을 이루는 것이다."[100]고 하였으며, 양명학 수용의 경위에 대해서는, "이제 양명집을 보니 그 도에는 간요하고 정미함이 있어서 마음에 깊이 즐거웠고 이를 좋아하였다."[101]고 한만큼 이는 왕학서(王學書)였다.[102]

이렇듯 안산시기 『학변』 과 『존언』 의 저술은 정제두가 양명학의 기틀[103] 을 세웠던 중요한 시기로, 정제두가 살았던 시흥시의 추곡은 한국양명학의 학문적 성취의 토대를 쌓은 역사적인 곳이다.

5) 출처(出處)와 평가

정제두는 충절의 표상인 정몽주의 후예이자, 조부가 우의정에 오르는 등 명문가 출신이었다.

---

97) 聖賢之訓 雖千言萬語 其所爲學則不過欲存此心之天理也-『하곡집』, 권8, 「학변(學辯)」

98) 王氏所謂物 "者非外於吾心也"-앞의 책

99) 聖人之學 在大學 聖人之典 在春秋 遡聖人之志 明二經之道者 莫如孟子七篇-『하곡집』 권9, 「존언」 하, 학문자양심지방(學問者養心之方)

100) 後來學之者 多失其本 至於今日之說者 則不是學朱子 直是假朱子 不是假朱子 直是傅會朱子 以就其意挾朱子而作之威 濟其私-앞의 책

101) 余觀陽明集 其道有簡要而甚精者 心深欣會而好之-『하곡집』 卷9, 「存言」 下, 8. 주 · 왕학 동유(朱王學東儒)

102) 이상은, 1973 『하곡집(霞谷集) 제1집 해제(解題)』, 한국고전종합DB, 참조

103) 윤한택은 정제두가 "1689년 만 40세 때 몇 개월에 그친 평택현감 자리를 띤 채 경기 안산(安山) 가래울에 옮겨 살았는데, 이때부터 20년 동안 강화도로 옮겨가기까지 양명학 연구에 더욱 정진하였다. 이 시기에 저술된 『학변』 과 『존언』 에는 왕양명의 학설을 바탕으로 한 그의 심성학(心性學)이 심화되어 표현되고 있다."라고 밝히고 있다.- 윤한택, 2008년 12월 9일 「하곡 정제두 -학문 · 덕행 뛰어난 국내과 양명학의 태두-」, 『경기일보』 기사 http://www.kyeonggi.com/news/articleView.html?idxno=313538

5세에 부친을 여의고, 백부와 종형에 이어 조부마저 관례를 치른 16세 때(1664) 세상을 떠났다. 어린 나이로 종손을 대신하여 집안을 이끄는 처지였다. 23세 때 아들 후일을 낳은 윤씨가 세상을 떠났다. 당시 정국은 정쟁이 격화되며, 경신(庚申), 기사(己巳), 갑술환국(甲戌換局)이 이어졌다. 서인과 남인의 치열한 다툼 속에서 정쟁의 승패는 단순한 정권 교체가 아닌 삶과 죽음의 갈림길이 되었다.[104] 이 때 정제두는 과거 공부를 폐지했다. 아우 제태가 촉망되자 두 형제가 모두 벼슬길에 나갈 필요가 없다고 어머니를 설득하였다. 개인적인 불행과 20대 초반의 나이에 육경(六經)을 비롯하여 제자백가, 음양(陰陽) · 성력(星曆)의 수(數)와 병사(兵事) · 농업(農業) · 의술(醫術) · 약재(藥材)의 이론과 감여(堪輿) · 복서(卜筮)의 기술에서부터 패관소설(稗官小說)과 자집(子集), 전고(典故)에 이르기까지 미치지 않은 분야가 없었다.[105] 그리고 양명학을 포함한 관심의 범위가 과거에만 몰두하기에는 너무 넓었다.

스스로 과거를 폐하였지만, 그는 사림이 자신들의 뿌리로 삼고 있는 포은의 후예이고, 그대로 초야에 묻혀 살기 힘들었다. 아주 어린 나이에 자질이 눈에 띄도록 뛰어났고, 이미 20대 초반에 그 박학함을 인정받았기 때문이다. 우선 그의 나이 32세 때인 1680년(숙종 6) 경신환국 직후에 집권 서인의 영의정 김수항이 정제두를 경명행수(經明行修)로 천거하여 사포서별제에 임명 된 것이 첫 벼슬길이다.[106]

> 옛 사람의 사환은 다만 도를 실행하는 데 있었다. 때문에 도가 있는 곳이면 이를 따랐을 뿐 자기에게 한 몸이 있음을 몰랐다.…(구분과 차별이 없이) 오직 나라를 다스려서 백성을 편안히 할 뿐이니[107]

---

104) 경신환국에서 갑술환국에 이르기까지 정국의 경색은 심화되었으며, 거기에다 병신처분(丙申處分)을 계기로 노론과 소론의 분립이 완전히 굳어졌다. 갑술환국 이후 정국의 주도권을 탈환하기 위한 노론의 노력은 계속되었고, 그러한 가운데 쟁점이 된 것은 최석정의 『예기류편(禮記類編)』 및 박세당의 『사변록(思辨錄)』과 이경석(李景奭)의 『신도비명(神道碑銘)』을 둘러싼 시비였다. 또한 박세당의 조석상식(朝夕上食)을 금지하는 유언과 『가례원류(家禮源流)』 시비도 논란이 되었다. 그런데 이제까지 소론을 지지하던 숙종이 회니시비(懷尼是非)에 대한 입장을 번복하고 노론을 지지하는 병신처분을 내리자 정국은 다시 노론의 주도로 돌아가고, 소론은 수세에 몰렸다. 노·소론의 분립은 단지 저술의 원작자에 대한 논란이나, 스승과 제자의 결별이라는 사적인 차원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 정책 노선의 차이, 학문 · 이념의 차이, 주자학과 반주자학의 갈등, 사회경제적 이해관계까지 연관되는 근본적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그런데 정국이 노론일당전제로 흘러가면서 사상 · 학문에 대한 태도도 경색되어, 주자학 일변도의 분위기가 팽배해졌고, 마침내 주자학에서 벗어나는 주장을 펼칠 경우 사문난적으로 몰아 처벌하기에 이르렀다.(박세당, 윤휴) 양명학도 이단 사설(邪說)로 지목되었다.-정두영, 2006「숙종~영조 초 하곡정제두의 처세와 정치적 역할」,『제3회 하곡학 국제학술대회-하곡과 한국양명학회의 전개-』, 한국양명학회, 85-86쪽 참조

105) 『하곡집』 권10, 「연보」 숙종 13년 임자

106) 정두영, 2006「숙종~영조 초 하곡정제두의 처세와 정치적 역할」,『제3회 하곡학 국제학술대회-하곡과 한국양명학회의 전개-』, 한국양명학회, 84-87쪽 참조

107) 『하곡집』 권7, 「송류공상운지강계부서(送柳公尙運之江界府序)」

곧 만물일체의 관점, 양명학의 사유방식에서 나오는 치자론(治者論)이며 위정론(爲政論)이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이러한 사환(仕宦)을 직접 실천할 기회를 그다지 갖지 못했다. 조정의 천거는 30대 초반부터 졸거까지 끊임없었지만, 실제 직을 나간 것은 단 두 번이다. 그의 나이 41세 되던 1689년(숙종 15)에 평택현감으로 나갔다가 두 달 만에 그만 둔 일과 63세 때인 1711년(숙종 37) 회양도호부사(淮陽都護府使)로 부임한 것이다.[108]

> · 7월 무자(1일)에 회양도호부사에 임명되었다. 8월에 부임하였다. 왕명이 있었는데도 곧 사양만 하는 것이 분수가 아니므로 애써 부임하였던 것이다.
> · 10월에 벼슬을 버리고 돌아왔다. 선생이 정사(政事)를 한 지 3개월 만에 교화(敎化)가 크게 행하여졌다. 때마침 흉년이었으므로 편의에 따라서 골고루 구제하고 유망민을 구출하여 모두 회복시켰는데 안렴사는 그 공적을 높이 평가하여 이르기를, "청백한 것이 옥호와 같고 은혜는 봄바람과 흡사하다." 고 하였다. 벼슬을 버리고 돌아올 때에는 술안주를 가지고 따라 나와 전송하는 이가 수십 리 길에 끊이지 않았으며 철비을 세워서 내내 추모하였다.[109]

은일(隱逸)로 추앙되던 정제두가 회양도호부사로 나아가 흉년에 따른 백성구제와 안민을 펼쳐 목민관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보인 것이다. 그러나 이마저도 두세 달에 그쳤다. 이렇듯 정제두가 사환하지 않는 이유는 의리나 공론에 기대지 않았기 때문이다.[110] 이러한 정제두의 출처(出處) 자세는 당대 사람들이 그의 학행으로 거론하였지만 출신 가문이 가지는 비중과 당론에 따라 배척되었고, 또한 인품은 인정하지만 그의 학문이 양명학이 문제 되기도 하였다. 따라서 정제두는 사환하지 않고 양명학에 몰두하였다. 이런 그를 스승 박세채와 윤증은 만류하였고, 특히 친구 민이

---

108) 정두영, 2006「숙종~영조 초 하곡정제두의 처세와 정치적 역할」,『제3회 하곡학 국제학술대회-하곡과 한국양명학회의 전개-』, 한국양명학회, 88쪽 참조

109) ·三十七年 辛卯 先生六十三歲 七月戊子 拜淮陽都護府使 八月赴任 以有命輒辭非分 黽勉赴任
·十月棄官歸 先生爲政三月 政化大行 値荐饑隨宜賑濟 流亡盡復 按廉使最其績曰淸如玉壺 惠洽春風 及歸壺榼者數十里不絶 豎鐵碑追思之 -『하곡집』 권10, 「연보」 숙종 37년 신묘
평택현감으로 나간 일은 하곡조차도 당인(黨人)의 면모에서 벗어나기 힘들었던 당시의 상황을 보여주며, 회양의 일은 그 기간이 짧아 하곡이 말하는 치자론·위정론을 실천한 근거로 들기에 부족하다.-앞의 논문, 89쪽

110) 벼슬길에 나아가 현실 정치에 참여하는 행위가 출처인데, 그 자체가 유자나 관인의 인품과 처신의 시비곡직을 따지는 중요한 기준이 되었다. 출처는 단순히 한 개인의 진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정치적 입장을 드러내주는 행위이다. 송시열은 자신의 진퇴를 늘 주자의 의리론, 명분론에 빗대 정당화하곤 했는데, 정제두는 이런 송시열의 출처에 대해 가볍게 출사했다가 사소한 이유를 들어 쉽게 퇴거하는 경향이 지나치다고 비판했다. 요컨대 의리가 일관성이 없고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출처는 군자의 의리가 아니라 개인적 이익 추구이며, 공론으로 시비를 가리는 것이 아니라 형세의 강약에 따라 흔들리는 것이다.-앞의 논문, 87-88쪽 참조 :『하곡집』 권1, 「상송심제서(上宋尤齊書)」 계해(癸亥), 「상박남계서」 갑자

승은 주륙(誅戮) 당할 수 있다[111]고까지 하며 양명학을 그만 두라고 하였다.

이러한 정제두가 말년에 이르러 본격적인 출처에 나서자 많은 비판에 직면한다. 특히 당대 노론의 반응이 심하였다. 나이 들어 벼슬길에 나서려 한다느니,[112] "배우지 않고 무식하여 전연 두뇌(頭腦)에 어두움이 이처럼 심하기에 이미 일찍이 선생 장자들에게 배척받던 사람"[113]이라거나, 향

111) 어제 중(衲) 인편에 혜서(惠書)를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보내 주신 책에 일러 주신 것은 첫째는 입을 다물어라 하고, 둘째는 함부로 욕한 말입니다. 그런데도 이처럼 또 충고의 말씀을 보내 주시니 무슨 까닭입니까? 이렇게 욕을 얻어먹고서야 깨달아 머리를 돌리리라고 생각한 것입니까? 원래 형은 내 마음을 털끝만큼도 몰랐습니다. 형의 꾸지람을 달게 여기면서 이처럼 했던 것은 혹 형에게 얻을 것이 있을까 해서였습니다. 형이 사람으로 하여금 닫아 감추고 발언을 못하게 하면서 변론한다고 일컬으니, 만약 형이 과연 양명에 대하여 참말 본 것이 있어서 그 고질적인 오류[膏肓]를 파헤칠 수 있다면 내가 보낸 글을 일소에 부치면 될 것인데, 어찌 다른 날까지 보류해 둘 필요가 있겠습니까? 실은 형이 처음부터 한마디도 진짜로 양명을 말한 곳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의혹이 바야흐로 간절한데 형은 힘써 나의 물음을 거절하려 하니, 이러고서야 어찌 석연하게 깨달음을 바랄 수 있겠습니까? 이 점에 있어서는 형이 스스로 이렇게 만든 측면이 많습니다. 날이 가고 달이 가니 각자 자기 할 일이나 부지런히 할 것이지, 지나간 이야기를 되풀이해서 무엇합니까? 책 끝에 다시 주륙(誅戮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말까지 달아 놓았는데, 지금보다 더 나은 명변(明辨)이 있으시다면 지당한 일이지만, 만약 육욕(戮辱)으로 위협을 주거나 화단을 입히는 것이라면 그것은 나의 알 바가 아닙니다. 죽이고 욕 주고 하는 일은 학문을 권장하는 일이 아닙니다.(昨日衲便中獲奉惠書 迨荷迨荷 第於册中申教 一則曰閉口二則曰肆罵而尙復如是勤教者何哉 謂得此呵悟回頭也邪 原來兄都不知鄙心之毫末矣 其所以甘心兄呵叱而爲此者以其或於兄有得矣 兄欲令人閉藏不發而稱爲之辨 果兄若有眞見陽明而果能發其膏肓 則弟之發書相笑也何待於留至異日乎 實則兄初未嘗一言有眞說陽明之處矣 弟則疑之方切 而兄則格之唯恐不力 如是而尙何望其開釋乎此則兄所以自處之者已多矣 斯邁斯征 何必重煩故事耶 末復以誅戮之說繼之 如有明辨有進於是者則固至當而如以戮辱威禍則非所敢知者 戮辱之於誘學末也)-『하곡집』, 서17. 『답민성제서(答閔誠齋書)』

112) 사신은 논한다. 신(臣)이 삼가 살펴보건대, 선비가 세상에 나오거나 은퇴하거나, 말을 하거나 입을 다무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합당하게 해야 할 따름이다. 정제두가 이미 사진(仕進)하고 싶지 않았다면 무엇 때문에 이런 글을 썼는가? 진실로 글을 쓰기로 했으면 새 임금이 대를 이었으니 말할 만한 일이 매우 많은데, 그런 것은 버려 두고서 다만 전날에 헌의(獻議)하였던 나머지를 주워 모아 지리하게 설명을 하는 것인가? 그리고 《오례의》는 세조 때에 시작하여 성종 때에 완성된 것인데, 이제 세종조의 책이라고 하였으니, 또한 그 고증도 상세하지 못한 것이다. 어찌 그의 학문이 격물·치지에 힘쓰지 않은 까닭에 정치의 본체에 밝지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겠는가?(臣謹按 儒者之出處語默 當其可而已 鄭齊斗旣不欲仕進 則安用文爲? 苟其文也 新君繼照可言之事甚多 顧乃舍是而徒綴拾前日獻議之緖餘 支離爲說? 且《五禮儀》始自世祖朝 成于成宗朝 今以爲世宗朝書亦其考之有不詳也 豈其學不務格致 短於治體而然歟?)-『영조실록(英祖實錄)』 권1, 즉위년, 9월, 임술

113) 사헌부에서(지평 이정박이다.) 전계(前啓)를 거듭 아뢰었으나, 윤허하지 아니하였다. 또 아뢰기를, "정자와 주자 이후에는 도학(道學)이 크게 밝아져 지(知)와 행(行)을 병진(幷進)해야 하는 공부를 마치 수레바퀴나 새의 날개처럼 어느 하나를 폐할 수 없게 되었는데, 육구연의 돈오설(頓悟說)과 왕수인의 양지론(良知論)은 오도(吾道)와 배치(背馳)되는 것으로서 깊이 세상의 폐해가 되어, 전하여지는 해독과 남아 있는 열기가 지금까지 멎지 않고 있으니, 이는 이른바 '옛날에는 폐해가 천근(淺近)해서 알아차리기 쉬웠지만 오늘날에는 해독이 깊어서 분별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좌주 정제두는 정주(程朱)의 학문을 완전히 배반하고 육왕의 학설을 대강 답습(踏襲)하여, 이에 감히 말하기를, '육왕과 정주는 비록 다같이 대도(大道)에 들어갔다고 할 수 있지만, 육왕의 학문은 숭례문과 같고 정주의 학문은 돈의문과 같다.'고 했으니, 이는 대개 육왕을 정도(正道)로 삼고 정주를 방기(旁歧)로 여긴 것입니다. 그는 배우지 않고 무식하여 전연 두뇌(頭腦)에 어두움이 이처럼 심하기에 이미 일찍이 선생 장자(長者)들에게 배척받던 사람인데, 특히 대가(大家)에 드나들며 조금 스스로 수식(修飾)했기 때문에 차차로 추천(推遷)하여 외람하게도 재상(宰相)의 반열에 올라가 심지어는 사유(師儒)의 자리를 더럽히게 되었으니, 일의 해괴하고 우습게 됨이 이보다 심할 수 있겠습니까? 그는 진실로 도학(道學)으로 나아가는 길에 참여시켜 논할 수 없는 것이며, 이와 같이 정도(正道)에 어둡고 이교(異教)를 숭상하는 유들을 만일 엄격하게 제방(隄防)을 가하지 않는다면, 그 전하는 폐해가 어찌 혹세 무민(惑世誣民)을 순치(馴致)하게 되지 않기를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이는 진실로 세상의 도의(道義)에 있어 소소한 근심거리가 아니니, 청컨대 좌주 정제두를 시급히 개정하도록 명하소서."(憲府(持平李廷樸) 申前啓, 不允 又啓曰 "程 朱以後 道學大明 知行兩進之工 有如車輪鳥翼之不可偏廢而陸九淵頓悟之說 王守仁致良知之論 背馳吾道 深爲世害 流毒餘烈 至今未已 此所謂昔之害 近而易知 今之害

원(鄕愿)이라 지목하고,[114] 이름을 먹으로 지워 수모를 주는[115] 등 인신공격을 서슴지 않았다. 당시는 영조의 즉위와 함께 노론이 집권했을 때인데도, 정제두의 행보를 매우 경계한 것이다.[116]

이는 숙종, 경종이 정제두를 우대[117]하고, 특히 영조가 정제두를 가까이 한 것에서 비롯되었다. 정제두는 무신란(戊申亂)이 일어나자 그 어느 때보다도 활발하게 움직였다.[118] 이는 숙종대 탕평정국의 분위기를 영조대 탕평책의 적극적 실시로 이어주는 가교의 역할이었다. 또한 오랜 양명학 공부의 성과를 자신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정치론으로 제안하였다. 바로 군주가 주도하되 군주와 신료, 신료 상호간의 이해와 대화로 이루어지는 건극정치론(建極政治論)[119]이다. 이러한 그의 견해는 제대로 수용되지 못했으나, 영조대 탕평책의 적극적인 시행에 영향을 끼쳤고, 근대 정치사상이 발전하는 씨앗이 되었다.[120]

深而難辨者也 祭酒鄭齊斗 全背程 朱之學 粗襲陸 王之說 乃敢曰 '陸 · 王 `程 · 朱, 雖可謂偕入於大道 而陸王之學 如崇禮門 程朱之學 如敦義門 此蓋以陸 王爲正道 程朱爲旁岐也 其不學無識 全昧頭腦 若是之甚 已嘗見斥於先生長者也 特以出入大家 稍自修飾之故 節次推遷 濫躋宰列 至玷師儒之席 事之駭笑 孰甚焉? 彼固不足與論於道學蹊逕 而如此昧正道尙異教之類 若不嚴加隄防 其流之害 安保其不爲馴致於感世而誣民乎? 此誠非世道之細憂 請祭酒鄭齊斗 亟命改正)-『영조실록』 권10, 2년 7월 기유

114) 정제두를 발탁하여 우찬성으로 삼았는데, 중비에 의한 것이었다. 이유를 부제학으로, 이진순을 도승지로, 최명상을 집의로, 홍계유를 정언으로 삼았다. 정제두는 평소에 양명학을 했는데, 인품이 공손하고도 근신하였기 때문에 세상에서 향원(鄕愿)이라고 지목하였다. 그러나 임금이 총애하여 특별히 우대하려 했기 때문에 이 제수가 있게 된 것이다.(擢鄭齊斗爲右贊成 中批也 以李瑜爲副提學 李眞淳爲都承旨 崔命相爲執義 洪啓裕爲正言 齊斗素爲陽明之學 而爲人恭謹而已 故世目爲鄕愿 而上欲寵異之 有是除)-『영조실록』 37권, 10년 3월 병신

115) 사학의 유생 7인이 태학에 들어가서 재임(齋任) · 재생(齋生)과 조관(朝官) 2인의 이름을 죽 벌이어 써서 신문에 붙이고 벌을 주니, 수재생들이 권당하였다. 대사성이 이 사실을 아뢰니, 임금이 하교하기를, "내가 처분을 내린 데에 감정을 품고 이러한 거조를 빚었으니, 어찌 현관을 더럽힐 수가 있겠는가? 사학의 유생 7인은 아울러 유적(儒籍)에서 삭제하고, 수창(首倡)한 자는 6년 동안 정거(停擧)시키며, 수종자(隨從者)는 4년 동안 정거시키도록 하라." 하고, 대사성 정우량(鄭羽良)에게 다른 유생들을 권유하여 학당에 들어가게 하라고 명하였다. 이에 사학의 유생들이 새벽에 모여서 벌을 줄 사람의 명단을 게시하고, 또 좨주(祭酒) 정제두와 대사성 정우량의 이름을 먹으로 지워버렸다.(學儒七人入太學 列書齋任 齋生及朝官二人名 付罰於神門 守齋生撤堂 大司成以聞 上敎曰 "慍懾處分 乃作此擧 豈可濁賢關? 學儒七人 幷刊儒籍 首倡者停擧六年 隨從者停擧四年" 命大司成鄭羽良勸入他儒 於是四學儒晨會揭罰神門 又墨削祭酒鄭齊斗 大司成鄭羽良名)-『영조실록』 권40, 11년 11월 신해

116) 정두영, 2006「숙종~영조 초 하곡정제두의 처세와 정치적 역할」, 『제3회 하곡학 국제학술대회-하곡과 한국양명학회의 전개-』, 한국양명학회, 92쪽

117) 숙종 때부터 정제두는 학행으로 천거와 벼슬이 내려졌고, 경종은 정제두에게 사신을 보내고 낙죽을 내려 안부를 챙겼다.(景宗 4年, 甲辰, 十月丁丑 遣掖庭人賜酪粥問安否)-『하곡집』 권10, 「연보」

118) 영조대 정제두의 적극적인 출처는 숙종대 탕평정국을 주도하던 박세채, 최석정 등은 세상을 떠났고, 그 후배인 조현명 등은 아직 그 정치적 역할이 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금의 자문을 감당할 원로가 정제두 외에 없었다. 정제두는 변란이 일어나고 나서 그동안의 처세와는 달리 자진하여 조정에 나왔다. 그것은 변란의 수습과정이 다시금 잔혹한 복수의 반복이 되지 않도록 막고, 오히려 이와 같은 사태를 기회로 삼아 정치와 나라를 바로잡고 정치원리를 유신(維新)할 것을 건의하기 위해서였다. 정제두는 1728년(무신) 3월 25일부터 5월 2일까지 여섯 차례의 경연에 참석하면서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탕평론을 영조에게 피력하였다. 그는 당쟁의 병폐를 직시하고 이것을 타개하는 일이 가장 시급한 정치적 과제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탕평에 힘쓰는 영조를 더욱 고무하여 파붕당(破朋黨)과 탕평의 의지를 적극적으로 펼치도록 격려하려 하였다.-정두영, 2006「숙종~영조 초 하곡정제두의 처세와 정치적 역할」, 『제3회 하곡학 국제학술대회-하곡과 한국양명학회의 전개-』, 한국양명학회, 92-93쪽 참조

119) 정일(精一)의 중(中)과 대중(大中)의 중(中)을 견지한 군주가 정국을 주도하되, 대신·현신을 등용하여 이들의 도움을 받는 정치이다.-앞의 논문, 93쪽

120) 앞의 논문, 94쪽

이러한 정제두를 영조는 때때로 사신을 보내 낙죽(酪粥)과 어의로 챙기는 등 각별하였다.[121] 정제두가 졸하자 사류들의 비판에도 영조는 문강(文康)이라는 시호를 내렸는데,[122] 그러나 사액만큼은 받지 못했다.[123] 이는 당대 정제두가 양명학자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기 때문에 빚어진 결과였다.

때문에 정제두 사후 그의 후학들은 양명학자라는 명성을 지우기에 급급했다. 78세 때 사헌부에서 지평(持平) 이정박의 탄핵을 받았을 때 정제두는 "저들(양명학)도 공자를 배운 자들이 아니겠는가? (취하고 취하지 않음은) 나의 권도(權道)에 있을 뿐이다."[124]하였는데, 「연보」의 찬술자인 신작은 이에 대해 "(선생의 학문을) 신건(新建)의 학(양명학)으로 돌리는 자는 망녕된 인간일 뿐"[125]이라고 일축하였다. 또한 문인이자 족인(族人)인 심육(沈錥)의 「행장」에서도 "평소에 명도(明道:程顥)의 말을 외우고 음미하여 「정문유훈(程門遺訓)」을 편찬하였고, 『정성서(定性書)』를 주해하였으니,(중략)… 세상 사람들은 혹 선생께서 신건의 학문을 위함인가 의심하기도 하였지만 이것으로 어찌 선생의 경중(輕重)을 견줄 수 있겠는가?"[126]라고 변호하였다. 「유사」에서도 "세상에서 공을 신건의 학을 한다고 의심하는 것은 대체로 또한 공의 본뜻이 간직하고 주장하는 것을 잘 모르기 때문이다."[127]라고 하여 정제두의 학문이 양명학이었음을 명시하지 않고 얼버무리거나, 또는 양명학이 아니었다고 변호하였다.[128]이는 노론 중심의 정국주도와 주자학일변도 속에서 그의 후학들은 양명학을 하지만 여전히 주자학자로 처신(外朱內王)할 수밖에 없었고, 스승인 정제두를 양명학자가 아니라고 변호 한 것이다.

> 정제두는 젊어서는 왕양명의 학설을 좋아했었는데 선배와 사우(士友)들이 서찰을 보내어 규책(規責)한 탓으로 마침내 정주(程朱)의 법문(法門)으로 돌아왔다. 그러나 평생 강설(講說)을 일삼지 않았고 논저(論著)를 즐겨하지 않았다고 한다." [129]

---

121) 영조는 4년 4월 신사삭(辛巳朔) 음식물과 땔감을 하사(四月辛巳朔 賜食物柴炭)를 시작으로 음식(갑신 4일에 음식물을 내리시었다. 甲申賜食物)과 낙죽을 하사하며 안부(영조 6년, 궁중에 있는 사람을 보내어 낙죽을 하사하고 안부를 물었다. 遣掖庭人賜酪粥存問)를 챙기는 등 자주 사관을 보내 살폈다.-『하곡집』 권10, 「연보」

122) 『영조실록』 권56, 18년 12월 기해

123) 경기 유학 박필일 등이 상소하여, 고 찬성 정제두의 원우(院宇)에 사액(賜額)하기를 청하였으나, 임금이 윤허하지 않았다.(京畿幼學朴弼一等上疏 請賜故贊成鄭齊斗院宇之額 上不許)-『영조실록』 권47, 14년 3월 무오

124) 彼獨非學孔子者耶 苟可取則取之 不可取則不取 惟在我之權度而已-『하곡집』 권10, 「연보」 영조 2년 병오

125) 歸之於新建學者 斯亦妄人而已-『하곡집』 권10, 「연보」 영조 2년 병오

126) 居常誦味明道之言 爲編程門遺訓 註解定性書(중략)… 世人或竊疑先生爲新建之學 而此於先生豈足爲輕重也哉-『하곡집』 권10, 「행장(行狀)」

127) 世之疑公以新建之學者 蓋亦不諒公本意之所存主也-『하곡집』 권10, 「유사(遺事)」

128) 정두영, 2006 「숙종~영조 초 하곡정제두의 처세와 정치적 역할」, 『제3회 하곡학 국제학술대회-하곡과 한국양명학회의 전개-』, 한국양명학회, 86쪽 참조

129) 齊斗少喜陽明之說 先輩士友貽書規責 卒歸於程 朱法門 然平生不事講說 不喜論著云- 『영조실록』 권42, 12년 8월 임신

이처럼 「졸기」에는 정제두가 주자학으로 전환하였다고 하였지만, 그러나 노론 후학들은 여전히 그를 양명학을 한 사람[130]으로 여겼다. 더욱이 정제두 사후 영조 18년에 이르러 시호가 내리자 사류들이 왕양명의 학문을 한 사람에게 시호를 주었다고 비난한 사실과 사관의 비판[131]에서 보듯, 정제두는 당대 모든 사류들이 양명학자라 부르기에 주저 없었고, 정제두는 명실 공히 조선의 양명학자였다.

Ⅳ. 맺음말

지금까지 한국양명학(韓國陽明學)에서 있어서 중요한 인물인 장유(張維)와 정제두(鄭齊斗)를 중심으로 시흥시(始興市)의 지역적 연고를 실증적으로 밝히는 한편, 한국양명학의 발원지로서의 역사적 사실과 위상을 살펴보았다. 양명학은 신유가(新儒家) 철학의 양대 주류였지만, 주희(朱熹)의 학설을 부정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조선(朝鮮)에서 크게 발달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인보(鄭寅普)는 『양명학연론』을 통하여 조선양명학자를 발굴하고 조명하였다.

한국양명학의 주된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시흥시라는 역사문화적 공간 속에서 장유와 정제두에 대한 시흥시 안에서의 본격적인 연구는 시사편찬과 시흥문화원을 중심(시흥지역문화세미나)으로 이루어졌다. 특히 기존의 연구가 정제두 사상과 강화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학파에 대한 연구가 중심이었다면, 시흥시에서 이루어진 연구의 중심은 장유와 정제두의 안산 거주의 실증을 토대로 이들의 사상이 시흥시에 미치는 가치와 의의를 밝힌 것이다.

이 글은 한국양명학의 중심에 있던 장유와 정제두의 안산, 즉 현재 시흥시에서의 지역적 연고를 실증하였다. 장유는 한국양명학에 있어서 당대 조선의 주자학 일변도의 학문적 풍토를 비판하면서 다양한 학문적 관심은 물론, 양명학을 받아들였던 한국양명학의 선유(先儒)였다. 이러한 장유

130) 양명학에 힘썼으며 입문에 비유하였는데 주자학은 서소문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양명학은 남대문으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말하였다(力主陽明之學 以爲比之入門 朱子自西小門入 陽明自南大門入云云)-『송자대전』 권13, 수차(隨箚), 「정사앙(鄭士昂)」 : 『송자대전수차』는 조선 말기의 문신 송근수(宋近洙)가 송시열의 『송자대전』 중에서 난해한 구절을 뽑아 주석을 붙인 책이다.

131) 정제두는 고 상국 정유성의 손자로 과환(科宦)을 일삼지 아니하여 청아한 절조(節操)가 있었다. 젊어서는 문순공 박세채를 좇아 수학(修學)했으며, 왕양명의 학문을 좋아하였다. 숙묘조때에는 여러 번 대헌(臺憲)을 거쳤고, 금상(今上)의 조정에서는 찬선과 좨주를 역임했다. 졸함에 미쳐 연신(筵臣)이 시장(諡狀)을 기다리지 말고 시호를 내려줄 것을 청하였는데, 이 때에 와서 아울러 그 시호를 더했던 것이다. 대저 전례(典禮)를 잘못 의논한 선비와 왕양명의 학문을 존숭(尊崇)한 사람인데도 아름다운 시호를 더하여 시법(諡法)이 점차 타락하니, 식자(識者)들이 자못 비난하였다.(齊斗 故相國維城之孫也 不事科宦 有淸雅之操 少從文純公 朴世采遊 而酷好王陽明之學 肅廟朝屢經臺憲 今上朝歷贊善 祭酒 及卒 筵臣請不待諡狀而賜諡 至是竝加其諡 夫以誤議典禮之儒 尊信陽明之學 而加之以美諡 諡法漸降 識者頗譏之)-『영조실록』 56권, 18년 12월 기해

가 시흥시와 지역적 연고를 맺게 된 것은 그 자신이 속한 덕수 장씨 가문이 그의 증조 이후 시흥시 장곡동 일원에 세장지를 가졌고, 그 역시 김직재 무옥으로 안골마을로 내려와 12년간 해장정사(海莊精舍)를 지어 살며, 이웃한 농민들과 어울리고 이를 시로 남기기도 하였다. 이후 인조반정에 참여함으로서 다시 조정에 중용되어 문명을 날렸으며, 그의 딸(인선왕후, 장곡동 출생)이 인조의 둘째 아들 봉림대군(효종)을 맞아 국혼을 하면서 그의 가문은 명실공히 조선의 명문가가 되었다. 이러한 장유는 시흥시 조남동 장군재에 묘가 있다.

장유의 양명학적 저술은 친구인 최명길과 달리 온전히 남을 수 있었다. 이는 그의 딸 인선왕후(仁宣王后)가 역대 조선의 국왕들의 혈친이 되며, 조선왕실의 존귀를 받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후 영의정 추증은 물론, 정조(正祖)가 1797년 8월 행행(行幸)에서 시흥지역을 거쳐 안산에서 묵을 때, 친히 장유의 치제문을 짓고, 치제하였다. 이렇듯 왕실의 비호로 장유의 저술들은 문집으로 만들어져 보존되었고, 특히 시흥시의 추곡마을에 들어와 살던 정제두가 그 저술들을 통해 학문적 성취를 이룰 수 있었던 밑바탕이 되었다.

한국양명학의 대종사로 학파(學派)를 이룬 정제두는 그간 강화(江華)를 중심으로 이야기되었다. 그가 강화로 이전하기 전, 시흥시 화정동 추곡(楸谷=가래울)에서 20년간 살면서 그의 호는 '추곡'으로 불렸다. 그리고 당시 지역에서 교유(交遊)한 저명한 인물로 조부의 묘소가 안산에 있던 스승 박세채와 그와 함께 소론의 영수였던 동산 윤지완과 친분이 두터웠다. 윤지완은 성혼의 제자 윤민헌의 손자이자 숙종(肅宗)의 총애를 받던 인물이다. 더욱이 그는 정제두를 따라 이웃한 곳에 살았던 친구 지포 박심의 장인이었다. 이렇게 정제두는 지역의 저명한 인물들과 교우관계를 맺고 그의 사상을 발전시켰다. 특히 추곡에서 스승 박세채, 윤증, 그리고 친구 최석정, 민이승, 박심과의 교우관계는 그의 사상인 양명학이 한층 깊어지는 계기가 되었다. 결국 이를 바탕으로 양명학의 큰 토대가 되는 『학변(學辨)』과 『존언(存言)』이 추곡에서 저술되었다. 시흥시의 추곡은 바로 이러한 학문적 성취를 이룬, 역사적인 곳이다. 아울러 정제두가 양명학에 심취하여 그 학문적 성취를 하는데 있어서 영향을 끼친 것은 양명학의 선유 장유였다. 그가 장곡동에서 12년간을 살았던 역사적 사실과 함께, 이는 시흥시가 한국양명학의 발원지(發源地)인 것이다.

부록. 안산 추곡시기의 정제두 행력[132]

숙종15년(1689) 기사 41세	· 2월에 부임하였다(평택 현감) 어머니의 분부 때문에 부임 · 4월에 벼슬을 버리고 돌아와서 관리에게 문초(問招)를 받았다. 이이(李珥), 성혼(成渾)이 문묘에서 축출되자 못마땅하게 여겨 안산(安山) 추곡(楸谷)에 돌아와 안사(按使)가 직무 이탈을 이유로 문죄 · 7월에는 죄가 용서되었으므로 안산(安山)으로 돌아와서 살았다. 추곡에 집을 짓고서 살기 시작하였다. · 겨울에 모 부인을 뵈러 장성(長城)에 갔다. · 답이경익서 정겸 기사(答李景益書 廷謙 己巳)
16년(1690) 경오 42세	· 정월에 어머님을 뵙고서 그곳에서 돌아왔다. 어머님 회갑(回甲)
17년(1691) 신미 43세	· 황고(皇考 돌아가신 아버님, 정상징)를 강화(江華)로 옮겨 장사하였다. 추곡에서 이장 · 윤 부인의 묘를 천안(天安)으로 옮겨 장사하였다. 첫번째 부인 · 겨울에 어머님을 뵈러 장성(長城)에 갔다. · 상박남계서 신미(上朴南溪書 辛未) 43세 전후로 학변(學辯), 존언 상중하(存言 上, 中, 下) 저술
18년(1692) 임신 44세	· 어머님을 모시고 돌아왔다. 서울 집에서 추곡(楸谷)으로 모심 · 답윤재서 임신(答尹明齋書 壬申)
19년(1693) 계유 45세	· 답최여화서 석정 계유(答崔汝和書 錫鼎 癸酉)
20년(1694) 갑술 46세	· 1월에 황비(皇妣 돌아가신 어머니-한산이씨) 이씨(李氏)가 졸거하여 4월 모갑(某甲)에 추곡(楸谷)에 장사하였다. 아우인 부윤공(府尹公 제태)이 관서(關西)로 귀양에서 돌아오는 것을 기다려 함[133] · 답박남계서 갑술(答朴南溪書 甲戌)
21년(1695) 을해 47세	· 2월에 남계(南溪) 박 선생(세채)에게 조곡(哭)하였다. 스승상 · 답윤상국서 지완 을해(答尹相國書 趾完 乙亥)
22년(1696) 병자 48세	· 6월 임진에 서연관(書筵官)에 뽑혔으나 상소하여 사직하였다. · 이조판서 최공(崔公) 석정(錫鼎)이 선생을 조정에 천거하였다 · 성재(誠齋) 민공(閔公)에게 곡(哭)하였다. 친구상 · 11월 계유에 경기도사(京畿都事)에 임명되었으나 사임하였다. · 사서연관소 병자(辭書筵官疏 丙子) · 답정경유서 찬휘 병자(答鄭景由書 纘輝 丙子) · 여박대숙서 병자(與朴大叔書 丙子) · 여이군보서 병자(與李君輔書 丙子) · 상윤명재서 병자(上尹明齋書 丙子) · 답박대숙논천명도서 심 병자(答朴大叔論天命圖書 □ 丙子)

132) 「하곡집」과 심우일, 2015「안산 거주시기 하곡 정제우의 삶과 학문」,『제3차 시흥지역문화세미나』, 시흥문화원을 참조하였다. 부록(안산 거주기의 하곡 연보)에 실은 서찰(書札)들은 정확하게 작성 연도가 기록된 것만 수록하였다.

133) 병조정랑 정제태가 연달아 기조에 임명되었으나 임금에게 숙배하지 않으므로, 임금이 전교를 내려 엄중하게 책망하면서,"제가 감히 오늘날의 조정을 혼미하고 문란한 것같이 여기고, 조정에 벼슬하지 않기로 맹세하며 당을 위해서 죽기를 달갑게 여기니, 정상이 너무나 원망스럽다. 관직을 삭탈하고 변방으로 옮겨서 영원히 변방의 백성이 되게 하라."하였다.(兵曹正郎鄭齊泰 連除騎曹 不爲出肅 上 下敎嚴責 以爲渠敢以今日朝廷 有若昏亂者然 矢不立朝 甘心死黨 情狀萬萬痛惋 削職徙邊 永作邊氓)-『숙종실록』 권25, 19년 10월 무자

23년(1697) 정축 49세	· 8월 모갑(某甲)에 황비(皇妣 돌아가신 어머니, 한산이씨)를 진강(鎭江, 강화)으로 옮겨 장사하였다. · 남계 선생(南溪先生)의 묘에 제사하였다. · 여김여화서 정신(與金汝和書 鼎臣 丁丑) · 답김직경 간 논화담집후서서 정축(答金直卿 □ 論花潭集後書書 丁丑) · 제남계박선생문 정축(祭南溪朴先生文 丁丑) · 상명제서 정축(上明齋書 丁丑) · 답윤명재서 정축(答尹明齋書 丁丑) · 답모서 정축(答某書 丁丑) · 여정명부서 상박 정축(與鄭明府書 尙璞 丁丑)
24년(1698) 무인 50세	· 3월에 광주군에게 곡하였다. 아우 정제태(鄭齊泰, 광주부윤)상 · 11월 경인에 세자익위사익찬(世子翊衛司翊贊)에 임명되었는데 사임하였다. · 제민성재이승문 무인(祭閔誠齋以升文 戊寅)
25년(1699) 기묘 51세	· 상윤명재서 기묘(上尹明齋書 己卯) · 제이감사문■■ 기묘(祭李監司■■文 己卯) · 답정경유문목 기묘(答鄭景由問目 己卯) · 답민여유서 윤창 기묘(答閔汝猷書 允昌 己卯)
26년(1700) 경진 52세	· 정월 계해(29일)에 부인 서씨(徐氏)가 졸거하였다. 안산 추곡에 권조(權厝 임시로 장사함) · 경자에 삭녕 군수(朔寧郡守)에 임명되었는데 사임하였다. · 10월에 여주(驪州)에 갔다. 자형 민진주(鎭周) 장례식 회장(會葬), 광주군을 지평(砥平)에 옮겨서 장사 · 답이군보서 경진(答李君輔書 庚辰) · 제매형민판서문 경진(祭妹兄閔判書文 庚辰)
27년(1701) 신사 53세	· 8월 기사(15일) 인현왕후(仁顯王后)가 승하(昇遐)하여 분곡(奔哭)하였다. 대궐 밖에 달려가 산반(散班)에서 곡 · 답최여화서 신사(答崔汝和書 辛巳) · 답민여유서 신사(答閔汝猷書 辛巳)
28년(1702) 임오 54세	· 12월 병오에 사도시 주부(司導寺主簿)에 임명되었다. · 답윤명재서 임오(答尹明齋書 壬午) · 답민여유서 임오(答閔汝猷書 壬午)
29년(1703) 계미 55세	· 정월에 충정공의 시호가 내린 데 대하여 사은(謝恩)하였고 얼마 후에 주부직(主簿職)을 사임하였다 · 제홍영천우상문 계미(祭洪永川禹相文 癸未) · 답최여화서 계미(答崔汝和書 癸未) · 답민여유서 계미(答閔汝猷書 癸未)
30년(1704) 갑신 56세	· 답최여화서 갑신(答崔汝和書 甲申) · 답최여화문목 갑신(答崔汝和問目 甲申) · 답민여유서 갑신(答閔汝猷書 甲申) · 여최여화서 갑신(與崔汝和書 甲申)
31년(1705) 을유 57세	· 2월 계사에 종부시주부(宗簿寺主簿)에 임명되었는데 사임하였다. · 답최여화서 을유(答崔汝和書 乙酉) · 상윤명재서 을유(上尹明齋書 乙酉) · 여최여화서 을유(與崔汝和書 乙酉) · 여최여화문목 을유(與崔汝和問目 乙酉) · 답민효창서 을유(答閔孝昌書 乙酉) · 답민여유서 을유(閔汝猷書 乙酉)

32년(1706) 병술 58세	· 봄에 판부사(判府事) 윤공(尹公) 지완(趾完)이 선생을 조정에 추천하였다. · 7월에 사헌부장령(司憲府掌令)에 임명되었는데 세 번 상소를 올려서 체직되었다. · 7월 정묘에 사헌부 장령(司憲府掌令)에 임명되었는데 세 번 상소를 올려서 체직되었다. · 답윤명재서 병술(答尹明齋書 丙戌) · 여이경익서 병술(與李景益書 丙戌) · 사장령소 병술칠월(辭掌令疏 丙戌七月) · 답박자룡 양한 병술(答朴子龍書 亮漢 丙戌) · 여최여화서 병술(與崔汝和書 丙戌) · 답용인종인서 병술(答龍仁宗人書 丙戌)
33년(1707) 정해 59세	· 10월 무술에 사복시정(司僕寺正)에 임명되었는데 사임하였다. · 제박지포심문 정해(祭朴芝浦□文 丁亥) · 답민여유서 정해(答閔汝猷書 丁亥) · 답이병연서 진병 정해(答李炳然書 震炳 丁亥) · 답최여화서 정해(答崔汝和書 丁亥)
34년(1708) 무자 60세	· 봄에 지포(芝浦) 박공(朴公)에게 곡하였다. · 3월 을미에 장령(掌令)에 임명되었으나 세 번 소를 올려서 체직되었다. · 7월 을유에 사헌부 집의(司憲府執義)에 임명되었는데 세 번 소를 올려서 체직되었다. · 여최여화서 무자(與崔汝和書 戊子) · 답이병연서 무자(答李炳然書 戊子) · 사장령소 무자이월(辭掌令疏 戊子二月) · 사집의소 무자칠월(辭執義疏 戊子七月) · 답이계장서 인엽 무자(答李季章書 寅燁 戊子)
35년(1709) 기축 61세	· 2월에 요사(夭死)한 장손(長孫)을 곡하였다. · 7월 을미에 세자익위사 익위(世子翊衛司翊衛)에 임명되었다. · 8월에 강화(江華) 하곡(霞谷)으로 옮겨서 살았다.[134] · 9월 신사에 집의(執義)로 천직(遷職)되었는데 두 번 소를 올려서 사퇴하였다. · 10월 계묘에 통정대부(通政大夫) 호조참의(戶曹參議)에 발탁되어 임명되었는데 세 번 소를 올려서 사퇴하였으나 허락되지 아니하였다.[135] · 상께서 몸이 미령(未寧)하시어 강교(江郊)에 나아가서 문안을 드렸다. · 여김여화서 기축(與金汝和書 己丑) · 상윤명재서 기축(上尹明齋書 己丑) · 답이경익서 기축(答李景益書 己丑) · 사집의소 기축구월(辭執義疏 己丑九月) · 사호조참의소 기축시월(辭戶曹參議疏 己丑十月)

134) 선생은 장손이 요사하는 변을 당하자 몹시 슬퍼하였으며 따라서 선묘 가까운 곳에 살고자 하여 이곳으로 이사하였다. 선생은 깊이 외물에 힘쓰거나 명예를 숭상하는 것을 경계하였으며 학도들이 배우고자 하여 찾아오는 것도 기쁘게 여기지 아니하였던 것이다. 일찍이 서울에 머물고 있을 때에는 문하(門下)에 배우기를 청하는 자가 약간 있었는데 그 뒤 안산에서 섬중으로 옮겨 살게 된 뒤로는 거의 세상 사람과 상종이 끊겼고 비록 더러 사모하여 종유하려는 이가 있다 하더라도 또한 왕래하기가 험악하여 쉽사리 오갈 수가 없었으므로 선생의 문장에 출입하는 이는 더욱 적었던 것이다. 선생의 뜻은 다만 스승의 도를 자처하고자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또한 말세에는, 쉽게 높아지고 명실은 분변하기가 어렵게 되니 세도의 폐단을 또한 경계하지 않을 수 없었던 때문이었다.(先生遭長孫殤悲哀 仍欲依近先墓 遷居于此 先生深以務外循名爲戒 不喜延款生徒 曾留都下時請業及門者畧干人 其後從安山移入島中 幾與世人隔絶 雖有傾慕從游者 亦不能涉險往來 以是出入門墻者尤尠 蓋先生之志不但不欲以師道自處 亦以末世易高 名實難辨 世道之弊 亦不可不戒故也)-『하곡집』 권10, 「연보」

135) 이때 대신들이 모두 임금께 아뢰었고 또한 윤공의 천거한 글을 인용하여 발탁해서 승진시키기를 청했던 까닭에 이 명령이 있었다. 선생의 상소문에 대략 이르기를, "신의 집안은 대대로 은총을 받음이 가장 무거웠으므로 참으로 옛사람과 같이 나라에 생명을 바칠 의리가 있습니다만 재분이 둔하고 용렬하여 여러 번 과거에도 성공하지

참고문헌

『계곡집(谿谷集)』

『고려사(高麗史)』

『광해군일기(光海君日記)』

『만성대동보(萬姓大同譜)』

『명곡집(明谷集)』

『명재선생유고(明齋先生遺稿)』

『서당사재(西堂私載)』

『선조실록(宣祖實錄)』

『송자대전(宋子大全)』

『숙종실록』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영조실록(英祖實錄)』

『인조실록(仁祖實錄)』

『정조실록(正祖實錄)』

『택당집(澤堂集)』

『하곡집(霞谷集)』

『현종실록(顯宗實錄)』,『개수실록(改修實錄)』

『효종실록(孝宗實錄)』

고재형, 역자 김형우 · 강신엽, 2008 『역주 심도기행』, 인천학연구원 · 도서출판 아진

기전문화재연구원, 2000「시흥시의 역사와 문화유적」,『기전문화재연구원 학술총서 제2집』, 수원, 경기출판사

김교빈, 1995『양명학자 정제두의 철학사상』, 도서출판 한길사

김교빈, 1995『양명학자 정제두의 철학사상』, 도서출판 한길사

김덕균, 2015「하곡학의 효제윤리와 인성교육」,『제4차 시흥지역문화세미나』, 시흥문화원

김윤경, 2013「국내 한국 양명학 연구 경향에 대한 반성적고찰」,『양명학』제35호, 한국양명학회

노승석, 2014「지포 박심에 대한 일고찰 연구」,『양명학』39호

못하였는데 천장까지 있게 된 것은 더욱이 부끄럽고 송구한 바이옵니다. 더욱이 또한 외람되게 낭서(郎署)의 명을 받았고 시골에서 직무를 받들었는데 비록 사의의 만 분의 일도 보답할 수 없었다 하더라도 천한 분수로서는 이미 과분했던 것입니다. 재주도 없는 것이 게다가 병이 많아서 직책을 감당하지 못하겠사옵기에 스스로 달게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러하온데, 벼슬에 뜻을 끊고 초야에 숨어서 살겠다고 하온 것은 신이 벼슬을 않음으로써 고고(孤高)하다고 생각하고 물러남으로써 뒤에 벼슬에 나아가는 기연으로 삼는 것은 옛사람도 두려워했던 바이옵니다."라고 하였다. 계속 세 번 소를 올렸는데 상께서는 우악한 비지를 내리시고 모두 허락하지 아니하였다. 소는 모두 문집에 보인다.(時大臣陳白且 引尹公鷹章請陞擢 故有是命 先生上疏署曰 臣家世遭遇 受恩最重 實有古人死國之義 而才分忒劣 屢擧無成 至於鷹章 尤所愧懼 猶且冒承於郎署 奉職於下邑 雖不足效私義之萬一 其在賤分則已極矣 不才多病 未堪職事 甘自廢棄 而乃云絶意仕宦 屛處田里 是臣不仕而爲高 以退而媒進 此古人之所懼也 連三疏上 優批皆不許 疏幷見集)-『하곡집』 권10, 「연보」

논산문화원, 2001『지조를 지킨 선비 명재 윤증』
송석준, 2001「한국 양명학의 형성과 하곡 정제두」,『양명학』 제6호
송석준, 2004「조선조 양명학의 수용과 연구현황」,『양명학』제12호, 한국양명학회
시흥문화원, 2006『始興市地名由來』
시흥문화원, 2009『장곡동의 어제와 오늘』, 시흥시향토사료실
시흥문화원, 2014『시흥문화』17
시흥문화원, 2015『사람으로 보는 우리 마을』
시흥문화원, 2016『제5차 시흥지역문화세미나-추곡 정제두와 양명학』
시흥문화원, 2016『제6차 시흥지역문화세미나-시흥시와 양명학』
시흥시, 2013『시흥문화유산』
시흥시사편찬위원회, 2007「시흥의 전통시대」,『시흥시사』2
심우일, 2015「안산 거주시기 하곡 정제두의 삶과 학문」,『제3차 시흥지역문화세미나』, 시흥문화원
안산시사편찬위원회, 2011「학문과 예술, 그리고 문화유산」,『안산시사』4권
윤남한, 1982『조선시대의 양명학 연구』, 집문당
윤사순, 2012『한국유학사』상, 지식산업사
윤한택, 2008년 12월 09일,「89. 하곡 정제두 -학문 · 덕행 뛰어난 국내파 양명학의 태두-」,『경기일보』기사 http://www.kyeonggi.com/news/articleView.html?idxno=313538
이병권, 2014「1797년 8월 행행(行幸)과 정조사적(正祖史蹟) 고찰(考察)-시흥지역을 중심으로-」,『京畿鄕土史學』제19집, 京畿道文化院聯合會
이병권, 2015「시흥군(始興群) 수암면(秀岩面) 3 · 1운동과 윤동욱(尹東旭)의 사상(思想)」,『京畿鄕土史學』제20집, 京畿道文化院聯合會
이상은,1973『하곡집(霞谷集)제1집해제(解題)』,한국고전종합DB
이승언, 1995,「시흥의 인물과 행적」,『시흥향토문화총서』2, 시흥시
정두영, 2006「숙종~영조 초 하곡정제두의 처세와 정치적 역할」,『제3회 하곡학 국제학술대회-하곡과 한국양명학회의 전개-』, 한국양명학회
정인보, 역자 홍원식, 2004『양명학 연론』, 계명대학교출판부
정인재, 2014『양명학의 정신』, 세창출판사
정인재, 2015「시흥의 문화를 이끌어 갈 정신적 지주는? -양명학자 장유, 정제두의 사상을 중심으로-」,『제4차 시흥지역문화세미나』, 시흥문화원
천병돈, 2007「하곡학 연구 현황 분석」,『양명학』제19호, 한국양명학회
최재목, 이상훈 2006「'강화양명학'연구를 위한 기초자료 정리」,『양명학』제16호, 한국양명학회
한국사특강편찬위원회, 2008『한국사특강』, 서울대학교출판부
2013년 12월 9일「박문수 종조부 박심은 조선 양명학의 대가-노승석 여해고전연구소장 밝혀-」,『동아일보』기사 http://news.donga.com/3/all/20131208/59418023/1
조선왕조실록 sillok.history.go.kr

한국고전번역DB http://db.itkc.or.kr/itkcdb/mainIndexIframe.jsp

한국양명학회 http://www.ymhh.or.kr/modules/doc/index.php?doc=intro

한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encykorea.aks.ac.kr/

韓國의 烽燧 現況

- 第2炬 路線의 直烽現況 -

윤 종 준 (성남학연구소 상임위원)

목 차

Ⅰ. 머리말

Ⅱ. 第2炬 直烽의 烽燧 現況

Ⅲ. 第2炬 直烽의 烽燧 特徵

Ⅵ. 맺는 말

집필자

윤 종 준 성남문화원 부설 성남학연구소 상임위원

Ⅰ. 머리말

조선시대(朝鮮時代)의 군사통신(軍事通信) 수단을 대표하는 것으로 조선왕조 500여 년 간 국가적인 기간통신망으로 운영 하였던 봉수제(烽燧制)가 있었다. 봉수는 烽[횃불 · 炬]과 燧[연기 · 煙]로 국경과 해안의 안위(安危)를 약정된 신호전달 체계에 의해 본읍(本邑) · 본영(本營) · 본진(本鎭)이나, 중앙의 병조(兵曹)에 전달하던 군사통신 수단이었다. 한국의 역사에서 이미 삼국시대부터 활용되기 시작한 후 고려시대에 이르러서 정례화 되었다. 이후 조선 세종대에 크게 정비되어 고종 32년(1895)까지 국가적 규모로 운영되었다. 이 때문에 봉수제도는 전 근대 사회에서의 정보통신 체계로서 가장 발전된 형식을 가진 것이 조선왕조시대였다.[1] 명칭 상 이른 시기에는 달리 봉화(烽火) 혹은 연대봉화(煙臺烽火)라고도 하였다. 봉화 앞에 연대를 표기한 것은 언뜻 연변봉수를 의미하는듯하나 실제는 내지봉수와도 혼용하였기에 이를 일률적으로 단정 짓기 곤란하다. 후기에는 봉대(烽臺) · 봉돈(烽墩) · 봉(烽) · 연대(煙臺) · 요망(瞭望) · 요망대(瞭望臺) · 별망(別望) · 망(望) · 돈대(墩臺) 심지어는 해망(海望)으로도 표기한 경우도 있으나 모두 유사한 의미이다. 다만 지지(地誌)와 고지도(古地圖)의 기록 유무, 중앙으로의 연결 및 상시 · 지속 여부에 따라 의미는 달라진다. 중국에서는 이리[狼]의 똥을 사용하였기에 달리 낭화(狼火) 혹은 낭연(狼煙)이라고도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입수의 곤란으로 인해 대신 말똥[馬糞]과 소똥[牛糞]을 말려 여러 가지 거화재료와 함께 섞어 사용하였다. 이러한 봉수는 위험을 경고하는 기능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조선시대에 일반 백성들은 매일 피어오르는 1거의 봉수[2]를 바라보면서 만사가 안전하고 평화롭다고 여겨 생업에 종사하였다. 또한, 봉수는 조선시대 식자층(識者層)이었던 문인(文人)들에 의해 詩의 소재로 인용되어 그 내용이 그들이 남긴 문집(文集)에 남아 있다.[3] 이외에도 조선 말기에 서양인(西洋人)들이 황혼 무렵 한양의 목멱산(木覓山, 남산)에서 피어오르는 봉수를 바라보고 느낀 경이로움과 기능에 대한 내용이 그들의 견문록(見聞錄)으로 남겨지기도 하였다.[4]

현재 한반도 남부지역에는 약 500여기의 봉수 터가 동 · 남 · 서해 연안의 만(灣)이나 곶(串)뿐만 아니라 도서(島嶼) 혹은 육지내륙의 산정(山頂)이나 산중(山中)에 소재하고 있다. 이들 봉수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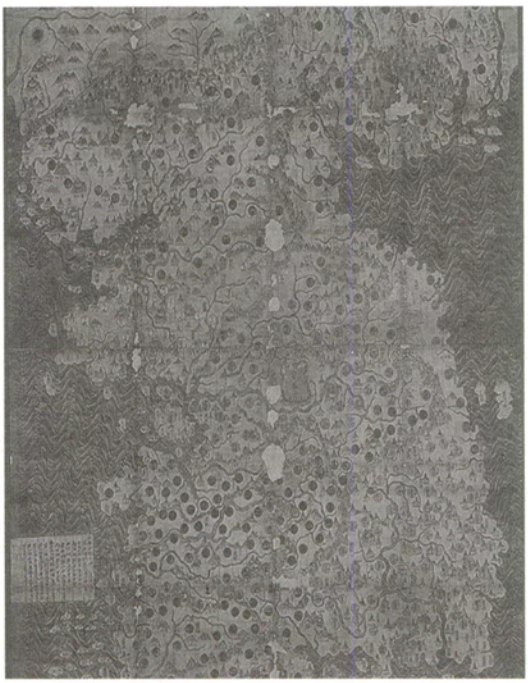
1) 車勇杰, 「봉수」, 『한국성곽연구회 학술대회』(叢書5), 한국성곽연구회, 2004, p.1.

2) 이를 平安火라 한다.

3) 대표적으로 『虛白亭集』 · 『十淸集』 · 『鵝溪遺稾』 · 『東岳集』 · 『澤堂集』 · 『靑莊館全書』 · 『月洲集』 · 『三淵集』 등이 있다.

4) Percival Lowel, 『Choson, The Land of the Morning Calm』, 1884.
Arnold H. Savage-Landor, 『Choson, The Land of Morning Calm』, 1884.
Horace N. Allen, 『Things Korean』, 1908.

성격에 따라 경봉수(京烽燧)·내지봉수(內地烽燧)·연변봉수(沿邊烽燧)·권설봉수(權設烽燧) 등으로 구분된다. 이들 봉수는 성격에 따라 각각 구조·형태와 규모를 달리한다. 이중 제2거 노선은 횃불을 처음 올리는 주연(晝煙)의 초기 봉수가 연변봉수(沿邊烽燧)이다. 이것이 차차거화(次次炬火)를 통해 육지 내륙 쪽으로 가까워지면 내지봉수화(內地烽燧化)하며 최종 수도 한양에 가까워질수록 연기(煙氣)를 이용한 야화(夜火)였다. 봉수는 과거 교통·통신수단이 발달하지 못하였던 시대에 국가의 중요한 군사통신 수단이었다. 따라서 봉수제가 확립되어 본격적으로 사용되었던 조선시대에는 중도폐절(中途廢絶)을 막기 위한 논의와 봉수망의 유지와 보수를 통해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져 왔다. 고종(高宗) 31년(1894) 갑오경장(甲午更張)을 계기로 봉수제(烽燧制)가 폐지되기에 이르고, 이듬해 각 처의 봉대(烽臺)와 봉수군(烽燧軍)제도가 폐지되었다.[5] 그러므로 본고는 봉수제의 폐지 이후 120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한국의 봉수를 조선 세종대에 확립된 전체 5거제 중 제2거 노선의 직봉(直烽)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각 장별로 살펴보고자 한다. 조선시대의 봉수는 전국을 5거(炬)의 직뻥 노선과 그 사이를 연결하는 간봉(間烽)으로 연결하여 거미줄과 같은 연락망을 갖추고 있었다. 그 중 제2거 직봉은 별도로 10개 노선의 간봉(間烽)을 두었는데 간봉까지 다루기에는 범위가 넓고 필자의 여력이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지도. 『해동팔도봉화산악지도』의 조선시대 봉수망

본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조선왕조 시대이며, 공간적 범위는 조선왕조의 영역이었던 한반도 남부지역 내 경상도·충청북도 및 서울을 포함한 경기권이다. 대상은 제2거 직봉 노선의 44기이다. 본고에서 표기하는 봉수 명칭은 최후기 발간 지지(地誌)의 기록과 고지도에 표기된 명칭을 따랐다.

우선 제 I 장에서는 봉수의 개요와 성격에 의한 구분 및 집필방향을 위에서처럼 소개하였다. 제 II장에서는 제2거 직봉의 봉수를 노선별, 구조별·형태별, 해발고도별, 명칭별로 현황을 소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타 노선과 비교되는 제2거 직봉 노선의 봉수현황을 이해하는 계기가 되고자

5) 命各處烽臺烽燧軍廢止 軍部奏請也 (『高宗實錄』 卷32, 32年5月)

한다. 제Ⅲ장에서는 앞장에서 살펴 본 현황을 중심으로 제2거 직봉의 봉수가 지니고 있는 특징을 검토하고자 한다. 제Ⅳ장에서는 앞에서의 분석과 정리를 다시 종합하여 특징을 소개하고, 활용방안 및 결론으로 제시하였다.

Ⅱ. 第2炬 直烽의 烽燧 現況

조선시대 최후기 봉수망을 알 수 있는 『增補文獻備考(증보문헌비고)』(1908)의 제2거 노선은 직봉(直烽)과 10개소의 간봉(間烽)으로 이루어져 있다. 소백산맥의 주요한 영로(嶺路)를 넘는 노선이 모두 봉수로(烽燧路)가 되었으며, 가장 동쪽의 죽령(竹嶺)을 넘는 노선이 직봉(直烽)이 되고, 중앙의 통로인 계립령(鷄立嶺)을 넘는 노선과, 보다 서쪽의 추풍령(秋風嶺)을 넘는 노선이 주요 간봉(間烽)이었다. 따라서 제2거 노선의 경우 직봉(直烽)과 간봉(間烽)은 그 중요성에 있어서 구분의 여지가 적었으며, 동남쪽 해안지역에서 최대한 빨리 경보를 서울 한양 도성(漢陽都城)으로 연락하기 위한 방법이었다.[6] 제2거 각 노선의 봉수가 초기(初起)하거나 소재하였던 곳은 울진·삼척·영덕·포항·울산·부산·창원·진해·마산·거제·고성·통영·사천·남해 등 경상도의 동·남해 연안이다. 이들 지역에는 연변봉수(沿邊烽燧)와 권설봉수(權設烽燧)가 혼재하고 있다. 또한, 시기적으로 치폐(置廢)와 이설(移設) 및 복설(復設)을 통해 초축 시기와 대응봉수를 달리한다. 이외에도 동·남해안 별로 해발고도와 구조 및 평면 형태에서 차이가 뚜렷하다. 신호전달 체계상 중앙으로 연결되는 노선의 봉수는 경상 → 충청 → 경기 등 산지가 많은 내륙의 고지로 북상하면서 구조·형태가 점차 내지화(內地化) 하고 있다. 아울러 연변과 내지의 접점지역(接點地域)에 있는 봉수는 입지·형태적으로 연변과 내지의 복합형태(複合形態)를 띠고 있다. 이중 본장에서 설명하려는 『증보문헌비고』의 제2거 직봉은 부산 다대포진(多大浦鎭) 응봉(鷹峰)에서 초기하는 연변봉수(沿邊烽燧) 및 내지봉수(內地烽燧)로 구성되어 있으며 수량은 총 44기이다. 구봉(龜峰) → 황령산(荒嶺山)을 거쳐 계명산(鷄鳴山)에 이르면 내지화가 시작된다. 그다음 경남 양산 위천(渭川)부터 경기도 성남 천림산(天臨山)에 이르기까지의 40기는 석축의 연조(煙竈)와 방호벽(防護壁)을 갖춘 내지봉수의 형태이다. 지역별로는 부산·경남·경북·충북·경기·서울로 이어진다. 해발고도면에서 해발고도가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봉수는 단양 죽령산봉수(竹嶺山烽燧) 722m이며, 가장 낮은 곳에 위치한 봉수는 충주 마산봉수(馬山烽燧) 150.2m이다. 죽령산 봉수는 해발고도가 높은 곳에 있는 만큼 대응봉수가 위치하는 곳이 영주 망전산(望前山) 240m, 단양

6) 忠北大學校 中原文化硏究所, 『聞慶 炭項烽燧 地表調査報告書』, 2002, p.21.

소이산(所伊山) 435m로 낮다. 반면 충주 마산(馬山)봉수는 해발고도가 낮은 곳에 있는 만큼 대응봉수가 위치하는 곳이 충주 심항산(心項山, 종댕이산) 337m, 음성 가섭산(迦葉山) 709.9m로 높다. 명칭 상 44기의 봉수가 위치한 산명을 보면 봉화 혹은 봉수와 관련되어 봉화산 · 봉대산 · 봉화재 · 봉우재 · 봉우동 · 봉우성 · 봉우산 · 봉수산 등으로 현대에도 다양하게 지칭 및 표기되고 있다. 이 중 가장 많이 사용되는 명칭은 봉화산(烽火山)으로 8기이다. 이 중에는 봉수가 성내(城內)에 위치하는 경우 현재까지도 성내산봉수(城內山烽燧) 혹은 석성산봉수(石城山烽燧)로 표기 및 지칭되고 있다. 이는 봉수가 과거 우리 조상들의 옛 호국 군사통신 유적으로 산성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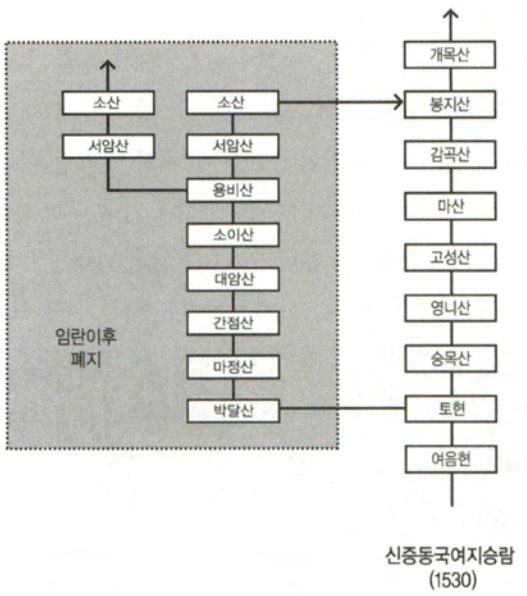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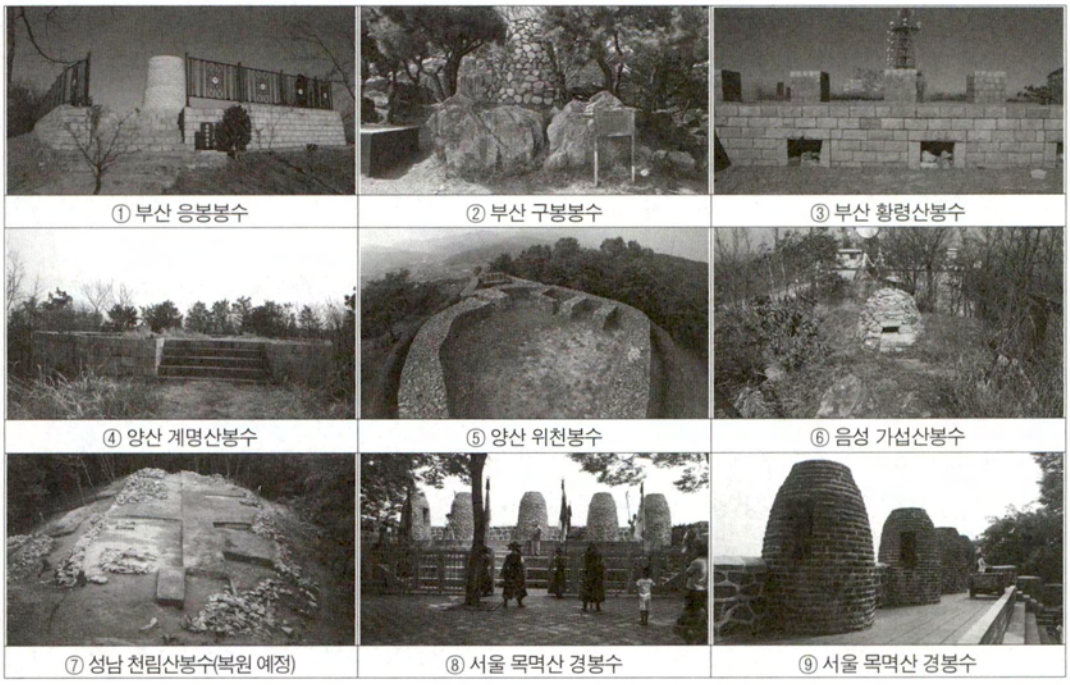
표 II-1. 임진왜란 후 제2거 直烽봉수의 노선변화 사례(문화재청)

최근 문화재청의 전국 봉수유적 기초학술조사[7]를 통해 파악한 노선 전체의 길이는 약 436.6km에 달하며, 대응봉수(對應烽燧) 간 평균거리는 약 10.15km이다. 제2로 직봉노선에서 대응봉수간 거리가 가장 먼 곳은 음성 망이성 봉수(望夷城烽燧)와 용인 건지산 봉수(巾之山烽燧) 구간으로 21.9km 정도이다. 또한 대응봉수간 거리가 가장 짧은 곳은 의성 계란현봉수(鷄卵峴烽燧)와 마산봉수(馬山烽燧) 구간으로 3.26km에 불과하다. 대응봉수간 거리가 멀수록 대응봉수의 해발고도가 높은 곳에 있으며, 거리가 가까울수록 대응봉수의 해발고도가 낮은 곳에 있다는 특징이 있다. 『增補文獻備考(증보문헌비고)』에 기재된 제2거 직봉노선은 조선 후기에 최종 정립된 봉수망으로 조선 전 기간 동안 구간별로 치폐(置廢)와 이설(移設)을 통해 몇 차례의 조정과정을 거친 결과이다. 노선변화 중 가장 두드러진 내용을 살펴보면, 조선 중기까지 제2거 직봉노선에는 경북 군위 토을산[吐峴(토현)]봉수에서 분기한 뒤 의성 서부지역과 예천지역을 돌아 다시 안동 봉지산[烽枝山=안동 남산]봉수에서 합류하는 지선(支線)이 운영되었으나, 임진왜란 이후 모두 폐지하였다. 이것은 임진왜란(壬辰倭亂)과 정유재란(丁酉再亂)이라는 7년에 걸친 큰 전쟁을 겪으면서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봉수를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

7) 문화재청, 『전국 봉수유적 기초학술조사』, 2015, p.33.

다음의 표II-2와 3을 통해 제2거 직봉의 초기 봉수인 부산 응봉을 비롯한 부산 소재 연변봉수 3기와 이후의 계명산 · 위천 등 5기는 모두 과거 사실과 다른 모습으로 복원되어 과거 원형을 알 수 없게 되었다. 이 중 [표II-2의 ③] 부산 황령산봉수는 마치 부엌의 아궁이 모습 같은 형태이다. 부산 이후 내지봉수로서 복원된 사례는 충북 음성 가섭산(迦葉山)봉수 1기가 유일하며, 경봉수(京烽燧)인 서울의 목멱산봉수(木覓山烽燧) 역시 과거 수원의 화성봉돈(華城烽墩)과 유사한 형태로 복원되어 있다.

경기도 내 성남 천림산봉수(天臨山烽燧, 경기도기념물 제179호)는 과거 3차의 지표 · 발굴조사를 토대로 본격적인 정비 · 복원을 추진 중에 있어 2017년에는 복원된 모습을 보게 될 예정이다.



① 부산 응봉봉수 ② 부산 구봉봉수 ③ 부산 황령산봉수

④ 양산 계명산봉수 ⑤ 양산 위천봉수 ⑥ 음성 가섭산봉수

⑦ 성남 천림산봉수(복원 예정) ⑧ 서울 목멱산 경봉수 ⑨ 서울 목멱산 경봉수

표II-2. 제2거 직봉노선의 복원 봉수

연번	봉수 명칭	주 소	해발고도 (m)	산명	성격	소속 군현	복원 여부
1	응봉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동 산31-3	233.7	아미산	연변	多大浦鎭	○
2	구봉	부산광역시 서구 동대신동 3가 산1-2	408	구봉산	연변	多大浦鎭	○
3	황령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전포동 산50-18	427	황령산	연변	釜山鎭	○
4	계명산	부산광역시 금정구 청룡동 산2	504	계명봉	내지	釜山鎭	○
5	위천	경상남도 양산시 상북면 석계리 산20-5	315	봉화산	내지	梁山	○
6	부로산	울산광역시 삼남면 교동리 산90	350	봉화산	내지	彦陽	
7	소산	울산광역시 두서면 서하리 산35	247	봉화산	내지	慶州	
8	고위	경상북도 경주시 내남면 노곡리 산31	465	고위산	내지	慶州	

연번	봉수 명칭	주 소	해발고도 (m)	산명	성격	소속 군현	복원 여부
9	접포현	경상북도 경주시 광명동 산18	235	봉대산	내지	慶州	
10	주사봉	경상북도 경주시 서면 도계리 429-1	195	-	내지	慶州	
11	방산	경상북도 영천시 북안면 고지리 산27-1	328	방산	내지	永川	
12	신(新)성황당	경상북도 영천시 금호읍 원제리 산23	235	-	내지	永川	
13	성산	경상북도 영천시 청통면 원촌리 산15	271	봉화산	내지	永川	
14	구토현	경상북도 영천시 청통면 계지리 산74	195	-	내지	永川	
15	여음동	경상북도 영천시 신녕면 왕산리 산16	240	봉화재	내지	新寧	
16	토을산	경상북도 군위군 부계면 가호리 산116	360	-	내지	義興	
17	보지현	경상북도 군위군 산성면 화본리 산47	195	봉우재	내지	義興	
18	승목산	경상북도 군위군 우보면 모산리 산4	252	번개산	내지	義興	
19	승원	경상북도 의성군 금성면 청로리 산87	180	봉우동	내지	義城	
20	대야곡	경상북도 의성군 금성면 만천리 산132-1	205	봉우성	내지	義城	
21	성산	경상북도 의성군 의성읍 팔성리 54-1	210	구봉산	내지	義城	
22	계란현	경상북도 의성군 단촌면 상화리 산28	270	봉우산	내지	義城	
23	마산	경상북도 의성군 단촌면 관덕리 산96	250	봉화산	내지	義城	
24	감곡산	경상북도 안동시 일직면 송리리 산9-2	290	-	내지	安東	
25	봉지산	경상북도 안동시 남후면 개곡리 산49-2	265	-	내지	安東	
26	개목산	경상북도 안동시 서후면 광평리 산89	260	-	내지	安東	
27	녹전산	경상북도 영주시 평은면 오운리 산83	567	봉수산	내지	禮安	
28	창팔래산	경상북도 봉화군 상운면 구천리 산102-2	273.4	-	내지	榮川	
29	용점산	경상북도 봉화군 상운면 문촌리 산174	405	봉화재	내지	奉化	
30	당북산	경상북도 봉화군 봉화읍 내성리 산25	353.9	봉우재	내지	安東	
31	사랑당	경상북도 봉화군 봉화읍 도촌리 산43-2	305	-	내지	順興	
32	성내산	경상북도 영주시 고현동 산13-3	309.4	성내산	내지	榮川	
33	망전산	경상북도 영주시 풍기읍 산법리 산1-2	240	-	내지	豊基	
34	죽령산	충청북도 단양군 대강면 용부원리 산1-13	722	죽령	내지	順興	
35	소이산	충청북도 단양군 단성면 외중방리 산32	435	봉화산	내지	丹陽	
36	오현	충청북도 제천시 수산면 오티리 산62	426	봉화산	내지	淸風	
37	심항	충청북도 충주시 종민동 산67	337	심항산	내지	忠州	
38	마산	충청북도 충주시 대소원면 금곡리 산64-1	150.2	봉화산	내지	忠州	
39	가섭산	충청북도 음성군 음성읍 용산리 산11-4	709.9	가섭산	내지	陰城	○
40	망이성	충청북도 음성군 삼성면 양덕리 산30-1	471.9	마이산	내지	忠州	
41	건지산	경기도 이천시 마장면 해월리 산28-8	411.3	건지산	내지	竹山	
42	석성산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마성리 산77-33	460	석성산	내지	龍仁	
43	천림산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산35-5	170	-	내지	廣州	○(예정)
44	목멱산	서울특별시 중구 예장동 8-1	232.1	남산	경	漢城府	○

표 II-3. 제2거 직봉노선 봉수 개요

Ⅲ. 第2炬 直烽의 烽燧

본고는 조선시대 최후기 봉수망을 알 수 있는 『增補文獻備考(증보문헌비고)』(1908) 제2거 노선의 직봉(直烽)을 대상으로 설명하였다. 이 직봉은 소백산맥 가장 동쪽의 죽령(竹嶺)을 넘는 노선이었다. 과거 봉수 연구가 미진할 적에는 규모면에서 직봉이 간봉보다 규모가 큰 것으로 이해되기도 하였다. 지도Ⅲ을 통해 조선시대 부산 다대포진 응봉에서 초기하는 봉수는 대응봉수별로 동북쪽, 남북쪽, 서북쪽, 동서쪽 등 방향을 달리하면서 최종적으로 수도 한양의 목멱산봉수에 당일 초저녁이면 도달하여야 했다. 즉 12시간이면 경상도에서 일어난 변방의 안위를 중앙에서 알 수 있었다. 당시의 法상 봉수가 도달하지 않을 경우 해당 고을 수령의 고과와 해당 봉수군의 처벌 또한 가볍지는 않았다. 제2거 각 노선의 봉수는 조선시대 북로남왜(北虜南倭)라 하였듯이 대마도(對馬島) 방면에서 침입하려는 왜구(倭寇)의 방어가 목적이었다. 지역별로 울진 · 삼척 · 영덕 · 포항 · 울산 · 부산 · 창원 · 진해 · 마산 · 거제 · 고성 · 통영 · 사천 · 남해 등 경상도의 동 · 남해 연안지역을 포함한다. 또한 제2거 직봉노선은 동 · 남해안의 긴 해안선을 포함하기에 보조 노선으로 10개소의 간봉(間烽)을 두었다. 이는 기존 연구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제2거 노선이 영덕 광산(廣山)을 북방 한계선으로 하고, 남해 설흘산(雪屹山)을 남방 한계선으로 하는 동해안과 경남 남해안의 긴 해안선을 감시 · 조망해야 했기 때문이다. 특히, 남해안(南海岸)은 한반도의 동남쪽에 위치하고 있다. 지형상 크고 작은 반도(半島)와 만(灣) · 곶(串) · 도서(島嶼)가 많아서 해안선이 매우 복잡한 곳이다. 이 중 남해안 대부분의 연변봉수가 밀집된 채 분포하고 있는 부산광역시의 가덕도(加德島)와 거제 · 통영 · 남해는 육지와 인접하여 바다를 향해 돌출되어 있는 도서이다. 조선시대 전체 5거의 노선 중 가장 많은 간봉노선을 둔 것이 특징의 하나이다.[8] 제2거 직봉노선의 초기 봉수 3기는 연변봉수(沿邊烽燧)이나 이후 계명산봉수부터 내지화(內地化)하여 신호전달 체계상 경상 → 충청 → 경기 등 산지가 많은 내륙의 고지로 북상하는 봉수는 구조 · 형태가 전부 내지봉수(內地烽燧)이다. 이들 내지봉수 중에는 봉수제의 폐지 이후 심한 훼손으로 터만 남아 있는 경우가 있기도 하다. 해발고도면에서 연변봉수 보다는 내지봉수가 해발고도가 높은 곳에 위치한다. 가장 높은 곳에 단양 죽령산봉수(竹嶺山烽燧, 722m), 가장 낮은 곳에 충주 마산봉수(馬山烽燧, 150.2m)가 위치한다. 해발고도가 높은 곳에 있는 경우 대응봉수는 낮은 곳에 위치한다. 반면 해발고도가 낮은 곳에 있는 경우 대응봉수가 높은 곳에 위치하는 양극단적인 면이 있다. 명칭 상 제2거 직봉노선의 44기 봉수 중 가장 많이 사용되는 명칭은 봉화산(烽火山)으로 8기이다. 이외 봉

8) 김주홍, 『조선시대 봉수연구』, 서경문화사, 2011.

수가 성내(城內)에 위치하는 경우 산성과 연관된 명칭으로 표기 및 지칭되고 있다. 산성보다는 봉수가 군사통신수단으로서 지속되었다. 제2거 직봉노선 전체의 길이 약 436.6km를 통해 대응봉수간 평균거리는 약 10.15km임이 최근의 조사를 통해 보고된 바 있다. 이를 통해 대응봉수간 거리가 가장 먼 곳이 음성 망이성봉수(望夷城烽燧)와 용인 건지산봉수(巾之山烽燧) 구간으로 21.9km,

지도III. 조선 후기 『증보문헌비고』에 따른 제2로 직봉(直烽) 봉수 노선지도(문화재청)

대응봉수 간 거리가 가장 짧은 곳이 의성 계란현봉수(鷄卵峴烽燧)와 마산봉수(馬山烽燧) 구간으로 3.26km임을 알게 되었다. 또한 제2거 직봉노선의 봉수는 전체 44기 중 7기가 현재 복원되어 있으며, 천림산봉수(天臨山烽燧)는 정비 · 복원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비율로는 18.18%이다.

Ⅳ. 맺는말

지금까지 필자는 한국 봉수를 제2거 직봉노선을 중심으로 현황과 특징을 간략하나마 살펴보았다. 본 장에서는 본문의 내용을 종합하여 특징을 소개하는 것으로 맺는말을 대신하고자 한다.

제Ⅰ장에서는 봉수의 개요 소개를 통해 봉수가 조선왕조 500여 년 간 국가적인 기간통신망으로 운영되었으며, 이러한 봉수는 위험을 경고하는 기능만 있었던 것이 아님을 소개하였다. 즉 조선시대에 일반 백성들은 매일 피어오르는 1거의 봉수[평안화(平安火)]를 바라보면서 만사가 안전하고 평화롭다고 여겨 생업에 종사하였다. 또한 봉수는 성격과 종류에 따라 그 역할을 달리하는 용어(用語)가 있다. 해당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운용되었던 봉수는 중앙으로 집결하는 봉수와는 그 운용방법(運用方法)이 다르며 명칭(名稱) 뿐만 아니라 격(格)이 다름을 언급하였다.

제Ⅱ장에서는 제2거 직봉의 봉수를 노선별, 구조 · 형태별, 해발고도별, 명칭별로 현황을 소개하였다. 아울러 최근 문화재청의 전국 봉수유적 기초학술조사를 통해 제2거 직봉노선 전체의 길이는 약 436.6km이며, 대응봉수 간 평균거리는 약 10.15km임을 알게 되었다. 또한 대응봉수 간 장 · 단거리 및 해발고도별 고 · 저의 봉수를 언급하였다. 이를 통해 타 노선과 비교되는 제2거 직봉 노선의 봉수현황을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여겨진다.

제Ⅲ장에서는 조선시대 최후기 봉수망을 알 수 있는 『증보문헌비고』 의 제2거 노선의 직봉이 소백산맥 가장 동쪽의 죽령(竹嶺)을 넘는 노선임을 언급하였다. 이어 지도Ⅲ을 통해 조선시대 부산 다대포진 응봉(鷹峯)에서 초기(初起)하는 봉수는 대응봉수별로 동북쪽, 남북쪽, 서북쪽, 동서쪽 등 방향을 달리하면서 최종적으로 수도 한양의 목멱산봉수(木覓山烽燧)에 당일 초저녁이면 도달하여야 했다. 즉 12시간이면 경상도에서 일어난 변방의 안위를 중앙에서도 알 수 있었다. 당시의 法상 봉수가 도달하지 않을 경우 해당 고을 수령의 고과와 해당 봉수군의 처벌 또한 가볍지는 않았다.

※ 이 논문의 자료를 제공해주신 LH공사 김주홍 박사님께 감사드립니다. ※

淸州楊門의 포천 入鄕과 인물

최 창 근 (향토사 조사위원)

목 차

Ⅰ. 서론

Ⅱ. 본론

Ⅲ. 결론

집필자
최 창 근 향토사 조사위원

Ⅰ. 서론

길명사

만물은 근원이 있으므로 현재 상태를 유지하게 되는 것이다. 포천에 인구가 처음으로 거주하였던 것은 약 2만 년 전 구석기 시대로 추정하고 있다. 선사시대에 수많은 씨족이 생멸하였고 수많은 부족 국가가 존망하였을 것이다. 역사 시대로 오면서 흥망과 성쇄를 거듭하면서 종족을 보존해 오기도 힘들었을 것이다. 불과 200년 전만 하여도 국민의 70%가 성(姓)이 없었다고 하니 소수의 권력에 의하여 대중이 지배를 당하고 살아온 것이다.

포천 신북면 기지리에 산 이름이 범상하지 않은 천주산(天柱山 464m)이 있다. 예부터 서울에서 경흥으로 이어지는 국도가 있고 급보를 전달하는 봉수대가 있었고, 포천시 농업기술센타 뒷산에 현재에도 봉수대 터가 남아 있다. 틀못이(機池) 마을은 지금도 양촌 · 류촌(문화류씨)이 합하여 양유촌(楊柳村)이라고도 불려 오기도 하고, 매년 음 9월 초에 택일하여 산제(山祭)를 모시는 산제 터가 천주산에 있고, 7부 능선인데도 약수가 샘솟아 마을 주민들이 돌곽으로 상탕, 중탕, 하탕으로 칸을 만들어 놓았다.

Ⅱ. 본론

退隱齋 안에 있는 楊治 선생 영정

천주산에서 서쪽 기슭으로 쭉 뻗어 내려오다 잠시 멈춘 곳이 병사공 양치(楊治) 선생의 묘가 자리하고 있다. 이 분이 바로 포천의 청주양문이 처음 들어온 입향조가 되신다. 산줄기가 유연히 내려오다 다시 불뚝 솟은 봉우리가 능내(陵內)라는 봉우리로 세종대왕의 총애를 받고 한남군(瑆), 수춘군(玹), 영풍군(瑔) 3왕자와 박팽년 참판을 사위로 둔 혜빈양씨(병사공 양치의 형의 딸)께서 계유정난에 옥새(玉璽)를 수호하다 한남군과 함께 화를 당하여 시신을 수습하는 이가 없자, 병사공께서 밤중을 이용하여 혜빈의 목을 수습하여 지석도 없고 봉분도 없는 평장으로 모신 것이, 현재까지 내려와 후세에 혜빈양씨가 묻힌 곳이라 하

여 능내로 불리어지게 된 것이다. 註:현재도 혜빈양씨의 무덤은 없으며 후손에 의하여 1999년 2월 9일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원당동 왕릉골에 조선왕조 혜빈시호민정청주양씨신도비(朝鮮王朝 惠嬪諡號愍貞淸州楊氏神道碑)를 세웠다.

청주양씨 시조께서 처음으로 동래(東來)한 것은 고려 30대 충정왕 때 세자위에 있던 공민왕이 원(元)나라 노국대장공주와 혼인을 하여 원나라 금자광록대부 중서성 정승 위치에 있던 양기(楊起)를 배종 대신으로 노국대장공주를 수행하여 고려로 오게 된 것이다. 고려의 왕은 원나라 황제가 보낸 대신을 정승(政丞)으로 삼으시고 항상 측근에 두시어 정사를 보좌하게 하였다. 양기 정승은 나라의 정세를 세밀히 파악하고, 중국에 바치는 세공(歲貢)에 국력이 바닥이 나는 것을 보고 중국으로 들어가 매년 받치던 동녀(童女) 5 천명, 말(馬) 3만필(匹), 비단 3만 동(同), 백저포(白紵布) 6만필(匹)을 해마다 바치는 것에 부당성을 설명하고 고려는 국토가 좁고 인구가 적고 토지가 척박하여 불가하다고 호소하여 전량 삭감을 받아 왔으며, 다음해에 들어가서는 세공부에서도 완전히 삭제하는 큰 공을 이루신 것이다. 고려조에서는 그의 공훈을 크게 포상하여 삼중대광보국숭록대부 상당백을 봉하고 청주, 해주, 송화를 식읍(食邑)으로 내리었으나 한사코 받지 아니하였으며, 청주양씨로 사성(賜姓)을 하여 청주양씨가 되었으며 부인은 청주 한씨인데 아버지는 동정 벼슬을 한 한문길이였으며 부인 한씨와 왕의 지극한 호의로 귀화하였을 것이다. 이분이 청주양씨의 시조가 되시고 청백리(淸白吏)와 벽상삼한 창국공신을 봉하였다. 천수를 누리시고 향년 92세로 서거하시니 시호는 충헌이고 묘는 황해도 연백군 유곡면 영성리 지동에 있고 지금도 관과 민에서 제향을 받들고 있다고 한다. 고려로 귀화하기 전의 중국에서의 楊氏의 내력은 정확치는 않으나 기원 전 2700년 경에는 황제였다고 하며, 그 41세손인 주(周)의 백교(伯僑)가 중국 양씨 가문의 태시조라고 하며, 후한(後漢)때 태위(太尉)직에 있던 백기(伯起) 진(震)의 43세손인 기(起)가 원(元)나라 금자광록대부 위에 있다가 노국대장공주 배종대신으로 고려로 오게 되었다고 한다. 후한(後漢)때 태위(太尉)직에 있던 백기(伯起) 양진(楊震)이 동래 태수(東萊太守)로 재직 중에 왕밀(王密)이란 사람이 자기에게 이로운 청탁을 하려고 밤에 찾아와 금(金) 10근을 바치면서 늦은 밤이니 아무도 모를 것이니 받으시라고 하였다. 그러자 양진은 "하늘이 알고 귀신이 알고 내가 알고 그대가 아는데, 어찌 아는 사람이 없다고 하느냐?" 하고 거절하니 왕밀이 부끄러워서 그냥 가지고 나갔다고 하는 양진사지(楊震四知)라는 고사성어(故事成語)를 만들어 냈다고 한다. ('귀신이 안다' 대신에 '땅이 안다'고 하는 기록도 있음).

포천 기지리에 묘가 있는 병사공은 1400년 9월생으로(정종 2년) 충헌공의 4남 서평군(西平君, 之壽)의 손자가 되신다. 서평군(西平君, 之壽)은 광정대부(匡靖大夫) 도첨의찬성사(都僉議贊成事)이며 청백리에 녹선되시었다. 경안공(景安公) 천진(天震)은 서평군의 4남으로 보국대부(輔國

大夫) 행호조전서(行 戶曹典書)인데 주청사(奏請使)로 중국에 들어가 수년간 머물면서 고려국의 사정을 상주(上奏)하시어 육부판적(六府版籍)에 올려져 있는 고려국에 대한 세공조항(歲貢條項)을 완전히 삭제하고 돌아오니 나라에서는 안악군(安岳君)에 봉하고 청백리에 녹선 시키었다. 경안공은 슬하에 7남 3녀를 두었는데 병사공 치(治)는 5남이시고 장녀는 세종조의 명재상으로 세계에 최장수 재상으로 기록된 방촌(尨村) 황희(黃喜) 정승의 정실이시다. 이와 같이 충헌공 양 기, 서평군 양지수, 경안공 양천진 등 삼대에 걸쳐 군(君)으로 봉해지고 청백리에 녹선되니, 우리 나라에서 청백리라는 이름을 존재케 한 고려 말 으뜸가는 명문세가(名門世家)이다. 경안공의 5남으로 출생하신 병사공은 용맹과 지략이 특출하여 무관으로 발탁되어 세종조에 김종서(金宗瑞)를 보좌하여 육진개척(六鎭開拓)에 큰 공을 세워 세종 18년(1456년) 영광군수를 거쳐 황해도 연백군 유곡면 영성리 지동 양도 병마절도사에 오르시니 육진을 비롯한 북방 방위(北方防衛)에 전력을 다 하시어 오늘의 중국과의 국경을 획정(劃定)하는데 크게 공헌하였다. 그러던 중 1453년 계유정난(癸酉靖難)의 피바람이 몰아치자 관직을 버리고 포천의 틀못이 산중으로 은거하여 세상과 연(緣)을 끊은 것이 이른바 이것이 두문동으로의 낙향(落鄕)이었다. 1453년 계유년의 희생자 김종서. 황보인. 조극관 3공과 1456년 병자년의 성삼문. 유응부. 하위지. 이개. 박평년. 유성원 등 사육신과 생사는 같이 하지 않았을지언정 세종과 단종에 대한 지극한 충성은 다를 바가 없을 것이다. 두문동에 은거하시면서도 매 삭망(朔望)시 영월의 청령포를 향하여 관복을 갖추어 입으시고 통곡을 하였다고 한다.

포천 유림에서도 그 뜻을 높이 받들어 사육신의 한 분이신 충목공(忠穆公) 유응부(兪應孚) 장군을 모시는 사당 충목단에 병사공 양치 선생과 한남군을 함께 모시고 매년 음 9월 11일 포천의 유관 기관 단체장 중 · 고등학생 후손 등 150여명이 참제한 가운데 제향을 받들고 있다. 이리하여 포천이 충절의 고장이라는 또 다른 명칭을 받게 되었다. 병사공이 오신 이래로 집성촌을 이루니 양촌(楊村)이라고 한다. 두문동에 들어와 살필재를 닫은 문 삼아 은사(隱士)의 삶을 살면서 시작(詩作)에 전념하여, 사십 여년을 밖에 나가지 않았으니 호(號)를 퇴은(退隱)이라 한 것은 물러나 은둔(隱遁)하는 사람이란 뜻이 담겨 있으며, 이 길은 아무나 갈수 있는 길이 결코 아니며, 충절과 의리를 중히 여기고 행동으로 실천하는 절개 있는 공인(公人-武人)이나 걸어간 길이였을 것이다. 병사공 양치 선생은 사십 여년을 두문동에 사시다가 1485년 성종 16년 을사년 사월에 86세로 세상을 마치시어, 평소에 흐르는 물소리와 청

충목단

량한 솔바람과 자규 소리를 벗삼던 봉수산(烽燧山 :일명, 天柱山) 기슭에 안장되어 지금까지 내려온다. 퇴은 선생의 충절과 학덕과 경륜과 온유함과 강직한 성품을 겸비한 인덕을 추모하고자, 포천문화원에서는 2016년 6월 2일에 경향각지에서 한학자 한시애호가 등 150여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한시백일장이 포천시 종합체육관에서 개최하여, 장원 1인 장성천(남양주시), 차상 장병국(경북 예천군), 차하 조현도(부산광역시 북구) · 김장환(문경시) 2명, 참방에는 10명 입상을 하여 200만원에서 30만원까지 상금이 수여되었다. 아침 10시반에 시작하여 간단한 개회식에 이어 압운 추첨 후에 바로 시작에 들어가 12시 반까지 출품을 완료하고 주최측과 포천시민과 여성유도회에서 준비한 오찬과 다과를 마친 후에는 틀못이(機池里) 마을에 있는 병사공 퇴은재(退隱齋) 사당과 천주산 자락에 자리잡은 퇴은공 묘소를 참배했으며, 일부 참여자는 일동면 길명리에 위치한 봉래 양사언 선생을 배향한 길명사와 인근의 봉래 선생 묘소를 참배하였다. 퇴은 양치 선생을 추모하는 전국한시백일장 시집이 7월에 간행되어 참여자와 전국 관련된 곳에 배부하였다. 그중 장원시를 다음과 같이 올린다.

위 야 선 생 지 용 진
偉也先生智勇眞　크다 선생의 지용이 참됨이여
종 군 북 새 입 공 신
從軍北塞立功新　북방 변방에 종군하여 공을 세움이 새롭다
위 방 대 절 천 추 범
爲邦大節千秋範　나라를 위한 대절은 천추에 모범이고
연 주 단 심 만 고 륜
戀主丹心萬古倫　임금을 생각하는 단심은 만고의 인륜이라
둔 세 거 인 한 세 월
遯世居仁閒歲月　세상을 등지고 거인하니 세월이 한가하고
잠 신 수 의 원 풍 진
潛身守義遠風塵　몸을 숨기고 의리를 지키니 풍진을 멀리하였다
향 능 삭 망 분 향 배
向陵朔望焚香拜　능을 향해 초하루 보름 분향하고 절하니
의 적 방 명 사 책 빈
懿蹟芳名史册彬　의적과 방명이 역사에 빛나리라.

〈경기도 남양주시 호평로 149 중흥클래스로하스 1901동 1102호 應良 張星天〉

이와 같이 3대의 청백리를 배출하고 청백리라는 말을 존재하게 하였으며 충절의 고장이라는 또 다른 명칭을 만들어 낸 가문에서 어찌 인물이 배출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병사공은 5남을 두시니 장자 순달은 홍문관 교리 행덕 천군수이고, 차남 효달은 생원이며, 3남 제달은 통훈대부 행 장례원 사정(掌禮院司正)이고, 4남 윤달은 첨정이며, 5남 신달은 통덕랑을 역임하는 등 현달하였다. 신북면 기지 1리 틀못이 마을 입구 포천시 농업기술센타 앞 43번 국도변에는 2009년 5월 15일 신도비가 건립 제막이 되었는 데 신도비문은 다음과 같다.

咸吉 黃海 兩道 兵馬節度使 退隱楊公神道碑銘

悠悠히 흘러흘러 豊饒로 통하는 한내천을 한 가슴에 품어 안고 半月山 王方山을 내다보며 烽燧名山이 벋어 내린 瑞氣之陵 寅坐原이 兵馬節度使 諱 治의 佳城이다.

公의 誕生이 1,400년 9월로 於焉 六百星霜을 헤아리니 無限有數의 光陰에 오늘도 그 風泉之思追慕는 日新으로 悠長하여라.

天光之勢는 依舊하되 人間事 無常이라 했던가 1455년 端宗의 禪位에 얽힌 슬픈 歷史는 公의 從姪女인 惠嬪의 受難에 머물지 않고 全淸州楊門에 휘몰아쳐 氏族一家는 散散이 八道에 離散하고야 말았다. 격동기 歷史의 굴절된 흐름속에 楊門一族은 저마다 시련과 고난을 겪으며 나름대로 삶의 터전을 마련하여 갈고 닦아 여로 모양으로 오늘을 살고 있는 것이다. 謹안하건데 淸州楊門은 憂國衷懇에 依한 四大歲貢 削減이라는 絕大功勳을 세운 始祖 忠憲公을 비롯하여 2世 西平君, 3世 景安公 等 三代에 걸쳐 淸白吏를 輩出하니 이 나라에 淸白吏라는 낱말을 존재시킨 滿天下咸頌의 名門世家이다.

淸州楊門의 溯源은 紀元前 2700년 頃의 中國, 皇帝로 전하며 그 41世孫인 周의 伯僑가 楊氏의 太始祖이고 60世孫인 後漢의 太尉이며 四知公으로 유명한 伯起 震의 43世孫인 起가 高麗, 忠定王 3년에 恭愍王과 魯國大長公主가 元에서 귀국할 때 魯嬪都令으로 金紫光祿大夫 體察使 魯國三命使臣으로 高麗에 나오시어 淸州楊氏의 始祖가 되셨다.

公은 高麗末 重臣으로서 과중한 歲貢의 폐단을 痛感하고 明에 들어가 明太祖에게 高麗財政의 어려움을 懇曲히 알리어 童女五千人 駿馬三萬匹 緋緞三萬同 苧布六萬匹의 歲貢削減을 確約받고 돌아오니 朝廷에서는 三重大匡輔國崇祿大夫上黨伯을 封하고 本貫을 淸州로 下賜하여 淸州·海州·松禾를 食邑으로 내림에 한사코 사양하시니 淸白吏와 壁上三韓昌國功臣을 封하였다. 天壽를 누리시고 1394年 享年 92歲로 逝去하시니 諡號는 忠憲이다.

西平君 之壽는 公의 四男으로서 공의 祖父이시니 匡靖大夫 都僉議贊成事이며 淸白吏에 錄選되었다. 景安公 天震은 西平君의 四男으로 輔國大夫 行戶曹典書인데 奏請使로 明에 들어가 數年間 머물면서 高麗의 사정을 上奏하시어 六府版籍에 들어 있는 高麗에 대한 歲貢條項을 완전히 削除하고 돌아오니 나라에서는 淸白吏와 安岳君을 封하였다. 膝下에 七男三女를 두셨는데 兵使公 治는 五男이시고 長女는 名宰相 領議政 黃喜에게 出嫁하였다.

兵使公은 膝下에 五男一女를 두셨으니 長男 順達은 弘文館校理 行德川郡守이고 次男 孝達은 生員이며 三男 悌達은 通訓大夫 行 掌隷院司正이고 四男 允達은 僉正이며 五男 信達은 通德郎이고 長女는 許瑾에게 出嫁하였다. 또한 朝鮮前期 四大名筆이며 詩文의 大家로서 中國의 眉山三蘇에 견주는 蓬萊 士彦은 通政大夫 行 安邊大都護府使 로서 公의 曾孫이다.

公은 처음 勇猛과 智略으로 발탁되어 金宗瑞를 도와 六鎭開拓初에 큰 功을 세워 世宗十八年 靈光郡守를 거쳐 咸吉黃海兩道兵馬節度使에 오르시니 六鎭을 비롯한 北方 防衛에 專念하시어 오늘의 中國과의 國境을 劃定하는데 공헌하신 바 크다. 그러던 중 1453年

癸酉靖難의 회오리가 몰아치자 관직을 버리고 抱川 山中으로 隱居하여 세상과 緣을 끊으시니 이른바 杜門洞에 드심이었다.

이래로 集性村을 이루니 楊村이 아닌가 杜門洞에 드시어 살필재를 닫은 문 삼아 隱士의 삶을 사시면서 詩作에 專念하여 四十餘年을 밖에 나가지 않으셨으니 號를 退隱이라 하신 데에는 물러나 隱遁하는 사람이란 뜻이 담겨 있으며 이 길은 아무나 가는 길이 결코 아니니 忠節과 義理를 重히 여기고 行動으로 實踐하는 賢人의 모습이시였다.

從姪女인 惠嬪이 玉璽事件으로 아들 漢南君과 함께 禍를 당하여 돌보는 이 없음에 公이 밤중에 屍身을 수습하여 不封不誌로 暗葬하시니 杜門洞드는 入口에 陵內라는 地名이 전해지는 것도 이 史實과 無關하지 않은 것이다. 血肉을 사랑하는 曲盡함이 하늘에 닿아 죽음을 鴻毛처럼 여기는 의연한 모습이시었다.

이후로 不義에 대한 분노와 端宗에 대한 欽慕 忠情을 가눌 길 없어 每月 초하루 새벽이면 寧越 淸泠浦를 향하여 冠服을 입고 哭拜하였다 하니 비록 癸酉三公 丙子六臣과 生死를 같이 하지 않았다 하여도 忠節의 간절함은 한 치의다름이 없으니 忠節의 고장 抱川이 忠義의 賢人, 愛民의 巨人을 輩出하였도다.

抱川 儒林에서도 公의 忠節을 기리어 死六臣 兪應孚를 모신 忠穆壇에 漢南君과 함께 三位를 享祀한다. 1485년 4월 享年 八十六歲로 逝去하시니 生前에 솔바람, 흐르는 물소리 벗을 삼고 子規의 絕叫를 共鳴하시던 杜門洞 드는 길목을 내려 보고 楊村을 들고 나는 萬人을 살필 수 있는 烽燧山 언덕에 葬禮하니 萬年幽宅에 드셨도다.

이제 삼가 여기 公의 忠熱과 節義 그리고 愛民精神을 讚揚하고 後孫들의 精誠어린 崇慕의 뜻을 담아 이 碑를 세우고자 抱川의 斯文 崔宗圭 典校와 裔孫 載昌 儒道會長 潤宅 宗會總務 등이 懇誠과 資料를 齎來하고 請文하거늘 그 뜻을 길이 萬人이 우러러 稱頌하며 千萬億年 不泐하리라. 不佞이 마침 猥忝首善之地하여 그 景仰의 微忱을 여기 銘하노니 [曰勇智兼備에 外攘北方이요 兩道兵馬에 內修六鎭이라 三公六臣에 生死는 雖殊나 衛道衛國에 吾道는 一貫이라 賢祖에 淸白이요 肖裔에 文名이니 移孝思忠에 三統이 有斐어라.]

二000年 庚辰暮秋 成均館長 月城 崔根德 謹撰 十七世孫 潤宅 監董

또한 조선 전기 안평대군 이용(李瑢, 세종 3자 세조조에 賜死)·자암 김구(金絿)·석봉 한호(韓濩)와 함께 사대 명필이며 시문의 대가로서 중국의 미산삼소(眉山三蘇)에 견주는 봉래(蓬萊) 양사언(楊士彦, 통정대부 행안변도호부사)선생은 병사공의 증손이 되신다.

[태산이 높다하되 하늘아래 뫼이로다.
오르고 또 오르면 못 오르리 없건마는
사람이 제 아니 오르고 뫼만 높다 하더라.]

온 국민이 애송하는 이 시조를 지으신 봉래 선생은 태어날 때부터 모습이 수려(秀麗)하고 맑으며 정신(精神)이 뛰어나서 사람들이 보기만 해도 세상(世上) 사람이 아니라고 하였다. 나이 24세에 〈단사부(丹砂賦)〉를 만들어 성균관(成均館) 진사(進士)에 뽑히기 전에 같이 간 사람들끼리 구전(口傳)이 자자하였다. 내외(內外) 두 상(喪)을 당하여 6년을 시묘(侍墓)하고 상(喪)을 마친 다음 병오년(丙午年, 1546년 명종 원년) 문과에 응시하여 대동승(大同丞)에 발탁되어 〈열운정기(閱雲亭記)〉를 지어 일시(一時)에 칭찬을 받았다. 삼등(三登) · 함흥(咸興) · 평창(平昌) · 강릉(江陵) 네 고을의 원을 역임(歷任)하였는데 떠난 다음 모두 비(碑)를 세워 칭송하였다. 1560년 명종 15년부터 평창군수로 부임하여 명종 18년인 1563년까지 평창군수직을 수행 하였는데 임기가 끝이 났는데도, 평창군민이 조정에 탄원하여 1년을 더 연임하다 내직(內職)으로 성균관 사성(成均館司成), 종부시정(宗簿寺正)이 되었다가, 다시 나가서 회양(淮陽) · 철원부사(鐵原府使)가 되었는데 그곳의 산수(山水)를 즐기기 위하여 내직을 마다하고 자원한 것이다. 철원부사 재임시에는 중앙 관료와 가까운 벗이 금강산 가는 역이므로, 찾아와 식객으로 머물자 관청의 곡식을 축낼 수는 없다고 관청 끝자락에 두어 두락 농사를 친히 지으며, 과수목을 심어 자급하게 하였다는 일화는 지금도 전해 내려온다. 회양(淮陽)에 있을 적에 여러 해에 걸쳐 매양 작은 교자[肩輿]를 타고 금강산(金剛山)에 왕래하여 초연(超然)하게 세상을 지낼 뜻을 갖고 비래정(飛來亭)을 짓고 이곳에서 생을 마감하려고 하였다고 한다. 금강산 만폭동(萬瀑洞) 암벽에 여덟 자를 큰 글씨로 새겼는데, '봉래풍악원화동천(蓬萊楓嶽元化洞天)' 은 지금도 선명하게 전해 내려오며, 평(評)하는 자가 말하기를 '고운(孤雲) 최치원(崔致遠)선생의 쌍계석문(雙溪石門) 글씨가 이에 못 미친다'고 하였다. 그 후에 또다시 안변도호부사(安邊都護府使)가 되었는데, 안변(安邊)은 북관(北關)의 한 도회지(都會地)라 풍속(風俗)이 사납고 억셌는데 선생이 서당을 세워 학문을 가르치며, 정무(政務)를 효제(孝悌)로 하였으며 교화(敎化)에 힘쓰는 것을 크게 행하여서, 군민이 모두 순화되고 감화되어 지금에 이르러서도 백성들이 선생을 말하면서 '부모(父母)의 은혜(恩惠)보다 무거운 은혜를 입었는데 최복(衰服-상복)을 입지 못하였다'고 칭송하고 있다. 평안감사(平安監司)가 일도(一道)의 고과에서 선생이 제일(第一)이라고 상주하여 통정대부(通政大夫)에 올랐다. 어느 날 홀연히 큰 못을 파고 물을 채우고 말에게 먹일 꼴을(乾草) 쌓아놓고 말하기를, '후일 군마(軍馬)가 주둔할 것에 대비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듬해 계미년(癸未年, 1583년 선조 16년)에 번호(藩湖)의 난(亂)으로 대병(大兵)이 북(北)으로 이동하는데 모든 읍(邑)들이 물자를 주선하느라 고생했고 심지어 관리들이 견책을 당하고 죽는 자도 있었으나, 유독 안변부에서 만이 태연하므로 사람들이 더욱 '진짜 신인(神人)'이라고 탄복하였다. 이것은 증조부 楊治공께서 황해함길양도병마절도사로 재직하시며 북방의 경비를 튼튼히 하고 국경을 획정 짓는데 큰 공을 세우신 것을 자상하게 알고 행하신 조치일 것이다. 얼마 후 지릉(智陵)의 화재로 수령(守令)의 직책상 법(法)에 저촉되어 해서(海西)로

귀양 가서 2년을 있다가 풀릴 무렵에 병으로 졸(卒)하니, 향년(享年) 68세였다. 그해 영평현(永平縣, 지금의 일동면 길명리) 금오산(金烏山, 지금의 금주산)에 귀장(歸葬)하였는데, 선생이 스스로 정해 놓은 자리였다고 한다.

선생은 세상에 드문 뛰어난 재사(才士)로서 학문(學文)이 무소불통(無所不通)이며 서적(書籍)을 읽지 않은 것이 없어 식견(識見)이 고매(高邁)하고 지조(志操)가 결백하였으며, 효우(孝友)가 출천(出天)하고 매우 착한 성품이 보통 사람보다 뛰어났었다. 그 형(兄)을 섬기고 아우를 사랑하기를 모두 그 도리(道理)를 극진히 하였다. 형이 일찍이 병이 위독할 때 그 변을 맛보아 생사(生死)를 가늠했고 아우가 역질을 앓게 되어 흐느껴 우는 데 감동되어 솔개가 물고 가던 쥐를 떨어뜨려 주므로 약으로 써서 드디어 소생시켰다. 이것은 일찍이 옛날에도 없던 일이라, 출천우애(出天之 友愛)를 다하였다고 후세에까지도 후손과 군민에게 선행으로 전해온다 .

벼슬길에 올라 40년 동안을 명읍(名邑)들을 맡은 것이 여덟 번이었는데 한 푼도 넉넉함이 없었고, 말 한 마리도 변변치 못하였으며, 처자(妻子)를 위해서는 털끝만큼도 재물을 계획하지 않고 항상 말하기를, "나는 사지공(四知公)의 후손으로 우리 선조(先祖)를 욕되게 할 수 없다."고 하였다고 한다. 또 격암(格庵) 남사고(南師古)에게 수학(修學)했는데, 임진란(壬辰亂) 이후 선조(宣祖) 40년을 미리 점쳐 남긴 것 같다. 풍악(楓岳) 동쪽 다섯 군데 아름다운 곳에 작은 정자(亭子)를 짓고 시(詩)를 지었으며, 행장(行裝)과 스스로 먹는 것에 꾸밈새가 없고 수수하고 천연스러웠다.

간간이 기이하고 호걸스러운 말을 해서 사람을 놀라게 하였고, 글씨는 해서(楷書)나 초서(草書) 모두 필법(筆法)을 깊이 터득하여 거의 노공(魯公 : 노국공(魯國公) 안진경(顔眞卿), 장진(藏眞 : 당(唐)나라 고승 회소(懷素)의 자(字)의 경지에 이르렀다. 일찍이 큰 글씨로 '비(飛)' 자를 써서 병풍을 만들어 놓았는데, 하루는 이상한 바람이 홀연히 일어나서 바다 속으로 날아가 잠겨 버렸으니, 바로 선생이 세상을 떠난 날이었다. 태학사(太學士) 서경(西坰) 유근(柳根)이 그 사실을 적어 두었다. '비(飛)' 자는 후손에게 내려오는 것은 봉래공 종손 양재웅 댁에서 보관돼 내려오고 있다.

봉래 선생의 문장과 신필은 조화를 두루 갖추어 기아(箕雅)의 경지에 이르렀으며 율(律)은 해동명적(海東名蹟)에 실리어 그 文才를 인정받아 두 아우 사준(士俊)·사기(士奇) 더불어 중국의 미산삼소(眉山三蘇)에 비하였다. 삼형제는 창수면 오가리 금수정(金水亭)에서 문인·묵객·승려들까지 초청하여 시회(詩會)를 갖기도 하였다고 하며, 영평팔경 곳곳에 암각문을 조각한 것이 지금도 생생하게 전해오며 지금의 영평팔경으로 자리 잡아 수도권 인파들이 즐겨 찾게 하는데 가장 큰 공헌을 하였다고 할수 있다. 다음은 인근에 사시던 용주 조경 선생이 지으신 비문의 해석본이다.

봉래 양선생 묘비문

蓬萊 楊先生의 아들 宗正公이 선생의 시를 찍어 世上에 펴내고 또한 碑銘을 갖추어 선생의 行狀으로 명을 새기고자 그의 고향 考 功員外廊 趙絅에게 청하기에 絅이 先生의 혁혁한 名聲을 하필 돌에 새김을 기다려 후세에 傳하랴 하였다.

先生은 1517年에 태어나 甲申 1584年에 돌아가셨으니 지금으로부터 500年이 되었다. 우리 고향에서는 부녀자나 농부가 先生의 사시던 마을을 지날 때는 반드시 先生의 마을이라 마하고 先生의 묘를 지날 때는 반드시 先生의 墓라 이르니 어찌 가르쳐서 이르겠는가. 우리 시골이 아니라도 사방 사람들이 선생의 姓名을 모르는 자 있으랴. 비유컨대 祥스러운 기린과 아름다운 鳳이 비록 수천년 빛을 감췄을지라도 九苞의 털과 歸昌의 소리는 사람이 다 사모할 줄을 알며 어디선가 혹 본 것도 같고 들은 것도 같은 것이다. 先生의 名聲을 전하는 것을 과연 片石에 새김을 기다리랴. 宗正公이 말하기를 비록 그러나 내 先人의 孝友와 行動과 治積, 經歷과 벼슬의 始終을 불가불 일일이 來世에 전하고자 한다고 했다. 絅이 사양하다가 어쩔 수 없었다. 先生의 諱는 士彦이요 字는 應聘이며 號는 蓬萊 또는 海容이다. 그 先祖는 本來 漢나라 太尉 楊震의 後裔이며 七世祖이신 起가 元나라 順帝 때에 政丞으로서 魯國大長公主를 따라 와서 高麗에 왔으므로 恭愍王이 上黨伯을 封했다. 그리하여 淸州楊氏가 되었다. 諱 天震은 朝鮮朝에 들어와 開國의 功을 세워 工曹典書가 되었는데 先生의 高祖이다. 이 분이 諱 治를 낳으셨으니 黃海節度使가 되었으며, 諱 悌達을 낳으셨으니 宣敎郞이며, 宣敎郞이 諱 希洙를 낳으셨으니 敦寧主簿인데 僉使 文化 柳洞의 딸에게 장가들어 先生 및 士俊, 士奇를 낳았는데 다 文章과 經術이 뛰어나 세상에서 三傑이라 하여 中國의 眉山蘇氏에 比하였다. 선생은 태어날 때부터 모습이 수려하고 맑으며 정신이 뛰어나서 사람들이 모두 보기만 하면 세상 사람이 아니라고 했다. 나이 二十四歲에 〈丹砂賦〉를 만들어 成均館 進士에 뽑히기 전에 같이 간 사람들끼리 口傳이 자자했다. 내외 두 喪을 당하여 六年을 侍墓하고 喪을 마친 다음 丙午文科에 응시하여 大同承에 발탁되어 閱雲亭紀를 지어 一時에 칭찬과 賞을 받았다. 三登·咸興·平昌·江陵 四邑의 府使를 歷任하였는데 떠난 다음 모두 碑를 세웠다. 內職으로 成均館司成·宗簿寺正이 되었다가 다시 나가서 淮陽·鐵原郡守가 되었는데 그 곳에 山水가 있어 즐기기 위하여 求한 것같다. 淮陽에 있을 적에 여러 해에 걸쳐 매양 적은 교자를 타고 金剛山에 往來하며 超然하게 세상을 지낼 뜻을 갖고 있었다. 萬瀑洞 돌에 여덟 자를 큰 글씨로 새겼는데 評하는 자가 마하기를 崔孤雲의 글씨가 이에 못 미친다고 했다. 그 후에 또다시 安邊府使가 되었는데 安邊은 北쪽 關門의 한 都會地라 風俗이 사납고 까다로왔는데 先生이 政務를 孝悌로 하였으며 敎化에 힘써 크게 행하여져서 지금에 이르러서도 백성들이 先生을 말하면서 父母의 은혜보다 무거운데 衰服을 입지 못했다고 칭송하

고 있다. 監司가 一道에서 公이 第一이라고 상주하여 通政大夫에 올랐다. 어느날 홀연히 큰 못을 파고 짐승에게 먹일 것을 쌓아 놓고 말하기를 다음에 軍馬가 주둔할 것이므로 그 예비라고 하였다. 다음해 一五一三年 癸未에 女眞賊亂으로 大兵이 北으로 이동하는데 모든 邑들이 물자를 주선하는 데 급급했고 심지어 처벌을 당해 죽는 자도 있었으나 홀로 태연하므로 사람들이 더욱 神人답다고 탄복했다. 얼마 후 智陵의 화재로 守令의 책임상 法에 저촉되어 海西로 귀양갔다가 풀릴 무렵에 병으로 돌아가니 享年 六十八歲였다. 그해 永平縣 金烏山에 모셔 장사지냈다. 그 곳은 先生이 사시던 곳이다. 先生은 세상에서 뛰어난 才士로서 學文이 無所不通이며 書籍을 읽지 않은 것이 없어 識見이 高邁하고 志操가 결백하였으며 孝友가 出天하고 성품 착하기가 뛰어 났었다. 그 兄을 섬기고 동생을 사랑하기를 모두 그 道理를 극진히 하였다. 兄이 일찍이 병이 위독 할 때에 그 똥을 맛보아 生死를 가늠했고 동생이 역질을 앓게 되어 흐느껴 우는데 감동되어 솔개가 쥐를 떨어뜨려 주므로 약으로 써서 드디어 소생시켰다. 이것은 일찍이 옛날에도 없었던 일이라 顔舍와 庾袁 같은 분은 어떻게 했었을지 모르겠다. 벼슬길에 올라 四十年 동안을 名邑들을 맡았었는데 들어감에 한 푼도 넉넉함이 없었고 나감에 말 한 마리도 변변치 못하여 妻子를 위해서는 털끝만큼도 계획을 하지 않고 항상 말하기를 나는 四知公의 후손으로 가히 先祖에게 욕되게 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또 南格菴에게 修學했는데 壬辰年 이후 宣祖 四十年을 미리 점쳐서 推算한 것 같다. 楓岳 동쪽 다섯 군데 아름다운 곳에 적은 亭子를 지었고 行裝과 스스로 먹는 것에 꾸밈새가 없고 수수하고 천연스러웠으며 간간이 기이하고 호걸스러 말을 해서 사람을 놀라게 하였고 글씨는 楷書라 草書 모두 筆法을 터득하여 거의 魯公 藏眞의 경지에 이르렀다. 일찍이 큰 글씨로 飛字를 써서 족자를 만들었는데 하루는 이상한 바람이 홀연히 일어나 바닷속으로 날아가 잠겨 버렸는데 바로 그날이 先生의 작고한 날이었다. 太學士 柳西坰이 이 사실을 적어두었었다. 아아, 사람이 한가지 착한 일과 한가지 技藝만 있어도 능히 당시에 대우받을 터인데 爵位가 찬란한데 先生 같은 분을 어찌 착라지 않다 할 것이며 어찌 藝를 안 익혔다 하겠는가. 그런데 지위가 이 정도에만 이르고 道가 이에 그치고 말았을까. 그러나 벼슬과 부귀가 어찌 先生의 마음에 자리 잡았으랴. 비록 先生을 배척하더라도 저울 치수만한 것이라도 세상 사람들의 좋아하는 바와 바꾼다고 하면 先生은 역시 한 찌꺼기 썩은 쥐 고기인들 생각이 있었겠는가. 진실로 先生에게는 족히 말할 것이 못된다. 先生의 前配는 陰城朴氏인데 아들이 없었고 後配는 杆城李氏로서 政丞 李芝芳의 五代孫이며 祖父는 宗孫으로서 進士였으며 아버지는 時春으로 學文은 있었으나 벼슬을 하지 않았다. 三男三女를 낳았는데 一男一女는 요절하고 장남이 宗正公이며 이름은 萬古로서 癸卯年에 司馬가 되었고 庚戌年에 文科에 들었다. 才士여서 그 집을 이었으나 아들이 없어 叔父의 孫子로서 뒤를 이었다. 이름이 斗新이며 차남은 萬春으로 아들이 있으며 딸은 忠義 李訢에게 출가하여 아들 克峻을 낳았다. 庶子는 萬世 · 萬善 · 萬祥이며 庶女가 三人인데 다 子女가 있다.

銘曰

元精胚胎 方之內外 朔近於誹 不誹不玄 糠粃詩篇 我銘先生

篤生異人 遊斯其神 雄溺於玄 優入寥天 散落人間 未足一斑

[銘에 元精이 배태되어 독실한 異人을 낳았구나. 內外의 方術에
精神을 썼고 처음에는 異端을 가까이 하더니 도리어 仙道에 빠졌었다.
異端과 仙道를 하지 않았으면 넉넉히 寥天에 드실 터인데 겨 찌꺼기의
詩篇이 人間世上에 떨어져 흩어진다. 先生의 銘을 내가 반반하게
채우지 못했네.]

仁祖 庚午 一六三拾年 三月 日

中直大夫吏曹佐郎 知製敎 龍洲 趙絅 撰

봉래 선생을 추모하기 위해 음력 9월 16일 길명사에서 포천의 유림과 후손 유관기관의 단체장 임원 등이 모여 제향을 받든다. 吉明祠 앞에 있는 蓬萊公崇慕碑文

通政大夫 行安邊大都護府使 蓬萊楊公 崇慕碑銘

드넓은 永平의 동녘 東面에서도 찬란한 아침의 陽光이 가장 먼저 높돋아 金柱名山 남쪽 기슭 蓬萊마을 吉明里와 東村의 芝峴坪을 한가슴에 품어 내려보는 瑞氣之陵 丑坐原이 世紀의 名人 通政大夫 行安邊大都護府使 淸州楊公 蓬萊 士彦의 佳城이로다. 公이 1517년에 이 땅에 오신 이래 於焉 四百九十餘星霜을 헤아리게 되니 無限有數의 光陰속에 오늘도 그 風泉之追慕는 나날로 悠長하여라. 天光地勢는 依舊하되 人間事는 덧없다 했던가 1455年 端宗의 禪位에 얽힌 兵使公 退隱 先祖와 惠寶의 悲史에 連累한 회오리는 淸州楊門에 휘몰아쳐서 氏族一家는 散散히 八道에 離散하여 激動期 歷史의 屈折된 흐름속에 저마다 試鍊과 苦難을 克服하여 나름대로 삶의 터전을 마련하여 갈고 닦으며 여러 모양으로 오늘을 살고 있다. 謹按하건대 淸州楊門은 憂國衷懇에 의한 四大歲貢 削減이라는 絕代功勳을 세운 始祖 忠憲公을 비롯하여 二世 西平君 三世 景安公 等 三代에 걸쳐 淸白吏를 輩出하니 이 나라에 淸白吏란 낱말을 存在시킨 滿天下 咸頌의 名文世家이다.

淸州楊門의 溯源은 紀元前 2700년 頃의 中國皇帝로 전하며 그 41世孫인 周 의 伯僑가 楊氏의 太始祖이고 60世孫인 後漢의 太尉이며 四知公으로 유명한 伯起 震의 43世孫인 起가 高麗 忠定王 3년에 恭愍王과 魯國大長公主 元에서 귀국할 때 魯嬪都令으로 金紫光祿大夫 體察使 魯國三命使臣으로 高麗에 나오시어 淸州楊氏의 始祖가 되셨다. 公은 高麗末 重臣으로서 과중한 歲貢의 폐단을 痛感하고 明에 들어가 明太祖에게 高麗財政의 어려움을 懇曲히 알리어 童女 五千人, 駿馬, 三萬匹, 緋緞, 三萬同, 苧布 六萬匹 의 歲貢削減을 確約받고 돌아오니 朝廷에서는 三重大匡輔國崇祿大夫上黨伯을 封하고 本貫을 淸州로 下

賜하여 淸州 · 海州 · 松禾를 食邑으로 내림에 한사코 사양하시니 淸白吏와 壁上三韓昌國功臣을 封하였다. 天壽를 누리시고 1394年享年92歲로 逝去하시니 諡號는 忠憲이다. 西平君 之壽는 公의 四男으로서 공의 祖父이시니 匡靖大夫 都僉議贊成事이며 淸白吏에 錄選되었다.

景安公 天震은 西平君의 四男으로 輔國大夫 行戶曹典書인데 奏請使로 明에 들어가 數年間 머물면서 高麗의 사정을 上奏하시어 六府版籍에 들어 있는 高麗에 대한 歲貢條項을 완전히 削除하고 돌아오니 나라에서는 淸白吏와 安岳君을 封하였다. 膝下에 七男三女를 두셨는데 兵使公 治는 五男이시고 長女는 名宰相 領議政 黃喜에게 出嫁하였다.

司正公 悌達은 兵使公의 三男으로 通訓大夫 行 掌隷院司正이고 主簿公 希洙는 司正公의 獨子로 朝奉大夫 敦寧府主簿이다. 膝下에 七男을 두셨는데 蓬萊公은 五男이시다. 公은 膝下에 二男을 두셨는데 長男은 萬古는 仁川大都護府使이고 二男 萬春은 直長이다. 公은 1540년 科試에서 지은 〈丹砂賦〉가 有名하여 세상을 놀라게 하는 등 文章과 神筆은 造化를 두루 갖춰 箕雅의 境地에 이르렀으며 律은 海東名蹟에 실리어 그 文才를 인정받아 두아우 士俊, 士奇와 더불어 中國의 眉山三蘇에 比하였다. 또한 天衣無縫의 詩作과 草書 · 楷書에도 能하시어 鮮初 四大名筆로도 有名하시니 金剛山 萬瀑洞에 大字로 새겨 놓으신 蓬萊楓嶽 元化洞天 八字가 남아 전하고 永平八景의 하나인 金水亭을 비롯하여 곳곳에 公의 逸話 · 詩 · 書 · 巖刻文이 지금까지도 전해지고 있어 悠悠自適하시던 公의 자취를 回想하게 하고 있다.

1546年 文科에 及第하여 閱雲亭記를 지으니 稱賞이 藉藉하였으며 이어 大同丞에 擢拜된 이래 몇 차례의 內職을 除하고는 安邊大都護府使가 되기까지 八個 고을을 다스렸으니 아마도 자연을 사랑하는 病이 남달리 깊어 山水 좋은 外方만을 골라 外職을 自請한 것이리라.

1577年 安邊大都護府使 在任時의 일이다. 이 고을은 邊方이라 民俗이 사납고 잔인하기까지 한 것을 너그러운 孝悌로 다스리고 敎化에 힘쓰자 感化한 이곳 사람들은 公의 死後에 父母의 恩惠보다 무거운데 衰服을 입지 못했다고 한탄하며 恩德을 稱誦하여 不忘碑를 세웠으니 이러한 현상은 前任地 모두에서 있었던 일이다.

이렇듯이 模範的인 善政은 말할 것도 없고 앞날의 일을 豫測하여 有事時 많은 軍馬가 먹을 수 있는 우물과 乾草를 準備하여 實際 狀況에 有用하게 活用하는 등 有備無患의 姿勢가 道內의 으뜸으로 堂上官 品階인 通政大夫에 加資된 것은 참으로 燦然한 歷史的인 史實이다.

이처럼 公은 非常한 天才인데다가 부단한 努力으로 읽지 않은 册이 없고 모르는 것이 없었다. 及第後 四十餘年의 內外職 歷任에 단 한푼의 부정이 없어 들어감에 한푼도 넉넉

함이 없었고 나감에 말 한 필이 변변하지 못할 程度로 妻子를 위하여서는 秋毫도 계획을 하지 않았고 항상 말씀하시기를 나는 四知公의 後裔로 가히 先祖께 욕됨을 끼치지 않아야 한다 하였으니 참으로 淸白吏의 本이 되는 面貌이시도다.

孝悌와 友愛 또한 曲盡하셨으니 父母喪 六年을 꼬박 侍墓하셨고 두 아우를 精誠을 다하여 사랑으로 돌보아 나라의 棟樑으로 만들었으며 특히 文才의 卓越함으로 三兄弟가 海東三傑로 일컬어지게 이끌었던 일은 세상이 다 아는 일이다. 忠으로 나라를 받들고 德으로 사람을 대했으니 대대로 子孫들에게 끼쳐 더욱 번창하고 빛이 나리로다. 淸白遺風百世新의 敎訓이 公에 이르러 오롯이 드러나 빛나니 淸州楊門의 榮光이로다.

人傑은 가고 없어도 자취는 永遠하여 오늘에도 燦然히 빛남이로다. 仙風道骨의 모습으로 폭넓은 雅量과 溫柔의 品性과 愛民의 精神으로 一貫한 삶을 사시다가 1548年 五月에 享年 六十八歲로 逝去하시어 公이 터잡아 사시던 정든 땅 吉明里 金柱山 양지바른 언덕에 禮裝하니 萬年幽宅에 드셨도다.

公의 位牌와 影幀을 奉安한 吉明祠에서 每年 九月十六日에 儒林行事로 祭享을 奉行하고 있으니 公의 名聲에 걸맞는 榮光이요 보람이로다.

이제 삼가 여기에 公의 淸廉精神과 孤高한 선비의 姿勢를 讚揚하고 높으신 學德을 기리는 後孫들의 精誠어린 崇慕의 뜻을 담아서 元老儒林과 西平君 兵使公 司正公派宗會의 諮問指導로 建立委員會에서 삼가 이 碑를 세우는 바 千萬億年이 지나도록 不泐하리로다. 敬仰의 微忱을 여기에 명하노니

四知公의 敎訓을 정히 實踐하신
淸白吏의 表象이시어라

항상 쉬지 않는 努力人로서
萬人의 尊敬 對象이시어라

時空을 超越하는 道人으로서
經世의 達人이시어라

永遠을 遺傳하는 嚮導로서
모든 이의 스승이시어라

찾는 이마다 옷깃을 여미고
머리 숙여 敬拜하게 됨이어라

二00九年十日月二日 十四稅孫 潤宅 敬撰

봉래 선생의 아들로는 인천부사를 지내신 감호 양만고 공이 있으며 1574년 선조 7년에 봉래공이 강릉부사 재임 중에 출생하여 1655년 효종 6년에 서거하였으며, 광해군 때 중년으로 알성문과에 급제하여 내외직을 두루 역임하였다. 81세에 졸하였는데 그의 생애는 평탄하지 않았다. 11세에 봉래공을 사별하고 19세에 임진왜란을 겪었으며, 1609년 선조 36년 (癸卯)에 사마문과와 경술 알성문과에 등과하여 태복시정 승문원판교 춘추관 편수직을 역임하시고, 45세 때는 인목대비 폐비 사건이 있었으며, 63세 때는 병자호란을 겪었다. 71세 때 인천부사에 부임하였는데 명나라의 멸망과 청나라의 개국 등으로 관료로써 감내하기 어려운 정황이였다. 그가 선조 광해 · 인조 · 효종 네 임금의 치하에서 관료 생활을 하였다는 것도 평탄하지 않은 관료의 생활을 말해 준다. 감호공은 선친 봉래공의 영향을 받아 서예와 문장에 모두 뛰어나 봉래선생의 문집과 유물이 현재에 내려오도록 하는 데 절대적으로 헌신하였고, 공이 남긴 《감호집》 에는 한시 937수 산문이 20편이 수록되어 역사에 보기 드문 대문장가였다. 이와 같이 많은 작품을 남기었는데도 우리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이유는 학술연구 발표가 적었다는 것이다. 1998년에 부산 교육대 이성신 교수가 처음으로 〈감호집〉을 소개 유풍 악록과 신선 설화를 소개한 바 있으며, 이후 강민경의 논문이 발표되는 것 등이 전부였으니 안타까운 현실이다. 다행히 [한국연구재단]에서 감호문집 인영본으로 국역본이 출판 예정이라고 하니 다행이라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은 현실을 안타깝게 여긴 포천의 유현과 후손 포천문화원이 주관이 되어, 2015년 11월 20일 강남대학교 국문학과 홍순석 교수에 의하여 [감호 양만고 선생의 생애와 저술]이라는 학술발표회를 개최하고 논문집 500부를 발행하여 필요기관과 수요자에게 공급하여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Ⅲ. 결론

이러한 국가와 민족 포천을 빛낸 가문의 인물을 천학비재 무명 인사가 글을 쓴다는 것이 송구한 마음이 들며 옷깃을 여미며 글을 마친다.♠

■ 참고한 문헌
포천군지
청주양씨 세보
포천명륜대학 교재
포천을 빛낸 인물 연구(2015년 포천문화원)
양사언 생애와 시 홍순석 저 강남대학교 출판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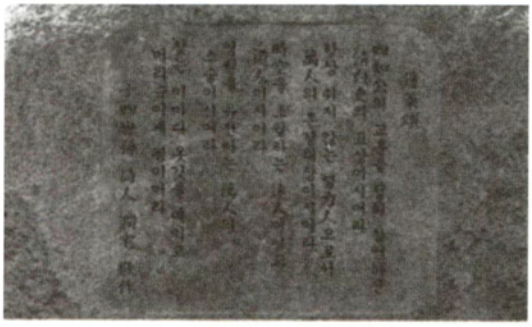
금수정 남쪽 하천 바위에 瓊道 암각

金水亭 암각문을 탁본, 현판으로 제작

일동명 길명리에 있는 봉래선생 묘

일동면 길명리의 봉래선생을 모신 사당 길명사
매년 음9월 16일 기관장 유림 문중에서 제향을 모신다.

봉래공(蓬萊公) 유묵(遺墨) 비자(飛字) : 명종(明宗) 1564년 서(書)
봉래공(蓬萊公) 종손(宗孫) 재웅(載雄) 소장(所藏)



14세손 양윤택 시인이 지은 시조비
두산백과 출처

18세기 실학사상(實學思想)의 영향과 문체반정(文體反正)의 피해자 이옥(李鈺)

정 찬 모 (화성문화원 향토문화연구소 부소장)

목 차

Ⅰ. 서론

Ⅱ. 지봉(芝峰) 이수광의 지봉유설을 중심으로 본 조선후기의 실학

Ⅲ. 조선후기 북학파(北學派) 담헌(湛軒)홍대용(洪大容) 실학

Ⅵ. 시대를 앞서간 북학파(北學派)의 거장 연암(燕巖) 박지원(朴趾源)

Ⅴ. 문무자(文無子) 이옥(李鈺)과 문체반정(文體反正)

Ⅵ. 맺는 말

집필자

정 찬 모 화성문화원 향토문화연구소 부소장

1. 서론

실학은 조선 후기 사회 체제의 모순을 극복하고, 새로운 사회를 이루려는 일련의 사상 체계를 말한다. 즉, 실학은 조선 후기의 사회 · 경제적 변동에 따른 여러 가지 사회적 모순에 직면하여, 그 해결책을 구상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사회 개혁 사상이었다. 그러므로 그 사상이나 개혁의 논리는 종래의 성리학과 같을 수 없었다. 실학사상은 18세기를 전후하여 재야의 진보적 지식인들에 의해 연구되었다. 이러한 실학사상이 나타난 데에는 여러 가지의 요인이 작용하였다. 첫째, 조선 왕조가 직면하고 있었던 통치 질서의 와해 현상이 하나의 원인이 되었다. 즉, 16세기부터 변질되기 시작한 조선 사회는 두 차례의 전란을 겪으면서 크게 모순을 드러냈으나, 위정자들은 근본적인 대책을 모색하지 못하였다. 이에, 진보적 지식인들은 국가 체제를 재편하고, 민생을 안정시킬 수 있는 개혁의 방안을 제시하게 된 것이다.

둘째, 조선 왕조의 지배 원리였던 성리학이 그 사회적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사회의 새로운 변화에 대응하는 본질적인 대책이 요망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리학은 합리적인 수습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 때문에 성리학에 대한 반성과 비판이 일어나게 되었다.

셋째, 조선 후기 사회의 경제적 변화와 발전이 실학의 발생을 촉구하였다. 전쟁 피해의 복구 과정에서 피지배층은 끊임없는 노력으로 경제적 발전을 추구하였는데, 이와 같은 발전을 촉진하고 대변하는 사상으로서 실학사상이 나타났던 것이다.

넷째, 조선 후기의 신분 변동이 실학자들의 관심이 되었다. 조선 후기의 사회에서는 양반 중심의 신분 질서가 급속히 붕괴되고 있었으며, 그것은 정권에서 소외된 양반층의 경제적 몰락과 피지배층의 신분 상승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회 현실에 직면하여, 실학자들은 몰락한 양반층의 생계 대책과 서민층의 생존 문제에 주목하게 되었다.

다섯째, 서학의 전래가 실학사상의 형성에 영향을 끼쳤다. 17세기 이래 중국에서 간행된 각종 서학 서적들이 조선에 전래되어, 당시 지식인들에게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사상을 전하였다.

여섯째, 청나라의 고증학도 실학사상의 형성에 일정한 영향을 주었다. 고증학에서는 실사구시(實事求是)를 내세워, 학문 연구에서 실증적 방법을 강조하였다. 이와 같은 특징들은 조선의 지식인들에게 일정한 자극을 주었다.

조선의 지식인(유학자) 계층은 크게 둘로 나뉘어 대립했습니다. 하나는 주자학(성리학)의 정통과 권위를 앞세워 사(士)-농(農)-공(工)-상(商)의 신분 및 사회 질서를 더욱 확고하게 하는 노선이었고, 다른 하나는 변화하고 있는 현실에 맞춰 기존 체제 전반을 개혁하자는 노선이었습니다. 전

자가 송시열(宋時烈)등 서인 노론(老論) 집권세력의 정치노선을 대변한다면, 후자는 주자학의 권위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각으로 양대 전란(戰亂) 이후 급격하게 변화하는 조선의 현실을 바라보기 시작한 지식인 집단의 입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역사에서는 이들 후자의 지식인 집단을 소위 '실학자(實學者)'라고 부릅니다. 이들은 사색당파(四色黨派)를 초월하여 '실사구시(實事求是 : 사실과 현실에 근거해 진리를 추구한다)'라는 새로운 학문과 사상을 펼쳐 보였습니다. 조선 후기를 대표하는 실학자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이들이 전 당파(黨派)에서 고루 배출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남인(南人)이 최대 세력과 중심축을 이루고 있지만 말입니다. 예를 들어, 『열하일기(熱河日記)』로 유명한 박지원이나 『북학의(北學議)』를 저술한 박제가(朴齊家) 그리고 홍대용(洪大容)은 청(淸)나라와 서양의 선진 문물과 제도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자고 주장한 북학파(北學派)의 대표 학자들인데, 모두 노론(老論) 계열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박세당·유수원·서유구 등은 소론(少論) 계열의 유학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18세기 영·정조(英·正祖) 시대의 '문예부흥(文藝復興)'을 거치면서 하나의 학파(學派)로 자리를 잡아 나갑니다. 그리고 조선의 정치·경제·사회·문화 전반에 걸친 총체적인 개혁을 주장하게 됩니다. 또한 경학(經學)에서부터 농업·과학기술·지리·어문·역사·기행 및 잡학(雜學)에 이르기까지 조선 및 동아시아의 모든 학문과 사상을 새로운 시각으로 재해석하고 재구성하는 대 작업을 펼쳐 보입니다.

1. 농업 중심의 개혁 사상

실학자들의 학문적 관심은 먼저 농촌 문제에 쏠렸다. 당시, 농촌 경제의 안정 여부는 사회의 안위와 국가의 존폐에 직결되는 문제였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이들 실학자들은 농촌 경제의 안정을 추구하여, 농민층의 입장에서 토지 제도, 조세 제도, 군사 제도, 교육 제도 등의 폐단을 시정하려 하였는데, 그 때문에 경세치용학파라고도 한다. 실학자들은 특히 토지 소유의 편중으로 인하여 농민 생활이 안정되지 못한다고 보아, 토지 제도의 개혁을 가장 중요시하였다. 그러나 실학자들 사이에서도 토지 제도의 개혁 방안에는 차이가 있었다. 유형원은 반계수록에서 균전론을 내세웠다. 그는 관리, 선비, 농민 등에게 차등을 두어, 토지를 재분배함으로써 자영농을 육성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자영농을 바탕으로, 농병 일치의 군사 조직과 사농 일치의 교육 제도를 확립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성호학파(星湖學派)를 이룰 정도로 많은 제자를 키워 낸 이익은 한전론의 실시를 주장하였다. 즉, 그는 한 가정의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일정한 토지를 영업전(永業田)으로 하고, 그 밖의 토지는 매매할 수 있게 하여 점진적으로 토지 소유의 평등을 이루자고 제창하였다. 나아가, 그는 나라가 빈곤하고 농촌이 피폐한 원인으로서 노비 제도, 과

거 제도, 양반 문벌제도, 사치와 미신 숭배 등을 들어, 이를 나라의 좀이라 규정하였다.

한편, 실학을 집대성하여 목민심서, 경세유표, 탕론, 전론 등 5백여 권의 저술을 남긴 정약용은, 균전론과 한전론을 모두 반대하면서 여전론을 주장하였다.

2. 상공업 중심의 개혁 사상

18세기 후반에 이르러, 국내 상공업의 발달과 청나라 문화의 영향으로 새로운 경향을 보인 실학자들이 나타났다. 그들은 청의 문화와 청을 통하여 들어온 서양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았으므로 북학파(北學派)라고도 하고, 농업뿐만 아니라 상공업의 진흥과 기술의 혁신 등 물질문화의 발달에 관심을 쏟았으므로 이용후생학파라고도 한다. 북학파의 선구자 역할을 한 유수원은 우서에서, 중국과 우리 나라의 문물을 비교하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걸친 개혁안을 제시하였다. 그는, 지나치게 농업에만 의존해서는 안 되고, 상공업을 진흥시켜 나라 살림을 튼튼히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사, 농, 공, 상의 직업적 평등화와 전문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유수원은 상공업을 진흥시키는 구체적 방안으로서 상인 간의 합자를 통한 경영 규모의 확대와 상인이 생산자를 고용하여 생산과 판매를 주관할 것을 제안하였다. 18세기 후반의 홍대용은 청나라에 왕래하면서 얻은 경험을 토대로 임하경륜, 의산문답 등 많은 저술을 남겼는데, 담헌서에 수록되어 전해지고 있다. 그는 균전제를 주장하여 농업 문제에도 관심을 보였으나, 기술 문화의 혁신과 신분 제도의 철폐, 그리고 성리학의 극복이 부국강병의 근본이라고 믿었다. 박지원에 이르러 북학 사상은 한층 발전되었다. 일찍이 그는, 과농소초 등을 통해 농업 생산력을 높이는 문제에 관심을 쏟은 바 있었는데, 청나라에 건너가서 생산과 유통의 중요성을 실감한 다음부터는 상공업 진흥에 보다 관심을 기울였다. 즉, 수레와 선박의 이용이나 화폐 유통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으며, 이와 병행하여 양반 문별 제도의 비생산성을 비판하였다. 박지원의 사상은 박제가에 이어져서 보다 확충되었다. 청나라를 다녀온 후 북학의를 저술한 박제가는 상공업의 발달을 열렬히 희구하여, 그 방안으로서 청나라와의 통상을 강화할 것과, 수레나 선박의 이용을 늘릴 것, 그리고 절검보다는 소비를 권장하여 생산을 자극시킬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북학파의 개혁 사상은, 농업에만 치우친 유교적 이상 국가론에서 탈피하여, 부 국 강병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방안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실학자들은 자신들이 살고 있는 조선 후기의 사회를 단순히 그 시대의 현실로서 이해한 것이 아니라, 과거에 이어지고 미래로 연결되는 역사적 현실로서 인식하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민족의 전통과 현실의 당면한 문제에 대하여 관심이 컸다. 따라서, 그들은 우리의 역사, 강토, 언어 등의 연구에 학문적 관심을 집중시켰다. 현실에 대한 절실한 관심이

새로운 역사의식과 문화 의식을 고조시켰던 것이다. 먼저, 실학자들은 민족의 역사적 전통에 관심을 쏟았다. 이익은 체계적인 역사서를 남기지는 않았으나, 중국 중심의 역사관을 비판하여 민족에 대한 주체적 자각을 높이는 데 이바지하였다. 이익의 역사의식을 계승한 안정복은, 동사강목을 통해 종래의 중국 중심의 역사 인식을 탈피하고, 한국사의 독자적인 정통론을 세워 체계화하는 데 기여하였다. 그리고 새로운 역사 사실들을 치밀하게 고증하여 고증 사학의 토대를 닦았다.

한편, 한치운은 해동역사에서 다양한 외국 자료를 인용하여 민족사 인식의 폭을 넓히는 데 이바지하였고, 이긍익은 연려실기술에서 실증적이고 객관적인 서술로써 조선 시대의 정치와 문화를 정리하였다. 또, 이종휘와 유득공은 각각 고구려사와 발해사 연구에 큰 공적을 남겼는데, 고대사 연구의 시야를 만주 지방까지 확대시킴으로써 한반도 중심의 협소한 사관을 극복하기에 힘썼다. 시간성에 대한 관심이 국사의 연구로 나타났다면, 공간성에 대한 관심은 국토의 연구로 표현되었다. 그리하여 우수한 지리서가 편찬되고, 새로운 지도가 제작되었다. 이 시기에 펴낸 지리서로는, 유형원의 여지지, 이중환의 택리지, 정약용의 아방강역고, 김정호의 대동지지 등이 유명하였다. 특히, 택리지는 우리나라 각 지방의 자연 환경과 인물, 풍속, 인심의 특색 등을 세밀하게 서술하였다. 지도 제작에는 정상기와 김정호의 업적이 뛰어났는데, 전자는 동국지도를, 후자는 청구도, 대동여지도를 제작하였다. 그 이전의 지도는 행정적, 군사적인 목적이 주가 되었으나, 이 시기의 지도에는 산업, 문화에 대한 관심이 반영되어, 산맥과 하천, 항만, 도로망의 표시가 정밀해진 점에 큰 특색이 있었다.한편, 우리의 언어, 즉 한글에 대한 학문적 연구도 활발하여, 음운학과 어휘의 수집 등에서 큰 성과를 거두었다. 음운에 관한 연구 성과로는 신경준의 훈민정음운해, 유희의 언문지 등이 유명하고, 어휘 수집에 관한 것으로는 이성지의 재물보, 권문해의 대동운부군옥, 이의봉의 고금석림 등이 있다. 이들 연구는 한글의 우수성에 대한 인식, 즉 문화적 자아의식의 발현이었다. 문화 의식이 넓어짐에 따라 백과사전의 성격을 띤 저서가 많이 편찬되었다. 일찍이, 이수광은 지봉유설을 지어 문화의 각 영역을 항목별로 나누어 기술하였는데, 18, 19세기에는 이러한 학풍이 한층 발전하여 이익의 성호사설, 이덕무의 청장관전서, 이규경의 오주연문장전산고 등이 펴내졌다.

3.실학의 역사적 의의

18세기를 전후하여 크게 융성하였던 실학의 연구는 성리학적 질서를 극복하려는 움직임이었기 때문에, 실학자들의 학문 영역은 매우 넓어져서 정치, 경제, 과학, 철학, 지리, 역사 등 미치지 않은 분야가 없었다. 그리고 실학은 성리학의 폐단과 조선 후기 사회의 각종 부조리를 개혁하려는 현실 개혁의 사상이었다. 그러한 실학사상은 비록 실천적 측면에서 한계를 보이기는 하였지만,

몇 가지 역사적 의의를 지니고 있었다.

첫째, 실학에는 민족주의적 성격이 담겨 있었다. 당시의 성리학은 중국 중심의 세계관으로서, 거기에서는 우리의 문화가 중국 문화의 일부로밖에 인식되지 않았으나, 실학자들은 우리 문화에 대한 독자적 인식을 강조하였다.

둘째, 실학에는 근대 지향적인 성격이 내포되어 있었다. 실학자들은 사회 체제의 개혁, 생산력의 증대를 통해 근대 사회를 지향하고 있었다.

셋째, 실학은 피지배층의 처지를 대변하고 옹호하고자 하였다. 성리학이 봉건적 지배층의 지도 원리였다면, 실학은 피지배층의 편에서 제기된 개혁론이었다. 실학자들은 농민을 비롯한 피지배층의 생활에 관심이 많았고, 그들의 권익 신장을 위해 노력하였다. 그러나 실학은 대체로 정치적 실권과 거리가 먼 몰락 지식인층의 개혁론이었고, 또 이를 지지해 줄 만한 광범한 사회적 토대가 미약하였다. 따라서, 실학자들의 학문과 사상은 당시의 정책에 반영되지 못하여 역사의 흐름을 바꾸어 놓지 못하였다는 한계성을 지니고 있었다.

II. 지봉(芝峰) 이수광의 지봉유설을 중심으로 본 조선후기의 실학

- 실시지봉(實始芝峰) 여유집전(輿猶集全)
실학은 지봉 이수광에서 시작되어, 여유당 정약용이 전체 내용을 집대성했다.-

1. 실학의 선각자 - 지봉 이수광 (李睟光 1563~1628)

본관 전주全州. 자 윤경潤卿, 호 지봉芝峯. 시호 문간文簡
1563년(명종 18) 경기도 장단長湍 출생
1585년(선조 18) 문과 급제, 승문원부정자承文院副正字 이후 호조·병조좌랑, 성균관 대사성, 순천부사順天府使 등 역임
1590년(선조 23)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경상도 방어사 조경趙儆의 종사관으로 종군
1592년(선조 25) 진위사陳慰使로 명나라에 다녀옴
1611년(광해군 3) 왕세자 관복冠服을 주청하는 사절로 명나라에 다녀옴
1613년(광해군 5) 인목대비를 폐모하자 관직을 버리고 은거
1614년(광해군 6) 『지봉류설芝峯類說』 저술

1618년(광해군 9) 『승평지昇平志』 편찬
1619년(광해군 11) 수원水原에 은거
1623년(인조 1) 인조반정 이후 도승지, 홍문관제학, 대사헌 역임
1625년(인조 3) 조진무실차자條陳懋實箚子」 올림
1628년(인조 6) 별세(묘소 경기도 양주 장흥리)

지봉(芝峰) 이수광(1563~1628)은 안으로는 붕당정치가 시작되면서 정치세력간의 정쟁이 본격화되고, 밖으로는 임진왜란과 북방 여진족의 흥기로 말미암아 국제적인 세력 판도가 점차 재편되어가는 시기를 살아가면서 시대가 요구하는 학문을 연구하고 국가의 중흥을 위한 사회경제 정책을 수립하는데 일생을 바친 인물이다. 그는 무엇보다도 실천, 실용의 학문에 힘썼으며, 실생활에 유용한 다양한 분야의 학문을 섭렵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였다. 그의 저술 '지봉유설'은 바로 이러한 노력의 결과물이었다.

2. 국제적 감각을 갖춘 인물

이수광의 본관은 전주이다. 왕족의 후손이라는 이유로 4대 동안 관직 진출이 막혔다가 그의 아버지 이희검(1516-1579)에 이르러 관직에 진출하였다. 이희검은 명종 초에 문과에 급제하여, 선조 초에는 판서를 지냈고 청백리에도 뽑혔다. 이수광은 어린 시절을 동대문 밖에서 살았다. 그의 호 지봉은 집 부근에 있는 상산(商山)의 한 봉우리에서 따온 것으로 그가 평생 동안 이곳에 깊은 애착을 갖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젊은 시절에는 창덕궁 서쪽의 계곡인 침류대(枕流臺) 일대에서 유희경, 차천로, 신흠, 유몽인 등 당대의 명사들과 교유하였다. 이수광은 '비록 몸은 서울에 있지만 마음은 산림에 있다'라는 뜻으로 '성시산림(成市山林)'을 자처하였으며, '음악과 여색, 이욕(利慾)에 대해서 담담한 생활'을 하는 전형적인 선비 학자의 풍모를 보였다. 이수광의 학문 형성에 주요한 계기가 되었던 것은 중국으로의 사행 경험이다. 이수광은 외교력과 문장능력을 인정받아 28세 때 성절사의 서장관으로, 35세 때 진위사로, 49세 때인 1611년(광해군 3)에 세번째로 각각 중국을 다녀왔다. 당시 선진국이었던 중국으로부터 보고 배운 문화 경험과, 세 차례의 使行을 통해 안남(安南:베트남), 유구(琉球:오키나와), 섬라(暹羅:Siam, 타이) 사신들과 교유하면서 국제적인 안목을 키울 수 있었다. 광해군 대에 잠시 관직에서 물러난 이수광은 1623년 인조반정 후 관직에 다시 복귀하여 도승지, 대사간, 대사헌, 이조참판, 이조판서 등의 요직을 두루 거치다가 1628년 이조판서로 재직 중에 사망하였다. 묘소는 경기도 양주 장흥리에 있다.

3. 개방적이고 유연한 사상

조선조에 과거 보러 상경한 선비들이 반드시 찾아보는 집 중의 하나였던 비우당은 이수광이 살았던 오두막집이다. 그 이름을 달고 새로 생긴 청계천의 비우당교가 있었다.이수광의 학문은 한마디로 '실'을 강조하는 '실학'이다. 이수광은 비록 성리학자의 입지를 지켰지만 성리학에서 실용적, 실천적 요소를 찾는 것에 중점을 두었으며, 성리학 이외의 학문이라도 국부(國富)의 증진이나 민생의 안정에 유용한 것이라면 모든 학문을 폭넓게 수용하고는 개방성을 보였다. 이수광은 성리학을 이해하면서 실용, 실천의 측면에 중점을 두었기 때문에 이론 탐구만을 고집하는 학풍이나 출세의 도구로 활용되는 성리학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다. 그의 저술에는 학문을 하는 사람은 실천에 힘을 기울여야지 구담(口談)에만 치중해선 안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내용이 나온다. 그리고 모든 학문을 폭넓게 섭렵하는 한편, 비록 이단사상이라 할지라도 미리 선입견을 갖지 않고 그것이 갖는 유용성에 가치를 두는 개방적이고 유연한 사고가 나타난다. 그는 기본적으로 성리학자 였지만, 성리학만을 신념화하지 않고 성리학에서도 시대적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을 강조하는가 하면 성리학 이념을 보완할 수 있는 사상체계의 수용에 적극성을 보였다. 그가 양명학과 도가, 불교 등에 대해서도 개방적 입장을 취한 것은 이들 사상이 가지는 긍정적인 기능에 주목했기 때문이었다. '지봉유설'의 문장부와 같은 글에서는 시인을 소개하는 항목에서 사대부 학자뿐만 아니라, 방외인, 승려, 천인, 규수, 기첩 등 신분이 낮은 사람들의 시까지 소개하는 신분적 개방성을 보여 주었다. 이수광은 사행의 경험을 통하여 외국의 문물을 보다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었다. 그리고 '지봉유설'을 통해서 외국의 많은 나라를 소개했던 까닭은 외국의 역사와 문화를 자신이 살고 있는 조선이라는 나라에 비추어 보고자 했기 때문일 것이다. 고립되고 폐쇄된 국가 조선이 아니라 진취적이고 개방적으로 발전해 갈 조선을 상정하고 그 모델들을 외국의 사례에서 구해 본 것으로 여겨진다.

4. 주체성을 바탕으로 한 문화백과 사전

'지봉유설'은 우리나라 최초의 문화백과사전으로 손꼽을 수 있는 책이다. 저자의 나이 52세 때인 1614년(광해군 6)에 탈고한 것으로 되어 있다. 앞부분에는 편찬 원칙을 밝힌 3칙의 '범례'가 수록되어 있는데, 범례에서 주목되는 것은 다루고 있는 항목이 3435조에 달한다는 것, 가능한 전거를 밝혔다는 것과 인용된 서적이 348가(家)이며 유교경전에서 최신의 자료까지 활용했던 것 등이다. 그만큼 자료 조사에 치밀성을 기하고 광범위하게 자료를 수집한 흔적이 나타나 있다. '지봉

유설'에서 다루고 있는 주요한 내용은 우선 목차를 통해서 파악할 수 있는데 각 권별로 다루고 있는 항목은, 권1 천문, 재이부(災異), 권2 지리, 제국부(諸國), 권3 군도부(君道), 병정(兵政), 권4 관직부(官職), 권5 유도부(儒道)와 경서(經書), 권6 경서, 권7 경서와 문자(文字), 권8에서 권14 문장, 권15 인물과 성행(性行), 권16 언어, 권17 인사(人事), 권18 기예(技藝)와 외도(外道), 권19 궁실(宮室), 식물(食物), 권20 훼목(卉木), 금충(禽蟲) 등이다. 위의 항목에는 천문, 지리, 역사, 정치, 경제, 경학, 시문, 언어, 기예, 외도, 궁실, 식물, 금충 등 인문적 교양과 자연에 관한 것이 거의 망라되어 있다. 그야말로 문화백과사전인 셈이다. 각 항목에 대해서는 중국과 우리의 역대 사례를 중심으로 그 항목을 설명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자료를 최대한 활용, 고증하고 있다. 이수광은 서문에서 '우리 동방의 나라는 예의로써 중국에 알려지고 박아(博雅)한 선비가 뒤를 이어 나타났으되 전기가 없음이 많고 문헌이 찾을만한 것이 적으니 어찌 섭섭한 일이 아니랴. 내가 보잘 것 없는 지식을 가지고 한 두 가지씩을 적어 두었다'라고 해 우리의 문화를 자랑스럽게 여기고 행적이 뛰어난 역사적 인물을 소개하는데 '지봉유설'의 편찬동기가 있음을 밝히고 있다. 서문의 정신은 곳곳에서 나타난다. '본국'에는 각종 자료를 이용하여 우리나라가 군자국이라는 점과 동방은 전통적으로 착한 품성을 가진 곳임을 강조하고, '중국인들은 고려국에 태어나서 금강산 보기를 원한다'는 내용을 소개하여 우리 산천의 아름다움에 자부심을 보였다. 언어부에서는 '우리나라 사람의 일로서 중국 사람들이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부녀자의 수절, 천인의 장례와 제사, 맹인의 점치는 재주, 무사의 활을 쏘는 재주를 들었다. 이이에 우리나라에는 나고 중국에는 없는 것ㅉ으로, 경면지, 황모필, 화문석을 소개하는 등 우리의 좋은 전통이나 물산에 대해 깊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고 있다. '지봉유설'은 당대까지의 모든 지식과 정보가 총합된 문화백과사전이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돋보이는 것은 우리 민족문화에 대한 자부심을 바탕으로 세계문화의 수용에 진취적인 입장을 취했다는 점이다. '지봉유설'은 백과사전의 효시를 이루는 저술로서, 이익의 '성호사설', 안정복의 '잡동산이', 이규경의 '오주연문장전산고' 등 개방적이고 박학한 학풍이 자리를 잡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 전통문화에 대해 폭넓은 관심과 애정을 바탕으로 세계에 대해 열린 시각을 보인 이수광과 같은 학자가 그리운 것은 무분별하게 세계화만 외치는 오늘의 현실과 비교되기 때문은 아닐까?

실학은 10~20년의 짧은 시간에 형성된 학문이나 학파(學派)가 결코 아니다. 그것은 17세기 초반부터 19세기 초반까지 무려 200여 년 동안, 실학자들의 피와 땀이 어린 노력과 작업이 하나하나 모여 이루어졌다. 그럼 실학은 누구로부터 시작되었을까? 실학의 선구자는 1614년(광해군 6년) 『지봉유설(芝峰類說)』을 지어, 사변적이고 관념적인 유학(儒學)의 틀을 깨고 '실(實 : 현실 혹은 사실)'의 학문을 하자고 주창한 지봉(芝峰) 이수광(李睟光)이다. 당시 이수광이 저술한 『지봉유설』은 과거시험 위주의 성리학 공부나 경학과 사서(史書)에 빠져 있던 유학자들이 감히 상상

조차 할 수 없는 백과전서류(百科全書類)였다. 그는 과거시험에도 별 도움이 되지 않고 정통 학문인 경학과 사서와도 거리가 멀지만, 실제 현실 세계와 일상생활에서는 중요하게 다루어지거나 필요한 모든 정보와 지식을 『지봉유설』에 담았다. 따라서 이 책에는 천문 · 지리 · 제국(諸國) · 인물 · 언어 · 의복 · 동물 · 식물 · 곤충 등이 무려 3,435항목에 걸쳐 소개되어 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이다.

語云 松千歲而偃 稗海云 栽松時 去中大根 唯留四旁鬚根 則無不偃盖

어(語)에서는 "소나무가 천 년이 되면 옆으로 눕는다."라고 말했다. 「패해(稗海)」에서는 "소나무를 심을 때 가운데 큰 뿌리를 제거하고 오로지 사방으로 뻗은 수염뿌리만을 가지고 심으면, 모두 반드시 쓰러진다."라고 말했다.

- 『지봉유설』 「훼목부」 '나무'편

稗史云 韓國所饌鷄曰寒鷄 然則寒非天寒之寒 乃鷄名 猶本草慈鴉謂之寒鴉

「패사(稗史)」는 "한국(韓國 : 삼한)에서는 반찬(飯饌)으로 삶는 닭을 한계(寒鷄)라고 한다"고 했다. 그렇다면 한(寒)이란 날씨가 춥다는 한(寒)이 아니라, 곧 닭의 이름이다. 「본초강목(本草綱目)」에서 암까마귀를 한아(寒鴉)라고 부르는 것과 유사하다고 보면 된다.

- 『지봉유설』 「금충부」 '새'편

과거시험 준비에 목맨 유생들이나 경학과 사서에만 골몰한 주자학자(성리학자)들이 "이것도 학문이냐?"라고 할 만한 내용이지요? 그러나 주자학(성리학)의 눈과 철학으로 더 이상 세상을 보지 않고 오로지 '실사(實事)와 실용(實用)'의 시각으로 세상을 본 이수광에게는 일상생활에 유용한 소나무나 닭 또한 매우 중요한 관심사였습니다. 이렇듯 이수광은 '실(實)'을 강조하는 새로운 사상과 철학으로 자신을 둘러싼 세계와 조선의 현실을 새롭게 보기 시작한 최초의 지식인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그는 19세기 초반 정약용에 의해 완성되는 실학의 선각자(先覺者)라는 명예로운 칭호를 얻고도 남을 만한 인물입니다.

Ⅲ. 조선후기 북학파(北學派) 담헌(湛軒)홍대용(洪大容) 실학

조선후기 사회는 경제·사회 · 문화 등의 여러 부문에서 변화를 일으키고 근대지향적인 발돋움을 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바탕으로 사상계에서도 실학(實學)이라는 괄목할 만한 변화가 싹트고 있었다. 양난(兩亂)을 겪고난 후의 조선사회는 피폐해진 사회상을 극복하려는 노력이 배가되던 시기이기도 하였다. 담헌홍대용(湛軒洪大容)이 살았던 시대는 영.정조년간(英 · 正祖年間)이다. 이 시기는 양난(兩亂)을 통해 피폐해진 민정(民政)을 추스리는 노력이 있었던 시기로 사회적 변화의 분위기가 감돌고 있었던 때였다. 문화적으로는 박학다식을 숭상하며, 민중의 이익을 대변하는 실학적 분위기가 진작되고 있었다. 경제적으로는 아직도 자연경제가 전국을 지배하고 있었으나, 상업의 발달이 서울에서 뿐 아니라 지방도시에서도 현저한 발전을 보이고 있었다. 이 시기에 발달하게 된 유통과 상업의 전반적인 발전은 홍대용이 배우고 성장하는 동안 그의 학문에 많은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인다. 종래 조선의 통치 이념은 유학(儒學), 구체적으로 말해 성리학(性理學)이었다. 성리학은 조선전기에는 새로운 문화 창달의 원동력으로서, 정치를 활성화시키는 활력소로서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였다. 하지만 조선후기에 들어서면서 한 치의 비판도 허용하지 않는 지상 유일의 이데올로기로 군림함으로써 답보와 안일의 상태에 놓여 있었다. 특히 양난(兩亂)을 겪은 이후의 민중 생활이 상당히 어려운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송(禮訟)만을 일삼고 있었다. 이러한 때에 토지제도의 개혁과 농업을 중심으로 백성들의 빈곤과 부국안민을 역설하였던 새로운 학풍으로 실학이 등장하였다. 당시의 실학은 백성에 기초하면서도 민족적(民族的)인 성향이 강한 근대지향적(近代指向的)인 사상으로 조선후기를 대표하면서 사회가 나아갈 이정표 역할을 하였다. 이렇게 새로운 학풍과 사상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실학자들의 건강한 회의정신과 진취적인 성향 및 연행사(燕行使)들에 의한 서구문물의 유입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전통적인 화이관(華夷觀)에 대한 실학자들의 인식 변화와 연행사(燕行使)들에 의한 서구문물의 유입은 당시 지식층들에 광범위하게 유포되었고, 이때 전래된 서구문물은 조선의 천문학 · 수학 · 역학 등 자연과학의 발전에 전환점이 되기에 충분하였다. 이와 함께 조선의 세계관에도 커다란 변화를 가져와 당시 지식층들의 관념적 사고의 멍에를 벗겨냄으로써 합리적인 과학정신을 계발하는 데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청(淸)에서의 양명학적(陽明學的)인 학풍의 형성과 선진기술의 유입 · 실용에 목표를 두었던 북학(北學)의 형성은 조선후기 사회의 전환점을 제시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초기실학자들이 농업을 중심으로 하는 민본 의식에 더하여 대외무역과 상공업 및 광업의 중요성을 바탕으로 부국강병(富國强兵)의 토대를 갖추고자 하였던 북학파(北學派)의 학풍은 보다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사고에 근거한 근대지향적인 성격을 지닌다고 하겠다.

1. 홍대용 생애

湛軒洪大容은 1731년(英祖7) 3월 1일 아버지 洪櫟과 어머니 淸風 金氏사이의 長子로 출생하였다. 대대로 벼슬을 했던 집안(家系圖참조)에는 할아버지 龍祚가 생존해 있었고, 충청도 관찰사와 여주목사를 지낸 인물로 이후 평안도 용강군의 三和府使(1741)의 벼슬을 지내기도 하였다. 집안 대대로 중앙관직과 지방수령을 거친 선조들이 있었기 때문에 후일 담헌이 科擧를 거치지 않고 蔭職으로 관계에 진출할 수 있었다. 한편, 아버지인 洪櫟이 관계로 진출한 것은 홍대용이 14세가 되던 해에 司馬試를 통과하면서부터이다. 따라서 홍대용은 출생한 이후 줄곧 조부의 영향 아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당시 조부는 충청도 관찰사를 거쳐 여주목사의 관직에 있었고, 홍대용이 11세가 되던 해인 1741년에 祖父가 삼화부사로 부임함에 따라 함께 關西地方을 여행하는 기록으로 볼 때 집안은 할아버지를 중심으로 생활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같은 해 6월에 祖父의 갑작스런 죽음은 홍대용을 실의에 빠지게 하였고,3) 이듬해에 驪江(지금의 여주) 石室書院으로 배움의 길을 떠나면서 그의 학문 세계가 열리게 되었다. 다음의 연보를 통해 홍대용의 생애와 교유관계의 대강을 살펴보겠다.

홍 대 용 연보

1731(영조 7) 충청도 천원군 수신면 장상리에서 출생(부.홍력 모.청풍김씨)

1741(10세) 조부 홍용조의 용강부사 취임으로 관서여행. 6월13일 조부사망

1743(12세) 기호학파 대가 김원행문하에 들어감(석실서원)

1748(17세) 이홍중의 딸 한산이씨와 결혼

1752(21세) 영읍을 여행. 윤증의 문고를 읽고 노소분당의문. 스승에게 꾸지람

1753(22세) 낙론의 종장 김원행의 석실서원에서 공부 .주도이. 정철조. 황윤석. 김이안, 박윤원

1756(25세) 연암 박지원 만남(석실서원 동문수학 박윤원이 소개)

1760(29세) 과학자 석당 나경적 만남. 나주아문에서 혼천의 자명종 제작착수

1763(32세) 두 대의 혼천의와 자명종 완성

1765.11(34세) 서장관 숙부 홍억의 자제 군관으로 6개월간 북경여행(엄성,반성균,육비등 만남

1766.5 (35세) 귀국후 고향에서 건정동회우록 3권집필. 박지원등 여러 문인에게 전함. 박지원이 회의록 서문 지음

1768(37세) 서울로 이사. 이덕무, 박제가, 이서구, 유득공, 정철조, 서상수등의 북학파와 자주 어울림. 부친 홍력 사망

1771(40세) 3년상 마치고 서울로와 박지원등과 자주 왕래
1772(41세) 박지원과 집중적인 교우.
1774(43세) 주해수용, 의산문답
1775(44세) 세손익위사 사직. 정조를 가르키다(한정유, 신재선, 유의양, 홍국영)
1776(45세) 사헌부 감찰
1777(46세) 태인 현감
1778(47세) 박제가 북경방문(채재공 수행) 북학의 지음
1779(48세) 이덕무, 박제가, 유득공, 서이수, 규장각검서 발탁
1780(49세) 영천군수. 박지원 북경행
1781(50세) 박지원에게 소2마리, 공책 20권, 돈200냥보냄
1783(53세) 고향으로 내려와 10월22일 중풍으로 별세

홍대용은 1743년 고학(古學)에 뜻을 두고 낙론(洛論)의 종장(宗匠)인 김원행(金元行)의 문하로 들어감으로써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되었다. 그의 스승이 되는 김원행은 1702년(숙종 28)에서부터 1772년(영조 48)까지를 살다간 인물로 본관은 안동, 자는 백춘, 호는 미호 · 운루(渼湖 · 雲樓)이다. 김상헌의 후손으로 승지 김제겸의 아들이다. 당숙인 김숭겸에게 출계(出系)하여 농암김창협(農巖金昌協)의 손자로 알려졌다. 그는 1719년(숙종 45) 진사가 되었으나 1722년(경종 2) 신임사화 때 종조부 김창집(金昌集)이 노론의 4대신으로 사사(賜死)되고 생부 제겸을 비롯하여 친형인 성행 · 원행등이 유배되어 죽음을 당하자 어머니 배소에 따라가 학문에 전념하였다. 1725년(영조 1) 할아버지와 아버지, 형 등이 신원되었으나 시골에 머물며 벼슬을 하지 않았다.

1740년(영조 16) 학행으로 천거 받아 내시교관, 1750년 사주부등에 임명되었으나 모두 부임하지 않았고, 1759년 왕세손 교육을 맡도록 하였으나 상소하여 사퇴하였다. 후에 공조참의 · 사성 · 찬선에 임명되었으나 모두 취임하지 않았다. 일찍이 종조부에게서 가학을 배웠고, 이재(李縡)의 문인이었다. 당시 성리학에 있어서 호론 · 낙론(湖論 · 洛論)의 논쟁에서 김창협의 이론을 이어 권상하의 제자인 이재(李縡)가 중심이 된 낙론을 지지하는 종장(宗匠)으로서 견고한 위치를 지켰고, 담헌의 종조인 홍귀조(洪龜祚)의 사위였다. 한편, 김원행이 머물던 석실서원(石室書院)은 16세기 중엽 이후 안동 김씨들이 모여 사는 석실마을에 있었는데, 원래 안동에 세거(世居)하던 김번(1479~1544)이 과거에 합격한 것을 계기로 서울의 북악산 아래로 이주하였다. 이후 김번이 죽자 양주 석실산에 묘소를 마련함으로써 이곳이 안동 김씨의 묘산(墓山)이 되었고 이후 후손들이 이곳에 거주하게 되었다. 석실서원은 존명사대(尊明事大)와 반청(反淸)의 기치를 표방함으로써 뒷날 북

벌론(北伐論)의 이념적 표상으로 길이 추앙의 대상이 되었던 김상헌(1570~1652)의 학덕과 충절을 기리기 위해 세운 서원이었다. 이곳은 그가 만년에 우거(寓居)하다가 죽음을 맞은 곳이기도 하다. 이미 병자호란을 당하여 김상용(1561~1636)이 강화도에서 죽음으로 청나라에 항거하며 죽고, 김상헌은 명나라와의 의리를 표방하면서 당대에 이미 산림적(山林的)지위를 얻어 조야의 추앙을 받고 있었다. 이에 김상헌이 죽은 이후 곧 서원 건립 논의가 일어나 1654년(효종 5)에 건립되었고 김상용과 김상헌을 제향한 이후 1663년(현종 4)에 사액을 받았다. 김상헌의 자손인 김수항과 김창협이 이곳에서 학문을 집대성하였다. 이처럼 홍대용이 김원행의 문하로 입문하게 된 것은 집안 어른들 간의 교유와 환경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김원행은 기호학파의 대표적 유학자였고 아울러 홍대용의 당고모부(堂姑母夫)로 인척관계에 있었다. 또한 같은 노론(老論)에 속한 집안이면서 홍대용의 조부가 안동 김씨의 연고지인 석실마을을 관할하는 여주목사로 재직하였던 것 역시 주목된다.

12세부터 시작된 홍대용의 수학은 그가 자제군관의 자격으로 연경(燕京)을 향하던 35세까지 23년간에 이르는 기간이었다. 이 기간 동안 그는 김원행으로부터 실심(實心)으로 배우고 실사(實事)에 행하는 것에 있었음을 볼 수 있다. 아울러 서원내의 여러 동문들과의 교유는 후일 북학파를 형성했던 인물들과의 교유를 이루는데 단초를 제공한다. 홍대용이 석실서원에서 수학하기 시작한 2년 후인 1744년(영조 20), 아버지 홍락(洪樂)이 사마시(司馬試)에 합격하고 이듬해부터 외관(外官)으로서의 생활이 시작되면서 홍대용은 부친의 임지로 여행하는 등의 활동을 통해 많은 학문적 경험을 이루었다. 특히 지방에 은거한 실학자들과의 만남은 그를 학문적으로 자극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홍락(洪樂)이 나주목사의 직임을 수행하던 시절 나주의 실학자인 나경적(羅景績)과 함께 혼천의(渾天儀)를 제작하고자 했던 아들의 뜻을 존중하고 그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점은 홍대용을 과학적이고 실증적인 학문 세계로 인도하였던 중요한 대목이라 판단된다. 이처럼 20대의 청년시대에 이룩한 그의 과학적 사고와 건강한 회의정신은 이후 연행(燕行)의 곳곳에서 나타나는 과학적 열정과 탐구정신으로 이어지고, 박지원(朴趾源)과 그의 제자들인 북학파의 실학자들에게 전수되었음은 간과할 수 없는 사실이다. 청년기의 치열한 학문적 반성과 자각으로 시작된 홍대용의 수학(修學)과정은 연경에의 여행을 통해 더욱 빛을 발하게 된다. 그를 아끼는 숙부 홍억(洪檍)의 배려로 자제군관(子弟軍官)으로 선발되었다. 1765년(영조 41)은 그가 고향 수촌에 은거하면서 학문에 정진하던 해로, 더 넓은 세상으로 안목을 넓히고자 하는 욕구를 그의 일기에서 드러내고 있었다. 그해 겨울 동지사(冬至使)의 일행으로 북경에 도착한 그는 천주당을 방문하여 풍금(파이프 오르간)을 배우기도 하고, 관상감을 방문하여 그의 과학적 사고의 폭을 넓힘과 동시에 서양 선교사들과의 만남도 가지게 된다. 특히 선교사들을 통해 자명종, 회중시계 등에

대한 소개도 함께 받았다 과학적 지식의 끊임없는 탐구가 진작되던 시기에 이루어진 중국의 삼학사와의 만남은 그에게 큰 변화를 가져왔다. 이들의 교유는 세대를 이어 이루어지고, 박지원을 비롯한 북학파의 여러 실학자들과 연계되는 학문적 교류로 발전하였다. 북경 유리창에서 만난 이들은 순식간에 서로 통하였다고 한다. 홍대용은 동갑내기인 엄성(嚴誠)과의 대화를 즐겼다고 하며, 한문으로 된 필담은 신변잡기에서부터 당대 학문의 깊은 곳까지 모든 관심사에 다양하게 걸쳐 있었다. 홍대용은 이들과의 대화를 통하여 양명학은 물론 서학에 대한 적극적인 인식이 당시 조선에서 문제가 되던 성리학의 병세를 치유할 수 있는 단서가 될 것으로 보고 있었다. 이처럼 홍대용은 비교적 늦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연행사(燕行使)인 숙부 穩의 자제군관으로 연경을 여행함으로써 북학의 선진기술을 직접 체험하고, 또한 그곳의 선비들과 교유를 통한 학문적 승화를 이루어낼 수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홍대용의 북경 연행 이후 고조된 북학에의 관심은 1766년(영조 42) 5월 귀국 후 고향에 머무르며 중국에서 있었던 필담록을 정리하여 건정동회우록(乾淨衕會友錄) 3권을 만들어 내기에 이른다. 그리고 이것을 박지원과 여러 문인들에게 전하고, 항주의 삼학사와도 끊임없는 서신 교류를 이어가고 있었다. 아울러 해동시선(海東詩選)의 편찬에 노력을 경주하였다. 이듬해에 한양으로 다시 이사하여 사가(四家)와 교유를 시작하였고, 재야의 선비인김종후(金鍾厚)와 연행과 청인교우(淸人交友)에 대해 논쟁이 있었다. 겨울에 부친상을 당하고 과거를 단념하기에 이른다.

이후 1772년 박지원과의 집중적인 교유가 이루어졌다. 담헌이 42세가 되던 해에 다시 집중적인 교유가 보이는데, 이것은 두 가지로 해석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하나는 담헌이 연행사(燕行使)의 임무를 마친 이후 연행록(燕行錄)의 저술과 관련한 것이며, 또 하나는 연암(燕巖)이 원각사지근처로 이사한 이후 박제가 · 이서구 · 서상수 · 유득공 · 이덕무 · 정철조(朴齊家 · 李書九 · 徐常修 · 柳得恭 · 李德懋 · 鄭喆祚) 등과의 만남을 통한 학문적 성숙과 북학에 대한 탐구심이 작용한 것이라 판단된다. 첫 번째의 교유로 보이는 박지원과의 만남은 홍대용이 25세 때인 1755년에 이루어졌다. 이 당시의 박지원은 담헌 보다 6살 아래였지만 담헌이 석실서원에서 동문수학하던 박윤원과 같은 집안이었기에 그들의 교유는 순식간에 이루어지고 지속되어 왔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지금 남아있는 기록이나 홍대용의 문집에서 그 자신이 박지원과의 교유를 증명해 주는 자료는 담헌서(湛軒書)에 전하며, 박지원이 연행을 떠날 때 중국의 선비들에게 소개한 대목과 박지원에게 준 한 두 편의 詩가 전할 뿐이다. 따라서 두 사람의 교유관계를 증명해 주는 자료들은 박지원의 글에서 찾을 수가 있는데, 회우록서(會友錄序)와 홍덕보묘지명(「洪德保墓誌銘」)및 열하일기(熱河日記)등에서 홍대용과 관련된 내용이 보인다. 또한 연암집(燕巖集)에 5통의 서신이 전하고, 박지원의 아들 박종채(朴宗采)가 쓴 과정록(過庭錄)에 비교적 자세히 두 사람의 관계가 나타나 있다.

일찍이 과거를 포기했던 홍대용은 44세가 되던 1774년(영조 50)에 처음으로 음직(蔭職)으로 벼슬길에 나섰다. 처음에 그는 선공감감역(繕工監監役)의 일을 제수 받았으나 사양하고, 돈녕부참봉(敦寧府參奉)의 역(役)도 사양하였다. 같은 해 12월 1일 다시 익위사사직(翊衛司侍直)으로 제수되어 이후 17개월간 승명대리(承命代理)시절의 정조(正祖)를 보필하였다. 이후 정조가 즉위하자 사헌부감찰(司憲府監察)의 일을 끝으로 내직의 임무를 마감하고, 그의 나이 47세 되던 해에 태인현감(泰仁縣監)이 되었으나 외직의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하였다. 1780년(정조 4), 50세가 되던 해에 연천군수(榮川郡守)로 승격되었고 박지원의 연행(燕行)때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1783년(정조 7), 어머니의 노환을 이유로 사직하고 서울로 돌아온 그는 내직(內職)3년, 외직(外職)6년의 관직생활을 마치고 중풍으로 죽었다. 관직에 있는 동안 홍대용은 그가 일생을 통해 경주해 온 학문적 경륜을 그의 저서에 표현했던 기간으로 보인다. 이 기간 동안 그는 계방일기(桂坊日記)와 임하경륜(林下經綸)을 비롯한 많은 글을 썼다. 특히 임하경륜은 그의 정치철학을 집성했다고 볼 수 있다. 임하경륜은 단편으로 이루어졌지만 병법의 부분을 제외하고는 모두 국가체계에 대한 구상 및 정책론을 체계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여기서 그는 중세적 신분제의 부인(否認)이라는 혁명적인 주장을 담고 있다. 누구나가 노동을 해야 하고 교육을 받으며, 공적인 발언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그의 주장은 과감한 사회구조의 개혁안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IV. 시대를 앞서간 북학파(北學派)의 거장 연암(燕巖) 박지원(朴趾源)

연암(燕巖) 박지원(朴趾源)은 새로운 문물을 도입하여 낙후된 조선을 개혁하려고 한 선각자였다. 그는 이용후생(利用厚生)으로 대변되는 실용주의 사상을 바탕으로, 선진 문물을 받아들여서 조선 사회의 전통적인 특성과 결합시키고자 했다. 그렇다고 해서 연암이 당시와 완전히 다른 형태의 사회를 꿈꾸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현 체제를 근본부터 변혁하고자 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권력층에 속하면서도 자신의 기득권을 포기하고, 일반 백성들의 입장에서 사회를 개혁하고자 한 점에 있어서는 혁신적이었다고 볼 수 있다. 또 한편으로 연암은 많은 문학 작품을 저술한 문학가이기도 했다. 열여덟살 때부터 소설을 쓰기 시작하여 '광문자전(廣文者傳)', '열녀함양박씨전(烈女咸陽朴氏傳)' 등 모두 12편의 소설을 남겼다. 연암은 이러한 작품들 속에서 양반 사회의 위선에 찬 실상을 폭로하고 지도층의 무능을 신랄하게 풍자했다. 그리고 사회 전반에 실용적인 사고방식을 고취시키고자 노력했다. 연암을 일찍부터 조선의 낙후성을 인식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끊임없이 찾았다. 당시에는 오랑캐라 하여 청나라의 문화를 배척하고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그는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를 깨고 과감히 배울 것은 배우자고 주장한 철저한 현실주의자였다. 학문이나 진리의 가치는 시대의 변화에 따라 바뀌는 것이므로, 그것의 존재 의미도 실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 것이다. 그리고 세상의 발전이란 항상 새로운 관점을 통해 변화될 때만 얻을 수 있다는 진보적인 자세를 갖고 있었다. 연암의 개방주의는 주체성을 굳건히 지키는 상태에서 가치가 있는 새로운 문물만을 수용하자는 자세였기 때문에 민족의 자존이나 원칙이 흔들릴 이유가 없었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에도 당시 사회의 굳게 닫힌 문을 완전히 열지는 못했다. 그러나 그의 개방주의는 그 후 실학파와 개화파에게 면면이 이어져 진보주의 운동의 시초가 되었다.

1. 신학문에 심취하다.

박지원(朴趾源)은 영조(英祖) 재위 13년(서기 1737년)에 한성 반송방 야동(지금의 서대문)에서 박사유의 2남 2녀 중 막내로 태어났다. 한때 세상을 피해 은거했던 금천 연암협의 지명을 따서 호를 연암(燕巖)이라 하였다. 그의 본관은 반남(潘南)이었는데, 조선의 개국공신 박은(朴訔)의 13대 손이자 선조(宣祖)의 부마(駙馬)였던 금양위(金陽尉) 박미(朴彌)의 5대 손으로 명문가의 후손이었다. 그러나 아버지 박사유는 벼슬길에 한 번도 나가지 못한 백면서생(白面書生)이었고, 할아버지 박필균은 지돈령부사까지 역임했으나 평생을 청렴하게 살아서 그의 집안은 가난을 면치 못하였다. 연암은 열여섯 살 되던 해에 동갑인 전주(全州) 이씨(李氏) 보천의 딸과 혼인한 후에야 비로소 공부다운 공부를 시작할 수 있었다. 연암이 아직 글공부를 제대로 한 적이 없다는 것을 안 장인이 직접 '맹자(孟子)'까지 가르친 후, 자신의 동생인 홍문관 교리 이양천에게 가르침을 받을 수 있도록 주선해 주었던 것이다. 연암으로서는 장인과 처숙을 스승으로 모신 셈이었다. 이때부터 처남 이재성(李材盛)과 둘도 없는 글벗으로 지내면서 학문에 몰두한 그는 스무살 무렵까지 두문불출하며 유교 관련 책들은 물론이고 학문에 관련된 모든 책들을 두루 섭렵했다. 늦은 나이에 장인과 처숙에게 처음 학문을 배운 이후로는 특별히 스승을 모시지 않고 독학을 한 연암이었지만, 천성적으로 뛰어난 글재주를 가지고 있었던지 20대 초반에 이미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다. 당시 뛰어난 문장가였던 강한(江漢) 황경원(黃景源)이 연암의 글을 보고 "장차 나의 자리를 차지할 사람은 이 젊은이밖에 없다."고 경탄할 정도였으나, 연암의 실력이 얼마나 대단했는가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청년 시절에 연암은 스스로도 자신이 이룬 성과에 흡족했던지, 세상의 모든 일 중에는 하지 못할 것이 하나도 없다면서 자신만만해할 정도였다. 그러나 그 정도로 패기에 넘쳤던 연암은 과거(科擧)에는 원래 뜻이 없었는지 아니면 계속 실패를 한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서른다

섯 살부터는 아예 응시조차 하지 않았다. 한때 성균관에 소속되어 있었고, 성균관에서 자체적으로 치르는 시험에도 정기적으로 참가한 흔적이 있는 것으로 보아 애초부터 과거에 뜻이 없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연암은 왜 출세할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포기한 것일까? 이 물음에 대한 답은 그의 성격과 당시의 정치적 현실, 그리고 학문의 새로운 경향인 북학에 몰입했던 그 무렵의 행적에서 찾아볼 수 있다. 연암은 타협을 모르는 성품이었고, 언행 자체도 엄격하여 주변의 배척과 질시를 받기 쉬웠다. 또한 당시의 시대 분위기에 불만이 많았고, 세도가와 고위 관리들에 대한 비판 의식이 높아서 권력층의 비호를 받기는커녕 혐오의 대상이 되었다. 또 하나의 이유로 볼 수 있는 것으로 정조(正祖)의 외척 방지 정책이다. 정조는 즉위하기 전부터 홍봉한(洪鳳漢)과 김귀주(金龜柱)로 대표되는 외척의 폐단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외척 출신은 가급적 등용하지 않으려 했다. 그런데 연암의 집안은 앞서 언급한 대로 왕실과 인척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당시 조정에서 의도적으로 멀리한 일면이 있었다. 그리고 주변의 심한 견제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연암이 과거를 포기한 원인은 이것만이 아니다. 좀 더 정확한 이유는 그 무렵부터 그가 청나라로부터 새로운 문물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북학 사상에 깊이 빠져들고 있었다는 점에서 찾아야 한다. 담헌 홍대용과의 교류를 통하여 신학문을 접하게 된 연암은 가족을 아예 처가에 맡겨 놓고 관청에 딸린 숙소에 거처하면서 북학파 사람들과 학문 탐구에만 골몰하였다. 결국 그는 새로운 세계를 알게 해 주는 신학문에 심취한 나머지, 관직으로의 진출을 포기하고 학문 탐구의 길을 인생의 목표로 정했던 것이다.

2. 고통과 핍박의 세월, 그리고 연행(燕行)

이처럼 연암에게는 시대에 앞선 식견을 가지고 새로운 사회를 개척하는데 대한 긍지와 자부심은 있었지만, 아무런 경제적 뒷받침이 없는 그의 생활은 궁핍할 수밖에 없었다. 어떻게 보면 새로운 사상에 눈을 뜨게 된 이 시기는 연암에게 있어서 정신적으로는 풍요로운 시기였지만, 현실에 있어서는 가장 불우한 시기였다. 그의 생활은 남이 보기에도 딱할 지경으로, 그의 제자이자 평생의 동지였던 이서구(李書九)는 연암의 비참한 생활을 보고 눈물로 한탄하기도 했다. 이렇게 경제적으로 폐인이나 마찬가지인 생활을 하던 연암에게 정치적으로도 위험한 시기가 다가왔다. 그의 나이 마흔 살 때에 영조(英祖)가 죽고 정조(正祖)가 등극하여 국왕의 측근인 홍국영(洪國榮)이 득세할 때의 일이다. 홍국영은 권력을 잡자 왕세손 시절 정조를 위협하던 세력들을 완전히 제거하려고 했는데, 연암을 아끼던 홍낙성(洪樂性)이 이에 연루되자 그 화가 연암에게까지 미치게 되었다. 홍낙성은 홍국영과 같은 집안 출신이었지만 홍국영에 권세를 마음대로 휘두르는 것에 대

해 비판하고 나섰기 때문에 제거 대상으로 지목된 것이다. 친구 백영숙 으로부터 홍국영이 자신을 옭아 넣으려 한다는 사실을 전해 들은 연암은 가족을 데리고 한성을 빠져 나와 사람이 거의 살지 않는 금천(金川)의 연암협(燕巖峽)으로 숨었다. 그곳은 개성으로부터 30리쯤 떨어진 좁은 골짜기로, 봄이면 바위 절벽에 제비들이 둥지를 튼다고 하여 '연암(燕巖)'이라고 불렸다. 이곳에서 숨어 지내는 동안에 홍국영이 실각하여 다행히 화는 면할 수 있었지만 궁핍한 생활은 여전히 계속되었다. 연암은 그곳에서 직접 농사를 짓고 살았는데, 험한 일 한번 해 보지 않았던 서생으로서는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었다. 이때 개성 유수로 재직하고 있던 친구 유언호(兪彦鎬)가 많은 도움을 주어서 근근이 살아갈 수는 있었다. 연암은 조숙하여 평소 교류하던 친구들이 대부분 자신보다 나이가 많았다. 유언호도 연암보다 일곱살 연상으로, 둘은 한성에서 같이 학문을 익히고 금강산 유람도 함께 했던 절친한 사이였다. 또한 연암을 신학문의 길로 인도했던 홍대용(洪大容)도 멀리서나마 항상 후원을 아끼지 않았는데, 당시 태인 현감으로 있던 홍대용도 연암보다 여섯살 연상이었다. 연암에서의 2년여 도피 생활을 청산하고 다시 한성으로 돌아온 연암은 평계에 있던 처남 이재성의 집에 한동안 얹혀살았다. 그즈음 팔촌형 되는 영조의 부마 금성위(金星尉) 박명원(朴明元)이 청황(淸皇) 고종(高宗)의 칠순을 축하하는 사절로 선발되어 연암에게 수행원으로 동행할 것을 권했다. 그리하여 연암은 그의 인생에 일대 전환점이 되었던 연행(燕行)에 나서게 된다.

정조 재위 4년(서기 1780년)의 이 연행은 생활고와 좌절에 허덕이던 연암에게는 일종의 돌파구이기도 했지만, 그동안 자신이 그렇게 몰두했던 신학문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였다. 그로서는 간절히 바라던 일이었으나 감히 청하지 못했던 일이었다. 당시 그의 나이는 44세였는데 그동안 너무 많은 고생을 한 탓인지 머리가 이미 백발이 되어 있었다고 한다. 연암 일행은 압록강을 건너 연경으로 들어갔으나 청나라 황제가 열하로 피서를 떠나 있어서 그곳까지 찾아가야 했다. 연암은 이 여행의 전 과정을 날짜별로 자세하게 기록하여 훗날 그의 대표적인 저서인 '열하일기(熱河日記)'를 세상에 내놓았다.

3. 열하일기(熱河日記)로 유명인사가 되다.

연암은 연행에서 돌아 온지 3년 후쯤 열하일기를 총 26권으로 발간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사람들에게 선풍적인 인기를 끌게 되었다. 하지만 그에 대한 평가는 찬반양론으로 극명하게 갈렸다. 신진 사대부들에게는 혁신적 사상과 신선한 문체로 호감을 샀지만, 기존의 사대부들에게는 극도의 반감을 샀던 것이다. 연암은 열하일기에서 청의 발달된 문물을 소개하고, 조선도 이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부강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허구에 찬 양반 사회를 특유의 독설

로 풍자하여 당시 사회에 한층 더 충격을 던져주었다. 무엇보다도 열하일기 파문의 근원은 당시 선비들의 '조선중화주의(朝鮮中華主義)'와 '북벌론(北伐論)'의 허위와 위선을 적나라하게 지적한 데 있었다. 청(淸)이 명(明)을 멸망시킨 후 조선 역시 힘에 밀려 어쩔 수 없이 청에 굴복하고 조공까지 바치는 처지가 되었지만, 애초부터 청을 오랑캐로 여기던 경향이 강해 청에 대한 문화적 우월감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하여 유일한 문명국으로 떠받들던 명이 사라졌으니 이제 참된 문화의 중심 역할을 할 나라는 조선밖에 없다는 '조선중화주의'가 지도층의 의식에 자리 잡게 되었다. 이에 따라 문명국이 오랑캐들에게 치욕을 당했으므로 언젠가는 보복을 해야 한다는 '북벌론'이 명분상 힘을 얻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사고의 허구성을 연암이 지적하고 나선 것이다. 연암은 세상이 바뀌어 가고 있는데 실생활에는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하는 성리학적 관념론에만 매달려 있는 것을 한심하게 여겼다. 그리고 나라의 수준은 오히려 퇴보하고 있는데도 오히려 청의 발전된 실용 학문을 오랑캐 문화라고 배척하는 고루한 생각을 통렬하게 공박하였다. 또 '북벌론'이라는 것은 실제적인 힘과 의지도 없으면서 입으로 떠들기만 하는 빈말에 불과하므로, 거기에 집착하는 것은 유명무실한 백일몽 일 뿐이라고 거침없이 야유했다. 더구나 그러한 왜곡된 사고는 모두 독선적이고 허구에 찬 양반 사대부들에게서 비롯되었다고 지적하고 나왔으니, 당시로서는 난리가 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다시 말하면 시대적 모순의 정곡을 찔러 버린 셈이었다. 내용도 매우 파격적인데다 문체마저 당시 금과옥조처럼 떠받들던 고문체가 아닌, 일상생활 용어를 그대로 사용한 서술체여서 더욱 큰 물의를 일으켰다. 열하일기가 세상에 나오자 연암은 일약 유명 인사가 되었다. 젊은 인사들 사이에서는 그의 파격적인 사상과 문체에 심취하여 그것을 본받는 것이 어느덧 유행이 되기도 했다. 그러나 훗날, 열하일기 출간으로 봇물처럼 터지기 시작한 실용 문체에 대한 정치적 반감의 표출로서 '문체반정(文體反正)' 조치가 일어나기도 했다.

4. 뒤늦은 관직 생활

연암은 이러한 명성과 규장각(奎章閣) 소속 관리로 포진해 있던 그의 제자들의 뒷받침에 힘입어 정조 재위 10년(서기 1786년)에 종9품에 해당하는 선공감 감역이라는 관직에 등용되었다. 이때 그의 나이 쉰으로 미관말직이나마 처음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자리를 얻게 된 것이다. 당시 규장각은 연암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로 완전히 장악되어 있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규장각의 검서관(檢書官)으로 있던 이덕무(李德懋), 박제가(朴齊家), 유득공(柳得恭), 성해응(成海應) 등은 연암학파의 대표적 인물이었으며, 연암의 제자들인 이서구(李書九), 남공철(南公轍), 김조순(金祖淳) 등이 모두 규장각에 있었던 것이다. 규장각은 정조가 외척과 권신들이 권력을 휘두르는

것을 억제하고 학문 중심의 정치를 펴 나가기 위해 설립한 기구로서, 신진 관료들을 국왕의 근위 세력으로 양성하고 탕평정치(蕩平政治)를 보좌할 관료들을 키우기 위한 정책적 산실이었다. 겉모습은 왕실 직속 도서관이었지만, 정치적 무게는 그 이상이었다. 이러한 규장각이 연암학파의 온상으로 변해 있었으니, 연암학파의 근원이자 최고 지도자격인 연암을 조정으로 끌어들일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연암은 과거를 통해서 관직에 나가는 것을 일찍이 포기하였지만, 그가 쌓아 올린 학문적 성과에 의해 결국은 벼슬길에 나서게 된 셈이다. 젊어서부터 스스로 관직으로의 진출을 포기하고 학문에만 정진했던 연암이었지만, 이때는 순순히 벼슬을 받아들였다. 계속되는 경제적 어려움도 이유였겠지만, 유언호를 비롯한 친구들의 적극적인 권유도 있었고, 무엇보다도 자신의 학문적 이념을 국가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 연암 스스로도 그동안 갈고 닦은 학문을 실제 정치에 실현해 보고 싶은 욕구가 생겼을 것이다. 하지만 연암이 관직에 나간 이듬해에 그에게 시집 와서 평생을 고생만 한 동갑내기 부인 이씨가 별세하고 만다. 연암의 부인 이씨는 이상 속에서만 사는 남편 때문에 가난으로 고통 받으면서도 가정 살림을 도맡아 훌륭한 내조를 했던, 연암에게는 더없이 좋은 반려자였다. 연암이 관직에 나가게 되어 처음으로 경제적 도움을 줄 수 있게 되었는데, 반년도 못 되어 이씨가 세상을 떠나자 그 애통함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이씨가 사망한 뒤 그는 두 번 다시 재혼하지 않았을 정도로 이씨 부인에 대한 사랑이 남달랐다. 또 부인이 죽은 지 얼마 안 되어 자신이 부모처럼 따랐던 열다섯 살 손위의 유일한 형 희원이 세상을 떠났으니, 연암에게 있어 그해는 호사다마(好事多魔)라고 할 수 있는 해였다. 뒤늦게 관직에 나간 연암은 사복시 주부, 사헌부 감찰, 제능령을 거쳐 55세 되던 해에 잠시 한성부 판관을 역임한 후, 그 해 겨울에 현감이 되어 안의로 가게 되었다. 안의현(安義縣)은 경상도와 전라도가 만나는 경계 지역으로 이인좌(李麟佐)의 반란 때에 적극 호응했던 전력 때문에 반란이 진압된 후 핍박을 받아 연암이 부임할 당시까지만 해도 민심이 흉흉한 상태였다. 이곳에서 연암은 사심 없이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최대한 발휘하여 선정(善政)을 베풀었다. 그리하여 4년여를 근무하는 동안 지역 살림과 정서를 많이 회복시켜 놓았다. 연암의 선정에 대한 소식을 들은 정조가 "다스림에 있어 지극히 선량하다."는 치하와 함께 검서관으로 있던 박제가를 연암에게 보내 위로하게 할 만큼 큰 인정을 받았다. 연암은 공무 중에도 틈틈이 집필에 정력을 기울여서 미신을 타파하고 이용후생(利用厚生)을 강조하는 '홍범우익서(洪範羽翼序)'와 모순된 인습을 비판하는 '열녀함양박씨전(烈女咸陽朴氏傳)'을 저술하였다. 박씨전은 아전 임술중의 아내가 남편의 3년상을 마치던 날 자결한 사건을 목격하고, 그러한 행동을 순절이라며 칭찬하는 사회 풍습을 비인간적이라고 비판한 글로서, 여성 해방 사상을 담고 있다.

5. 문체반정(文體反正) 정책의 대상으로 지목되다.

연암이 안의 현감으로 부인한 다음 해(서기 1792년), 사회 정서의 문란이 경박한 문체를 추종하는 사조 때문이라는 판단 아래 일종의 문풍(文風) 복고 운동인 '문체반정(文體反正)' 정책이 시행되었다. 정조가 주도한 이 정책은 단순한 문예사조의 재정립 문제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분산된 국가 여론을 한데 모으고 자신의 탕평정치를 강화하려는 여러가지 정치적 목적을 담고 있었다. 정조는 문풍 변질의 책임을 연암에게 돌리고 기존의 고문체를 사용하여 일종의 반성문을 제출하도록 하였다. 또 다른 의미에서는 연암을 개혁주의자들의 막후 실력자로 인정하여, 연암을 정조 자신의 정치 세력으로 끌어들이려는 깊은 뜻이 숨겨져 있기도 했다. 정조로서는 보수파의 요청을 수용하면서도 그 반대편에 있는 개혁 진보파의 실세인 연암을 포섭하려는 일석이조의 정책을 구사한 셈이다. 문제에서 해결책을 찾고 혼란 속에서 유리한 돌파구를 발견하는 정조 특유의 정치 감각을 보여주는 정책이라 할 수 있겠다. 이 사건은 이동직(李東稷)이 정조의 총애를 받고 있던 이가환(李家煥)을 질투하여 그의 문장과 사조를 문제 삼아 규탄하는 상소를 올렸던 것이 시포가 되었다. 마침 청나라를 모방하려는 당시 사조가 못마땅했던 정조는 자신의 정치적 목적도 달성할 양으로 문풍의 변화에 대한 책임이 이가환에게 있지 않고 연암에게 있다고 지목한 것이다. 개인을 비난하는 상소를 엉뚱하게 확대시켜 정치적으로 이용한 셈인데, 한족의 불만은 선수를 쳐서 강경책으로 무마시키고 다른 편은 자신의 지시에 순응하도록 만들어 포용하는 고단수의 정치력을 보여 준 것이다. 정조의 의도를 알아챈 연암은 고문체를 사용하여 농업 관계서인 '진과농소초문'을 지어 바쳤고, 정조가 이를 받아들이는 형식으로 문제를 해결하였다. 비록 자신의 뜻과는 상반되지만, 몸을 한번 굽혀 자신에 대한 비판을 줄이고 정조의 정치적 의도도 만족시켰던 사실을 통해, 젊은 시절 그토록 강경했던 연암도 이 시기에 와서는 노련한 정치 감각을 갖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당시 사람들의 문장 서술 방법은 육경(六經)에 나오는 옛 글귀를 그대로 인용하는, 실제 현실에서 쓰는 언어와 동떨어진 난해한 문체를 사용하고 있었다. 이른바 문장은 한나라의 경향을, 시는 당나라 사조를 따라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연암은 "글이란 자기 의사를 표현하기만 하면 된다."고 하여 형식에 얽매이는 태도에 반대하였다. 그의 이러한 생각은 '증좌소산인(贈左蘇山人)'이라는 글에서도 잘 나타나 있다. '사실대로 쓰는 데에 글의 참맛이 있는 것이지, 굳이 먼 옛날에서 그 근본을 가져올 이유가 없다. 한, 당은 지금 세상이 아니며, 설사 반고(班固)나 사마천(司馬遷)이 다시 살아온다 하더라도 과거의 자신들을 따르지는 않을 것이다. 지금의 진리도 천년 뒤에는 고대의 것이 되고 마는 법이다.' 이렇게 혁신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던 연암이었지만, 현실과 타협하여 정조의 정책을 도와주려는 뜻으로 반성문을 제출하고 고비를 넘겼던 것이다. 그런데 그

무렵 연암에게 정치적 위기를 가져온 또 한번의 파문이 있었다. 연암이 청의 풍물을 흠모한 나머지 오랑캐 복장을 하고 다닌다는 유언비어가 나돌았던 것이다. 이 헛소문을 기회로 청을 배척하는 척화파(斥和派)의 후손으로 평소 연암을 못마땅하게 여기던 유한준(兪漢雋)이 그를 공격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곧 사실 무근임이 밝혀져 이번에도 역시 무사할 수 있었다. 이런 우여곡절의 와중에도 지방관의 직무를 훌륭하게 수행하던 연암은 안의 현감의 임기를 마치고 잠시 쉬었다가 정조(正祖) 재위 21년(서기 1796년) 7월에 60세의 나이로 면천 군수에 임명되었다.

6. 물러날 때를 알다.

면천 군수로 부임하기 전에 입궐한 연암은 제주도 사람 이방익의 '표류기(漂流記)'를 고쳐 쓰라는 왕명을 받고 임지에 부임하기에 앞서 '서이방익사(書李邦翼事)'로 개작(改作)하였다. 이 글에서 그는 중국 지리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과시했다. 또 1799년에 농업을 진흥하기 위하여 개량된 농사법을 필요로 하자, 예전에 지었던 '과농소초(課農小抄)'를 보강하여 내고, 사회개혁론을 담은 '한민명전의(限民名田議)'를 추가로 지었다. 그 다음해에 65세의 나이로 양양 부사가 되었지만, 채 1년도 되지 않아 늙고 병들었음을 이유로 사직하고 한성으로 돌아온다. 양양 부사로 임명되던 해에는 평소 그를 신임하던 정조(正祖)가 갑자기 죽고 순조(純祖)가 즉위하여, 그동안의 개혁 조치를 무시하고 옛 제도로 되돌리는 수구의 바람이 휘몰아쳤다. 또 정권을 틀어쥔 노론 벽파가 반대파를 제거하기 위해 사학(邪學)을 타파한다는 구실로, 개혁적 성향의 관료와 학자들을 탄압하기 시작했다. 이때 발생한 신유사옥(辛酉邪獄)으로 연암과 관련된 많은 사람들이 큰 피해를 입게 되었다. 자신이 관직에 머물러 있을 시대가 아님을 알게 된 연암은 병을 핑계로 스스로 물러나 버린 것이다. 그렇게 해서 당장의 큰 화는 모면할 수 있었지만, 관직에서 물러났다고 해서 편안히 살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사직하고 얼마 후에 연암은 포천에 땅을 구해 부친의 묘를 이장하려고 했는데, 이로 인해 분쟁에 휘말리게 된 것이다. 사실 젊었을 때 연암의 부친이 사망하자, 장지 문제를 놓고 연암의 집안과 이유라는 사람의 후손들 사이에 송사가 벌어진 적이 있었다. 송사의 결과는 연암의 집안의 쇠락하기는 했지만 당시 권력층과 연이 닿아 있던 까닭에, 연암 집안의 의도대로 처리되었다. 실상은 경제적 능력이 없는 연암의 집안이 분쟁의 소지가 많은 땅에 장지를 정한 것이 문제가 되었던 것인데, 권력의 끝자락이나마 쥐고 있던 연암 측이 관청의 도움을 받아 장지를 인정받는 것으로 결론이 났던 것이다. 이 사건으로 상대방은 자책 끝에 관직에서까지 물러나고 말아, 연암은 항상 죄스러운 마음이 있었다. 그러다가 인생의 말년에 어느 정도 여유가 생기자 그동안 찜찜하게 여겨 왔던 부분을 정리하려고 했던 것이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포천에 새로 구

입한 땅 역시 연암과는 적대적 관계에 있던 유한준(兪漢雋)의 선산이 있는 곳이었다. 원수는 외나무다리에서 만난다고 했는데, 그 말대로 되고 만 것이다. 유한준은 연암이 이장한 묘를 들어내 버리고 그곳에 자기 종친의 묘를 이장해 버렸고, 어쩔 수 없이 연암은 다른 장소를 구해 부친의 묘를 이장할 수밖에 없었다.이렇게 얽히게 된 연암과 유한준의 악연은 그 뒤 그들의 후손대에서 화해의 계기를 맞게 된다. 연암의 사상과 정신은 그의 손자인 박규수(朴珪壽)에 의해 계승되어서 구한말 김옥균(金玉均), 유길준(兪吉濬) 등의 개화파에게 전해졌는데, 이때 유길준이 유한준의 후손이었던 것이다. 역사가 만들어 낸 아이러니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우여곡절을 겪으며 말년을 보내던 연암은 중풍으로 고생하다가 순조(純祖) 재위 5년(서기 1805년) 10월 20일에 69세의 나이로 세상을 하직하였다. 그가 위독하다는 소식을 듣고 제자인 박제가가 달려와서 "선생님! 어찌 이 미련하고 어리석은 제자를 내버려두고 가시렵니까?" 하고 통곡했지만 연암은 다시는 눈을 뜨지 못했다.

7. '까마귀는 검지 않다.'

연암은 일찍이 그의 장인이자 스승인 이보천이 지적한 대로 재주가 비범하고 총명했지만, 어렸을 때부터 뜻이 높아 일정한 틸이나 형식에 얽매이기를 싫어하였으며, 당시 권력자나 양반들의 속물 근성을 혐오하여 우스개로 희화화하여 비꼬기를 즐겼다. 그러나 세상에 대하여 무조건 부딪쳐 나가기만 한 것은 아니다. 자신의 비타협적이고 직선적인 성격을 풍자와 해학으로 완화시켜 세상의 풍파로부터 비껴가기도 했다. 술을 즐기고 친구들과 어울리기를 좋아했던 일면 때문에, 형편이 넉넉하지 못한 주제에 노는 것만 즐긴다는 오해도 받았지만, 그에게 있어 술자리는 눈에 거슬리는 세상을 잊고 동료들과 토론을 나누고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였던 것이다. 연암은 예술가의 호방함과 선비의 근엄함을 함께 가지고 있었으며, 싫고 좋음이 분명하여 사람들을 세심하게 가려서 싫어하는 사람들은 거리를 두고 상대하였다. 이런 까다로운 처세 때문에 관직에 나가서도 잘 맞지 않는 사람들과는 자주 불화를 일으켰으며, 오만한 독불장군이라고 불리기도 했다. 그러나 공무에 임할 때는 기강이 서릿발 같았고, 핵심을 잘 파악하여 일을 처리하는데 있어서 절도가 있고 사리를 잘 분별했다. 그러면서도 때로는 우스개로 복잡한 분쟁을 해소하기도 했으며, 때로 사람을 다스리는 것을 극히 싫어했다. 청렴결백한 일면도 빼놓을 수 없는 그의 성품으로, "사대부는 물질로서 사람을 기쁘게 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평생 지키며 살았다. 또 안의 현감의 임기를 마치고 한성으로 돌아와 있을 때, 그의 선정을 치하하기 위하여 현민(縣民)들이 송덕비(頌德碑)를 세우려 하자, "비문을 세운다면 내가 앞장서 그것을 깨버리고 주모자는 벌주도록 하겠다."며 강경하게 저지하기도 했다. 연암의 사상적 바탕은 "같다면 벌

써 진실이 아니다."는 말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형식주의와 보수 성향을 거부하는데 있다. 특히, "까마귀는 검다."는 식의 경직되고 고착화된 생각을 싫어했다. 그는 "까마귀 날개보다 더 검은 것도 없어 보이지만, 빛에 비추어 보면 엷은 황색도 들고 연한 녹색도 보이며 비취색도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와 같이 매사에는 정해진 일정한 빛깔이 없는데도 사람이 먼저 눈와 마음으로 정해 버리고 만다."며 주관적 독단주의를 비판했다.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후 조선은 성리학적 명분론에 입각한, '조선중화주의'와 '북벌론'을 내세워 국민적 단합과 국력의 축적을 도모했다. 그것이 전대미문의 전란을 연이어 겪은 조선 사회를 통합시키고 지탱해 준 것은 사실이지만, 한 세기 정도 세월이 지나자 그것이 내포하고 있던 국수주의적 폐쇄성으로 인해 조선을 낙후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반면에 조선이 오랑캐로 취급하던 청(淸)은 한족(漢族) 문화를 적극 수용하고 서양 문물까지 도입하여, 18세기 즈음에는 찬란한 문화의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었다. 따라서 이제는 쓸데없는 북벌론에 집착하지 말고 청의 발달된 문물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 바로 연암 등이 주장한 북학(北學) 사상이었다. 더구나 조선의 정신 구조를 형성하고 있던 성리학은 이즈음 그 생명력이 다하여 공리공론에만 매달리는 폐단을 드러내고 있어서, 새로운 사상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던 상황이었다. 즉, 사상계가 재편되어 가는 과정에 있었던 것이다. 연암의 사상에서 또 하나 주목할 점은 농민의 입장에서 토지 소유 관계를 변혁해야 한다는 주장과, 사회의 변화는 전통적인 인간성을 극복해낼 새로운 인간상이 나타남으로써 가능해지고 더욱 촉진된다는 생각이다. 우선 당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던 대지주의 토지 집중화 현상을 막기 위하여 토지의 재분배를 주장하였다. 개인의 토지를 국가가 전부 회수하여 골고루 재분배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그것은 이상에 불과하므로 차선책으로 들고 나온 것이 바로 '한전법(限田法)'이었다. 연암이 주장한 한전법은 일종의 토지 소유 상한제로서, 일정 한도 이상의 토지 소유를 금지하고 소유 한도를 넘어선 토지는 타인에게 매매 등의 방법으로 양도하게 하여, 시간이 흐르면 자연히 균등하게 분배되게끔 유도하자는 방안이다. 또 연암이 이상적으로 생각한 새로운 인간형은 상공법의 발달과 유통 경제의 확대에 따라 이러한 시대적 경향에 적응할 수 있는 기업가적 인간이었다. 그리고 그런 인간형은 양반뿐 아니라 어떤 계층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하여, 당시로서는 파격적인 사고의 일면을 보여주기도 했다. 이로 인해 연암은 보수파로부터 더욱 집중적인 비난과 공격을 받았던 것이다. 다만 그의 출신이 권력층과 연결된 가문이었고, 혈기왕성하여 좌충우돌하던 시기에는 재야에 있었기 때문에 직접적인 견제의 대상이 되지 않았다. 그리고 늦은 나이에 관직에 나갔을 때도 거의 외직이나 미관말직에 있었던 것은 물론, 그때에는 이미 그의 추종자들에 의하여 관직의 주요 기반이 형성되었기 때문에 극도로 험한 경우는

당하지 않았던 것이다. 또 말년에 정조가 죽고 시대 사조가 보수 반동으로 회귀하자 더 이상 관직에 미련을 두지 않고 은퇴하였으며, 그 얼마 후 병으로 죽었기 때문에 극심한 탄압의 대상이 되지 않은 것 역시 다행이라면 다행이었다.

Ⅴ. 문무자(文無子) 이옥(李鈺)과 문체반정(文體反正)

이 옥 (李 鈺) 연 보

고조부 ; 이기축(李起築) -서얼, 무반, 당색 - 소북(小北)

조부 ; 이동윤(李東胤) -서족(庶族), 무반(武班)

외조부 ; 홍이석-맏사위 ; 유춘 - 유득공의 아버지, 세째사위 ; 이상오 - 이옥의 아버지

부 ; 이상오(李常五) -1754년 진사 급제

모 ; 남양 홍씨 홍이석의 딸

아들 ; 우태

본관 ; 전주 이씨 효령대군 11대손

본가 ; 경기도 화성시 송산면 지화리 매화동

자(字) ; 기상(其相)

호(呼) ; 문무자(文無子), 매화외사(梅花外史), 화석산인(花石山人)

1760년 탄생

1790년 (정조14년) ; 생원시(증광시)에 합격- 성균관 유생

1792년 (정조16년) ; 정조로부터 소설문체 지적받음 - 정조의 문체반정시작

1796년 (정조20년) ; 충청도 정산현(청양) 충군

9월 돌아와 과거 시험에 응시 - 문체를 고치지 못해 다시 영남 삼가현(三嘉縣- 합천)으로이충(移充) 편적 (編籍) 되었다가 사흘 후에 다시 한양으로 돌아옴.

1797년 (정조21년) ; 별시(別試) 초시(初試)에서 장원을 차지했으나 방말(榜末)에 붙여졌다. 충군에 대한 청원을 안 한채 고향으로 돌아옴.

1798년 (정조22년) ; 삼가현에서 소환 독촉, 형부, 예부, 병부에 청원하였으나 허락 받지 못함.

1800년 (정조23년) ; 10월에 삼가현에 내려가 118일동안 충군하다.

1801년 (순조 1년) ; 2월 귀향, 귀경하여 김려, 김선, 강이천과 잠시만나고 귀향하여 저작 활동

1815년 (순조15년) ; 사망.

1. 문체반정과 이옥

이옥(李鈺.1760~1815)은 정조에 의해 패사 소품체의 작가로 낙인찍힌 이후, 당시 사대부 사회에서 고립된 채 자신만의 독특한 글쓰기로 평생을 일관한 문인이다. 문체반정은 그의 일생의 향방을 결정지은 사건이었던바, 그 경과를 잠시 살펴보기로 하겠다. 이옥의 문체가 국왕 정조로부터 문제시된 것은 네 차례에 이르렀다. 정조 16년(1792) 생원 급제 후 이옥은 성균관 상제생(上齋生)으로 있으면서 지은 응제문(應製文)의 문체가 패관소설체(稗官小說體)를 답습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매일 50수의 사육문(四六文)을 지으며 문체를 반성하도록 하라는 처분을 받았다. 정조 19년(1795) 8월 영란제(迎鑾製)에서 지은 글은 문체가 초살(焦殺)하다는 지적을 받아 정거(停擧)의 명을 받았다가 충군(充軍)의 명으로 바뀌었으니, 곧 경과(慶科)가 있음을 고려한 조치였다. 이해 9월 과장에서 지은 과문(科文)의 문체에 대해 정조는 초살(焦殺)함이 여전히 심하니 좀 더 먼 읍으로 충군하라고 하여, 충청도 정산현(定山縣)에서 경상도 삼가현(三嘉縣)으로 이적하였다. 이듬해인 1796년 별시 초시에 응하여 방수(榜首)를 차지했으나 정조는 책문이 근래의 법식에 어긋난다고 하여 방말(榜末)에 처했다. 그 사이 이옥은 1795년 충청도 정산현으로 갔다가 다시 경상도 삼가현으로 충군하였으며, 1796년 5월에 부친상을 당하여 고향집으로 돌아와 상을 마친 후, 1799년 겨울에 다시 삼가현으로 갔다가 이듬해 봄에야 풀려나 돌아올 수 있었다. 네 차례에 걸친 정조의 거듭된 견책과 충군의 처벌에도 불구하고 이옥은 끝내 자신의 문체를 고치지 않았다. 이후 그는 과거를 단념한 채 남양 고향에서 지내면서 자신만의 독특한 패사 소품체(稗史小品體)적 문체를 고수하며 문학 창작에 전념하였다. 정조의 문체반정은 남인(南人)들이 대거 연루된 천주교 사건이 불거질 때 남인들을 보호하려는 의도가 없지 않았다. 정조가 표방한 논리는 사악(邪學(天主敎))이 뿌리내릴 수 있는 기반을 소품문이 조성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정조의 문체반정에서 똑같이 문제가 되었던 남공철 · 이상황 · 심상규 · 김조순 · 박지원 등의 벌열가문 출신들은 상징적 처벌에 그쳤을 뿐, 실질적인 처분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비해 이옥은 앞에서 본 것처럼 정거와 충군 등의 처벌을 받았다. 당시 이옥은 소과에 급제하고 대과를 준비하던 때로 그의 나이 33세에서 40세에 해당되는 시기였다. 서얼 출신으로 출신(出身)하기 위해서는 과거급제가 유일한 수단이었을 터인데, 대과를 준비하던 중요한 시기에 문체 문제로 허비해야 했던 이옥의 심리는 어떠했을까? 그의 문학세계의 기저에 깔려있는 짙은 소외감과 허무의식은 정조의 문체반정에서 남다른 혹독한 처벌을 받으면서 형성된 것으로 여겨진다.

중세 사대부 사회에서 문필 활동은 개인적인 글쓰기의 차원 이전에 지식인 집단에서 자신의 존재를 인정받고, 사회적 위상을 획득하는 유력한 통로였다. 문필의 능력은 과거로 입신하는 데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것이기도 했지만, 사대부 사회의 일원으로 다른 이들과 어울려 교유함에 있어서도 중요한 자질의 하나로 빼놓을 수 없는 것이기도 하다. 대부분의 사대부 문인의 문필 활동에 있어 공적인 글쓰기는 사적인 글쓰기에 비해 보다 큰 비중을 차지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오늘날 문집에 남겨진 글들을 일별하면 대개의 경우 개인적인 동기보다도 공적인 글쓰기의 차원에서 창작된 것이 대부분을 차지함을 알 수 있다. 작가에 따라 그 편차는 상당히 다르겠지만 공적인 영역의 글쓰기는 누구도 거부하기 어려운 그 시대의 규범이었던 것이다. 그런데 현전하는 이옥의 글들 중에는 이른바 응주문자(應酬文字)주가 하나도 남아있지 않다. 사대부 문인으로서의 공적인 글쓰기의 영역에 속하는 응수문자가 전혀 남아 있지 않다는 사실은 이옥 문학의 성격을 파악할 때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라 생각한다. 이는 그의 문필 활동이 사대부 문인의 공적인 글쓰기의 기능을 의식적으로 배제한 채 철저히 개인적이고 고립된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말해준다. 이옥의 창작 행위는 이 지점에서 그의 문학적 성취와는 무관하게 동시대 어느 작가보다도 근대적 작가 의식에 접근한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문체 파동으로 인한 사회적 소외의 경험은 이옥으로 하여금 자신의 존재 가치를 심각하게 회의하게 하였으며, 사적으로 고독한 차원에서 이루어진 글쓰기는 일상의 사소한 사물들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게 한 것으로 보인다. 이옥은 자신 주변의 사소한 물상에 대한 세밀한 관찰과 치밀한 묘사, 그리고 비속하고 사소한 것에 대한 적극적인 의미 부여를 통해 일상의 세계를 문학의 주요 제재로 끌어올렸다.

이옥의 『이언(俚諺)』에 나타난 여성의 삶과 형상
- 살아있는 삶과 정감의 노래 -

1. 이옥의 작품세계 개관

이옥은 부(賦), 서(書), 서(序), 발(跋), 기(記), 논(論), 설(說), 해(解), 변(辨), 책(策), 문여(文餘), 전(傳), 이언(俚諺), 희곡(戱曲)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문학적 업적을 남겼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작품은 사후 200여 년 간 정식으로 간행된 적도 없고 체계적으로 편집된 적도 없었던 것이 사실이다.

다만 그의 벗인 담정 김려(1766-1821)가 자신을 비롯한 16인의 글을 모아 편찬한 『담정총서』 속에 산만하게 수록되어 있었을 뿐이었다. 그나마 이옥의 작품이 학계의 주목을 받게 된 것도 극히 최근의 일이다. 이옥의 글은 신선하고 아름답고 고운 문장과 이속적(俚俗的)인 표현을 특징으

로 하는 소품이 거의 전부를 이룬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문예물이 거의 대부분이고 학술이나 경세적인 글은 찾아보기 어렵다. 그가 스물다섯 살 때 쓴 「문신(文神)에게 고하는 제문(祭文)」에 "거의 천 편에 가까운 시가 있다"고 술회한 것을 보면 상당한 양의 시(詩) 작품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모두 전하지 않는 것 같다.

2. 이언『俚諺』에 나타난 여성의 삶과 형상

그의 다양한 작품 가운데에서 이번에 특별히 관심을 갖고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 바로『俚諺』에 담긴 한시들이다.『俚諺』은 여성 화자를 통해 당시 여성들의 애환과 세태를 노래한 66편의 연작시(連作詩)로, 크게 4부로 구성되어 있다. 제1부는 「아조(雅調)」, 제2부는 「염조(艶調)」, 제3부는 「탕조(宕調)」, 제4부는 「비조(?調)」이다. 먼저 「아조」는 젊잖고 수줍은, 여인의 소박하고 단아한 형상을 드러내고 있으며 「염조」는 다양한 여성의 모습이 나타나는데 대개 세련되고 자기주장이 강한 도시 여성의 모습이 드러난다.「탕조」의 주인공은 기방 여성들로 생각되며, 기방 문화를 배경으로 기녀들의 심리?생활을 보이고 있다. 마지막으로 「비조」는 서민 부녀자들의 고달픔, 괴로움, 원망이 담겨 있는 작품들이 주를 이룬다. 이 중 몇 작품을 선별하여『俚諺』에 담긴 여성의 모습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3. 1. 아조(雅調)의 단아함

〈1〉
郎執木雕雁 서방님은 나무 기러기 잡으시고,
妾捧合乾雉 첩은 말린 꿩을 받들었지요.
雉鳴雁高飛 그 꿩이 울고 기러기 높이 날도록,
兩情猶未已 서방님과 저의 정은 그치지 않을 테지요.

「아조(雅調)」의 첫 번째 작품이자 곧『俚諺』의 첫 번째 한시이다. 「아조(雅調)」에 해당하는 작품들은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여인의 수줍고 단아한 형상이 잘 드러나는 시가 중심이 되고 있으며, 한 쌍의 남녀가 새로운 가정을 이루고 첫발을 내딛는 순간과 서로 인연을 맺은 후, 신혼 때의 마음가짐을 형상화하고 있다. 위의 시는 신랑, 신부의 혼례식 장면을 묘사한 것이다.「아조(雅調)」의 작품들을 오늘날의 상황에 비유한다면, 두 남녀가 결혼한 후 신혼 초기에 서로에 대한 관

심과 애정을 쌓아가는 과정 정도로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시대상으로 미루어볼 때, 아마도 혼례 이전에 두 사람은 서로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하는 형편이었을 것이다. 그렇기에 낭군이 한평생 애정 어린 어진 배필이길 바라는 신부의 수줍은 마음에서 조심스럽지만 소망에 담뿍 물들어 있는 모습을 엿볼 수 있다.

〈2〉
一結靑絲髮 하나로 결합하였으니 검은 머리가,
相期到?根 파뿌리 될 때 까지 함께 하기로 약속했지요.
無羞猶有羞 부끄럼 없는데도 오히려 부끄럽기만 하여,
三月不共言 서방님과는 석 달 동안이나 서로 말도 못했지요.

작품 〈2〉에는 '검은 머리 파뿌리 되도록' 함께 하고 싶다는 다짐과 함께 낯선 공간, 낯선 생활환경 속에서 남편과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도 마냥 어색하고 부끄러운 신혼의 수줍은 마음이 드러나 있다. 요즘에야 연애결혼이 보편화되어 있지만 남녀의 구별이 엄격하던 조선 시대에 몸 둘 바 모르는 새색시의 모습이 잘 드러나 있다. 요즘에도 흔히 쓰이는 말인 '검은 머리 파뿌리 되도록 함께 하고 싶다'는 일상적인 표현을 한문으로 옮겨 놓은 것이 눈에 띈다.

〈3〉
四更起掃頭 4경에 일어나 머리 빗고
五更候公? 5경에 시부모님께 문안드리지요.
誓將歸家後 맹세한답니다, 장차 집에 돌아간 뒤에는
不食眠日午 먹지도 않고 한 낮까지 잠만 잘 터예요.

4경이면 새벽 1시에서 3시 사이니 지금으로 치면 깜깜한 새벽이지만 우리보다 훨씬 일찍 일어나고 일찍 잠들던 조선 시대엔 여인들의 하루 일과가 이 시간에 시작되었다고 한다. 적어도 새벽 3시경에는 일어나서 집안일을 시작해야 했다. 세수하고 물을 길어 아침밥을 준비하고, 그리고 새벽 4시쯤엔 시부모님께 문안 인사를 드려야 했으니 고달픈 삶이 아닐 수 없었다. '잠아 잠아 이 내 잠아~'로 시작되던 민요 〈잠노래〉가 연상되는 모습이었다. 친정에 돌아가면 밥도 안 먹고 잘 거라는 여인의 모습이 안쓰럽기도 하고, 꼭 투정부리는 것 같아 귀엽다는 생각마저 들었다.

〈4〉

艸綠相思緞 초록의 상사비단으로
雙針作耳囊 한 쌍의 바늘로 귀주머니를 만들었죠.
親結三層蝶 몸소 세 겹의 나비를 맺어서
手奉阿郎 예쁜 손으로 신랑에게 드렸죠.

비단을 가지고 직접 남편을 위해 주머니를 만들어 나비 모양의 장식까지 붙여서 고운 손으로 남편에게 건네며 수줍어하는 새색시의 모습이 그려지는 노래이다.

〈5〉

包以日紋褓 햇살 무늬 보자기로 싸서
貯之皮竹箱 가죽이 대나무인 상자에 쌓아두었답니다.
手剪阿郎衣 손수 낭군님의 옷을 마름질하니
手香衣亦香 손의 향기가 옷에도 베어나겠지요.

〈4〉번 작품과 마찬가지로, 새색시의 수줍은 정성이 드러나고 있는 작품이다. 시집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새색시가 남편 옷을 손수 마름질하며 마음 한 켠으로 뿌듯하기도 하고 자랑스러운 맘이 들기도 할 터이다. 손의 향기가 옷에도 베어날 거라며 혼자 미소 짓는 아내의모습이 떠오른다.

〈6〉

人皆輕錦? 사람들은 비단 수놓은 옷도 가벼이 생각하지만
重步兵衣 나는 막일할 때 입는 옷조차도 소중히 여긴답니다.
旱田農夫鋤 가문 밭에서는 농부가 호미질을 하고 있고
貧家織女機 가난한 집 여인네가 베를 짜고 있기 때문이지요.

남들은 비단 수놓은 옷조차 가볍게 생각하고 있는데, 화자는 막일을 할 때 입는 가벼운 옷조차 소중하게 생각한다. 그만큼 가난하고 소외 받으며 살아가고 있는 백성들을 외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참으로 마음씨 곱고 배려 깊은 새색시의 모습을 형상화했다. 또한 적어도 이 작품의 화자는 양반 사대부가의 여인, 적어도 부유한 중인 계층 이상의 여성이라는 점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게 해 준다. 몇 편의 작품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아조'에 속한 작품들은 혼례 이후 처음 맞이한 시집

에서의 생활과 남편에 대한 설레임과 애정,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배려하는 얌전하고 마음씨 고운 여인의 모습을 잘 드러내고 있다. 보편적으로 일컬어지는 조선시대 여인상에 어긋남이 없는 단아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모습은 어쩌면 인간의 자유로운 자기표현과는 거리가 있을지도 모른다. 이렇듯 당위적이고 도덕적인 모습에 가깝던 여인의 모습은 '염조(艶調)'에 이르러 변화된 양상을 보이게 된다.

3.2. 염조(艶調)의 세련성과 적극성

「아조(雅調)」에서 순종적이고 얌전하던 여인의 모습은 「염조(艶調)」에서 180° 변화한다. 오히려 아조(雅調)의 여성들보다 생생한 현실감을 느끼게 해주는 인물들이라고 생각된다. 염조(艶調)의 여인들은 세련되게 치장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시부모에게 대들기도 하며, 남편에게 질투를 드러내기도 한다. 한마디로 성격을 규정하기는 어렵지만 여성의 도시적 세련성과 적극성 정도로 요약해볼 수 있을 것이다. '아조'에서 이상적으로 꿈꾸고 다짐했던 결혼생활의 모습이 '염조'에 이르러서는 이런 소망과는 어긋난 모습으로 형상화된다. 오늘날에도 통하는 명제인 '결혼은 현실이다'라는 주장을 시 속에 표현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다.

〈7〉
莫種鬱陵桃 울릉도 복숭아는 심지를 마세요.
不及新粧 내가 새로 화장한 것에 미치지 못하니까요.
莫折渭城柳 위성의 버드나무일랑은 꺾지 마세요.
不及眉長 내 눈썹 길이에 미치지 못하니까요.

작품 〈7〉은 자신의 미모에 대단한 관심과 자부심을 지닌 부인을 형상화하고 있다. 당시 서울에서는 울릉도산 복숭아를 최상품으로 쳤다고 하는데 자신의 미모가 그 복숭아보다 더 낫고, 자신의 눈썹이 버들보다 더 예쁘다고 말함으로써 '울릉도의 복숭아'도 자신이 새롭게 화장한 것보다는 아름답지 않을 것임을 강조하면서 자신의 미모를 한껏 자랑하고 있는 모습이다. 그리고 이렇게 아름다운 '나'를 두고 다른 여자에게 한눈팔지 말라는 경고의 뜻도 은근히 담고 있다고 생각된다. '아조'의 작품 중에 시어머니께 받은 반지를 시집온 지 얼마 안 되어 드러내고 끼고 다닐 수가 없어서 술 안에다 묶어두고 가끔 꺼내 보는 즐거움 정도로 만족하고 있던 여인의 모습과는 사뭇 대비된다. 자신의 아름다움을 당당하게 자랑하는 여인의 모습이 인상적이다.

〈8〉

歡言自家酒 당신은 술집으로부터 왔다고 말하지만
言自娼家 내가 보기엔 기생집으로부터 온 것이네요.
如何汗衫上 어찌하여 한삼 위에
脂染作花 연지가 물들어 꽃을 만들어 놓았나요?

외박한 남편의 와이셔츠를 검사하는 드라마의 한 장면이 연상되는 모습이다. 술집에서 돌아오는 길이라고 말하는 남편의 한삼에서 여성의 붉은 연지를 발견한 아내가 기생집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냐며 따지는 장면이 생생하게 그려진다. '아조'의 여인이라면 아무 말도 못하고 시냇가에서 괜히 애꿎은 빨래만 방망이로 내려쳤을지 모를 일이다. 그저 순종하는 여성과는 차별되는 적극적인 여성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도 주위에서 얼마든지 접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공감과 함께 약간의 웃음마저 스며 나온다.

〈9〉

頭上何所有 머리에는 무엇을 꽂았나
蝶飛雙節釵 쌍절 비녀에 나비가 날아가네.
足下何所有 발에는 무엇을 신었나
花開金草鞋 비단신에 꽃 피고 금풀을 수 놓았네.

작품 〈9〉에서 그려진 여인의 모습 또한 지극히 현실적이고 세속적이다. 머리에는 나비가 날아가는 모양을 하고 있는 화려한 비녀를 꽂고, 신발은 꽃무늬와 금빛 풀 모양이 새겨진 화사한 가죽신발을 신고서 자신의 화려함에 도취된 듯한 여인의 모습을 형상화하였다. '아조'의 8번째 작품에서 집에도 명주실이 있지만 직접 누에고치를 키워서 명주실을 얻는 기쁨을 느껴보고자 하던 여인의 검소함과 절약의 형상과는 선명하게 대비되는 모습이다. 여염집 여인이면서도 저렇게 화려한 치장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전통적 여성상과는 상당히 대비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다.

〈10〉

被阿娘罵 잠깐 시어머니 꾸지람 듣고는
三日不肯 삼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를 않았지요.
佩青刀 내가 은장도를 차고 있는데

誰復愼言 누가 내게 뭐라고 할 수 있겠어요.

작품 〈10〉은 시어머니의 꾸지람을 듣고는, 그 울분을 참지 못하고 식사까지 거르면서 분을 삭이지 못하는 부인의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다. 게다가 자신이 품에 칼을 차고 있는데 누가 감히 자신을 더 꾸짖을 수 있겠느냐며 당돌하게 덤비고 있는 여성의 형상이 드러난다. '아조'의 여인은 시댁의 제삿날만 다가와도 붉은 치마는 입지 않을 정도로 조신한 몸가짐을 보였었는데, 이 여인은 대담하기 짝이 없다. 결국 한 번만 더 꾸중하면 은장도로 무슨 짓이라도 할 지 모른다는 은근한 협박마저 담고 있으니, 이 쯤 되면 무서워서라도 아내, 혹은 며느리를 함부로 대하지 못할 지경일 것이다. 「염조(艶調)」에 실린 작품들은 처음의 얌전한 새색시는 간 데 없고, 현실적이고 세속적인 여인의 모습을 담고 있다. 오히려 현대적인 여성들의 모습과 더욱 가까운 형상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염조'에는 값비싼 옷과 화려한 장신구로 치장하는 묘사가 많은데, 이런 부분에서 미(美)를 추구하는 여인의 세련된 몸가짐과 적극적이고 당당한 모습들이 잘 드러나고 있다고 생각된다. 작품 속의 여성들이 어떤 신분 계층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엄격한 규범이 강요되던 양반가의 여성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 사치스러운 생활로 미루어 본다면 역관을 비롯한 중인 서리 등 새로이 부를 축적한 신흥 부호 계층이나 조선 후기 상업 발달의 과정에 성장한 부유한 상인 계층 정도로 생각된다. '염조'에 등장한 여인들은 그 성격에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나기는 했지만 그래도 여염의 여인이고, 가정 내에서 화려한 치장을 하고 남편과 시부모 사이에서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점에서 '아조(雅調)'와 '탕조(宕調)'의 중간적 위치에 있는 게 아닌가 생각된다.

3.3. 탕조(宕調)의 관능미와 농염함

이옥은 '탕조'에 대해, "탕(宕)은 그 흐트러짐이 금할 수 없는 지경임을 이른다. 여기에서 말하는 바는 모두 창기(娼妓)의 것이다. 사람의 도리가 이에 이르면 그 질탕함이 또한 제어할 수 없음이라, 이름하기를 '탕(宕)'이라 하니 또한 시경에는 정풍과 위풍이 있다"라고 설명을 덧붙이기도 하였다. '탕조'에는 총 15편의 작품이 있는데 해당하는 모든 작품들은 기녀(妓女)를 시적 화자로 설정하고 있다. '아조'나 '염조'에서 여염집의 여인이 시적화자였던 것과 대비된다고도 볼 수 있겠다. 그러나 '탕조'에서 기녀(妓女)가 시적 화자로 등장하여 남성과 대화하고 자신을 표출하고는 있지만, 그 이면에는 남성의 아내가 늘 자리 잡고 있다고 보인다.

〈11〉

歡莫當 그대여 내 머리에 닿지 마세요.

衣沾冬栢油 옷에 동백기름이 묻는답니다.

歡莫近脣 그대여 내 입술을 가까이 하지 마세요.

紅脂軟欲流 붉은 연지 부드럽게 흘러들어 가니까요.

〈11〉번 작품은 한시에서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에로틱한 장면을 담고 있다. 한시의 규범으로 봐서는 상당히 관능적이고 파격적이라고 할 만한 은근한 유혹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염조'에서 옷에 연지를 묻히고 돌아온 남편에게 따지던 여인의 모습이 연상되기도 한다. 겉으로 보아선 자신에게 다가오지 말라는 주의인 것 같지만 실상은 질탕하게 놀아보자는 아리따운 목소리가 은근히 귓가를 맴도는 것만 같다.

〈12〉

歡吸烟草來 서방님 담배 빨면서 오시는데

手持東萊竹 손에는 동래죽을 들었네.

未坐先奪藏 채 앉기도 전에 먼저 뺏어 감추며

愛銀壽福 나는 은수복을 사랑한답니다.

이 작품은 손님이 물고 온 담뱃대를 빼앗아 감추는 기생의 모습을 포착한 것이다. 손님이 앉기도 전에 값나가는 물건을 재빨리 챙기는 약삭빠른 모양과, 자신은 은수복을 사랑한다는 말로 둘러대는 잇속에 밝고 영악한 기생의 면모를 잘 그려내고 있다. 작가인 이옥이 실제로 가까이에서 접했던 상황이 아닐까 생각될 정도로 생생한 묘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기방문화의 일면을 보여주는 작품이다.

〈13〉

六鎭好月矣 함경도 머리 묶음 예쁘니

頭頭點朱砂 머리마다 주사를 찍었지요.

貢緞鴉青色 검푸른 공단으로

新着加里麻 새로 가리마를 했네.

18세기 후반 기녀들의 최신 유행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라 할 수 있겠다. 당시 발달했던 기방문화를 배경으로 기생들의 화려한 치장을 묘사하고 있다. 월의(月矣)는 다리, 또는 다래라고 불리던 머리 장식으로 여자가 머리를 꾸밀 때 덧대어 얹는 머리카락 묶음이고 주사(朱砂)는 머리를 윤기 나게 하기 위해 바르던 광택이 있는 붉은 광물이다. 가리마(加里麻)는 예장할 때 여자의 큰머리 앞뒤에 덮는 배접한 검은 헝겊 조각이다. '염조'의 여인보다 한층 더 화려한 치장의 모습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14〉
聽靈山曲 내 영산곡 노래 듣고 나서
譏半巫堂 나를 반무당이라 놀려대니
座中諸令監 좌중에 여러 영감님 네는
豈皆是花郎 모두들 화랭이가 아닌가요

〈15〉
作社堂歌 나는 사당패 노래를 부르니
施主盡居士 시주님네 모두가 거사님이지.
唱到聲轉處 노래 가락 돌아가는 곳에서
那無我愛美 나무아미타불.

기생들은 좌중을 '화랭이'나 '거사'라 놀리고, 특히 손님들을 '시주님'이라고 부르면서 화대를 받아내기도 했다. 〈14〉, 〈15〉 두 작품 역시 위의 〈12〉번 작품과 마찬가지로 당시의 유흥적 기방문화를 잘 보여주고 있다. 특히 이 두 작품에서 눈 여겨 볼 것은 시어의 대부분이 우리말로 되어 있다는 점이다. '영감(令監)', '시주(施主)', '거사(居士)', '반무당(半巫堂)', '화랑(花郎, 화랭이)', '사당(社堂, 사당패)' 등은 특정 부류의 계층과 집단을 지칭하는 우리나라 고유의 용어이다. 기방의 단골인 하급관료를 '영감'이라고 불렀고, 기생을 놀리고 화대를 내는 이들을 '시주'라 불렀다. 그리고 사당패와 놀아나는 파계승 부류를 지칭한 듯한 '거사'를 비롯하여 '반무당', '화랭이', '사당패' 등 최하층의 천민 유랑예인 무리를 가리키는 용어를 거리낌없이 나열하고 있다. 예불할 때에 연주되던 영산회상(靈山會上) 것이 속화되어 기방에서 널리 연주되었다는 점을 알 수 있으며, 사당패 노래는 가장 천한 예인 집단의 음악이다. 이옥은 이들 용어를 사용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염불문구인 '나무아미타불'을 '내 어찌 미인을 사랑하지 않으리'와 같이 해석되도록 어희적(語戲的)으로 사용하기까지 하였다.

〈16〉

盤堆蕩平菜 술상에는 탕평채 안주 쌓여있고

席醉方文酒 술자리는 방문주에 거나하게 취하지.

幾處貧士妾 가난한 선비님네 부인들

飯不入口 누룽지 밥도 못 먹는 사람 얼마나 많은데.

이옥은 이 작품에서 산해진미가 가득한 술상을 벌여 놓고 기생 놀음하는 부도덕한 선비와 누룽지도 입에 넣지 못하는 처자식의 비참한 처지를 대비시켜, 남성의 위선과 여성의 희생을 드러내고 있다. '탕조(宕調)'의 작품이기는 하지만 '비조'의 정서와 더 어울린다고도 볼 수 있겠다. 집 안에는 곡식이 다 떨어져서 아내는 누룽지도 먹기 어려운 극한적 빈곤 상황과 술자리에 넘쳐나는 음식과 술에 취한 남편의 모습을 대비시킴으로써 비극적 상황을 더욱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기녀가 시적 화자로 나선 '탕조'이지만 아내의 존재가 그 이면에 여전히 자리하고 있음을 잘 드러내고 있다.

'탕조(宕調'에는 남편과 아내 대신 '기녀(妓女)'가 자리하면서 부부윤리의 질서에서 벗어난 남녀 관계의 질탕한 모습과 함께 당시의 기방 문화를 그려내고 있다. 부부의 도리와 사랑이 완전히 어긋나게 된 '탕조'의 상황은 결국 '비조'의 한스러운 정서를 유발시키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연결 지을 수도 있겠다.

3.4. 비조(批調)의 원망과 슬픔

「비조(批調)」에는 서민 여성들의 시집살이에 대한 괴로움, 고달픔, 원망이 담긴 작품들이 자리잡고 있다. 새색시의 섬세한 감정을 담았던 '아조'나 적극적이고 당당한 여성상이 주를 이루었던 '염조', 기방문화의 화려한 단면을 보여준 '탕조'와는 사뭇 대비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여성들의 삶의 애환을 집중적으로 조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민요의 정서와 부합하는 면도 상당하다고 생각된다.

〈17〉

謂君似羅海 당신을 사나이라고 생각했기에

女子是托身 여자가 한 몸을 맡겼답니다.

縱不可憐我 비록 나를 예뻐하지는 못할 지라도

如何虐我頻 어찌하여 나를 자주 학대하는 건가요.

작품 〈17〉은 '사나이'라는 남편을 믿고 자신의 몸을 맡겼는데, 자신을 가련하게 생각하지는 않고 학대만 하는 남편에 대한 슬픔을 토로하고 있다. '아조'에서 볼 수 있었던 신혼시절의 굳은 다짐과 맹서(盟誓)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고 이지러지고 질곡된 삶의 모습만이 남아있을 뿐이다.

〈18〉
亂提羹與飯 밥상의 국과 밥을 어지럽게 끌어서는
照我面門擲 내 얼굴에 보이고 문간으로 던졌지요
自是郎變味 이로부터 서방님의 입맛이 달라졌지
妾手豈異昔 첩의 솜씨가 어찌 옛날과 다를까요.

작품 〈18〉는 아내가 차려다 준 밥상을 마음에 내키지 않는다 하여 '이것도 밥상이라고 차린 거냐'는 식으로 아내에게 한 번 보이고는 집어던지는 매정한 남편의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다. 이러한 형상에는 부부의 애정이 어디에도 서로를 위하거나 아껴주는 모습이라곤 눈을 씻고 보아도 찾을 수 없는 비참한 지경에 이르렀음을 알 수 있다.

〈19〉
巡邏今散未 순라가 지금 흩어졌을까, 흩어지지 않았을까
郎歸月落時 서방은 달이 질 때나 돌아온답니다.
先睡必生怒 먼저 잠을 자도 반드시 노여워하고
不寐亦有疑 자지 않아도 또한 의심을 한다네.

늦은 시각까지 돌아오는 남편을 걱정하고 기다리기 보다는 그 남편이 돌아와서 자신에게 부릴 행패를 두려워하고 있는 모습이다. '비조'에서는 대개 남성의 횡포와 여성의 수난을 비추고 있는데 이 작품에서도 남편으로부터 의심받고 시달리는 여성의 서글픈 모습이 잘 드러나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20〉
使盡千脚 억센 다리 있는 대로 휘둘러
無端蹴 까닭없이 나를 걷어 찬다오.
紅頰生靑後 붉은 뺨에 푸른 멍이 든 뒤로는
何辭答尊公 무슨 말로 시아버지께 답해야 하나요.

이제는 밥상을 뒤엎는 것도 모자라 까닭없이 폭력까지 휘두르는 남편의 모습이다. 맞아도 하소연할 곳 없고, 지금처럼 이혼이라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던 조선 시대에 그저 당하고 살아야 했던 여인의 한스러운 모습이 절절히 묻어난다.

〈21〉
早恨無子久 일찍이 자식없어 오래도록 한(恨)이었는데
無子反喜事 자식 없는 것이 도리어 기쁜 일이랍니다.
子若渠父肖 자식이 만약 애비를 닮았다고 한다면
殘年又此淚 남은 인생 또 이처럼 눈물 흘렸겠지요.

작품 〈21〉에서는 자식이 없어 늘 한스러웠는데, 이제 와서는 오히려 다행이며 기쁘다고 말한다. 남편 때문에 눈물을 수도 없이 흘렸는데, 만약 자식이 남편을 닮았더라면 남은 인생마저 그 자식 때문에 또 다시 눈물 흘릴 수밖에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차라리 자식 없는 것이 지금은 도리어 기쁘다는 말에서 역설적으로 의지할 자식조차 없이 남편 때문에 마음고생하며 살아야 하는 여인의 고된 삶이 드러나고 있다.

〈22〉
夜汲槐下井 밤에 홰나무 우물에 물 길으며
輒自念悲苦 문득 서럽고 쓰라린 마음이 찾아옵니다.
一身雖可樂 내 한 몸 비록 편하게 되겠지만
堂上有公 시부모님 계시니 어이할까요.

'비조(批調)'에서 등장하는 남편은 밤이면 쏘다니고 들어와 행패 부리고, 음식 맛이 없다고 트집잡아 국그릇 밥그릇을 집어 던지고, 아내를 걷어차서 얼굴에 멍까지 들게 하는 건달 난봉꾼이다. 남편을 타이르거나 사랑을 애원하기 보다는 건달 남편을 대놓고 원망하며, 아비를 닮을 까봐 자식이 없는 것을 차라리 다행으로 여기는 데서 남편에 대한 원망과 불신이 극에 달한 봉건시대 여성들의 질곡과 불평등이 상징적으로 드러난다. 남편의 학대에 시달린 여인은 우물에서 물을 긷다가 불현듯 죽음을 생각하게 되지만 시부모 걱정에 망설이고 있다. 죽음마저 선택하기 어려운 가혹한 운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비조(批調)에 속해 있는 작품 16수는 탕조의 질탕함을 넘어서 극도로 어려운 상황에 놓인 여성들의 모습을 형상화 한다. '탕조'에서는 볼 수 없었던 '남편'

과 '아내'의 관계가 '비조'에 이르러서는 다시 거의 모든 작품을 통해 형상화되고 있다. 그러나 혼인하는 시점을 시작으로 신혼 초의 생활을 다루고 있는 '아조'에서는 이상적인 삶을 꿈꾸는 단아하고 아름다운 부부 관계가 그려졌던 반면에 '비조'에 와서는 남편의 방탕함으로 인해 수난 받는 여성상을 그리고 있다는 점에서 극명하게 대립되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또 '비조(批調)'의 1~6수에서 "차라리 가난한 집 종이 될지언정 아전의 아내가 되지 마오 겨우 순라 우두머리가 되어서 새벽녘이 되어서야 돌아온다네(寧爲寒家婢/莫作吏胥婦/?歸巡邏頭/旋去破漏後)", "차라리 아전의 아내가 될지언정 군졸의 아내가 되지마오 일 년 삼백일 중에 백 일이 빈 방이네(寧爲吏胥婦/莫作軍士妻/一年三百日/百日是空閨)" "차라리 장사꾼의 아내가 될지언정 탕자의 아내가 되지 마오 밤이면 밤마다 어디론가 갔다가 오늘 아침 또 술주정을 한다네(寧爲商賈妻/莫作蕩子婦/夜每何處去/今朝又使酒)"등은 우리 민요에 자주 등장하는 '~할 지언정 ~하지 말아라'의 표현을 빌려온 것으로 보인다. 민요의 정서와 표현을 빌려 독수공방의 외로움, 주정뱅이 남편에 대한 원망 등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이는 작가인 이옥이 서울에서 불리던 민요에 영향을 받아 가락과 정조를 수용하여 재창작 한 것으로 생각된다.

4. 살아 숨 쉬는 삶의 노래

『俚諺』 이 뛰어난 작품으로 평가받아야 할 가장 큰 이유는 고고한 정신세계나 철학적 사상을 담은 형이상학적인 의식에서 벗어나 생활의 살아있는 단면, 특히 소외되었던 여성의 삶을 살아 숨 쉬는 그대로 전달했다는 점에서 찾아볼 수 있다고 생각된다. 언뜻 본다면 『俚諺』 의 작품 66수가 아(雅)조, 염(艶)조, 탕(宕)조, 비(批)조를 네 개의 소주제로 하여 이에 따라 각기 구분되어 있는 것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네 조(調)의 작품들은 '아조'를 시작으로 '염조'와 '탕조'를 거치면서 궁극에 가서는 '비조'로 귀결되는 흐름으로 엮어 볼 수 있을 것 같다. 신혼의 소박한 감정이 세월이 지남에 따라 변모하고, 여성은 현실과 세속적 상황을 자각하게 되며, 남편은 아내 대신 윤리성을 벗어나 즐길 수 있는 기녀와 방탕한 시간을 보내면서 결국 부부는 서로간의 관계에 있어 균형을 상실한 채 고통 받는 여성만이 남게 되었다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다. 어찌되었든 『俚諺』 은 그 시대 여성들의 다양한 삶의 모습과 층위를 실감나게 전달하는 데 다른 어느 작품들보다 뛰어난 형상화를 이루고 있다고 할 수 있다.

『俚諺』 의 작품을 읽으며 문득 허난설헌의 가사 작품인 '규원가(閨怨歌)'가 떠올랐다. 천재적인 시재를 발휘했던 허난설헌이었지만 봉건제도의 벽은 그녀의 인생을 그녀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만들었다. '규원가(閨怨歌)'에서 젊은 시절의 아름다움은 어느새 지나가 버리고, 기생집에서 살

다시피 하는 남편을 기다리며 속절없이 늙어가는 자신에 대한 한탄과 남편에 대한 원망을 드러내면서도 어찌할 수 없이 남편을 그리워하게 되는 마음을 섬세하고 애절하게 그려낸 것이 『俚諺』의 정서와 통하는 면이 있다는 생각에서였다. 이옥은 "천지 만물을 살피는 데 있어서 사람을 살피는 것보다 더 큰 것이 없고, 사람을 살피는 데 있어서는 감정보다 미묘한 것이 없으며, 감정을 살피는 데 있어서는 남녀의 감정을 살피는 것보다 더 진실한 것은 없다"고 하였다. 또한 그는 시의 재료로써 여성만큼 훌륭한 것은 없으며, 여성의 다채로운 심리와 감정이야말로 문학적 소재로써 그 어느 것보다 훌륭하다는 견해를 밝히기도 했다. 이옥만큼 우리 문학사에서 여성의 심리와 감정에 대하여 다채로운 모습을 보여준 작가도 없을 것이다. 그만큼 『俚諺』에 형상화 된 여성들 역시 그 시대의 여성상을 총 망라하여 대변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섬세한 감정과 살아있는 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사대부 남성이던 이옥이 여성의 모습을 이렇게까지 생동감 있게 그려내고 있다는 점은 대단하다고밖에 표현할 수 없을 것이다. 『俚諺』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감정과 개체가 지닌 욕망에 대한 긍정을 윤리적 제약과 이데올로기에서 벗어나 그 본연의 목소리로 드러내고 있다. 여성의 감정과 생활에 관심을 두었던 것 자체가 인식상의 큰 전환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옥은 이러한 의미에서 연암 박지원과 함께 18세기를 대표하는 작가로 꼽을 수 있을 것이며, 『俚諺』의 살아있는 여성 형상과 정감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와 역시 앞으로도 지속되어야만 할 것이다. 저서로, 〈문무자문초(文無子文抄)〉 〈매화외사(梅花外史)〉 〈화석자문초(花石子文抄)〉 〈중흥유기(重興游記)〉 〈도화유수관소고(桃花流水館小藁)〉 〈경금소부(網錦小賦)〉 등이 그의 막역(莫逆)한 벗 김려의 〈담정총서〉 중에 고본(藁本) 그대로 실려 있다. 그 중에서 소설적인 요소를 지닌 것이 23편으로 모두가 한문으로 되어 있으며, 극히 단편(短篇)이기는 하나, 귀중한 것이다. 이옥의 저술은 친구인 김려가 교정하여 〈담정총서(潭庭叢書)〉 안에 수록한 11권의 산문과 〈예림잡패〉에 시 창작론과 함께 남긴 이언(俚諺) 65수가 전한다. 〈예림잡패〉에는 '3난(難)'으로 나누어 시를 창작하는 이론을 설명하였다. 4조(調)로 나누어 각 조에 10여 편씩의 이언을 창작하였다. 이 작품은 조선 후기 조선시풍의 경향과 밀착되어 민요풍의 정서를 담고 있다. 속어를 사용하여 남녀간의 정 또는 시집살이의 애환을 그리고 있다.

이옥은 정조의 문체반정(文體反正)의 희생물이 되었다. 그러나 그가 남긴 산문과 시는 조선 후기 문학의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경향을 대변하는 가치를 지니고 있다.

6. 결론

조선후기의 실학은 몇 가지 학문적 특징이 있었다. 첫 번째는 비판적 정신으로, 권위적인 주자학의 세계에 매몰되지 않고 자유롭게 학문을 탐구하며 기성사회의 구조적 모순에 대해 날카롭게 비판하는 정신을 말한다. 두 번째는 실용에 대한 관심으로, 학문적 관심을 윤리 도덕적이고 관념적인 것에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것으로 전환하여 민생을 위한 학문과 생산의 증대를 강조 했다. 세 번째는 실증적 연구 방식으로, 청조 고증학의 영향을 받아 경서의 고증뿐만 아니라 역사, 지리, 언어 등의 분야에서도 박물학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을 말한다. 네 번째로 주체적 입장으로, 당대 사회의 현실 문제를 해결하려는 경향이 강해지면서 자가 발전적이고 주체적인 입장이 강조되었다. 조선후기의 실학은 경세지용파와 북학파로 구분해 볼 수 있다. 경세지용파의 대표적 학자로는 이익(李瀷)과 안정복(安鼎福)이 있고, 북학파에는 홍대용(洪大容), 박지원(朴趾源), 박제가(朴齊家) 등이 잇다.

18세기 후반은 조선 중세사회의 하향기, 해체기에 있으면서 상대적으로 정치적 안정 속에 농업생산이 향상되고 상업과 수공업이 활기를 띠고 있었으며, 학술적으로는 실학이 흥성하였다. 당시 사회적으로 평민층이 대두하면서 거리에서 책 읽어주는 전기수(傳奇)나 사랑방 이야기꾼들에 의해 패사(稗史) 문학이 조성되었고, 이에 흥미를 가진 문사들이 소품체로 즐겨 글을 썼다. 당시 정조는 소수 특권 귀족을 견제하고 전통적 사대부들의 지지를 토대로 강력한 왕권을 형성하고 왕조의 정치 교화를 펼치고자 하였다. 그런데 정조는 사대부 사이에 유행한 소품체를 순정치 못한 문풍으로 보았다. 즉, 정통 교양에 위배될 뿐 아니라 유교 경전을 바탕으로 한 왕조의 지배 이념에도 배치되며, 백성의 심성을 흐리게 하는 불순한 것으로 여겼다. 정조는 이 같은 잘못된 문풍을 시정코자 강력한 문체반정 정책을 시행하였다. 이것이 정조 문체반정의 간략한 시말이다. 그러나 당시 문체반정은 사람의 신분과 처지에 따라 달리 시행되었다. 정조의 사부 남유용의 아들 남공철에게는 정조가 직접 엄하게 훈계하여 문체를 고치게 했으며, 안의현감으로 나가 있는 박지원에 대해서는 간접적으로 어르고 달래는 방식을 취했다. 그러나 이옥과 같은 한미한 문인에게는 정거와 충군이라는 가차 없는 처분을 내렸던 것이다. 하찮은 사물에서 진리를 발견하고, 우리 국풍과 물명에 지대한 관심을 보였다는 점에서 이옥의 글은 이덕무, 유득공의 소품문과 별반 다르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본령을 고문에 두고 있던 이들과 달리 이옥은 고문을 배우면서 허위에 빠진다는 발언까지 서슴지 않으며 오로지 소품문 창작에 몰두하였다. 정조의 문체반정에 여러 문사들이 고문으로 돌아섰지만, 이옥은 끝내 그의 문학을 지켜나갔다. 《묵토향》(墨吐香前敍)을 비롯

해 《동상기》, 《백운필》, 《연경》의 서문을 보면 이옥이 왜 이런 글을 쓸 수밖에 없었는지를 구구절절 늘어놓고 있다. 그에게 글쓰기는 술에 취해 토한 듯 저절로 이루어진 것이기도 하며, 한가함을 잊기 위해 써야만 하는 글이었으며, 일상의 자질구레한 것일지라도 서술될 필요가 있다면 곧 글이 되었다. 이렇듯 이옥에게 글쓰기는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한 방식이었다. 이옥에게 그의 문학은 문학의 영역을 넘어 생명 자체로, 그 어떤 무엇과도 바꾸거나 포기할 수 없었던 것이다.

참고문헌

『동북아 역사재단』조선후기의 실학

『Daum 백과사전』실학사상

홍대용(洪大容)의 실학과 북학(北學)사상 - 김문용

실학(實學)의 전통을 이어받은 학문과 사상 - 문화콘텐츠 닷컴

조선의 백과사전을 읽는다. 이수광(李睟光) 지봉유설(芝峯類說)- 이철

지봉유설(芝峯類說) 1.2 - 이수광(李睟光)

신병주(申炳周)의 규장각 다시 읽기 〈20〉 이수광 지봉유설

실학의 선구자 이수광(李睟光)- 한영우

국역(國譯) 홍대용(洪大容) 담헌서(湛軒書) - 민족문화추진회(民族文化推進會)

정조(正祖)와 홍대용(洪大容) 생각을 겨루다 - 김도환

홍대용(洪大容) - 김태준

의산문답(醫山問答) - 이숙경. 김영호

이이화의 인물 한국사(박지원) - 이이화

박지원(朴趾源) 열하일기(熱河日記) - 백과사전편찬위원회

옛것을 바탕으로 새것을 창조하다 - 간호윤(簡鎬允)

정유각집(貞蕤閣集) - 박제가(朴齊家)

북학파(北學派)이용후생학파, 중상학파) - 백과사전편찬위원회

고전산문산책(古典散文散策) - 안대회

이옥(李鈺)문학세계의 종합적 고찰 - 화성시(華城市)

명산도정 묘역 4형제 순절 합장묘의 역사성 연구

홍 정 덕 (경기도문화원연합회 부설 경기향토문화연구소 연구위원)

목 차

Ⅰ. 서론

Ⅱ. 본론
1. 전주이씨 선성군(宣城君)파 명산도정(明山都正) 종중(宗中)
2. 4형제 순절의 개요
3. 1) 조일전쟁 전략 목적 달성을 위한 일본 측의 전략 기도
2) 일본 측의 2차 전개
3) 4형제의 순절의 역사성

Ⅲ. 결론

※ 참고 자료

집필자
홍 정 덕 경기도문화원연합회 부설 경기향토문화연구소 연구위원

Ⅰ. 서론

1592년에 발발한 조일전쟁은 조선에게는 아무런 준비없이 마주한 급변의 모멘텀이었다 오랜 기간 다양한 전투 경험으로 단련되고 전략전술 및 동원 체계를 개발해 온 일본의 기습 앞에 성리학적 가치를 바탕으로 문치를 확립하며 장기간 안정된 체제 안에 안주(安住)하던 조선은 체제의 모순을 단 시간에 노출시키며 단지 국난을 극복할 당면 과제에 허둥지둥 매달릴 수밖에 없었다. 순치(脣齒)적 차원에서 조일전쟁에 적극 개입한 명의 대규모 지원이 있었지만 실제로 조선의 조일전쟁 승리는 신분을 망라한 전체 조선 민중의 목숨을 내어 놓은 저항이 주 동인(動因)으로 작용하였다. 물론 전선의 종심(縱深)이 깊어지고 여기에 수군의 활약으로 보급선이 차단되는 유리한 국면이 조성되었던 것이 승리의 외형적 변수로 작용하였지만 이 유리한 변수를 승인(勝因)으로 연결시킨 것은 성리학적 가치의 핵심이었던 충, 효 의식이었고, 실제로 충, 효와 같은 내적 가치들이 국난 극복의 표제로 실제화 되어 순난(殉難), 순국(殉國)을 기꺼이 무릎 쓴 희생의 정신적 기반으로 작동하게 되었다. 조일전쟁 승리에 기여한 수많은 순난(殉難), 순국(殉國) 사례는 전후 국가적 현창을 통하여 모범사례로 제시되었고, 전후 국가 권력 장악을 위한 정론(政論), 당론(黨論)의 핵심 논제로 전개되었거니와 이는 오히려 전쟁을 통하여 이미 전면적으로 노근(露根)된 사회 및 체제의 모순을 해결하려는 개혁 노력에 역방향으로 작용한 측면도 부정할 수는 없다. 의정부시 고산동에 소재하는 전주 이씨 선성군(宣城君)파 명산도정(明山都正) 종중 묘역에는 조일전쟁 당시 일본군과 항쟁하다가 한자리에서 순절(殉節)한 4형제 이극담(李克諶), 이극성(李克誠), 이극함(李克諴), 이극겸(李克謙)의 동혈(同穴) 합장묘가 위치한다. 전주이씨 선성군파 가보(家譜)의 기록에 의하면 이들 4형제는 임란이라는 초유의 국가 위기를 당하여 당시 부친의 묘소에서 수묘하던 중에 마침 묘소의 인근을 지나는 일본군과 중과부적으로 순난이 명백한데도 개의치 않고 과감히 전투에 임하여 4형제 모두가 한 자리에서 순절하는 장렬한 희생의 주인공이 되었다.

그러나 문제는 이 4형제의 순절에 관하여 전말을 기록된 문서가 해당 문중 가승(家乘)외에는 없어 이 사건의 역사성을 보장할 수 없다는 데 있다. 주지하듯 가승(家乘)이나 가보(家譜)의 기록은 때때로 객관적이기보다는 오히려 가문을 현시(顯示)하기 위한 주관적 시각이 지나치게 강조되는 경우가 많아 기록의 역사성이나 사실의 정확성이 일부 결여되어 있다는 어느 정도의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본고는 현재 의정부시 고산동에 소재하는 명산도정 묘역의 4형제 순절묘에 대한 가승의 기록을 다양한 시각으로 검토하여 이의 역사성을 검증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집필되었다. 사료의 부족이라는 현실적 한계를 여하히 극복할 것인가가 당면한 과제였기에 관련된 다양한 자료를 활용하려고 노력하였지만 여전히 극복하기 어려운 일정 한계가 있었음을 솔직히 자인한다.

II. 본론

1. 전주이씨 선성군(宣城君)파 명산도정(明山都正) 종중(宗中)

전주 이씨 선성군(宣城君)파의 시조 선성군(宣城君) 이무생(李茂生)은 조선 제2대 국왕 정종(定宗)의 넷째 아들로 태어났다[1]. 1425년에 중직대부(中直大夫)[2] 정윤(正尹)[3], 1432년에 원윤(元尹)[4] 1454년 정의대부(正義大夫)[5] 선성군(宣城君)을 각각 제수받았다. 그리고 세조가 즉위한 후 공신으로 책봉되기도 했다. 1872년에 상보국숭록대부(上輔國崇祿大夫)[6] 영종정경(領宗正卿)[7]으로 추증되었으며, 〈양정(良精)〉이라는 시호를 하사받았다. 선성군(宣城君)은 모두 9남 3녀를 두었는데[8] 이들의 자손들

---

1) 종친의 직은 초기에는 대군(大君)·원군(院君)·군(君)·원윤(元尹)·정윤(正尹)의 칭호를 사용하였고, 1443년(세종 25) 12월에는 종친의 독립된 관계(官階)를 정하여 경(卿)·윤(尹)·정(正)·영(令)·감(監)·장(長)의 칭호를 썼다.

2) 조선시대 문산계(文散階)의 하나. 문관 종3품 상계(上階)의 관계(官階)명이다. 왕실의 종친·부마를 우대할 목적으로 문산계 안에 문산계와 별도로 1443년(세종 25) 11월 종친계(宗親階)와 1444년 7월 의빈계(儀賓階)를 신설하였는데, 말기에는 종친·의빈에게도 이 관계를 주었다

3) 고려시대 봉작(封爵). 종친(宗親)과 훈신(勳臣)에게 내리던 것으로, 1298년(충렬왕 24) 종친은 종2품, 훈신은 정3품으로 정하였다. 1310년 종친으로 정윤에 제수된 사람을 정승(政丞) 위에 있게 하고, 이성(異姓)은 본품(本品)의 반열(班列)에 있게 하였다. 1391년 봉작이 남발되자, 15세 이상이라야 제수를 허락하고, 15세 미만은 제서(制書)를 내렸더라도 녹(祿)을 받지 못하게 하였다. 《고려사》〈종실열전〉에서 충렬왕 이후에 정윤이 봉작으로 사용된 예를 많이 볼 수 있다.

4) 조선(朝鮮) 시대(時代) 초기(初期)에 종실(宗室)의 대군(大君), 혹은 군(君)의 양첩 장자(良妾長子)에게 주던 작호(爵號)

5) 종친계의 종2품직

6) 조선 후기에 새로 제정된 정1품 문산계(文散階)의 하나. 19세기에 제정된 것으로 짐작되며, 국구(國舅)·종친(宗親)·의빈(儀賓) 등에게만 주던 특수 관계(官階)이다. 정1품의 문산계는 대광보국숭록대부(大匡輔國崇祿大夫)와 보국숭록대부의 상하계로 구분되어 있었다. 그러나 종친·의빈계는 상하의 구분 없이 상보국숭록대부만 사용되었는데, 이것은 조선 초기의 종친계인 현록대부(顯錄大夫)·수록대부(綏祿大夫), 의빈계인 흥록대부(興祿大夫)·성록대부(成祿大夫) 등을 모두 합친 관계였다.

7) 조선 말기 종친부·종정부·종정원에 두었던 관직.
〈대전회통〉에서 종친부가 〈경국대전〉에서와 같이 직사(職事)가 없는 관청이 아니라 역대 국왕의 계보와 초상화를 보관하고 국왕과 왕비의 의복을 관리하며, 왕족인 선원제파(璿源諸派)를 감독하는 직사를 담당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관제도 개편했는데, 일반 문무반 품계 위에 영종정경(領宗正卿), 정1품 판종정경(判宗正卿), 정2품부터 종1품 사이에서 지종정경(知宗正卿), 종2품 종정경(宗正卿)을 두었다. 이 가운데 영종정경은 대군과 왕자군이 차례대로 겸했으며, 종정경은 종친으로서 봉군된 모든 자 및 종성(宗姓)인 관원으로서 2품 이상인 자 가운데 정원 없이 상주(上奏)하여 임명했다. 1894년(고종 31) 갑오개혁 때 관제가 많이 바뀌었는데, 궁내부·종백부와 함께 종친부·돈녕부·의빈부를 합쳐 종정부를 설치했다. 종정부에는 칙임관(勅任官)으로 종정경 1명을 두었다

8) 선성군의 가계
조부 : 태조 이성계
부 : 제 2대 정종
외조부 : 지윤(池奫)
모 : 숙의 지씨(淑儀 池氏)
형 : 의평군 원생(義平君 元生)
동생 : 임성군 호생(任城君 好生)
동생 : 함양옹주(咸陽翁主), 하가(下嫁) 지돈녕(知敦寧) 박갱(朴賡)
정부인 : 오천군부인(烏川郡夫人) 연일 정씨(延日 鄭氏) - 참의(參議) 정종성(鄭宗誠)의 딸

이 각각 〈춘산도정(春山都正)〉[9] 〈명산도정(明山都正)〉 〈풍안부수(豊安副守)〉[10] 〈설성부정 (雪城副正)〉 〈병산군 (屛山君)〉 〈도성수(陶城守)〉 종중을 구성하고 있고, 종조(宗祖)인 〈선성군(宣城君)〉의 묘역(경기도 하남시 덕풍1동 산64 (구 경기도 광주군 동부면 덕풍리)에서 매년 양력 11월 둘째 일요일 시향제를 올리며 이 때 종친회 총회를 연다. 이 시향 후 당일 〈명산도정〉의 종원(宗員)들은 다시 본 묘역으로 이동하여 파조(派祖)인 〈명산도정〉의 시향(時享)을 모시고 있다. 선성군파의 후손은 조선시대에 생원(生員) · 진사(進士) 100명, 상신(相臣) 2명, 문과(文科) 28명, 시호(諡號) 4명, 음관(蔭官) 343명, 공신(功臣) 10명, 무과(武科) 80명, 봉군(封君) 6명, 남대은일(南臺隱逸) 3명, 충신정려(忠臣旌閭) 7명, 호당(湖堂) 3명, 효행(孝行) 15명, 제학(提學) 2명, 열녀(烈女) 5명, 대제학(大提學) 1명을 배출했다. 조선조의 대과(大科) 급제자는 28명이다. 이 가운데 정승(政丞) 2명, 대제학(大提學) 1명 (이양원(李陽元).1526~1592)이 나왔다. 정종의 선위(禪位)로 태종(太宗)이 즉위한 후 이 가문은 왕위계승의 중심축에서는 벗어나게 되지만 왕실의 일원으로서 특권과 품위는 후대까지 지속적으로 유지되었다. 〈명산도정明山都正〉은 선성군의 셋째 아들로 휘는 '금정(金丁)', 생전에 창선대부(彰善大夫) 명산부수(明山副守)를 지냈고 사후에 명산대부(明山大夫), 명산도정(明山都正)에 추증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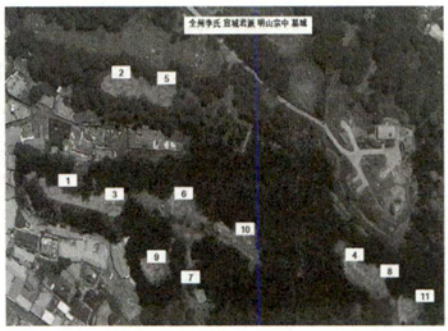
1) 명산도정 종중 묘역의 개요

장녀 : 평양 조씨(平壤趙氏) 조충로(趙忠老)에게 출가(出嫁)
1계부인 : 안강군부인 안강김씨(安康郡夫人 安康金氏) - 상호군(上護軍) 김중약(金仲約)의 딸
장남 : 명선대부 춘산도정 이귀손(明善大夫 春山都正 李貴孫)
2계부인 : 평산군부인 평산 한씨(平山郡夫人 平山韓氏)
차남 : 충천부수 이숭덕(衝川副守 李崇德)
3남 : 명선대부 명산도정 이금정(明善大夫 明山都正 李金丁)
4남 : 창선대부 풍안부수 이옥석(彰善大夫 豊安副守 李玉石)
5남 : 광휘대부 설성부정 이철정(廣徽大夫 雪城副正 李鐵丁)
6남 : 석보부수 이은정(石保副守 李銀丁)
7남 : 승헌대부 병산군 이말정(承憲大夫 屛山君 李末丁)
8남 : 명선대부 도성수 이천정(明善大夫 陶城守 李千丁)
9남 : 덕양부수 이귀정(德陽副正 李貴丁)
차녀 : 해주 오씨(海州吳氏) 오계손(吳繼孫)에게 출가(出嫁)
3녀 : 우효손(禹孝孫)에게 출가(出嫁)

9) 도정(都正)
조선시대 종친부 · 돈녕부 · 훈련원의 정3품 당상관 관직. 조선시대 종친부의 관직은 고려의 제도를 계승하여 대군(大君) · 원군(院君) · 군(君) · 원윤(元尹) · 정윤(正尹)의 칭호를 사용하다가 1443년(세종 25) 종친의 독립된 관계를 정하면서 경(卿) · 윤(尹) · 정(正) · 영(令) · 감(監) · 장(長)의 관작을 정하였는데, 정원은 없다

10) 부수(副守)
조선시대 종친부의 종4품 관직. 조선시대 종친의 직은 처음 고려의 제(制)를 습용(襲用)하였으나, 1443년(세종 25) 종친의 관계(官階)를 정하면서 관직도 개정하여 쓰다가, 1466년(세조 12) 대대적으로 관제를 개혁할 때 거의 《경국대전》과 같이 개정되어 부수가 종친부의 종4품직으로 고정된 것으로 짐작된다

본 묘역은 경기도 의정부시 고산동 산 116번지에 위치하며 묘역의 넓이는 1필지 37,716㎡이다. 본 묘역은 왕실 하사지에 조선 전기인 성종(成宗) 조에서 인조(仁祖) 조까지 약 200여 년에 걸쳐 조성되었고 이 묘역 안에 종중의 파조인 명산도정 이금정을 위시하여 그의 후손들이 5대에 걸쳐 모두 15위가 안장되어 있으나 그 중 4위가 동혈(同穴)에 합장되어 있어 조성된 묘소는 모두 11개소가 된다.



본 묘역에 모셔진 14위의 종중 인물을 계보를 따라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1) 명산도정 묘역 구성원의 계보도

이 중 논의의 대상이 되는 4형제의 족보상 위치를 따로 정리하면 다음의 표가 된다.

표2) 순절 4형제의 계보도

즉, 이극심을 포함한 순절 4형제는 태조의 현손(玄孫)이며 정종의 고손(高孫)이 되는 것이다.

조선은 개국 이후 관계(官階)를 재정비하면서 문산계(文散階) 안에 별도로 종친계(宗親階)를 따로 설정하였다. 이 왕실 종친의 품계는 정1품부터 정6품까지 매품마다 쌍계(雙階)로 되어 있고 오복친(五服親)[11]에 한하여 이를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었다. 친진(親盡)[12]이 되면 종친들도 종친계를 벗어나 문관 · 무관과 마찬가지로 문산계 · 무산계를 받게 되어 있었다. 종친계를 문산계 · 무산계와 구별한 것은 종친들을 특별대우하기 위한 뜻도 있었지만 동시에 종친들이 정치에 직접 간여할 수 없도록 하려는 의도가 내포되어 있기도 하였다. 종친들이 정치에 간여하는 것은 국왕의 지위를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양반관료들에게도 유리할 것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친진에 이른 종친은 명목상으로는 왕실과의 척연이 단절되어 평민이 된 것을 의미하였고 단지 왕성인 전주 이씨 종회의 한 파종에 속하는 동종의 종원이 되는 것이다 이에 이르면 종친계에 따르는 품계가 주어지지 않는 대신 절차에 따른 입사(入仕)가 허용되어 문(文), 무산계(武散階)로 관직에 나갈 수가 있었던 것이니 이는 비로소 종친의 정치 간여 금지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일이기도 하였다. 실제로 명산도정 종중도 이극심 등 4형제에 아르면 정종 이래의 왕척이 친진되면서 실직에 나가기 시작하고 4형제의 차대인 이홍주(李弘胄)는 실직 품계의 최고위인 영의정(領議政)에 오르게 된다.

품계	종친계 명
正一品	顯祿大夫
	興祿大夫
從一品	昭德大夫
	嘉德大夫
正二品	崇憲大夫
	承憲大夫
從二品	中義大夫
	正義大夫
正三品	明善大夫
	彰善大夫

11) 아버지의 자매 및 그 자녀, 본인의 자매 및 그 자녀, 본인의 딸 및 그 자녀

12) 제사지내는 대수(代數)가 다 됨. 조선 시대 ≪경국대전≫에서 임금은 4대, 참상관은 3대, 참하관은 2대, 서인은 부모만을 제사지내게 했으므로, 친진도 4대·3대·2대·1대를 지나 5대·4대·3대·2대가 되었음. 그러나 조선 중기에 ≪주자가례≫가 보급되면서, 여기서 규정한 4대 봉사가 일반화되어 친진은 보통 5대가 되는 경우를 의미했음

從三品	保信大夫
	資信大夫
正四品	宣徽大夫
	廣徽大夫
從四品	奉成大夫
	光成大夫
正五品	通直郎
	秉直郎
從五品	謹節郎
	愼節郎
正六品	執順郎
	從順郎

※ [네이버 지식백과] 종친계 [宗親階]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2) 전주이씨 선성군파 명산도정 묘역의 특징

〈명산도정 묘역의 특이한 하트형 무덤〉
모두 4기가 조성되었다

전술한 것처럼 의정부시 고산동의 명산도정 묘역은 모두 5대에 걸쳐 15위의 묘소를 조성하여 형성되었는데 1506년 왜구에게 목숨을 잃은 명산도정 이금정의 사위 유헌(柳軒)의 묘소를 묘역의 측근 능선에 조성한 이래 1638년 이홍주의 무덤이 조영되어 130여년에 걸쳐 묘역이 형성되었다. 종친계에 따른 왕실 종실의 묘역으로 조선 전기의 무덤 양식이 집대성되어 있다고 할 정도로 다양한 형태의 묘소 조영 양식이 나타나는데 더욱 특이한 것은 이 묘역에 4기가 존재하는 〈하트형 무덤〉이다 부부 합장묘에 나타나는 이 특이한 형태의 묘소는 아마도 전국 유일의 무덤 조영 양식이 이닐까 싶다.

이 묘역 안에 임란 순절 4형제의 무덤이 합장분의 형태로 존재한다

2. 4형제 순절의 개요

1) 조일전쟁 전략 목적 달성을 위한 일본 측의 전략 기도

(1) 일본 전국시대(戰國時代)의 전투 종결 양상

일본 특유의 봉건제에 내포된 모순이 증폭되면서 각지의 제후가 서로 상쟁하는 전국시대에 진

입하게 된다 이 극도의 혼란상황에서 〈다이묘〉라 불리던 지방 호족 세력은 생존을 위한 전방위 투쟁에 전면적으로 돌입하였고 이 전국시대가 종결되기까지 시대를 견인하여 간 것은 소위 말하는 무사(武士), 즉 사무라이(侍人)들이었다.

오닌(應仁의) 난(1467년 ~ 1477년) 이후 난을 통제하지 못한 쇼군(將軍)은 물론 난에 참가하느라 오랫동안 영지(領地)를 비운 각지의 슈고다이묘(守護大名)들 역시 새로이 등장하는 토호세력에 의하여 실권(失權)하며 일본 전국은 오다 노부나가(職田信長)가 패권을 장악하는 1568년까지 약 100년간 무사들이 주도하는 약육강식의 대혼란시기를 맞게 된다. 이 기간 거듭되는 전투를 통하여 각지의 제후세력은 상호간 병탄(併呑)과 분열을 지속하는데 전투의 최종 종결은 언제나 거성(據城)의 함락이었다. 다이묘들은 자신들의 영지 거점에 능력의 최대치를 동원하여 거성을 쌓고 그 거성 중앙에 천수각(天守閣)을 조영하여 이를 영지 지배 및 거성 방어의 중심시설로 운영하였다. 이 거성, 최종적으로는 천수각의 함락이 공성군의 최종 전략 목표였다. 전황의 불리함에도 불구하고 투항을 거부하며 성의 방어에 나선 방어군의 주장(主將)은 성의 함락되면 전사(戰死), 또는 자결(自決)을 통하여 천수각과 운명을 같이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전국시대를 통하여 확립된 전쟁양식은 거성의 함락과 주장의 자결. 전사로 상황이 종결되는 것이었다. 일본은 이처럼 자신들이 확립한 양식을 따라 조일전쟁도 전투를 전개하고 종결하려는 전략목표를 가지고 있었다

(2) 전열(戰列) 편성에 나타나는 일본 측의 전략기도

따라서 그들은 조선 침공의 최종 전략기도는 한성의 점령이었다. 조선의 수도인 한성을 함락시키면, 이로써 전쟁이 종결되는 것으로 전략기도를 설정한 것이다. 이와 같은 기도는 그들이 편성한 전투제대에 그대로 반영되어 나타난다. 그들은 공격제대를 모두 16군으로 편성하고 여기에 총 병력 약 30만명을 동원하여 이 중 20만 명을 조선전선의 공격, 후방, 예비대로 배치하였는데 이중 공격군 3개 제대의 최종 도달목표지가 한성에 한정되어 있는 것이다

제1군 - 큐슈 서부 세력(18,700명)

지휘 : 고니시 유키나가(7,000명)

소 요시토시(5,000명), 마쓰우라 시게노부(3,000명),

아리마 하루노부(2,000명) 고토 스미하루(700명)

오오무라 요시아키(1,000명)

- 작전 경로 (중로(中路)

동래-양산(梁山)-청도(淸道)-대구(大邱)-인동(仁同)-선산(善山)-상주(尙州)-조령(鳥嶺)-충주(忠州)-여주(驪州)-양근(楊根)-용진(龍津)나루-경성동로(京城東路),

제2군 - 큐슈 중부 세력(22,800명)

지휘 ; 가토 기요마사 (10,000명)

나베시마 나오시게 (12,000명), 사가라 요리후사(800명)

- 작전경로 (좌로(左路)

동래-언양(彦陽)-경주(慶州)-영천(永川)-신녕(新寧)-군위(軍威)-용궁(龍宮)-조-충주-죽산(竹山)-용인(龍仁)-한강

제3군 - 큐슈 동부 세력(11,000명)

지휘; 구로다 나가마사(6000명)

오토모 요시무네(5,000명)

- 작전경로(우로(右路)

김해(金海)-성주(星州)-무계(茂溪)-지례(知禮)-등산(登山)-추풍령(秋風嶺)-영동(永同)-청주(淸州)-경기도

이처럼 일본군의 전투 편제는 조선의 수도 한양의 점령을 최종 전략 목표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한양 함락 이후의 전투 전개 계획 자체가 수립되어 있지 않았다. 이를 위하여 그들은 최대속도로 진공하는 전선의 육군 3개 제대와 함께 한강 하구로 진공하여 육군의 보급과 측면지원을 담당하는 수군의 양군 협전을 통한 수륙 병진 공격로를 설정하였던 것이다. 물론 명목상 일본의 조선 침공 이유는 명(明) 정복 사업의 한 일환이었다.[13] 그리고 한양이 불과 1개월 미만의 공략으로 함락되자 이를 구체화하여 전선을 중국으로 확대하려는 전략 구상의 일단을 내비치기도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전략기도는 조선 국왕의 서북 몽진(蒙塵)이라는 의외의 상황을 만나 한양 점령

13) 선조수정실록 25권(선조 24년, 1591) 3월 1일 풍신수길이 보낸 회답 국서

'사람의 한평생이 백년을 넘지 못하는데 어찌 답답하게 이곳에만 오래도록 있을 수 있겠습니까. 국가가 멀고 산하가 막혀 있음도 관계없이 한 번 뛰어서 곧바로 대명국(大明國)에 들어가 우리나라의 풍속을 4백여 주에 바꾸어 놓고 제도(帝都)의 정화(政化)를 억만년토록 시행하고자 하는 것이 나의 마음입니다. 귀국이 선구(先驅)가 되어 입조(入朝)한다면 원려(遠慮)가 있음으로 해서 근우(近憂)가 없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먼 지방 작은 섬도 늦게 입조하는 무리는 허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대명에 들어가는 날 사졸을 거느리고 군영(軍營)에 임한다면 더욱 이웃으로서의 맹약(盟約)을 굳게 할 것입니다.'

人生一世 不滿百齡焉 鬱鬱久居此乎 不屑國家之遠 山河之隔 欲一超直入大明國 欲易吾朝風俗於四百餘州 施帝都政化於億萬斯年者 在方寸中 貴國先驅入朝 依有遠慮無近憂者乎 遠方小島在海中者 後進輩不可作容許也 予入大明之日 將士卒望軍營 則彌可修隣盟

의 의미가 상실되면서 부득이 서북지역으로 전선을 확장 전개해야 되는 새로운 국면으로의 전환이 강요되었고 여기에 조선 수군의 해로 보급로 차단, 각지 의병(義兵)의 후방 및 보급선 교란, 자신감과 전투능력을 회복한 조선군의 본격적인 반격, 명(明)의 대규모 참전[14]이라는 다양한 변수가 더해지면서 전쟁은 예상과는 전혀 다른 악조건 아래 장기화 되었다 거기에 일본군 병사들로서는 적응이 어려운 조선 현지의 풍토와 기후도 난관이었다. 출전한 일본군 병사의 대부분이 온난한 일본 서남부 지역 출신이었기에 이들이 조선의 서북지역으로 진공하면서 맞게 되는 동절기 혹한(酷寒)은 감당이 불가능한 심각한 애로였다. 전쟁 발발 수 개월이 경과한 1953년부터 시작된 일본군의 탈영 귀순자, 즉 항왜(降倭)의 숫자가 왕조실록에 기록된 공식숫자만 전체 참전병의 20분의 1에 해당하는 1만 명을 상회(上廻)한다는 사실이 당시 일본군의 심각한 동요를 간접적으로 증언하고 있다.

(3) 조선 측의 수도 방어 개념

상주(尙州)와 충주(忠州)에서의 패보가 알려진 후 국왕 선조는 서울을 탈출하기로 마음을 굳히고 왕자들을 각지 지방으로 하방(下方)하여 근왕병(勤王兵)을 모집하도록 명령하는 적군의 수도 공격에 대비하여 우의정 이양원(李陽元)을 수성대장(守城大將)으로 삼아 도성의 성곽을 축성, 수비하게 하는 한편 전 북병사(北兵使) 김명원(金命元)을 도원수(都元帥)로 삼아 한강을 수비하게 하였다. 한양을 수비하기 위하여 2중의 방어선을 설정한 것인데 문제는 상주, 충주 전투에서 조선의 병력 태반이 소진(消盡)되었고 호서, 호남의 근왕병은 아직 초모와 편성이 완료되지 않아 한강은 물론 도성 방어에 동원할 병력이 절대 부족하다는 것이었다 게다가 한강과 도성은 수비 구역이 크고 넓어 당시 방어군으로 겨우 확보한 5,000정도의 병력으로는 도저히 압도적인 적세를 감당할 상황이 아니었고, 거듭되는 패전로 말미암아 일본군의 전투 능력이 사실 이상으로 지나치게 과장된 데다 국왕 마져 도성을 포기하고 도주한 상황에서 그나마 확보한 군사의 사기(士氣)와 전투의욕은 공황에 가까운 지리멸렬(支離滅裂) 상태에 빠져있었다. 결국 한강 방어의 책임자인 김명원(金命元)은 한강을 포기하고, 효율적인 방어를 위하여 임진강에 새로운 방어선을 구축한다는 명목 아래 전선을 이탈하게 된다. 이렇게 한강 방어선이 스스로 붕괴되자 도성 방어의 책임자였던 이양원 역시 도성을 포기할 수 밖에 없었다.

---

14) 명의 조선(朝鮮) 사신(使臣, 勅使)인 설반(薛藩)의 조선 사정에 관한 보고서
〔요진(遼津)은 경사(京師:수도=北京)의 팔이요 조선은 요진의 담장입니다. 200년간 복건(福建)과 절강(浙江)에 왜적이 침범했으나 요양은 그렇지 않았으며 이는 조선을 담장으로 삼은 까닭입니다. 만약 왜적이 조선을 점령한다면 요양이 하루도 안심할 수 없으며 배를 타고 오면 수도의 앞뜰인 천진도 화를 당할 것이며 북경이 진동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빨리 출정하면 조선 사람 힘을 빌려 왜적을 치는 것이 되고, 늦게 출정하면 왜적이 조선사람을 이끌고 와서 우리와 싸우게 될 것입니다.〕

2) 일본 측의 2차 전개

(1) 조선 측 한양 방위 병력의 재편성

5월 2일 한강 방어선 붕괴되고 5월 3일 도성에 진입한 일본군은 한양 점령이라는 당초의 작전 목표는 성취하였으나 조선왕의 생포와 항복이라는 전략 목표는 달성하지 못하게 되자 당황하여 상황을 상부에 보고하고 이후의 전략 지침 하달을 기다리게 된다.

5월 16일, 토요토미 히데요시는 한성 점령의 보고를 받고 아직 대마도에 머물고 있던 제9군과 5천명의 증원군을 부산에 파견하고 제9군으로 하여금 부산지역을 담당하게 하였다. 5월 중순, 총대장 우키다 히데이에가 한성에 도착하여 제1군을 평안도 방면으로 제2군을 함경도 방면으로 북진을 계속하기로 협의하고 토요토미 히데요시의 추인을 받는다. 토요토미 히데요시는 6월 3일, 지휘체제를 개편하여 제3군과 제4군을 쿠로타 나가마사 지휘의 제3군으로 통합하고 제5군을 제4군(후쿠시마 마사노리), 제5군(하치스카 이에마사), 제6군(쵸소카베 모토치카)으로 분할 제6군은 7군으로 서열을 바꾸고 제7군은 예비대로 전환시켰다. 이와 함께 다음과 같이 분지(分地)를 실시하여 점령지에 군정(軍政)을 실시하고 현물납세(現物納稅)를 받게 하였다. 전선이 확대되고 전투가 장기화 될 것에 대비하여 본격적인 점령지 경영에 돌입한 것이다

경상도 : 모리 테루모토 - 예비대
전라도 : 고바야가와 다카카게 - 제7군
충청도 : 후쿠시마 마사노리 - 제4군
경기도 : 우키다 히데이에 - 제8군
강원도 : 모리 요시나리 - 제3군(이하 모리의 제3군)
황해도 : 쿠로다 나가마사 - 제3군(이하 쿠로다의 제3군)
평안도 : 고니시 유키나가 - 제1군
함경도 : 가토 키요마사 - 제2군

한편 한강 방어선을 포기하고 도주한 도원수 김명원은 도순찰사 한응인(韓應寅), 경기감사 권징(權懲) 등과 함께 1만 3천 명의 병력으로 임진강 방어선을 구축하였다. 그러나 부원수 신각(申恪)은 임진강 선으로의 도강 후퇴를 거부한 채, 독자적인 행동에 나서 일단 양주로 물러나와 후퇴하는 조선군을 재편성하고 있었는데, 신각의 부대에 유도대장(留都大將) 이양원(李陽元)과 함경

병사(咸鏡兵使) 이혼(李渾)의 부대가 합류[15]하면서 장차 삼방로(三防路)를 따라 북상하는 일본군을 양주 대탄(大灘)[16]에서 저지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었다. 신각 등의 이 재편 조선군이 바로 임란 육전(陸戰) 최초의 승전(勝戰)인 해유령(蟹踰嶺) 전투를 치르게 된다. 일본군은 도성 한양을 점령하고 군을 재편하여 북상하게 되는 5월 16일까지 약 보름간 한양에 머물게 된다 전쟁 초기의 전략 목표였던 한양 점령을 성취했음에도 애초의 기도와는 달리 조선 왕의 항복을 받아내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조선군은 임진강 북안에 방어선을 구축하는 한편 전라 감사 이광, 충청도 순찰사 윤선각(尹先覺), 경상도 순찰사 김수 등이 남도의 5만 병력을 모아 도성을 향하여 북진 중이었고, 또한 금강산의 유정(惟政)(사명당(四溟堂)), 전라도의 고경명(高敬命)등도 각자 의병을 모집해 출정 중인데다 5월 6일에는 이순신(李舜臣)의 수군이 옥포(玉浦)에서 첫 승전을 거두었다는 낭보도 들려왔다.

(2) 장수원(長壽院) 전투

선조실록에는 인천부사 이시언(李時彦)이 장수원에서 일본군과 싸워 일본군의 수급(首級) 3개를 획득하였다는 내용이 등장한다.

그러나 이 장수원 전투의 내용을 이 실록 기사만으로는 자세히 확인할 수 없고 실록의 이 기사 외에 다른 자료는 나타나지 않는다. "돌격장(突擊將) 인천 부사(仁川府使) 이시언(李時言)은 지난번 양주(楊州)의 장수원(長壽院) 싸움에서 힘껏 싸워 진을 뚫었었는데 지금 또 먼저 성벽에 올라가 적병을 3명이나 죽였으니, 우선 당상관에 특별히 가자하시어 싸움에 나간 병사들의 사기를 격려시키소서."[17] 보고체계가 정확히 작동하지 않고 있던 당시의 급박하고 혼란한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위의 기사 중 특히 해유령 전투에 관한 기록은 명백한 오류이다. 해유령 전투는 험한 지형을 이용하여 전개한 매복전(埋伏戰)이었고 해유령 전투 현장 어디에도 성벽(城壁)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지금 또 먼저 성벽에 올라가"라는 기사 내용은 해유령 전투가 벌어진 현장 어디에서도 확인할 수 없다는 점에서 그렇다.

그러나 비록 단편에 그치기는 하여도 이 기사는 일본군의 도성 점령 직후에 양주 장수원에서 일본군과 조선군 사이에 조직적인 전투가 있었음을 확실히 증언하고 있고, 동시에 인천부사 이시언이 임소(任所)를 떠나 북상하여 일정 병력을 거느린 채 양주 일대에서 적병과 전투를 벌이고 있는 당시 양주 상황의 일단을 확인할 수 있게 해준다.

---

15) 일부 자료에는 인천부사 이시언도 해유령전투에 참가한 것으로 나타나는 데 이는 표창을 의논하는 선조 25년 5월 20일 선조실록 기사를 오해한 듯하다 이시언은 해유령 전투에는 참가하지 않았다

16) 동두천과 지금의 연천군 전곡읍을 경계짓는 한탄강의 도강지점이다 우리말 "한탄" 즉 "큰나루"를 한역한 지명이다

17) 선조25년 5월 20일

장수원은 도성에서 출발하여 북변 함경도 서수라에 이르는 북관대로의 첫 주정소(晝停所)였던 누원(樓院)과 인접하여 있다 서울 동대문을 출발하여 누원, 장수원을 지나 의정부점(議政府店)[18]에 이르러 북관대로(北關大路)의 본로는 포천, 양문 길로 나아가지만 여기 의정부에서 분기(分岐)된[19] 지선(支線) 하나는 북향하여 이담(伊淡) 가정자(柯亭子)(지금의 동두천)를 거쳐 대탄(大灘)을 건너 삼방(三防) 방면으로 나아가 함경도에 이르는 고대로부터의 한 교통로를 구성하고 있다 바로 지금의 3번 국도[20]이다. 따라서 일본군이 삼방로를 따라 척후에 나섰거나 아니면 북로를 따라 한양에 접근하는 조선군을 반탐(反探)할 목적으로 소진(小陣)을 설치하였을, 두 가지의 가능성이 공존하지만 기록을 상세히 검토하면 장수원 전투는 해유령 전투와는 달리 진지전이었던 것 같다. "힘껏 싸워 진을 뚫었었는데"라는 기록에서 당시 전투상황의 일단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3) 해유령 전투

해유령(蟹踰嶺)전투는 1592년 5월 16일, 양주 해유령(蟹踰嶺), 즉 〈게넘이고개〉[21]에서 벌어진 전투로서 주지하는 바 조일전쟁에서 최초로 조선군이 승리한 육지전이다 한강방어군의 부원수였던 신각(申恪)은 한강에서 철수하여 임진강에 방어선을 구축하라는 도원수 김명원(金命元)의 지시에 불응하고 양주로 물러나 이탈 병력을 수습하고 있었는데, 여기에 유도대장(留都大將) 이양원(李陽元)과 도성 수비를 위하여 남하해온 함경병사 이혼(李渾)이 휘하 병력을 거느리고 합세하여 연합 대오(隊伍)를 갖추고 장차는 대탄(大灘)으로 이동 결진(結陣)하여 함경도로 북상하는 왜군의 도하, 진출을 저지하려 하였다. 그 상황에서 왜장 가토오의 제2군 별동대로 척후와 약탈을 겸하여 양주에서 활동하던 일본군 귀환 병력을 5월 16일 해유령에 매복하여 이를 전멸시키는 전과를 거두게 된다. 〈해유령(蟹踰嶺)〉은 파주(坡州)에서 양주로 넘어오는 주요 교통로의 하나인데 해유령에서 전투가 벌어지기 6일 전 임진강 방어선 돌파를 위하여 선봉(先鋒) 가토오가 임진강 전면에 자신의 부대를 배치하였기 때문이다. 한편 가토오는 임진강 방어선 전면의 본대와 공격계선을 보호하고 대탄의 조선군을 견제(牽制), 교란(攪亂)하기 위하여 양주, 포천 방면에 별동대를 운영하였는데 이들 별동대 병력이 본대로 귀환하는 길에 해유령에서 조선군의 매복 작전에 걸렸던 것이

18) 현재의 의정부시 행복로 초입 분기로에 자연 발생하여 있었던 주막거리로 이에 대한 가장 오래된 기록은 〈노상추일기〉이다. 의정부시가가 형성되는 기원이 되었다

19) 지금의 의정부는 녹양평의 분기로에 자연적으로 발생한 〈의정부점〉이라는 작은 주막마을로부터 시작되었다 현재 〈의정부점〉이라는 지명을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오래된 사료는 〈노상추일기〉이다

20) 박정희 대통령이 남북 교류에 따른 간선도로로 확장하여 파주 지역의 〈자유로〉와 함께 이 국도를 〈평화로〉라 명명하였다

21) 〈게넘이고개〉의 유래는 크게 둘로 나뉜다. 하나는 파주의 상인들이 양주로 게를 팔러오며 넘던 고개라는 설명이고, 다른 하나는 고개가 너무 험해서 〈기어넘는〉 고개에서 〈게넘이〉라는 지명이 유래되었다는 설명이다

다. 해유령 전투에서 조선군은 왜병을 몰살하고 적의 수급(首級) 70여개를 획득하는 전과를 거둔다.

그러나 도원수 김명원은 해유령 전투의 승전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채 자신의 임진강 방어진에 합류를 거부한 부원수 신각을 군령에 불복종하고 전선을 이탈 도주하였다고 조정에 보고하였고, 이 보고를 받고 한양 함락의 책임이 신각의 전선 이탈에 있다고 오해한 조정은 대탄으로 이동하여 방어선을 친 신각을 현장에서 처형하게 된다. 효율적인 보고체계의 붕괴와 이에 따른 부정확한 상황 파악이 야기한 실수로 치부하기에는 너무도 많은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다 선조는 자신의 실수를 염두에 둔 듯 오히려 신각이 주도한 해유령 승전의 의미를 폄하하여 소극적으로 평가 하고 있기도 하다.

> "흥원(興源)이 아뢰기를,
> "양주 싸움에서 군사들의 사기가 나아졌습니다."
> 하니, 상이 '그것은 패잔병이었겠지.' 하였다. 모두 아뢰기를,
> "패잔병이라 하더라도 사기는 크게 떨쳐졌습니다."
> 하였다.[22]

(4) 대탄의 상황

해유령 전투에서 승리한 신각과 이양원, 이혼은 곧 군사를 이끌고 임진강 쪽으로 이동하여 대탄[연천 부근]을 지키기로 하고, 다시 이혼은 철령 방면으로 가서 적이 함경도 방면으로 진출하는 것을 저지하기로 하였다.[23] 그러나 뜻밖에도 이곳에서는 신각의 억울한 죽음이 기다리고 있었다. 당시 한강선 방위를 포기하고 도주한 김명원은 신각이 주장(主將)인 자신의 명을 어기고 전선을 부단 이탈하여 도주한 것으로 조정에 보고하였다. 이에 조정에서는 5월 18일 선전관을 파견하여 대탄에 와 있던 신각의 목을 베도록 하였다.[24] 대탄에 결진하여 동로(東路)로 북상하는 왜군의 함경도 진출을 저지하려던 신각, 이양원, 이혼의 전략은 이처럼 신각이 처형되고 바로 이어 김명원의 임진강 방어선이 다시 허무하게 무너지면서 의미가 없게 되었다. 한편 왜병은 대탄의 조선군을 견제하기 위하여 별도의 작전을 전개하고 있었는데 이와 같은 대탄의 상황은 조정에 올린 이일(李鎰)의 보고서에 비교적 자세히 나타난다.

---

22) 선조 25년 5월 20일 기묘

23) 당시 이혼이 철령 방면으로 이동한 것은 이토오의 2군이 한경도로 진출할 경우 북관대로를 이용할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었다. 그러나 가토오의 2군은 황해도 곡산까지 북상하여 거기서 삼방 방면으로 직진하는 바람에 철령의 조선군은 왜군 요격의 기회를 놓치게 된다

24)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양주), 해유령전투 한국학중앙연구원

"순변사(巡邊使) 이일(李鎰)이 치계하였다.
신이 지난달 18일에 대탄(大灘)에 있으면서 적정을 탐지하는 군관(軍官) 고충경(高忠卿)을 통하여 왜적들이 영평현(永平縣)에 마구 침입하였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영평현에서 바로 철원(鐵原)·삭녕(朔寧)·연천(漣川) 등지를 공격하면 이곳은 모두 아군의 후방이므로 즉시 도검찰사(都檢察使)와 약속하여 강원도 방어사(江原道防禦使) 문몽헌(文夢軒)을 체류시켜 그대로 대탄을 지키도록 하고, 신은 남병사(南兵使) 이혼(李渾)과 더불어 병사들을 철원으로 이동시켜 왜적의 진로를 차단할 계획을 세웠었는데 지금 듣자니 임진이 함락되어 왜적이 서로(西路)를 위협하고 있다고 합니다." [25]

한편 다른 사료에는 임진강에 결진한 부대와 대탄에 결진한 부대가 합세하여 5월 18일에 적과 싸우기로 약속하였었다는 기사가 나타난다 해유령 전투가 5월 16일에 있었으므로 이 기사에 대하여는 보다 자세한 검토가 필요하지만 패전을 거듭해 온 조선군이 도성이 함락된 이후에도 나름대로 필사의 반격을 시도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이로서 확인이 된다. 즉, 한양 유도대장 이양원의 한양방어력, 문몽헌이 인솔하는 강원도 병력, 이혼의 함경도 병력이 함경도 방면으로 북상하는 왜군에 대하여 적극적인 저지선을 구축하고 있는 것이다. 이양원(李陽元)은 이일(李鎰)·신각(申恪)·김우고(金友皐) 등과 함께 대탄(大灘)에 있었고 한응인(韓應寅)과 김명원(金命元)은 권징(權徵)·신할(申硈)·이빈(李贇)·이천(李薦)·유극량(劉克良)·변기(邊璣) 등과 함께 임진(臨津)에 있었는데, 5월 18일에 싸우기로 약속이 되어 있었다.[26]

그러나 5월 17일에 이미 임진강 방어선이 무너지고 있어 이 약속은 의미가 없게 되었다.

이에 앞서 이양원(李陽元)은 이일(李鎰)·신각(申恪)·김우고(金友皐) 등과 함께 대탄(大灘)에 있었고 한응인(韓應寅)과 김명원(金命元)은 권징(權徵)·신할(申硈)·이빈(李贇)·이천(李薦)·유극량(劉克良)·변기(邊璣) 등과 함께 임진(臨津)에 있었는데, 5월 18일에 싸우기로 약속이 되어 있었다. 이때 군중(軍中)의 의자(議者)가 '우리 군사가 많기는 해도 대부분이 지치고 약하여 믿는 것은 강변(江邊)의 토병 뿐인데 이들도 먼데서 왔기 때문에 지친 상태이다. 2~3일 지체하여 휴식하면서 힘을 저축해야만 거사할 수 있다.' 고 하였으므로 처음 약속이 행해지지 않았다. 17일에 밤을 타고 강을 건넜다가 좌위장(左衛將) 이천은 적을 상류에서 만나 적에게 패배당하였고 유극량은 죽었으며 신할도 적에게 죽임을 당했는데, 적이 하류에서 군사를 숨겨가지고 강을 건넜다고 보고하였다.

---

25) 선조 25년 6월 7일 을미
26) 선조 25년 5월 23일 임오

(5) 임진강 방어 전투

1592년(선조 25) 한강 수비를 맡은 도원수 김명원은 임진강으로 퇴거하여 장계(狀啓)를 올려 적의 상황을 보고하였다. 상황을 보고받은 선조는 김명원에게 한강 방어 실패의 책임을 묻지 않고 다시 경기 · 해서 군사를 징발해 임진강을 지킬 것을 명하였다. 그리고 남병사 신할(申硈)이 체직(遞職)되어 돌아온 것을 수어사로 삼아 함께 임진강을 수비하도록 하였다. 당시 임진강 방어에는 명령 계통이 셋으로 나뉘어 있었다. 첫째는 도원수(都元帥) 김명원(金命元)과 그 휘하에 부원수 이빈(李薲), 독진관 홍봉상(洪鳳祥), 경기감사 권징(權徵), 조방장 유극량(劉克良), 검찰사 박충간(朴忠侃), 좌위장 이천(李薦), 방어사 신할 등이다.

둘째는 제도도순찰사 한응인(韓應寅)과 부사 이성임(李聖任)이었다. 셋째는 임진강 상류 대탄(大灘 : 지금의 경기도 연천 부근)에 전 유도대장(留都大將) 이양원(李陽元)과 순변사 이일(李鎰), 전 부원수 신각(申恪) 등의 군사가 포진하고 있었다. 병력 수는 도원수 휘하에 7,000명, 제도도순찰사 휘하에 서계토병(西界土兵) 1,000명, 전 유도대장 휘하에 5,000명으로 모두 1만 3000명이었다.

서울에 머무르고 있던 일본군은 새로운 작전계획을 수립하여, 우키타(宇喜多秀家)는 그대로 서울에 머무르면서 전군을 총지휘하고, 1번대(番隊)의 주장 고니시(小西行長)는 평양으로 가기로 하였다. 3번대의 주장 구로다(黑田長政)는 황해도로 가서 1번대를 후원하고, 2번대의 주장 가토(加藤清正)는 함경도 방면으로 가기로 하였다. 그리고 4번대의 주장 모리(毛利吉成)[27]는 강원도로 가서 2번대를 후원하기로 하였다. 가토군이 1592년 5월 10일 가장 먼저 서울을 떠나 임진강에 도착하였다. 그러나, 물살이 급해 건너지 못하고 며칠을 기다렸다. 이 때 고니시가 권항사(勸降使) 야나가와(柳川調信)를 조선군 진영에 보내자, 가토는 강변에 소수의 군사만 남겨 두고 파주 쪽으로 철수하였다. 조선 진영에서는 일본군의 전세가 불리하다는 헛된 보고가 계속 날아드는 데다 적이 여러 날 싸우지 않는 것을 보고, 그것을 사실로 믿었다. 행조(行朝)에서도 도원수에게 엄중히 질책하며 속히 싸울 것을 명하였다. 조방장 유극량은 강을 건너 싸우자는 여러 장수의 주장에, 적의 유인작전에 말려드는 것이라며 극구 반대하였다. 그러나, 군령을 따르지 않을 수 없어 패배를 예견하면서도 신할을 따라 강을 건넜다. 도원수도 도하작전을 반대했지만 명령 계통이 어수선하여 이를 막지 못하였다. 17일 가토군의 기습을 받아 신할 · 유극량 등의 장수가 전사했으며, 많은 관군이 돌아오지 못하고 강물에 빠져 죽었다. 이렇게, 큰 기대를 걸었던 임진강 방어전은 제대

27) 모리 요시나리의 4군은 강원도 점령 임무를 부여받고 3군으로 명칭이 변경되는데 이 3군을 황해도 방면 구로다의 3군과 구별하기 위하여 모리의 3군이라고 부르게 된다

로 싸워 보지도 못하고 실패로 끝났다. 일본군은 27일 임진강을 건넜다. 가토 기요마사의 왜군 제2부대는 움직이지 않고 조선군이 가까이 오기를 기다려서 일시에 공격하니, 전투가 시작되었다. 왜군의 기습을 받은 조선군은 제대로 싸우지도 못하고 신할, 유극량 등이 전사함과 동시에 적의 추격을 받아 수많은 군사가 전사하였다. 충주에서와 마찬가지로 조선군은 임진강이라는 천험(天險)을 스스로 버리고 오히려 도강하여 개활지에서 결진(結陣)하고 기다리는 왜군의 포위망 안에 스스로 진입하는 치명적인 실수를 다시 되풀이 한다 일본군의 작전의도를 전혀 파악하지 못한 미숙한 전략이 불러온 안타까운 상황이었다.

3) 4형제의 순절의 역사성

우리는 지금까지 한양의 함락과 임진강 방어선이 붕괴하는 1952년 5월 3일부터 5월 17일까지 양주 지역의 전황을 우선 살펴보았다. 당시 의정부 고산동의 부친 파성군의 묘소를 수직하던 4형제가 순난의 변을 당하는 것이 5월 24일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4형제 순절에 관한 유일한 기록인 가승의 내용을 먼저 살펴보자.

○ 순절(殉節) 4형제

순절 4형제는 첫째 극심(克諶) · 둘째 극성(克誠) · 셋째 극함(克諴) · 넷째 극겸(克謙) 4형제이다. 선성군의 현손이요 명산도정 금정의 증손이며 파성군(坡城君)의 아들들이다. 이들은 임진왜란 때 같은 시각, 같은 장소에서 함께 순절하여 경기도 양주군 별내면 고산리 부친 이염(李琰)의 묘 근처에 함께 묻혔다. 극심(克諶)과 극성(克誠)은 출생 년 월 일을 알 수 없고 그 후손이 없다. 극함(克諴)은 1554년(명종 1)에 태어나 1592년(선조 25)에 순절했다. 당시 부인 여흥 민씨는 잉태를 하고 있었다. 막내 극겸(克謙)은 슬하에 7세 된 아들이 있었다. 순절하던 그 날 4형제는 옛 양주(현 의정부 인근) 송산 선영의 산소(현 양주군 별내면 고산리)에서 선고 파성군의 상중이라 여막에 기거하고 있던 중 왜구가 이곳까지 침입해 오게 되었다. 이 날이 1592년 5월 24일이었다. 4형제는 평소에 닦은 무예로써 왜군과 싸웠으나 화살은 떨어지고 형세가 긴박해지자 죽을 결심들을 하고 손가락에서 피를 내어 옷깃에 `사필명백(死必明白)'이라고 혈서를 쓰고 순절하였다. 극함의 부인 민씨가 송산에 갔을 때 남은 것이라고는 없고 오직 산지기 홍희만이 눈물을 흘리며 참혹했던 묘정의 자결한 곳을 알리며 옷깃에 혈서한 것을 보여주었다. 민부인도 자진하고자 했지만 뱃속의 아기 때문에 뜻을 이루지 못하고 친가인 문의(文義) 땅으로 갔다. 그 유복자가 사주(士胄 : 1592~?)이다. 막내 극겸의 부인 신씨(辛氏)는 역시 동서인 민씨 부인과 송산에 같이 있을 때 자진

코자 했지만 슬하에 7세된 근주(近胄 : 1586~1614)를 돌볼 사람이 없어 하는 수 없이 눈물을 머금으며 청주 옥산 친가로 내려갔다. 순절 4형제 묘전에는 산지기였던 홍희의 조그마한 추모비가 서 있다.

위의 내용은 전주이씨 대종회의 홈페이지의 해당기사를 갈무리 한 것이다. 이 기사의 역사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우리는 위의 기사 내용의 다음 각항을 다른 사료를 따라 점검하려 한다.

(1) 1592년 5월 24일 순절일 당시, 묘역을 둘러싼 조일 양국군의 대치와 전투전황에 나타나는 역사적 당위성
(2) 순절 장소인 송산 고산동 현재 묘역의 역사적 당위성
(3) 묘역과 순절 합장묘에 나타나는 역사적 당위성
  ㄱ. 4형제의 합장
  ㄴ. 홍희의 단
(4) 가족관계의 변화에 나타나는 역사적 당위
  ㄱ. 부친 이염의 봉군
  ㄴ. 유가족의 친정 낙향

(1) 1592년 5월 24일 순절일 당시의 묘역을 둘러싼 조일 양국군의 대치와 전투전황에 나타나는 역사적 당위성

왜군은 도성을 함락하고도 자신들의 전술적 목표, 즉 조선 국왕의 항복을 받아내지 못하자 전선을 서, 북으로 확대하는 동시에 점령지에 대한 통치, 행정을 겸행하기로 하고 우선은 임진강의 동서 지점에 결진하고 있는 조선군의 방어선을 돌파하기 위하여 총력을 집중하게 된다. 5월 27일 결국 조선군의 임진강 방어선을 돌파한 일본군은 황해도 평산에 이르러 이미 설정한 각 군의 진출목표대로 가토오 군은 황해도 곡산을 거쳐 함경도 방향으로 진출하게 된다.

한편 함경병사 이혼은 왜군의 함경도 진출로를 한양, 의정부, 포천, 철원을 거치는 관북대로, 즉 경흥대로로 예견하여 철령을 넘는 왜군을 요격할 요량으로 회양(淮陽)에 주둔하고 있었지만 왜군이 철령로가 아닌 곡산에서 협로를 따라 함경도 내지로 직진하는 바람에 왜병 제2군과 조우하지 못하였고 회양에 계속 주둔하다가 6월 12일 북상하는 4군 모리와의 전투에서 패배하고 만다. 이어 6월 17일 가토오의 2군 본대와 한극함(韓克諴)의 함경도 군이 해정창(海汀倉) 전투를 벌여 조선군이 패전하고 국경인(鞠景仁) 등의 반역으로 함경도 전체가 왜군의 수중에 함몰되면서 이혼도 역시 죽게 된다.

한편 김명원의 임진강 방어선 공격의 선봉을 맡은 가토오 기요마사는 주 공격군의진로를 확보하기 위하여 본대와는 별도로 별동대를 운영하였다.

이 별동대는 대탄 방향으로 진출하면서 양주, 포천 일대의 정탐과 임진강 방어선으로의 조선군 진출을 견제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아울러 강원도로 진출하도록 임무를 부여받은 모리의 3군은 임진강 방어선 공격에 참여하지 않고 바로 강원도로 진출하여 5월 3일에는 이미 춘천을 점령하고 있다. 모리의 춘천 점령은 이후 화천 계선을 따라 함경도 남부로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를 장악한 것으로 이는 임해군(臨海君), 순화군(順和君)의 분조(分朝)활동에 심각한 압박으로 작용하게 된다.

4월 30일 함경, 강원 양도의 근왕군을 모집하도록 파견된 임해군은 4월 30일 한양 함락 직전에 한양을 떠나 5월 1일 포천을 거쳐 5월 3일 금화에 도착하였는데 거기서 이미 춘천이 함락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된다. 아울러 이일이 보고한 첩보에 의하면 5월 23일에는 이미 왜병의 별동대가 영평현에 진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적정을 탐지하는 군관(軍官) 고충경(高忠卿)을 통하여 왜적들이 영평현(永平縣)에 마구 침입하였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영평현에서 바로 철원(鐵原) · 삭녕(朔寧) · 연천(漣川) 등지를 공격하면 이곳은 모두 아군의 후방이므로 즉시 도검찰사(都檢察使)와 약속하여 강원도 방어사(江原道防禦使) 문몽헌(文夢軒)을 체류시켜 그대로 대탄을 지키도록 하고, 신은 남병사(南兵使) 이혼(李渾)과 더불어 병사들을 철원으로 이동시켜 왜적의 진로를 차단할 계획을 세웠었는데[28]

대탄을 방어하던 조선군의 병력 일부가 영평의 적을 철원 지경에서 영격하기 위하여 이동하고 있는 것이다. 상황을 다시 정리하면, 5월 3일 한양을 점령한 왜군은 전선을 북방으로 확대하기로 하고 선봉인 가토오 기요마사의 본진이 5월 10일 임진강 계선에 진출하는 한편 별동대를 운영하여 주 공격계선을 보호하게 되는 데 이 별동대의 일부가 5월 16일 양주 해유령에서 조선군에게 패배, 전멸하고 있고 또 다른 일부 별동대 병력은 5월 23일 영평현에 진출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임진강 방어선은 5월 17일 전투가 시작되어 조선군이 다시 패배하면서 5월 27일 가토오 군은 임진강을 도하하여 황해도 평산, 곡산을 거쳐 함경도로 진입하여 6월 17일에는 벌써 안변에 정착하고 있다. 따라서 4형제가 순절한 5월 25일에는 가토오의 2군 별동대가 포천, 영평(永平) 일대를 장악하고 본대 및 한양과의 연락망 및 보급선을 가동하여 송산 순절 현장을 인접한 도로로 병력을 이동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결국 5월 24일 4형제의 순절은 가토오의 본대가 아닌 이

28) 선조 25년 6월 7일 을미

들 2군 별동대의 일부 병력과의 전투로 발생하였다는 사건의 시, 공간 정황을 설정할 수 있게 된다.

4형제의 순절은 가토오의 본진이 아니라 한양에서 의정부 포천을 거쳐 영평으로 진출한 왜군 제2군 별동대와의 전투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 별동대의 병력규모는 확인할 수 없으나, 양주 해유령에서 전멸한 또 다른 별동대의 병력 규모가 70여명이었던 사실과 비교하면 이 역시 그 정도의 소규모 부대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인천부사 이시언의 장수원전투에서 격돌하였던 왜병도 포천, 영평으로 진출하던 이 별동대였을 것으로 더불어 함께 추정할 수 있다[29]

단, 이미 5월 23일에는 포천을 경과하여 영평현[30]에 출현하고 있으므로 5월 24일 4형제 순절 전투에 참가한 왜군은 포천으로 진출하는 최초의 병력이 아닌 후속대 내지는 보급부대였을 것이다. 따라서 4형제의 입장에서는 이들 소규모의 병력과 전투하려는 의지를 충분히 가질 수 있었을 것이다.

(2) 순절 장소인 송산 고산동 현재 묘역의 역사적 당위성

한양에서 철령을 넘어 함경도 서수라에 이르는 북관대로의 행로를 여러 자료에서 확인하면

○ 경흥대로는 서울[한성]과 동북[강원도 · 함경도]을 이어주는 주요 교통로로서, 조선 시대 6대로 가운데 두 번째에 해당한다. 1770년 여암 신경준(申景濬)이 저술한 『도로고(道路考)』에 따르면 조선의 간선 도로를 6대로로 분류하였는데, 그 가운데 두 번째에 해당한다. 명칭은 '경성동북저경흥로제이(京城東北抵慶興路第二)'로 되어 있다. 주요 경유지를 살펴보면 '한성~수유리점~누원[다락원]~축석령~송우점~만세교~김화~금성~창도역~회양~철령~고산역~안변~함흥~북청~길주~명천~회령~온성~경원~경흥~서수라'이다.[31]

○ 김정호의 대동지지에는 북관대로의 보다 자세한 경로가 나타난다.

그 경로가 다음과 같다 (지명 다음의 숫자는 리수로 표시된 거리로 15이면 15리를 의미한다. 즉, 京都15 水踰峴은 "한양에서 15리를 가면 수유현이 있다"라는 의미가 된다)

경도(京都)15 수유현(水踰峴) 17 다락원(樓院) 8 의정부(議情阜) 10 서오랑점(西五郎店) 10 축석령(祝石嶺) 20 송우장(松隅場) 10 파발막(擺撥幕) 10 안기역(安奇驛) 10 탄거리장(炭場巨里) 10

---

29) 선조 25년 5월 20일 기묘
그러나 돌격장(突擊將) 인천 부사(仁川府使) 이시언(李時言)은 지난번 양주(楊州)의 장수원(長壽院) 싸움에서 힘껏 싸워 진을 뚫었었는데 .."

30) 영평은 포천 북방의 임진강에 면한 지역으로 당시에는 별도의 현이 설치되어 있었으나 현재는 포천 경내에 편입되어 현명은 소실되었다

31) [네이버 지식백과] 포천신읍시장 (국내 시장백과) 김창협의 동유기

만세교(萬歲橋) 10 양문역(梁文驛) 10 유정(楡亭) 10 굴운천(屈雲川) 10 혜재곡(惠才谷) 10 풍전역(楓田驛) 10 자등현(自登峴) 10 갈현(葛峴) 10 장림천(長林川) 15 생창역(生昌驛) 5 김화(金化) 30 유아현(踰阿峴) 중현(中峴) 10 경진목역(經眞木驛) 아현(阿峴) 10 금성(金城) 15 탄금점(炭黔店) 15 창도역(昌道驛) 10 탄현(灰峴) 10 송포진(松浦津) 20 신안역((新安驛) 30 회양(淮陽) 도서진(渡西津) 5 은계역(銀溪驛) 30 철령(鐵嶺) 15 고산역(高山驛) 20 용지원(龍池院) 25 남산역(南山驛) 20 파발막(擺撥幕) 20 봉룡역(奉龍驛) 30 덕원철관역(德源鐵關驛) 20 문천 양기역(文川良驥驛) 30 화살탄(箭灘) 20 고원(高原) 20 사박포다리(沙朴浦橋) 20 영흥(永興) 3 용흥강(龍興江) 27 금피원(金彼院) 15 초원역(草原驛) 5 고성현(古城峴) 30 정평(定平) 5 봉대역(蓬臺驛) 15 덕포다리(德浦橋) 20 중천(中川) 성천강(城川江) 만세다리(萬歲橋) 10 함흥(咸興) 30 덕산역(德山驛) 20 임동원(林東院) 15 함관령(咸關嶺) 5 함원령(咸原驛) 25 홍원(洪原) 30 대문령(大門嶺) 10 평포역(平浦驛) 20 상가령(相加嶺) 30 북청(北靑) 30 긴모루(長毛老) 20 거산령(居山驛) 10 시중대(侍中臺) 5 넝쿨령(蔓嶺) 10 다보동(多寶洞) 15 송정참(松亭站) 10 이원(利原) 30 곡구역(谷口驛) 10 마운령(摩雲嶺) 30 단천(端川) 40 마곡역((麻谷驛) 30 마천령(摩天嶺) 20 성진진(城津鎭) 10 영동역(嶺東驛) 30 임명역(臨溟驛) 30 산성참(山城站) 30 길주(吉州) 30 고참역(古站驛) 15 재덕구진(在德舊鎭) 25 명천(明川) 30 재덕진(在德鎭) 5 귀문관(鬼門關) 운위원(雲委院) 25 주촌역(朱村驛) 45 영강역(永康驛) 45 경성(鏡城) 15 어유간교(魚遊澗橋) 25 수성역(輸城驛) 10 폐무산보(廢茂山堡) 25 노루목(獐項) 35 부령(富寧) 30 허고원(虛古院) 10 무산령(茂山嶺) 20 고풍산진(古豊山鎭) 30 독덕참(獨德站) 30 회령(會寧) 20 고령진(高嶺鎭) 20 세천구보(細川舊堡) 20 방원진(防垣鎭) 30 종성(鍾城) 25 동관진(潼關鎭) 25 영달진(永達鎭) 30 온성(穩城) 25 황탁파보(黃拓坡堡) 25 훈융진(訓戎鎭) 30 경원(慶源) 30 안원보(安原堡) 20 건원보(乾原堡) 20 아산보(阿山堡) 10 백안(伯顔) 25 경흥(慶興) 무이진(撫夷鎭) 35 조산진(造山鎭) 20 서수라(西水羅)

○ "동쪽으로 홍인문(동대문)을 나서니 가을 하늘이 드높고 공기가 맑고 들이 넓게 펼쳐져 마음은 벌써 산과 바다에 가 있었다. 낮에 누원에서 점심을 먹고 축석령을 넘어가 묵었다. 경인일 아침에 포천 시장 거리에서 아침을 먹고 낮에는 양문역에서 점심을 먹었고 초경에 풍전역에서 묵었는데 이곳은 철원이었다."[32]

32) 김창협의 동유기

○ 28일 갑자 맑음

이 날 길을 떠나기로 하였으나 빚을 얻을 방법이 없었는데 정이성형의 친척에게서 70금을 얻어 행장을 꾸려 오후에 이성 형과 함께 출발하였다 여러 친지들이 찾아와 전별하였다 병조에서 마패와 초료를 받고 본조의 말에 탔다 홍인지문을 나오니 오후 1시경이었다 이성형이 먼저 떠나고 내가 뒤따랐는데 역마가 백번 채찍질을 해야 겨우 한 걸음을 걷는 데다 나는 견마잡이도 없어 이성형의 노복 명재가 짐바리를 실은 말을 함께 끌었다. 30리를 가서 다락원에 이르니 이성 형이 쉬면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성 형과 함께 하니 비로소 조금 위안이 되며 회한이 풀렸다 다시 10리를 가서 의정부점에 이르러 이성 형은 서오랑점으로 가고 나는 역을 찾아 다시 10리를 더 가서 녹양역에 묵었다 길에 물이 넘쳐 곡식의 피해가 너무 컸다.

二十八日甲子, 暘. 是日治行, 而得債無路, 因鄭利城戚兄得七十金治裝, 而午後與利城同發, 作北征親知來會餞別, 受兵曹馬牌草料, 乘本曹駑馬, 出興仁之門, 乃午未時也. 利城先行, 余亦追後, 所謂駑馬百鞭一步, 余則無奴, 故使利城奴子明才, 牽私持卜馬, 行三十里, 到樓院店, 利城休憩待余, 利城同行稍慰, 遠離之懷矣. 行十里到議政部店, 利城向西五郎店, 余則尋驛, 行十里, 宿緣陽驛, 所徑水破穀禾, 所見甚駭矣[33]

위의 자료들에 나타나는 것처럼 한양에서 함경도에 이르는 북관대로의 경로 중 우리가 검토하려는 4형제 순절 현장에 관련된 구간은 누원에서 송우장까지로 이 구간의 경로를 대동지지 도로고에 의거하면

서울(한양) - 수유리 - 다락원 - 의정부점(녹양) - 서오랑 - 축석령 - 송우리

가 된다. 정조, 철종 등 어거가 광릉 참배길에 행행한 경로도 이 경로이고 북관의 건어물이 넘어와 다락원에서 집적된 것도 이 경로를 통과한다. 따라서 장수원을 거쳐 영평으로 진출한 왜군 제2군의 별동대 역시 이 경로를 이용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4형재의 순절 장소인 고산리 묘역은 위의 북관대로의 경로가 아닌,

다락원 - 의정부점 - 가래울 - 만가대 - 외송산[34] - 축석령

33) 노상추일기 盧尙樞日記 2 〉 正宗十一年丁未日記 〉 六月小
34) 의정부 송산은 동오리에 위치한 낮은 구릉을 경계로 왼편을 내송산, 오른편을 외송산이라 구분하였다

으로 이어지는 북관대로의 별도 지선(支線) 상에 위치한다 정확히 말하면 만가대 – 내송산의 사이 구간 도로변이다. 즉, 순절장소인 묘역은 정상적인 북관 행로에서 상당 거리를 비껴 있어 이 대로라면 왜군과 4형제가 조우할 수 없는 위치에 있다. 4형제가 일부러 외송산길을 북향하여 위의 서오랑 – 축석령 도로에 진출하지 않는 이상 왜군과의 충돌은 불가능하고 만일 4형제가 서오랑 – 축석령 계선으로 북향하여 왜군과 전투하였다면 순절장소는 가보에 나타나는 것처럼 묘역이 될 수 없다.

그러나 많은 자료는 서오랑 – 축석령을 경과하는 본로와 함께 의정부점 – 만가대 – 외송산을 거치는 지선 역시 활발한 교통로로 이용되었고 오히려 이 지선은 의정부점에서 축석령에 이르는 첩로로 애용되기도 하였다고 증언한다.

다음의 자료를 보자.

○ 경도(京都)에서 추가령지구대(楸哥嶺地溝帶)를 지나 철령. 함흥(鐵嶺 · 咸興)을 거쳐 서수라(西水羅)에 이르는 동북로(東北路)는 가장 긴 도로선(道路線)으로, 제일대로(第一大路)가 사행(使行)이나 군사적(軍事的) 연락(連絡)으로 가장 중요시(重要視)되었다면, 이 제이대로(第二大路)는 조선왕조(朝鮮王家)의 발상지(發祥地)와 군사적(軍事的)인 면(面)에서 제1대로(第一大路) 못지않게 중요시(重要視)된 길이었다. (중략) 그러나 역(驛)과 원(院)의 시설(施設)이 거의 갖추어지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첩로(捷路)나 간로(間路), 세로(細路)는 산천지세(山川地勢)에 따라 형성(形成)되어 있으나 특수(特殊)한 경우가 아니고는 인구밀도(人口密度)가 희박하였던 특히 조선후기(朝鮮前期)에 있어서는 그다지 통행(通行)에 이용(利用)되진 않았고 적변(賊變)이 있을 경우나 군사. 정탐(行軍 · 偵探)등 특수한 목적(目的)이 있을 경우에는 에외(例外)였을 것이다[35]

○ 예문관 검열 이존수가 서계하기를

신이 이달 초사흘 동도의 농사 형편을 살피라는 명을 받고 초 오일 새벽 서울을 떠나 먼저 포천 경내에 들어가서 직동을 지나고 구현을 넘어 송우리를 지나 장가를 지나 구불구불 청량산 화산 사이를 지나며 그 사이 지나는 모든 곳의 농사 형편을 살피니 이번에 비가 왔다고는 하나 오랜 가뭄에 평소에 물 근원이 있는 곳 이외에는 거북이 등처럼 갈라진 진 채 모두 물이 고이지 않았고 가장 비옥하고 물이 넉넉한 곳에는 비가 오기 이전에 모를 냈지만 그 외 지역은 비록 둑을 쌓은 곳(보)이라도 흐르는 물이 심히 얕아 그 보 입구까지 물이 흘러들지 않았습니다. 두레박을 사용하여 겨우겨우 물을 퍼올려 적시는 상황입니다 이번에 비가 내렸으니 물기 가가운 곳이나 샘이 있는 곳

35) 朝鮮前期 國防體制의 諸問題〉 朝鮮初期의 軍事道路 〉III. 六鎭地域의 軍事道路 〉 (1) 六鎭地域의 道路

에서는 새로이 물을 얻는 효험이 있을 듯 하였습니다. 이를 힘입어 모를 낼 수 있을 듯 하나 단지 높고 메마른 지역에서는 다시 큰 비가 내려야만 물을 가두고 모를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청량과 화산은 본래 비옥하고 물이 풍부한 곳이라 이번 비가 오기 이전에 태반이 이미 모를 내었고 모가 깊이 착근하여 잎이 많이 푸르렀는 데다 벌써 초벌 김매기를 마쳤으니 아직 모를 내지 못한 곳도 이번 비 이후에는 다 모를 낼 수 있을 것입니다. 청량을 떠나 돌아오는 길에 축석령을 넘어 양주 경내에 들어와 서오랑 지역을 살펴보니 역시 이번 비로 인한 소득이 포천과 별로 다르지 않았습니다만, 지나는 곳의 지형이 산과 가가이 있어 아직은 모를 내지 못한 곳이 많았습니다 (하루를 잔 뒤) 오늘 아침 큰길을 버리고 송산 길로 들어서서 엄현을 넘어 공세평(貢稅坪)[36]을 두루 살펴보니 어제 살핀 내용과 크게 달라진 것은 없었습니다, 비록 어제 밤에 다시 비가 왔다고는 하나 (양이 너무 적어) 겨우 먼지를 적실 정도에 불과하였습니다 보에 가가운 곳이나 샘이 솟는 곳에서는 지금 한창 모를 내고 있습니다만 단지 시일이 이미 늦어지고 물의 양이 감소하는 것이 걱정스럽습니다..(중간 생략) .. 다락원을 지나 수유평과 안암동 등지를 거쳤는데 이곳의 밭은 도랑을 많이 파 물을 끌어들였으므로 이미 모내기를 모두 끝냈고 밭에도 새싹이 무성히 돋았습니다[37]

藝文館檢閱李存秀書啓。臣於今月初四日, 伏奉東道農形看審之命, 初五日平明離發, 先入抱川境, 過直洞, 踰鳩峴, 歷松隅, 度長街, 逶迤于淸涼・花山之間, 所經諸處農形, 一一看審, 則今番之雨, 得於久旱之餘, 故素有水根處外, 所得之雨, 盡入於龜坼之中, 無所渟滀, 而最膏濕處, 已於雨前移秧, 其餘則雖有堤堰, 川流甚淺, 不能流入於洑口。故用桔槹自低而上之, 僅僅沾潤。自得今雨之後, 近水道處, 有泉脈處, 則新得之水, 易爲效焉。賴此而方爲移秧, 高燥奉天之地, 更得數犁之雨, 方可滀水而移之。其中淸涼・花山, 本是土沃水饒, 故得雨之前, 太半已移, 至於着根深而葉深靑, 初除草已畢, 未移處則今番雨後, 幾皆移秧是白遣, 遂自淸涼復路, 踰祝石嶺, 入楊州界, 至西月郎看審, 則所得之雨, 與抱川無多少之異, 而所過處地形近山, 故秧之未移者稍多。今朝則捨大路轉入松山, 踰儼峴, 至貢稅坪遍察, 則與昨所見, 別無優劣之懸殊, 而昨夜更得之雨, 則不過浥塵而止。近洑處及生泉處, 移秧方張, 而惟恐時日之少遲, 水勢之或減 (중간 생략) 自樓院以後, 則歷水踰坪・安巖洞等地, 而田是負郭, 畓多引溝, 故禾皆移揷, 田亦苗茂是白齊。

---

36) 지금의 의정부 장암동, 호원동, 의정부3동, 가능동 지역에서 녹양평을 제외한 지역으로 의정부에 소속된 〈의정부둔〉이라는 역둔토가 설치되었었다 필자는 여러 차례의 논문에서 이 〈의정부둔〉이 현재 의정부시의 지명유래라고 밝히고 주장한 바가 있다. 이 자료에서 이 〈의정부둔〉을 "세금을 걷는 땅"이라는 의미의 〈공세평(貢稅坪)〉으로 부르고 있었다는 새로운 사실을 확인하고 필자의 기존 입장을 보강하는 새로운 근거를 추가하게 되었다 이후 보다 자세한 보강이 필요하다고 본다

37) 승정원일기 96책 (탈초본 1822책) 정조 24년 5월 7일 무자

○ 〈양주 수락산을 지나며〉

비개인 강 하늘에 눈썹달 뜨고
양주로 돌아오는 가느다란 길
어두워지는 저 멀리 아직도 집은 먼데
산꽃은 활짝 피어 눈 온 듯해라
송산(松山)의 산(山)들 비 맞아 싱그러웁고
논물 희고 보리 고랑 푸르러지네
작은 두렁 버들은 가꾸는 이 없이
저물녘 실바람에 자욱한 솜털
가는 모래 흰 돌을 휘감아 흐르는 시내
풀 숲 사이 작은 꽃들 황혼에 곱다
수락산 앞 이 길을 몇 번이나 지나치노
마주 뵈는 우람한 높은 봉우리

雨霽江天月似眉。楊城歸路細於絲。不愁昏黑人家遠。照眼棠花白雪奇。
松山山下雨新晴。稻田水白麥溝青。小堤楊柳無人管。日暮微風絮自零。
細沙白石小回灣。嫩草幽花暮色寒。幾番水落山前過。玉立崔嵬仰面看[38]

○ 〈한양으로 가는 도중에〉

이제는 병들고 늙어
나그네 한세월이 저물려 하네
수척한 말은 황혼을 울고
여윈 등 뒤로 삭풍이 차다
얼어붙은 임진을 건너
눈 쌓인 화산 지나서
송산 아래로 고개 돌리니
멀리 아련한 그대 집일세

病餘身已老, 客裏歲將窮, 瘦馬鳴西日, 羸童背朔風,
臨津冰合渡, 華嶽雪連空, 回首松山下, 君門縹渺中[39]

38) 서거정 사가정시집 詩類 楊州水落山途中
39) 道東淵源錄卷之二〉 李集紀 〉 漢陽途中

이 자료들이 보여주는 것처럼 북관대로 중 의정부점에서 서오랑을 거쳐 축석령에 이르는 행로 외에 가래울, 외송산을 거쳐 축석령에 이르는 첩로가 있어 특히 이 길은 군사작전 등 시간의 단축을 요하는 경우에 많이 사용되었다고 증언한다. 따라서 우리는 이상의 여러 자료들을 종합하여 4형제의 순절은 가토오군의 별동대가 포천, 영평 방면으로 진출하는 과정에서 후위, 보급대가 외송산 첩경을 이용하여 이동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정황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왜군의 영평 활동이 5월 23일자 이일의 첩보로 조정에 보고되고 있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4형제의 5월 24일 순절은 장소와 시간, 그리고 당시의 작전 전개 상황과 완벽히 일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순절 장소인 송산 고산동 현재 묘역에 나타나는 역사적 당위성

의정부시 고산동 명산도정 묘역은 조선의 왕족 가문이 친진될 때까지 종친계를 유지한 채 종친부의 선원직 직첩을 받았고 친진 이후에는 문신계 입사(入仕)를 통해 영의정이라는 최고위 현직(顯職)에 오른 이홍주(李弘胄)라는 걸출한 인물에 이르기까지 조선 전기 전체를 망라하는 왕족, 종친 가문에서 조영해 온 묘역이다. 이 묘역에는 모두 11개처 22위 다양한 형태의 묘소가 조영되었는데 그 다양한 형태와 배치 상황은 마치 조선시대 묘소 조영의 전시관을 보는 것 같은 흥미로움을 자아낸다. 이 묘역에 조영된 묘소를 형태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재론하거니와 이 묘역은 선성군의 후예 명산도정의 후손들의 묘소로 구성되어있다. 정종(定宗)으로부터 후대를 살피면 선성군 – 명산도정 – 하양군 – 파천군에 이르러 친진이 되고 종친계 관직 제수가 종결되어 종반(宗班)으로서의 직제를 더 이상 받지 못하게 되지만 파성군의 손자 이홍주가 영의정에 오르며 부, 조부 3대를 추훈(追勳)하게 되어 이 가계는 실직과 추훈을 계대(繼代)하여 이어 온 문자 그대로의 명문이다. 따라서 묘소 역시 종친가 후예의 일원으로서, 그리고 실직 또는 현관으로서의 지위가 그대로 반영될 수밖에 없다. 우리는 이 부분에 주목하고자 한다.

분묘의 형태	내용	수	비고
전후 조성 부부묘	부전 처후(夫前妻後)	3	명산도정 , 파평부령, 파천군
전후좌우 혼합 부부묘	전처(前妻)전(前), 좌부우계처(左夫右繼妻) 쌍분(雙墳)후(後)	1	하양군
하트형 부부묘	부좌처우(夫左妻右) 쌍분동미(雙墳同尾)	4	파성군, 사복시정, 증 영의정, 영의정
부부 종렬(縱列)묘	부전(夫前) 전처 중(前妻 中), 계처(繼妻) 후(後)	1	동몽교관
동혈(同穴)동분(同墳)	4형제의 순절 동혈묘	1	이극심 4형제
설단(設壇)	묘 실전(失傳)	1	군수공

ㄱ. 4형제의 합장

그런데 파성군(坡城君) 이염(李琰)의 아들 4형제 이극담(李克諶), 이극성(李克誠), 이극함(李克諴), 이극겸(李克謙)이 명문의 당당한 후손으로서 개위 분묘에 입장(入葬)하지 못하고 동혈(同穴)에 한꺼번에 합장(合葬)되었다는 사실은 위 묘역이 가지는 특성상 있을 수 없는 특수 상황으로 이에 상당하는 이유가 반드시 따로 있어야 한다. 비록 추봉(追封)이라하여도 군호(君號)를 훈봉(勳封)받은 종친의 아들이 그것도 4형제 모두가 개위(個位)로 분묘가 조영되지 않고 합장한 이유는 특수한 사건에 연유된 특별한 사유(事由)가 존재하지 않으면 설명이 되지 않는 것이다.

조선왕조 내내 시벌(施罰)과 신원(伸冤)이 거듭되어 왔지만 명백한 역모(逆謀)로 주륙(誅戮)되어 끝내 해벌(解罰)되지 않은 죄인의 경우에 조차 묘소는 개위로 조성되는 것이 상례이다 심지어 극형에 처해져 시신을 수습하지 못한 경우 하다못해 의관장(衣冠葬)을 치를망정 그 묘소는 개위로 모신다. 합묘하는 것은 전시(戰時) 상황에서 황급히 시신을 수습할 수 밖에 없었던 경우에 주로 나타난다 만인의총(萬人義塚)[40]이 그렇고 신미의총(辛未義塚)[41]이 그렇다. 적어도 4대를 계대하여 종친계로 입사하며 군호(君號)를 책명(册命)받았고, 친진(親盡)이후에도 영의정을 배출한 종친 가문의 적계(嫡系)로 구성된 묘역에 합장묘가 조영(造營)되었다는 사실 그 자체가 4형제 순절을 증언하는 강력한 물증이 아닐 수 없다 이제 사안이 발생한 지도 어언 500년이 경과한 지금도 종중에서는 합장묘를 보존하며 제향을 지낸다 4형제의 순절을 가문의 영예를 과시할 목적으로 근거없이 내세운 자손들의 주관과 독단으로 함부로 치부하기에는 이와 같은 현장의 상황이 대단히 무겁고 엄숙하다.

ㄴ. 홍희(洪希)의 단(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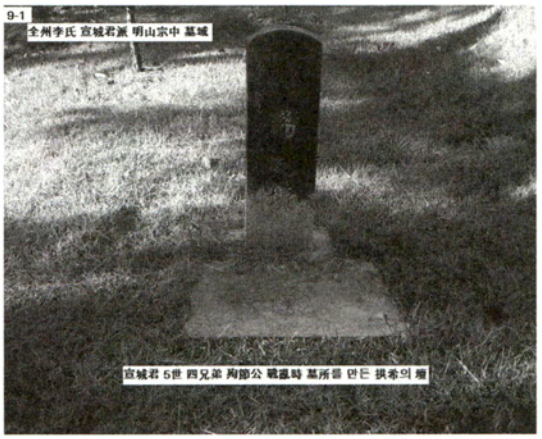
홍희(洪希)는 명산도정 후손 묘역을 돌보던 실무 하예(下隷), 산지기였다.

그는 4형제 순절의 당일, 사건의 시종을 목격하였고 순절 이후 4형제의 시신을 급히 수습하여 순난 현장에 동혈(同穴)이나마 간장(簡葬)한 당사자이다 4형제의 순절은 결국 4형제에게 국한된

40) 정유재란 때 남원성(南原城)을 지키다 전사한 지사들의 무덤. 왜란이 끝난 뒤 전사한 사람들의 시신을 한 곳에 묻었고, 1612년(광해군 4) 충렬사를 세워 8명의 충신을 제향하였다. 처음에는 남원역 부근인 동충동에 있었으나, 주변이 민가로 둘러싸이게 되어 1964년 현재의 자리로 옮겼다. 1971년부터 정화작업을 시작하여 1979년에 완공하였다

41) 1871년(고종 8) 4월 23일 광성진(廣城津)에서 벌어졌던 미해군 육전대(陸戰隊)와의 싸움에서 장렬하게 전사한 용사들의 무덤이다. 당시 군사를 이끌던 어재연 장군과 동생 재순, 군관, 사졸 등 53명의 전사자 중 어재연 형제는 충청북도 음성군 대소면 성본리에 안장하고 신원을 알 수 없는 나머지 51명의 시신은 7기의 분묘에 나누어 합장하여 그 순절을 기리고 있다

것이 아니고 4형제와 함께 행동한 홍희에게도 생사를 가르는 엄혹한 상황이었고 현장에서 이탈하는 것이 우선의 목표이기가 십상이었을 경황없는 상황에서 순절한 4형제의 시신을 감히 수습하는 일은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하는 충의의 발로가 아닐 수 없다. 이를 가상히 여긴 종중은 4형제 순절묘 바로 아래에 홍희를 위한 작은 단을 만들어 지금까지 4형제 제향 말미에 일배주(一杯酒)를 올리는 것으로 그 충절을 함께 기리고 있다. 가문의 제향에 소례(小禮)로나마 동흠(同歆)하는 것은 종중이 그에게 지닌 감사의 일단에 근거한 것이요 이는 4형제 순절의 역사성을 방증하는 또 다른 증언이 아닐 수 없다 즉 4형제의 순절은 미담이 아닌 실제 상황임을 다른 측면에서 확인하는 사례로 보아야 한다.



〈홍희의 단〉

(3) 가족관계의 변화에 나타나는 역사적 당위

ㄱ. 부친 이염(李琰)의 봉군(封君)

종친(宗親), 종실(宗室), 또는 종반(宗班)으로 통칭되는 왕의 후손들의 관직과 예우에 관하여 『민족문화백과대사전』은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 왕족은 종학(宗學)에서 수학하고 성인이 되면 자동적으로 종친계(宗親階)가 초수(初授)되었다. 그리고 그 능력과 활동에 따라 관품(官品)이 승계(乘階)되었다.

종친계는 정1품에 현록대부(顯祿大夫)·흥록대부(興祿大夫), 종1품에 소덕대부(昭德大夫)·가덕대부(嘉德大夫), 정2품에 숭헌대부(崇憲大夫)·승헌대부(承憲大夫), 종2품에 중의대부(中義大夫)·정의대부(正義大夫), 정3품 당상에 명선대부(明善大夫)로 되어 있었다. 그 아래 정3품 당하에 창선대부(彰善大夫), 종3품에 보신대부(保信大夫)·자신대부(資信大夫), 정4품에 선휘대부(宣徽大夫)·광휘대부(廣徽大夫), 종4품에 봉성대부(奉成大夫)·광성대부(光成大夫), 정5품에 통직랑(通直郎)·병직랑(秉直郎), 종5품에 근절랑(謹節郎)·신절랑(愼節郎), 정6품에 집순랑(集順

郎)·종순랑(從順郎)으로 되어 있으며 그 이하는 없다. 이들은 주로 종친부(宗親府)에서 관명을 띠고 종실에 관한 일을 맡았다. 관계명 중에는 무품계(無品階)인 대군(大君)과 군(君)이 있는데 대군은 적출(嫡出) 왕자에게, 군은 서출(庶出) 왕자에게 주어졌다. 그 밖에 군호를 받은 종친으로는 종1품·정2품·종2품의 세 가지 경우가 있었다. 즉, 대군승습적장자(大君承襲嫡長子)에게 초수되는 군은 종1품, 세자중자(世子衆子)·대군승습적장손(大君承襲嫡長孫)·왕자군승습적장자(王子君承襲嫡長子)에게 초수(初授)되는 군(君)은 정2품, 세자중손(世子衆孫)·대군중자(大君衆子)·대군중자승습적장증손(大君衆子承襲嫡長曾孫)·왕자군승습적장손(王子君承襲嫡長孫)에게 초수되는 군은 종2품이었다. 그리고 세자중증손(世子衆曾孫)·대군중손(大君衆孫)·왕자군중자(王子君衆子)·왕자군중자승습적장증손(王子君衆子承襲嫡長曾孫)에게는 정3품의 관계인 정(正)이 초수되었으며, 대군중증손(大君衆曾孫)·왕자군중손(王子君衆孫)에게는 종3품의 관계인 부정(副正)이 초수되었다. 그리고 왕자군중증손(王子君衆曾孫)에게는 정4품의 관계인 수(守)가 초수되었다. 이들 왕자군은 모계가 양첩(良妾)인 경우는 1계가 강등(降等)되며, 천첩(賤妾)인 경우는 다시 1계가 강등되어 종친계가 초수되었다. 그리고 관직을 승습할 때는 그 아버지가 죽은 뒤에 행해졌다. 이들은 왕과의 근친이라는 점에서 권력을 행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때로는 남용해 법치질서를 해칠 염려도 많았으며, 실제로 그러한 예가 속출하였다. 그리하여 조선 초기에 법치체제가 정비되면서 이들에게는 품계에 따라 경제적 예우를 해주되 관직으로 진출하지 못하도록 하고, 또한 과거에 응시하지 못하도록 하였다.[42]

선성군의 후손은 〈왕자군습승(王子君承襲)〉에 해당되어 초수로 군호를 받는 것은 적장손(嫡長孫)에 한정되었다. 선성군(宣城君)은 정종(定宗)의 4남으로 습승(襲承) 봉군(封君)되었으나 명산도정 이금정은 선성군의 적장이 아닌 3남이므로 초수(初授) 봉군의 대상이 아니었다. 그러나 명산도정의 아들, 손자는 종반(宗班)으로서 아직 친진(親盡)되지 않았으므로 고손자 이홍주(李弘胄)의 영의정 관위를 따라 승직(陞職) 추증(追贈) 되어 모두 군호를 받는다[43] 증손 이극인(李克仁)은 종반으로 친진된 이후 문신계로 입사하여 간성군수를 지내고 퇴사(退仕)하지만 아들 이홍주의 관력을 따라 영의정에 추증[44]되고 있다.

---

42) [네이버 지식백과] 종반 [宗班]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43) 이옥형(李玉荊)은 하양영(河陽令)으로 승헌 대부(承憲大夫) 하양군(河陽君)에 추증되었는데 증조(曾祖)이다. 조(祖) 이주(李珠)는 파천 부령(坡川副令)으로 가덕 대부(嘉德大夫) 파천군(坡川君)에 추증되었으며, 고(考) 이극인(李克仁)은 간성 군수(杆城郡守)로 증 영의정(領議政)이고,
이홍주 [李弘胄] (국역 국조인물고, 1999. 12. 30., 세종대왕기념사업회)

44) 죽은 사람의 관작(官爵)을 올려 주는 것. 조선 초기에는 문·무관(文武官) 6품 이상의 관원에 대하여 부(父)·조(祖)·증조(曾祖)의 3대(三代)를 추증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경국대전(經國大典)≫에는 실직(實職) 2품 이상의 종친(宗親), 문·무관의 부(父)·조(祖)·증조(曾祖) 3대에 한해 추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네이버 지식백과] 추증 [追贈] (한국고전용어사전, 2001. 3. 30., 세종대왕기념사업회)

○ 추증의 법을 정하였다. 이조에서 아뢰기를, "홍무 27년 6월 일 본조에서 수판하기를, '6품 이상으로 3대를 제사지내어야 할 사람은 죽은 부모를 추증하여, 부는 품계를 대등하게 하고, 조부·증조는 각각 한 등씩 감하되 비도 모두 같으며, 공신은 2등을 더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공신의 아비는 당초 공을 상줄 때에 2등을 뛰어올리는 것이 옳으며, 그 뒤 아들은 관직에 따라 가봉할 때에 또한 2등을 뛰어올리는 것은 실로 영세토록 세상에 전하는 법으로서는 미편하니, 금후로는 가봉할 때에 2등을 뛰어올리지 말고, 각품의 조·부의 추증하는 예에 의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定追贈法 吏曹啓 洪武二十七年六月日 本曹受判 六品以上應祭三代者 追贈考妣 父對品 祖 曾祖各遞降一等 妣並同 功臣則加二等 然功臣之父 當初賞功之時 超二等可矣 其後隨其子職加封 亦超二等 實未便於永世流傳之法 今後加封時 除超二等 依各品祖父追贈例 從之[45]

○ 추증. 종친 및 문·무관 실직 2품 이상은 3대를 추증한다.

追贈 宗親及文武官實職二品以上 追贈三代[46]

증손인 영의정 이홍주의 부조 3대를 추증하여 군호를 추증 받은 하양군 이옥형(李玉荊)에게는 아들 3형제가 있었다 이중 둘째인 파천군(坡川君) 이주(李珠)의 봉군은 전술한 것처럼 이홍주의 관위(官位)에 연유한 추증이었다 따라서 장자와 3남은 자신이 봉군될 만한 업적이나 공적을 세우지 못하는 한 봉군의 사유가 전혀 없다. 당연히 이옥형의 장자 이찬(李瓚)은 파평부령(坡平副令)이라는 종친계의 선원직(璿源職)은 받았지만 군호는 받지 못한다. 문제는 순절 4형제의 부친인 파성군(坡城君) 이염(李琰)의 경우이다 그는 종반 친진(親盡)의 말대(末代)로 령(令)이라는 선원직에 제수(除授)되었다. 그러나 자료에는 그가 추증 봉군될 만한 지위에 도달했거나 합당한 업적을 수립한 것 같지도 않다. 그의 아들 4형제는 모두 친진되어 종친계에 입사(入仕)하지 못하였고 순절하기까지 아직 문신계로도 진출하지 못한 백민(白民) 사대부(士大夫)였으므로 아들들의 관위를 연유한 추증의 여지도 없다. 그런데 그의 사후 그에게 군호가 추증되고 있는 것이다.

종친계에 따르면 선원직은 군(君) - 수(守) - 부수(副守) - 도정(都正) - 부정(副正) - 령(令) - 부령(副令) - 감(監) - 부감(副監) - 장(長)으로 구성되어 그에 대한 봉군 추증은 무려 5등급을 월반(越班)[47]하는 비상식적인 조치이다 하물며 그에게는 군호가 추증될 하등의 사유가 없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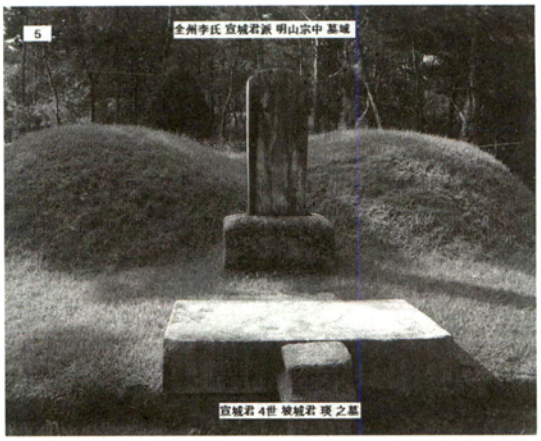
---

45) 태종 6년 2월 11일(임신)

46) [경국대전(經國大典)] 이전(吏典) 추증(追贈)

47) 세조 3년 7월 5일(병인)
이조에서 아뢰기를, "근래 종친들이 여러 번 은명을 받아서 으레 5, 6품에 제수된 자도 품계가 창선대부에 이르니,… 청컨대, 정통 8년의 교지에 의하여 직질의 칭호와 항렬을 상정하여 개정하십시오. 다만 그 정·종을 구별하기가

황망한 상황에서 조일전쟁을 치러낼 수 밖에 없던 조선 정부는 승정원일기, 비변사등록 등을 포함한 일체의 행정서류는 물론 오래 동안 보존해왔던 실록 등의 사서(史書)와 선원록(璿源錄)은 물론 공노비문서에 이르기 까지 대다수의 문건(文件)이 소실(燒失), 유실(流失)되는 상황을 맞게 된다. 심지어 선조 사후 실록을 편찬할 사초(史草)가 없어 개안의 문집까지 유존된 일부 자료를 바탕으로 부실하기 짝이 없는 실록을 편찬해야하는 지경이었다. 다음의 설명을 보자.



파성군 이염의 묘소

○ 이 실록은 방대한 분량이나, 1592년(선조 25) 임진왜란 이후 16년간의 기록이 대부분이고 그 이전의 분량은 적다. 즉, ≪선조실록≫ 전체 221권 중에 선조 즉위년 7월부터 선조 25년 3월까지의 기사는 26권에 불과한 반면, 임진왜란 이후 16년간의 기사는 195권이나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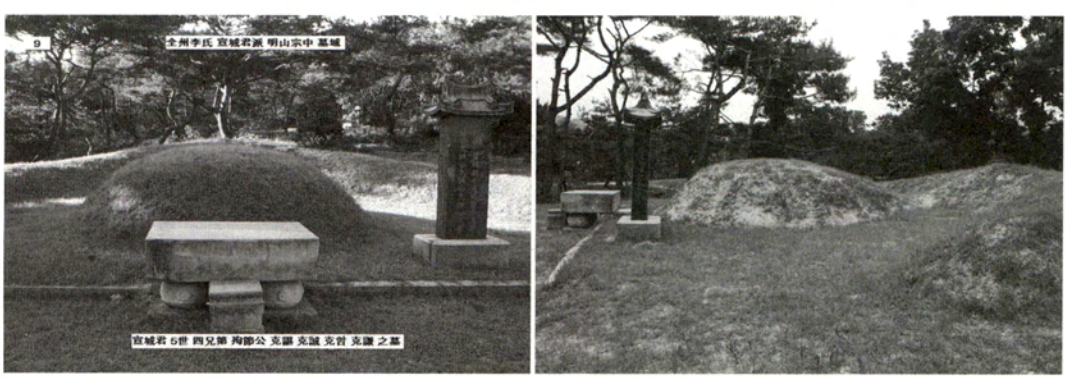
임진왜란 이전의 기사가 적은 것은 임진왜란 이전의 ≪춘추관일기 春秋館日記≫·≪승정원일기 承政院日記≫·≪각사등록 各司謄錄≫ 등 국가 기록이 전화로 불타 없어졌기 때문이다. 이에 1595(선조 28) 2월 15일, 경연관(經筵官) 정경세(鄭經世)의 건의로 춘추관에서 임진왜란 이전의 사관(史官)으로 하여금 기억을 기록해 제출하게 하였다. 또한 임진왜란 이전의 조보(朝報)·정목(政目)과 개인의 일기 및 야사(野史) 등을 춘추관에 납입케 할 것을 결정하였다. 그러나 제대로 실행되지 못했던 것 같으며, 다만 유희춘(柳希春)의 ≪미암일기 眉巖日記≫와 이정형(李廷馨)의 ≪동각잡기 東閣雜記≫ 등의 일기류를 여러 종 수집한 데 불과한 듯하다. 그 뒤 ≪선조실록≫을 편찬할 때, 실록청에서 임진왜란 이전의 사료를 재차 수집하였다. 그러나 배삼익(裵三益) 및 이기(李芑)·이수준(李壽俊) 등의 집에 보관하고 있는 조보의 단간(斷簡)과 사대부 집에 전하는 문집

어려우면, 정3품은 정이라 칭하고 종3품은 부정이라 칭하며, 정4품은 영이라 칭하고 종4품은 부령이라 칭하며, 정5품은 감이라 칭하고 종5품은 부감이라 칭하며, 정6품은 장이라 칭하십시오." 하였다. ; 吏曹啓 近來宗親累蒙恩命例授五六品者 階至彰善…請依正統八年教旨 詳定職秩稱行改正 但其正從 區別爲難 正三品稱正 從三品稱副正 正四品稱令 從四品稱副令 正五品稱監 從五品稱副監 正六品稱長
[네이버 지식백과] 부령 [副令] (한국고전용어사전, 2001. 3. 30., 세종대왕기념사업회)

(文集) 중에 들어 있는 소(疏)·차(箚)·비명(碑銘)을 수집하는 데 그쳤던 것 같다. 그런 관계로 임진왜란 전의 기사는 기사가 없는 달이 상당히 많이 보인다. 또 당월(當月)에 기재했어야 할 기사를 전월에 계속 기재하고 그 달을 표시하지 않은 것도 더러 있다.[48] 따라서 우리는 조정에 보고된 4형제의 순절에 관한 문건이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4형제의 부친 이염(李琰)에 대한 추증(追贈) 봉군(奉君)의 사유가 아들 4형제의 동시 순절 외에는 전혀 찾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ㄴ. 유가족의 친정 낙향

순절 4형제 중 2인이 결혼하여 가족이 있었다. 그러나 4형제의 순절은 이후 해당 가족들의 이산을 불러왔다. 이훈의가 작성한 4형제 순절비문에 따르면 이극함의 부인 여흥 민씨가 참변 소식을 듣고 현지에 급히 도착하였을 때 이미 남편의 시신은 산지기 홍희에게 수습되어 형제들과 동혈에 합장된 후였고 겨우 전후 사정을 산지기 홍희에게 듣고 소매에 쓴 혈서 유서를 전해 받을 수 있을 뿐이었다. 부인 민씨는 남편의 뒤를 따라 함께 자결하려 하였으나, 유복자가 있어 결행하지 못하고 결국 친정인 충청도 문의로 피란하여 유복자 사주(士胄 : 1592~?)를 키우며 종신하여 현재 묘소도 그곳 문의에 남게 되었다. 한편 이극겸의 부인 신씨(辛氏) 역시 동서 민씨와 함께 현장에 와서 남편의 죽음을 확인한 후 역시 따라 자결 하려 하였으나 이제 겨우 7세가 된 어린 아들 근주(近胄)를 돌 볼 사람이 없어 부득이 결행하지 못하고 이후 친가가 있는 청주에 피란하여 결국 신씨의 묘소도 역시 청주 옥산에 있게 되었다. 남편의 순절 이후 아내들의 친정 낙향은 그녀들의 묘소 위치와 자손의 행적을 따라 확인되는 상황이다 이와 같은 유가족의 이산 또한 4형제의 순절을 증언하는 신뢰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방증(傍證)이 된다.



〈4형제 순절 합장묘의 측면〉

48) 〔한국민족문화대백과〕 〈선조실록[宣祖實錄]〉 (한국학중앙연구원)

(4) 기타 검토사항

본 사안의 역사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4형제가 피난하지 않고 굳이 왜군과의 전투에 나서게 된 배경의 하나로 고려해야 할 사실이 있다. 당시 양주에서 벌어진 주요 전투의 지휘관들이 모두 4형제와 인척으로 연결되어 있었다는 사실이다. 선조에 의하여 한양 수비를 명령 받았던 유도대장 이양원은 바로 4형제와 같은 종중인 선성군파의 일원이다 그는 선성군(宣城君) 이무생(李茂生)의 현손이며, 풍안수(豊安守) 이옥석(李玉石)의 증손으로, 할아버지는 비홍령(飛鴻令) 이난손(李蘭孫)이고, 아버지는 이원부령(利原副令) 이학정(李鶴汀)이었다. 압도적인 일본군의 군세에 눌려 한양 방어를 포기한 후 양주에 후퇴하여 해우령전투에 참가하였고 4형제 순난 당시에는 대탄 방어선의 주장이 되어 있었다. 동시에 임진강 방어선의 주장 김명원 역시 4형제의 인척이었으니 김명원은 바로 명산도정 이금정의 외손[49]으로 4형제에게는 대왕고모의 손자가 된다. 이처럼 당시 묘역을 둘러싼 중요 전투의 지휘관이 모두 4형제의 인척이 되므로 이 사실이 4형제 참전의 동기로 작용할 수 있는 충분한 개연성이 있다.

Ⅲ. 결론

우리는 의정부시 고산동에 소재하는 전주이씨 선성군파 명산도정 묘역의 4형제 순절 합장묘의 역사성을 검토해 보았다. 다른 자료에는 나타나지 않는 4형제의 순절 기록이 오로지 해당 종중의 가보에만 나타나기 때문에 사건의 역사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없다는 한계점이 있고, 이를 확고히 증언하는 다른 사료의 부재가 자칫 실제로 일어났었던 의미있는 사실(史實)의 자체를 부정하거나 아니면 단지 특정 가문의 영예를 위하여 과장, 또는 위작한 근거없는 미담으로만 치부될 수도 있다. 이 순절묘 조영 과정에 배경이 되는 사건의 역사성을 규명하기 위하여 우리는 사건 발생의 배경이 되는 1592년 5월 24일 순난 당일, 순난 장소였던 양주 내송산, 지금의 의정부시 고산동 묘역을 위요(圍繞)한 조선군과 일본군의 전투 전개 상황을 검토하였다 그 결과 왜군 제2군이 주공인 조선군의 임진강 방어선 공격계선을 엄호하고 대탄의 조선군을 경계, 교란할 목적으로 별동대를 조직하여 운용하였고 순난 당일인 5월 24일 이전인 5월 23일에 이미 포천을 지나 영평(永

49) 김명원의 조모가 명산도정 이금정의 딸이다. 박은(朴誾) 찬. 김천령의 명행기(名行記)
"(김천령의) 부인은 종실(宗室) 명산 부수(明山副守) 이금정(李金丁)의 딸로 5남 1녀를 두었는데, 딸은 아직 시집가지 않았고 큰아들은 이제 나이 11세인데, 유모가 업고 상막(喪幕)에서 곡(哭)하니, 조문하는 손님들이 더욱더 마음 아파하였다"

平)에 출현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이 왜군의 별동대들과 조선군이 한양 함락 이후에 전개한 장수원 전투, 해유령 전투의 양상을 살펴보고 더하여 임진강 방어선에서의 양군 대치 및 전투전개 상황도 살펴 보았다. 이를 통하여 순난일인 5월 24일에 사건이 발생할 시간적 당위성이 확인되었다. 동시에 순난 장소가 북관대로의 본로(本路)에서 비껴난 내송산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것 역시 〈의정부점〉에서 가래울을 거쳐 내송산 - 축석령으로 이어지는 첩로(捷路)가 있어 군사작전을 포함한 다양한 용도로 이 첩로가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도 자료를 통하여 확인하였다 이로써 사건의 공간적 당위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포천 영평으로 진출한 왜군의 별동대가 보급, 정탐, 경계의 목적으로 내송산 길로 포천으로 왕복하는 과정에서 당시 부친의 묘역에서 수묘하던 4형제와 전투를 벌였고 결국은 4형제의 순절로 연결된 정황이 사실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적, 공간적 개요가 만들어진 것이다. 4형제의 동혈 합장묘가 조영된 명산도정 묘역은 종친 선성군파 종중의 왕실 종반 묘역이다 따라서 선성군의 아들 명산도정 이금정과 그의 자, 손에 이르는 종친계 선원직 제수자들과 친진 이후 문신계로 입사하여 영의정에 오르는 증손, 고손들이 계대하여 환로를 유지한 명문 가문의 묘역에 4형제의 동혈 합장묘가 조영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본 사건의 역사성을 입증하는 가장 강력한 증언이 된다.

우리는 이를 위하여 묘역의 성격과 피장자들의 신분을 검토하였다. 4형제의 부친 이염(李琰)이 추증 봉군된 사유와 4형제 중 결혼하였던 두 형제의 부인들이 순난 이후 각각 친정으로 낙향하여 결국 그 친정지역에 묻힌 사실의 전말을 검토하여 이 역시 4형제 순절의 역사성을 증언하는 또 다른 방증이 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정황(情況)과 개연(槪然)은 명백하다.

단지 4형제의 순난이라는 의미 있는 사건이 당시 국난을 극복하는 엄위(嚴威)한 상황에서 공식기록으로 보존되지 못한 사실이 안타까울 뿐이다. 이후 이를 규명하기 위한 지속적이고 보다 전문적인 검토와 자료 발굴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리고 묻혀있는 4형제의 순절을 통한 위국충절(爲國忠節)을 현창(顯彰)하기 위한 적극적인 방안이 이제라도 하루 빨리 모색되어야 한다고 본다.

제현의 질정(叱正)을 기다린다.

참고자료

○ 선조실록, 선조수정실록
○ 국조인물고
○ 대동지지
○ 도로고
○ 사가정시집
○ 노상추일기
○ 전주이씨 선성군 가보
○《고려사》〈 종실열전 〉
○〈대전회통〉
○〈경국대전〉
○ 김창협의 〈동유기〉
○ 김천령의 〈명행기(名行記)〉
○ 의정부시정 40년사
○ 의정부시사
○ 양주군지
○ 민족문화백과대사전

여 백

다락원(樓院) 이야기

최 영 희 (의정부문화원 향토문화연구소장)

목 차

Ⅰ. 들어가며
Ⅱ. 다락원(樓院)을 거쳐가는 멀고 먼 관북 행로
1. 누원점의 등장과 발달
2. 또 하나의 원(院), 장수원
Ⅲ. 조선후기 물산 유통의 중심지
1. 조선의 자유 시장 누원점
1) 누원점의 번영
2) 누원점의 취급 물품과 상업 행위
2. 장시(場市)
1) 시장 - 서민들의 스트레스 해소장
(1) 오락 · 유희의 장(場)
(2) 양주별산대 놀이
2) 누원점의 시장 개설을 억제한 이유
(1) 사상들의 어물 매점매석으로 폐단이 심한 누원점
(2) 어물시장을 실업상태에 빠지게 한 다락원
3. 누원점(다락원)터의 모습
1) 한경록과 의혜공주 묘역 [의정부시 향토유적 제14호]
2) 카추사 양성부대 캠프잭슨 [Camp Jacson,]
Ⅳ. 기록으로 남겨진 다락원(누원점)
1. 정유재란(丁酉再亂) 이후 많은 향화인들이 거주
2. 누원 관련 기록
Ⅴ. 끝맺으며
※ 참고문헌

집필자
최 영 희 의정부문화원 향토문화연구소장

Ⅰ. 들어가며

〈표지석〉

다락원은 누원(樓院)을 우리말로 풀어 쓴 것으로, 다락[樓]으로 된 원집[院宇]이 있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누원의 설치시기에 대해서는 정확한 기록이 없다. 그러나 누원은 서울 동북부의 교통 요지로서 상업이 번성한 곳이었다. 조선후기에는 특히 함경도와 경기도 북부로 이어지는 도로의 분기점에 위치하고 있어 서울로 유입되는 어물(魚物)을 이 지역의 상인들이 독점하였고 큰 규모의 장시(場市)가 형성되어 있었다.

대체로 조선 전기에는 정부가 시전상가를 배치하고 판매상품에 따라 업종별로 구획을 설정하여 영업을 허가해 주고, 그 대가로 시전(市廛) 상인들에게 상업세로서 시역(市役)을 부과하면서 시전체계를 유지하였다. 또한 시전 중에서도 특정 시전을 육의전(六矣廛)으로 편성하여 국가의 중요한 재정수요를 해결하였다. 동시에 종래 시전 중심의 유통체계에 난전세력이 새로이 성장하게 되자, 정부는 시전의 상권을 보호하고 또 상업에서의 이윤을 흡수하기 위해 시전체계의 정비에 주력하기 시작하였다. 나아가 비시전 상인의 활동이 두드러지자 이들 난전으로부터 시전 상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시역 부담을 매개로 법적인 금난전권(禁亂廛權)을 부여하였다. 그러나 조선 후기로 내려와 생산력이 증대되고 유통경제가 발전하면서 시전의 종류도 증가하고 시전 상업이 더욱 발달하게 되었다. 당시에는 아직 시전의 종류도 많지 않고 난전의 활동도 그렇게 활발하지 않았으므로, 시전 구성에 대한 재정비나 정부와 시전 사이에서의 마찰도 별로 없었다. 따라서 조선시대 시전(市廛)은 도성민의 생활용품을 판매하고 정부가 필요로 하는 물품을 공급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상업조직이었다. 그러나 예전 역사의 현장은 사라졌어도 그 연유를 품은 지명은 아직 살아있다. 조선시대 한양에 인접한 다락원(누원점)은 현재 도봉산역 환승 주차장 인근에 다락원터 표지석으로 남아 있다.

다락원(누원점)은 상누원(上樓院)과 하누원(下樓院)으로 번창하였는데 상누원은 지금의 서울시 도봉구 도봉동이고, 하누원은 의정부시 호원동이다. 예전 조선시대 누원점은 모두 양주권역이었다. 필자는 이름뿐인 다락원지역의 예전 번성했던 시기를 살펴보고, 오늘날 남아있는 흔적과 변모한 이 지역을 의정부지역 위주로 유추해 보고자 한다.

II. 다락원을 거쳐가는 멀고 먼 관북 행로

조선시대에는 서울을 중심으로 각 지역으로 향하는 주요 도로가 있었다. 또한 각 도로는 대·중·소의 등급을 정하였고, 주요 거점에는 역(驛)을 두었다.

원(院)은 주로 역과 역 사이에 배치되는 경우가 많았으며 공용여행에 숙박시설로 이용하기 위해 설치하였다. 조선 개창 후 태조 즉위년 개국공신 조준(趙浚)과 배극렴(裵克廉)의 상소를 통해 원을 설치하기 시작하였다. 공무출장과 수령에게는 숙식이 무상으로 제공되었으나 연회 등은 금지되었다. 기본적으로는 공용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시설이었으나, 상인이나 민간 여행자들도 숙박시설로 이용할 수 있었다. 다락원은 서울에서 함경도와 경기 북부지역으로 이어지는 주요 도로의 분기점에 위치하고 있어 이 지역을 왕래하는 관원 및 상인 등에게 편의를 제공하려는 목적으로 설치되었다.

양주 다락원(누원점)은 이들 도로 가운데 한성부 인근의 길목에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상업 중심지로 성장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고 있었다. 더욱이 사신들의 행차 시에도 숙박은 서화랑(西花浪)·녹양(綠楊)·양주읍참(楊州邑站)에서 하면서도 항상 점심만은 누원점에서 먹고 있는 사실로 볼 때, 양주 누원점은 물산의 집산처이면서 다양한 먹거리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한성부 밖의 첫 출발점인 누원점에서 각종 물산과 사람은 각처로 흩어져 나갔고, 또 관동지역에서 출발한 각종 산물이 한성부로 들어가기 바로 전의 집하장이었던 곳이다. 점촌이 형성되면서, 누원점은 한양과 함경도 방면을 오가는 행인들이 반드시 거쳐 가는 곳으로 알려지게 되었다. 원래 함경도를 오가는 사람들은 대체로 관리나 군인 등 변방 방어를 위해 공무로 파견되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러나 조선 후기에는 상품경제의 발달과 함께 점차 상인들의 왕래가 늘어나기 시작하였다. 특히 함경도 지방의 특산물인 어물·마포(麻布)·약재 등의 수요가 많아지면서, 이를 거래하는 상인들이 주로 누원점을 이용하였다.

1. 다락원(누원점)의 등장과 발달

조선시대에 함경도 원산에서 강원도 철원을 거쳐 포천 송우리와 다락원을 통해 서울로 가는 상품 교역길이 번창하였다. 그런데 서울의 관문인 이곳에 누원점이라는 상점이 생기게 되면서 다락원이라고 불리게 되었다. 이곳 다락원에는 함경도와 강원도 북부의 물품이 집하되어 서울로 반입되면서 중간 상인들의 거점이 되었다. 또한 원산에서 서울로 들어오는 건어물을 사재기해 두었다가 서울 상인들에게 비싼 값으로 팔거나 상품을 공급하지 않아 서울 상인들로부터 고발을 당하기

〈 도봉산역 인근 다락원 터 표지석 〉

도 하였다. 누원점은 상누원(上樓院)과 하누원(下樓院)으로 번창하였는데 상누원은 지금의 서울시 도봉구 도봉동이고, 하누원은 의정부시 호원동 지역이다. 조선시대 누원점은 모두 양주권역이었다. 도봉산 기슭에 형성된 누원점은 동북지방 물자의 중간 집하장으로서, 서울의 상권을 흔들어 놓기도 하였다. 누원점을 무대로 활동하던 상인들은 동북 지방에서 서울로 들어오는 북어 등 각종 상품을 쌓아 놓고 난매(亂賣)하였다. 특히 돈 많은 부상대고(富商大賈)들은 북상(北商)과 결탁하여 누원점에 물품을 대량으로 쌓아 놓고 도산매하였다. 누원점은 특히 함경도 경흥(慶興)에서부터 강원도 철원과 포천 송우리를 거쳐 축석령을 넘어 서울로 들어오기 전에 거쳐야 할 물자 유통의 관문이었다. 조선시대 한양의 동북 방면 관문 지대에 위치했던 누원점은 조선후기 상업경제의 발전과 더불어 유통경제의 중심지로 성장하였다. 특히 성저십리(城底十里) 외곽에 위치하여 금난전권(禁難廛權)의 적용을 받지 않았던 까닭에, 누원점의 상인들은 시전 상인들의 간섭과 방해를 받지 않고 비교적 자유롭게 상업을 영위할 수 있었다. 누원점은 주로 함경도 지역에서 생산되는 어물(魚物)과 삼베 등을 주요 취급 품목으로 삼았으며, 누원점의 상인들은 한양으로 공급되는 이들 품목에 대한 도고행위(都賈行爲)를 통해 성장해 나갔다. 금난전권이 폐지되고 누원점에 장시가 형성되기 시작한 18세기 후반부터 19세기에 이르기까지 누원점은 한양 동북부 유통경제의 중심지로서 번영을 누렸다. 또한 이 지역은 도성에서 비교적 멀리 떨어져 있어 시전상인들의 영향권에서 벗어날 수 있어서 사상인들의 자유로운 상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었다. 사상인들은 처

음에는 자신들의 근거지를 칠패, 이현, 용산 등지로 삼았는데 점차 그 영역을 누원을 비롯해 송파 등 서울 근교에 위치한 교통의 요충지로 확대해 나갔다.

조선후기에는 동북지방에서 생산되는 북어의 수요가 크게 증대되었는데 함경도 원산에서 수합된 북어는 철령을 넘어 한양 쪽으로 오다가 누원에 이르게 된다. 이 때문에 사상인들이 누원으로 몰려들어 북어 등을 매점해 한양으로 반입하여 차익을 챙기고 있었다. 누원의 사상인들은 한양 근교의 미아리 삼거리에 이르고, 여기에서 돈암동이나 종암동 두 갈래로 나뉘어 도성으로 들어갔다. 그들은 한양 시전상인들의 간섭을 피하기 위하여 동대문의 이현 상인들과 접촉하거나 뚝섬, 송파 상인과 연결하기도 하고 한강을 경유하여 용산으로 가기도 했다. 또한 누원은 함경도와 포천 지역에서 한양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의 마지막 쉼터로 물품의 거래 동향과 가격 등을 점검하기도 했다. 따라서 다락원의 설치는 이 지역이 이미 교통의 요지이었음을 보여 주는 것이라 하겠다. 교통상의 요지에 힘입어 인근에는 큰 장시가 형성되었음을 통해 당시 다락원(누원) 지역의 상업적 번성을 짐작할 수 있다. 하지만, 누원이라는 표현은 조선 중기 『선조실록(宣祖實錄)』의 기록 이후에 본격적으로 등장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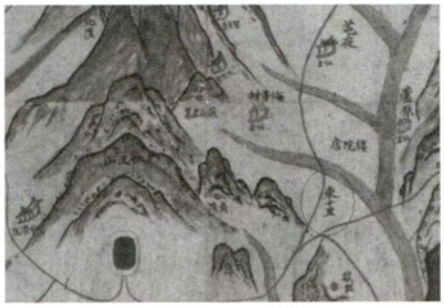
1596년(선조 29) 3월 을해조에는 "광주는 광진(廣津)으로 옮기고 양주는 누원으로 옮겨 경성(京城)을 호위하는 것이 매우 편리하며 유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종조가 기전(畿甸)에 큰 읍을 포치한 것이 역시 이러한 연유에서입니다" 라는 비변사의 건의가 기록되어 있다. 이는 다락원(누원)이 서울 인근 지역에서 매우 중요한 곳에 입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1728년(영조 4) 3월 경오조에는 "양주 목사 유척기(兪拓基)에게 진어사(鎭禦使)를 겸하게 해 본 주의 군사를 거느리고 누원에 진을 치게 하였다" 라는 기록이 보여 다락원(누원)의 입지가 서울 방어의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곳이었음을 드러낸다.

1728년 4월 임오조에는 "서로(西路)의 검암점(黔巖店)과 동로(東路)의 누원점(樓院店)은 모두 별장(別將)이 있으니, 이제 마땅히 기포(譏捕)가 보통이 아닐 것이오며"라 하여 누원점에 별장이 배치되어 있으므로 형찰(詗察)이 매우 엄격할 것임을 말한 기사가 있다. 당시 누원점이 상업적으로 번성하고 있었고 그에 따라 별장이 배치될 정도로 중요한 곳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1792년(정조 16) 9월과 이후 일련의 기사에서는 광릉(光陵)을 참배하러 가는 정조가 누원을 경유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당시 이 지역의 교통로가 규모가 크고 중요한 곳이었음을 나타낸다. 그뿐만 아니라 『1872년 지방지도』「양주 지도」에는 서울에서 이어지는 도로가 붉은색 선으로 그려져 있고, 해등촌면과 함께 누원점을 표시하고 있다.

조선시대에는 함경도 원산에서 산출되는 해산물들이 한양으로 가기 위해서는 강원도 철원을 거쳐 포천 송우리와 양주 다락원을 통해야 했다. 따라서 서울로 가는 상품교역의 거점으로 번창했

다. 다락원이라고 불리게 된 것은 이곳에 누원점(樓院店)이라는 상점이 생기면서 부터다. 누원점이 상업 근거지로 발전하게 된 것은 조선후기부터 시작된 산업구조의 급격한 변화와 연관이 있다. 관에서 허가를 받은 상인인 '시전'이 민간의 상업수요를 수용하지 못해 허가없이 장사하는 '난전'에게 점차 상권이 넘어가게 됨에 따라 시전이 난전을 압박하게 됨으로써 난전은 새롭게 서울 주변의 송파, 이현, 칠패 등 교통요지에 근거지를 만들게 되는데 다락원이 그 하나였다. 정조 때 시전의 독점판매권을 인정하는 '금난전권'이 철폐되면서 다락원에는 대규모 상설시장이 형성된다.



〈1872년 양주지도 중 세부도〉 (인터넷)

〈1872년 지방지도 중 양주지도 - 서울대규장각 인터넷 홈페이지〉

2. 또 하나의 원(院), 장수원

누원점, 즉 다락원에서 북쪽으로 4km 정도 떨어진 곳에 장수원(長水院)이 있었다. 이곳도 조선시대에 국가가 설치한 원(院)이다.

원(院)은 조선시대 수령, 공용 여행 중인 관원, 기타 일반민의 여행 등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요 도로상에 설치된 일종의 숙박 시설이다. 일반적으로 원은 별도의 특별한 재정수입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고 국가로부터 지급된 토지를 기반으로 운영되었기 때문에, 자립적으로 운영되기에는 어려움이 적지 않았다. 그러므로 조선후기에는 원의 기능은 유명무실해지고, 원이 위치했던 곳들 중 교통상의 요지에는 점(店)이 설치되었다.

점(店)은 공적인 기관도 아니고 국가의 명령과 지시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도 아니었다. 해당 지역을 지나는 여행객들의 수요에 부응하고자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것이었다. 따라서 조선후기 상업이 발달하면서 상인들의 왕래가 늘어나자, 전국 곳곳에 세워져 운영되기 시작하였다.

원(院)은 함경도로 파견되던 관원, 군인, 역졸,등 공무(公務)로 여행하던 사람들이 묵어가던 곳이었다. 의정대신(議政大臣)들이 태조(太祖)와 정무를 논하기 위해 지금의 의정부까지 오는 길에 이곳에서 쉬어 갔다고도 한다.[1] 하지만 조선 후기에는 민간인의 여행이 활발해진 탓에 다락원을 거쳐 원산, 함흥으로 가는 상인이나 서울로 가는 동북 지방 사람들이 이곳에서 쉬어 가면서 주막거리가 형성되었다. 누원점이 동북 지방과 한양을 연계하는 물산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하면서 불과 4km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은 장수원에도 사람들의 왕래가 많았다. 동북 지방의 특산물, 즉 어물, 마포, 약재 등의 수요가 많으니 이를 거래하는 상인들이 동북로를 분주히 오갔을 것이다. 당시 주막의 개설은 자유로웠다. 그리하여 한 곳에 여러 개의 주막이 생겨나 점촌이 만들어졌다. 주막의 크기도 커갔다. 주막은 잠자리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곳간을 만들어 물건을 맡아주기도 하고 마구간에서 소, 말이나 당나귀 등에 여물을 주기도 하였다.[2] 서울에서 의정부 접경에 있는 다락원을 지나 의정부시와 철원군을 잇는 국도 3호선 평화로를 따라 북쪽으로 오르면 좌측에는 원도봉산이 우측에는 수락산이 펼쳐져 있다.

장수원은 원도봉산 기슭에 자리하고 있는데 그 동쪽, 수락산 기슭에 동막골이란 마을이 있다. 포천방면에서는 옛날에 주로 이 길을 이용하여 서울로 드나들었다고 하는데 당시 이곳에 주막이 있었다고 한다. 도봉산 기슭의 구바위소(沼)는 회룡사계곡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구바위에 부딪혀 형성되었던 소(沼)로 명주 한 필이 다 들어갈 정도로 깊었으나, 일제시대에 일본인들이 물의 흐름

1) 김영복, 『신정증보 의정부지리지』, 성심출판사, 2004, 84쪽.
2) 최완기, 「조선후기 누원점의 경제적 입지」, 『한국사학보』 7. 1999. 175~176.

을 외미 갱개(更改)로 바꾸어 놓아서 현재는 남아 있지 않다. 장수원이라는 지명은 이 물길이 하류의 삼형제소(三兄弟沼)까지 흐른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이곳에서 솟는 약수를 마시면 장수한다고 하여 원 이름이 장수원이라고 불리게 되었다는 설도 있다. 이를 뒷받침이라도 하듯이 인근에는 약사여래를 모신 약수선원이라는 아담한 사찰이 위치해 있다.

호원동에 속하는 장수원 북쪽 도봉산 기슭에는 범골이라는 마을이 있다. 이 범골이라는 지명의 유래에 대해서도 다양한 설이 있다. 옛날 이 동네에 범씨가 많이 살았다고 하여 범골이라 불렀는데, 한자로 잘못 표기하여 '호동(虎洞)'이 되었다고 한다. 그런가하면 이 마을 뒷산에 동굴이 하나 있는데 범이 많았다 하여 동굴 이름을 범굴이라 하였고, 동네 이름마저도 범굴에서 범골로 변음 되었다고도 한다.[3] 장수원에 대해서는 조선의 3대 도적으로 꼽히는 양주 출신 임꺽정(林巨正, ?~1562)과 관련한 기록이 『명종실록(明宗實錄)』에 남아 있다.

포도대장 김순고(金舜皐)가 아뢰기를,

"풍문으로 들으니 황해도의 흉악한 도적 임꺽정의 일당인 서임이란 자가 이름을 엄가이(嚴加伊)로 바꾸고 숭례문 밖에 와서 산다고 하므로 가만히 엿보다가 잡아서 범한 짓에 대하여 추문하였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지난 9월 5일에 우리가 장수원(長水院)에 모여서 궁시(弓矢)와 부근(斧斤, 도끼)을 가지고 밤을 틈타 성안에 들어가 전옥서(典獄署)의 옥문을 부수고 우리 두목 임꺽정의 처를 꺼내가려고 하였다. [전날 장통방(長通坊)에서 엄습하여 잡으려 할 때 임꺽정은 달아나고 그의 처와 3인만 잡았다.] 그 처를 꺼낸 다음 오간수구(五間水口)를 부수고 도성을 빠져나가려고 하는데, …… 어떻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아뢴 대로 하고, 선전관 정수익(鄭受益)에게도 아울러 말을 주어 급히 보내라."하였다.[4] 기록상으로 볼 때 16세기 중반에 장수원은 도성(한양)에 들고 나는 사람들이 묵어가는 거처였음을 알 수 있다. 다락원과 마찬가지로 현재 장수원의 흔적은 찾아보기 힘들다. 국철 1호선 경원선(京元線) 망월사역과 신한대학교 주변 어디쯤으로 추정을 하고 있을 뿐이다. 장수원에 있었던 주막거리도 현재는 남아 있지 않다. 윗다락원이 있던 도봉산역의 다음 역이 망월사역이니 옛 원을 따라 오늘날의 전철역도 설치되어 있는 셈이다. 일반적으로 원은 별도의 특별한 재정 수입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고 국가로부터 지급된 토지를 기반으로 운영되었기 때문에, 자립적으로 운영되기에는 어려움이 적지 않았다. 그러므로 조선 후기에는 원의 기능은 유명무실해지고, 원이 위치했던 곳들 중 교통상의 요지에는 점(店)이 설치되었다. 점은 공적인 기관도 아니고 국가의 명령과 지시에 의해서 만

3) 김영복, 『신정증보 의정부 지리지』, 성심출판사, 2004, 82쪽.
4) 『명종실록』 권26, 명종15년 11월 24일 병술. 『의정부시사』에서 인용.

들어진 것도 아니었다. 해당 지역을 지나는 여행객들의 수요에 부응하고자 자연 발생적으로 형성된 것이었다. 따라서 조선 후기 상업이 발달하면서 상인들의 왕래가 늘어나자, 전국 곳곳에 세워져 운영되기 시작하였던 것이다.

Ⅲ. 조선후기 물산 유통의 중심지

1. 조선의 자유 시장 누원점

조선시대 한양의 동북방면 관문 지대에 위치했던 누원점은 조선후기 상업경제의 발전과 더불어 유통경제의 중심지로 성장하였다. 특히 성저십리(城底十里) 외곽에 위치하여 금난전권(禁難廛權)의 적용을 받지 않았던 까닭에, 누원점의 상인들은 시전상인들의 간섭과 방해를 받지 않고 비교적 자유롭게 상업을 영위할 수 있었다. 누원점은 주로 함경도 지역에서 생산되는 어물(魚物)과 삼베 등을 주요 취급 품목으로 삼았으며, 누원점의 상인들은 한양으로 공급되는 이들 품목에 대한 도고행위(都賈行爲)를 통해 성장해 나갔다. 금난전권이 폐지되고 누원점에 장시가 형성되기 시작한 18세기 후반부터 19세기에 이르기까지 누원점은 한양 동북부 유통 경제의 중심지로서 번영을 누렸다. '점(店)'은 주막이라고도 칭할 수 있으며, 주점(酒店), 여점(旅店), 점막(店幕) 등으로도 불렸다. 주막은 조선시대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되던 전문적 숙박업소로서, 여행객에게 음식과 잠자리도 제공하였다. 그러므로 누원점은 다락원이 있던 자리에 세워진 주점 및 그 배후 점촌을 의미하였다. 즉 원으로서 기능하던 다락원이 조선중기 어느 때부터 그 기능이 점차 위축되고 상실되면서, 그 역할을 주점이 대체한 것이었다. 누원점 역시 그러한 시대적, 사회적 상황 속에서 형성된 것이었다.

한양과 함경도 방면을 연결하는 교통의 요지에 설치된 누원점은 조선후기 유통 경제의 발전과 함께 이 지역을 지나는 통행 인구가 늘어나면서 점차 그 규모가 확장되어 나갔다. 주막은 상인 등 여행객들에게 잠자리를 제공하고 창고를 만들어 그들의 물건을 맡아주기도 하고, 마구간을 설치하여 그들이 동반한 소 · 말 · 당나귀 등에게 먹이를 주기도 하였다. 교통의 요지에 위치한 만큼, 누원점의 규모가 점차 확대되어 그 남쪽에도 주막촌이 생겼으며 윗다락원, 즉 상누원리(上樓院里)가 형성되기도 하였다.

1) 누원점의 성장과 번영

조선시대 한양의 동북방면 관문지대에 위치했던 누원점은 한양으로 오는 곡식과 옷감 등을 나르는 길목으로 한양과 가까운 거리에 있어 물건을 사고팔거나 상인들과 연결이 쉬어 상인들의 활동중심 지역이었다. 따라서 조선 후기 상업경제의 발전과 더불어 유통경제의 중심지로 성장하였다. 조선후기 누원점이 한양과 함경도를 잇는 유통 거점으로서 성장할 수 있었던 주요인은 그 위치가 금난전권이 미치지 않는 한양의 성저십리 밖에 있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조선후기 유통경제의 활성화로 인해 시전 상인들은 자신들의 우월적 지위가 영향을 받자, 정부와의 유착 관계를 통해 민간 상인들을 규제하고 자신들의 특권을 유지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물이 바로 금난전권의 성립이었다. 금난전권은 법제적으로 사상(私商), 즉 민간 상인들의 활동을 규제하고 한양 도성 내의 시전 상인들에게 독점 판매권을 부여한 상업 특권이었다. 금난전권의 실시로 인해 사상들은 그 활동과 성장이 제약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민간 상인들은 금난전권이 적용되지 않는 한양 밖으로 거점을 옮겨서 활동하게 되었다. 대체로 한양의 동북 방면 성저십리는 수유현(水踰峴)과 우이천(牛耳川)의 범위까지 설정되었다. 누원점은 수유현과 우이천으로부터 약 4㎞[10여 리] 가량 북쪽으로 더 떨어진 곳에 위치하였다. 따라서 누원점은 도성 안 시전 상인들의 독점권인 금난전권이 행사되지 못하는 지점에 위치했기 때문에, 많은 민간 상인들이 모여들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었다. 누원점에 상인들이 모이기 시작한 것은 17~18세기에 이르러서였다. 누원점이 번성하자, 누원점을 거점으로 활동하는 상인들은 장시(場市)를 개설하여 그들의 기반을 더욱 확고히 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누원점이 한양과 가까웠던 까닭에 시장 잠식을 우려한 시전 상인들의 반대로 장시의 설립은 쉽게 허가를 받지 못하였다. 하지만 18세기 후반 경에 장시가 개설되었고, 이때부터 누원점은 본격적인 상업 중심지로서의 입지를 다지게 되었다. 누원점 이외에도 서울 근교에는 송파 장시의 상업적 규모가 확대되고 있었으며, 누원점의 북쪽에 위치한 포천의 송우점 역시 사상들의 상업 활동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였다. 이와 함께 누원점과 송우점, 그리고 송파 등 한양 주위에 위치한 몇몇 장시들을 연결하는 사상도고의 조직망이 형성되었다. 따라서 그들이 주도하는 상업유통은 더욱 강화되고 있었다.

조선후기 시전 상인의 특권적 상업 활동에 대항해 누원점 등이 독자적인 상업 중심지로 발돋움할 수 있었던 주된 요인은 민간 상인들이 독자적인 상권을 확보하기 위해 생산지에서 한양으로 반입되는 상품을 매점하는 도고 행위를 전개한 것이었다. 누원점 등 민간 상인들의 도고 행위에 대해 엄격히 규제하는 것이 당시 조정의 원칙이었으나, 민간 상인들은 해당 관리들과의 결탁 등의 방법을 통해 도고 행위를 지속할 수 있었다. 누원점의 번성으로 피해를 입게 된 시전 상인들 중 어

물전 상인(魚物廛商人)과 포전(布廛) 상인들이 누원점 상인들에 대한 조정의 압박과 규제를 유도하였다. 누원점이 동북 지역의 어물과 마포(麻布) 유통을 독점하여 어물전과 포전 상인들이 물건의 확보가 어려워 영업에 많은 애로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18세기 중반 이래, 누원점 상인의 활동이 활발해지고 누원점에 장시가 번성하는 등 누원점의 상업적 중요성이 높아지자, 시전 상인들은 금난전권을 누원점까지 확장시키고자 하였다. 그러나 누원점이 한양의 성저십리 외부에 해당하는 양주의 영역이었으므로 그러한 시도는 성공하지 못하였다. 1741년(영조 17) 비변사(備邊司)에서도 성저십리 지역 밖에서의 금난전권의 행사를 불허하였다. 1781년(정조 5)에는 누원점의 상인이 동북 지역의 어물을 매점한 까닭에, 어물전의 영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한양의 어물 값이 상승했다는 어물전 상인들의 불만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1788년(정조 12)에도 누원점 상인들의 도고 행위로 인해 동북 지역의 물품을 구입할 수 없어 영업을 할 수 없게 되었다는 포전과 어물전의 탄원이 확인된다.

그러나 영조의 뒤를 이은 정조도 1792년(정조 16)에 광릉을 참배하고 돌아오던 중에 누원점에 들러 주민들의 생활을 살펴보고 그들을 격려하는 등 누원점의 상업 행위를 보장하였다. 결국 18세기 말 통공정책의 시행으로 시전 상인들의 독점적 지위가 사라지자, 사상도고가 이후 19세기 조선의 전국적 상업 활동을 주도하게 되었다. 누원점의 상인들은 그러한 시대적 흐름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존재들이었다.

2) 누원점의 취급 물품과 상업 행위

누원점의 상인들은 누원점이 한양과 함경도를 연결하는 교통요지라는 지리적 이점을 이용해, 함경도 지방에서 한양으로 들어오는 물품들을 독점적으로 매집하여 판매하는 도고행위를 행하였다. 함경도 지방에서 한양으로 들어오는 물품 중 대표적인 것으로는 명태 · 청어 · 대구 등의 어물과 북포(北布)라고 불렸던 마포(麻布), 즉 삼베를 들 수 있다. 함경도의 대표적인 어물이었던 명태는 조선 후기에 이르러 전국적으로 수요가 급증했다. 누원점은 명태와 청어 등 함경도 지방에서 주로 잡히는 어물을 취급하는 곳으로 유명하였다. 조선 후기에는 어물의 생산량이 크게 늘어났을 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보존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이 발전하였다. 함경도 지방에서는 명태를 건조하여 북어로 만들거나 청어, 대구, 문어, 오징어 등을 말려서 상품화하였다. 또한 대구, 명태, 청어의 알이나 멸치 등을 항아리에 담아 발효시킨 것을 상품으로 개발해 유통시키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어물의 유통은 누원점의 번성을 이끌었던 주요한 동력이었다. 북어 등의 어물과 더불어 이른바 북포라고 불렸던 삼베 역시 누원점의 주요한 도고 대상 물품이었다. 삼베는 여름철

옷감이나 상복(喪服) 및 수의(壽衣)로도 많은 수요가 있었고 교역의 수단, 즉 화폐의 용도로도 사용되는 중요한 물품이었다. 함경도의 북포는 섬세하고 품질이 좋기로 유명하여 전국의 마포 중 가장 선호되는 제품이었다. 따라서 누원점의 상인들이 한양으로 들어오는 함경도의 삼베 유통을 장악하고자 한 것이었다. 누원점의 상인들은 어물이나 마포를 대규모로 매점매석하는 도고 행위를 통해 이윤을 극대화하였다. 관권과 결탁하여 경제적 이윤을 추구했던 시전 상인과는 달리, 누원점 상인과 같은 사상도고는 교통의 요지에 거점을 두고 독자적인 자본력과 정보망, 그리고 유통조직 등을 활용하여 상업행위를 확장하였다. 특히 누원점의 경우, 금난전권의 적용 범위 밖이면서도 한양과 가까워 한양의 사상도고인 칠패나 이현 일대의 상인들과 용이하게 연결되었다. 또한 한강을 통해 전국적인 유통망을 가지고 있는 경강상인(京江商人)과도 유대관계를 맺고 있었다.

2. 장시(場市)

조선 초기 농업 기술향상으로, 일부 농민들이 먹고 남은 농산물을 팔기 위해 한양부근에 모여들기 시작한 것이 그 시작이다. 처음에는 한양부근에만 있었으나, 점차 지방으로 확산되어 조선 후기 순조 때에는 전국에 약 1,600여 개가 성행했다. 이들 장시는 보통 5일마다 열렸는데, 일정한 상인 집단이 5개 고을을 정해 차례대로 하루씩 이동하며 시장을 열었다. 이러한 장시를 5일장이라 부르는데, 보통 그 간격은 30리-40리 정도였다. 조선 말기에 이르러 상업과 농업이 더욱 발달하자, 마침내 매일 열리는 상설시장이 발생하였다.

조선후기에 들어와 활성화되기 시작한 각 지방의 정기시장을 장시, 또는 장이라고 부른다. 『만기요람(萬機要覽)』 각전조(各廛條)에 "행상이 모여서 교역하고는 물러가는 것을 장(場)이라고 이른다."라고 개념을 규정하고 있다. 지방을 떠돌며 상업에 종사하는 장꾼은 이미 백제가요 「정읍사」에 나타나는 것처럼 오래 전부터 존재하였지만 현재와 같은 의미의 장시는 15세기에 전라도에 출현하기 시작하여 이후 전국 1,000여 곳으로 확대되었다. 장시는 보통 5일장으로 열려 지역의 주민들이 각자 생산한 상품을 교역하기도 하였으나 주로 행상인 보부상이 장을 순회하며 각지의 물산을 공급하였고, 거래 감독관인 감고(監考), 상품 중개업자인 중도아(中都兒) 등의 장시 종사자와 함께 여각(旅閣)을 중심으로 도매, 위탁 판매, 창고업, 금융업, 중개업 등의 전문적인 경영형태도 출현하였다. 누원이 위치한 곳은 원격지 사이의 한양과 함경도 등지를 연결해주는 요충지였다. 누원은 본래 서울 외곽의 한적한 원촌(院村)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나 조선후기 상품화폐경제가 발달하면서 이 당시 최대의 소비지인 서울로 각 지방의 물화가 공급되면서 크게 번창한 곳이다.

1) 시장 - 민중들의 스트레스 해소장

(1) 오락 · 유희의 장

조선시대에는 특히 향시가 발달하였다. 조선 초 서울에서는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성안 이곳저곳에 매일 장 형식의 노상시장이 생겨났다. 이것이 점차 증가하자 상품 종류별로 거래구역이 지정되었는데, 예를 들면 지금의 관철동과 장교 일대인 장통방(長通房)에 큰 시장이 설치되었고 그 밖에도 문전마다 조그만 시장이 형성되었다. 조선시대의 향시로는 처음에는 6~7일 간격으로 서는 정기시가 많았으나, 이후 점차 5일 간격으로 줄어 1일 행정(行程), 즉 하루 왕복거리인 30~40리마다 교통 요충지에 장이 들어서게 되었다. 이러한 향시, 즉 지방의 장시는 15세기 말부터 삼남지방에서 생겨나기 시작하였다. 기록상으로는 1470년(성종 1년)에 심한 흉년이 들어 전라도의 농민들이 이를 극복하기 위해 이듬해부터 가지고 있는 물건들을 서로 들고 나와 장을 열었는데 이것을 장문이라고 불렀다고 하는 것이 처음이다. 중종 때에 이르러 장시는 지방마다 상당한 발전을 이루었다. 그러나 중앙 정부는 계속해서 이를 억제하는 정책을 썼고 이로 인해 전국적인 유통망이 형성되는 단계에까지는 이르지 못하였다.

조선후기 시장은 물화교역의 장소로서 뿐만 아니라 유흥장이나 놀이마당화 하고 있다. 그리고 이로 인해 시장의 폐단이 지적되고 있다. 그것은 시장설립 초기 단계에 폐단으로 지적된 것처럼, 일반백성들이 농사에 힘쓰지 않고 상업에 종사하여 사사로운 이익을 꾀하므로 간사해져 정부시책에도 어긋난다는 것이다. 시장을 개설하여 교역케 하는 것은 실로 민생과 대단히 긴밀한 것이므로, 마땅히 철저하게 규찰하여 폐단을 모조리 없애면 이후 원근에서 모두 들어와 거래하기를 원할 것이므로 반드시 일에 막힘이 없을 것이다. 이와 같은 지배층들의 인식변화는 시장이 일반 서민들이 자생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잡아가고 있음을 파악한 바탕 위에서 가능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시간적으로 장이 서는 개시일과 공간적으로 백성들이 집산하는 장터는 이제 물화교역뿐만 아니라, 서민들의 유흥 · 오락장소로도 기능하게 되었다. 무뢰배들이나 상인 또는 서민들에 의해 시장에서 판이 벌어지는 투전 또는 골패 등의 잡기는 지배층의 입장에서 보면 폐단으로 간주될 것이지만, 일반 서민들의 입장에서는 일종의 놀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시장은 민중들의 놀이의 장, 화합의 장으로 기능하고 있다. 투전 · 골패 등과 같은 놀이나 지역의 한바탕 유희장이 마련되는 것, 풍물패들에 의한 연희 등은 모두 장날을 통해 이루어졌다.

(2) 양주별산대 놀이

별산대(別山臺)는 본산대(本山臺)와 구별하여 붙인 명칭이다. 17세기 말 궁정의 공연문화가 쇠

퇴하자 전문 놀이패가 한양의 시정을 중심으로 민간 공연문화를 발흥시켰다. 녹번, 애오개[阿峴], 노량진, 사직골의 본산대놀이가 그것이다. 이 지역은 상업이 융성했던 곳이다. 당시 양주에서는 사직골 놀이패를 초청하여 놀이판을 벌이고는 하였는데, 그들이 지방공연 일정으로 약속을 어기는 일이 잦아지자, 18세기 무렵 양주골의 신명이 많은 사람들과 이을축이 서울의 사직골 딱딱이패들에게 배워 양주에 정착시킨 것이라 한다. 그가 가면을 제작하고 공연을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별산대라고 불렀다고 하며, 지역의 이름을 붙여 양주별산대놀이라 부르게 되었다.

본산대(本山臺)가 전해지지 않는 오늘날, 양주별산대놀이는 경기지방의 대표적 탈놀이로 전승되고 있으며, 1964년에 중요무형문화재 제2호로 지정되었다. 이 놀이는 사월초파일과 단오, 그리고 추석에 주로 연희되고, 크고 작은 명절 외에도 가뭄 때의 기우제(祈雨祭) 행사로 연희되었다한다. 본산대놀이 계통 가면극은 상업이 발달했던 곳에서 공연된 것들이 많다. 본산대놀이 중 가장 유명한 애오개산대놀이의 전승지인 애오개는 서울 3대 시장의 하나인 칠패시장과 인접하고 있으면서, 현방(懸房, 조선 후기 서울 근교의 독점적 푸줏간)이 있던 곳이다. 노량진에도 본산대놀이가 있었다고 하는데, 노량진은 경강(京江) 지역의 나루였다. 별산대놀이의 전승지인 양주와 송파는 18세기경 금난전권을 가진 서울의 시전상인에 대항하는 사상도고가 서울로 들어가는 물자를 장악하면서 상설 시장을 벌였던 곳이다. 양주에서는 일제강점기에도 난장을 텄을 때 낮에는 줄타기를, 밤에는 별산대놀이를 공연했다고 한다. 별산대놀이의 놀이꾼은 원래 관아의 잡역에 종사하던 하층민이었다. 그래서 반주음악을 위해 관아의 악사청에 소속되었던 악사들의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산대놀이나 해서탈춤은 삼현육각 즉 피리 · 젓대 · 해금 · 장구 · 북 등의 악기로 반주하며, 음악도 전문적인 악사들만이 연주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탈놀이꾼과 악사가 분리되어 있다.

다락원 지역은 조선후기 양주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양주별산대놀이는 이 지역의 놀이 문화라고도 할 수 있다. 지금 다락원터에는 표지석만 휑하니 남아있지만 그 시절 한창 장시가 열릴 때는 장터에 모인사람들 상대로 별산대놀이가 신나게 행해졌을 것이다. 양주별산대놀이는 서울의 본산대놀이를 계승한 가면극으로서 그 유래가 분명하고, 일찍이 1920년대에 학자들의 관심을 끌어 대본도 채록되어 있다. 또한 1929년 조선박람회 당시 연행에 사용되었던 가면들이 현재 서울대학교 박물관에 소장되어 당시 상황을 비교적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본산대놀이 계통 가면극 연구에 있어 양주별산대놀이는 매우 중요하고 핵심적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양주별산대놀이의 춤은 우아하고 섬세한 중부지방의 무용적 전통을 전형적으로 계승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춤사위가 분화되었고 종류도 다양하다.

2) 누원점의 시장 개설을 억제한 이유

조선은 초기부터 국역(國役)을 부담하는 육의전(六矣廛)과 시전상인에게 그 보상으로 상품을 독점 판매할 수 있는 특권을 부여하고, 이 규정을 어기고 마음대로 상행위를 하면 난전이라 하여 금지시켰다. 18세기 전반까지 서울에 나타난 난전은 수공업자나 영세소상인에 의한 난전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18세기 후반에 이르면 사상도고(私商都賈)에 의한 난전이 가장 두드러져 기존의 시전체제를 위협하는 형태로 되었다. 난전의 주체는 주로 서울의 권세가와 그들의 가복(家僕), 각 관아의 저리(邸吏), 호위청(扈衛廳) 산하의 군병(軍兵)과 각 영문의 수공업자, 서울과 개성의 부상(富商)·도고(都賈=독점도매업)나 중도아(中都兒=도매상인) 등이었다. 조선 정부에서는 서울 시전(市廛) 상인들에게 국가 재정의 일부를 책임지게 하고 그 대가로 각종 특혜를 부여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상권을 보호해야 했으며 이를 위한 방편의 하나로 주변 상업요충지에 장시가 개설되지 못하도록 규제하였다. 『비변사등록』을 보면 정조 6년인 1782년 8월 7일 기사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온다.

> 「양주의 누원점막은 어막(魚幕)으로서 어상(魚商)이 왕래하는 요충지인데, 서울 어물전으로 들어올 물건을 이 곳 점막 놈들이 모두 쓸어 모아 건방(乾房)이라 칭하고 서울 쪽에서는 중도아와 연결하고, 밖으로는 송파장과 동업하여 분송(分送)함으로써 통화의 유통로를 이루고 있다.」

영조22년(1746) 각전(各廛) 기사에 의하면,

> 「조선후기에 칠패, 이현 상인들이 지방산물이 한양으로 들어오는 길목인 양주 다락원(樓院)에 일종의 지점을 차려 놓고 건어물과 곡물을 매점매석하므로 육의전 상인들이 상품 구입에 곤혹을 치렀다.」

또 정조5년(1781)에 한양상인들이 고발한 내용을 살펴보면,

> 「동북면에서 들어오는 건어물을 양주 다락원에 사는 모리배들이 매점해 두었다가, 칠패와 이현의 난전상인들에게 서서히 공급하며, 게다가 수시로 값을 올려 팔므로 장안 어물값이 폭등할 뿐 아니라, 어물전이 실업상태에 빠졌다」

라고 그 당시의 심각상을 알리고 있다. 이와 같이 누원점은 주로 동북지방에서 올라오는 어물을 독점하여 판매함으로써 시전 가운데 내·외어물전을 실업하게 할 정도로 사상인의 활동이 활발했다. 그리고 삼남 지역에서 생산되는 면포 등 의류와 동북지방의 어물, 마포 등의 교환이 활발하게 전개되면서 누원의 상품량도 증가하게 되었다. 따라서 시장이 개설될 경우 시전상인들의 상리가 줄어들 것을 걱정하여 18세기 초에 시장개설이 무산되고 18세기 중엽에도 꾸준히 반발이 계속되었다.

「누원점민이 장시를 신설하고자 했던 것은 오래 된 일이다. 대저 누원점촌은 동북 어상이 서울로 들어오는 길목에 위치하여 따로 건방이라는 명호를 새로 만들고 각자 상인들이 주인과 객상의 관계를 정하여 양로의 어물을 매점하여 서울 시전의 이익을 횡탈하여 송파로 수송할 뿐만 아니라 혹은 호중으로 나누어 보낸다. 그러므로 도성의 매매가 때로는 중간에 단절되고 값은 점차 올라 시전의 생리가 전혀 의지할 바가 없게 되었고 생업은 더욱 쇠잔케하는 작간이 많고 그로 인한 폐단이 심해졌다. (중략) 지금은 방자하게 거리낌없이 임금을 번거롭게 하면 다시 개설한다는 글자까지 썼으니 더욱 간교한 것이다. 자고로 누원장이라는 명칭은 없었으므로 다시 개설한다고 하는 것은 가죽에 터럭이 있을 수 없는 것과 거의 마찬가지로 기만하는 말이나 참으로 놀라운 일이다.」

누원점과 같은 곳에 시장 개설을 억제한 이유는 대체로 국역의 의무를 담당하는 경시전을 보호하려는 차원이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원점의 활동은 계속 이어졌다. 누원이 상원(上院)과 하원(下院), 또는 상계와 하계로 구성되어 있던 것도 점막의 번성을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누원에 관한 많은 기사들은 이 곳 주민들이 겪어온 좌절의 역사를 보여준다. 이들은 이보다 전인 1714년에 장시를 설치하려다 시전 시민들의 반대로 실패한 적이 있고, 1770년에도 장시를 개설하였으나 시전 상업에 타격을 준다는 이유로 5년 만에 강제 폐지되었다. 1784년의 장시 복설 청원도 정부의 허락을 얻어내지 못했던 것이다.

(1) 사상들의 어물 매점매석으로 폐단이 심한 누원점

누원점을 중심으로 활동하던 사상인들은 주로 동북지방에서 올라오는 어물을 매점해 이를 어물전에 넘기지 않고 직접 행상인들에게 판매함으로써 많은 이익을 남기고 있었다. 그래서 수시로 값을 올려 팔아 서울 시내의 어물값이 오를 뿐만 아니라 어물전이 흩어져 파시(罷市)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 상인들은 어물 등을 매점해 놓고 이를 건방(乾方)이라고 했다. 그리고 중도아 및 송파의 상인들과도 연계하여 끊임없이 물건을 주고받으며 물가를 조종하여 어물전 사람들의 생업을 위협했다. 더욱이 전에 없던 장을 개설하여 중간에서 이익을 독점하려 하자 경기감영에 분부해 이를 엄히 금단시키도록 조칙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한성부와 경기감영, 평시서 등에서 누

원점 상인들의 난전 도고활동을 단속했지만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누원점은 18세기 말 인근에 동촌여점(東村旅店)이 생기면서 상호간에 상권을 둘러싸고 분쟁이 발생했다. 그것은 누원점 상인들이 대개 동북어상들에게 연세나 어물을 받아 생활을 영위해왔는데 동촌여점에 신접인(新接人)을 모아들인 이후에는 비변사에서 정해준 대로 연가(煙價)를 나눠 받아 각자 생업을 이어가고 있었다. 그런데 동촌여점 사람들은 조정에서 특별히 배려하여 동북어상들에게 연세를 받도록 해주었는데도 이에 만족하지 않고 오히려 누원과 홍인문, 혜화문에서 어상들을 기다려 자신들의 집으로 몰아넣고 어물을 염가로 매입하는 등 도고행위를 자행했다. 이로 인해 이곳을 왕래하는 동북지방의 어상이 날로 줄어들어 이곳 어상들의 생활을 곤궁하게 할 뿐만 아니라 서울의 반찬물가도 따라서 오르게 하므로 양주에서 절목을 제정해 이러한 폐잔을 없애고자 했다. 이러한 가운데 누원민과 동촌여점인 사이에 어물을 도고하는 일로 서로 간에 소송이 있게 되었다. 그리고 서울의 포전과 내 어물전의 상인들은 양주의 누원점을 근거지로 하여 활동하는 상인들이 북관에서 생산되는 어물과 포를 근기 100리 내에서 도고하는 폐단이 있으므로 일절 금단해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누원점 상인들이 동북지방에서 오는 물건을 매점하여 마음대로 팔고 있고 부상들이 처벌을 두려워하지 않고 북쪽 상인들과 체결하여 장시와 점막을 마음대로 도고하여 서울로 올라오는 물건이 거의 없어지게 될 정도였다. 이에 따라 이후로는 북관에서 올라오는 상품을 중간에서 억류하거나 다른 곳으로 보내지 못하게 하여 포목과 어물이 서울로 와서 매매하게 했다. 그리고 양주의 누원점과 궁동에 옛날 습성을 고치지 않고 전처럼 억류하는 폐단이 있으면 접주(接主)를 잡아들이고 두민(頭民)을 처벌한다는 전령(傳令)을 큰길거리에 게시하였다. 누원의 상인들은 송파 등지의 상인들과 자금을 합자하기도 하고 정보를 교환하기도 하면서 대규모로 매점활동을 전개해 나갔다.

(2) 어물시장을 실업상태에 빠지게 한 다락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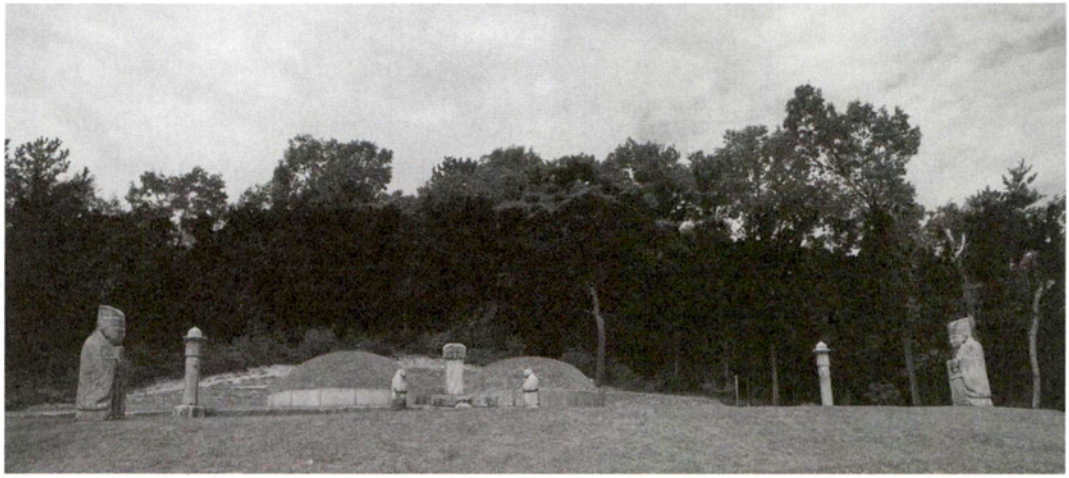
도봉산 기슭에 위치한 다락원은 서울과 가까우면서도 북쪽지방에서 서울로 오는 어물과 옷감 등이 지나는 길목이어서 일찍 부터 이곳에 근거를 둔 상인들이 장시를 만들려고 노력하였으나 시전 상인들의 반대로 실패한 일이 있었다. 1781년(정조5)에는 동북지방에서 서울로 들어오는 각종 어물을 다락원에 있는 중개인들이 매점하였다가 서서히 칠패, 배오개 근처의 민간 상인들에게 보냈다. 이들이 수시로 값을 올려 팔아 서울 장안의 어물 값이 오르고 이 때문에 어물시전이 실업상태에 빠진다고 하였다.

3. 오늘날 다락원(누원점) 지역의 모습

전철 1호선 도봉산역 인근 호원동 다락원 버스정류장에서 바라본 8차선 도로의 중간에는 소나무가 심어져 경계를 이루고 있다. 이 지역이 번성했던 조선후기에는 겨우 2차선 정도의 길이 나 있었을 것이고, 안쪽으로 넓은 도봉산 끝자락에는 시끌벅적한 장터였을 터인데, 지금은 이름뿐인 다락원 지역의 모습이 넓은 8차선 도로라니 여러 가지 생각에 착잡한 마음이다. 현재는 전철1호선 도봉산역과 전철 7호선 도봉산역이 교차하는 곳이라 환승주차장과 등산객이 많은 탓에 국도3호선 평화로가 왕복8차선으로 길게 이어져 있다. 인근 다락원 버스정류장에서 작은 다리건너 캠프 잭슨 부대 담벼락을 따라 도봉산자락으로 오르다보면 YMCA 다락원 캠프장 입구가 보인다. 도봉산 둘레길 표지판도 여기 저기 눈에 띠어서 길안내를 해준다. 둘레길 안내 표지판을 따라가다 보면, 도봉산 자락 중턱 골짜기에는 공주묘골로 부르는 곳이 있는데, 조선 중종의 둘째 딸 의혜공주(懿惠公主)와 그 남편인 한경록의 무덤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1) 한경록과 의혜공주 묘역

이곳은 조선 13대 임금 명종의 여동생인 의혜공주(懿惠公主,1521~1564)와 청원위에 봉해진 한경록(韓景祿,1520~1593)의 쌍분(雙墳)이 있는 묘역이다. 예전의 다락원이나 누원점의 흔적이 거의 남아있지 않은 상황에서 한경록(1520~1589)의 신도비가 그 단서를 주고 있다. 청주 한씨 양절공파(襄節公派) 족보를 보면 무덤 위치를 누원에서 서북쪽으로 수리(數里) 떨어진 곳이라고 적고 있으니 누원은 곧 신도비가 서있는 곳에서부터 남쪽으로 형성된 마을일 것이다. 이곳에는 도성에



〈 한경록, 의혜공주 묘역 (의정부 향토유적 제4호) 〉

서 쫓겨 나온 의혜공주가 다락원에 사는 부지런한 숯장사 한경록과 결혼한 재미있는 전설이 전해오고 있다. 한경록(韓景祿)이 12세, 의혜공주가 11세 되던 1531년(중종 26)에 결혼하여 3남을 두었는데, 의혜공주는 1564년(명종 19) 44세로 별세하였다. 부군인 한경록은 오위도총부 부총관으로서 1593년(선조 26) 74세로 임진왜란 중에 전사하였다고 구전되고 있다.

480여 년 전인 조선후기에는 가부장적인 가족주의를 상징으로 하는 엄격한 유교사회로서 여성이 권리를 주장하기보다 희생을 강요당하던 시절이다. 특히 개인은 소외시 되던 제도 하에서 살아야만 했으나, 의혜공주는 당당히 독립자영(獨立自營)의 사상을 굽히지 않고 나아가 자기변혁과 자기계발이라는 명제를 강력하게 주창함과 동시에 공주라는 신분을 타파한 여성이다. 여기서 의혜공주와 한경록이 결혼하게 된 흥미로운 이야기를 소개한다. 나라 일에 걱정이 많은 제11대 임금 중종은 평소 가족들과 오붓하게 지내는 시간조차도 갖지 못했다. 어느 날 11명의 따님(공주, 옹주)들과 한가롭게 얘기를 나눈다.

"너희들은 누구 덕으로 궁중에서 이렇게 호의호식하고 지내는지 차례대로 말해 보도록 하여라."

부드러운 표정의 중종에 물음에 다른 공주들은 모두 부왕의 덕이라고 대답했으나, 의혜공주만은 어째서 아버지의 덕이냐고 반박한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덕으로 살아가는 것이 온데, 오늘날 궁중생활이 편안하다고 해서 이를 어찌 아바마마의 덕이라고 할 수 있사옵니까? 말씀드리기 황공하오나 한 때의 영화는 물거품과 같은 것이라고 들었사옵니다."

의혜공주의 말을 들은 중종은 괘씸한 생각이 들어서 이튿날 새벽 동대문이 열릴 때 제일 먼저 들어오는 자에게 시집보내도록 명을 내렸다.

한편, 양주 다락원에서 살고 있는 한경록은 숯을 구워 한양에 내다파는 순박한 숯장수였다. 그는 타고난 성품이 워낙 부지런하고 성실하여 파루종[5]이 울리면서 동대문이 열리면 늘 첫 번째로 장안에 들어갔다. 그래서 한경록은 평소 부지런한 탓에 임금의 사위가 되었던 것이다. 고집 센 의혜공주는 부왕의 노여움을 샀기 때문에 숯장수에게 시집가서 가난하게 살았지만, 한 번도 부왕이나 남편을 원망해 본 일이 없었다. 이것이 모두 팔자려니 생각하고 오로지 남편에 대한 공경과 뒷바라지를 열심히 하면서 알뜰히 살아갔다. 그러던 어느 날, 의혜공주는 남편이 일하는 숯가마 터에 올라간다. 구슬땀을 뻘뻘 흘리면서 일을 하고 있는 남편이 어딘지 모르게 믿음직스럽기만 했다. 남편은 어제 구워낸 참숯을 숯섬에 차곡차곡 담아 넣는다. 내일 새벽녘이면 한양에 내다 팔

5) 파루(罷漏)종 : 종루에 물시계와 함께 대종(大鐘)을 걸어놓고 밤 10시경에 종을 28번 쳐서 인정(人定)을 알리면 도성의 문이 닫히고 통행금지가 시작되며, 새벽 4시경인 오경삼점(五更三點)에 종을 33번 쳐서 파루를 알리면 도성의 8문이 열리고 통행금지가 해제되었다. 종을 33번 울리는 것은 제석천(帝釋天)이 이끄는 하늘의 33천(天)에 고하여 그 날 하루의 국태민안을 기원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물건이다. 이때 의혜공주는 소스라치게 놀라고 말았다. 숯가마의 이맛돌이 다듬이 돌만한 게 누런 황금덩이였기 때문이다.

"아니 여보! 이게 금덩이 아니에요?"

"그게 무슨 금덩이겠소. 몇 해 전 숯가마를 수리할 때 저쪽에서 가져온 돌인데, 그게 금이라면 누가 벌써 가지고 갔을 게 아니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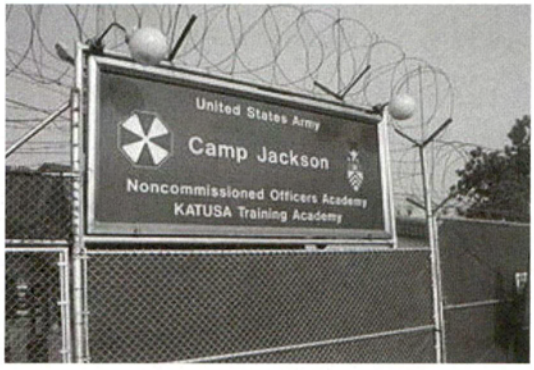
지금까지 남편은 이렇게 엄청나게 큰 금덩이를 한낱 예사롭게 여겨왔던 것이다. 그 뒤 두 부부가 황금을 팔아서 논밭을 마련하고 열심히 농사지어 큰 부자가 됐다는 전설이 지금도 전해오고 있다는 이야기이다. 이 전설은 의혜공주의 독립심과 그 남편의 근면성을 잘 나타내고 있다고 하겠다. 그런 연유로 『의정부지리지』 와 『KBS 영상북 애니멘터리-숯장수와 혼인한 공주』 에 등장하는 설화의 주인공들이다.

한편, 청원위 한경록은 문정왕후가 수렴청정할 때 대왕대비의 사위로서 또는 그 당시 최고 실력자인 윤원형의 조카사위로서 영화를 맘껏 누릴 수도 있었으나, 을사사화[6]의 충격을 받고 모든 것을 체념한 채 초야에 묻혀 살다가 선조26년(1593) 74세로 일기를 마쳤다.

그러나 실제 기록에는 한경록과 의혜공주를 다르게 묘사하였다. 『중종실록』 에 따르면 흉년이 들어 구황에 힘쓸 때임에도 불구하고 의혜공주의 저택을 수리하는 데 500여명의 군인이 동원되었다고 기록되어 있다.[7] 한경록과 의혜공주는 당시 조선왕족과는 조금 차이가 있던 인물로 보인다.

2) 카추사 양성소 캠프 잭슨 [Camp Jackson]

많은 사람들이 카투사의 존재를 알고 있지만, 정작 카투사의 정확한 이름을 잘 모른다. KATUSA는 'Korean Augmentation to the United States Army'의 약자로 미합중국 육군에 증원된 한국군 병력이라는 뜻을 담고 있다. 한미 연합군의 원활한 협동 군사작전을 위하여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인 이승만과 미합중국 정부 간의 구두 협약으로 창설된 군대이다.



〈 캠프 잭슨 부대 간판 〉 인터넷

6) 을사사화(乙巳士禍) : 을사사화는 기본적으로 왕위 계승을 둘러싼 갈등이었다. 거기에는 외척이 깊이 개입했다. 명종의 즉위(1545년) 직후 시작된 그 사화는 2년 뒤 정미(丁未)사화까지 지속된 장기적인 정치 투쟁이었다. 즉, 1545년(명종 즉위년) 왕실의 외척인 대윤과 소윤의 반목으로 일어나, 대윤이 소윤으로부터 받은 정치적인 탄압.

7) 『중종실록』 권67, 중종 25년 2월3일 계해.

미군과 동일한 환경에서 군 생활을 하기때문에 카투사를 미군으로 여기는 사람들도 있지만, 카투사는 엄연히 대한민국 육군이다. 그래서 복무 기간, 월급, 규율 등은 육군과 동일하다. 이런 카투사의 역할은 미군과 한국군 사이의 교량 역할이라고 할 수 있다. 카투사에 합격했다면, 여느 입대자들과 같이 깔끔하게 12mm로 머리를 밀고 훈련소에 들어가게 된다. 카투사는 엄연한 대한민국 육군 소속이다. 그렇기에 합격과 함께 2개월의 기초 군사훈련 중 5주를 충청남도 논산에 위치한 육군훈련소에서 먼저 받고 나머지 3주를 경기도 의정부에 위치한 캠프 잭슨 카투사 교육대에서 받게 된다. 5주간의 기초 군사 훈련은 일반 육군 입대자들과 동일하게 진행된다. 정규 전술훈련과 함께 훈련소의 끝인 30km 야간행군까지 마치면 이후엔 후반기 교육대인 KTA(KATUSA Training Academy), 일명 캠프 잭슨으로 이동한다. 이곳에서 나머지 3주 동안의 훈련이 시작된다. 참고로 캠프 잭슨 내 배급하는 햄버거는 맛있기로 유명해 '잭슨 버거'라는 별명이 붙었다. 한 번 맛을 본 사람은 그 맛을 잊지 못한다고 한다. KTA의 생활은 논산훈련소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는다. 이런 고난을 뒤로하고 훈련병들이 집중해야 할 시험에는 3가지가 있다. 바로 ALCPT, ELT, 그리고 PT 시험! 시험의 결과는 카투사 교육대 수료식 전날 있을 보직 선정 과정에 반영된다고 한다.[8]

IV. 기록으로 남겨진 다락원(누원점)

1. 정유재란 이후 많은 향화인(向化人)들이 거주

1) 1602년(선조 35)임인, 1월8일 신축조 기사

사헌부가 아뢰기를,

- 중 략 -

"근래 귀화해 온 호인(胡人)의 수효가 꽤 많은데, 그들을 서울 부근의 열읍에 모여 살게 하는 것은 좋지 않은 듯합니다. 이를테면 양주(楊州) 누원(樓院) 도로가에 거주하는 호인들은 자기네들끼리 한 마을을 이루어 살고 있고 다른 민가가 없으므로 길가는 사람들이 종종 이곳에서 유숙하곤 하는데 들어가는 자는 있어도 나오는 자가 없으며, 간혹 나오는 자가 있기는 해도 때때로 흩어져 나가 명화적(明火賊)이 되곤 하니 그 폐해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또 그의 족류(族類)라고 하는

8) 병무청 홈페이지, 군지원 모병 안내 카추사(http://www.mma.go.kr) 참조하였음.

호인들이 북쪽에서 나와 서로 찾곤 하는데 일로(一路)에서도 살펴 금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불어나게 되면 뒷날 근심거리가 반드시 없을 것이라고 보장하기 어렵습니다. 궁벽한 곳에다 분산 배치하여, 모여서 분란을 일으키는 폐단이 없게 하소서."

하니, 아뢴 대로 하라고 답하였다. 이와 같이 누원 인근에 모여 사는 향화인(向化人)[9]에 대한 기사가 나타난다.

2) 1603년(선조 36)계묘, 3월20일

또 아뢰었다.

"비변사에 계하한 사목(事目)에 의하면, 누원(樓院)의 향화호(向化胡)를 경기(京畿) 음죽(陰竹) 등지와 충청도 · 경상도 등에 알맞게 분송(分送)하여 그들로 하여금 편히 살게 하고 몇 년간의 식량을 헤아려 지급할 것으로 예조에서 거행하도록 윤허하셨습니다. 그런데 경상도에 분배(分配)한 향화호 첨지 이양추(李良秋), 첨지 이사량개(李沙良介), 첨지 이거봉개(李巨奉介) 등과 그 이하 60여 인들의 호소에 따라 경기에서 차사원(差使員)을 따로 정하여 강원도 원주(原州) 땅에 분배하여 내려 보냈습니다. 그런데 원주 목사 강대호(姜大虎)의 패보(牌報)에 '이양추 등 3인과 그 이하 60여 명의 매달 구료(口料)가 10여 석이고, 곡종(穀種)과 집을 지어 주는데 드는 자금 또한 넉넉지 않으며, 미면(米麪)의 비용과 공역(功役)의 규모가 커서 한 도(道)의 힘을 기울여도 마련해 조처하기가 어려운 형편이다. 대체로 본도(本道)의 형세는 산이 많고 들이 적어 원래 광활한 땅이 없는데 호인의 습관은 반드시 한 곳에 모여 살면서 농사지을 계책을 세우고 있다. …… 향화호를 안정시키려다 먼저 양민을 곤궁하게 하고 있으니 참으로 피아(彼我) 경중의 분수에 어긋나는 일이다.' 하였습니다. 당초 호인이 누원에 있을 때 경료(京料)를 군자감(軍資監)의 저축으로 나누어 주었었습니다. 원주에서 금년에 군자감에 상납할 미두(米豆)는 겨우 1백여 석인데 이것을 남겨 두었다가 호인의 구식으로 하는 것이 온편할 것 같습니다. 이 외에 달리 좋은 방책이 없습니다. 해조로 하여금 속히 조처하게 하소서."

이양추 등이 누원에 있을 때 본지(本地)의 호인과 통혼(通婚)한 것이 과연 홍여순(洪汝諄)의 계사(啓辭)와 같았다면 그들이 반드시 먼 경상도를 마다하고 가까운 강원도로 나아가려 한 것은 그

9) 향화인(向化人) : 야인(野人) · 왜인(倭人)으로서 투화(投化)해 온 사람. '향화(向化)'는 덕화(德化) · 교화(敎化)의 뜻으로 문명사회의 어진 정치를 기려 스스로 찾아와 귀화하는 것을 의미함. '투화(投化)'가 단순히 도망쳐 왔다는 의미가 있는데 비하여, '향화'는 완전한 귀화의 뜻이 내포되어 있음. 조선 시대의 경우 향화인들에게는 토지 · 저택 · 의복 및 과거 시험의 응시 자격이 주어졌으며, 특별한 사람에게는 관직도 제수했음. 그러나 그들에 대한 감찰도 꾸준히 이루어져 매달 예조(禮曹)에서는 명부(名簿)에 서명하게 하고, 관직이 있는 자는 반드시 소속처에서 근무하도록 했음. 또한 3년간의 조세와 10년간의 요역(徭役)을 면제하는 주는 등의 혜택을 베풀었음.

의도를 헤아리기 어렵다. 당국자(當國者)는 생각이 반드시 여기에 미쳤어야 한다. 또 향화호를 안정시키려다가 먼저 양민을 곤궁하게 한다는 말은 목전의 폐단을 절실하게 말한 것이니, 어떻게 하면 척연(惕然)히 두려워할 줄 안 곽흠(郭欽) 같은 사람을 얻어서 오늘날의 일을 논할 수 있겠는가.

2. 누원 관련 서적 기록

지금은 사라져 버린 마을, 한때는 사람들로 시끌벅쩍 했을 다락원을 상상하며, 이름만 남아있는 누원점의 기록들을 찾아 몇 단원 옮겨 적는다.

1) 1579년(선조 12)기묘, 9월 21일

학봉일고 제3권, 북정일록(北征日錄)

아침에 대궐에서 하직 인사를 하였다. 상께서 봉서(封書) 한 통을 내렸는데, 함흥(咸興)과 길주(吉州)의 원곡(元穀)을 번고(反庫)[10]하는 일이었다. 하사품은 이엄(耳掩)[11] 1벌이었다. 동대문(東大門)을 나서서 여러 벗이 전송하는 자리에 차례대로 들렀다가 저녁나절에 누원(樓院)에 도착하였다. 도봉서원(道峯書院)에서 자려고 하다가 해가 아직 지지 않았으므로 말을 달려서 양주(楊州)에 도착하니, 밤 1경이었다. 경기 경차관(京畿 敬差官) 정이주(鄭以周)가 먼저 고을에 들어와 있었으므로, 동상(東廂)에서 대작(對酌)하였다.

2) 1597년 (선조 30) 정유, 1월21일

- 중 략 -

고언백이 아뢰기를,

"신이 처음 양주 목사(楊州牧使)가 되었을 때 밤에 공격하기 위하여 3천 7백 명과 승군(僧軍) 4백 명을 모집했었는데 모두 역질로 죽고 남은 자는 단지 1백여 명인데 신이 이번에 점열(點閱)하여 거느리고 갈 것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지난번 왜적과 싸울 때에 왜적과 아군 어느 쪽이 나았는가?"

하니, 고언백이 아뢰기를,

---

10) 번고(反庫) : 창고에 있는 물품을 뒤적거려 가면서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11) 이엄(耳掩) : 관복을 입을 때 사모 밑에 쓰는 모피로 만든 방한구. 귀덮개를 말함.

"신은 작은 싸움을 40전(戰), 큰 싸움은 1백여 전을 하였는데, 아군은 훈련이 되지 않아 으레 겁을 먹고 도망하기 때문에 항상 이기지는 못하였습니다. 신이 임진년에는 매양 소수의 적을 상대로 기회를 틈타 전후를 쳤기 때문에 5백 명이나 되는 많은 적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이번에 거느린 군사는 모두 궁시(弓矢)를 가졌는가?"

하니, 고언백이 아뢰기를,

"대략 호시(弧矢)를 가지고 갑니다. 다만 지난 임진년 8월에 이 병력을 거느리고 20여 번을 싸웠으나 아직껏 상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사람들의 마음이 실망하여 허물을 저에게 돌리고 있으니, 감히 아뢰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경은 평소에 몇 곳의 변장(邊將)을 지냈는가?" 하니, 고언백이 아뢰기를,

"처음에는 북병사(北兵使)의 군관(軍官)이 되었고 또 평안 병사(平安兵使)의 군관이 되었으며 사신을 따라 북경(北京)에 8번을 갔었습니다. 그 후에는 청성 만호(靑城萬戶)를 거쳐 선공감 주부(繕工監主簿)로 전보되었습니다. 임진년에 척후장(斥候將)으로 신립(申砬)을 따라 경상도에 갔다가 달천(達川)에서 군사가 패하고 장수가 죽은 뒤에는 신이 외로운 군사 50명과 함께 양주(楊州)와 연천(漣川)사이를 출입하면서 장정을 불러 모으고 있을 때 왜구는 이미 경성에 들어왔습니다. 신은 남은 군사를 이끌고 누원(樓院)에 이르러 길에서 적을 만나 속희동(俗稀洞)까지 추격해 40명을 목베고 신 역시 6~7군데 창상을 입었습니다."

하자, 상이 이르기를,

"경이 남쪽에 내려가거든 다시 노력하여 후세에 이름을 남기라."

하였다. 고언백이 배사하고 나가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잠시 앉아 있으라."

하고, 소환(小宦)에게 명하여 술을 내렸다. 다 마시고 언백이 물러가기를 고하니, 상이 마장(馬粧) 1부를 내렸다.

3) 1641년(인조 19) 신사년, 7월 5일(기묘) 맑음 - 승정원일기

사헌부가 아뢰기를,

"북병사 이언척(李言惕)을 체차하고 그 후임을 잘 가려 차송하도록 명하소서. 지난번 양주(楊州)의 누원(樓院) 근처에서 대당이 도적질을 하고 인명을 살해하였는데 도성암(道成庵)에 잠시 거

주하던 유생 등이 우연이 도적 1명을 잡았습니다. 그러나 본주(本州)의 관청이 비어 있었기 때문에 포박하여 포도청으로 보냈는데 포도대장이라는 자는 청탁에 얽매어 이유 없이 풀어 주었습니다. 그리하여 살인한 대당으로 하여금 왕성(王城)의 지척인 도성에서 편안히 살게 하였으니, 그가 사정(私情)을 따르다가 도적을 놓아준 형상이 매우 놀랍습니다. 해당 포도대장을 파직하도록 명하소서. 놓아준 도적은 다시 체포하여 철저히 치죄하여 그 도당을 잡아들이도록 함으로써 나라의 형벌을 바르게 하소서. 새로 제수된 창원 부사(昌原府使) 변충범(邊忠範)은 사람이 어리석고 용렬하여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았는데 일찍이 수령이 되어서는 이르는 곳마다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였고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번번이 모두 낭패를 당했습니다. 백성들이 곤궁하고 재물이 바닥난 요즈음에 이런 사람을 다시 수령의 직임에 제수하여 영송(迎送)에 따른 폐단을 끼치게 해서는 안 되니, 체차하고 그 후임을 각별히 택하여 보내도록 명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아뢴 대로 하라. 포도대장은 추고하라. 이언척의 일은 이미 유시하였다."

4) 1728년 (영조 4)무신, 3월20일.

명하기를,

"좌윤(左尹) 장붕익(張鵬翼)을 진어 대장(鎭禦大將)으로 삼아 장단(長湍)의 군사를 거느리고 북한산성 아래에 주둔해 서쪽 근심을 막게 하라." 하였는데,

바로 이사성을 붙잡아 서쪽 변방에 급함이 없다 하여 다시 명하기를,

"수원(水原)으로 출진(出鎭)하라."

하였다. 양주 목사(楊州牧使) 유척기(兪拓基)에게 진어사(鎭禦使)를 겸하게 해 본 주의 군사를 거느리고 누원(樓院)에 진을 치게 하였다"라는 기록이 보여 누원의 입지가 서울 방어의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곳이었음을 드러낸다.

5) 1728년(영조 4)무신년, 3월23일.

경기 감사(京畿監司) 이정제(李廷濟)가 장계하여 말하기를,

"성상께서 민폐(民弊)를 진념(軫念)하사 진도(津渡)의 행려(行旅)를 모두 폐단 없이 통행케 하셨으니, 삼강(三江)의 상선(商船)·곡선(穀船)·어선(漁船)의 생리(生理)에 관계되는 것은 허락하여 왕래케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파수(把守)를 이미 정철(停徹)케 하였으며, 강 위에는 늙은 장교(將校) 중에서 전함(前銜)이 혹은 금려(禁旅)를 지내고 혹은 첨사(僉使)·만호(萬戶)를 지내서 나라에 충성을 다한 자가 많으니, 신의 생각으로는, 송파(松坡) 밑에서부터 공암(孔巖) 위에 이

르기까지는 병조(兵曹) 혹은 각 군문(軍門)에서 따로 수삼 십 인을 가려뽑아 배를 전관(專管)하여 일일이 선척을 기탐(譏探)하여 북쪽 물가에 옮겨 두어서 사사로이 건너는 일이 없게 하였다가 사변이 평정된 뒤에 정파(停罷)하는 것이 적당한 듯합니다. 지금의 이른바 주막(酒幕)은 곧 옛날의 관정(關亭)으로서, 적도(賊徒)가 밤에는 주막에서 자고 낮에는 장터에서 모이니, 착실하게 형찰(詗察)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서로(西路)의 검암점(黔巖店)과 동로(東路)의 누원점(樓院店)은 모두 별장(別將)이 있으니, 이제 마땅히 기포(譏捕)가 보통이 아닐 것이오며, 과천(果川)에서 소사(素沙)에 이르는 길, 판교(板橋)에서 죽산(竹山)에 이르는 길, 경안(慶安)에서 충주(忠州)에 이르는 길, 평구(平丘)에서 수원(水原)에 이르는 길은 신의 병영(兵營)에서 합당한 사람 각 한 사람씩을 가려 보내어 별장(別將)으로 이름하여 환모(還耗)로 요(料,=급료)를 주고 각고(各路)의 여러 점(店)을 관할케 하여, 수상하게 오가는 자를 수탐(搜探) 금지케 하여 혹은 본관(本官)에 고하도록 하고 혹은 영문에 고하도록 하면, 마땅함을 얻게 될 듯합니다. 각 영문, 각 고을의 파수 중에 혹 연줄을 타고 작폐(作弊)하는 자가 매우 많다고 하니, 모두 조사해 내어 군율(軍律)로 논죄하겠으며, 각 군문 각 진도(津渡) · 관량(關梁,=관소와 교량)의 파수(把守)하는 곳에도 약속을 더욱 엄하게 하겠습니다." 하였다. 이 기사는 당시 누원점이 상업적으로 번성하고 있었고 그에 따라 별장이 배치될 정도로 중요한 곳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6) 1775년(영조 51) 을미년 기사

처분 뒤에 있었던 본사(本司)의 관문 내용을 가지고 살피면 거듭 엄하게 칙교를 내리신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지금에 와서 특별히 정비하여 밝히지 않는다면 얼마 가지 않아서 장차 유명무실한 결과에 이를 것이다. 오늘 이전은 영을 내리기 전의 일에 붙여서, 이른바 누원에서 소동을 일으킨 백성들에 대해서는 우선 처분하지 않는다. 법을 벗어나는 명색은 바로 혁파하게 하고, 그 뒤 다시 법을 어기는 일이 있으면, 신칙하지 않은 감사와 두둔하여 비호한 지방관은 엄한 처벌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러한 내용의 엄중한 관문을 기영(畿營)에 알려 거행한 전말을 장계(狀啓)로 보고하게 하라. 비록 그들이 그들 입장에서 말한 것이더라도, 만일 참으로 들은 바가 있었다면 또한 어찌 굳이 전례를 고집하면서 살피고 붙잡아서 관(官)에 알리지 않았단 말인가. 그러나 그들 또한 백성이니, 어찌 이를 빙자하여 소란을 일으키는 단서가 되게끔 할 수 있겠는가. 이는 공시당상(貢市堂上)이 대신에게 품의(稟議)하여 참작하고 조절하여 획일적으로 제도를 정한 다음 그들에게 분부하고, 이어 또 해당 부(府)와 해당 관서에 공문을 보내어 이를 준용하게 하라."

7) 1782년(정조 6), 임인 8월 3일 기사

전배 후 궁문에 친림했을 때 궁의 속관(屬官)의 요포(料布)가 너무 야박하다는 것을 알고 매우 진념하고 불쌍히 여기는 뜻을 보였다. 궁 아래에 사는 백성들을 불러 만나서 생업을 경영하고 백성을 편안히 하는 도리를 하문하고, 이어 전교하였다.

" 본궁 방계(坊契)에 새로 들어온 백성은 반드시 별반의 도와주는 혜택을 주어 오래 안접할 수 있기를 기약해야 한다. 묘당은 함께 의논하여 아뢰라."

비변사가 새로 들어온 어물전(魚物廛) 백성이 고한 바, 양주 누원 점막(店幕)을 모두 독점하고 있는 '건방(乾房)'이라는 곳을 일체 혁파할 것으로 초기(草記)를 올렸다.[12] 전교하였다.

"윤허한다. 난전(亂廛)의 폐단은 시민(市民)들이 견디기 어려운 단서가 된다는 것을 조정에서 들은 뒤로 엄한 법으로 중하게 다스리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런데 누원 점막에서 독점하여 강제로 이익을 빼앗는 등 갖가지 범행을 저지르는 것으로 말하자면 또 더욱 불량한 무리들의 극히 무엄한 버릇이다. 이러한데도 예사롭게 처분한다면 나중의 폐해를 어찌 이루 다 말할 수 있겠는가. 하물며 본전을 설립한 것이 가장 오래되었고 응역(應役)이 번다하여 조정에서 돌봐 주는 것이 비단 다른 곳과 자별(自別)할 뿐만이 아닌 데야 더 말할 나위가 있겠는가. 이번에 백성들을 모아들인 뒤로는 특별히 든든하게 보존하는 정사를 시행한 뒤에야 생업을 가지고 안접하기를 기약할 수 있겠다. 게다가 근래 본전의 물종(物種)이 공사(公私)의 수용(需用)을 가릴 것 없이 점차 물건이 끊겨 없어지는 지경이 되어 간다고 하니, 참으로 작은 일이 아니다. 그런데 조정에서는 누원 점막에서 이미 어물(魚物)의 이익을 독차지하였는데도 도리어 농단(壟斷)하는 버릇을 열어 주고, 어물전 백성들의 고통에 대해서는 마치 월(越)나라 사람이 진(秦)나라 사람 여윈 것을 보듯이 모른 척하니, 그러고도 백성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1775년(영조 51) 을미년 처분 뒤에 있었던 본사(本司)의 관문 내용을 가지고 살피면 거듭 엄하게 칙교를 내리신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지금에 와서 특별히 정비하여 밝히지 않는다면 얼마 가지 않아서 장차 유명무실한 결과에 이를 것이다. 오늘 이전은 영을 내리기 전의 일에 붙여서, 이른바 누원에서 소동을 일으킨 백성들에 대해서는 우선 처분하지 않는다. 법을 벗어나는 명색은 바로 혁파하게 하고, 그 뒤 다시 법을 어기는 일이 있으면, 신칙하지 않은 감사와 두둔하여 비호한 지

12) 《승정원일기》 정조 6년 8월 7일 기사에 나온다. 비변사의 계사에 "새로 들어온 어물전(魚物廛)의 백성들을 불러 원하는 바를 물어보니 백성들이 '누원 점막은 바로 어상(魚商)들이 왕래하는 요지에 있는데 본전(本廛)에 들어오는 어물을 누원점 놈들이 한꺼번에 독점해 버립니다. 이를 '건방(乾房)'이라고 하는데 중도아(中都兒)들과 결탁하여 본전의 백성들로 하여금 국역(國役)에 응하여 생업을 유지하는 것을 할 수 없게 하니, 경기 감영에 분부하여 엄히 금하게 하소서.' 하였습니다." 하였다.

방관은 엄한 처벌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러한 내용의 엄중한 관문을 기영(畿營)에 알려 거행한 전말을 장계(狀啓)로 보고하게 하라. 비록 그들이 그들 입장에서 말한 것이더라도, 만일 참으로 들은 바가 있었다면 또한 어찌 굳이 전례를 고집하면서 살피고 붙잡아서 관(官)에 알리지 않았단 말인가. 그러나 그들 또한 백성이니, 어찌 이를 빙자하여 소란을 일으키는 단서가 되게끔 할 수 있겠는가. 이는 공시당상(貢市堂上)[13]이 대신에게 품의(稟議)하여 참작하고 조절하여 획일적으로 제도를 정한 다음 그들에게 분부하고, 이어 또 해당 부(府)와 해당 관서에 공문을 보내어 이를 준용하게 하라."

8) 1792년(정조 16) 임자년, 9월7일.

이때 선릉(先陵)을 참배하려 하였는데, 길이 토원(兎院)을 지나서 가면 시냇물이 많아 10여 곳에 대교(大橋)를 설치해야 했다. 상이 백성에게 폐단을 끼칠까 염려하여 길을 돌아서 누원(樓院) 외방(外方)으로 지나갈 것과 횃불을 세우는 일 및 호망(虎網) · 포장(布帳) 등의 일을 모두 제거할 것을 명하였다. 이때 이르러 또 대가(大駕)를 수행하는 모든 신하들에게 각자가 밥을 싸가지고 가되 두 그릇을 넘지 못하도록 명하였다. 전교하기를,

"이번에 행차하는 능침(陵寢)은 어떤 능침인가. 예전에 우리 광묘(光廟,=세조)께서 근교나 먼 길을 행차하실 때면 매양 엄히 신칙하여 수행하는 관원의 반구(飯具)를 간편하게 하도록 힘쓰셨다. 하루는 근교에 행차하시면서 반구를 적간(摘奸)하게 하였는데 좌승지 한 사람이 홀로 반구를 준비해 가지 않았으므로 그 자리에서 나포(拿捕)하여 죄를 다스리고 '나도 밥을 싸가지고 왔는데 저자가 어찌 감히 죄를 범하는 것인가.'라는 전교를 내리셨다. 그 사실이 실록에 실려 있는데 아, 훌륭한 일이다. 오늘날의 기강을 어찌 감히 옛날에 비교할 수 있겠는가마는 이번 행차에 만약 각별히 금단시킬 수 없다면 이것이 또 어찌 선대왕(先大王)의 병진년 전배(展拜) 때의 하교를 체득한 것이겠는가. 대신 이하 문무 종사관과 각영(各營)의 장신(將臣) 등은 감히 거역함이 없도록 하라."하였다.

9) 1792년(정조 16)임자, 9월10일.

광릉(光陵)으로 가기 위해 대가(大駕)가 홍인문(興仁門)을 출발하였다. 관왕묘(關王廟)에 들러 수직관(守直官)을 변장(邊將)으로 제수할 것을 명하였다. 날이 밝을 때 미아리(美阿里)에 이르러

13) 공시당상(貢市堂上) : 공계(貢契)와 시전(市廛)의 감독 사무를 맡아보는 당상관이다. 1752년(영조28)에 처음 비변사 소속으로 설치되었고 공시의 폐단을 바로잡는 데 주력하였다

말에서 내려 잠시 머물렀는데, 내국 제조(內局提調) 서유린(徐有隣)을 돌아보며 이르기를,

"경 또한 이곳 산천의 아름다움을 아는가. 동북쪽에 절벽이 서있는 곳이 만장봉(萬丈峰)인데 수려하고 깨끗한 기상과 천지가 개벽하기 전의 형세가 나는 듯 뛰는 듯 하니 매우 볼 만하다. 일찍이 풍수가(風水家)의 말을 들어보니 풍수가 아름다운 곳을 만나면 매양 기뻐서 춤을 추고 싶다고 하였는데 참으로 지나친 말이 아니다." 하고, 누원(樓院) 주정소(晝停所)에 이르러 야차제만장봉(野次題萬丈峰)이란 어제(御製) 오언사운시(五言四韻詩) 1편을 짓기를,

" 큰 용이 곧은 줄기 뽑으니, 그 형세 천리에 뻗쳐 있네.
칼 차고 달려와 대궐을 에워싼 듯, 홀 잡고 의연히 하늘을 향한 듯
만대의 굉장한 기업 이룩하고, 해마다 풍년드니 그 공적 드넓네.
지나는 길 글 읽는 소리 들리니, 이 골짜기 유독 아름다워 보이네."

하고는, 승지 서영보(徐榮輔)에게 명하여 수행하는 여러 신하들에게 써서 보이도록 하였다. 장수원(長水院)에 이르러 사관(史官)을 보내서 전 우의정 김종수(金鍾秀)의 안부를 묻고, 경기 관찰사 서정수(徐鼎修)와 양주목사 이민채(李敏采)에게 명하여 양주목 5리 앞에 미리 나와서 기고(旗鼓)를 거느리고 꿇어앉아 맞이하도록 하였다. 포시(脯時)에 양주목에 이르러 아헌(衙軒)에 거둥하여 활쏘기를 하였는데 두 차례 쏘아서 각각 한 발씩 명중하였다. 근신(近臣) · 장신(將臣) · 지방관 등에게도 명하여 각각 한 차례씩 쏘도록 하였다.

10) 1792년(정조 16)임자, 9월11일.

광릉(光陵)에 전배(展拜)하였다. 아침에 양주목을 출발해서 축석령(祝石嶺)에 이르러 말에서 내려앉아서 쉬었다. 이때 새벽비가 살짝 지나가고 아침 햇살이 깨끗하였는데, 사방의 산들이 수려함을 다투는 듯 영롱히 빛났다. 상이 승지 서영보에게 이르기를,

"이 축석령은 백두산(白頭山)의 정간룡(正幹龍)이요, 한양(漢陽)으로 들어서는 골짜기이다. 산의 기세가 여기에서 한 번 크게 머물렀다가 다시 일어나 도봉산(道峰山)이 되고 또 골짜기를 지나 다시 일어나 삼각산(三角山)이 되는데, 그 기복(起伏)이 봉황이 날아오르는 듯하고 용이 뛰어오르는 듯하여 온 정신이 모두 왕성(王城) 한 지역에 모여 있다. 산천은 사람의 외모와도 같은 것이어서 외모가 좋은 산천은 기색(氣色) 또한 좋다. 어제 오늘 지나온 산천은 모두가 좋은 기색이거니와 더구나 아침에 비가 개인 모습은 더욱 명랑하고 수려함을 깨닫게 한다. 예전 병진년 행행 때에도 마치 이번처럼 아침에 비가 내리다 금방 개였는데 이 또한 우연한 일이 아닐 것이다." 하였다.

능에 이르러 작헌례(酌獻禮)를 행한 다음 홍살문 밖으로 걸어 나와 좌의정 채제공에게 이르기를,

"본릉(本陵)의 형국(形局)은 옛 부터 매우 좋다고 칭해 왔었는데 문서로만 보다가 이번에 와서야 그 진면목을 보게 되었다. 누원 동쪽으로 무수한 산봉우리들이 차례차례 겹겹이 나타나 이곳으로 모여들고 있는데 웅장하고 깨끗한 기색을 말로 형용할 수 없다. 비로소 눈으로 보는 것이 귀로 듣는 것보다 크게 나은 것임을 알게 되었다." 하였다. 대가가 동구(洞口)에 이르러 선전관에게 명하여 봉선사(奉先寺)의 중을 위로하고 무휼하게 하였는데, 봉선사는 광묘(光廟)의 원당(願堂)이다. 포천 경계에 이르렀을 때 현감 오태첨(吳泰詹)이 부로(父老)들을 이끌고 공경히 맞이하니 상이 대가를 멈추고 위로하였다. 축석령으로 되돌아왔을 때 구경 나온 백성들이 산과 들을 가득 메웠다. 상이 백성의 고통에 대해 두루 묻자, 백성들이 '한 집에서 받는 조곡(糶穀)이 10여 석에 이르기도 하는데 모두 군포(軍布)로 바치고 남는 것이 없다.'고 말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감사와 수령이 있으니 조정에서는 그들을 신칙하여 너희들이 해롭고 지치는 일이 없게 하고 금년의 적모(糴耗)는 특별히 감면시켜 줄 것이다. 칙수(勅需)나 군향(軍餉)에 소용되는 곡식은 아무리 흉년이 든 해라 할지라도 원래 견감시켜 주는 규례가 없으나 이 또한 규례에 매이지 않고 모두 제거해 주도록 하겠다. 조관(朝官)과 사서인(士庶人) 중에서 70세 이상 된 자들은 자급을 올려 주고 유생(儒生)과 무사(武士)는 과장(科場)을 베풀어 선발할 것이다. 그리하여 위로는 선조(先朝)의 융성한 덕을 몸 받고 아래로는 백성의 소원을 위로해 줄 것이니, 너희들은 모름지기 이 뜻을 알도록 하라."하였다. 양주에 이르러서도 고을의 부로들을 불러 포천에서와 같이 면유(面諭)하고 저녁에는 양주목에서 묵었다.

11) 1792년 (정조 16)임자, 9월12일

대가(大駕)가 양주목을 떠나 길에 머물어 잠시 쉬면서 승지와 각신(閣臣)을 소견(召見)하고 칠언장률(七言長律)의 기구(起句)와 결구(結句)를 어제(御製)로 지은 다음 여러 신하들과 연구(聯句)하였다. 도봉서원(道峰書院)을 지날 때 승지를 보내서 제사를 올리고, 누원(樓院) 주정(晝停)에 이르러 촌점(村店)의 백성들을 불러 고통을 물어 본 다음 환궁하였다.

Ⅴ. 끝맺으며

17세기 이후 도시의 인구가 늘어나고 상업이 발전하면서, 서울의 경우 시전상가 외에 남대문 밖

의 칠패(七牌)와 동대문 근처의 이현(梨峴)등에 새로운 시장이 형성되고 거리마다 난전이 생겨 시전의 전매품을 매매하게 되었다. 또한 비교적 큰 자본을 가진 사상도고(私商都賈)가 서울 외곽의 송파, 동작진,누원점, 송우점 등에서, 삼남지방과 동북지방에서 올라온 상품을 매점하여 서울 성안의 난전상인에게 넘김으로써 난전활동을 활발하게 하였다. 그 사상도고들이 머물던 곳 중의 한 곳이 바로 이 지역 다락원이라 불리던 누원점 이었으나, 이제 역사의 현장은 사라졌어도 그 사연을 품은 지명은 아직 마을이름으로 살아있다. 의정부는 서울의 북쪽 위성도시이며 상업도시로 교통 · 군사상 중요한 위치에 있다. 지금의 호원동 다락원에는 조선후기 한양의 시전상인에게 영향을 끼치는 누원점이 있었고, 공설운동장이 있는 녹양동은 고려 때부터 조선 중기까지 녹양역(綠楊驛)이 있었고, 시내 중심가에는 조선 선조 때부터는 당시의 통신수단이었던 파발제도의 파발막이 있던 곳이다.

조선 후기에 함경도 원산에서 강원도 철원을 거쳐 포천에서 다락원을 통해 서울로 가는 상품 교역의 길이 번창하였는데, 서울로 들어서는 관문인 이곳에 누원점(樓院店)이라는 상점이 생기게 되면서 다락원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다락원은 서울에서 함경도와 경기 북부지역으로 이어지는 주요 도로의 분기점에 위치하고 있어 이 지역을 왕래하는 관원 및 상인 등에게 편의를 제공하려는 목적으로 설치되었다. 누원점이 상업 근거지로 발전하게 된 것은 조선후기부터 시작된 산업구조의 급격한 변화와 연관이 있다. 관에서 허가를 받은 상인인 '시전'이 민간의 상업수요를 수용하지 못해서 허가 없이 장사하는 '난전'에게 점차 상권이 넘어가게 됨에 따라 시전이 난전을 압박하게 되었다. 이로써 난전은 새롭게 서울 주변의 송파, 이현, 칠패 등 교통요지에 근거지를 만들게 되는데 다락원이 그 하나였다. 정조 때 시전의 독점판매권을 인정하는 '금난전권'이 철폐되면서 다락원에는 대규모 상설시장이 형성되면서 주변의 시장으로부터 쌀, 약재, 건과, 면포등과 원산 등 동북지역에서는 삼베와 북어 등이 집하되었다. 다락원에는 함경도와 강원도 북부의 산물들이 집하되어, 서울 한양으로 반입되면서 중간 상인들이 이곳에 모여들어서 거점이 되었다. 또한 원산으로부터 들어오는 동해안에서 잡은 명태 등 건어물을 사재기해 두었다가 서울 상인들에게 비싼 값으로 팔거나 상품의 공급을 가격에 맞게 조절하면서 공급하여 한양 상인들로부터 고발당하기도 하였다. 다락원(누원)은 상누원과 하누원으로 나누어서 번창하였는데, 상누원(上樓院)이 지금의 서울시 도봉구 도봉동 일대이고, 하누원(下樓院)이 의정부시 호원동 일대이다. 두 지역이 모두 조선시대에는 양주 지역이었다. 하지만 조선후기 한때 번성했던 누원점은 자취 없이 사라지고 현재는 도봉산역 환승주차장 인근에 '다락원 터'라는 표지석과 다락원 버스정류장 이름으로 그 위치만 알려주고 있다. 이것도 세상 순환 고리의 일부분이라 생각된다. 하지만 지명으로만 남게 된 다락원의 사연이 그냥 잊히기에는 안타까워서 후대인들에게 기록으로나마 전하고 싶은 심정으로 이렇게 글로써 남긴다.

참고문헌

김영복, 『신정증보 의정부 지리지』, 성심출판사, 2004.

박은숙, 『시장의 역사-교양으로 읽는 시장과 상인의 변천사』, 역사비평사, 2008.

박진태, 「조선 후기 근기 지역 장시의 발달과 누원(樓院) · 송우점(松隅店)」(『인문학 연구』 1, 대진 대학교 인문학 연구소, 2006.)

세종대학교박물관 · 의정부시 『의정부시의 역사와 문화유적』 2001.

의정부시, 의정부문화원 『시정40년사』 제4 · 5권, 2004.

의정부시, 『의정부지명유래』, 2007.

의정부시, 의정부문화원 『의정부시사』 6권, 2014년.

이도남, 「사상들의 어물 매점매석으로 폐단이 심한 누원점」 『상인과 상업 활동』 콘텐츠닷컴 홈페이지 (http://www.culturecontent.com)

이도남, 「누원점 상인」 디지털양주문화대전 홈페이지 (http://yangju.grandculture.net)

최완기, 「조선후기 누원점의 경제적 입지」, 『한국사학보』 7. 1999.

한국고전번역원, 「중종실록」, 「명종실록」, 「선조실록」, 「인조실록」, 「영조실록」, 「정조실록」 『조선왕조실록』, 한국고전DB.

규장각 한국학 연구원 (http://e-kyujanggak.snu.ac.kr)
『1872년 지방지도』 「양주 지도」

양주별산대놀이보존회 홈페이지(http://www.sandae.com)

병무청 홈페이지, 군지원 모병 안내 카추사(http://www.mma.go.kr)

도시화에 따른 용인지역 민속의 변화와 과제

김 장 환 (용인문화원 사무국장)

목 차

Ⅰ. 들어가는 말
Ⅱ. 용인의 도시화 현황
Ⅲ. 문화변동과 민속놀이의 변화
1. 일제의 민속놀이 탄압
2. 근대화 과정에서의 민속문화 말살
Ⅳ. 문헌에 기록된 주요 민속놀이
Ⅴ. 동부지역의 민속놀이 (농촌형)
Ⅵ. 서부지역의 민속놀이 (도심형)
Ⅶ. 민속놀이의 전승 유형 분석
Ⅷ. 결론-지역 민속의 전승 과제

집필자
김 장 환 용인문화원 사무국장

Ⅰ. 들어가는 말

과거에 있었던 모든 문화가 전통은 아니다. 전통은 역사상의 지속과 변화를 거치면서 축적되어 온 문화유산이며, 이는 오늘을 풍요롭고 윤택하게 하며 미래를 추진시킬 수 있는 근원적인 힘을 지닌다. 이러한 전통이 지닌 원동력의 한 부면은 과거 및 현재에 있어서 용인 시민의 공동체적 삶의 원리와 실천으로서 기능했던 민속에서 찾을 수 있다. 민속에는 용인의 전통문화가 풍부히 용해되어 있기 때문이다.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지만 용인은 각개의 마을들이 음력 10월 상달과 정월, 단오와 칠석 등이면 마을마다 공동체 의례나 놀이를 벌임으로써 공동체적 응집력과 정신적인 일체감을 유지하며 마을이라는 공동체를 운영해 왔다. 마을 단위로 모셔졌던 산제(山祭), 동제(洞祭), 당제(堂祭)를 비롯하여 고목제(古木祭), 정제(井祭) 등의 마을 의례가 있는가 하면 마을 단위로 이루어지는 줄다리기, 거북놀이, 두레싸움, 답교놀이, 달맞이나 동해놀이 등 다양한 형태의 공동체 놀이를 지니고 있었다.

하지만 오늘날 용인의 민속은 도시화 · 산업화가 야기한 문화변동으로 인하여 변화와 쇠퇴를 거듭해 왔고, 많은 지역에서 그 존재여부조차 확인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말았다. 그런가 하면 일부 지역에서는 사라졌던 마을 제의나 민속놀이가 다시금 부활되기도 하고 새로운 형태의 도심형 민속축제가 생성되기도 하는 등 소멸과 부활이 중첩되는 과도기적 상황에 놓여 있기도 하다.

즉 급격한 문화변동 속에서도 마을신앙과 제의, 그리고 여러 공동체 놀이와 행사들은 쇠퇴, 소멸의 과정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일부는 과거와 현재의 절충 속에서 새로운 문화로 대체되기도 하고, 다른 일부는 전통이 새롭게 창출되어 쇠퇴하고 있거나 소멸되었던 문화가 다시 부활하는 경우도 있는 것이다.

물론 근본적으로는 전통적인 민속문화가 쇠퇴와 소멸의 과정이 진행되고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변화를 특징으로 하는 문화의 속성상 이러한 현상 역시 중요한 문화과정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문화과정에서 일어나는 각 부분들 간의 상호작용의 결과로 어떤 문화는 더 이상 전승되지 못한 채 소멸되고, 혹은 새로운 문화가 환경에 맞게 생성되어 대체되기도 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인은 용인의 민속문화를 단순히 소멸과 단절이라는 제한된 시각에 머무르지 않고 오히려 새로운 문화형태로 변화하는 일련의 과정으로 보고, 급격한 도시화 과정을 겪으면서 지역에 전승되거나 창의적으로 복원되고 있는 민속놀이의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Ⅱ. 용인의 도시화 현황

전통적으로 용인시는 한반도 남부를 관통하는 영남대로상에 위치한 곳으로 흔히 서울로 통하는 길목이라 인식되어 왔다. 지금도 유일하게 경부고속도로와 영동고속도로가 교차하는 교통의 중심지이고 제2경부고속도로가 계획 중이다. 이러한 지리적 특성상 용인은 예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삶의 터전으로 삼아 왔다.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선사시대 남 · 북방식의 고인돌이 공유하는 곳, 삼국시대엔 백제 · 신라 · 고구려가 점유하던 곳, 조선시대엔 유학의 성지(聖地)요, 기호학파의 산실로 인식되던 곳이다. 근대시기엔 토착신앙과 천주교가 공존하던 곳, 항일 의병활동과 독립운동이 치열하게 전개되던 곳인가 하면 70년대 새마을 운동의 산파 역할을 했던 곳이기도 하다. 용인은 이처럼 각 시대마다 다양한 문화여건 속에서 경향(京鄕)의 다양한 문화를 수용하여 고유문화를 창출한 지역이다. 한마디로 전래의 고유성을 고집하면서도 유입된 문화 여건을 적극 수용하여 발전해온 지역이다. 때문에 용인은 다양한 역사문화 유산과 풍부한 민속문화 자원을 가지고 있다.[1] 하지만 80년대 후반부터 수도권 개발이 진행되면서 용인 서북부 지역에도 택지개발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이어 죽전, 기흥, 구성 등 서부지역의 급성장과 함께 90년대 인구 20만 명에 불과하던 중소도시가 20년 만에 100만의 거대도시로 변모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1970년대 이후 도시화 및 산업화의 물결 속에서 용인을 포함한 수도권의 기능이 계속 증대되고 있는 것에 기인한다. 이에 따라 용인은 교통뿐만 아니라 서울 등 대도시의 주거와 상공업 기능을 분담하게 되었고, 도시민들의 여가활동을 위한 각종 위락시설들이 속속 들어서게 되었다. 용인시는 면적이 서울시(605.25㎢)와 맞먹는 591.32㎢이고 3개 구(區)와 7개 읍면, 그리고 24개 동으로 구성된 도농복합도시이다. 인구는 2016년 8월 1일 100만을 돌파해 수원시와 창원시, 고양시에 이어 전국에서 4번째로 100만을 넘는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되었다.[2]

그런가 하면 3개 구(區) 중에서 동부지역에 해당하는 처인구는 농촌지역이고, 서부지역인 기흥구와 수지구는 도시화가 이루어져 전혀 상반된 도시 형태를 갖추고 있다. 또 처인구는 용인시 면적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인구는 20%에 불과하다. 때문에 농업 중심의 동부지역과 도시화

1) 김장환, '용인민속의 변화양상', 〈용인문화〉 37호, 2016
2) 연합뉴스(http://www.yonhapnewstv.co.kr), 2016년 8월 2일자

된 서부지역 간의 경제적, 문화적 이질감이 점차 심화되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용인의 모습이다. 이처럼 급속도로 진행되어 온 도시화 · 산업화는 용인의 경관을 순식간에 바꾸어 놓았으며, 그 변화 과정은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다. 이 추세대로라면 용인시의 옛 모습은 머지않아 역사 속에 묻히게 될 것은 필지의 사실이다.

Ⅲ. 문화변동과 민속놀이의 변화

이처럼 용인시는 개발에 따른 문화변동과 생태 환경의 파괴가 가장 심한 지역 중의 하나이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 및 상업지구 조성, 도로망 확충과 골프장 건설 등으로 인한 도시화 및 산업화가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되어 왔다. 심지어 녹지를 잠식하는 무분별한 개발로 인해 난개발의 대명사로 인식되기도 했다. 이로 인해 용인은 문화의 전 부문에 걸쳐 심한 변동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 곧 마을과 가족 구성의 변모, 새로운 외지 인구의 대량 유입, 전통적 농업 생산 기반의 변화와 도시화 등이 급격히 진행되다 보니 삶 전체의 가치와 양태도 크게 달라지게 되었다. 이러한 전반적인 문화변동은 용인 시민들의 삶을 그들의 전통적 역사와 문화에서 크게 이탈시켰고 문화적 정체성을 상실하게 만들어 버렸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의 전통적인 민속 문화가 소멸되고 단절되는 위기에 처한 것은 새삼스러운 일도 아니다. 이미 1905년 일제가 조선에 통감부를 설치한 이후 약 40여 년 동안 일제는 우리의 민속을 철저히 탄압했고, 1960~70년대 근대화 과정에서는 '미신타파'라는 구호 아래 우리의 소중한 민속문화를 스스로 말살하기도 했다.

1. 일제의 민속놀이 탄압

지금으로부터 100여 년 전만해도 우리나라 전역에는 오랫동안 민초들의 삶과 함께 해온 전통적인 민속놀이들이 산재해 있었다. 그 중에도 사람들이 가장 열광했던 집단놀이가 돌팔매싸움(石戰)과 줄다리기(索戰), 그리고 횃불싸움(炬火戰)이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돌팔매싸움이나 횃불싸움은 그 이름조차 짐작하지 못하는 민속놀이가 되고 말았다. 일제 강점기를 겪으면서 그들의 모진 탄압에 의해 사라지고 만 것이다. 그만큼 단절이 큰 것이다. 일제는 통감부 시기인 1908년부터 구관(舊慣)이라는 이름으로 조선의 관습과 풍습을 조사하기 시작하였다. 식민지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활용하여 더욱 효과적인 통치를 실행하려는 의도였다. 이때부터 집단

놀이에 대한 통제가 시작되긴 하였으나 본격적으로 탄압이 진행된 것은 한일병합 후 일제의 강력한 경찰취체(警察取締)에 의해서이다. 일제시대에는 근대적 시각에서 비합리적, 야만적이라고 본 돌싸움만이 아니라, 일제가 '축제의 과잉'이라고 본 농악, 그리고 집단적 성격이 강했던 줄다리기, 횃불싸움, 연날리기(수천 관중이 구경했던 연싸움) 등을 모두 억압, 통제하기 시작하였다.[3]

특히 우리의 공동체적 풍습이 담겨있는 다양한 여가 및 민속문화에 대해 전방위적으로 탄압하였는데, 농악은 낭비적 민속이라고 적대시하여 공동오락과 공동향연이라는 두레의 중요한 구성요소를 파괴시킴으로써 두레가 쇠퇴하고 소멸하게 하였다. 또한 동제와 부락제 등도 토지조사사업을 통해 촌락공유지를 소멸시킴으로써 두레 공동노동과 동제 및 부락제에 필수적인 경제적 기반의 와해와 농민들의 자생적인 '집단문화의식'을 분해하였다.[4] 이렇게 시작된 민속문화에 대한 탄압은 1920~30년대에 와서 민속 문화에 대한 집중적인 조사를 통하여 보다 세밀하게 진행되었다. 일제의 향토오락 및 민속문화에 대한 조사사업은 1930년대 전반부터 시작하여 1930년대 중반에 본격화 하였는데, 경기도 지방과가 농촌 지역의 오락 실정을 자체적으로 조사하기 시작한 것이 1933년이고, 1934년에 이를 정리하여 『農村娛樂行事 附立春書例示』를 편찬하였다.[5]

이 책에는 민속놀이의 특징과 개선점 등과 관련한 주의사항이 비교적 조목조목 제시되어 있다. 이 책은 '종래의 농촌오락을 개선함으로써 농촌진흥운동의 촉진의 자원으로 삼고자 한다'는 발간 목표를 제시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일제가 조선의 향토오락이나 민속문화에 대해 어떠한 시각을 갖고 있었는지 알 수 있다. 이 책에서 제시하는 농촌 사회 향토오락 시행지침을 요약하면, 첫째, 비용의 과다 진출과 사치를 하지 말 것, 둘째, 농사일을 방해하고 노동 생산성을 떨어뜨리는 행위는 금할 것, 셋째, 사행성으로 흐르지 말 것, 넷째, 물리적 충돌을 야기할 소지를 가지는 것을 금할 것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 지침을 보면 우리 민속놀이의 가치를 폄하하고 본질을 훼손하고 있으며, 일제강점기 향토오락 진흥정책이 진정한 의미의 향토오락의 보존 내지 발전과는 거리가 먼, 어디까지나 농촌 자력갱생을 독려하고 노동생산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6] 일제는 또한 민속신앙을 이른바 '미신 타파'로 철저히 탄압하였다. 우리의 민속신앙을 원시적이고 저열한 것으로 보고 무당들의 무속행위나 마을 공동체의 마을굿을 미신으로 규정하여 이를 타파하려 한 것이다. '미신(迷信)'이라는 용어는 본래 일본에서 명치(明治) 이후 개화주의자들이 영어의 'superstition'을 번역하여 쓴 것인데, 이를 민속신앙을 부정하고 탄압, 단속하

3) 김문겸, 「여가의 사회학」, 한울, 1993
4) 신용하, 〈두레 공동체와 농악의 사회사〉, 「한국사회연구 2」, 한길사, 1984
5) 공제욱, 〈일제의 민속통제와 집단놀이의 쇠퇴〉, 사회와역사, 2012
6) 김난주, 송재용, 〈일제 강점기 향토오락 진흥정책과 민속놀이의 전개양상〉, 「비교민속학」 제44집, 비교민속학회, 2011

는 개념으로 사용하였다. 우리 민중들의 민속신앙을 무지몽매한 백성들이 하는 비문명적인 행위로 인식한 결과가 바로 민속 신앙의 미신화인 것이다.

2. 근대화 과정에서의 민속문화 말살

새마을 운동이 처음 시작되었을 당시 한국의 가난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특히 구습(舊習)을 타파하지 못한 까닭이라는 점이 강하게 부각되었다. 이는 1970년대 뿐 아니라 근대화 초창기라고 할 수 있는 일제강점기 때에도 등장했던 언술이었다. 구습(舊習)이라 하면 말 그대로 우리가 전통적으로 행하던 각종 관습(慣習)이라 할 수 있겠는데 그 대상 가운데서도 민속문화는 그 표본이 되었다. 특히 신앙과 관련된 민속, 예컨대 민속신앙 부문은 구습을 대표하는 것으로 타파(打破)의 주 대상이었다. 이러한 와중에 마을에서 섬기던 수호신은 미신(迷信)을 대표하는 존재로 여기게 되었다.

일제강점기에도 우리 민속문화, 특히 민속신앙은 미신이라는 말로 폄하되었는데 이는 산업사회에 들어 새마을 운동이 한창일 때에도 예외가 아니었다. 그래서 농촌은 물론 도시에서도 새마을 운동의 실천내용 가운데에는 '미신타파'가 중요한 관건으로 부각되었다. 이에 따라 마을을 지켜주던 수호신은 한낱 '미신'으로 추락되고 '미신을 받들던' 동제당(洞祭堂)은 파괴되기 시작했다.

물론 동제당이 미신이라는 이유만으로 파괴된 것은 아니다. "초가집도 없애고 마을길도 넓히고 푸른 동산 만들어 알뜰살뜰 다듬세"라는 '새마을 노래'의 노랫말처럼 마을길을 넓히는 과정에서 길가에 있던 서낭당이 그 자리를 잃게 되면서 사라지기도 했던 것이다. 하지만 여기에도 미신이라는 사고(思考)가 전혀 배제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곧 마을의 수호신을 섬기는 서낭당보다는 새마을 운동으로 도로를 확장하여 '생활하기 편리한 마을'을 만드는 것이 훨씬 중요했다. 우선 경제적으로 좋아지고 현대문명을 향유하며 편리하게 살아야 한다는 사고가 앞섰던 것이다.

1961년 등장한 박정희 정부는 조국 근대화를 목표로 하여 근대 국민국가를 완성하고, 자본주의적 산업화를 달성하기 위해서 국민이라는 능동적인 주체를 형성하고자 했다.[7] 1963년에 발행된 『國家와 革命과 나』의 저자 박정희 대통령은 우리의 역사를 퇴영과 조잡한 침체의 연쇄사, 불살라버려야 옳은 것으로 규정하며 우리의 역사에 대해 배타적인 모습이었다. 다만 세종대왕과 이순신 장군, 신사임당에 대해서는 예외적인 모습을 보였으며, 선조로부터 물려받은 우리의 것은 한글(훈민정음) 뿐이라며 우리의 철학을 창조하고 독자적인 문화를 형성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런가 하면 박정희 정부는 1962년 「문화재보호법」을 제정하면서 그동안 사회적으로 배척해야 한다고 여겨졌던 민속을 문화로서 인정했다. 그러나 박정희 정부의 「문화재보호법」은 민속에

7) 이필영, 〈일제하 민간신앙의 지속과 변화: 무속을 중심으로〉, 혜안, 2004

대한 편견을 극복하며 제정된 것이 아니었으며, 민속과 관련된 문화 전반을 포섭한 것도 아니었다. 오히려 문화재 선정에서 배제된 민속은 가장 강력한 위기를 맞게 된다. 정부가 '미신타파' 운동을 진행하며 전국에 산재해 있는 민속신앙 관련 대상물들을 파괴하였고 민중들이 영위해온 문화에 대해서는 편견을 조장했기 때문이다. 새마을운동이라는 미명하에 당집이 파괴되고, 당산나무들이 베어지는 등 온갖 수난을 겪게 되었다. 즉 우리의 전통문화들은 산업화의 희생양이 되었으며, 우리 세대들에게 희노애락의 공동체 의식이 깊이 뿌리내린 문화들이 모두 사라지고 교육의 현장에서는 미신이라는 낙인을 찍어 우리들의 정신과 삶속에서 추방당하는 수모를 겪어야만 했다.

IV. 문헌에 기록된 주요 민속놀이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인 1990년대는 용인시가 급속도로 도시화 되는 시점으로, 서부지구의 경우 난개발이라는 불명예스런 여론이 언론을 장식하고 있었다. 이 과정에서 전통적인 자연마을이 하나 둘씩 사라지게 되었고 대부분의 마을 주민들은 보상금을 받고 다른 곳으로 이주하는 상황이었다. 이때 시급히 마을의 역사와 문화를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는 인식에서 1998년 전국 최초로 읍면지 간행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다. 2009년까지 발간된 용인의 11개 읍면지에는 민속문화와 관련하여 평생의례, 가정의례, 마을의례, 세시풍속 등 각 지역의 민속적인 요소들을 다양하게 소개하고 있다. 지금은 사라지고 연희되지 않는 민속뿐만 아니라 지역민조차 그 존재여부를 모르고 있는 민속놀이를 상당히 담고 있다는 점에서 11개 읍면지의 사료적 가치는 매우 높다고 할 수 있겠다.[8]

8) 용인시 읍면지 발간 사업은 1998년 『구성면지』를 시작으로 2008년 『수여지』까지 11년 동안 진행되었다. 이하 내용은 다음의 각 읍면지를 참조함. 『구성면지』(1999), 『기흥읍지』(2000), 『양지면지』(2001), 『수지읍지』(2002), 『모현면지』(2003), 『포곡면지』(2004), 『원삼면지』(2005), 『백암면지』(2006), 『남사면지』(2007), 『이동면지』(2008), 『수여지』(2009)

1) 줄다리기

이들 읍면지 가운데 마을 공동체 문화로서 소개된 민속놀이 가운데 가장 일반적인 것이 정월대보름 줄다리기이다. 줄다리기와 더불어 농악놀이나 척사대회가 부수적으로 이루어진다. 줄다리기는 마을 주민들이 남녀노소 구분 없이 두루 참여하는 공동체 놀이자 마을 단위로 이루어지는 대규모 민속놀인 만큼 용인지역의 마을 공동체문화로서 민속놀이가 지닌 전승양상과 문화적 기능을 파악하는데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줄다리기는 특별한 기술이 없어도 마을의 남녀노소 누구든 참여할 수 있는 유일한 놀이였다. 그런 점에서 진정한 공동체놀이라 할 수 있다. 또 줄다리기의 줄은 암수 형태의 쌍줄이 중심을 이루며, 대부분 남녀로 편을 나누어 진행되었다. 농악은 줄을 당기기 이전에 이루어지는 지신밟기의 연장선상에서 대보름 놀이를 이끌어가는 핵심이다.

용인 지역의 정월 대보름 줄다리기는 남사면 완장리, 구성면, 용인읍 김량장리에 대규모 쌍줄 형태의 줄다리기가 있었으나, 1920~1930년대에 소멸되었다. 1990년에는 용인읍 삼가리, 내사면 양지리, 이동면 시미리 등에서도 줄을 당긴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동면 천리의 샘골 줄다리기는 풍년을 기원하는 위아래 마을의 암수 줄다리기였으나 1931년에 소멸되었고, 남사면 봉무 1리 내기동 줄다리기는 남녀 대항 쌍줄 형태였으나 역시 전쟁 이후에 소멸되었다. 또 산정마을과 지장실 마을은 외연을 확장하여 마을 축제화를 시도하기도 했으나 주민의 노령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용인은 다양한 지역에서 줄다리기가 전승되었으나 대부분 중단되었다.

한편 죽전동 일대에서 500여 년을 이어온 민속놀이 줄보맥이(줄다리기+보막이)는 화합과 풍요를 기원하는 공동체 놀이로 정월대보름 대동제 형식으로 이어져 왔다. 이 행사에 필요한 자재인 볏짚은 가가호호 할당되었으며 새끼줄 꼬기에서부터 용(龍)줄 만들기 까지 마을 계를 통해 이루어졌다. 용줄 위에 타는 사람은 마을회의를 통해 남자 2명을 선정하고 선정된 사람은 신랑과 각시로 분장하였다. 전국적으로도 독특한 것으로 인정받는 것은 행사 후 줄의 용도이다. 죽전 지역의 풍년농사를 기원하며 농업용수의 확보를 위해 현 죽전교 아래에 줄다리기 줄로 보를 막아 물 공급을 원활히 하기 위해 사용되었다고 한다.

2) 동홰놀이

정월 대보름 전후에는 각 지역마다 달맞이 행사와 함께 놀이를 즐긴다. 용인지역의 대표적인 달맞이놀이는 동홰놀이다. '동홰'는 '동네의 횃불'이라는 의미를 지닌 용어다. 여러 마을에서 동홰놀이를 행했으나, 지금까지 전승되고 있는 지역은 양지면 한터, 이동면 삼베울, 운학동 어둔이, 남사면 산정동마을 등이다. 대표적인 곳이 한터마을인데 이곳은 풍부한 민속이 전승되는 마을로 놀이

의 중단, 인위적 재현, 다시 중단의 과정을 거친다. 이동면 덕성리 삼배울 마을은 한터마을의 민속놀이를 모방 재현하여 새로운 형태로 창출하고 있다. 그리고 내어둔 마을은 비교적 전통적 놀이방식을 고수해 왔으나 젊은 사람들의 인식 부족으로 한계에 직면하고 있다. 동홰를 만들기 위해 산에 가서 나무를 해 1짐씩 해다가 원뿔형의 거대한 형태로 묶는다. 동홰를 세우는 방향은 달이 뜨는 쪽으로 향하게 한다. 동홰에 불을 붙이기 전에 명년의 풍년을 기원하는 간단한 고사를 지낸다. 달이 뜨면 달에게 절을 하면서 동홰에 불을 붙인다. 동홰가 다 타는 데는 약 2시간의 시간이 소요된다. 이때 두레패는 농악을 치며 흥겹게 논다. 이어서 줄다리기를 한다.

한편 아이들은 나이 수대로 엮은 작은 홰를 준비한다. 일반적으로 잘 타는 삼(대마)을 이용하지만, 이것이 귀할 때에는 싸리가지나 밀짚을 사용하기도 했다. 달이 뜰 때에 달을 향해서 "달님절아"라고 소리치며 소원을 빈다. 1960년대 이후에는 깡통에 숯이나 고무조각을 넣어 태우면서 허공에 돌리는 것으로 대체되었다.

3) 백중놀이

또 용인의 여러 지역에 백중놀이가 있었다. 백중(百中)은 음력 7월 보름을 맞이하여 일손을 내려놓고 휴식을 취하는 날로, 농민들의 여름철 명절이었다. 백중을 백종(百種)이라고도 하는데 이는 백곡지종(百穀之種)의 줄임말로 백 가지의 곡식이 성숙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백중날이면 김매기를 끝낸 기쁨을 축하하기 위해 호미씻이(洗鋤宴)를 하는 풍습이 있었고, 머슴을 둔 집에서는 이날 하루를 쉬게 하며 취흥에 젖게 했다. 백중날 물을 맞으면 피부병도 낫고 속병도 고치며 더위도 먹지 않는다는 속설도 있었다. 특히 처인구 백암면에서는 백중장(百中場)도 열렸는데, 마당에 난장판이 벌어지고 각종 공연을 비롯하여 흥미 있는 오락과 흥행이 있어 농사에 지친 머슴과 농사꾼들이 마냥 즐길 수 있었다. 그래서 이 날을 머슴날, 또는 머슴들의 생일이라고도 했다. 특히 백중장에서 열리는 농악놀이와 씨름대회는 유명했다. 마을 단위의 농악경연이 벌어졌고 씨름대회에서 우승하면 송아지를 부상으로 받았다.

4) 거북놀이

거북놀이는 1970년대까지만 해도 용인 전지역에서 팔월 한가위 달빛 아래서 연희되었다. 거북놀이를 하기 위해서는 우선 수숫잎으로 거북이 모양을 만들고, 거북이에 들어갈 두 사람도 수숫잎으로 분장을 한다. 한 사람이 거북이의 머리쪽으로 들어가고, 뒷사람은 허리를 숙여 앞사람 허리를 잡는다. 거북을 이끄는 질라잽이도 수숫잎으로 분장한다. 몇 사람은 거북의 몸체 좌우에 붙어

따라 다닌다. 거북놀이패는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마을이나 집의 우물, 대문, 부엌에서 춤판을 벌인다. 이때 상쇠잽이가 축원을 하고 두레패는 농악을 친다. 이렇게 놀아주면 주인은 답례로 술과 떡 등을 대접한다. 부잣집에서는 자청해서 쌀 한 말을 미리 내주고 집에 와서 축원해 줄 것을 부탁한다. 거북놀이가 끝나면 일정한 장소에 모여 답례로 받은 음식을 먹으며 뒷풀이를 한다.

5) 답교놀이

답교놀이는 일제식민지 시대 때 광주 경안천의 상류인 모현면 용변 아래의 목조다리에서 행해졌다. 현재 전승되지 않으나 『용인군지』 기록에 의하면, 모현면의 답교놀이는 달맞이와 횃불놀이-답교놀이-선소리-뒷풀이 순으로 구성되었다. 구체적인 과정으로 답교놀이 때는 정월 보름날 달이 떠오르면 달맞이를 한다. 횃불을 든 일행은 달이 떠오르기를 기다리다가 달이 솟아오르면 '만월이요'를 외치며 큰 절을 하면서 각자의 기원을 빈다. 달맞이와 횃불놀이가 끝나면 놀이대 일행은 풍물잽이를 앞세우고, 영기 · 집사 · 별감 · 무동 · 질라잽이 · 등롱 · 상좌가 뒤를 따르고, 그 뒤에 선소리꾼이 따른다. 답교놀이를 하는 도중 춤을 추며 행진한다. 선소리꾼이 '놀량', '앞산타령', '뒷산타령', '잦은방아타령'을 부르면 놀이패는 화답하며 각자 기량을 뽐내며 춤을 춘다. 답교를 마친 뒤에는 뒷풀이를 한다.

6) 농기싸움

용인지역은 대부분 농경지역이었다. 따라서 논농사와 관련한 민속놀이가 많다. 농기싸움, 또는 두레싸음이라고 불리는 놀이가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거의 모든 마을마다 두레가 있어서 모내기와 추석, 정월 지신밟기 때 활동하였다. 두레마다 농기가 있으며, 두레패의 행렬 앞에 서는 것이 '農者天下地大本'이라 쓴 농기이다. 연초에 마을의 두레패들이 모여서 배례를 올릴 때, 세벌 논매기가 끝날 무렵인 백중 때 마을 두레패가 풍장을 치고 나간다. 이때 다른 마을 두레패와 마주치면 흔히 싸움을 벌였는데, 이를 '농기싸움'이라 한다. 농기싸움은 상대방 깃대 위의 꿩털로 만든 장목을 빼앗으면 이기는 놀이이다. 단판으로 승부를 결정짓는다. 싸움에 진 마을은 이긴 팀 마을의 농기를 만나면 기를 숙여 기세배를 한다. 연희 순서는 길놀이→기세배→마당놀이→기돌림→두레싸움→뒤풀이로 되어 있다. 용인지역에서도 거의 모든 농촌마을에서 농기싸움이 있었다. 남사면에서는 12마을의 두레패가 모여 두레놀이를 하였으며, 해마다 농기싸움을 통해 서열이 정해졌다고 한다. 양지면 한터마을의 두레는 경복궁 복원 무렵인 1865년에 차출되어 '영좌두레'로 지칭된 정도로 대표적인 두레였다. 농기도 백여 년 간 보관되어 오다가 훼손이 심하여 최근에 소각하였다고 한다.

7) 지신밟기

용인지역의 지신밟기는 신년초에 액막이 행사로 하거나, 추석 때 거북놀이, 줄다리기의 한 과정에서 행하기도 하였다. 보통 마을의 두레패가 연희를 맡기 때문에 인원 구성이나 연희과정이 단순하며, 농기싸움(두레싸움)이나 걸립과 동일하다. 멀리 주산(主山)을 거쳐 당산-대문-마당-하청-각방-용왕-우물-장독-곡간-마굿간-변소 등을 차례로 돌아다니며 지신밟기를 한다는 것이 다를 뿐이다. 상쇠의 사설도 큰 차이가 없다. 지금도 마을 단위로 두레패를 구성하여 활동하고 있으나, 농사일보다는 마을 행사 때 걸립을 하는 정도이다. 명칭도 두레패가 아닌 농악단 또는 사물놀이패로 부른다. 용인지역에서는 차용성씨가 이끄는 백암지역의 농악단과 김문향씨가 이끄는 기흥지역의 농악단이 왕성하게 활동하였다.

V. 동부지역의 민속놀이(농촌형)

용인의 동부지역은 농업을 기반으로 하는 전형적인 농촌지역으로 행정구역상으로는 처인구에 해당한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용인시 전체 면적의 80%를 점하고 있으면서도 인구 비율은 20% 밖에 되지 않는 곳이기 때문에 도시화된 서부지역과는 지극히 대조적인 환경을 가지고 있다. 때문에 서부지역에 비해 전통적인 문화원형들이 대체로 많이 남아 있고 마을 단위의 민속놀이 역시 오랜 전통을 유지하며 공동체 문화를 형성해 오고 있다. 물론 농경문화와 밀접하게 관련된 각종 민속놀이들이 농업환경의 변화에 따라 쇠퇴하거나 변화를 거듭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오늘날 최소한의 전통적인 명맥을 이어오고 있는 곳이 동부지역이다.

1) 산정동 줄다리기

처인구 남사면 봉무리 산정동에서 매년 정월 대보름날 열리는 산정동 줄다리기는 풍농과 마을의 평안을 기원하는 민간신앙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민속놀이다. 주민 간 단합을 다지는 대동의 의미만이 아니라 당제(堂祭)와 같은 주술적 의미가 강한 엄숙함이 배어 있는 풍습인 것이다. 정확하게

시작된 연대는 알 수 없으나 숙종 연간 사료에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아 족히 3백년은 됐을 것이란 추측이다.

줄다리기 과정을 살펴보면, 먼저 우물고사와 지신밟기를 한다. 두레가 마을의 대동우물에서 우물고사를 지내고 집집마다 돌면서 지신밟기를 하는데 집에 들어가 낭대(깃대)를 세우고 마당→우물고사→장간고사→부엌고사→마당 순서로 진행된다. 줄다리기는 여자들과 장가 안 간 총각 및 어린이들이 암줄을 잡고 성인 남자들이 숫줄을 잡고 시작된다. 줄은 세 번을 당기며, 첫 번에는 남자가 이기지만 나머지 두 번은 여자가 이기는 것이 보통이다. 여자가 지면 보리흉년이 난다는 속설 때문이다. 산정동 줄다리기도 예전에는 젊은 사람들이 많아 줄다리기 보는 재미도 쏠쏠하여 외지인들이 많이 왔지만 지금은 동네에 남아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노인들인데다 줄이 워낙 무거워 예전과 같은 흥취를 자아내지 못할 뿐만 아니라 행사 자체가 열리지 못하는 해가 많아졌다. 하지만 산정동 줄다리기는 용인에서 그 전통과 규모 면에서 가장 가치가 있는 대표적인 민속놀이인 만큼 보존을 위한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

2) 덕성리 동해놀이

동해놀이는 정월 대보름을 맞이하여 마을 단위로 행해지는 풍농과 안녕을 기원하는 행사로 이동면, 양지면 등 용인시 동부지역에서 전승되어 오고 있는 용인의 대표적인 민속놀이이다. 새해를 맞이하여 마을과 주민의 평안을 기원하고 액운을 불태우는 의미의 달집태우기가 핵심 내용으로, 산신제→지신밟기→달집태우기→줄다리기→뒤풀이의 순서로 이루어진다. 이동면 덕성리 삼배울 마을을 중심으로 행해지는 동해놀이는 농기를 앞세우고 두레의 가락에 맞춰 암 · 수 용줄이 정해진 위치에 자리 잡는 길놀이로 시작한다. 마을 대표가 우물에 제를 올리는 우물고사가 진행되고, 마을을 돌며 액운을 물리치는 지신밟기가 끝나면 달집태우기로 이어진다. 액운을 남김없이 삼켜버릴 듯한 기세로 타오르는 달집을 배경으로 마을의 풍년을 기원하는 줄다리기가 진행된다. 줄다리기는 남녀가 편을 나눠 행해지는데 여자들이 이겨야 풍년이 든다는 속설이 있다. 줄다리기가 끝나면 둥근 보름달 아래서 마을사람들 모두가 흥겹게 어울리는 뒷풀이로 행사가 마무리된다. 일제 말기까지 이어져 내려오던 이 놀이는 6.25 동란 이후 사라진 것을 10여 년 전 마을 젊은이들이 양지면 한터의 동해놀이를 차용하여 복원하였다.

3) 백암 백중제

백중(百中)은 농부들이 봄부터 여름까지 농사일을 하다가 음력 7월 보름에 일손을 내려놓고 휴식을 취하는 날로, 음식과 술을 나누어 먹고 각종 놀이를 즐기며 하루를 보내던 농민들의 명절이다. 처인구 백암면에서는 매년 백중날이면 장(場)이 열렸고 마을 단위의 농악놀이와 씨름대회는 유명하여 오늘날 백암농악은 용인의 유일한 웃다리 풍물로 전승되어 오고 있고, 용인의 각 학교나 프로 씨름단이 20여 년 동안 전국대회를 석권하고 있다. 1970년대 산업화와 함께 사라졌던 백중놀이를 지난 2011년 40여년 만에 지역축제로 되살려 매년 개최하고 있는 것이 백암 백중문화제이다. 축제를 알리는 길놀이를 시작으로 장사씨름대회, 농악경연대회, 지경다지기 등 민속놀이마당을 비롯하여 각종 공연마당, 전시마당, 민속체험마당, 농축산 마당, 먹거리 마당 등이 운영된다. 특히 지역 주민들이 참여하여 지역 특산물인 백암순대 만들기, 짚풀 놀이, 떡메치기, 콩 탈곡하기, 벼 타작하기 등의 다양한 체험 행사를 진행한다. 행사 내용을 살펴보면, 장사씨름대회나 농악경연대회 등 일부를 제외하면 전통적인 백중과 관련이 없는 프로그램이 대부분이다. 오히려 백중 호미씻이와 같은 백중의 핵심적인 내용이 재연되지 못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하지만 농경문화의 변화에 따른 현실적 한계를 생각하면, 이러한 현상은 전통문화의 재창조, 현대적 계승이라는 측면에서 새롭게 해석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4) 양지골 정월대보름 달맞이 축제

처인구 양지면에서 매년 정월대보름을 맞아 삼천갑자 동방삭을 테마로 하는 양지골 달맞이 축제가 열린다. 갑자년(甲子年)을 삼천 번 겪으며 18만년이나 살았다는 동방삭이 염라대왕의 눈을 피해 양지면에 숨어 살았다는 이야기에 근거하여 열리는 축제이다. 삼천갑자 동방삭을 모티브로 길놀이, 줄다리기, 쥐불놀이, 달집태우기, 풍등 날리기 등 다양한 세시 풍속이 진행된다. 민속체험부스를 운영하면서 개인이나 가족단위의 흥겨운 민속놀이를 즐길 수 있고, 가훈을 써주기를 비롯하여 이엉 엮기, 용마루 틀기, 지게짐 나르기, 장작패

기 등 마을별 협동심과 기량을 겨루는 행사도 진행된다. 그러나 이 행사는 지역의 전통적인 민속놀이를 계승한 것이 아니고 양지면 일부 지역에 전해오는 전설을 모티브로 지역민들이 개발한 창의적인 지역축제로서 민속적인 요소를 가미한 새로운 형태의 놀이문화라 할 수 있다.

5) 미평리 미륵고사제

미평리 약사여래입상(藥師如來立像)은 경기도 문화재자료 제44호로 처인구 원삼면 미평리 마을의 상징이자 지명 유래가 된 불상이다. 손에 둥근 약병을 들고 모든 사람들의 질병을 고쳐준다는 약사여래지만 이곳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미륵불이라 불러왔고, 매년 정월이면 지역 주민들이 마을의 안녕과 풍농을 기원하는 미륵고사를 지냈다고 한다. 70년대 이후 사라졌던 것을 최근 뜻있는 지역 주민들이 중심이 되어 재현하기 시작하였는데, 맹리에 위치한 수정사의 주지스님에게 제관을 의뢰하고 있다. 이는 과거 마을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던 방식에서 벗어난 변형된 모습이다. 주민들은 술과 음식을 올리며 묵은 액운을 떨치고 마을의 풍요와 번영, 가정의 안녕과 평안을 기원한다. 고사가 끝나면 주민들이 마을 회관에 모여 잔치를 벌인다.

VI. 서부지역의 민속놀이(도심형)

용인의 서부지역에 해당하는 기흥구, 수지구는 최근 20여 년 동안 급속도로 도시화가 진행된 곳이다. 용인시 전체 면적의 20% 밖에 안 되는 좁은 지역에 전체 인구의 80%가 집중되어 있어 인구밀집도가 높고 경제적 기반과 사회문화 시설들이 전형적인 도심형 구조를 가지고 있는 곳이다. 때문에 전통적인 마을 형태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게 되었고 오랜 전통을 유지해 왔던 마을 단위의 공동체 놀이 문화는 대부분 사라지고 일부 지역에서만 변형된 형태로 유지되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다행인 것은 도시화와 함께 사라졌던 전통적인 요소들이 하나 둘씩 부활되고 있거나 도심 곳곳에서 새로운 유형의 민속문화가 생성되고 있다는 것이다. 유형별로 그러한 몇 가지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1) 죽전 줄보맥이 놀이

수지구 죽전동 일대에서 수백 년을 이어온 전통놀이 줄보맥이가 2009년 경기민속예술제에 용인시 대표로 출전하여 최우수상을 수상하면서 맥을 잇게 되었다. 죽전에서 태어나 평생을 그곳에서 살아온 김응호씨가 중심이 되어 오랫동안 잊혀진 우리문화를 되찾고자 하는 억척같은 고집이 빚어낸 큰 성과였다. 죽전 줄보맥이는 화합과 풍요를 기원하는 공동체 문화행사로 정월대보름에 대동제 형식으로 연희되어 오던 민속놀이였는데, 1970년대 산업화로 인해 농촌지역이 도시화되면서 사람들의 관심 밖으로 밀려났던 안타까운 민속놀이였다. 당시 직접 줄을 만들고 노래를 부르던 마을 출신 원로들이 2009년 죽전전통문화보존회를 설립, 죽전줄다리기 복원을 위한 심포지엄을 갖고 고증작업을 벌인 끝에 경기민속예술제에 참가하였던 것이다. 줄보맥이는 두레패와 12지신 형상의 만장기가 선두에 서고 그 뒤에 신랑각시가 탄 용줄이 따른다. 마을을 돌며 액운을 막기 위한 지신밟기를 하고 마을 한가운데 마련된 행사장에 모여 신랑각시 혼례와 줄다리기가 이어진다. 옛 행사장 위치는 현 죽전동 길훈 1차 아파트 자리이다. 줄다리기는 3판 2승제로 하고 이긴 편은 흥겹고 즐거운 마음으로 춤추며 패한 측은 음식을 준비해 승리한 측에 제공한다. 패한 쪽은 비통한 표정으로 승리한 측과 같이 어우러져 풍년을 기원하며 한판의 놀이로 승화시키는 것이다. 이때는 동해놀이와 쥐불놀이가 함께 이루어진다. 죽전 줄보맥이의 특징은 혼례와 줄다리기가 끝난 후 하천의 보를 막는데 줄을 이용한다는 점이다. 즉 놀이에 사용됐던 새끼줄을 엮어 탄천의 보를 막는데 다시 이용하는 것으로 조상들의 공동체 문화 속에 녹아있는 지혜를 엿볼 수 있다.

2) 신봉동 정월 대보름맞이 민속행사

불과 20여 년 전만 하더라도 전형적인 농촌마을의 모습을 고스란히 유지해 오던 곳이 수지구 지역이다. 신봉동이나 동천동, 죽전동 등 각 마을마다 특색 있는 민속놀이가 존속하였고 절기마다 다른 양식의 풍속이 집집마다 대를 이어 전해 내려왔다. 1990년대 들어 수지구가 도시화 되면서 그

전통이 대부분 사라졌지만 신봉동과 죽전동에서는 그나마 뜻있는 지역민이 전통을 지키기 위해 애를 쓴 결과 일부 민속놀이가 보존되고 있는 것은 다행한 일이다. 수지구 신봉동의 대보름맞이 민속행사도 과거 이 지역에서 연희되던 민속놀이를 복원한 행사로 2003년부터 시작되었다. 수지구 택지개발로 인해 인구가 부쩍 늘어난 탓에 매년 2~3천여 명의 구민이 참여하여 수도권 남부의 대표적 정월대보름 민속행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신봉동의 대보름맞이 민속행사에는 지신밟기를 시작으로 주민 기원제와 소원지 쓰기, 풍등 날리기, 달집태우기, 불꽃놀이 등 행사가 펼쳐진다. 이와 함께 풍물놀이, 난타, 밸리댄스, 클래식기타, 한국무용, 태권무, 민요, 댄스스포츠 등이 이어진다.

3) 법화산(法華山) 문화축제

법화산(法華山)은 불교 경전의 하나인 법화경에서 유래한 명칭으로 구성 지역의 중심 산이다. 기흥구의 마북동, 청덕동, 언남동, 수지구의 죽전동, 그리고 처인구 모현면 오산리 등 3개구에 걸쳐 있다. 법화산은 백두대간에서 뻗어 나온 한남정맥이 속리산에서 북진해 안성 칠장산을 거쳐 함박산, 부아산, 석성산, 법화산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혈맥이며, 분당, 판교, 송파, 강남지역을 관통하는 한강 지류인 탄천(炭川)의 발원지이기도 하다. 특히 산의 형세가 여러 신하가 임금에게 조례를 올리는 군신봉조형(群臣奉朝形)으로 예로부터 명당보국(明堂保局)의 길지라 하였고, 삼국시대에 고구려에 편입되면서 '큰 성', '높은 성'이 있는 곳이란 뜻의 구성현(駒城縣)이 된 이래 조선시대 말기까지 용인의 중심지 역할을 해왔다.

길지라는 옛 명성은 오늘날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주변이 온통 도시화되어 인구가 크게 늘어났는가 하면 경찰대, 단국대를 비롯하여 법무연수원, 한국전력기술 등 각 대학과 연구시설들이 들어섰다. 이렇듯 옛 모습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큰 변화를 겪게 되자 구성 지역의 뜻있는 인사들이 향토문화를 보존하고 전승하자는 취지에서 구성향토문화보존회를 결성하게 되었고, 2002년부터 '법화산 문화축제'를 개최하기 시작하여 2013년까지 11회의 행사를 가졌다. 법화산문화축제는 지역민들이 한 자리에 모여 애향심을 고취하고 주민화합과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지역문화 행사이다. 매년 5월 구성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전통 성년례, 국악공연, 각종 민속놀이, 가요제, 향토유적 사진전, 친환경 체험 프로그램 등이 운영된다.

4) 갈곡마을 느티나무 문화제

강남대학교 진입로에 위치한 구갈동 강남마을에는 수령 350년 된 느티나무가 군락을 이루고 있다. 이곳은 1980년 강남대학교가 이전해 오기 전까지만 해도 갈곡이라는 전형적인 농촌마을이었고 입구에 자라는 느티나무는 주민들에게 시원한 그늘을 제공하는 정자나무이자 마을을 지켜주는 수호목이기도 했다. 대형 건물들이 여기저기 들어서고 터전을 잃은 원주민들이 외지로 떠나면서 느티나무만 건물 사이에 초라하게 남아 있게 되었다. 매년 10월이면 산신제를 지내고 우물고사와 느티나무 고사까지 지내던 동제(洞祭)도 당연히 사라지고 말았다. 그나마 느티나무가 경기도 보호수(1968년)로 지정되어 베어 나가지 않은 것이 다행이었다. 이를 안타깝게 여긴 마을 원주민들로 구성된 갈곡전통문화보존회는 2006년부터 마을고사를 재현하고 대동제 형식의 마을축제를 개최해 오고 있다. 이것이 2016년 8회를 맞은 '갈곡마을 느티나무 문화제'이다. 갈곡 느티나무공원에서 열리는 이 행사는 고사제와 각종 민속놀이, 두레 한마당 등으로 진행되며 먹거리 장터가 마련되어 옛 마을잔치 풍경을 재현한다. 또 갈곡마을과 인근지역의 지난 수십 년 간 변천사를 담은 사진전과 함께 옛 주민들이 소장한 사진과 기록을 모아 마을지를 발간하기도 했다.

Ⅶ. 민속놀이의 전승 유형 분석

이렇듯 용인의 민속놀이는 동부지역의 농촌형 민속놀이와 서부지역의 도심형 민속놀이로 크게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전통적인 농업 중심의 사회 구조를 유지해 오고 있는 동부지역은 농경문화의 특성을 가진 공동체 놀이들이 그대로 전승되고 있거나 단절되었다가 다시 부활된 경우를 엿볼 수 있다. 산정동 줄다리기와 덕성리 동화놀이는 수백 년 동안 지속되어 온 마을 공동체 놀이로서 과거의 양식과 형태를 그대로 유지해 오고 있다. 반면 백암 백중제와 미평리 미륵고사제는 농촌 사회구조의 변화에 따라 십 수 년 전 소멸되었다가 최근 부활된 행사로 현대적 요소가 가미되기는 했지만 연행 방식이나 형태가 대체로 옛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양지골 정월대보름 달맞이 축제는 지역에 전해오는 전설을 모티브로 새롭게 개발한 민속문화 축제로, 지역의 사라진 전통문화가 현대적으로 부활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전통적인 농촌 마을이 붕괴되고 급속한 도시화 · 산업화로 큰 변화를 겪은 용인 서부지역은 동부지역에 비해 전통적 요소의 전승 보다는 현대적 요소가 다분히 가미된 새로운 형태의 도심형 민속놀이가 부활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수 백 년의 역사를 가진 죽전 줄보맥이 놀이는 70년대 산업화와 함께 사라졌던 것을 2009년 경기민속예술제를 계기로 지역 원로들의 증언을 토대로 재현한 것이다. 물론 놀이의 효과를 위해 일부 민속적인 요소들을 첨가하여 연출을 하긴 했지만 놀이의 형태와 구조로 볼 때 서부지역에서는 대체로 그 원형을 유지하고 있는 민속놀이라 할 수 있다. 신봉동 정월 대보름맞이 민속행사와 갈곡마을 느티나무 문화제는 마을의 도시화로 오랫동안 소멸되었다가 최근 부활한 민속행사이다. 신봉동 정월 대보름맞이 민속행사는 지신밟기와 줄다리기에 부가적인 대보름 세시풍속이 병행되던 전형적인 농촌 마을행사였던 것이 불꽃놀이와 같은 현대적 요소가 다양하게 가미된 도심형 민속행사로 재탄생한 경우이다. 갈곡마을 느티나무 문화제도 과거 동제(洞祭)의 일환으로 나무에 고사를 지내던 단순한 제(祭) 의식이었던 것이 지금은 제의를 소재로 하 마을 주민들이 공동체 의식을 다지는 민속축제로 확대 재생산되었다. 법화산 문화축제는 동부지역의 양지골 정월대보름 달맞이 축제와 마찬가지로 지역에 전승되는 특정한 민속놀이를 소재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공동체 문화 형성과 주민의 화합을 다지기 위해 새롭게 창안된 민속문화 행사이다. 여기에서는 현대적인 축제요소가 중심이 되고 민속놀이와 전통문화 행사는 부대행사 형태로 이루어진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용인의 민속놀이 전승 유형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겠다. 첫째는 전통적인 양식과 형태를 거의 원형에 가깝게 유지해 오고 있는 민속놀이이고, 둘째는 전통적인 양식이나 형태가 대체로 유지되긴 하지만 다양한 외적 요소가 가미되어 현대화된 민속놀이, 그리고 셋째는 특정한 전통에 기반 하지 않고 새롭게 만들어졌으면서 민속을 소재로 하는 도심형 민속행사 등이다. 민속놀이의 원형을 유지하고 있는 첫번째의 경우는 동부지역의 산정동 줄다리기와 덕성리 동해놀이, 서부지역의 죽전 줄보맥이 놀이가 되겠다. 외적 요소가 가미되어 현대화된 둘째의 경우는 동부지역의 백암 백중제와 미평리 미륵고사제, 서부지역의 신봉동 정월 대보름맞이 민속행사와 갈곡마을 느티나무 문화제를 들 수 있겠다. 지역 공동체 문화 형성을 위해 새롭게 창안된 형태의 세 번째 경우는 동부지역의 양지골 정월대보름 달맞이 축제와 법화산 문화축제이다. 이와 같이 민속놀이 전승 유형으로 농업 중심의 동부지역과 도시화된 서부지역을 비교해 보면 표면적으로는 크게 차이가 없는 듯 보이지만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확연한 차이를 느낄 수 있다. 우선 행사의 주최자를 보면 동부지역 대부분의 민속놀이는 마을이나 읍면 단위의 지역 주민이 중심이 되어 행사를 진행한다. 그러나 서부지역은 행정기관이나 행정기관에서 위탁한 지역사회협의회 등 사회단체가 행사를 이끌어 가고 있다. 재정적인 면에서도 동부지역은 자치단체 보

조금이 일부 있긴 하지만 거의 주민들이 출연하거나 마을 기금을 활용하는 반면, 서부지역은 자치단체 보조금이나 기업의 후원금으로 예산을 충당한다. 행사의 내용 면에서는 더욱 확연하다. 동부지역은 전통적인 소재들이 중심이 되고 외연도 지역민의 생활문화와 관련된 내용들을 담고 있으나 서부지역은 도식적인 소재와 정형화된 부대행사, 흥미 위주의 프로그램 편성이 특징이다. 뿐만 아니라 행사 운영자 및 참가하는 지역민들의 의식에서도 많은 차이가 느껴진다.

Ⅷ. 결론-지역 민속의 전승 과제

일제강점기 이후 지난 60년 동안 우리 민속은 자의든 타의든 끊임없는 변화과정을 겪어 왔다. 근대화를 지상의 목표로 삼았던 60~70년대 화학비료와 농약이 보급되는 새로운 농경방식의 도입과 새마을 운동은 전통적 농경사회에서 유지되던 민속놀이의 사회적 기능과 의미를 점차 상실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특히 1970년 후반부터 농촌의 경운기, 탈곡기와 같은 소형 농기계를 시작으로 80년대 후반 이후 트랙터, 콤바인, 이앙기와 같은 대형농기계의 등장은 민속문화의 기반을 흔들어 놓았다. 더욱이 농촌마을의 문화 주체자인 주민들의 고령화, 인구 감소 등의 본질적인 문제가 민속놀이를 더 이상 존속하기 어렵게 만들어 버렸다. 이와 같이 민속놀이의 근간이 되는 농업환경의 변화와 더불어 도시화 및 산업화는 민속놀이를 급격히 쇠퇴시켰고, 그래서 오늘날 최소한의 전통적인 명맥을 잇고 있는 상황은 어디나 마찬가지일 것이다.

하지만 1990년대 이후부터는 전통문화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사회 전반에 걸쳐 새롭게 대두되기 시작했고, 특히 전통문화의 재창조, 혹은 전통문화의 현대적 계승이라는 모토는 국가나 지자체 차원에서 제도적으로 견인되고 있기까지 하다. 그래서 지역사회에서는 통합적으로 민속문화를 재생산하려는 양상도 나타난다. 즉 면민의 날, 지역축제, 도민체전, 향토문화재 지정, 민속예술경연대회 등의 행사나 제도가 그것이다. 뿐만 아니라 용인 서부지역에서 주로 나타나는 현상들, 즉 전통적인 양식이나 형태가 대체로 유지되긴 하지만 다양한 외적 요소가 가미된 현대화된 민속놀이, 또는 새롭게 창안된 민속을 소재로 하는 도심형 대동제 등이 그런 예에 해당한다. 이러한 양상은 단순히 전통적인 민속의 소멸이 아닌 새로운 문화 환경에 의해 대체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지난 우리의 문화를 돌이켜볼 때 새로운 문화의 유입과 정착에 따른 이러한 과정들은 오히려 자연스러운 문화현상이라 할 수 있겠다. 이는 마을 외적 상황에 대한 즉흥적 산물만은 아닌, 그동안 점진적으로 진행되어 온 결과로 새로운 문화 환경에 따른 필연적인 산물이며, 적응의 또 다

른 형태라 할 수 있다. 변화 속에 우리의 전통은 지속되고, 전통이 지속되는 가운데도 변화는 이루어지는 것이다. 본인은 이러한 변화상을 전통문화의 단절이 아닌 새로운 문화 환경에 따른 진화 과정으로 해석하고 싶다. 이는 민속문화의 전통성을 계승하면서도 새로운 문화요소들의 적절한 수용을 통해 시대의 변화상에 적절하게 부응하는 또 다른 민속문화의 온상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점을 주목하기 때문이다. 물론 불꽃놀이가 동원된 도심에서 열리는 정월대보름 행사가 과연 해당 마을의 고유한 민속문화인가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어떠한 형태로든 전통성 계승이라는 명목으로 마을에서 실현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본다. 또한 여기에서 간과할 수 없는 것은 21세기 디지털 시대의 한국사회에서 인터넷, 컴퓨터 등과 같은 매체에 의한 문화접변이 급속도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살핀다면, 마을과 마을민속에 미치는 파장 역시 이제는 변화라는 맥락에서 깊이 있게 성찰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민속문화의 올바른 계승방향은 과거만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방향성이 필요하다. 이제 과거의 문화만으로 민속문화를 세우려는 시대는 지나가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집중적으로 모여살고 있는 도시에서 만들어지고 전승되는 문화양태를 단지 유행과 비슷하다고 해서 방관할 수 없다. 그렇기에 어떤 것이 진정한 민속문화를 계승시킬 수 있는 것인가에 관심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민속문화를 향유하는 민중들의 생각과 현재의 문화적 흐름을 파악하고 이를 정리하는 것도 중요한 시점에 와있다고 생각된다.

〈참고문헌〉

『구성면지』, 용인문화원(1999)

『기흥읍지』, 용인문화원(2000)

『양지면지』, 용인문화원(2001)

『수지읍지』, 용인문화원(2002)

『모현면지』, 용인문화원(2003)

『포곡면지』, 용인문화원(2004)

『원삼면지』, 용인문화원(2005)

『백암면지』, 용인문화원(2006)

『남사면지』, 용인문화원(2007)

『이동면지』, 용인문화원(2008)

『수여지』, 용인문화원(2009)

공제욱, 〈일제의 민속통제와 집단놀이의 쇠퇴〉, 사회와역사, 2012

김난주, 송재용, 〈일제 강점기 향토오락 진흥정책과 민속놀이의 전개양상〉, 「비교민속학」 제44집, 비교민속학회, 2011

김문겸, 「여가의 사회학」, 한울, 1993

김장환, 〈용인민속의 변화양상〉, 「용인문화」 37호, 2016

신용하, 〈두레 공동체와 농악의 사회사〉, 「한국사회연구 2」, 한길사, 1984

연합뉴스(http://www.yonhapnewstv.co.kr)

용인시민신문(www.yongin21.co.kr)

용인신문(www.yonginilbo.com)

이필영, 〈일제하 민간신앙의 지속과 변화: 무속을 중심으로〉, 혜안, 2004

여 백

식경(食經)

이 명 수 (동두천문화원 부설 향토문화연구소장)

목 차

Ⅰ. 서론
1. 식경은 어떤 책인가
2. 식경의 현대적 의의(意義)
3. 음선정요(飮膳正要)
4. 인류(人類)의 음식
5. 가려 먹어야 할 음식
6. 우리 전통의 음식
7. 근대(近代)이후의 음식

Ⅱ. 맺는말

집필자
이 명 수 동두천문화원 부설 향토문화연구소장

Ⅰ. 서 론

음식의 역사는 곧 인류의 역사다. 음식은 곧 인간의 존재를 일차적으로 규정한다. 예로부터 선조들은 나라를 세우면 땅의 토신(土神) 사신(社神)과 곡신(穀神)을 모셔 평안과 풍요를 기원하는 풍년을 위해 만 백성이 배불리 먹고 편히 살 수 있기를 기원하였다. 과학 문명이 발달되면서 음식은 단순히 인간의 생명을 유지하는데 그치지 않고 인간의 사고(思考)에 까지 영향을 준다. 결국 어떤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 사람의 정신 세계도 달라진다. 인간의 문화 중 중요한 부분은 음식의 산물이다. 그래서 음식의 역사는 인간의 역사와 비례한다. 역사를 오래 간직한 민족은 다양한 음식을 가지고 있다. 음식은 날것과 익힘 그리고 발효라는 순서로 거쳐왔다. 그래서 발효식품이 많은 나라는 음식 문화가 발달한 곳이다. 한국의 된장과 간장 김치는 최상의 식품이다. 예로부터 여러민족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불로장생(不老長生)의 동경은 일상의 식생활속에서 그 소원을 실현하기 위한 길을 찾았다는 사실은 특히 주목되어야 한다. 선조들은 식생활이야말로 인간 존재의 기반을 이루고 있다고 생각하며 그것이 중국의 수많은 식경(食經)을 낳은 배경이 되어 우리나라까지 양향을 미쳤다. 온고지신(溫故知新)이란 옛말이 있듯이 옛것을 익히고 그것을 미루어 새로운 것을 알게 된다는 뜻이다. 우리는 식경을 통하여 먹는 일을 인간의 중대사로 생각하여 강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많이 먹어서 안되는 음식이나 단순히 맛있는 음식을 탐내는 여러 가지 금기나 계절과 음식물의 관례에 대해서도 알아야 한다. 음식을 즐기는 관점에서 출발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심신을 최고의 상태로 유지하여 건강하게 장수 할 수 있는가하는 토대에서 생각해야 한다. 바꿔 말하면 병이 걸린 뒤에 약 먹어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병에 걸리지 않는 식사 방법을 식경에서 말해 주고 있다. 식경을 참고로하여 현실에 맞게 이해하기 쉽게 서술하였다.

1. 식경은 어떤 책인가

경(經)이란 글자는 베에 날줄이라는 뜻에서 발전되어 법, 도리, 옳은길 등의 의미를 갖게 되었으므로 식경(食經)은 어떤 음식을 어떻게 섭취하면 좋은가 어떻게 하면 심신을 최고의 상태로 유지할 수 있는가 이같은 예방 의학적 관심과 그 해답을 기술한 양생(養生)의 고전(古典)이라고 할 수 있다.

1) 중국 고전의 식생활

주(周)나라 말기에서 진(秦), 한(漢)에 이르는 여러 유학자의 예(禮)에 관한 글을 모은 예기(禮

記)나 주례(周禮)또는 공자, 맹자의 언행록인 논어나 맹자를 비롯한 중국의 고전에는 식(食)에 관한 언급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 그 글들을 보아도 중국에서 식(食)을 얼마나 중시했는가를 알 수 있다. 그것은 예기의 예운편(禮運篇)에 나오는 무릇 예(禮)의 시초는 음식에서 시작된다는 말이나 서경(書經)의 홍범(洪範)에서 팔정(八政:나라는 다스리는데 필요한 여덟 개의 政)의 맨 첫 번째로 식을 꼽고 있는것도 명백하다. 또 맹자의 고자편(告子篇)에서는 식색(食色)은 성(性)이다 라고 하여 음식을 구하는 것과 여자를 좋아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이라고 까지 말하고 있으며 논어의 향당편(鄕黨篇)에는 다음과 같이 식에 대한 공자의 자세한 배려가 기술되어있다. 쉰밥이나 살이 물크러진 생선은 먹지 말라 색깔이 나쁜 것은 먹지 말라 냄새가 나쁜 것은 먹지 말라 익지 않은 것은 먹지 말라 간이 맞지 않은 음식은 먹지 말라 고기는 비록 많다하여 식욕이 나는데로 먹지 말라 몸가짐이 흐트러질 만큼 술을 마시지 말라 생강을 빼지 말고 먹을 것이며 많이 먹지는 말라 제사를 지낼때는 고기를 묵히지 말라 제사에 쓴 고기는 사흘을 넘기지 말며 사흘이 넘으면 먹지 말라 먹을 때 말하지 말라 반드시 이와 같이 하라고 했다.

2) 주례(周禮)의 천관(天官)

주례의 천관에는 식의(食醫)제도가 식에 의한 왕의 육식(六食)에 육음(六飮) 육선(六膳) 백수(百羞) 백장(百醬) 팔진(八珍)을 담당하는 사람 즉 왕의 영양관리를 맡은 책임자로서 그 일의 내용은 현대의 영양사에 해당된다. 주례에는 그 밖에 의사(醫師:내과의사) 양의(瘍醫:외과의사) 수의(獸醫)이름이 보이는데 식의(食醫)가 내과나 외과의사 등과 같은 범주로 다루어져 있을 뿐 아니라 그 보다도 윗자리에 놓여 있는 점이 흥미롭다. 이와 같이 중국인은 예로부터 먹는 일을 인간의 중대사로 생각하여 강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었다. 그래서 식사를 만드는데 필요한 재료나 조리법 또는 먹는법을 여러 가지로 연구해 왔다. 또한 본초(本草)나 음양오행 사상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여겨지는 여러 가지 금기나 계절과 음식물과의 관계 오장(五臟)과 오미(五味)의 관계 등 지극히 자세한 식생활 실천법에서도 알 수 있듯이 단순히 맛있는 음식을 탐내는 관점에서 출발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심신을 최고의 상태로 유지하며 건강하게 장수할 수 있는 것에 토대를 두고 있다. 다시 말하면 병에 걸린 뒤에 약을 먹어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병에 걸리지 않는 건강 식품 찾아 양보다는 질에 식사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3) 불로 장수에의 동경(憧憬)

불로장수의 동경은 예전부터 특히 한국 중국 일본의 여러 민족에 고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지만 중국인의 식생활속에서 그 소원을 실현하기 위한 길을 찾았다는 사실은 특히 주목되어야 한다. 그들의 식 이야기는 인간 식생활에 기반을 이루고 있다고 믿으며 그것이 수많은 식경(食經)을 낳는 배경이 되었다. 따라서 주례의식의 제도나 산해경(山海經)의 온갖 식이요법을 비롯하여 식에 관한 전문서도 풍부하다. 예를 들어 산해경에는 다음과 같은 흥미로운 문장들이 연이어 나온다. 남산경(南山經)이 기원은 작산(誰山)이라고 한다. 그 목부분을 초요(招搖)의 산이라하여 서해의 면해 있다. 거기에는 계수나무가 많고 금과 옥이 많다. 풀이 있는데 그 모습은 부추와 같고 푸른 꽃이 피며 이름은 축여(祝余)이다. 이것을 먹으면 배고픈줄을 모른다. 물고기가 있다. 그 모습은 소와 같고 산등성이에 살며 뱀꼬리와 날개가 있고 그것은 겨드랑이 밑에 있으며 울음소리는 얼룩소와 같다. 그 이름은 륙(鯥)이라 한다. 겨울에는 숨고 여름에는 나타난다. 이것을 먹으면 종기가 나지 않는다 뭍 짐승이 있다. 그 모습은 너구리같고 갈기가 있으며 이름은 류(類)라 한다. 이것을 먹으면 질투가 나지 않는다. 물속에는 적유(赤鯥)가 많은데 그 모습은 물고기 같고 사람 얼굴을 하고 있으며 목소리는 원앙과 같다. 이것을 먹으면 옴이 옮지 않는다. 물속에는 호교(虎蛟)가 있다. 그 모습은 물고기의 몸매에 뱀 꼬리를 붙여 놓은 것 같고 목소리는 원앙과 같다. 이것을 먹으면 종기가 나지 않고 치질에도 좋다. 이렇듯 고대 중국의 위생학과 예방의학이라는 당시 사람들이 어떤 음식을 어떻게 섭취하면 좋은가의 근거로 삼기 위해 쓴 책이라고 넓게 해석해도 좋은 것이다. 게다가 그 내용은 실리적인 면을 중시하여 다른 경서처럼 식사의 정신적 예절적 측면에 관해서는 거의 다루고 있지 않다. 또한 분초서와 구별하기도 어렵다. 그 이유는 중국인들이 음식물과 약을 본질적으로 같은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불로장수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식생활을 논한 책으로는 도교경전 등의 보생요록(保生要錄) 섭생찬록(攝生纂錄)등의 양생서(養生書)가 있다. 이 책들은 식경과는 다르지만 오히려 중국인의 식의 정신을 보다 여실히 보여 주고 있다.

2. 식경의 현대적 의의(意義)

1) 최고의 의학서 황제소문(皇帝素問)

중국 상고천진론(上古天眞論)을 보면 황제가 옛날사람과 요즘 사람의 수명이 다른 이유를 묻자 기백(岐伯)은 이렇게 대답한다. 옛날사람 가운데 그 길을 아는 자는 음양에 법도가 있고 먹고 마시는데는 절도가 있으며 일어나고 눕는 일이 규칙적이고 과로하지 않는다. 따라서 능히 건강한 신체와 정신을 갖추어 천수를 누린다 요즘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 몸은 술에 절고 생활은 불규칙하며 취하여 방사를 하며 그 정기를 고갈시킨다. 만족할 줄 모르고 때없이 신을 모셔 애써 마음

을 상쾌하게 하며 생(生)을 거역하여 즐기고 기거(起居)에 절도가 없다. 따라서 50살만 되면 노쇠한다. 건강하게 장수하려면 그 나름의 각오가 필요하다 또 사기조신대론(四氣調神大論)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봄의 석달을 발진(發陳)이라 한다 이 시기는 천지간의 모든 것이 소생하고 번성하는 때이다 밤에는 일찍 자고 아침에는 일찍 얼어나 정원이나 동산을 산책하도록 한다 머리카락을 느슨히 풀어 산다는 기분을 맛보게 한다 살아 있는 것을 죽이지 말라 주어진 것을 빼앗지 말라 칭찬하되 벌을 주지 말라 이것이 봄의 기운에 따르는 것이며 양생의 길이다 여기에 거역하면 간장을 헤치게 된다 여름에도 추워하고 곡식의 성장을 돕는자가 적다.

2) 여름 석달의 번수(藩水)

뜨거운 여름의 천지의 기운이 서로 왕성하게 하여 화합하며 만물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계절이다 밤에는 늦도록 일어나 있지 않고 아침에는 일찍 얼어나 긴 낮에 싫증을 내지 않도록 한다. 마음을 흥분시켜 화를 내지 않도록 하고 일을 열심히 하여 정력을 몸 밖으로 내보내야 하며 관심을 밖으로 향한다 이것이 여름의 기운에 따르는 것이며 성장을 돕는 길이다 여기에 거역하면 곧 심장을 상하게 된다 가을에 학질에 걸리며 수확을 돕는 자가 적다 그리고 겨울에 중병에 걸린다.

3) 가을 석달의 용평(容平)

하늘은 높고 기운은 성급하고 땅의 기운은 밝다 이때 일찍 일어나 마음을 평안히 갖고 형벌도 온화하게 한다 정신을 한곳에 모아 다잡고 가을의 기운을 평온하게 한다 뜻을 함부로 밖에 두지 말고 폐의 정기를 깨끗이 한다 이것이 가을의 기운에 따르는 것이며 수확을 돕는 길이다 여기에 거역하면 폐를 상하게 한다 겨울이 오게 되면 설사를 하게 되고 곡식을 저장하는 자가 적다.

4) 겨울 석달의 폐장(閉藏)

물이 얼고 땅은 갈라진다 태양도 계절에 따라 그것을 부드럽게 하지 못한다 일찍자고 늦게 일어난다 반드시 해가 뜬 뒤에 일어나야 한다 마음을 조용히 가지고 속으로 항상 만족해야 한다 추위를 피하여 따뜻한 곳으로 나아가고 피부를 드러내어 정기를 빼앗기지 않도록 한다 이것이 겨울의 길에 따르는 것이며 저장을 돕는 길이다 여기에 거역하면 신장을 상하게 한다 봄에 수족이 마비되고 곡식의 성장을 돕는자가 적다 이렇게 계절에 따른 양생법을 설명하고 있다. 또한 주례 천관(天官)의 식의(食醫)항목에서도 무릇 봄에는 신 것을 많이 먹고 여름에는 쓴 것을 많이 먹고 가을에

는 매운 것을 많이 먹고 겨울에는 짠 것을 많이 먹어야 한다고 씌어 있다.

5) 계절과 오곡백과의 오약(五藥)

의사는 만민의 질병을 고치는 자이다. 네 계절에 모두 유행하는 병이 있다 봄에는 두통이 있고 여름에는 옴이 있으며 가을에는 학질이 있고 겨울에는 기침 감기가 있다 오미(五味) 오곡(五穀) 오약으로 이 병을 고친다 상처를 치료할 때는 오독(五毒)으로 이것을 공격하고 오기(五氣)로 이것을 기르며 오약으로 이것을 치료하고 오미로 이것을 끊는다 이처럼 오미의 조화를 꾀하여 음식을 만드는데 얼마나 주의를 기울였는가를 설명하고 있다 섭생을 잘하는 자는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않고 쓸데없는 생각을 하지 않고 욕망을 자제하고 감정을 절제하고 원기를 아끼고 언어를 간단히 하고 득실을 가벼이 여기고 근심 걱정을 없애고 망상을 없애고 좋고 나쁜 것을 멀리하고 보고 듣는 것을 조절하고 마음을 굳게 하는데 힘쓰고 몸과 마음을 피곤하게 하지 않는다 몸과 마음이 편안하면 어찌 병환이 일어나겠는가 고로 섭생을 잘하려는 자는 굶주리기 전에 먹고 먹되 배부를 때까지 먹지 말라 갈증이 나기 전에 마시고 마시되 지나치지 말라 음식은 여러번 조금씩 먹고 한꺼번에 많이 먹지 말라 말하자면 포만속에 기아가 잇고 기아속에 포만이 있다 배부르게 먹으면 위를 상하게하고 굶주리면 곧 원기를 상한다 지나치게 먹으면 몸을 마음대로 움직일수 없고 소화되기 전에 누으면 곧 백가지 병을 얻는다.

3. 음선정요(飮膳正要)

음선정요에는 각각 식품의 종류나 먹는 방법에 관하여 주의해야 할 점이 자세히 적혀있으며 약과 음식을 동일시하는 사고방식이 드러나 있다 식경이나 본초서에 기록되어 있는 주의사항은 쓰러지기 전에 미리 지팡이를 짚는다는 입장에서 서있으므로 현대인의 감각에는 상당히 소극적인 생활방식으로 받아들여질지 모른다 현대인은 그칠줄 모르고 계속하여 욕망을 충족시키고 있으며 또한 욕망을 마음대로 키우는 것이야말로 적극적인 생활방식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전에 비하면 우리의 식생활이 질적인 면과 양적인 면에서 모두 향상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원인을 알 수 없는 많은 병들이 발생하고 있다 그것은 먹는다는 것의 본질적인 의미를 너무나도 등한시하고 업신여겨 왔기 때문이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야채보다는 고기를 즐긴다 고기가 몸에 좋지 않다고 하면서도 고기 소비가 날로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인간이 처음부터 고기를 즐긴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고기를 흔히먹을 수 잇었던 시기는 고작 1980년 이후다 흔히 서양사람들은 고기를

즐긴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서양사람들도 처음부터 고기를 즐긴 것은 아니다 인간이 고기를 즐기기 위해서는 고기 원료를 대량으로 사육한 뒤에야 가능하다 그냥 사냥해서는 고기를 마음껏 먹을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서양도 고기를 즐기기 시작한 시기는 겨우 중세말이다 그런데 본격적으로 고기를 즐기는 음식 패턴의 변화는 단순히 곡물과 야채에서 고기로 전환이 아니라 세계의 역사를 바꿔놓는 일대 사건이었다 이 시점에서 서양과 동양의 역사가 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1) 음식 섭취의 문제

어떤 음식을 섭취하고 어떤 음식을 피해야 하는가 또한 각각의 식품에 어떤 약효가 있는가 그 식품들은 어떻게 조리하여 먹으면 좋은가 중국 원(元)나라 세조(世祖)는 주례의 천관(天官)에 식의 제도가 있는 것을 토대로 음선대의(飮膳大醫)4명을 두고 독이 없어 함께 먹어도 되는 음식과 오래 먹으면 보익(補益)의 효력이 있는 식품을 골라 요리하게 했다 홀사혜(忽思慧)는 인종(仁宗) 이래 음선대의로 일했는데 그동안 요리한 진귀한 음식의 조리법과 여러 학파의 본초(本草)명의의 처방 매일 먹는 곡식 고기 과일 야채 가운데 몸을 보하는데 따위를 모아 3권의 책으로 묶어내고 음선정요라는 제목을 붙여 천력(天曆)3년에 문종(文宗)에게 바쳤다 책의 내용은 어떠한 식품을 섭취하고 어떠한 식품을 피해야 하는가 각각 식품에는 어떠한 약효가 있는가 그것을 어떻게 가려 조리하여 먹으면 좋은가를 기술하고 있다 이 책은 원래 어떻게하면 불로장수를 할 수 있는가를 목적으로 한 일종의 식료본초서이며 단순히 진귀한 요리를 나열해 놓은 것은 아니다 여기에 기대되어 있는 요리중에는 북방이나 서방의 요리도 섞여 있지만 대부분 예로부터 내려오는 본초서를 답습하여 당시의 미신이나 속설을 거기에 접합 시킨 것이다. 따라서 일반 민중사이에 전해 내려오는 신앙이나 습관 식생활을 알려주는 면에서도 재미가 있다. 중국에서는 돼지고기를 사용한 요리가 상당히 대중적인데 그것이 거의 등장하지 않고 양고기가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은 저자인 물사혜의 고향 및 원나라 회교의 관계 등을 생각해 볼 때 흥미롭다.

2) 중용(中庸)과 음양의 법칙

고대인들 가운데 그 길을 아는 자는 음양에 따르고 술수에 능하며 음식에 절도가 있고 일상생활에 규칙적이어서 함부로 몸을 움직이지 않는다 요즘 사람들은 일상생활이 불규칙하고 음식을 가릴줄 모르고 또 절제를 모른다 즐기고 좋아하는게 많고 맛있는 음식을 참하고 중용(中庸)을 지킬 줄 모른다 또한 신체를 최고의 상태로 유지할 줄 모른다 고로 40~50세에 병치레하는 자가 많다 무릇 안락의 길은 보양에 있고 보양의 길은 중용을 지키는데 있다 중용을 지키면 즉 지나치지

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으며 병이 없다 춘하추동의 네 계절에 음양의 병이 일어나는 자체의 지나침일까 필경 그 성질에 음양의 병이 일어나는 원인은 지나침일까 필경 그 성실에 적합지 않아서 강하다 그러므로 양생에 주의하는 자는 모두 과도한 소모로 인한 폐단이 없다 또한 능히 진원을 지키면 어찌하여 병이 몸안에 들어 올 것을 걱정하겠는가 식사도 제대로 못하며 약을 자주 복용하는 자는 보양을 잘하는 자만 못하고 보양을 잘하지 않고 또 약을 잘 복용하지 못하면 병이 날 수 밖에 없다 양생의 길을 아는 자는 음양에 법칙에 따르고 식사에 절도가 있고 일상생활도 규칙적이어서 함부로 몸을 피곤하게 하는 일이 없다 그러므로 장수를 누릴 수 있었다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 일상생활에도 절도가 없고 먹어도 좋은 것과 먹어서는 안되는 것을 판별할 줄도 모르고 또 절제에도 마음을 쓰지 않는다 식욕이 나는대로 맛있는 음식을 탐하고 중용을 지키지 않는다 중용만 지키면 절대로 병에 걸리지 않는다 춘하추동의 네 계절에 음양의 기(氣)가 병을 일으키는 것은 지나치게 먹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 보면 양생에 마음을 쓰는 사람은 과도한 소모에 의한 폐해를 입지 않는다 또 생명의 근원을 잘 지키면 외부에 있는 병의 원인이 몸안에까지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아무리 약을 먹어도 보양을 제일로 삼는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한다 또 보양에 마음을 쓰지 않을 경우는 약을 먹는 사람에게 미치지 못한다 보양도 하지 않고 또 약도 먹지 않는 요즘 사람은 곧 병에 걸릴 확률이 높다 섭생을 중요시하는 사람은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않고 쓸데없는 일에 신경쓰지 않고 욕망을 자제하고 희노애락(喜怒哀樂)의 감정에 빠지지 않고 정력을 축적하고 쓸데없는 말을 삼가고 이해득실(利害得失)만을 따지지 않고 근심걱정을 없애고 망상을 없애고 좋고 싫은 기분을 멀리하고 눈에 비치거나 귀에 들리는 것을 조절하고 마음속을 견실하게 하고 몸과 마음을 피곤하지 않게 한다 몸과 마음이 모두 편안하면 건강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3) 병을 피하는 건강법

섭생에 주의하는 사람은 배가 고프기 전에 먹고 먹을때도 실컷 먹지 않는다 또 목이 마르기 전에 마시고 마실 때에도 지나치게 마시지 않는다 식사는 한번에 많이 먹지 않고 여러번 나누어 먹는다 말하자면 배부름속에 배고픔이 있고 배고픔속에 배부름이 있다는 이야기다 지나치게 먹으면 위가 나빠지고 굶주리면 원기를 잃으며 지나치게 먹으면 몸이 뜻대로 움직이지 않고 누우면 여러 가지 병이 생기게 된다 뜨거운 것을 먹고 땀이 날 때는 바람을 쏘이면 안된다 근육에 쥐가 나고 머리가 아프고 눈이 침침해지고 걸핏하면 꾸벅꾸벅 졸게 된다 밤이 된 뒤에 음식을 많이 먹으면 않된다 누워서 선풍기 바람을 쏘이면 안된다 식사가 끝나면 따뜻한 물로 입을 헹구어 충치나 구치가 없도록 해야 한다 땀이 날 때 부채질 하면 안된다 밤중에는 걸으면서 노래를 부르거나 큰 소리

를 지르면 안된다 하루중에서는 저녁때를 조심하라 한달 중에서는 월말을 조심하라 지나치게 술을 마시면 안된다 일년중에 연말을 조심하라 먼곳에 가면 안된다 일생동안 삼갈 일은 불을 켜놓고 방사를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백일동안 약을 계속 먹는다 해도 하룻밤 푹 자느니만 못하다 자신의 본명(本命)일과 부모의 본명일때는 본명에 속해 있는 동물의 고기를 먹어서도 안된다 무릇 앉을때는 단정히 앉자 마음을 바르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설 때에는 마음과 자세를 바로하여 신체를 똑바로하지 않으면 안된다 서있을 경우 너무 오랫동안 서있으면 안된다 뼈에 무리가 가기 때문이다 앉아 있을 경우에도 너무 오랫동안 앉아 있으면 안된다 혈액순환이 나빠지면서 일어날 때 허리에 통증이 온다 너무 오랫동안 걸으면 안된다 근육이 상하게 된다 너무 오랫동안 누워있으면 안된다 기력이 빠지며 활동력이 없어진다 너무 오랫동안 물건을 보면 안된다 주의력을 잃게 된다 배부르게 먹은 뒤에 찬물로 머리감으면 안된다 중풍에 걸린다 눈이 벌겋게 출혈되면 절대로 방사(房事)를 피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장(內障)이 생긴다. 목욕한 뒤에 바람을 쏘이지 말라 피부에 나있는 구멍이 모두 열릴 뿐이다 나쁜 바람이 몸안에 들어가는 것을 피하라 높은 곳에 올라가거나 험한 곳을 밟거나 거마(車馬)를 바삐 몰면 안된다 정신이 흐트러지고 마음이 놀라고 혼백이 흐트러진다 대풍(大風) 대우(大雨) 대한(大寒) 대열(大熱)에는 출입을 함부로 하지 말라 입으로 불을 불어 끄지 말라 눈을 해친다 먼곳을 바라볼 때 너무 뚫어지게 보지 말라 안력(眼力)을 해친다 앉거나 누어서 바람을 쏘이지 말라 아래가 습해진다 밤에는 불을 켜지 말라 잠 잘 때 혼백을 지킬수 없다 낮에는 졸지 말라 원기를 해친다 먹을때는 말하지 말라 잠잘때는 말하지 말라 원기를 해칠 우려가 있다 화날 때 난폭하게 화를 내면 안된다 기력이 쇠하고 악성종기가 생긴다 상쾌한 아침에 소금으로 이른 닦으면 충치를 예방하고 잇병에 걸리지 않는다 끝으로 색(色)을 피하기를 화살을 피하는 것과 같이 하고 바람을 피하기를 운수를 피하는 것 같이 하라 즐거움을 그 주 한가지 추구해서는 안되고 욕망도 제멋대로 부리면 안된다 지금까지 가려서 나열한 이 모든 것을 우리의 일상생활에 해가 되는 것은 멈출줄 알아야 한다.

4. 인류(人類)의 음식 역사

음식의 역사는 곧 인류의 역사다 한반도에서는 기원전6000년쯤부터 빗살무늬 토기의 신석기문화가 싹트고 있었다 이때의 신석기인들은 고기잡이와 사냥을 주로하다가 후기에는 원시 농경생활로 점차 바뀌게 되었다 빗살무늬 토기인에 이어 북방 유목민들이 청동기를 가지고 이 땅에 들어와 원주민들과 어울려서 우리 민족의 원형인 맥족(貊族)이 형성되고 이들이 고조선을 만들었다 선사시대라 해도 구석기 시대에 대하여는 식생활에서 다룰만한 자료가 거의 없다 다만 고고학

의 도움으로 후기 구석기 시대에 타제석기로 자연물을 채취하여 음식을 만들었다는 사실을 이야기할 수 있을 뿐이다 구석기 시대에 이어 석기를 곱게 갈아서 만든 마제석기(磨製石器)와 흙을 빚어 구운 토기(土器)의 사용을 특징으로 하는 신석기시대가 계속되었다 이 시대의 초기 식생활은 수렵과 어업으로 이루어졌으며 특히 어업에 의존했던 듯 우리나라 남해안이나 서해안 중부 함경도의 북부 해안지방 등에서 많은 조개무지가 발견되고 있다 한편 신석기시대 후기에 이르면 우리 음식문화 형성의 발단기라고 할 수 있는 곡물생산이 시작되고 있었다 황해도 지탑리 유적에서 돌가래, 돌낫 등과 함께 탄화된 기장(피라고 보는 견해도 있음)으로 보이는 곡립(穀粒)이 발견되고 있는 것 이라든지 평안남도 궁산리 유적에서 원시적인 농경에 쓰였을 것으로 보이는 순록의 뿔로 된 괭이와 동물의 치아로 된 낫등이 발견되고 있음은 그 증거다 선사인들의 유적지인 조개무지에서 총31종의 조개류가 발견되고 도미,삼치, 상어등의 물고기 뼈와 고래, 바다표범, 물개등과 같은 바다 짐승의 뼈가 발견되고 있어 이들이 모두 식품으로 이용되었음을 말해 주고 있다 또한 육지의 야생동물들도 식품으로 이용되었으니 부산 동삼동(東三洞)이나 함경북도 농포동(農圃洞)조개무지에서는 사슴, 멧돼지, 노루, 고라니, 야생개, 산토끼등의 뼈가 발견되고 있다 이밖에 도토리, 밤, 마(薯), 칡뿌리등과 같은 야생식물의 열매와 뿌리도 발견되고 있어 대략 야생고기과 생선 채소의 3종류를 알려주고 있다

1) 식 생활사(史)

우리나라에서 벼의 재배가 시작된 것은 기원전1,500년에서 2,000년쯤부터이며 패총의 발굴로 어패류도 채취하여 먹었음을 알 수 있다 그 당시 우리 조상들은 곡식을 토기 시루에 술밥처럼 쪄서 먹었다가 나중에 토기솥을 만들어 물을 붓고 끓여서 죽과 밥을 지어 먹었다. 또 곡식을 돌절구나 맷돌에 갈아 가루로 만들어 토기시루에 쪄서 떡의 형태로 조리하기도 하였다 밀도 가루로 빻아서 국수나 수제비 같은 형태로 조리하였고 소금과 기름을 사용할 줄 알았다 중국의 문헌은 고구려 사람들이 장, 젓갈, 김치, 술같은 발효식품을 잘 만들어 식생활에 입맛을 돋우었다고 전한다 삼국시대에 들어와서는 철기문화가 발달하였으며 이에 따라 농경의 생산기술이 혁신되었고 벼농사도 크게 보급되었다 수렵은 쇠퇴하였으나 범, 소, 물소, 여우, 토끼, 이리, 비둘기, 까치, 꿩, 갈매기, 까마귀같은 짐승들을 먹었다는 기록이 있고 소, 돼지, 닭, 양, 염소, 거위, 오리들을 집에서 길렀다 우리 조상들은 농업과 목축을 시작하면서 음식을 끓여 먹었고 곡식을 저장하였으며 소금도 쓰게 되었다 도구도 자연석에서 철기나 청통기로 발달하면서 토기, 도자기, 금속 그릇이 생긴 뒤로 공동 취사와 함께 끓이는 법이 발달하였고 새로운 조리법이 생기기 시작하였다 삼국시대와 고려, 조

선시대를 거치는 동안 대륙의 영향을 받으면서 우리에게 맞는 조리법이 확립되었다 전통적인 한국 음식의 가장 모범적인 형태는 궁에서 상궁들에게 전해졌다.

2) 고대의 음식문화

먼저 날것으로 먹는 방식이 있었다 그러나 이때 날것으로 먹는 방식은 그 유적의 도구들로 미루어 통째로 먹기 보다는 썰거나 두들기고 절단해서 또는 가루로 부수어서 먹었음을 알 수 있다 또 하나의 조리법은 불을 이용했을 것이다 구석기시대의 주거지 상원읍이나 포전리 점말 동굴에서 난방장치가 발견되고 있어 구석기시대에 이미 불을 식생활에 이용한 것을 쉽게 추측할 수 있다 그러나 신석기시대의 집터에서 화덕이 발견되고 있고 화덕 주변에는 곡물과 함께 취사도구가 있어 굽거나 찌는 조리법을 가능케하고 있다 또한 곡물을 가는 갈돌이 발견되고 있어 곡물을 갈아 불에 익히는 조리법이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데 곡물을 갈아 많은 수분을 첨가하여 불에 익혔다면 이는 죽요리를 의미 한다 결국 죽은 우리나라 곡물 음식의 최초가 되는 셈이다 이 시대의 식생활은 철제농기구가 어느 정도 보급된 상태에서 벼농사를 비롯하는 농경이 성했으므로 식생활의 다원화 조리법의 발달과 식문화에 많은 변화를 가져 왔다.

3) 기호식품의 다양화

원 삼국시대에 있어 왔던 술외에 차(茶)가 새로운 기호음식으로 등장하게 된다 삼국사기에 따르면 차가 전래된 것은 신라27대 선덕여왕때이다 그러나 이때에 차는 중국 당(唐)나라때 들여온 것이다 차가 이 땅에 직접 재배된 것은 그 후로도 200여년의 세월이 지난 신라 흥덕왕3년(828)에 이르러서였다 통일신라시대로 오면 차에 곁들여 먹는 기호품으로 강정과 유밀과가 만들어졌다 강정은 당의 면견이 전례된 것으로 이때에는 전병이라 부르기도 하였다 유밀과는 그 본고장이 인도로 추정되는데 불교와 더불어 우리나라에 전래된 것으로 보인다 국(羹湯)의 등장은 통일신라사대의 문장가 인 최치원(崔致遠)의 글에 헛되게 밥만 먹으니 국에 맛을 조화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라는 구절이 보이고 있는데 우리 문헌에서 국(羹)에 관한 기록은 이것이 처음 인듯하다 고려시대에 크게 발달하여 그 종류가 다양해지면서 우리 음식의 대표적인 부식으로 뿌리를 내린 국은 바로 이 시대에 보이기 시작했다 장류(醬類)가 한층 발달하여 이를 이용한 저장식품이 고안되었고 젓갈을 이용하여 저장하는 방법도 고안되었다 이때의 저장 방법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것은 장빙(藏氷)의 시작이다 각종 기록과 유적에 남아있는 석빙고 등을 볼 때 결빙기에 천연빙을 채취하여 저장했다가 여름철에 저장하는데 사용하였다.

4) 고려시대의 음식문화

고려 왕조는 관료제도의 발달과 불교적 분위기의 심화를 그 특징으로 했던 시대다 식생활도 불교의 가르침에 따라 주로 채식을 강조하는 경향이 짙었다 그러다가 몽고로 부터 설렁탕이 들어오면서 차차 육식으로 변화되어 갔다 또 중국 원나라로부터 소주 상화(霜花)포도주, 후추, 설탕 등이 도입이 식생활에 적지않은 변화를 가져다 주었다 반면에 고려 음식이 원나라로부터 전래되기도 하였으니 고려병(餠)이라 불리우던 유밀과를 비롯하여 고려육 고려유령(乳領)등과 같이 고기를 기름에 튀기거나 지지는 요리가 그것이다 고려시대에는 다양한 곡류가 생산되었다 해동역사에 따르면 콩류로 특히 검은콩과 완두콩이 생산되었고 조는 생산이 가장 많았다 고 한다 이 시대에는 전쟁으로 굶주린 자가 많아 역사상 최초로 원나라로부터 강남미를 수입하기도 하였다 고려도경에 따르면 고려인들이 즐겨 먹던 수산물은 미꾸라지, 전족, 게, 새우, 굴, 조개, 소라, 해조 곤포 등이었다. 이 가운데 특히 새우잡이가 성하여 젓갈을 만들어 양반과 평민이 모두 즐겨 먹었고 게잡이도 성하였다 고려때 과채류의 오이, 가지, 무, 파, 아욱, 박 등 6가지 채소는 고려때 문장가 이규보(李奎報)자신이 그의 채마밭에 심어 식용하던 채소이며 이것이 이 시대의 주된 채소였다고 볼 수 있다. 이 밖에 더덕, 고사리, 송이버섯 등도 식용되고 있었음이 이 시대의 문헌에서 산견된다 과일로는 모과, 배, 오얏, 살구, 감, 대추, 밤, 복숭아, 앵두, 능금, 유자, 귤 등이 있었다 그리고 이 시대 말엽에는 홍다구(洪茶丘)에 의해 수박이 재배되기 시작했고 포도도 포도주를 담아 먹을 정도로 성하였다 가장 보편적인 기호품으로 오래전부터 있어 왔던 술이 이 시대로 오면서 매우 다양해지고 있다 한림학사들의 공동작품인 한림별곡(翰林別曲)에 등장하는 술만 예로 들더라도 잣술, 솔술, 예주, 댓잎술, 배술, 오가피술 등의 이름이 보인다 또 다른 기호품으로는 우유가 있었다 원나라 교류 이후 국가의 상설기관으로 우유 젖소가 생겨 이곳에서 우유를 공급했는데 이때의 우유는 주로 낙죽(酪粥)의 원료로 쓰였다 육유요리 설리자(雪裏炙)라 하여 소의 갈비나 염통을 기름에 양념하여 굽다가 반쯤 익으면 냉수에 담갔다가 다시 센불에 굽는 요리가 있었는데 주로 술 안주로 쓰였다 어육류인 생선 과육류는 계피같은 향신료에 각각 절여서 말려 저장했다 채소는 소금에 절였다가 채소가 없는 겨울에 먹었으며 무청은 간장속에 넣았다가 여름철에 먹었다 그 후 채소는 마늘, 생강 등 향신료를 넣어 소금에 버무려 두었다가 먹는 김치의 방법이 널리 쓰이기도 했다 밤은 질그릇에 넣어 흙속에 묻었다 이렇게 저장한 밤은 해를 넘겨도 손상없이 여름철에도 그 맛이 변하지 않았다고 한다.

5) 조선시대 음시문화

조선왕조는 유교를 국교로 했던 만큼 유교적 정치 윤리가 강조하는 사례(四禮)이며 그 중에서 조상에 대한 봉제사(奉祭祀)와 가족 제도에 따른 식생활이 크게 중요시 된 시대였다 또한 중인(中人)계급의 대두로 인한 상하층의 식생활 교류가 일반서민에게 까지 커다란 자극을 주었다 그런가 하면 외래 식품이 널리 전래 보급되어 식생활의 다양화를 가져왔다 특히 임진왜란을 전후하여 전래된 고추는 고춧가루로 가공되어 그 이전까지 담백미(淡白味)였던 우리 음식을 조화미(調和味)로 바꿈에 따라 한식(韓食)의 특성을 배가 시켰고 대표적인 부식인 김치를 완성시켜 주었다 3첩, 5첩, 7첩, 9첩, 12첩 등으로 구분된 첩수별 반상 차림이 정착한 것도 바로 이때이며 조선시대는 한식 완성기라 볼 수 있다 곡류의 종류는 고려시대와 크게 다를 바가 없으며 임금이 친히 경작하던 토지에서는 벼, 기장, 피, 당서, 팥, 콩, 보리, 밀, 수수 등 9가지 품목의 곡식을 심었다 그 후 중엽에 처음으로 옥수수가 옥청(玉淸)이란 이름으로 전래되었다 일상적인 부식으로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꿩고기 등이 주로 쓰였고 개고기가 여름철 보양식으로 크게 유행하였다 이밖에 말고기를 포로 만들어 먹었다 그러나 후기로 오면서 쇠고기 소비의 수요 격증과 쇠고기 편식(偏食)의 경향이 두드러지게 되었다 신중동국여지승람에 기록된 조선시대의 어류는 근50여개 종으로 현재 어획되고 있는 어류가 거의 망라되고 있다 특기할 사항으로 오늘날 즐겨먹는 명태가 조선조 중엽에 명천에 사는 태모(太某)라는 사람이 처음 잡아 그 이름을 명태라 했다는 것이다 또한 멸치 어업이 크게 성행하여 젓갈로 만들어져 새우젓과 함께 김치류에 들어 간것도 이때다 19세기 초의 문헌인 임원경제(林園經濟)에 따르면 아욱, 부추, 갓, 쑥갓, 평지, 시금치, 상추, 미나리, 순채, 어귀, 생강, 드릅, 고수풀 등 다채로운 채소류가 식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버섯류도 고려때의 송이버섯 외에 표고버섯, 석이버섯 등이 사용되었다 한편 이 시대의 중엽에는 우리 음식에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해 준 고추가 전래 되었고 토마토가 남만시(南蠻柹)라는 이름으로 호박이 호과(胡瓜)란 이름으로 각각 전래 되었다 또한 조엄(趙曮)에 의해 고구마가 감저(甘藷)란 이름으로 처음 이 땅에 들어왔고 조선 마지막 왕 순종때에는 감자가 북저(北渚)란 이름으로 전래 되었다 과일류는 고려시대부터 먹어오던 종류외에 효종때에 중국 빈과가 사과란 이름으로 전래되었고 건과류인 땅콩인 땅콩이 낙화생이란 이름으로 이우촌(李雨村)에 의해 이 땅에 들어 왔다 조선 후기로 오면서 현재와 다름없는 여러 가지 조리법을 볼 수 있다 곧 발효법인 술, 장, 초, 김치 굽는법 생선구이 고기구이 말리는법 어포 육포 곶감, 건율 찌는법 고기찜 생선찜 떡류 조리는 법 생선 연근 우영 조림 등과 같은 근채류 조림 볶는법 고기 볶음 나물볶음 지지는법 생선 나물지짐 화전 부꾸미 등과 같은 떡류 무치는법 나물 끓이는법 죽, 밥, 탕류 삶는법 수육 나물 경단 단자등과 같은 떡류 찌는법

기름류 가루를 내는법 깨소금 고춧가루 쌀가루 밀가루 등이 모두 이 시대에 이루어지고 있다 생선류는 말리는 방법외에 생선을 독에 넣고 소금을 뿌린 다음 땅에 묻는 염장법이 있었다 또한 육류도 말리는 법과 함께 연기에 쏘이거나 고기에 술을 뿌려 삶아서 묻는법 장에 묻어 두는법 등 다양한 저장법도 개발되었다 감, 밤, 대추, 등은 햇볕에 말려서 저장하였다 말린 과일은 형태와 맛이 본래의 과일과 크게 달라 그 이름도 곶감(柿諸), 율제(栗諸), 조제(棗諸)라고 달리 불렀다 고춧가루 보급으로 채소를 가공 저장하는 김장법이 지금과 같은 방법으로 정착되었다 이 시대에 있어서 김장은 1년의 식생활중에 가장 중요한 연중 행사였는데 그 시기는 농가월령가 10월조에 무, 배추, 김장하였다 시기는 음력10월이었다 그리고 김장독은 추위에 얼어 터지지 않도록 짚으로 싸서 땅에 묻거나 짚으로 삼각형의 가가(假家)를 지어 그 속에 한해 겨울을 견디기 위해 보관하였다.

5. 가려 먹어야 할 음식물

세상 만물에는 원래 독한 것이 있다 또 원래는 독이 없더라도 그것을 먹으면 체질에 맞지 않아 독이 되는 것이 있다 또 서로 궁합이 맞지 않아 한데 섞으면 서로 작용하여 독이 되는 것도 있다 사람들의 먹는 욕심에 부주의하게 알수 없이 이상한 것을 먹으면 탈이 나고 내장의 조화가 깨진다 .

1) 함께 섞어 먹지 않는 방법

요즘은 의학의 발달로 식중독에 걸리면 완쾌되었지만 예전에는 독성을 해독하는 약물이 없어 음식 섭취전에 예방하는 방법밖에 없었다 이상하면 살피고 해로우면 아예 입에 대지도 않았다 불편해도 항상 조심스러웠다 모르는 음식은 잡다하게 섞어 먹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였다 특히 섞어 먹으면 해로운 것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이것을 분별하여 피해라 했다 해로운 것에 의해 시식 경험이 후손들에게 식경을 펴낸 것이므로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 참고가 되었으면 한다.

육류 : 소고기는 밥과 함께 먹으면 안된다 말고기는 창미(倉米:창고에 있는 쌀)와 함께 먹으면 안된다 돼지고기는 쇠고기와 함께 먹으면 안된다 말고기는 창이(倉耳:엉거시 풀약재)이나 생강과 함께 먹으면 안된다 양의 밥통은 팥이나 매실과 함께 먹으면 안된다 돼지고기는 원유와 함께 먹으면 안된다 장에 탈이 난다 말젖은 생선회와 함께 먹으면 안된다 고라니는 새우와 함께 먹으면 안된다 고라니 비계는 매실이나 자두와 함께 먹으면 안된다 소의 간은 메기와 함께 먹으면 안된다 닭고기는 생선국과 함께 먹으면 안된다 징가를 생기게 한다 메추리 고기는 돼지고기와 함께 먹으면 안된다 얼굴에 검은 반점이 생긴다 메추리 고기는 균자(菌子:독버섯)와 함께 먹으면 안된다 야

생닭은 메밀 국수와 함께 먹으면 안된다 기생충이 생긴다 야생닭은 호두나 표고버섯과 함께 먹으면 안된다 야생닭의 알은 파와 함께 먹으면 안된다 기생충이 생긴다 참새 고기는 자두리와 함께 먹으면 안된다 달걀은 생파나 마늘과 함께 먹으면 안된다 원기를 해친다 닭고기는 토끼 고기와 함께 먹으면 안된다 설사가 난다 야생닭은 붕어와 함께 먹으면 안된다 오리고기는 자라고기와 함께 먹으면 안된다 야생닭은 돼지의 간과 함께 먹으면 안된다 잉어는 개고기와 함께 먹으면 안된다 야생닭은 메기와 함께 먹으면 안된다 정신이 희미해진다 붕어는 당(糖)과 함께 먹으면 안된다 붕어는 돼지고기와 함께 먹으면 안된다 전어는 메밀국수와 함께 먹으면 안된다 새우는 돼지고기와 함께 먹으면 정력을 해친다 새우는 닭고기와 함께먹으면 안된다 노란콩은 돼지고기와 함께 먹으면 안된다 기장쌀은 아욱과 `함께 먹으면 안된다 병을 일으킨다 팥은 잉어와 함께 먹으면 안된다 양매(楊梅:소귀나무 열매)는 생파와 함께 먹으면 안된다 감과 배는 개와 함께 먹으면 안된다 자두는 달걀과 함께 먹으면 안된다 대추는 꿀과 함께 먹으면 안된다 자두와 마름 열매는꿀과 함께 먹으면 안된다 생파와 꿀과 함께 먹으면 안된다 상추는 락(酪)과 함께 먹으면 안된다 죽순은 당과 함께 먹으면 안된다 여뀌는 생선회와 함께 먹으면 안된다 현채(莧菜:채소 비름)는 자라고기와 함께 먹으면 안된다 부추는 술과함께 먹으면 안된다 시화(시화과에 딸린 여러해살이 풀 잎은 두껍고 연하여 담배잎과 비슷한데 어린잎은 위장약으로 씀) 꿀과 함께 먹으면 안된다 염교(백합과에 딸린여러해살이 풀 비늘 줄기는 무릇 같은 풀로서 매운맛이 있어 절여서 먹음 염부추라고도 함) 소고기와 함께 먹으면 안된다 징가를 생기게 한다 겨자는 토끼고기와 함께 먹으면 안된다 부스럼이 생긴다.

2) 먹으면 독(毒)이 되는 것

모든 독은 위나 장의기를 어지럽히는데 그 정도가 가벼운 경우도 있고 무거운 경우도 있다 각각의 독에 의해 해를 입히는 것이므로 독에 따라서 그것을 해독해야 한다 만약 무엇을 먹거나 마신 뒤에 원인을 알 수 없이 기분이 나빠지거나 위가 메스꺼워지면 급히 고삼의 즙을 달여 마셔 먹은 것을 토해 낸다 혹은 무소뿔의 즙을 끓여 마시거나 식초 혹은 술을 따뜻하게 데워 마셔도 좋다 오이를 너무 많이 먹어 배가 팽팽하게 부풀어 올랐을 때 소금을 먹으면 낫는다 야채를 잘못먹어 독에 중독되면 감초즙이나 끓인 칡 뿌리즙을 마신다 또는 연가루를 물에 개어 마셔도 좋다. 표고버섯을 먹고 중독됐때에는 지장(地漿:황토흙을 물을 맑 가라앉힌 물)이 해독 시킨다 마름 열매를 지나치게 먹어 배구 붓고 속이 메슥거릴 때 따뜻한 술에 생강을 넣어 마신다 그러면 곧 아픔이 사라진다 여러 가지 잡고기를 섞어 먹고 중독되거나 소간을 먹고 중독되면 돼지 뼈를 태워서 가루를

낸뒤 먹어야 한다 소, 돼지고기를 먹고 중독되면 감초즙을 달여 마신다 개고를 먹고 소화가 안되어 배가 불룩해지고 입안이 마르면 행인(살구씨를 갈아 마심)을 씹어 먹어도 된다 생선회를 지나치게 먹어 충가(蟲瘕:회충이 덩어리로 뭉쳐 복통을 일으킴)를 일으키면 대황(여뀌과에 속하는 여러해살이 풀 뿌리를 건위제로 쓴다)의 즙과 진피의 분말을 끓인 소금물과 함께 마신다 오리알을 먹고 중독되면 참쌀 삶은 즙이 해독작용을 한다 달걀 먹고 소화 안되면 소주나 식초를 마셔야한다 소고기 먹고 중독되면 돼지비계와 연유(練油:달여서 진하게 만든 우유)를 온수에 타서 마시면 낳는다 돼지고기 먹고 중독되면 대황즙이나 행인즙 또는 박소즙도 모두 좋다 이렇듯 모든 독은 위나 장의 기를 어지럽히는데 그 경우가 가벼운 경우도 있고 무거운 경우도 있다 각각의 독에 의해 해를 입히는 것은 독에 따라 그것을 해독해야 한다 만약 무엇을 먹거나 마신 뒤에 원인을 알 수없이 기분이 나빠지거나 가슴이 메스꺼워지면 급히 고삼우 달여 마셔 먹은 것을 토해 낸다 일반적으로 음식물에는 각각 이로운 것과 해로운 것이 있으므로 그것들은 잘 알아서 피하지 않으면 안된다 무릇 음식은 잡다하게 섞어 먹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섞어 먹으면 해로운 것이 있기 때문이다 항상 싱싱하고 청결한 식생활이 기본이 되는 음식의 재료로 사용해 식단을 만들어야 한다.

3) 신농본초경(神農本草經)

신농본초경에서는 1년 365일에 365가지의 약을 다음과 같이 세 종류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상약(上藥)은 120가지이다 이것을 군(君)이라 한다 양명(養命)을 주로 하고 이로써 하늘에 호응한다 독이 없고 오랫동안 많이 복용해도 사람은 상하지 않는다 몸을 가볍게 하고 정력을 왕성하게 한다 무릇 불로장생을 바라는 자는 상경(上經)을 기본으로 한다 중약(中藥)은 120가지이다 이것을 신(臣)이라 한다 양성을 주로하고 이로써 사람에 호응한다 독이 없는 것도 있고 있는 것도 있다 그 적절함을 심사숙고해야 한다 병을 막고 허약한 체질을 보강하고 싶은 자는 중경을 기본으로 한다 하약(下藥)은 125가지이다 이것을 사(使)라 한다 병의 치료를 주로 하며 이로써 땅에 호응한다 독이 많으므로 오래 복용하면 안된다 추위와 더위의 사기(邪氣)를 제거하고 뱃속의 병 덩어리를 없앤다 병을 낫고자 하는 자는 하경을 기본으로 한다 이처럼 병에 걸리고 나서 치료를 위해 복용하는 약은 하약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어떻게 하면 병에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가를 생각했던 옛 중국인의 생활 태도를 알 수 있다 그리고 그 정신을 시기경에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다

4) 욕망(慾望)의 식생활

모든 것이 풍부한 지금 현대인은 그칠줄 모르고 계속하여 욕망을 충족시키고 있으며 욕망을 마음대로 키우는 것이야말로 적극적인 생활방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전에 비하면 우리들의 식생활이 질적인 면과 양적인 면에서 모두 향상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국민의 절반 이상 갖은 병을 갖고 있는 것은 어찌된 일일까 그것은 먹는다는 것을 본질적인 의미를 등한시 하고 업신여겨 왔기 때문이다 그러다가 예방의학 즉 병에 걸리지 않는 평소의 생활 태도에 겨우 관심을 돌리게 되었는데 이 예방의학이야말로 옛날부터 식경이나 본초서에 강조되어 있는 것이라고 말 할 수 있다 회남자(淮南子)에는 좋은 의사는 병의 징후가 없을 때 병을 치료한다 그러므로 병은 결코 생기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고 소문(素門)에는 다음과 같이 씌어 있다 성인(聖人)이라고 불리는 자는 완전히 발병해 버린 환자를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발병할 것을 미리 예측하고 선수를 쳐서 병을 치료한다 병에 걸린 뒤에 아무리 좋은 약을 주어도 이것이 이미 때늦지 않는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겠는가 의학의 장족의 발전을 보인 오늘날에도 자기의 몸과 마음을 관리하는 사람은 여전히 자기 자신이다 물론 식경에 엿보이는 사고방식중에는 오양오행사상을 관념적으로 적용시킨 것이나 당시의 민간신앙에 토대를 둔것도 많고 아무런 근거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항목도 심심찮게 등장한다 그것들을 진부한 미신으로 물리쳐 버리기는 간단하지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식(食)이 모든 것의 기본이라는 인식하에 식사 방법을 진지하게 생각한 옛 중국인의 자세를 배우는 일이다 식경은 또한 당시의 식품 종류나 요리 방법을 알려주는 귀중한 자료이기도 하지만 먹는다는 것에 대한 감격을 상실하고 병에 걸리면 약을 먹으면 된다는 안이한 사고방식에 젖어있는 현대인에게 반성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본초서와 더불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다.

5) 도서팔제경(道書八帝經)

도서팔경에 이르기를 겨울에 추위를 느끼고 싶지 않거든 천문동(天門冬)이나 복령(茯苓)을 가루로 만들어 복용하라 매일 복용하면 대한(大寒) 겨울에도 땀을 흘릴 정도이고 홑옷만 입고도 지낼 수 있다고 했다 포박자(抱朴子)에 이르기를 투자마라는 사람은 천문동을 먹고 있었던 덕분에 80명의 첩을 거느리고 자식을 140명이나 낳았으며 하루에 3백리를 달렸다고 한다 열선자(列仙子)에 이르기를 적송자(赤松子)가 천문동을 먹었더니 빠졌던 이빨이 다시 나고 빠졌던 머리카락이 다시 났다고 한다 신선복(神仙服)에 이르기를 태원의 감시라는 사람은 천문동을 먹고 있었던 덕분에 3백년을 살았다고 한다 수진비(修眞秘)에 이르기를 신선(神仙)이 천문동을 먹었더니 백일이 지나자 얼굴이 좋아지고 허약했던 몸이 튼튼하고 강해졌다 다시 3백일이 지나자 몸이 가벼워지고

3년째에는 달리는 모습이 마치 하늘을 나는 것 같았다 포박자가 이르기를 초문자(楚文子)는 8년간 지황(地黃)을 복용하고 있었는데 밤에도 환히 보이고 소레에 올라 활을 쏠 수 있었다 포박자에 이르기를 남양문씨는 난(亂)을 만나 곤산으로 도망쳐 들어갔는데 먹을 것이 없었다 그때 어떤 사람이 와서 출을 먹는법을 가르쳐 주었다 덕분에 굶어 죽지도 않고 고향으로 돌아 올 수 없었다 그때 어떤 사람이 와서 출을 먹는법을 가르쳐 주었다 덕분에 굶어 죽지도 않고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약경에 이르기를 장수를 누리고 싶으면 산정(山精)을 복용해야 한다 산정은 곧 창출을 말함이다 포박자에 이르기를 임계자(任季子)는 18년 동안 복령을 복용하고 있었는데 아름다운 선녀가 따르게 되고 얼굴에 윤기가 흘렀다 손진인침(孫眞人枕)씌어 있기를 복령을 백일동안 복용하면 만병이 사라지고 귀신을 자유자재로 부릴 수 잇고 4년 후에는 선녀가 와서 시중을 들게 된다 동화인진인자석경(東華人眞人煮石經)에 이르기를 순(舜)은 항상 창오산에 올라가 말했다 귀중한 향초를 캐고 있다지만 그것은 오가(五加)를 말함이다 이것을 복용하면 수명이 연장된다 옛날 노나라 정공의 어머니는 오가피주를 마시고 있었던 덕분에 장수를 누렸다.

6) 계절과 음식물

춘삼월 이것을 발진(發陳)이라 한다 천지가 생동하고 만물이 병성한다 밤에는 자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정원을 산책하고 산다는 기분을 맛보게 한다 산 것을 죽이지 말라 주어진 것을 빼앗지 말라 칭찬하되 벌하지 말라 이것이 봄의 기운에 응하는 길이며 양생(養生)이 길이다 이것에 거역하면 곧 간(肝)을 상하게 한다 여름에도 추워하고 농사일에 게을리 한다 봄의 기운이 따뜻하면 모름지기 보리를 먹어야 한다 서늘함과 따뜻함이 하나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뜻한 음식 및 뜨거운 의복을 금한다 하삼월 이것을 번수(蕃秀)라 한다 천지의 기운이 서로 왕래하고 만물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다 밤에는 자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태양을 맞이 한다 뜻을 굳혀 화내지 말 것이며 관심을 밖으로 향해야 한다 이것이 여름의 기운에 응하는 길이며 장수하는 길이다 이것에 거역하면 곧 심장을 상한다 가을에 학질에 걸리고 수확을 돕는 자가 적으며 겨울에는 중병에 이른다 여름의 기운이 뜨거우면 콩을 먹어야 한다 차가움과 뜨거움이 하나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뜻한 음식 포식 습지 젖은 의복을 금한다 가을의 기운을 평온하게 한다 그 뜻을 밖에 두지 말고 폐기를 맑게 한다 이것이 가을의 기운에 응하는 길이며 수확을 돕는 길이다 가을의 기운이 건조하면 마(麻)를 먹어야 한다 그것이 건조함을 습윤하게 하기 때문이다 찬음식 찬 의복을 금한다 이것을 폐장(閉藏)이라고 한다 물은 얼고 땅은 갈라지며 태양은 온화하지 않다 일찍자고 늦게 일어나면 따스한 햇빛을 가린다 뜻으로 하여금 엎드리는 것처럼 속으로 만족해야 한다 추위를 피하고 따뜻한

곳에 나아가며 피부를 드러내어 기를 빼앗기지 않도록 한다 이것이 겨울의 기운에 응하는 길이며 저장을 돕는 길이다 겨울에 기운이 추우면 모름지기 수수를 먹어야 한다 수수의 뜨거움이 찬기운을 낮게 하기 때문이다.

7) 다섯가지 맛에 치우친 질병

매운맛, 짠맛, 쓴맛, 단맛, 신맛, 오미(五味) 어느 한맛에 편향된 식습관이 되면 건강을 해친다 다섯가지 곡식 쌀, 보리, 밀, 조, 수수 골고루 섞어 주식으로 하고 오채(五菜)) 무, 배추, 시금치, 오이, 호박을 부식으로 하여 오육(五肉)으로 영양 보충을 한다 오미의 맛을 느끼며 한가지 맛에 치우쳐 계속 먹게 되면 몸이 허하게 되며 질병에 걸리게 된다 매운맛은 기(氣)로 향하므로 기운이 없을때는 매운 것을 너무 많이 먹지 않도록 한다 짠맛은 혈(血)로 향하므로 혈액의 병을 앓고 있을때는 짠것을 먹지 말아야 한다 쓴맛은 골(骨)로 향하므로 뼈에 병이 있을때는 쓴 것을 먹지 말라 단맛은 육(肉)으로 향하고 있으므로 피부병이 있을 때는 설탕을 너무 많이 먹지 말아야 한다 신(辛)맛은 근(筋)으로 향하므로 근육에 병이 있을 때는 신 것을 먹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간장병에는 매운 것을 먹으면 안된다 멥쌀이나 소고기나 아욱 대추 등을 먹어야 한다 이렇듯 다섯가지 맛을 잘 조화시켜 먹으면 정력이 보강되고 원기가 왕성해진다 그러나 다섯가지 맛이 조화된 음식이라 해도 너무 많이 먹으면 안된다 너무 많이 먹으면 병이 생기고 적게 먹으면 몸에 이롭다 여러가지 음식을 골고루 매일 절도있게 먹는 것이 가장 좋다.

6. 우리 전통의 음식문화

식품을 조리하는 방법은 각 나라의 식생활 문화와 우리나라의 식생활에 차별성이 있는 것이다 그것은 그 나라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 조리 과정과 국민의 체질(體質)에 따라 전통음식이 자연스럽게 전해지는 것이다 식품은 여러 가지 조리 및 가공 과정을 통하여 음식으로 만들어져 식탁에 오른다 우리가 음식을 만들 때 사용하고 있는 조리 가공 방법은 오랜세월 동안 손에 익어온 경험적인 방법들이다 조리란 식품을 끓이거나 굽거나 찌거나 볶거나 튀기거나 하면서 조미(助味)하는 과정을 통하여 식품의 기본적인 특성을 향상시키고 먹기 좋은 음식을 만들어 식탁에서 표현하는 즐거움이다 선조때부터 우리나라 음식이 채소 반찬이 된 것은 불교의 영향력을 무시 할 수 없다 거의 모든 분야에서 영향을 끼친 불교가 우리의 식문화에 큰 영향을 끼쳤다 불살계의 원칙에 따라 육류 섭취가 엄격하게 금지된 불교에서 사찰 음식은 당연히 채소뿐이었다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조상님께 드리는 제삿상에 어류인 명태 말린 포(脯)가 등장하면서 쇠고기의 적(赤)까지 제사나 차례 상에 오르게 되었다 채식만 주로하다 단백질이 필요한 육류는 조상을 섬기다 우리 식탁에 오르게 되었다 육류는 중요한 단백질 급원식품으로 주로 포유동물에서 얻어진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은 쇠고기, 돼지고기이며 다음으로 닭고기가 식용으로 사용되고 있다.

1) 새해 첫날의 떡국

우리 민족이 예부터 지금까지 지키고 있는 명절의 의례적인 정월 초하룻날 조상에게 제(祭)를 올리는 차례상에 떡국을 빼놓을 수 없다 특히 명절에 해먹는 음식을 절식(節食)이라하고 4계절이 뚜렷하여 계절마다 신선한 재료로 새로운 맛을 내어 만들어 먹는 음식을 시식(時食)이라 한다 우리는 이 음식을 조상님께 천신(薦新)하고 그것을 자손들이 나누어 먹는 풍속이 있다 세(歲)음식을 장만하여 가족 이웃이 나누어 먹던 즐거움이 사라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우리 후손들이 전통을 이어가고 있다 차례상에는 메(제사때 신위에 올리는 밥)대신 떡국을 올린다 식사때에는 떡국과 특별히 준비한 음식을 함께 차려 다과상을 준비한다 정월 설날 음식으로는 떡으로 만들 수 있는 떡국, 떡만두국 떡볶음, 떡찜, 떡산적, 떡잡채 등이 있다 고기 음식으로는 갈비찜, 갈비탕, 사태찜, 생선찜, 편육, 족편지짐으로 녹두빈대떡, 각색전, 채소음식으로 삼색나물 등이 있다 떡국은 병탕(餠湯)이라 한다 어린아이에게 몇 살이라고 물을 때 떡국 몇그릇 먹었냐 라고 묻는다 이것은 우리나라 사람이면 누구나 정초에 꼭 떡국을 먹는다는 이야기다 근래에는 만두를 푸짐하게 빚어 함께 끓이는 떡만두국을 즐기고 있다 떡국을 맛있게 끓이려면 양지머리로 맑은 국물을 내고 어슷썰은 떡을 씻어 건져 퍼지지 않도록 끓인다 이때 꼭 청장(淸醬:진하지 않은 간장)으로 간을 맞추어야 제맛이 난다 충청도 지방에선 쌀가루를 반죽하여 가래떡처럼 길게 늘여서 어슷 썰어 떡국과 같은 방법으로 끓이는 생떡국이 있고 개성지방은 가래떡을 가늘게 비벼 늘여서 나무칼로 누에고치 모양으로 잘라 끓이는 조랭이 떡국이 유명하다 북쪽지방은 만둣국을 끓이거나 삶아서 초장에 찍어 먹는데 크기는 매우 크게 숟가락 모양으로 병시 만두를 빚으며 개성에서는 모자 모양으로 빚는다 만두는 속을 먹자는 만두요 송편은 껍질을 먹자는 송편이란 말이 있듯이 만두는 껍질을 얇게 해야 맛있다 쇠고기가 귀한 시절에는 꿩고기로 국물도 하고 다져서 생치 만두도 하였으나 요즘은 꿩은 귀하고 수입 쇠고기까지 들여와 조리하는데 부담감을 줄여 주고 있다.

2) 대보름(음력1월15일)음식

신라시대부터 전해 내려온 명절로 둥근달이 가득찬 날이라하여 한해 풍년을 기원하고 재앙과

액을 막는 제일(祭日)이다 정월14일 저녁에는 오곡밥과 묵은나물을 먹는다 또한 달을 보면 운이 좋다고 하여 달맞이를 하고 답교놀이를 하였다 어린아이가 봄을 타고 살이 여위는 것을 막기 위해 백집의 밥을 얻어다가 절구위에 앉아서 먹는 풍습도 있었다 또 새벽에 일어나 이름을 부르면 내 더위 사가라하며 더위 팔기를 하여 더위 먹지 않고 건강한 여름 나기를 기원했다 대보름날 새벽에 부럼과 귀밝이술 이라 하여 새벽에 밤, 호도, 은행, 잣, 땅콩 등을 깨물면서 일년 열두달 무사 태평하고 종기나 부스럼 나지 않게 해 달라고 축수하며 깨무는 딱 소리에 잡귀가 물러 간다고 했다 이것을 작절(嚼癤)이라고 하며 치아를 단단히하는 방법(固齒之方)이라고도 한다 대보름나 아침에 웃 어른께 데우지 않은 청주를 드시게 하여 귀가 밝아지길 바라며 또한 일년내내 좋은 소리듣기를 기원하였다 정월보름 전날에는 붉은 팥으로 죽을 쑤어 먹는다 붉은 색이 악귀를 좇는 색깔이기 때문에 팥죽을 숟가락으로 떠서 끼얹고 제사를 지낸다 이러한 내용의 기록은 형초세시기(荊楚歲時記)에 기록되어 있다 또한 찹쌀, 찰수수, 팥 각각 2되씩 차조와 대추가 1되씩 콩5홉을 섞어 밥을 지어 먹는다 시루에 찌거나 냄비에 앉혀서 뜸을 충분히 들여야 촉촉한 잡곡밥이 된다 약밥의 유래는 열양세시기(列陽歲時記)에 보면 신라 소지왕(炤知王)10년 정월보름날 왕이 경주 남산의 천천정(天泉亭)에 거동하였을 때 까마귀떼로 부터 좋지 않은 일이 있다는 글을 전해 받고서 환궁하였다 까마귀 덕분에 역모(逆謀)를 꾀하던 무리들을 미리 처치 할 수 있다하여 정월대보름을 오기일(烏忌日)로 정하고 검은 색을 띤 약밥을 지어 제(祭)도 지내고 까마귀에게 먹이로도 주었다는 내용이다 약식은 찹쌀을 물에 충분히 불려 고두밥을 쪄서 대추살 황률 불린 것 꿀 참기름 진장 흑설탕에 버무려 시루나 질밥통에 넣어 뭉근한 약한불에 오랜 시간을 두고 찐 것이다 다 쪄지면 위에 잣으로 고명을 얹는다.

3) 추석 한가위(음력8월15일)음식

설날과 함께 우리 민족의 2대 명절로 이때쯤에는 햇곡식이 익을때이므로 이 햇곡식으로 송편을 빚어 먹는다 8월 보름날을 한가위 추석(秋夕)또는 가배일(嘉俳日)이라 하여 정월 명절과 더불어 큰 명절이다 이달에는 추분(秋分)이 들어있고 농사일도 거의 끝나고 햅쌀과 햇과일이 나오기 시작한다 하늘은 높고 날씨는 쾌청하여 예부터 더도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라는 옛말이 있다 이날은 햅쌀로 밥도 짓고 송편도하고 술도 빚어 신도주(新稻酒)라 하여 조상께 수확의 기쁨을 추석 차례로서 알린다 새옷차림으로 차례를 지내고 음복하고 음식을 이웃과 나누어 먹은 다음 집안 식구와 성묘도 간다 저녁에는 식구들이 평상에 둘러 앉아 둥근달을 보며 담소하고 남쪽지방에선 강강술래를 부르며 춤을 춘다 추석의 차례 음식으로 정월 차례때의 떡국 대신 햅쌀밥과 편대신

송편을 놓는다 주(酒), 과(果), 포(脯), 탕(湯), 적(炙), 혜(醯), 나물(菜), 침체(김치)청장을 정해진 굽이 있는 제기에 담고 위치는 가풍이나 지방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차린다 8월의 시식으로는 토란이 많이 나는 계절이므로 토란국을 끓여 먹기도 한다 이밖에 햇버섯, 도라지, 쇠고기, 등을 갖은 양념하여 볶아 꼬챙이에 꿴 화양누르미 살이 오른 닭으로 만든 닭찜 등도 만들어 절식으로 삼는다 그 외 즐겨 먹던 국종류와 찌개, 찜, 종류를 보면 국 종류는 된장국, 콩나물국, 맑은장국, 토장국, 곰국, 냉국이며 찌개 종류는 된장찌개, 김치찌개, 고추장찌개, 두부찌개, 젓국찌개, 요즘 흔히 즐겨먹는 전골을 보면 낙지전골, 버섯전골, 신선로 등이 있다 찜 종류는 육류찜, 부개찜, 어패류 찜 채소루찜, 선은 가지선, 오이선, 애호박선, 어류선, 구이는 육류구이, 생선구이, 더덕구이, 김구이, 적은 산적과 누르미 편육, 졸편, 나물숙채, 생채, 잡채, 포, 육포, 어포, 젓갈, 어패류 젓, 알젓, 아가미젓, 김치, 배추김치, 보쌈김치, 총각김치, 겉절이 김치, 깍두기, 동치미, 파김치, 갓김치, 두릅김치 등이 가정에서 담거나 유가공으로 만들어지고 있다 우리 민족이 예로부터 지금까지 지키고 있는 명절의 행사는 농경 의 례적인 시절에 따라 지켜지는 세시풍속은 대단한 가치가 있다 한국 풍습의 민족의 제전과 관계되는 것이 대부분이다 이것은 한해에 살아가는데 생활의 단조로움에 활력을 불어넣는 역할을 해왔다 제 음식이 가족과 이웃이 나누어 먹던 즐거움이 사라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우리 민족이 풍류있는 정서적인 민족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이러한 풍속을 이어받아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간절하다.

7. 근대(近代)이후의 음식문화

나라에 주권이 있는 것처럼 음식에도 주권이 있다 외부 음식의 영향을 받아 우리 음식의 본질이 바뀌는 것이 음식 주권의 상실이라면 외국 음식을 흡수 소화해 우리 것으로 진화 발전시키는 것은 음식의 주권 회복 내지는 확립이다 개화기로 오면 서양화 물결이 거세지면서 우리 음식은 서양 음식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된다 이즈음 확대된 일본 세력 아래서 생활의 핍박의 서민의 식생활을 곤궁으로 몰아갔다 식생활의 궁핍화는 그 후 1910년부터 1945년까지 일본의 식민지로 태동하기 시작한 서양 음식과 서구식 영양론이 점점 한국내에 퍼지기 시작하였다 또한 일본인에 의해 가공식품이 제도되어 식생활 범위가 확대되었다 일본의 지배로부터 벗어난 광복 직후부터 식생활은 최악의 극빈상태에서 발발한 한국 전쟁으로 굶주림을 면하기 어려운 생활이었다 이에 국가에서는 서구로부터 원조 물자 보리혼식 분식장려 등으로 식량난 해결에 박차를 가하였다 1960년대에 이르러서는 식량난 해결에 주안점을 두는 한편 국민 영양에도 관심을 두어 식생활 개선이 촉진되었다 그러나 이때에 식생활 개선은 서구식 식습관을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는 문제점을 야기 시켰다.

1) 육류

육류는 중요한 단백질 급원 식품으로 주로 포유동물에서 얻어진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식용하고 있는 것은 쇠고기, 돼지고기이며 다음으로 닭고기, 개고기 등이 식용되고 있다 고기의 종류에 따라 성질과 성분 함량은 서로 다르다 근육 조직은 고기중에 가장 중요한 식용 부분으로 근육 조직은 아주 복잡한 구조로 마이오신(myosin)과 악틴(actin)의 단백질 분자들이 회합하여 길이가 수mm~3.4cm정도이고 직경이 평균60cm인 근원성 섬유를 만드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며 계속하여 약2,000개의 근원 섬유는 근육을 만들며 이것은 건(腱)에 의해 뼈에 부착된다 악틴과 마이오신(myosin)의 근사상체는 근육의 수축과 이완이 매우 중요하다 얇은 악틴 사상체는 마이오신 사상체 부분과 간단하게 결합하여 악토마이오신 복합체를 형성하여 서서히 근절의 중앙으로 이동해 들어오면 근절은 길이가 짧아지면서 수축하게 된다 또 반대로 악토마이오신의 근사상체가 서로 떨어지게 되면 근절의 길이가 길어지면서 이완되게 되나 근육 조직은 4분의3이 수분이며 단백질이 18% 함유되어 있고 지방이 4~10%그리고 소량의 글리코겐포도당 등과 극히 소량의 비타민 무기질이 함유되어 있다 고기의 비장은 세포의 원형질에 침착되어 있으며 지방이 크게 침착되어 있는 것을 지방 조직이라 한다 지방 조직중에 존재하는 조성지방산은 단백질 함유하는 물질로 그 외 콜레스테롤 당지질, 인지질도 함유되어 있다 주로 이들 성분에 존재하고 있으며 고기의 다즙성(多汁性)과 풍미에 매우 중요하다 인지질은 반응성이 높아 고기를 저장하고 조리하는 과정중에 산화되므로 인지질이 존재하면 산화적인 산패가 빨리 진행 된다 특히 쇠고기 지방이나 연령이 많은 동물 지방보다 낙농 제품에 많이 함유되어 있어 색이 더 진하다 고기의 사후 강직이나 숙성은 살아있는 동물의 근육이나 도살 직후의 고기는 연하지만 도살 후 수시간 경과하면 단단해지는 강직현상이 일어 난다 사후 강직중의 고기는 질기고 맛이 떨어지며 가열시에는 육즙이 많이 유출되어 더 질기고 맛이 떨어진다 사후 강직의 정도는 동물의 종류와 살아 있을 때의 생리 상태 도살방법 등에 따라 다르다 일반적으로 소는 12~24시간후 돼지는 2~3일후 닭은 6~12시간 후에 일어난다 강직된 고기를 냉장해 두면 서서히 연해지고 맛이 좋아진다 이와 같은 현상을 숙성이라 한다 숙성 과정중에 근육에 존재하는 단백질 분해 요소인 저분자 상태의 팹타이드나 아미노산이 생성되어 맛과 풍미가 좋아지며 숙성 과정에서는 PH가 상승되면서 조리 가공성이 높아지며 조리시 육즙의 손실량이 적어 연하고 부드러운 상태로 된다.

2) 조미료를 사용하는 방법

고기의 조리 방법으로는 습열 조리 방법과 건열 조리 방법이 있으며 습열 조리 방법으로는 편

육, 장조림, 탕, 찜 등이 있다 이들은 충분한 물로 사용하여 콜라겐을 젤라틴화 시키는 것이 주된 조리 원리다 건열 조리법으로 만든 음식으로는 구이, 튀김, 전 등이 있고 이 방법으로 조리하는 고기는 경합 조직의 양이 적은 연하 부위를 사용 한다 또한 건열 조리법의 한가지로서 전자레인지를 사용하는 방법도 있다 전자레인지로 고기를 요리하면 표면색이 회백색으로 좋지 않게 되나 전자레인지용 필름으로 싸서 가열하면 색 풍미와 기호성 등이 증가 한다 베이컨은 지방 함량이 높기 때문에 전자레인지로 가열하면 매우 좋으며 또한 이미 조리된 고기를 전자레인지로 재가열하면 재래식 오븐에서 재가열 한 것보다 풍미와 택스처가 더 좋다 우리나라에서는 소의 부위별 고기를 적합한 조리법으로 각종 조리가 매우 높은 식품이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각종 생선을 이용하여 만든 저장 발효식품인 젓갈류의 제조법이 일찍부터 개발되어 다양한 젓갈류가 제조되어 왔다 특히 고기에 소금을 약간 가해주면 보수성이 증가하고 가열시에 일어나는 중량 손실량도 적다 그 이유는 근원섬유 단백질이 염용해성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염도가 15%이상으로 높아지면 탈수되어 오히려 더 질겨진다 설탕은 단백질의 열응고를 지연시키는 효과가 있으므로 고기에 가해 주면 고기를 연화 시킨다 그러나 고기는 완충효과가 매우 크므로 약간 산성화 시키려 하여도 상당량의 산을 첨가해 주어야 하며 산성인 과즙이나 토마토 주스 등을 가해 주면 효과가 좋다.

3) 어육(魚肉)의 조성(組成)

육류와 마찬가지로 생선도 근섬유가 집합되어 이루어진 근육부분이 식용되고 있으며 구조는 근섬유의 길이는 짧고 육지질 단백질이 많아 육류보다 연하다 또 꼬리 부분 가까이에 있는 중앙부분의 상하 등 부분과 배부분이 결합하는 곳에 암적색의 혈압육이 있으며 이에 대해 보통의 색을 가진 부분을 보통육이라 한다 참치, 고등, 전갱이, 등 붉은 살 생선에 혈합육이 많으며 대구, 광어, 가재미 등 흰살 생선에는 적다 혈합육에는 헤모글로빈이나 미오글로빈의 함량이 높으며 특히 운동성이 활발한 생선이 많다 오징어 근육에는 횡문이 없고 평활근으로 되어 있으며 직경이 5m정도인 근섬유가 평행으로 나란히 몸통을 돌면서 층을 이루고 있다 보통 어육중에 단백질 함량은 평균 15~20%이며 오징어의 경우는 근형질 단백질은 적은 반면 근원 섬유 단백질이 많다 상어에는 육가질 단백질이 다른 생선보다 많으나 육류에 비하면 훨씬 더 적고 근형질과 근원 섬유 단백질이 확실히 더 많아 육류보다 부드럽고 연하다 생선의 지방은 붉은 살 생선보다 더 많으며 산란후에 가장 적다 어유는 육류지방에 비하여 옥소가 높고 융점이 낮은데 옥소가 높은 이유는 고도의 불포화 지방산 함량이 높기 때문이며 그 때문에 공기중에서 쉽게 산화되어 빨리 산패된다 생선도 육류와 마찬가지로 사후에 강직 현상이 일어나며 사후1~4시간에서 최대 강직 현상을 보인다 생선

은 사후에 산소 공급이 정지되면 근육중의 글리코겐이 효소의 작용으로 젖산으로 분해되어 그 함량이 80% 이하로 되면 강직되기 시작한다 생선의 조리법은 생선회, 구이, 조림, 찌개, 탕, 튀김, 전유어 등이 있다 저장된 식품으로는 건어물 냉동어 젓갈 등의 형태가 있고 또 통조림, 소시지, 훈제품, 어묵 등의 가공품 등이 있다 생선회는 생회나 숙회가 있으며 생선회는 신선한 생선을 사용하여 섬유와 직각 방향으로 썰어서 먹는 것으로 반드시 오염되지 않은 것이어야 하고 위생적으로 조리되어야 하며 만일 위생적으로 불안한 것이면 전분가루를 씌워 끓는 물에 데쳐내는 숙회로 이용한다 생회는 소화율이 가열된 것보다 높으며 잉어의 경우 삶는 것의 소화시간은 2시간45분인데 비하여 생회는 15분이다 주로 농어, 잉어, 도미, 광어, 전복, 새우 등을 생선회 재료로 이용한다 생선을 조림할 때는 각종 양념으로 조미하되 생강이나 술을 넣어 비린 냄새를 줄인다 또한 뚜껑을 열고 가열하여 비린 냄새를 없앨 수 도 있으며 조미한 액을 끓이다가 생선을 넣어주면 표면 단백질이 변성 응고되기 때문에 국물이 탁하지 않고 생선의 모양도 부스러지지 않는다 생선구이는 생선중량에 2~3%의 소금을 뿌려 절여서 물을 뺀 다음 뜨겁게 달군 석쇠나 후리이팬에서 구워내는 방법으로 이때 소금에 의해 생선 단백질이 변성 응고되어 모양이 그대로 유지되며 굽기 전에 물에서 한번 씻은 다음 구우면 소금중의 CI성분이 생선의 비린 냄새와 결합하여 물에 용출되어 씻겨나가므로 생선의 비린 냄새가 다소 감소된다 생선 튀김이나 전유어는 생선에 밀가루나 전분가루로 옷을 입힌 다음 기름에 튀기거나 지져내는 것으로 특히 튀김의 경우에는 기름의 색과 거품들의 변화를 유의하면서 튀겨주어야 한다 튀김 온도와 시간은 생선의 종류와 크기에 따라서 다르나 대체적으로 180도 내외에서 2~3분간이면 충분하다.

4) 젓갈 어패류

내륙지방에서는 농경업이 크게 발전하고 있었던 시대였지만 해안지방에서는 여전히 어로가 성행하고 있었다 그 종류를 보면 조개류로 해진안 댐 조개 새꼬막 긴고등어, 전복, 홍합, 국자가리비, 피뿔고 등 두드럭고등, 살고등, 다슬기, 우렁이 새우 등이 었었고 생선으로는 도미, 삼치, 조기, 모래무지, 농어, 복어, 가자미, 전어 등이 있었다 우리나라에서는 전통적으로 각종 어패류로 젓갈을 담아 저장성을 높여 사계절 내내 음식으로 사용하였다 젓갈은 어패류에 20%내외의 소금을 가하여 발효 숙성시키면서 부패를 방지한 식품으로서 발효와 소금을 가하여 정중 원료 자체내에 있는 효소의 작용으로 어패류의 육질이 분해하여 각종 분해 산물들이 생성되어 조화된 풍미를 내는 발효식품이다 또한 곡류나 누룩류를 부원료로 하여 발효시킨 식해류도 있다 젓갈류 중 주로 많이 사용된 것으로 멸치젓, 새우젓, 황새기젓, 갈치젓, 굴젓, 전어젓, 명태, 아가미젓, 게젓, 명란

젓, 소라젓 등이 있다 젓갈의 발효 숙성과정에서 관여하는 미생물로는 멸치젓의 경우와 새우젓의 경우에는 다양한 미생물이 젓갈류 발효에 관여한다 각종 젓갈류의 일반성분 함량은 8대8로 같이 단백질과 조화분의 함량이 높으며 숙성 과정 중 TMA의 함량이 증가하고 총 유리 아미노산량은 젓갈을 담근 후 계속증가하여 62~82일 사이에 최고량에 달한 후 차츰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5) 채소 과일 미량 성분 구조(構造)

채소와 과일은 식물의 식용 부분으로서 식물 전체가 식용되거나 또는 일부분이 식용되고 있다 채소 과일의 특색은 수분 함량과 섬유질이 풍부하고 미량 성분으로서 비타민, 무기질과 색, 맛, 향기 성분을 함유하고 있는 반면에 단잭질 지질의 함량이 극히 적은 점이다. 미량 성분중 무기질료는 ca.k가 많은 알카리성 식품이며 비타민 .B1.B2도 많이 함유되어 좋은 비타민 공급원인 동시에 독특한 색과 향을 주어 음식의 기호성을 높여 준다 식물은 크게 뿌리와 줄기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뿌리는 땅속에 줄기는 공기중에 있으며 줄기에는 꽃과 잎이 붙어 있고 과일은 꽃에서부터 형성된 것이며 또 줄기가 땅속에서 자란 감자와 같은 덩이줄기로 되어 있다 식물의 조직은 기본 구조 단위인 세포로 이루어지며 조직은 표피 조직 유관조직 기본조직 세가지 형태가 있다 표피세포는 연속적으로 층을 이루면서 줄기잎 과일의 보호표면을 형성하여 고도의 소수성인 지방선 중합체로 이루어져 있다 형성된 각질층은 과일과 채소의 수분이 손실되지 않도록 보호해 준다 채소와 과일을 가열 조리하면 택스쳐의 변화가 생긴다 나물을 무칠때에 녹색채소를 삶아 데쳐내어 만들게 되는데 데칠 때 물의 양은 채소 중량의 5배로 하며 1~2%의 소음을 넣어 주고 뚜껑을 덮지 않고 데쳐 낸다 조리할 때 설탕을 넣어 주면 먼저 세포질막의 선택적인 투과성이 없어질때까지 삼투 현상에 의하여 물이 탈수 된다 채소를 넣고 국이나 찌개 등을 만들때에는 국물에 채소의 맛이 용출되게 하는 것이므로 표면적을 크게 해 주는 것이 요령이다 또한 오래가열하는 채소류는 표면적으로 크게 해 주어야 하며 국물에 간하여 조미 성분의 농도도 채소의 생리식염수 농도인 1%정도로 해 주는 것이 좋으나 조리의 목적에 따라 맞추어 준다 조미 성분의 농도를 높게 하여 표면안을 조미하는 경우와 묽게 하여 맛을 식품의 중심부까지 침투시켜 조리하는 방법 등이 있다.

6) 올바른 식생활

60년 전만해도 보리 이삭이 필 무렵이 되면 식량이 떨어져 가난한 사람은 끼니를 잇기가 어려웠고 심지어 굶는 사람도 많았다 산이나 들에서 나물을 캐다가 곡식을 약간 넣고 물을 많이 부어 멀건 죽을 쑤어 먹으면서 보리가 날 때까지 근근히 연명한 시기를 보릿고개라 한다 그러나 이제

는 보릿고개란 이미 옛날 아야기가 되어 버렸고 먹을것이 풍부한 오늘날에는 영양소의 과다(夥多) 섭취가 오히려 문제가 되고 있다 패스트푸드나 인스턴트식품이 보급됨에 따라 지방을 지나치게 섭취하는 반면 비타민, 미네랄, 칼슘 등 건강을 유지하는데 꼭 필요한 영양의 과다 섭취나 편중된 섭취가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중국에는 옛날부터 올바르게 식사를 하면 병들지 않는다 병은 식사로 바로잡고 그래도 낫지 않을때는 약을 쓰면 된다는 이른바 의식동원(醫食同源)의 사고방식이 전해 내려오고 있다 그리고 고대 그리스 의학의 시조인 히포크라테스도 음식으로 고치지 못하는 병은 의사도 고치지 못한다고 말한 것처럼 그야말로 동서양을 가리지 않고 옛날에는 음식으로 병을 고쳤다 것을 알 수 있다 인간의 체질과 신체는 지난날의 식생활과 직결된다 이를 테면 태아의 건강은 어머니의 식생활 방식에 의해 좌우되고 학령기의 상태는 영유아기때의 식생활로 연관되어 있다 따라서 임산부는 태아의 건강한 발육은 양질의 단백질 칼슘 철분이 많이 함유된 음식물을 섭취해야 하고 생후6개월 이후의 영양기에는 모유에 부족한 철분 칼슘 등의 영양소를 이유식을 통해 공급해 주어야 한다 만1세부터 만6세까지 영유아기 후반에는 심신의 큰 변화와 함께 두뇌발육이 왕성 할 때 이므로 두뇌의 세포성장을 돕는 단백질 비타민 지방 등의 영양소를 많이 섭취하도록 해야 한다 학령기에는 골격과 근육이 성장 발육하는 시기이므로 신체 구성 성분과 활동에 필요한 양질의 단백질과 비타민 당질 무기질 지방 등의 영양소를 충분히 공급해 주어야 한다 청년기 초반에는 성장속도가 급속히 가속되므로 일생중 가장 많은 영양을 필요로 하는 시기다 따라서 끼니때마다 영양을 골고루 섭취되도록 균형잡힌 식사를 생활화해야 한다 또한 청년기 후반은 성장이 거의 난 시기지만 신체 활동이 가장 왕성하기 때문에 끼니를 거르는 등 불규칙한 식습관이 오래 지속되면 결핵과 같은 질병이 발생할 우려가 있고 신체 각 기관의 기능이 약화되기도 한다 장기에는 지나친 영양 섭취로 인한 비만이 가장 큰 문제로 대두 된다 이 시기의 식사는 소비열량과 섭취열량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활동량이 많은 아침과 점심을 위주로 하고 저녁은 간단히 먹으며 지방이 함유된 식품을 되도록 피하고 단백질 무기질 비타민이 함유된 식품을 위주로 영양 섭취하는 것이 좋다 노년기에는 노화 현상을 막기 위해 과식을 금하고 곡류의 섭취량을 줄이는 대신 단백질 철분 비타민 등이 들어있는 고기의 근육부분과 생선을 많이 섭취하는 것이 좋다

7) 다섯가지 기초식품

균형식사는 사람이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실천해야 할 가장 기초적인 원칙이다 이를 잘 이해하는 것은 그만큼 건강에 도움이 된다 우리 몸에 신체기능이 원활이 유지되려면 몸안에 에너지가 충분히 지속적으로 공급되어야 한다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등이 바로 그것으로 이들 영양소들

은 우리 활동하는데 필요한 힘을 만들어 낸다 그런데 문제는 어떤 식품이라도 우리가 필요로하는 모든 종류의 다 가지고 있는 단일식품은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여러 가지 식품을 골고루 섭취해야 만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편의를 위해서 식품을 영양소의 조성이 비슷한 것끼리 모아서 다섯가지 기초식품군으로 나누고 이들을 매일 식사에 포함시켜 먹도록 권장해 필요한 영양소의 대부분을 음식물을 통해서 섭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 구분(區分)보면 **제1군** : 단백의 주 공급원, 고기, 생선, 알 종류 **제2군** : 칼슘의 공급원 우유 및 유제품 뼈째 먹는 작은생선 멸치 등 **제3군** : 비타민과 무기질의 주 공급원 과일 , 채소류 **제4군** : 탄수화물의 주 공급원 곡류, 감자류 **제5군** : 지방의 주 공급원 기름류, 종실류 등 이것을 참고로 해서 각 식품군이 골고루 포함된 식사를 하게 된다면 우리가 필요로 하는 영양소를 대부분 얻을 수 있다 같은 식품군에 속해 있다 하더라도 영양소를 대부분 얻을 수 있다 단 같은 영양소의 조성이 다양하므로 한가지 식품만 계속 먹기보다는 여러 가지 식품을 다양하게 선택하는 것이 좋다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는 50종이나 된다 이들은 각각 몸안에서 맡은 역할이 있으며 서로 유기적으로 작용한다 잘못된 식습관 즉 과실, 결실, 편식, 으로 인해서 이들 중 한가지라도 부족하면 영양 균형이 깨지고 몸에도 좋지 못한 영향을 주게 된다 특히 영양 섭취의 균형을 위해 하루의 필요량을 아침, 점심, 저녁에 고르게 나누어 먹는 것이 좋은 식사 방법이다 그러나 우리의 식습관 때문에 하루 동안 필요한 식품 섭취량을 하루 3회 나누어 먹기는 어려운 형편이다 습관적으로 장기간 아침식사를 거르게 되면 자연히 저녁에 과식을 하게 된다 그 결과 위에 부담이 커지고 위액이 과다 분비되며 위 운동이 불규칙하게 되어 위산과다 저산증 위하수증 등의 위장질환이 생길 수 있다 건강하려면 하루 세끼의 균형있는 식사를 꼭 지키도록 하자 혹시 아침식사를 하지 않는 습관을 가지고 있으면 자신의 건강을 위해 꼭 아침을 먹는 습관을 갖는 것이 좋다 건강한 몸을 만들기 위해서는 영양상 균형잡힌 식사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단백질 지방 당분 비타민 미네랄 식이성 섬유와 같은 영양소를 지나치게 많거나 부족하지 않도록 적당히 섭취해야 한다 어떤 특정한 섭취하면 오히려 영양의 균형이 무너질 뿐이므로 하루에 되도록 많은 종류의 식품을 조금씩 먹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한걸음 더 나아가 하루에 30가지 식품을 먹는 것이 이상적이다 이렇게 하면 같은 종류의 식품을 섭취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한번에 달성하려고 서두르지 말고 조금씩 나누어 차근차근 목표에 도달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II. 맺는말

우리나라는 동아시아 동부에 돌출한 반도로서 뚜렷한 사계절의 구분과 기후의 지역적 차이가 있어 각 지방마다 식품자원이 다양하게 생산되었다 선사시대라 하여 도구 석기시대에 대한 식생활사에서 다를 만한 자료가 거의 없다 다만 고고학의 도움으로 후기 구석기시대에 타제석기로 자연물을 채취하여 음식을 만들었으리라는 것만 이야기 할 수 있을뿐이다 구석기시대에 이어 석기를 곱게 갈아서 만든 마제석기(磨製石器)와 흙을 빚어 구운 토기(土器)사용을 특징으로 하는 신석기시대가 계속되었다 이 시대 초기 식생활은 수렵과 어업으로 이루어져 있었는데 특히 어업에 의존하였던 우리나라 남해안이나 서해 중부 함경도의 북부 해안지방에서는 많은 조개무지가 발견되었다 신석기시대 후기에 이르러 우리 음식문화 형성 발달의 발단기라고 할 수 있는 곡물 생산이 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선사인들의 유적지인 조개무지에서 총31종의 조개류가 발견되었고 도미, 삼치, 상어 등의 물고기 뼈와 고래, 바다표범, 물개 등과 같은 바다 짐승의 뼈가 발견되고 있어 이들 모두 식품으로 이용되었음을 말해 주고 있다 또한 야생동물들도 식품으로 이용되었으나 부산 동삼동이나 함경북도 농포동 조개무지에서 사슴 멧돼지, 노루, 고리니, 야생개, 산토끼 등의 뼈가 발견되었다 이밖에 도토리, 밤, 마, 칡뿌리 등과 같은 야생식물 등 열매와 뿌리도 발견되고 있어 이들도 식품으로 이용되었다 구석기시대의 주거지 상원읍이나 포전리 점막동굴에서 난방장치가 발견되고 있어 구석기시대 이미 불을 식생활에 이용했을 것을 쉽게 추측할 수 있는 일이나 그 방식을 알 수없다 그러나 신석기시대의 집터에서 어김없이 화덕이 발견되고 있고 화덕주변에는 곡물가 함께 취사도구가 있어 굽거나 찌는 조리방법을 가능케하고 있다 또 곡물을 가는 갈돌이 발견되고 있어 곡물을 갈아 불에 익히는 죽 요리를 의미 한다 결국 죽은 우리나라 곡물 음식의 최초가 되는 셈이다 오늘날 우리 음식은 거주지의 변화 세대 가족의 변화 생활의 레저화 여성의 사회진출이라는 급격한 사회변화속에서 외면당하고 있다 음식을 만드는 과정이 복잡하고 시간이 걸리는데다가 먹기도 버겁다는 이유에서다 대신 조리시간과 먹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이유 등으로 외식산업의 한 업태인 패스트푸드가 크게 각광 받고 있는 실정이다 패스트푸드가 우리나라에 본격적으로 들어온 것은 1986년의 아시안게임과 1988년의 서울올림픽을 계기로 패스트푸드 업자들이 외국의 유명 메이커와 상표 및 기술 제휴를 맺고 우리 국민속으로 파고들면서부터 이다 게다가 불어 닥친 수입개방은 외래 음식문화의 범위를 한층 확대시켜 나갔다 그러나 다행이도 이들 패스트푸드가 비만의 원인이 되고 각종 성인병에도 좋지 않다는 사실이 밝혀짐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다시금 우리 고유의 음식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나아가 외국인들도 우리 음식에 관심을 갖

게 되어 전통비빔밥이 기내식(機內食)으로 선정되는가 하면 우리 음식에 대표적이라 할 수 있는 김치와 불고기가 세계적인 음식으로 크게 각광받고 있다 우리의 것이 세계적인것이란 말이 있다 요즘은 오히려 너무 잘 먹어서 만병(萬病)의 원인이 된다고 한다 예로부터 내려오는 한식(韓食)식 생활을 지켜 건강한 일상생활을 유지(維持)해 나가자

참고문헌

1.식 경	1982년 5월 15일	한국출판사
2.식품과 조리원리	1994년 7월 25일	신광출판사
3.음식의 궁합	1994년 10월 19일	도서출판둥지
4.국사 대사전	1992년 9월 25일	자유문고
5.전통음식	2001년 1월	대원사
6.명절음식	2002년 1월	대원사
7.움식속에 역사	2005년 1월 24일	사계절 출판사
8.한 식	2016년 5월	독립기념관
9.음식의 역사는 인류의 역사	2011년 6월	도서출판다른

京畿鄕土史學(第21輯)

경기향토사학(제21집)

경기향토사학(제21집)

발 행 인 : 염상덕
편 집 인 : 최영주
기　　획 : 박현미
발 행 처 : 경기도문화원연합회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로 178(6층)
Tel. 031-239-1020
Fax. 031-239-3785
인　　쇄 : 2016년 12월 31일
발　　행 : 2016년 12월 31일
인 쇄 처 : 홍익문화사(02-2274-8110)

이 책은 2016년 경기도 보조금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비매품〉
본 지의 내용은 경기도문화원연합회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강범
한성백제의 도성변천 연구

이준용
매초성. 과연 어디인가?

이복재
한말 정미의병의 서울진공작전과 삼산리전투

엄중오
남양주에 잠든 사대부들의 사당을 찾아서

양경직
밀양변씨 공장공파 세장지 향토지명 연구

홍완표
안성의 선비정신과 전통교육기관의 재조명

이병권
시흥시의 한국양명학 연구

윤종준
한국의 봉수 현황

최창근
청주 양문의 포천 입향과 인물

정찬모
18세기 실학사상의 영향과 문체반정의 피해자 이옥

홍정덕
명산도정 묘역 4형제 합정묘의 역사성 연구

최영희
다락원(누원점) 이야기

김장환
도시화에 따른 용인지역 민속의 변화와 과제

이명수
식경